Daishin Financial Group 60년사 발간을 기념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끌어온 Daishin Financial Group이 창립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대신은 지난 60년 동안 금융에서 부동산으로 그리고 종합투자그룹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대신의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故 양재봉 창업자님, 故 양회문 회장님, 그리고 전현직 임직원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2년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Daishin Financial Group은 새로운 시대를 맞아 또 다른 신뢰의 역사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대신은 그룹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원하며, 그룹 명칭을 'Daishin Financial Group'으로 변경했습니다.

새로운 그룹 명칭 'Daishin Financial Group'에는 금융과 부동산을 넘어 새로운 투자를 실행하고, 지속 성장해 나가겠다는 대신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룹의 미션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새로운 미션은 'try Agile ways, create The Value'입니다. 'Agile ways'는 환경 변화에 맞는 유연하고 빠른 실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The Value'는 기본과 원칙을 통한 상생(Harmony), 전문성과 창의성 그리고 도전을 뜻하는 'Expert'를 통해 성장을 추구하고, 최종적으로 그룹이 목표로 하는 영속적으로 신뢰받는 그룹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신의 모든 임직원들은 앞으로 유연하고 빠른 실행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영속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이 된다는 Daishin Financial Group의 Mission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Daishin Financial Group 60년사〉를 펴냈습니다. 〈Daishin Financial Group 60년사〉의 발간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이 사사가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사와 대신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사료로 널리 활용되길 기원하며, 더 나아가 대신이 만들어갈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록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 모든 기록이 Daishin Financial Group을 아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지난 60년 동안 한결같이 대신을 사랑해주고 신뢰를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Daishin Financial Group
회장 이 어 룡

이 어 룡

Daishin Financial Group 60년사

일러두기

구성
- 대신파이낸셜그룹 60년사는 히스토리북과 포토북 2권 체제로 구성했습니다.
- 히스토리북의 통사는 1부와 2부로 구성했으며 1부에서는 1962년부터 2012년까지 50년의 역사를, 2부에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의 역사를 기술했습니다. 현황편에서는 각 사업부문 및 계열사의 현황과 실적, 비전을 아우르며 기록했습니다.
- 포토북은 대신파이낸셜그룹의 현재 위상과 구성원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표기
- 모든 표기는 한글 사용을 우선으로 하고,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각 사업과 관련해 전문 용어와 국가 및 지역명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영문 또는 해설을 병기했습니다. 인명에 따르는 직위 또는 직책은 현재를 기준으로 했고, 필요에 따라 당시의 직위와 직책을 병기했습니다.
- 원고의 가독성을 위해 상품명, 서비스 명칭 등과 관련해서는 한글맞춤법이 아닌 회사의 표기 기준에 맞추어 붙여쓰기를 했습니다.
- 대신파이낸셜그룹은 2022년 6월 20일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그룹명과 본사 사옥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책에서는 명칭은 '대신금융그룹'과 '대신파이낸셜그룹'을 기술한 시대에 맞추어 사용했으며, 본사 건물 명칭도 '대신파이낸스센터'와 'Daishin343'을 시대에 맞추어 사용했습니다.

1부 1962

1962~2010

1장 출범과 성장
1962~1980

1절 초창기 증권시장과 대신증권의 출범 015
2절 명동사옥의 시대 017
3절 전산화 추진과 비약적 성장 019
4절 고난과 극복 021

STORY1962 024
송촌 양재봉(松村 梁在奉) 창업자의 금융 철학

2장 불굴의 도전, 업계 선두로의 부상
1981~1988

1절 위기 극복을 위한 대신의 노력 033
2절 수익의 극대화 036
3절 본사 이전과 전체 사업부문의 역량 발휘 039

STORY1962 046
1979년 9월부터 지금까지 함께 빛나다

3장 금융시장의 변화와 대신의 혁신
1989~1996

1절 대신그룹 선포 053
2절 조직의 정비와 확장 058
3절 증권시장의 침체 극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 062

STORY1962 067
대신구호

4장 IT부문의 혁신과 지속가능경영
1997~2004

1절 건전한 재무구조로 극복한 IMF 외환위기 073
2절 경쟁력 향상과 전 임직원의 역량 발휘 075
3절 손익 중심의 투명경영 체제 정착 079

STORY1962 085
IMF 위기극복 홍보와 사이보스 빅브랜드 만들기

5장 고객과 상생하는 신뢰의 대신
2005~2010

1절 소통과 상생의 경영 093
2절 급변하는 환경과 대신의 혁신 096
3절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극복한 글로벌 금융위기 101

STORY1962 105
양회문 회장의 꿈과 소망

2부 2022

2010~2022

1장 금융그룹으로의 첫 걸음
2010~2012

STORY2022 새 길을 여는 첫 걸음 117
질문 | 자화상 | 신호등

1절 변화를 위한 준비 123
2절 증권에서 금융으로, 업의 확장과 의미 130
3절 창립 50주년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Financial Health Partner' 139

2장 성장 동력의 발굴, 금융그룹의 체제 구축
2013~2014

STORY2022 함께 뛰고 함께 이기는 경기 147
W프로젝트 | 핑퐁 | 함께 뛰고 함께 이기는 경기

1절 비상경영 체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152
2절 소통 경영과 임직원의 전문성 심화 157
3절 그룹 체제로의 본격 행보 163
4절 자산관리 영업을 위한 기반 마련 170
5절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노력 175

3장 변화와 성장, 금융그룹의 체제 강화
2015~2016

STORY2022 논리와 관점으로 차별화된 전략 183
논리와 관점 | 자산관리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하기 | 남다른 안목, 빠른 실행력

1절 자산관리 영업 강화를 위한 전사적 노력 189

2절 고객 중심 온라인서비스 196
3절 브랜드 전략과 디자인 경영으로 기업 이미지 향상 199
4절 계열사의 고른 성장과 역량 발휘 206

4장 대신파이낸스센터, 명동시대의 개막
2017-2018

STORY2022 공간의 변화가 가져온 모두의 성장 215
성동극장에서 중앙극장까지 | 꿈의 도서관 |
공간의 변화, 생각의 변화

1절 새로운 명동시대의 개막과 그 의미 221
2절 그룹 역량의 융합과 차별화된 경쟁력 228
3절 나인원한남, 명품 주거단지의 완성 236
4절 사업다각화를 통한 변화와 성장 241
5절 소통과 공유에 기반한 인재육성 246

5장 금융의 새 시대를 열다
2019~2022

STORY2022 대항해의 시대 253
우연한 충돌, 싹이 움트다 | 찬란한 전통 | 대항해의 시대

1절 증권에서 종합 부동산 금융서비스까지 258
2절 계열사의 괄목할 만한 성과 264
3절 금융사고의 영향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271
4절 차별성과 전문성으로 업계 선도 275
5절 전환의 시대, 특화된 고객 가치 경영 284
6절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290
7절 Daishin Financial Group의 새로운 시작 299

6장 Daishin Financial Group의 오늘
2022

1절 대신증권 307

INTERVIEW343 307
이기는 습관을 갖자 오익근 대표이사

INTERVIEW343 308
사고의 전환, 가능성을 열다 김범철 경영전략총괄 부사장

INTERVIEW343 309
다시 명동에서, 변화와 혁신을 완성하다 송혁 리테일총괄 부사장

IB부문 310
PF부문 312
Wholesale부문 313
Trading부문 315
프라이빗부문 317
WM추진부문 319
디지털부문 321
전략지원부문 322
경영기획부문 324
경영지원부문 326
고객자산부문 328
IT부문 330
Research Center 332
홍보부문 334
리스크관리부문 335
정보보호부문 336
준법지원부문 337
금융소비자보호부문 339
감사부문 341

2절 대신에프앤아이 342

INTERVIEW343 342
본질의 가치에 집중하라 주성균 대표이사

대신에이엠씨 347
디에스엔피엘인베스트먼트대부 348

3절 대신저축은행 349

INTERVIEW343 349
자율과 책임이 주는 자신감 박경제 대표이사

4절 대신자산신탁 352

INTERVIEW343 352
발빠른 시장 대응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업계 선도
김송규 대표이사

5절 대신프라퍼티 359

INTERVIEW343 359
그룹의 역량 집중을 통한 새로운 시장 발굴 이득원 대표이사

탠덤 361
리버빌 363

6절 대신자산운용 364

INTERVIEW343 364
원칙을 지키는 것이 시스템이다 진승욱 대표이사

7절 대신프라이빗에쿼티 368

INTERVIEW343 368
자율과 독립에 겸손함을 더하라 박병건 대표이사

8절 대신경제연구소 372

INTERVIEW343 372
우수한 구성원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다
조윤남 대표이사

한국ESG연구소 376

9절 글로벌 현지법인 379

싱가포르 – Daishin Singapore PTE. LTD. 379
미국 – Daishin America LLC. 380
일본 – Daishin Tokyo Godo Kaisha 381

10절 대신송촌문화재단 382

APPENDIX

역대 대표이사 재임기간표 386
임원 현황 390
조직도 402
Mission 410
CI & BI 411
임직원 변동 추이 412
영업점 현황 414
해외 비즈니스 네트워크 418
연도별 배당금 추이 420
재무상태표 422
손익계산서 434
수상 내역 445
광고 변천 448
연표 467

1부 1962

1962
2010

Daishin Financial Group
60년사

1962 — 1980

1장. 출범과 성장

1절 초창기 증권시장과 대신증권의 출범

1963. 03. 31
삼락증권 제1기 결산서

1969. 12. 30
중보증권 영업허가서

초창기 한국 자본시장과 대신증권의 전신 삼락증권의 설립

한국의 자본시장은 일본의 침략과 6·25 한국전쟁 등 고난의 역사 속에서 뒤늦게 싹을 틔웠다. 증권산업의 기틀이 세워진 것은 한국전쟁이 끝난 뒤였다. 대한증권업협회는 1953년 11월 25일 창립되었고, 대한증권거래소의 정식 설립은 1956년 2월 1일에 이루어졌다.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증권거래법」[1]은 196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대신증권의 전신인 삼락증권은 1962년 7월 27일 자본금 2,000만 원으로 설립되었다. 삼락증권 설립 당시 국내 증권회사는 60여 개에 달했다. 하지만 1963년 초부터 시작된 책동전策動戰 :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매매하여 인위적으로 시세를 급등·급락시키는 행위의 영향으로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을 불신하면서 시황은 침체에 빠졌다. 투매와 폭락의 악순환을 거듭하다가 1966년에는 26개 증권회사만 살아남았다. 삼락증권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 1968년 7월 8일 상호를 중보증권으로 변경했다.

주식 또는 사채社債 발행에 의한 직접금융 조달과 시장육성을 위해 1968년 11월 22일 「자본시장육성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크게 위축되었던 증권시장은 일대 전환기를 맞았다. 이 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이었다.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기업공개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1968년부터 1972년까지 5년 동안 기업을 공개한 회사는 34개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자본시장육성법」을 대폭 개정하여 자본시장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개 대상 법인을 선정해 공개를 명령할 수 있는 「기업공개촉진법」을 1973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면서 1973년 한 해에만 무려 42개 사가 기업을 공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호황을 이어가던 증권시장은 1974년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맞았다. 1973년 10월 중동전쟁 발발로 인한 산유국들의 석유 금수 조치가 세계적인 석유파동으로 번진 것이다. 1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배럴당 2달러였던 유가는 10달러까지 폭등하여 원유 도입에 따른 외화 부담이 늘었고, 무역수지 적자 폭도 그만큼 증가했다. 상승곡선을 타던 경제성장

1 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 1962년 1월 15일 법률 제972호로 제정되어 196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공정한 거래, 원활한 유통 및 거래 과정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기본적 지도이념으로 한다.

률은 절반 수준으로 둔화되었다. 주식시장 환경이 악화되면서 중보증권은 1974년 3월 결산에서 2,4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1974년 5월 31일에는 영업용순자본의 법정금액 미달로 2일간 매매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다. 상황이 자본잠식 상태까지 이르자, 중보증권 경영진은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대신증권의 출범

1975년 양재봉 창업자는 미원그룹 임대홍 회장, 해태제과 박병규 사장 등과 함께 중보증권을 인수했다. 당시 중보증권은 자본금 3억 원의 중소 증권사였고, 회사의 대형화를 위하여 증자가 절실했다. 영업기반 확충을 위해서 영업점의 확장도 필요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들에게 중보증권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고, 신뢰감을 주어야 했다.

새 경영진은 기업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사명을 변경하기로 했다. 1975년 4월 14일 정오에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신증권주식회사大信證券株式會社」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고, 4월 22일에 등기를 마침으로써 대신의 이름이 증권업계에 등장하게 되었다. 큰 「大」와 믿을 「信」으로 이루어진 회사명은 크게 발전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진취적 기상과 고객에게 안심하고 투자자산을 맡길 수 있는 신뢰감을 준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사명 변경 후 영업기반을 확대한 대신증권은 1977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22개의 영업망을 가진 대형 증권사로 성장해 나갔다.

1975년 4월 11일 정부는 「증권회사 대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증권회사를 대형화시켜 공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대신증권도 기업을 공개하기로 하고, 1975년

1975. 05. 12
대신증권 1호 영업점인 중앙지점 개점

1975. 05. 01
대신증권 현판식

1975. 09. 30
기업공개 요건확인 임시주주총회

7월 12일에 보통주 2억 원, 8월 29일에 보통주 5억 원, 9월 3일에 보통주 5억 원, 그리고 9월 28일에 우선주 5억 원을 공모하여 자본금 20억 원에 이르는 대형회사의 면모를 갖추었다. 1975년 10월 1일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시킴으로써 기업공개에 따르는 제반 업무를 마쳤다. 대신증권의 기업공개는 중보증권을 인수하고 7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상장사로서의 공신력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신증권 사원 66명으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이 1975년 9월 1일에 결성되었다. 9월 9일 대신증권 이사회는 우리사주조합의 결성을 승인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자금지원안을 승인했다. 9월 11일 한국투자공사에 우리사주조합 지주관리 위탁신청서를 제출했고, 9월 12일에는 대신증권주식 1억 원임창욱 주주 소유분 10만 주을 매입했다. 이로써 우리사주조합은 대신증권의 기업공개에 일조를 담당하게 되었다.

2절 명동사옥의 시대

업계 첫 자가사옥 마련

대신증권은 임직원 수가 늘고, 업무가 많아지면서 보다 넓은 사무실이 필요해졌다. 자본금이 25억 원에 불과하던 1975년 당시 대신증권의 힘만으로 사옥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았다. 양재봉 창업자가 전무로 근무했던 대한투자금융도 대신증권과 비슷한 처지였다. 이러한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양재봉 창업자는 사옥 공동구입 방안을 고심했다. 마침 정부에서 금융시장의 중심지이며 우리나라 문화, 예술의 중심인 명동의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던 구舊국립극장의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양재봉 창업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매입을 준비했다. 대우 등 대기업들도 이 건물의 매입에 참여했지만, 결과는 대신증권의 승리였다. 대신증권은 철저한 보안을 유지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대신증권과 대한투자금융이 입찰에 참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1975년 11월 27일 21억 1,1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신증권은 증권업계 최초로 자가사옥을 갖게 되었다. 국립극장의 건물은 그대로 둔 채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내부수리가 필요했다. 정일건축이 설계를, 대림산업이 시공을 맡았다. 내부수리 공사에

는 5억여 원이 소요되었다. 대신증권은 당초 계획대로 대한투자금융과 사무실을 균등 분할하고 지하층 95.9㎡에 금고, 1층 443.0㎡에 영업부 및 영업담당 임원실, 2층 552.1㎡에 총무부, 인수부, 서고, 3층 443.0㎡에 사장실, 임원실, 기획실, 여직원 탈의실, 4층 244.6㎡에 조사부, 전산실, 교환실을 두고 강당과 식당은 공동 사용했다.

1976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54번지의 명동사옥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같은 해 10월 25일 저축의 날에는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최우수 저축기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려 경사가 겹쳤다.

대신증권은 1977년 10월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증자해 대형 증권사로 위상을 확립했으며, 인수 당시 10여 명에 불과하던 직원은 1975년 9월 업계 최초의 공개채용 실시 등을 통해 1977년 상반기에 300여 명에 이르렀다. 대신증권 경영진은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난 조직과 인력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사훈을 새로 만들었다. 기존의 사훈은 '근면성실, 친절봉사, 창의개발'이었는데 양재봉 창업자의 제안에 따라 1976년 9월 1일 부르기 쉽고 정감어린 한글로 변경해 '정답게, 참되게, 새롭게'라는 새로운 사훈을 공표했다. 또한 명동사옥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계기로 대신증권은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회사 상징물에 대한 선정 작업을 추진했다. 전 사원을 대상으로 〈상징 동물 및 꽃〉에 대한 현상모집도 실시했다. 그 결과 1977년 5월 대신증권의 상징물은 증권시세의 강세를 의미하는 '황소'와 희망을 나타내는 '해바라기'가 선정되었다.

한편, 50억 원으로 자본금 증자가 완료된 직후인 1977년 10월 17일에는 양재봉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증자 후 대신증권은 '대신증권은 우리의 50억 원보다 당신

1976. 09. 13
명동사옥(舊 국립극장 자리)으로 이전

1976. 09. 01
대신증권 사훈 제정

1977. 11. 11
신설동지점 개점식

1980. 07. 07
전국 지점 온라인 자동화 기념식

의 1원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합니다'라는 광고 문안을 통해 고객에게 겸손하고 고객의 자산관리 위임자로서 소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널리 알렸다.

영업망 확장에도 주력했다. 1977년 전국의 대신증권 지점 수는 총 22개로 이중 9개가 서울에, 13개가 지방에 있어 증권거래의 주요 무대인 서울지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이에 서울지역의 지점망을 확대해 영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가능성이 높은 청계·신설동·낙원동·세운·잠실 지역을 지점신설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11월 17일 위 5개 지역의 개점을 완료했다. 영업점이 27개로 증가되면서 서울과 지방의 구성도 서울 14, 지방 13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추진력에 힘입어 대신증권은 실적 향상에 박차를 가하면서 증권업계에 돌풍을 일으키게 되었고, 정상을 향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3절 전산화 추진과 비약적 성장

업계를 선도한 전산화 추진

대신증권 출범 초창기의 증권시장은 주식투자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상장종목 수와 거래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전산을 이용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방식이 요구되었다. 이에 1976년 5월 20일 대신증권은 업무의 전산화 작업에 착수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전산 터미널을 이용한 기초 계산업무의 전산처리를 개시했으며, 이것이 증권업계 최초의 전산화로 기록된다. 전산 처리 업무가 증가하면서 모든 업무의 전산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77년 양재봉 사장이 취임하면서 자체 컴퓨터의 도입을 추진했다. 1978년 1월에 전산실을 신설해 도입할 기종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2월에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도입기종은 HP-3000/II로 약 23만 달러에 달하는 파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당시 업무 전산화는 업무시스템 개선과 고객서비스를 위해 추진된 것이었다. 아울러 업무 전산화를 통해 박황 사건과 같은 창구사고를 발견하거나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영여건이 어려운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대신증권은 1978년 12월 자체 전산시스템을 가동시켰고, 1979년 3월에는 12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여 전산 기능을 보강했다. 또한 정확하고 신속한 시세정보서비스를 위해 1979년 9월

영업부에 시세전광판을 설치, 가동시켰으며 1980년 7월에는 전국 지점을 온라인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당시 전산 불모지였던 업계 내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이후 대신증권이 업계의 전산화를 선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대신의 비약적인 성장

대신증권 출범 당시의 유통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기업공개 촉진정책과 채권시장 육성책 등에 힘입어 주식, 채권 양 부문에서 모두 활발한 거래를 보였다. 이 기간 중 주식 약정대금을 보면 업계 전체가 1977년에 이르러 1974년 대비 668.5%의 신장세를 보였다. 대신증권은 업계 전체의 성장률보다 5배나 높은 3,551.3%의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주식 점유율에 있어서도 1974년 1.9%이던 것이 계속 높아져 1977년에는 9.0%를 달성하여 업계 2위로 부상했다. 채권거래에 있어서도 1977년에는 업계 전체가 1974년 대비 4,045.2%가 증가하는 급격한 신장세를 보였고, 대신증권은 그보다 8배나 높은 3만 4,231.3%의 신장세를 기록했다. 이러한 비약적인 성장은 경영진과 직원들의 단합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대신증권은 발행시장부문에서도 뛰어난 실적을 올렸다.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확보와 소득의 공정한 재분배라는 정부 시책에 따라 대신증권에서도 경영전략의 하나로 인수·공모부문에 과감한 투자를 추진해 나갔다. 그 결과 기업공개 실적은 1975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다가 1977년에는 14건을 공개해 점유율 22.2%로 업계 2위를 기록했다.

채권인수주선부문에서도 대신증권은 1975년 8.7%의 점유율에서 1977년에는 29.6%라는 놀라운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업계 2위로 부상했다. 대신증권의 인수 공모부문의 성장세는 당시 증권업계의 경이적인 기록이었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공개를 하려면 대신증권으로 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이처럼 대신증권은 출범 초기부터 돌풍을 일으켜 1977년에 이르러서는 업계 2위의 증권사로서 전성기를 누렸다.

1978. 01. 18
전산실 신설

1979. 09. 10
영업부 시세전광판 설치 가동

1977. 05. 07
전국 부점장 회의

4절 고난과 극복

박황 사건과 양재봉 사장의 사임

대신증권을 고난과 시련에 빠뜨린 '박황 사건'은 1978년 대신증권 영업부장이었던 박황 씨가 고객 돈을 횡령한 대형 금융사고였다. 박황의 비위 사실을 인지한 대신증권의 경영진은 이의 회수를 독촉하는 동시에 1978년 1월 21일 증권감독원에 사고발생 보고를 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양재봉 사장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4개월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거액의 사재를 대위변제금액으로 서슴없이 내놓았다. 사건발생 후 1개월여 만에 박황 사건은 수습되었지만, 1978년 2월 27일 제1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양재봉 사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에서 물

1978. 02. 27
박황 사건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는 양재봉 사장

러났다.

증권감독원의 특별감사 결과 박황 사건은 증권업계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고의 종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박황 사건과 같은 사고는 대신증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증권업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다만 박황 사건은 당시까지 발생한 사고금액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고, 피해자도 100여 명 이상에 이르는 대형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당국은 고객예탁금의 인출·유용을 방지하고 예탁금의 변칙운용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을 개정하고, 1978년 4월 1일부터 증권회사에 예치된 위탁자예수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일괄 예치하게 했다. 박황 사건으로 인해 대신증권은 1978년 2월 27일부터 3월 26일까지 약 1개월간 거의 모든 업무에 대한 영업정지를 받았다.

이후 대신증권의 경영난은 심화되었다. 당시 거래실적을 보면 1980년 전체 주식시장의 주식거래량은 1977년 대비 29.4%가 증가했는데, 대신증권은 7.6% 증가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대신증권의 17기1978년 12월, 18기1979년 12월, 19기1980년 12월 결산기 손익상황을 보면 17기에 14억 4,200만 원의 특별손실로 당기순손실이 11억 9,100만 원이었고, 18기에는 1억 6,900만 원의 특별손실로 3억 7,500만 원의 적자를 보였으며, 19기에는 3억 3,300만 원의 특별손실이 계상되었다.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에 의한 영업용순자산도 부족한 형편이었다. 1978년 하반기에 들면서 증권시장의 침체까지 지속되자 대신증권은 경영난 타개를 위한 고육책으로 대신인의 긍지였던 명동사옥을 대한투자금융에 양도했으며, 적자점포를 중심으로 영업점 폐쇄를 추진했다. 1979년 3월 5일 속초출장소, 9월 20일 인천지점, 10월 11일 순천지점, 1980년 7월 7일 군산·경주·목포지점, 1981년 1월 7일 남창동·저동·신설동·대구서지점이 폐쇄됨으로써 전국의 영업점 수는 20개로 줄어들었다.

역경 극복을 위한 전사적 노력

경영난 속에서도 대신증권은 직원 교육과 우수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1978년 5월 3일 직원들의 회계학 교육을 위한 실시 공문이 내려졌고, 책임자를 포함한 전 직원이 주산 4급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게 주산교육도 실시했다. 각종 증권관련 규정에 관한 교육도 수시로 이루어졌다. 1978년 6월 1일에는 직원들의 근무평가에 공정을 기하고, 자질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인사고과에 반영하기 위해 종합근무평정규정에 의한 인사고과를 시행했다. 같은 해 6월 17일에는 책임자 승격자격고시를 치렀으며, 시험과목은 증권법규, 증권투자론, 증권회계, 업무처리 실무 등 4과목이었다. 이 자격고시는 1979년 4월 1일 4급 승진시험으로 규정화되었다. 이는 증권업계에서는 처음 실시된 제도로 자질있는 인재를 책임자로 승격시킨다는 대신증권의 확고

1978. 05. 27
제2회 부서장 연수

1979. 04. 01
4급 승진시험

한 목표에 따른 것이다. 직원들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사회 각계의 저명인사를 초빙, 매월 정기적으로 교양강좌도 개최했다. 또한 전 책임자들의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리자 능력개발 연수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포함한 전 직원의 증권지식 함양을 위한 종합연수를 실시했다. 당시 확립된 교육 과정은 지금까지 이어져 「직원 교육은 대신」이라는 전통을 세우게 되었다.

박황 사건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회사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1978년 6월 임원의 영업점 담당제를 실시했다. 이 제도는 영업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영업을 독려하는 한편, 경영방침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건의사항을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1978년 8월 23일에는 창구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지침을 시달하여 자기앞수표로 인한 창구사고를 예방했으며, 1979년 7월 4일에는 직원들의 기강확립을 위한 세부행동지침을 전달했다. 세부행동지침은 직원들의 근태문제, 고운말 사용,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 담당업무의 철저한 교육, 상호 협동심 함양, 근검절약하는 생활습관, 창구응대 등 근무자세 확립을 위한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철저한 사고예방 대책과 근무자세 확립은 박황 사건에 따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신증권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아래 이루어졌다.

STORY
1962

송촌 양재봉松村 梁在奉 창업자의 금융 철학

"금융도 역사의 자양분을 먹고
그 바탕 위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바위 밑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풍란과 같이
온갖 고초를 이겨낸 후에야
비로소 금융산업도 강해질 것이다."

—
송촌 양재봉 창업자 자서전 〈더불어 사는 인생〉 중에서

송촌 양재봉 창업자는 1925년 전남 나주 송촌리에서 부친 양홍철梁弘哲과 모친 허예덕許禮德의 2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집안 대대로 농사를 지었고, 부농에 속해 가세는 넉넉한 편이었다. 양재봉 창업자는 농군이었던 부친으로부터 근검절약하는 생활과 성실한 태도를 배웠으며, 이는 일생에 가장 큰 가르침이 되었다. 나주의 대정보통학교를 다녔던 시절에는 여름방학에 수박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자전거를 사기도 했는데 이때의 경험이 처음으로 재리財利에 눈뜨는 계기가 되었다. 보통학교를 졸업한 양재봉 창업자는 수재들만 모이는 목포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경쟁률은 15대 1이 넘었고, 당시 함께 입학한 22기 동기 중에는 김대중 前 대통령도 있었다.

양재봉 창업자는 1943년 2월 목포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졸업자도 합격하기 어려운 조선은행한국은행의 전신 입행 시험에 합격했다. 1944년 1월 10일 남대문로에 있는 조선은행 본점 영업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당시 순경 월급이 33원이었던 반면, 조선은행 신입행원의 월급은 군수 월급에 해당하는 80원이 넘는 수준이었다. 입행하여 3개월은 연수를 겸해 정사整査 : 지폐를 세어 묶는 일를 했다. 연수가 끝날 무렵 치른 중국어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양재봉 창업자는 입행한 지 10개월 만에 중국 서주徐州지점으로 발령을 받았다. 해방을 맞을 때까지 난징南京에서 근무하며 경력을 쌓았다. 2차 대전 종전 말기에는 일본군에 징집되는 고난을 겪기도 했고, 해방 후 중국에서 나오는 과정에서는 귀국하는 동포 80여 명과 함께 소형 화물선을 탔는데, 태풍을 만나 식량과 물이 떨어진 배에서 굶주림을 견디며 사선을 넘었다.

공부에 부족함을 느끼고 전남대학교 상학과에 뒤늦게 입학해 1955년 졸업한 양재봉 창업자는 금융업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못하고 1955년 8월 다시 조흥은행 행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입행했다. 이후 한일은행으로 이직 후 청량리지점장으로 부임한 1971년 4월에는 9억 원에 불과했던 예금계수를 1년 반 동안에 4배인 36억 원까지 올려놓는 역량을 과시했다.

1973년 초 정부에서 투자금융회사 설립 구성안을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오래 전부터 금융업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던 양재봉 창업자는 임대홍 미원그룹 회장, 박병규 해태제과 사장과 함께 3인 대주주 형태로 대한투자금융을 설립했다. 1974년 10월 제1회 한·일증권간친회에 특별 참가자로 초청되어 일본의 금융시장을 둘러본 그는 향

양재봉 창업자의 조선은행 근무시절

1973. 대한투자금융 설립

2008. 05. 15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

1999. 03. 16 대신송촌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

후 '금융시장의 주역은 증권회사'라는 것을 직감했다. 특히 동경에 소재한 '노무라종합연구소NRI'의 선진적 체계에 깊은 인상을 받고 귀국한 그는 증권업 진출을 서둘렀다. 그러나 정부에서 증권회사의 신규 설립은 허가를 하지 않았다. 고심 끝에 인수를 통한 창업으로 방침을 선회한 양재봉 창업자는 마침내 1975년 자본금 3억 원의 중보증권을 인수했다. 이때 인수에 참여한 주주는 양재봉 창업자를 비롯해 임대홍 미원그룹 회장, 박병규 해태제과 사장, 김은주 삼강산업 사장, 서형렬 이천물산 사장 등이었다. 이들은 1975년 4월 14일 정오에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명을 '대신증권주식회사大信證券株式會社'로 변경할 것을 결의했고, 4월 22일에 등기를 마침으로써 '대신'의 이름이 증권업계에 처음 등장했다.

'금융보국'의 신념

양재봉 창업자는 대한민국 증권업계 1세대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는 금융과 시대의 흐름을 읽는 혜안이 탁월했고, 금융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닌 경영자로서 남다른 존경을 받았다. 평소 직원들에게 늘 "금융산업은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스스로 전문 금융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자 일생동안 부단히 노력한 진정한 금융인이었다. 부침浮沈이 심한 증권업계에서 그는 고비를 만날 때마다 타고난 금융감각과 결단력을 발휘하며 위기를 극복했다.

'금융보국金融報國'의 신념 아래 60여 년 동안 금융 외길만을 걸으며 자본시장 발전을 이끌었던 양재봉 창업자에게는 자신만의 확고한 경영철학이 있었다. 바로 '큰 믿음'과 '동업자 정신'이다. 대신증권이라는 이름에도 '믿음'에 대한 그의 철학이 반영되었다.

"이 회사에 종업원은 없습니다. 다만 동업자가 있을 뿐입니다." 양재봉 창업자는 '집을 지을 때에는 반드시 대들보가 필요하지만, 서까래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목'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러한 '동업자 정신'에 따라 대신증권에서는 모든 직원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도 양재봉 창업자는 선도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최초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대신송촌문화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성적순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과 달리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집안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했다.

2010년 6월 20일, 대신증권 창립 48주년에 참석한 양재봉 창업자는 '대신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슴 깊이 새기고, 대신인의 역량을 집중시켜 업계를 대표하는 실적을 거양하고, 매사 동업자 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전진해 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이 자리는 양재봉 창업자와 대신증권 임직원들이 공식적으로 만난 마지막 자리였다. 불과 6개월 뒤인 2010년 12월 9일 송촌 양재봉 창업자는 향년 8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영결미사는 12월 11일 명동성당에서 열렸고, 가족과 임직원, 재계 인사들이 참석해 영면을 기원했다. 양재봉 창업자는 대신송촌문화재단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경제광장

大信증권 梁在奉 사장

1989. 06. 07
화제의 경제인 양재봉 사장 기사(조선일보)

「내가 사망하여 대신그룹 소속 기업들로부터 받을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위 재단대신송촌문화재단에게 유증한다. 위 재단은 이 돈을 지급받는 즉시 대신증권주식회사의 의결권보통주식을 매입해서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시키도록 하라.」

양재봉 창업자는 대신송촌문화재단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영재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모두 기증하고, 이 돈으로는 대신증권의 주식을 사게 함으로써 대신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마지막까지 몸소 실천했다.

Daishin Financial Group
60년사

1981 — 1988

2장. 불굴의 도전, 업계 선두로의 부상

1절 위기 극복을 위한 대신의 노력

양재봉 사장의 재취임

박황 사건 이후 대신증권의 경영이 걷잡을 수 없이 어려워지자 주주와 임직원들은 양재봉 사장의 재취임을 간곡히 권유했다. 사임한 지 3년 만인 1981년 2월 27일 대표이사직에 복귀한 양재봉 사장은 대신증권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전 임직원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981년 3월 19일 재취임 후 첫 번째 열린 부서장회의에서 사시社是「인재제일주의」,「준법합리주의」,「이익극대화」를 제창했다.

1980년 증권시장은 오랜 침체로 인해 창구사고가 빈번했는데 이는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에 결정적인 저해요소였다. 증권업계 전체로 볼 때 1980년 한 해 동안 창구사고로 인하여 문책을 받은 사람이 234명에 이르렀다. 창구사고를 줄이기 위해 증권업협회는 감사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전화주문 녹음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에 양재봉 사장은 1981년 4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청평에서 열린 부서장회의에서「우리는 대신, 대신은 우리, 자기매매 뿌리 뽑아, 우리자신 지키자」라는 대신구호를 제정하고 임직원의 단결된 힘으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자고 당부했다. 곤경에 처한 회사의 상황을 재인식하고 임직

1981. 02. 27
양재봉 대표이사 취임식

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 아래 임직원들이 구호를 숙지했다. 업무 시작 전과 회사의 모든 행사 시에 제창하고, 고무인을 제작해 대내 문서에 날인했다.

대신증권은 그 동안 증시침체와 함께 각종 사고로 실추된 대외 이미지를 쇄신하고 대내적으로 직원들의 애사심을 함양하기 위해 새로운 심볼 제정작업에 착수했다. 1981년 6월에 현상공모를 시도했으나 당선작이 없어 당시 그 방면의 권위자로 알려진 홍익대 권명광 교수에게 심볼의 제작을 의뢰하여 같은 해 7월 16일에 완성되었다. 심볼의 기본형태는 대신의 「ㄷ」자와 「ㅅ」자를 상징하고, 기본형의 상하 구성은 정답고 참된 기업정신을 반영했으며,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비조飛鳥를 상징했다.

시장의 변화와 경영전략의 수정

1982년부터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다. 증권시장도 자본시장의 국제화 발표 및 정부의 산업자금조달 촉진정책으로 규모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다. 주식시장은 1978년 이후의 침체국면에서 벗어나 활기를 띠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대신증권은 1981년의 경영계획을 수정하기로 하고, 1981년 3월 16일 1차 수정작업에 착수하여 4월 30일 경영계획 수정안을 확정지었다.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약정고부문에서는 대신증권의 점유율을 7.2%에서 9.2%로 높였고, 인수주선부문도 9.2%로 조정했다. 손익부문은 수년 동안 불황 속에서 누적되어 온 경영상의 부실요인을 척결하고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회사의 내실을 튼튼히 다지고자 9,9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 목표를 낮추어 잡았다.

자본시장 자유화에 따른 수용태세의 확립을 위한 첫 단계로 증권당국이 1982년 말까지 7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한 증권회사에 한하여 인수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본금 규모를 상향조정함에 따라 대신증권은 하반기 들어 다시 경영계획을 수정해야 했다.

상반기 손익실적이 이미 목표를 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손익목표는 1차 수정목표인 세전순이익 5억 9,300만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대신증권은 당시 회사의 지상과제였던 증자를 대주주에 의해서가 아닌 직원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 보자는 결의로 전사적인 경영쇄신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각종 영업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경영쇄신 운동과 주인의식 고취

만성적인 적자와 악화된 상품구조, 사고에 따른 특별손실 등으로 인해 대신증권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고,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져 있었다. 위기를 극복하고자 고심한 끝에 경영진은 '100일 구두쇠 작전'을 제안했다. 1981년 2월 27일부터 6월 6일까지 전개된 100일 구두쇠 작전의 근본목적은 정신자세 개혁, 생산성 제고, 낭비풍조 배격, 사행행위 근절, 인화단결로 요약된다. 경영진은 접대비를 대폭 축소하고 골프를 중지하는 등 경비절감에 솔선수범했다. 직원들도 시내 출장 시 버스타기, 커피 마시지 않기, 도시락 지참하기 등 아주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이 작전에 적극 동참했다.

'개미작전'은 1981년 10월 1일부터 추진되었다. 전 직원의 영업 요원화를 위한 교육이 증권투자, 채권인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실시되었다. 총 6개월에 걸친 '개미작전'의 결과 이익규모가 제20기1981년 1월 ~ 1981년 12월 세전순이익 36억 3,200만 원, 제21기1982년 1월 ~ 1982년 3월 세전순이익 13억 2,600만 원 수준에 이르렀다. 이로써 대신증권은 자본금의 증자 및 채권시장의 국제화 추세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증권업계의 선두주자로 부상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1981년 2월 27일 취임사에서 모든 임직원이 한가족처럼 화목하게 인화를 도모하는 대화합의 장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는 양재봉 사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강조하며 대화합의 의지를 실천하고자 했다. 대화합 운동을 통한 임직원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우선 징계 직원에 대한 일반사면을 실시했다. 이는 대통령령 제10194호1981년 1월 1일 「일반사면」 및 대신증권 취업규칙 제63조 1에 의거한 것으로, 사면 대상은 1970년 7월 12일 이후부터 1981년 2월 27일 이전에 면직 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 했다. 일반사면의 효과로는 징계의결요구권 상실, 징계처분의 효력상실이었고, 징계처분에 따라 받은 각종 불이익의 적용이 중지되었다.

1981년 5월 19일부터는 매주 월요일 오후에 개최되는 임원 및 서울시내 부서장 회의의 내용을 각 부서별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교육을 실시해 전 직원이 일체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인의식 고양과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1982년부터는 출근부를 폐지하고 근무상황 주보로 대체하게 했으며, 같은 해 여름에는 대신증권 최초로 하계휴양소가 대천해수욕장에 설치되었다. 임직원의 화합을 위한 테니스 대회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되었다. 대신증권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전 임직원의 협동의식과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야간산악훈련도 실시했다. 1982년 8월 9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경기도 청평소재 청우산에서 실시된 이 야간산악훈련에서는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었으며, 대신의 도약을 위한 대신가족 일체감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1982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대신증권 창립이래 처음으로 여직원만의 합숙연수를 통해 예절교육과 30km 행군이라는 극기훈련을 실시했다.

1981. 07. 16
대신증권 심볼 및 로고타입

1982.
제20기 정기주주총회

1981. 02.
100일 구두쇠 작전철

1981. 10.
개미작전 관계철

1982. 08. 09
야간산악훈련(청평)

이와 같은 주인의식 고취와 대화합의 장을 통한 임직원의 일치된 노력은 대신의 재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2절 수익의 극대화

적극적인 영업 전략의 전개

1982년 80억 원으로의 증자를 마치고, 1983년을 맞이한 대신증권은 업계 선두로의 재도전을 위해 「정상대신, 인화대신, 복지대신」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영업체제 강화에 주력했다. 1983년 4월 23일 각 부·지점에 시달된 제23기 경영활동 활성화 방안은 영업점 활성화에 저해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적극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영업전략 측면에서는 유통시장의 침체에 따라 발행시장에 중점을 둔 영업정책이 지속되었다. 정부가 우량기업의 기업공개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의 하나로 당시 증권회사별로 지정된 주식공모 주선제도를 1983년 7월 1일부터 완전 자유경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대신증권도 3월 25일에는 기업공개 간사 주선 및 회사채 발행 유치 가능회사 명단을 전 영업점에 통보했다. 이어 6월 14일에는 기업공개가 가능한 우량지정 등록법인 67개 사를 발표하는 등 발행시장부문의 실적향상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7월 15일부터는 중소기업 회사채 주선 유치 캠페인을 실시했다. 상장기업 및 중소기업 1,000개 사를 대상으로 주택채권 물량확보와 법인고객 확보를 위해 채권 매도권유 안내문을 발송했다.

1983. 04. 09
「정상대신, 인화대신, 복지대신, 실현을 다짐하는 제23기 경영전략회의

1983. 06. 10
명동 시황속보판 재가동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했다. 1983년 6월에는 대신증권 명동 본사 앞에 시황속보판을 재가동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주가현황을 제공했다. 시황속보판은 일반 대중에게 증권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 명동의 명물로 큰 호응을 받았다. 1984년 2월부터 1985년 1월까지 매일경제신문에 시리즈로 돌출광고도 게재했다.

우수 영업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대신증권은 영업점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을 1981년과 1983년 두 차례에 걸쳐 대폭 개정했다. 이때 적용된 평가기준은 적극적인 영업정책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평가항목에서는 순이익부문의 배점을 늘리고 환매부문을 새로운 평가항목으로 추가해 회사 손익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 평가방법에서는 실적 최고 지점을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함으로써 영업점 간의 경쟁을 유도했다.

1984. 04. 07
제24기 경영전략회의

환매조건부매도채권 1,000억 원 돌파

환매조건부매도채권, 위탁자예수금 증가운동은 1983년 하반기와 1984년에 걸쳐 대신증권이 집중적으로 실시한 수익제고 방안 중 하나였다. 1983년 11월 당시 대신증권의 영업수지는 겨우 적자를 면한 상태였으며, 21개 영업점 중에서 7개 점포가 적자였다. 대신증권 영업수지에 가장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위탁자예수금은 20억 원대에 머물러 있었다. 환매채권도 9월 27일 275억 원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11월 25일에는 175억 원에 머물렀다. 회사의 경영기반 내실화를 위해서는 가장 양질의 자금인 위탁자 예수금이나 환매채권의 증대로 안정적인 자금원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1983년 11월 24일, 각 부서장들은 영업전략회의에서 자체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액을 설정하고, 12월 1일부터 '환매증가 60일 작전'을 개시했다. 이 작전은 1984년 1월 28일 기준 환매잔고 248억 원, 예수금잔고 94억 원으로 각각 41%, 96%의 신장률을 나타내어 회사수익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60일 작전이 끝난 후 환매 실적은 다시 하향추세를 보였다. 7월부터 다시 '환매예수금 및 환매증가 90일 작전'을 개시했으나 뚜렷한 실적증가는 없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1월 12일에 환매이율이 최고 12.7%로 상향조정되어 환매가 타 금융상품보다 유리한 투자대상으로 떠올랐다.

대신증권은 이때를 기회로 기존 90일 작전에 이어 '환매 1,000억 원 돌파 캠페인'을 시작

해 1985년 3월까지로 정하고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기한이 채 되기도 전인 1985년 2월 7일 목표 1,000억 원을 돌파하는 실적을 기록해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1984년 10월의 환매평잔 114억 원에서 불과 3개월 만에 10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전 임직원이 합심한 결과였으며, 대신인의 저력을 새삼 확인하는 쾌거였다.

순이익 1위 고수와 자본금 200억 원 증자

대신증권은 박황 사건의 사고손실처리로 1980년 12월까지 결손을 면치 못하던 손익 상황을 1년만인 제20기1981년 1월 ~ 1981년 12월에는 세전순이익 36억 3,200만 원의 흑자를 시현하여 배당까지 실시했다. 이후 세전순이익을 살펴보면 제21기1982년 1월 ~ 1982년 3월에 13억 2,600만 원, 제22기1982년 4월 ~ 1983년 3월에 25억 2,200만 원, 제23기1983년 4월 ~ 1984년 3월에 22억 5,800만 원, 제24기1984년 4월 ~ 1985년 3월에 28억 4,600만 원으로 5년 연속 1위 자리를 고수했다.

순이익 1위 달성은 대신증권 사시의 하나인 「이익극대화」라는 영업방침 아래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였다. 당시 고금리 추세와 채권시장의 확대 움직임을 전망하고 채권에 대한 집중투자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금리 급변동으로 인해 큰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는 대신증권을 기사회생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업계 선두기업의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다. 1983년 10월 25일에는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최우수 저축기관상'을 받기도 했다.

1983년 자본시장 기능확충 방안인 「7·18 조치」가 발표되었다. 「7·18조치」는 증권회사의 손익 기반을 개선하고 대형 증권회사를 육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증권회사의 대형화 정책을 계기로 대신증권을 비롯해 대형증권사들은 200억 원의 자본금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1984년 대신증권을 비롯하여 대우, 동서, 럭키, 쌍용 등 5개 사가 200억 원의 자본금을 갖추었다. 대신증권의 자본금 200억 원 달성을 위한 증자에는 특히 우리사주조합이 큰 기여를 했고 1983년 9월 1일 직원들의 출자로 조성되어 있던 사내 저축기금까지 참여함으로써 200억 원으로 자본금을 확충한 대신증권 전 임직원들의 보람은 더욱 컸다. 이 기금을 통해 대신증권 주식을 취득한 직원들은 후일 주가의 상승으로 재산형성에 큰 도움을 받게 되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설립

대신증권은 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객에게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신경제연구소의 설립을 추진했다. 1984년 5월 9일 대신증권 이사회에서는 가칭 주식회사 대신경제연구소의 주식 취득에 대한 결의를 했고, 이어 6월 20일에는 창립준비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시켰다. 이에 따라 대신경제연구소의 창립일은 1984년 6월 20일로 정해졌다.

1983. 10. 25
최우수 저축기관상 수상(재무부장관)

1984. 09. 22
대신경제연구소 현판식

대신경제연구소 창립준비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경제연구소의 설립까지는 3개월의 준비기간이 소요되었다. 먼저 당시 대신증권의 조사부 기능이 경제연구소로 이관됨에 따라 대신증권과 연결된 상품주식운용, 전산, 국제부문 등 여러 가지 직제상의 문제를 조정했다.

1984년 7월 13일 대신증권의 비상장 유가증권에 대한 취득승인과 양재봉 사장의 연구소 이사 겸직에 대한 승인을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았다. 같은 해 9월 11일에 양재봉 사장을 비롯한 7명의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 9월 17일 대신증권의 전액출자로 2억 원의 주금을 한일은행 명동지점에 예입함으로써 주금납입을 완료했으며, 회사 설립등기를 마쳤다. 같은 날 창립총회를 열어 이사에 양재봉, 이찬일, 양호철, 감사에 양회문이 각각 선임되었다. 이사회에서 양재봉 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대신경제연구소 초창기 기구를 보면 주주총회와 이사회, 사장, 이사 밑에 조사연구부, 투자고문부, 기획부의 3개 부서를 두고 조사연구부에 경제조사과, 금융조사과, 산업조사과, 증권조사과의 4개 과가 있어서 3부 4과의 직제를 갖추었다. 5급 사원부터 1급 연구원까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직원 24명이 근무했고, 별도 감사가 회계에 관한 검사 업무를 담당했다.

정관상 사업목적은 ① 국내외 경제, 자본시장 및 기업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② 투자 및 경영고문 업무 ③ 신용조사 및 용역의 제공 ④ 자료 및 도서출판 업무 ⑤ 위 각호에 부수하는 일체의 업무 등이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대신증권의 브레인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투자자에게는 고급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 대신경제연구소 설립은 대신그룹의 첫 번째 계열사 탄생으로, 훗날 대신파이낸셜그룹으로 발전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기반이 구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절 본사 이전과 전체 사업부문의 역량 발휘

여의도 시대의 개막과 창립기념일의 변경

증권업계의 여의도 시대가 계획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책에 따라 증권 관계기관의 여의도 이전 계획이 수립되었고, 증권업계는 여의도에 증권센터를 건립할 목적으로 1974년 1월 21일 서울시로부터 2만 9,332㎡의 대지를 공동 매입

했다. 대신증권을 비롯한 13개 증권사는 건축연면적 15만 8,347㎡의 증권센터 공동 건축계획을 수립해 1978년 4월 26일 미관 심의를 거쳐 같은 해 6월 2일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1981년 7월 증권센터 부지가 학교부지 선정 대상지로 지정됨에 따라 증권센터 건립은 물거품이 되었다. 증권센터 건립계획이 백지화되면서 대신증권은 여의도동 34-8번지에 자체적으로 사옥을 건축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공간의 최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대신증권은 소유 대지와 인접해 있던 신영증권의 소유분인 1,200㎡을 합하여 내부설계는 달리하되 외형상은 한 건물로 건축하기로 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1983년 12월 16일 상량식이 거행되었으며, 1985년 5월 28일 준공했다. 마침내 6월 20일, 대신증권 신축사옥 준공 및 본사 이전 기념식이 열렸다. 여의도 사옥으로의 이전은 대신증권의 역사상 중대한 전환점으로 받아들여져 1986년부터 회사의 창립기념일을 7월 27일에서 여의도 시대의 개막일인 6월 20일로 변경했다.

대형화를 위한 체제 구축

여의도 시대를 맞이해 대신증권은 내실을 다지기 위한 체제정비를 실행했다. 1985년 9월 28일 유창순 前 국무총리의 대신경제연구소 회장 취임은 대신증권의 체제정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한국은행총재, 상공부장관, 무역협회회장, 한국적십자사총재 등 정·재계 주요 요직을 역임한 바 있는 유창순 前 국무총리의 대신경제연구소 회장 취임은 당시까지만 해도 취약했던 증권업의 위상과 관련해 업계와 재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1985. 05. 28
여의도 신축사옥 준공

1985. 06. 20
본사 이전 기념식

1985. 09. 28
대신경제연구소 유창순 회장 취임

1985. 02. 18
압구정지점 개점

1987. 03. 23
명동지점 이전

1987. 08. 28
대신전산센터 현판식 후 테이프 커팅

1985년 5월 13일 개최된 대신경제연구소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양회문, 최세환, 안길룡 등 세 명의 임원이 새로 선임되었다. 이같은 임원진의 보강은 업계의 대형화 추세와 자본시장 개방에 대비한 사전 대응조치였다. 신임 양회문 이사는 종합기획실 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업계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회사 내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조직·관리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대신증권은 1984년 법인영업부, 인수부, 단자부, 국제부로 이어지는 본사 영업부서의 체계를 확립했고, 1985년에는 2월 18일 압구정지점 신설, 5월 28일 명동지점 신설로 총 26개의 지점으로 구성되는 일선 지점망을 구축함으로써 영업체제 전반을 새롭게 정비했다. 1986년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본사 전 영업부서와 영업점에 대해 실시되었던 사장임점은 이같이 새롭게 구축된 영업체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 점검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행되었다.

1984년 이후 당국의 지점신설 억제 정책과 증권시장 침체 여파로 증권사의 영업점 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 대신증권은 이 시기를 영업력 강화를 위해 내실을 다지는 시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영업점의 대형화와 현대화를 위한 조치와 영업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다. 소규모 영업점 시대를 벗어나 1985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영업점의 대형화 작업은 1985년 4월, 제25기와 더불어 시작된 대형지점제도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대형지점제도는 당시 영업부, 중앙, 충무로, 영동, 명동지점 등 5개 지점이 지정된 후 1986년 제26기가 시작되면서 신촌, 덕수, 영등포, 중앙청지점 등 4개 지점이 추가 지정되어 총 9개의 지점으로 운영되었다.

1985년 3월 31일 기준 대신증권 직원 수는 총 507명이었다. 1986년 이후 활황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인력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1988년 3월 31일에는 1,001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1988년 11월 16일 발표된 증권회사 경영자율화 확대방안에 따라 영업점이 급격히 증가한 1989년에는 폭발적으로 직원 수가 증가했다. 1989년 3월 31일 기준 직원 수는 전년동기 대비 704명이나 증가해 7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1990년까지 이어져 대신증권은 총 2,418명의 직원을 확보함으로써 초대형 증권회사로서의 위용을 갖추었다. 직원 수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위해 1987년 8월 1일 인사부를 독립부서로 신설, 인사과와 연수과로 분리해 인재의 모집과 함께 연수를 통한 직원의 자질향상에 큰 비중을 두었다.

대신증권은 국내 증권산업 전산화의 선두주자로서, 신속하고 과감한 전산설비에 대한 투자와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1987년 8월 28일 대신전산센터를 설립했다. '전산 대신'의 명예는 1987년 12월 23일 가동한 IBM 3090-120E 시스템 도입으로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IBM 3090-120E 시스템은 당시 몇 안 되는 금융기관에서만 보유하고 있던 초대형 전산 시스템이었다. 한발 앞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대신증권은 축적된 정보데이터를 기반으로 DIAMOND 시스템과 대신 핫라인HOT-Line 시스템을 선보였다. 이러한 대신증권의 투자정보 서비스는 영업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고, 증권산업 정보화에도 선도적 역할을 했다.

대신증권은 1980년대 들어 본격화된 증권전산의 업무개발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업무전산화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1985년부터 1987년까지 기업공개 업무, 증권저축업무를 비롯한 많은 업무의 전산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1987년 12월 초대형 IBM 3090-120E를 도입한 대신증권은 이를 바탕으로 더욱 업무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1988년 2월 8일 업계 최초로 'BMF 온라인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개가를 올렸다. 1월 5일부터 11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개발팀이 약 1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개발한 시스템이었다.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BMF통화채권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은 대신증권의 전국 어느 지점에서나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의 질적향상은 대신증권 BMF 판매실적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1988년 8월 기존 HP시스템에서 IBM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전환한 대신증권은 1989년 2월 1일 증권저축 온라인을 개통함으로써 증권저축업무의 완전 전산화를 실현했다. 증권저축업무는 1988년까지도 원장 및 통장정리를 수기로 처리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한편, 이중주문 및 미수금 발생 등 업무처리에 여러 장애요인이 발생하고 있었다. 대신증권의 전산화 구축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여의도 시대의 개막을 계기로 업계 정상을 차지한다는 목표를 세운 대신증권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확립을 위해 1985년 5월 20일부터 '황소 100일 작전'을 시작했다. 황소 100일 작전은 기존의 캠페인이 특정 영업부문을 대상으로 펼쳐진 것과는 달리 전 영업부문에 걸쳐 실시되었다.

1984년 3월 30일 증권관리위원회에 의해 「증권회사 지점신설 및 폐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지점 신설이 자율화되었다. 이에 대신증권은 증권투자저변 확대를 위해 지방을 중심으로 영업점 신설에 주력했다. 1988년 기준 29개였던 대신증권의 영업점 수는 1989년 8월, 55개로 늘어났다.

한편, 1986년 11월 27일 대신종합개발금융1987년 1월 23일 '대신개발금융'으로 사명 변경, 1987년 8월 28일 대신전산센터, 1988년 3월 24일 대신투자자문 등의 계열사들이 설립되면서, 금융그룹으로의 면모를 갖추었다.

1988. 02. 08
BMF 전국온라인 개설

1989. 02. 01
증권저축 온라인 가동

업계를 선도하는 대신증권의 위상

1980년대 중후반 '3저 현상'의 호재와 포항제철을 시작으로 한 국민주國民株의 보급은 증권시장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1988년 주식투자 인구는 무려 70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7%를 차지하는 수준까지 급증했다. 농촌 지역에도 주식투자 붐이 확산되고, 소액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개미군단'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1989년 8월 24일 시가 총액이 91조 1,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국내 증권시장은 세계 10위권의 시장으로 부상했다.

1988년 11월 16일 재무부는 「증권회사 경영자율화 확대방안」을 발표해 일정 요건만 갖추면 증권회사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지점설치, 배당 및 증자업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율화했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은 33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한 지 하루만인 1989년 3월 31일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를 단행했다. 무상증자로 기명식 보통주 330만 주, 기명식 우선주 330만 주가 각각 발행되어 총 330억 원의 준비금이 자본금으로 전입되었다.

이 증자로 대신증권은 자본금 1,650억 원의 초대형 증권회사의 위용을 갖추었으며, 1962년 창업 이래 자본금 면에서 업계의 정상을 정복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평소 회사에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주주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던 양재봉 사장의 결단에 따라 1989년 5월 30일 대신증권은 18%의 고율로 주식배당을 실시했다.

제24기1984년 4월 ~ 1985년 3월 업계 4위와 5위를 유지했던 유통시장부문의 주식약정 실적과 발행시장부문의 회사채 인수실적이 불과 4년 후인 제28기1988년 4월 ~ 1989년 3월에는 업계 2위와 1위를 각각 기록하면서 1980년대 후반 대신증권은 놀라운 영업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1988년

11월 24일에는 월간 주식약정 1조 519억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월간 주식약정 1조 원을 돌파하는 신기원을 이룩했다. 한편, 채권약정부문에서는 제24기 시장점유율 10.9%로 업계 3위를 유지했지만, 제28기에는 시장점유율 1.1%로 업계 5위를 기록했다. 이는 채권거래가 주로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장외거래 위주로 이루어지는 특수성 때문이었다.

1985년 이후 기업의 여유자금 투자 대상으로 증권시장이 각광을 받으면서 법인영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대폭적인 자본금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자기자본 규모가 크게 증가한 증권사들은 자사 상품운용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대신증권은 주식투자의 대중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회사 이미지 제고를 통한 수익기반 확충을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회사이름의 훈과 음을 따라 '큰 大 믿을 信'이란 문구를 회사의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로 방송하기로 했다. '큰 大 믿을 信'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가를 발휘하여 광고효과 조사기관에서 집계하는 '잊혀지지 않는 광고 20선'에 선정되는 등, 대신증권의 홍보뿐 아니라 증권업계에 대한 일반의 이미지를 높여주는 데도 커다란 공헌을 한 증권업계 홍보 역사상 가장 값진 캐치프레이즈로 빛나고 있다.

1987년 이전까지 대신증권의 홍보는 주로 신문, 잡지, 팜플렛 등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85년 6월에는 자본자유화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일본경제신문 한국특집판에 광고를 게재했는데, 이 광고는 1986년 9월과 1987년 5월에도 계속되었다. 1986년에는 5월에 기업홍보용 VTR을 사내용과 사외용으로 구분해 제작했다. 9월에는 아시안게임 폐막식 관중용 햇빛가리개 8만 개를 제작, 배포했다.

1989.
유통시장 주식약정고부문 업계 2위 탈환 우수 영업점 시상

1988.
해외광고

옥외광고

1986. 02. 24
86년 경제대강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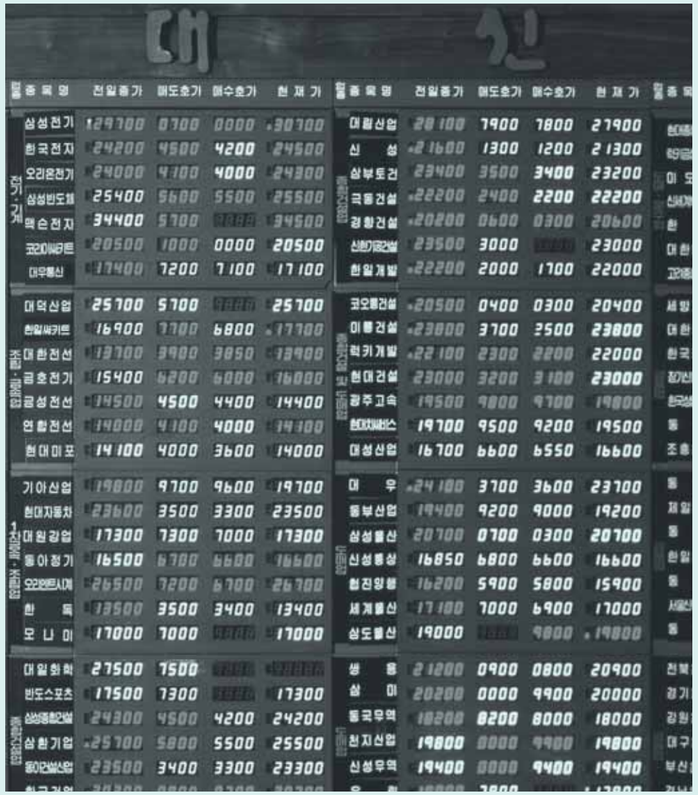
1987년 들어서 대신증권은 10월에 방송광고 개시와 더불어 옥외광고물을 신규로 설치하는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대신증권 최초의 옥외광고물은 4월 24일 계약을 체결한 고속도로 일기안내기였으며, 천안휴게소와 추풍령휴게소에 설치되었다. 신문광고에서는 9월부터 매일경제신문 돌출광고가 이듬해 9월까지 게재되었고, 1988년 6월부터 1989년 3월까지는 서울신문에도 돌출광고가 게재되는 등 활기를 띠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신증권은 각종 투자설명회를 활발하게 개최했다. 1986년 2월의 경제대강연회를 시작으로 매년 초에 개최되었던 대규모 강연회는 대신증권 투자설명회의 중심을 이루었다. 1987년부터는 신춘대강연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개최되어 지방 투자자들에게도 정보 획득의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강사진도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 부사장 등의 저명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대신증권과 대신경제연구소의 임직원도 함께 참여했다.

해외사업부문에서도 대신증권은 업계를 선도했다. 국제영업의 전초기지로서 해외에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결정하고 1984년 5월 업계 최초로 해외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았다. 대신증권은 첫 해외사무소로 동경사무소 개설을 추진했다. 동경사무소에 이어 뉴욕사무소가 1985년 6월 3일 개설되고, 런던사무소가 1986년 6월 20일 개설되는 등 해외영업의 교두보가 확보되었다. 동경, 뉴욕, 런던 등 3개의 해외사무소를 설치한 대신증권은 세계 주요 금융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함은 물론 선진금융기법 및 제도 습득, 선진 자본시장에 대한 정보 및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1987년 7월 정부가 증권회사에 대해 1,000만 달러 한도에서 외화 보유를 허용함에 따라 국내 증권회사의 해외증권투자가 시작되었다. 대신증권의 해외증권투자는 1988년 2월 24일 The Thai Fund Inc. 보통주 1만 주를 12만 달러에 인수, 보유한 것이 최초의 기록이다.

STORY
1962

1979년 9월부터 지금까지 함께 빛나다



1979년 9월, 명동 대신증권 본사 영업장은 이른 아침부터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평소에도 투자자들로 꽉 차는 대신증권의 영업장이었지만, 유독 인산인해를 이룬 이유는 '시세전광판'의 등장 때문이었다. 반짝, 숫자들이 별처럼 떠오르는 순간, 사람들은 탄성과 환호를 보냈다.

"저렇게 많은 종목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네."

"그러게요. 근데 저 숫자들이 다 맞는 거겠지요?"

"그렇고말고요. 여의도 증권거래소 입회장에 있는 시세판이랑 똑같은 거랍니다. 아직 다른 증권사에는 없고, 여기 대신증권에만 있대요."

주식 시세전광판은 1979년 7월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입회장에 처음 선보였고, 불과 2개월 뒤인 1979년 9월 증권회사 '1호 시세전광판'이 대신증권 본사 영업장에 등장한 것이다. 시세전광판은 여의도 증권거래소의 전광판과 직접 연결해 같은 시간에 매도, 매수, 호가 및 시가 등이 나타나도록 설계되었고, 당시 수록 종목은 260여 종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시세전광판의 출현 전에는 벽면을 채우는 대형 칠판에 분필로 시세를 적는 것이 일반적인 증권사 영업장의 풍경이었다.

시세전광판이 설치된 이후 대신증권 명동사옥 객장은 매일 아침 사람들로 꽉 찼다. 사실, 대신증권의 명동사옥은 시세전광판의 등장 전부터도 투자자들에게 사랑받는 장소였다. '주식투자자들의 베이스캠프', '명동 사랑방'으로 불렸다. 우선 건물 외관부터 남달랐다.

"명동 국립극장 알지?"

이 말 한 마디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찾아왔다. 설령 초행인 사람이라도 명동 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국립극장 건물을 물으면 알려주는 '랜드마크'였다.

증권업계 최초의 자가사옥이자 대신인들의 자랑이었던 첫 명동사옥은 현재의 명동예술극장[2]이다. 명동예술극장은 1936년 10월에 '메이지좌'라는 이름으로 개관했고, 해방 이후에는 국립극장으로 사용되었다. 국립극장이 남산으로 이전하면서 그 비용을

2 1993년부터 명동상가번영회 임원과 예술인들이 국립극장 되찾기 운동을 벌였는데, 1994년 대한투자금융이 외관은 유지하던 이 건물을 헐고 새 사옥을 짓겠다고 해 문제가 되었다. 대한투자금융이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퇴출되면서 계획은 취소됐다. 이후 현대투자신탁증권 등이 임대하다 1999년부터 문화관광부로부터 보존건물로 지정받았고, 2004년에 이를 다시 매입하여 2009년부터 극장으로 복원했다.

명동예술극장

마련하기 위해 1975년 정부가 민간에 내놓았다. 당시 대우그룹 등의 신흥 재벌그룹을 포함한 대기업들은 국립극장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욕심을 내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결과는 전혀 뜻밖이었다. 대신증권과 대한투자금융의 공동 투자, 입찰 금액 21억 1,100만 원이었다. 낙찰 결과가 발표된 이후 경쟁사들은 2배 가격에 되팔라는 제안을 해올 정도로 이 건물에 집착을 했는데, 그 이유는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높은 빌딩을 세우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립극장의 주인이 된 대신증권은 건물의 외관은 그대로 둔 채 리모델링 과정만 거쳐 1976년 9월에 입주했다. 당시로는 드물게 1층에 넓은 객장을 마련해 고객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다. 명동은 서울의 서울로 불리면서 문화와 예술뿐 아니라, 1922년 경성현물취인소가 자리잡으면서 금융 중심지로 발전했다. 특히 은행보다는 증권사와 어음할인업자도 많아서 한때는 기업들의 제2의 자금조달처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금융의 중심인 명동에서도 한복판에 위치한 대신증권 명동 본사는 그야말로 증권시장의 대명사였다. 주식 장세도 확인하고, 중요한 약속을 잡고 식사를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기에도 좋았다.

전산화를 업계 선두로 일구어낸 대신증권은 1980년 7월에는 전국 대신증권의 영업점 전체를 온라인시스템으로 구축했다. 전산 불모지였던 증권업계에서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며, 이를 신호탄으로 증권업계의 전산화는 급속히 이루어졌다.

1980년대 중반, 정책에 따라 여의도로 증권사들이 이전하면서 대신증권도 1985년 여의도로 터전을 옮겼다. 여의도에서도 대신증권의 1층 영업장에는 시세전광판이 설치되었다.

원래 여의도 사옥의 1층은 은행에 임대를 주어서 수익을 거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경영진은 우리 건물의 1층은 우리 직원들이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덕분에 여의도에서도 대신증권 1층 영업장은 증권 사랑방 역할을 제대로 했다.

증권 관련 뉴스가 보도될 때마다 등장하는 배경 화면은 거의 어김없이 대신증권 여의도 사옥의 영업장 풍경이었다.

시황판을 바라보는 고객들, 종목별 붉은색, 파란색 표시가 선명한 전광판. 여의도에 위치해 각 방송사에서 가깝기도 하고, 높은 천장과 널찍하게 꾸며진 플로어, 대형 전광판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기에는 안성맞춤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영업부 입구에는 고객들에게 방해가 되니 촬영은 오후 4시 이후에 해줄 것을 당부하는 안내 문구까지 붙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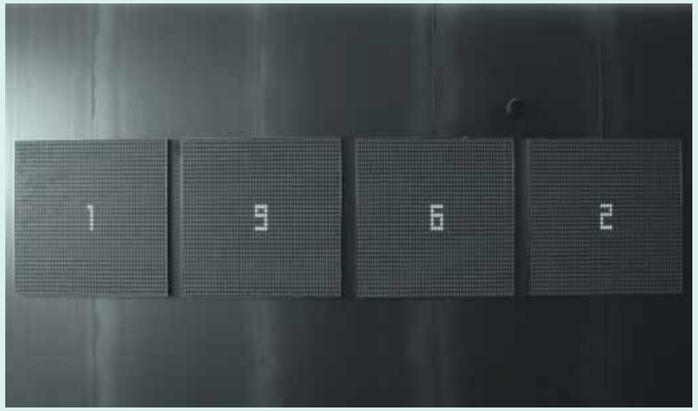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어느덧 대신증권 시세전광판은 여의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형 시세전광판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트렌드에 따라 대부분의 증권사가 전광판을 철수했다.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홈트레이딩과 모바일트레이딩이 활성화되고,

증권 사랑방 역할을 했던 대신증권 여의도 사옥 1층 영업장

2016. 12. 23 시세전광판 운영종료

주식투자에서 자산관리로 증권업계의 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내방고객들의 수가 감소하게 된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대신증권은 업계 1호 시세전광판이라는 상징성, 고령투자자의 투자편의성, 언론취재용 공간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전광판의 불을 끄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 12월 명동으로 본사를 이전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운영중단을 결정했다. 마지막 남은 '국내 1호' 주식 시세전광판은 2016년 12월 23일로 대신증권 임직원과 고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불이 꺼졌다.



예술 작품으로 바뀐 시세전광판 1962

대신증권에 남은 마지막 시세전광판은 증시가 급변동할 때마다 객장 풍경을 담기 위한 언론사 취재용으로 자주 활용되었기에 이날 마지막으로 시세전광판의 철수 장면을 촬영하던 기자들을 비롯한 많은 임직원과 고객들이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이런 마음을 헤아렸을까? 부품을 재활용해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난 시세전광판은 지금 이 순간에도 Daishin343의 3층에서 대신인과 함께 빛나고 있다.

Daishin Financial Group
60년사

1989

3장. 금융시장의 변화와 대신의 혁신

1996

1절 대신그룹 선포

1986. 12. 15
대신종합개발금융 창립식

1991. 01. 07
대신전산센터 광명 신사옥으로 이전

계열사 설립을 통한 외적 성장

대신증권은 1984년 대신경제연구소의 설립에 이어 1980년대 후반 금융과 연계된 계열사를 연이어 설립하며 사세를 확장해 나갔다.

대신종합개발금융은 1986년 11월 27일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경영지도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대신종합개발금융이 설립된 시기에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각되었고, 정부는 1986년 5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제정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탄생한 대신종합개발금융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20억 원이었으며, 초대 대표이사에는 박동희 사장이 선임되었다. 대신종합개발금융은 종합금융회사가 아니면 회사명에 '종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87년 1월 23일 대신개발금융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대신개발금융은 1989년 12월 29일 자본금을 100억 원으로 증자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여력을 넓혔다. 1987년 10월에는 대신첨단산업투자조합 1호에 이어 1990년 7월 1일에는 대신첨단산업투자조합 2호를 결성했다. 결성총액이 50억 원인 투자조합 2호는 1호와 달리 외국법인이 조합원에 포함되어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반을 외국에까지 확대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

대신전산센터는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룹 전산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미래 전략사업인 정보통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1987년 8월 28일 설립되었다. 자본금은 10억 원이었으며, 초대 대표이사에는 양회천 사장이 선임되었다. 대신전산센터는 1991년 1월 7일 광명 신사옥으로 이전했고, 같은 해 7월 12일에는 신규사업 확장 및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자본금을 31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늘리는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대신전산센터는 1992년 10월 2일자로 대신정보통신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대신투자자문現 대신자산운용은 한국자본시장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종합적인 고객자산 관리를 위한 종합금융그룹 구축의 기업이상을 성취한다는 목표로 1988년 3월 24일 설립되었다. 4월 1일 영업을 개시한 대신투자자문의 주요 업무는 투자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투자조언, 증시제반 여건 분석, 기술적기본적 분석에 의한 최적의 포트폴리오 제공이었다. 설립자본금은 10억 원이었으며, 초대 대표이사에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인 정수영 박사가 선임

되었다. 1989년 7월 29일 자본금을 50억 원으로 대폭 증가함으로써 회사의 수익기반을 확충했다. 이후 자산운용에 대한 폭넓은 전문지식을 축적한 대신투자자문은 1993년 10월 26일 조직을 대폭 강화했다. 이후 정부로부터 투자신탁운용업을 허가받음으로써 새로 투신업에 진출하게 되면서 1996년 7월 12일 사명을 대신투자신탁운용으로 바꾸었다.

대신생명보험은 1988년 7월 25일 양재봉 사장을 대표로 발기인 총회를 갖고 납입자본금을 100억 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1989년 4월 15일 「금융전업가중치 20%, 개인출자16%, 지방본사16%, 출자능력16%, 경영능력16%, 출자의 건전성16%」이라는 내허가 기준으로 대신생명보험을 비롯한 6개 전국 규모 생보사 설립을 허가했다.

대신생명보험은 1989년 5월 11일 여의도 사옥 7층에 개설준비사무국을 설립하고, 회사 설립준비에 들어갔다. 대신증권 창립 27주년인 1989년 6월 20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초대 대표이사에 양재봉 대신증권 사장이 취임했다. 대신생명보험은 '건전한 재산형성과 종합적인 생활보장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경제와 복지사회 증진에 기여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1989년 8월 17일 재무부로부터 본허가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27일 서울에 20개, 지방에 2개의 영업소를 갖추고 전국 규모 신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최초로 영업을 시작했다. 대신생명보험의 총자산은 영업개시 5개월 만에 1,000억 원을 넘어섰고, 1992년 2월에는 5,000억 원을 돌파했다.

1988. 03. 24
대신투자자문(주) 설립 현판식

1989. 10. 27
대신생명보험 영업개시

1990. 05. 14
최초 대신그룹 경영전략회의

1990. 05. 28
대신그룹 연수원 준공

1990. 07. 20
대신송촌문화재단 현판식

대신그룹 선포

본격적인 계열사의 설립에 따라 양재봉 사장은 1990년 신년사를 통해 그룹체제의 출발을 공식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1990년 5월 26일 대신증권 29기 주주총회 후 열린 이사회에서 그룹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양재봉 대신그룹 회장 취임식은 1990년 5월 28일 대신연수원 개원식과 함께 거행되었다.

한편, 대신그룹은 금융산업의 진정한 자산은 인재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자체 연수원을 마련했다. 우수한 인재발굴과 양성을 위해 영등포구 대림동의 건물을 1988년 12월, 52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 지하 2층, 지상 5층의 매입건물은 개조공사를 통해 기존의 5개층 내부 용도 변경과 6, 7층의 증축이 이루어졌다. 연수원 개원에 앞서 연수조직의 정비도 이루어졌다. 1990년 1월 4일 인사부 연수과를 연수부로 확대 독립해 연수담당부서 조직을 강화했다. 1990년 5월 28일 문을 연 대신연수원은 강의실, 숙박시설, 휴게실, 식당 외에도 어학실습실, 전산교육실, 체력단련실 등을 갖추었다.

대신연수원의 개원에 이어 1990년 1월 3일 증권업계 최초의 문화재단 설립도 추진했다. 장학 사업을 꾸준히 지원해온 양재봉 회장은 1990년 1월 대신그룹의 출범과 함께 문화재단 설립을 구체화했다. 1990년 7월 2일 서울시 교육위원회로부터 설립인가를 취득하고 7월 20일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대신송촌문화재단이 탄생했다.

기업문화 활성화

동업자 정신에 바탕을 둔 경영철학은 1980년대 후반에 업계 최고의 급여수준과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실현되었다. 업계 최고의 인재들이 「정상대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업계 최고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1986년 4월 1일에 15% 급여 인상을 단행했다. 그 다음 해인 1987년 7월 1일에도 15% 급여 인상이 이루어져 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고무시켰다.

1988년 9월 20일에는 사상 유래가 없을 30% 급여 인상이 있었다. 30%의 파격적인 급여 인상은 제28기1988년 4월 ~ 1989년 3월에 유통시장부문의 주식약정고와 발행시장부문의 회사채 인수실적부문에서 업계 2위와 1위를 각각 기록하는 등 놀라운 영업실적을 달성한 결과였다.

이러한 대신증권의 높은 영업실적은 전 임직원이 노력으로 거둔 결실이었다. 이 시기에 정기적인 급여 외에도 수차례 특별상여금을 지급했고, 근로자의날과 어린이날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했다. 업계 최고 수준의 급여와 특별상여금 지급은 대신증권 임직원들에게 동업자 정신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심어주었다. 1989년 10월 16일 경제전문지인 〈신평비즈니스〉에 실린 「'89 리쿠르트 조사」에서는 대학생들의 '인기직장 베스트15'에 증권회사로서는 유일하게 대신증권이 8위에 올랐다.

대신증권은 업계 선두기업의 위상을 확보하면서 기업문화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매월 1회 개최되던 대신증권 복지위원회에서는 사내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사보를 발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사보 〈대신가족〉은 1987년 9월 30일 창간되었고, 1988년 2월 6일 문화공보부에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었다. 사보는 종합기획실이 중심이 되어 창간을 준비했으며, 초창기 발간된 사보는 4×6배판 규격에 30페이지로, 총 1,000부가 발행되었다. 사보 발간은 종합기획실 홍보과에서 주관했고,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격월간 발행되어 배포되었다.

대신증권 임직원들의 내 집 마련이 개인 복지뿐만 아니라 업무생산성을 높이는 등 회사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판단아래 1987년 8월부터 제1차 대신증권 직장주택조합 설립이 추진되었다. 대신증권은 주택조합 조합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해 줌으로써 직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했다. 1988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총 4억 5,100만 원의 자금이 지원되었다.

대신그룹은 1990년 1월 그룹 출범을 계기로 대신 전 임직원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정신적 구심점을 확립하고, 격변하는 환경에 맞는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고유의 기업문화를 정립해 나갔다. 1990년 2월 기업문화개발 프로젝트팀을 발족시키고, 1990년 5월에는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기업문화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1991년 3월 기업문화 추진협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실무추진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내 의식 설문조사와 외부인 대상 대외이미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직원에 대한 의식 조사는 1991년 7월 부서별로 실시되었고, 대외이미지 조사는 1991년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 도시에서 연령, 계층별로 1,800명을 선정해 실시했다. 조사 후 실무추진팀은 2개월의 작업을 거쳐 1991년 10월 조사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했다.

1987. 09. 30
사보 〈대신가족〉 창간호

1991. 10. 19
기업문화 워크숍 분임토의

1991. 06. 17
대신그룹 기업문화 설명회

분석 결과 대내적으로는 조직 활성화와 종업원의 사기앙양, 그룹의 비전 제시가 중요과제로 대두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증시침체와 한국경제의 성장둔화에 대한 대안 제시가 주요 과제였다. 또한 직원들은 혼합적, 분권적 의사결정을 원했으며, 직원채용에서는 인품을, 승진에서는 능력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급여는 연공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근로의욕 고취와 직결된 요인으로는 복리후생을 꼽았다. 이상적인 경영이념으로 「고객신뢰」, 「합리주의」, 「창의혁신」, 「인재제일」을 제시했다.

1991년 10월 19일 대신그룹 전 임원은 대림동 대신연수원에 모여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조를 편성하여 대신그룹 비전 설계와 임원의 역할개발을 위한 분임토의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임원들은 「세계 제일의 종합금융그룹」을 대신그룹의 비전으로 정했으며, 세부 비전은 '고객제일주의', '탁월한 상품과 서비스개발', '인간존중'으로 결정되었다.

대신증권 기업문화개발 프로젝트팀은 전 임직원의 제안제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제도를 강화했다. 포상기준을 세분화해 개별포상과 종합포상으로 나누었으며, 종합포상에는 상금뿐 아니라 포상휴가까지 부여했다. 1인당 1년에 1건이라는 제안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문제로 지적된 기존의 제안처리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관부서에 권한을 부여해 즉시 시행이 가능하게 했고, 경미한 제안은 위원회 심사 없이 처리될 수 있게 조치했다.

2절 조직의 정비와 확장

지역본부장제 실시와 트레이딩본부 탄생

1989년 초 29개에 불과하던 대신증권 영업점은 「영업점 설치 자율화 조치1988년 12월 9일」로 1989년 말에는 거의 2배에 가까운 54개로 증가했다. 영업점의 증가에 따라 중앙집권적인 경영에서 자율 및 책임경영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이에 대신증권은 지역본부장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룹 출범을 계기로 대신증권은 1990년 1월 4일 6명의 이사를 새로 선임하고 전국 54개 영업점을 우선 서울지역과 지방으로 구분했다. 서울은 강남과 강북으로, 지방은 동부와 서부로 나누었다. 초기 4지역본부로 시작된 대신증권의 영업조직체계는 1994년 강서지역본부, 1997년 중부지역본부가 신설되면서 6개 지역본부체계로 전환되었다.

자본시장 개방으로 해외 자본시장과 연계성이 높아지고, 기관투자자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신증권은 트레이딩본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0년 7월 종합기획실장을 중심으로 4명의 실무책임자에게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트레이딩본부 운영상황을 살펴보게 했다. 주요 국가의 트레이딩본부를 둘러보고 온 실무책임자들은 트레이딩본부 설립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했다.

1991. 05. 20
트레이딩본부 확대 개편

1991. 07. 16
기업 인수·합병(M&A) 세미나 개최

1단계로 1990년 11월 1일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7부 16과로 구성된 트레이딩본부가 탄생했다. 기획관리부, 주식부, 조사분석부, 투자정보부, 채권부, 법인1부, 법인2부로 구성된 트레이딩본부는 대신증권 국제화의 기수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트레이딩본부의 탄생으로 매매관련 부서들이 한곳에 모여 실질적인 업무협조 체제가 원활해졌고, 정보의 집중화로 체계적인 정보관리도 가능해졌다.

2단계로 1991년 5월 20일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확대·개편된 트레이딩본부가 여의도 사옥 9층에 문을 열었다. 연면적 총 1,001.7㎡에 5억여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트레이딩본부는 영업점 객장에서나 볼 수 있는 시세전광판과 시황속보판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트레이딩본부의 조직도 확대 개편했는데, 법인사업부를 편입하고 국제영업부가 설치되어 트레이딩본부는 총 9개 부서로 운영되었고, 조사분석부 명칭을 투자분석부로 변경했다. 인원도 기존 72명에서 150여 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업계 최초의 M&A 업무 개시

대신증권은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에 기여하기 위해 1988년부터 M&A팀을 두어 종합적인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업무를 시행했다. 1988년 12월 27일 식료품 제조업체인 일본의 다이헤이大平그룹으로부터 국내기업 중 합병 또는 합작 가능업체를 알선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국내 식료품 제조업체인 한중물산과의 합작을 주선해 주었다. 이는 사실상 국내 최초의 M&A였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정식 M&A 업무인가가 없어 본격적인 M&A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1991년 3월 재무부는 M&A 겸영업무인가를 신청하라는 공문을 대한증권업협회에 발송함에 따라 대신증권은 1991년 4월 1일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1991년 5월 1일 업계 최초로 M&A 주선업무 겸영인가를 획득했다. 대신증권은 본격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1991년 5월 M&A 사업위원회를 설치했다. 이후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1년 6월 24일 양회문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M&A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영업점 사옥 신축

대신증권은 1980년대 후반 사옥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사옥의 신축은 사세를 확장하고, 보다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높았던 점도 사옥 신축의 배경이 되었다. 이 시기에 영업점 신축부지로 최초 매입한 곳은 울산사옥 부지였다. 지하 2층, 지상 5층의 울산사옥은 1989년 4

월 28일 완공되었다. 총 42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연면적 6,112.4㎡의 울산사옥은 영업점 신축사옥 1호를 기록했다.

울산사옥 준공 이후에도 증권업계 영업점 설치 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사옥신축은 계속 추진되었다. 1989년 8월 31일에는 마산사옥이 영업점 신축사옥 2호로 준공되어 대신증권 마산지점이 1989년 9월 25일 이전했다.

1989년 10월 12일 명일동사옥이 완공되어 서울에서도 영업점 신축사옥 시대가 전개되었다. 1989년 10월 17일 서울에 개포사옥, 부산에 동래사옥이 준공되었는데 개포사옥은 청석스포츠센터를, 동래사옥은 새동래예식장을 매입해 영업에 맞게 개조한 사옥이었다. 1989년 11월 22일에는 두 번째 부산사옥이 완공되어 대신증권 부산지점이 1989년 12월 23일 개점했다. 1990년대 들어서도 사옥준공은 계속되었다. 1990년 3월 전주, 5월 대림동, 8월 송탄, 12월 광명, 1991년 1월 무등, 9월 강남, 대구서, 청주사옥이 준공되었다. 특히 대림동사옥에는 대신연수원이 개원했고, 광명사옥으로는 대신전산센터가 이전했다. 광명사옥은 증권업계 최초로 인텔리전트 빌딩 개념을 도입, 컴퓨터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의 원활한 공급 및 보조설비의 자동화를 이룬 초현대식 건물이었다. 1991년 9월에 준공된 강남사옥으로는 대신생명보험 본사가 10월 21일 이전했다.

국내 증권업계 최초 런던 현지법인 설립

대신증권은 1989년 초 런던 현지법인Daishin International (Europe) Ltd. 설립을 본격화했다. 1986년 이미 런던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한 대신증권은 자본시장 개방에 대비해 선진 금융기법을 습득해 금융업무의 선진화를 이루고, 국제업무의 다각화를 통해 수익원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진출을 원할 경우 은행과 합작형태를 통해 나갈 것을 권유했다. 당시 장기신용은행도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대신증권과 장기신용은행은 1989년 9월 영란은행Bank of England에 현지법인 설립인가서를 제출했다. 그러던 와중에 상황이 바뀌어, 정부는 국내 증권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단독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증권과 장기신용은행은 1990년 9월 5일 합작취소에 동의하고, 단독 진출 계획을 세운 대신증권은 1991년 2월 재무부에 내인가를 신청해 3월 8일 인가를 얻었다. 이때 납입자본금을 700만 파운드로 조정했다. 1991년 6월 20일 영국 증권관리청 SFASecurities&Futures Authority 으로부터 현지법인 설립인가를 획득했고, 6월 28일 한국 재무부로부터 본인가를 획득했다. 런던 현지법인은 1991년 7월 12일 국내 증권업계 최초로 영업을 개시했다.

런던 현지법인의 영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거둔 성과는 동아제약 해외전환사채CB 발행주

1989. 05. 15
울산지점 신축사옥 준공 및 이전

1989. 12. 23
부산지점 개점

1991. 07. 12
런던 현지법인 설립

선이었다. 이는 대신증권 국제금융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런던 현지법인과의 공조체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당시 동아제약은 미국 현지법인의 확장과 국내에서 필요한 시설 구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대신증권에 해외전환사채 발행주선을 의뢰했다. 그러나 자본금의 일정 비율로 제한된 전환사채 발행금액으로는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다. 결국 동아제약은 1991년 8월 주주우선 공모방식을 통해 62억 5,000만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본금을 증가시켰다. 그리고 1991년 10월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0월 31일 해외전환사채 2,500만 달러 납입을 완료했다. 동아제약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이전에 대신증권은 미원과 아남산업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한 경험이 있었다. 미원은 인도네시아 제2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아남산업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걸프전 발발로 사채 발행을 포기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기도 했지만, 실무진의 원활한 공조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3건의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기반으로 대신증권은 1992년 2월 19일 국내 최대 규모인 1억 5,000만 달러의 포항제철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성공리에 끝마침으로써 국제영업부문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3절 증권시장의 침체 극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

증권시장의 상황

국내 증권시장은 실물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하락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정치·사회적 요인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데다 하반기 들어 「금융실명제」 실시가 가시화되자, 12월 11일에는 종합주가지수가 연중 최저치인 844.75포인트까지 하락하는 폭락장세를 시현했고, 3년 연속 하락하는 침체가 이어졌다. 증권시장을 방치할 경우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야기될 문제에 대한 위기감을 의식한 정부는 1989년 12월 12일 증시사상 전무후무한 사상 최대의 증시부양조치인 「12·12 증시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12·12 증시 안정화 대책」은 여러 후유증을 남겼다. 주가 폭락과 증시 침체, 담보부족 일괄 정리로 인한 고객의 피해가 컸다. 또한 투신사 부실의 부작용을 낳았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시중은행이 1989년 말까지 한국투신, 대한투신, 국민투신 등 3대 투신사에 빌려준 돈은 무려 2조 7,692억 원에 달했다.

증시침체와 담보부족 계좌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1990년 9월 7일 열린 증권관리위원회 13차 회의에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미수금이 발생하는 즉시 반대매매를 실행하기로 결의했으며, 증권회사에 1990년 10월 초까지 담보부족 계좌 처분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극심하게 반발하며 연일 시위를 벌였지만, 1990년 10월 10일 담보부족 계좌에 대한 일괄 반대매매가 시행되었다.

1992년 말 이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무역수지도 1992년 9월 이후 연속 흑자를 보여 4년 만에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었다. 경기 회복세 속에 맞이한 1993년은 여러 가지로 큰 변화를 예고했다. 그 가운데서도 자본시장 및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금융실명제」 실시와 제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였다. 금융실명제가 전격 발표된 다음 날인 1993년 8월 13일 주식시장은 최저 거래량 135만 주에, 사상 최대 하락 폭을 거쳐 32포인트가 하락했지만 다음달 거래량이 2,000만 주를 넘어서며 점차 안정세로 돌아섰다.

제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가 실시된 것은 금융실명제의 시험 단계였던 1993년 11월 1일이었다. 실질적인 금리자유화인 제2단계 금리자유화가 실시됨에 따라 금융기관 간의 경쟁력 변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했다. 그 결과 금융업종 내에서도 우량종목 중심의 상승세가 나타나 주가 차별화가 이루어졌다.

1990. 09
담보부족계좌(깡통계좌) 일괄 정리 반대시위

1990. 07. 09
스크루지 운동 스티커

1992. 06. 20
대신그룹 창립 30주년 및
'91 최우수 상장기업 시상

침체된 시장 극복을 위한 대신의 노력

1989년부터 시작된 증권시장의 장기침체로 인해 증권사들의 자금난이 심화되었다. 거래부진으로 위탁 수수료가 대폭 감소했고, 상품주식운용에서도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 대신증권의 경우 자기자본의 대부분이 운용에 제약을 받는 증시안정기금, 상품주식, 고정자산에 투자되어 기타 필요한 자금은 콜 자금으로 충당했다. 정부는 1990년 5월 8일 「5·8조치」를 발표해 대기업 및 금융기관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유도했다.

1990년 6월 말 13억 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한 대신증권은 1990년 8월 30일 구舊 명일동지점을 시작으로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매각하기 시작했다. 심혈을 기울여 세운 신축사옥의 일부도 사용초과분으로 매각해야 했으며, 영업점이 없던 지역의 신축사옥은 준공과 동시에 처분하는 쓰라림을 겪었다. 어려운 환경에 대한 그룹 전 임직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1990년 7월 9일부터 16주 동안 스크루지SCRUJI운동을 전개했다. 스크루지 운동의 명칭은 3대 목표인 「정신자세 개혁Spirit Conversion」,「합리성 제고Rationality Upheaval」,「낭비요인 제거Jollity Impugnment」의 머리글자를 조합한 것이며, 찰스 디킨스의 작품 '크리스마스 캐럴'에 등장하는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Scrooge의 발음과 비슷해 절약정신 강조의 효과를 높였다.

정부는 국민 과소비 억제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근로자 장기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장기증권 저축업무를 각 증권사에 허용했다. 1990년 12월 기준 96억 원의 적자를 보이고 흑자전환을 위해 영업 방법을 모색 하던 대신증권은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1,000억 원 달성 캠페인을 추진했다. 1991년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1,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삼았으며, 캠페인 실시 한 달 동안 4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었다. 전 임직원의 단합된 힘을 기반으로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은 3월 말 1,084억 원으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고, 대신증권은 30기를 흑자로 마감했다. 1991년 5월 1일 실적달성 부서 직원에 대해 50%의 특별상여금도 지급되었다.

증권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전 임직원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한 대신그룹은 1992년 6월 20일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을 거행했다. 대신그룹의 역사를 기록한 〈대신 30년사〉를 1992년 6월 15일 발간해 전업 증권사로서의 발자취와 위상을 널리 알렸다.

대신그룹의 새로운 비전 선포

국내 경제는 1992년 말 이후 점차 회복세를 나타냈다. 주식시장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한 우려감으로 잠시 조정국면을 보인 후 1993년 9월부터 연말까지 경기회복의 가시화, 금리 하락,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을 바탕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3년 6개월 만에 종합주가지수 870포인트를 돌파하는 활황세를 보였다. 1994년 국내 주식시장은 세계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종합주가지수가 연초 대비 16.8% 상승하며 본격적인 1,000포인트 시대를 열었다. 증시 전체 규모도 GNP의 50%에 이르는 수준으로 성장해 시가 총액은 1993년보다 33.2% 증가한 150조 원을 기록했다.

변화와 성장의 시대 속에서 대신그룹은 1994년 4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94 대신 새바람 50일 운동'을 전개했다. 이 운동은 임직원의 사기 진작과 자질 향상을 통하여 직장 분위기를 쇄신하고, 대신가족으로서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새바람 운동의 성공적인 완수와 함께 창립 32주년을 맞이한 대신그룹은 대신가족의 단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대신 해바라기 큰 잔치를 개최했다. 창립기념일인 6월 20일에는 대신 역사관 건립과 황소상 제막식, 시세정보탑 점등식 등이 거행되었다.

1994년 11월 1일 양재봉 회장은 3C 경영이념을 제시했다. 3C 경영이념은 경영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담았으며, 변화의 「Change」, 도전의 「Challenge」, 창조의 「Creation」 철자를 형상화했다. 이어 12월 27일에는 「21세기 신금융을 선도하는 종합금융그룹 창조」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대신그룹은 1995년 2월 2일 새로운 사시 「고객우선, 인재제일, 준법합리」를 선포했다.

세계 금융시장 진출

대신증권은 자본시장의 개방이 임박했던 1991년 11월 11일 전통적인 무역의 중심지이자 외국 주요 금융기관의 집결지인 홍콩에 사무소를 개설해 동남아시아 영업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대신증권은 적극적인 해외법인 및 지사 개척을 통해 1995년 3월 말 기준, 1개 현지법인 런던, 4개 사무소동경, 뉴욕, 홍콩, 취리히와 본사의 국제영업부, 국제금융부, 국제기획부, 국제조사부로 구성된 탄탄한 해외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1995년 4월 재정경제원이 증권사의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증권사 해외법인 및 사무소 신설을 내인가 제도를 통해 일시 신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은 동경은 지점, 뉴욕과 홍콩은 현지법인, 취리히사무소는 은행으로 인가를 신청했다. 추가로 상해사무소 개설을 신청했으며, 1995년 7월 10일 내인가를 획득했다. 내인가를 받은 후 1996년 뉴욕사무소는 자본금 500만 달러의 뉴욕 현지법인으로, 동경사무소는 영업기금 8억 엔의 동경지점으로 전환되었다.

1995. 02. 02
대신의 비전

1991. 11. 11
홍콩 해외사무소 개설

1996. 12. 11
동경지점 개점

1994. 01. 10
KSF 조인식

대신증권 취리히사무소는 1993년 10월 5일 한국 주식에 대한 전용 펀드인 KSFKorean Stock Fund를 스위스 은행인 BJBBank Julius Baer와 공동 설립하고, 1994년 1월 10일 대신증권 본사에서 KSFKorean Stock Fund 조인식을 가졌다. 설립금액 1억 1,000만 달러로 당시 한국주식투자전용 펀드로서는 최대 금액이었다. 이로써 대신증권은 스위스 내 한국계 증권회사의 국내 유통시장 주식약정부문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대신투자자문이 KSF 투자자문사로 선정되었으며, 이 펀드는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신증권은 경제전문지 〈아시아머니〉가 1995년 10월 발표한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 조사는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국내외 증권사들의 영업능력 평가에서 대신증권은 일반부문과 전문부문에서 동시에 5위를 차지하면서 국제영업력에서 뚜렷한 향상을 보였다.

대신증권은 국내 증권사로서는 처음으로 포항제철의 양키본드 발행에 공동주간사로 참여했다. 포항제철의 양키본드는 총 발행 규모가 2억 5,000만 달러로서 발행 조건은 표면금리 7.5%, 실질금리는 국내기업발행 10년물 양키본드 가격 중 최저금리인 7.591%이고 1992년 8월 6일 납입을 완료했다. 대신증권이 포항제철 양키본드 발행 공동주간사로 참여해 미국의 채권시장에 진출한 것은 국내 증권사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증권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에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받았다. 포항제철은 1992년 9월 25일 영국의 런던에서 3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 발매를 개시했는데, 대신증권은 이때도 공동주간사로 참여했다. 1995년 10월 포항제철은 3억 달러 주식예탁증서DR를 뉴욕과 런던 증권시장에 동시에 발행했다. 세계 양

1993. 07. 07
추가로 발행한 포항제철 양키본드

대 금융시장인 뉴욕과 런던 증권시장에서 국내기업의 주식이 동시에 상장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으며, 주식발행에는 대신증권과 미국의 JP모건, 영국의 베어링이 주간사로 참여했다.

고객서비스 향상

고객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온 대신증권은 업계 최초로 1987년 8월 '대신 HOT-LINE'을 개통시킨 바 있다. 이후 고객의 큰 호응을 받았지만, 1991년 1월 장비의 노후와 이용고객 증가로 인한 시스템 용량 초과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자동음성응답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었다. 이에 1994년 3월 대신증권은 삼성전자의 VMS-512 기기를 차세대 '대신 HOT-LINE' 기종으로 채택하고, 대신정보통신의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기반으로 첨단 '대신 HOT-LINE'을 확대 개통하게 되었다. '대신 HOT-LINE'은 고객에게 30종의 서비스 내용과 272회선지방은 2배까지 추가증설을 보유하고, 음성 안내 중에도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춘 증권업계 최고의 전화응답서비스를 제공했다.

1993년 4월 1일에는 '현장의 소리' 전용전화를 개설했다. 이 전화는 영업현장에서 발생되는 고객불만 사항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본사 담당부서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 1993년 7월에는 〈초보자를 위한 주식투자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1995년 9월에는 고객만족을 위한 정보책자인 〈큰 믿음 고객만족〉 소식지를 창간하여 대고객서비스 향상에 노력했다.

밝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고객응대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1994년 9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일간 '대신스마일 운동'을 전개했다. 1996년 2월 24일에는 CS 시범요원 '대신 SUNFLOWER' 6명을 선발했다. 임기 1년인 '대신 SUNFLOWER'는 일본 해외연수를 비롯해 사내외 연수를 받아 CS 전문가로 양성되었다.

1994. 03. 02
대신 HOT-LINE 확대 개통식

1996. 05.
팀단위 예절교육 실습

STORY
1962

대신구호

Daishin Financial Group의 기업철학은 회사 이름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기업의 정신은 기업의 뿌리이며, 격格이다. 대신파이낸셜그룹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업의 정신이 살아 있으며, 그 정신을 직원들이 함께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신의 철학이 가장 잘 담겨 있는 이름은 양재봉 창업자가 직접 지었다.

"고객의 재산을 취급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면에서 믿음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에 바탕을 두고, 나는 '믿음'을 더 '크게' 받들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우러나와 결국은 큰 대大 믿을 신信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990. 05. 14 대신그룹 최초 경영전략회의장에 게시된 대신구호

그는 '믿음'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 왔다.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 없이는 어떤 일도 도모할 수 없다고 여겼다. 하물며 금융업에 있어서는 믿음의 중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1975년 3월 14일 중보증권을 인수한 양재봉 창업자는 한 달 만인 4월 14일 주주총회를 열어 대신증권주식회사로 회사명을 변경했다. 이어서 4월 22일 법원에 등기를 마침으로써 대신증권은 새로운 이름과 함께 증권업계에 등장하게 되었다.

1993.
큰 믿음 광고

「우리는 대신 대신은 우리, 대신가족 굳게 뭉쳐 세계제일 이룩하자」

2022년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까지도 대신파이낸셜그룹 임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늘 힘찬 목소리로 함께 외치는 대신구호이다.

대신구호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81년이었다. 1978년에 발생한 박황 사건의 여파로 큰 곤욕을 치른 대신증권은 창구사고를 방지하고 고객과 직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적인 정신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신증권은 근본적인 정신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대신구호를 제정했다. 1981년 4월 25일 전국 부서장회의에서 제정된 대신구호는 「우리는 대신 대신은 우리, 자기매매 뿌리 뽑아 우리자신 지키자」였다. 매일 아침 대신 직원들은 이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구호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1989년 대신생명보험이 새롭게 출범하게 되자 증권업무와 무관한 업종에 종사하는 대신인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에 부딪쳤다. 이에 따라 대신가족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구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영진은 대신가족 모두의 뜻을 모아 새로운 구호를 만들자는 의견을 받아들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대신구호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공모결과 총 52건이 접수되었다. 그러나 심사결과 장려상과 가작이 있었을 뿐 당선작은 선정되지 못했다.

"그룹 체제의 출범에 즈음하여 구호와 사가를 새로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종래의 대신 구호는 '우리는 대신 대신은 우리, 자기 매매 뿌리 뽑아 우리 자신 지키자'로서 이는 내가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취임하면서 제2의 '박황 사건' 같은 불상사를 막아 대신 가족이 희생되지 말자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
양재봉 창업자 〈큰 믿음으로 세계를 향하여〉 중에서

대신인의 뜻을 모아 결정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장려상 수상작 중 뛰어난 구절을 취합해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다.

「우리는 대신 대신은 우리, 뜻 모아 이룬 대신 뜻 모아 세계정상」이라는 작품과 「신뢰받는 대신 화합하는 대신 대신가족 굳게 뭉쳐 세계 제일 이룩하자」라는 작품을 합하여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우리는 대신 대신은 우리, 대신가족 굳게 뭉쳐 세계제일 이룩하자」는 대신구호가 탄생했다.

〈우리는 대신 대신은 우리〉는 양재봉 창업자의 동업자 정신, 주인정신 경영철학을 대변하는 표현이다. '대신'은 '우리'이고 '우리'는 곧 '대신'이라는 것은 회사와 우리, 우리와 회사가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일심동체라는 의미이다.

〈대신가족 굳게 뭉쳐〉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직원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구성원 전체가 유기적으로 관련되고 조직되지 못한다면 그 힘은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는 뜻이다. 미래는 어느 한 사람 또는 한 가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로 운영되는 시대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지식을 가진 개개인이 모여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대신이 미래 금융산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대신인 모두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화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세계제일 이룩하자〉는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진취적 기상을 표현하는 문구이다. 임직원에게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직장으로, 고객에게는 세계에서 제일 믿을 만한 기업으로, 사회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신뢰할 만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추슬러 도전하는 불굴의 진취적 기상이 꼭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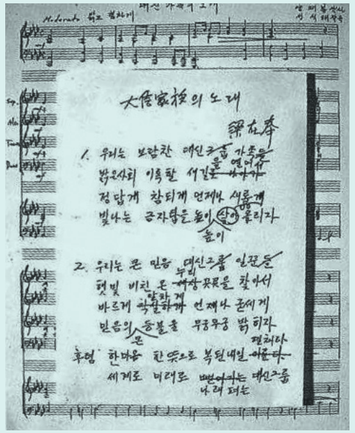
대신파이낸셜그룹 60년사 편찬 작업을 진행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대신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망설임 없이 바로 대답을 해준 사람은 김호중 증권 고객자산부문장이었다.

"우리가 늘 부르는 '대신가족의 노래' 그대로입니다. 그 노랫말에 우리 대신인들의 미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
김호중 증권 고객자산부문장

1978년부터 1990년까지 대신 임직원들은 박목월 시인이 작사하고, 김동진 작곡가가 작곡한 노래를 대신사가로 불렀으나 1990년에 그룹 체제로 전환하면서 〈대신가족의 노래〉가 새로 만들어졌다. 이 대신가족의 노래는 양재봉 창업자가 노랫말을 짓고, 성석태 작곡가가 음을 붙였다. 이 〈대신가족의 노래〉는 대신파이낸셜그룹의 모든 행사에서 임직원들이 함께 '미래'를 꿈꾸며 한 목소리로 힘차게 부르고 있다.



1절)
우리는 보람찬 대신가족 /
밝은 사회 이룩할 새 길을 열어서
정답게 참되게 언제나 새롭게 /
빛나는 금자탑을 높이높이 올리자

후렴)
한마음 한뜻으로 /
복된 내일 펼쳐라
세계로 미래로 나래펴는 대신그룹

2절)
우리는 큰 믿음 대신일꾼 /
햇빛 비친 온누리 곳곳을 찾아서
바르게 알차게 언제나 굳세게 /
믿음의 큰 등불을 무궁무궁 밝히자

Daishin Financial Group
60년사

4장. IT부문의 혁신과 지속가능경영

1997 — 2004

1절 건전한 재무구조로 극복한 IMF 외환위기

1997. 12. 12
부도로 업무 정지된 동서증권 창구

IMF 외환위기와 선제적 경영체질 개선

1997년 11월 시작된 IMF 외환위기로 국내 경제는 극도의 어려움에 처했다. 대형 증권사인 동서증권, 고려증권이 현금인출 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도산에 이르렀다. '재벌그룹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루머가 돌면서 대신증권의 경영여건도 악화되었다. 다행히 대신증권은 1995년부터 상품 주식을 대거 처분해 5,000억 원에 달하던 단기차입금을 상환하는 등 사전에 적극 대처한 덕분에 1998년 3월 말 기준 단기차입금이 단 1원도 없는 무차입 경영을 시현할 수 있었다. 영업용순자본 비율이 165%에 달하는 건실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대신증권은 IMF 한파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환율이 달러당 800원에서 1,900원대까지 치솟고 최고금리가 연 40%대까지 올라간 IMF 체제에서 고객예탁금이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단기유동성 문제는 증권업계 전체에 심각한 문제였다. 대신증권은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마련한 500억 원으로 단기유동성 문제 해결에 나섰다.

1997년 정부의 진입규제의 완화, 업무영역의 조정, 수수료 자유화 등의 금융개혁 추진은 증권업계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신증권은 경영목표를 '견고한 내실경영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로 정했다. 그 실천전략으로 'TOP 97 실천운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했다. 어려워진 금융환경을 극복하고, 임직원의 의식을 전환해 업계 최고의 생산성을 가진 회사로 거듭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TOP 97 실천운동'은 전 임직원의 공감대 형성 및 인식을 위한 의식개혁운동으로, 낭비요인 제거를 통한 경비절감, 경쟁사대비 최고의 1인당 생산성 및 업무효율 제고 등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IMF 외환위기 시에 오히려 실질적인 무차입 경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업계 최고의 재무 안정성 확보

1998년 3월 말 기준 전증권사의 단기차입금 규모가 3조 2,000억 원인데 비해, 1997년 말 2,234억 원에 이르던 대신증권의 단기차입금 규모는 1998년 3월 말 기준 '0'을 기록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을 확보했다. 재무적 안정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기자본비율은 42.9%로 대형사 중 수위권을 형성했고, 무차입 경영에 따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기자본

은 업계 2위를 기록했다. 금융비용 부담률도 업계 절반수준으로 낮추었다. 1998년 3월 말 기준 대형 증권회사의 영업수익대비 금융비용 부담률 평균인 25.2%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11.8%를 기록했다. 증권회사 재무건전성비율에서도 우위를 지켰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이 대형사 평균치에 비해 10% 정도 높았다.

대신증권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998년 4월 27일 기존 3개 현지법인, 1개 지점, 2개 사무소의 국제사업부문을 1개의 현지법인과 1개의 사무소로 개편했다. 동경지점을 사무소로 전환하고, 뉴욕 현지법인과 런던 현지법인은 폐쇄했다. 취리히사무소와 상해사무소도 폐쇄시키고, 홍콩 현지법인과 동경사무소만 존속시켰다. 그 결과 연간 100억 원 정도의 경비가 절감되었고 투자원금도 200억 원 가량 회수할 수 있었다.

199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장부가액 1,130억 원대의 본사 및 영업점 사옥 건물과 장부가액 741억 원 규모의 토지 3만 2,681㎡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건물 190억 원, 토지 980억 원 등 모두 1,170억 원의 자산재평가 차액이 발생했다.

고정성 자산의 30%를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하던 규정에 따라 자산재평가 차액 중 일부인 351억 원이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돼 영업용순자본 비율이 1998년 5월 말에 비해 40% 포인트 증가된 236%로 높아졌다. 또 대신증권의 재산채무비율은 1998년 5월 말보다 27% 포인트 늘어난 207%를 나타내 자산이 부채보다 2배 이상 많아졌다. 이 자산재평가로 주당 순자산도 1998년 3월 말 결산 때보다 2,076원이 늘어난 1만 4,212원을 기록했다.

당시 투자신탁업계는 1998년 바이 코리아BUY KOREA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1998년부터 1999년 7월까지 투신권으로 몰려든 자금이 200조 원에 달했다. 그러나 1999년 대우그룹의 부도로 펀드환매가 줄을 이었다. 증권사 일선 창구마다 펀드환매를 신청하는 투자자들로 장사진을 이루었고, 하루에 1~2조 원이 빠져나갔다. 정부는 「8·12 대우채 환매연기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개인과 기업들에게 펀드에 편입된 대우채만큼 기간별로 50~95%만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대우사태는 투자신탁업계의 몰락을 촉발했고, 200~300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대우채가 편입된 펀드규모는 110조 원에 달했다. 대우사태 당시 펀드 수탁고가 250조 원을 넘어섰지만 1년여 만에 100조 원 이상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정부의 조치로 대우채 환매가 중지되고 대우채가 모든 펀드상품에서 분리됐지만 그 여파는 2~3년 이어졌다. 그로 인해 투자신탁업계의 선두였던 한국투자신탁現 한국금융지주, 대한투자신탁現 하나금융그룹, 현대투자신탁現 한화투자증권 등은 대우채 사태를 겪으면서 모두 주인이 바뀌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대신증권은 대우그룹 회사채를 편입한 수익증권 판매를 전면 중지하고 안전한 국공채 위주의 채권형 펀드만을 취급했다. 당시 대신증권 취리히사무소는 대우그룹 채권이 유럽에서 사

1998. 02. 14
흑자 달성을 위한 임원·팀점장 워크숍

1999. 10. 08
대우사태 금융기관 손실 관련 기사(매일경제)

대우사태 금융기관 손실 15兆

국감자료…금융권 올해 큰폭 적자 예상

노영우 기자

대우사태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 규모가 올해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은 연말 결산에서 대대적인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현 의원(국민회의)은 7일 제출한 국감 자료에서 대우사태로 인한 금융권 손실이 올해에만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제외한 대우그룹의 금융권 여신 44조원에 대한 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3조2000억원에 달한다.

또 12개 대우계열사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따른 출자전환, 이자유예 등 부채조정으로 2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투신사가 보유한 대우 발행 회사채와 CP 25조원 가운데 무보증채의 50%만 부실해진다 해도 손실 규모가 9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손실규모를 모두 합하면 총 15조원의 금융권 손실이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이 의원은 또 연말에 미래상환능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적용되면 추가 부실이 발생할 것이므로 금융권 부실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연말에 발생하는 금융권 손실에 대해 정부가 무원칙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손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상 부도상태에 처해 있다는 정보를 본사에 전달하면서 대신증권은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우그룹 회사채가 포함된 수익증권을 판 증권사들이 대우그룹 부도로 펀드환매에 따른 미매각 수익증권에 충당금을 설정하는 등 큰 손실을 보았지만, 대신증권은 안전한 국공채를 편입한 수익증권만 판매한 덕에 손실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선제적 리스크관리로 대우채 손실 규모를 줄인 대신증권은 다양한 금융상품거래와 자산운용에 있어서 발생가능한 시장위험, 거래상대방위험, 신용위험 등 각종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하고,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1998년 9월 1일 위험관리위원회를 발족했다. 대표이사와 담당업무별 임원 7명 및 기획팀장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위험관리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발생가능한 위험과 위기상황을 예측하고 대처방안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2절 경쟁력 향상과 전 임직원의 역량 발휘

선물·옵션부문 업계 선두

1998년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더불어 미국, 영국, 홍콩 등 외국인 투자자금이 밀물같이 쏟아져 들어와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다시 활황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선물시장의 경우 거래대금이 1998년 4월 대비 1999년 3월에는 198.25%나 증가한 953조 5,183억 원을 기록했으며, 옵션시장의 경우도 같은 기간에 381.88% 증가한 6조 399억 원을 시현하는 등 파생상품시장이 크게 성장했다.

대신증권은 이처럼 호전되는 주식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경영전략을 전환했다. 비용절약을 강조하던 방어 전략에서 지점 신설, 특히 사이버영업소의 대대적 신설을 통한 영업수익 극대화를 지향하는 공격적 경영전략으로 전환하고 매주 한두 개씩 지점을 신설했다.

그 결과 제38기1998년 4월 ~ 1999년 3월에 636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면서 보통주 기준 액면가의 10%인 500원, 우선주는 550원의 현금배당을 했다. 주식약정 점유율에서는 업계 4위를 유지했고, 선물·옵션시장과 홈트레이딩 거래부문에서는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주식 및 선물위탁거래에 있어서 대신증권 영업직원들의 영업능력과 홈트레이딩시스템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다. 대신증권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1999년 2월 말 기준 470%로 금융감독원의 감독기

1999. 08. 13
강남역 사이버영업소 개점

준인 150%를 크게 웃돌았다. 주식평가손까지 반영한 실질적인 자산을 나타내는 자산부채비율은 1998년 9월 말 기준 178%로 대형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자기자본비율도 46%로 업계 상위권을 유지했다.

대신증권의 제38기 주식시장 약정점유율은 7.77%로 업계 4위를 유지했다. 선물시장에서는 약정점유율이 18.99%에 달해 타사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월등한 성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제38기 영업수익은 전년에 비해 49% 증가한 3,899억 원을 시현할 수 있었다.

대신증권은 1998년 7월 한 달 동안 선물거래부문에서만 104억 원 가량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이 기간 선물거래 전체에서 차지한 시장점유율은 27%대7월 말 기준로 2위인 5~6%와 3위인 3%대와 비교할 때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선물거래에서 경이로운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대신증권이 자체 개발한 홈트레이딩시스템인 '사이보스 2000'이었다. 대신증권은 선물 관련 부문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선물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했고 독자적인 선물전산망 구축에 집중 투자를 해온 것이다.

증권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이보스' 신화

전산부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3년 동안 약 1,000억 원 가량을 투입한 대신증권은 IMF 위기를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대신증권은 1996년 11월 23일 국내 최초로 종합계좌시스템One Card System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종합계좌시스템은 고객이 증권카드 1개로

1996. 11
대신멀티카드 광고

사이보스 2000 매뉴얼 및 CD

2000. 10
사이보스 2002

주식 및 채권매매, 양도성예금증서CD 매매, 신탁수익증권저축, 증권저축, 주가지수선물 등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26개 상품 모두를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1997년 8월에는 홈트레이딩시스템인 '사이보스CYBOS 98' 서비스를 시작해 증권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어 1998년 6월 대형증권사 중 최초로 인터넷 웹 트레이딩을 개시하면서 온라인 증권거래의 서막을 열었다. 마침내 1998년에 인터넷 기반의 '사이보스 2000'을 출시하면서 대신증권은 온라인 거래 불모지였던 국내 증권시장에 혁신을 일으켰다. '사이보스 2000'은 객장 시스템을 가정과 직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영업점으로 실적과 평가, 서비스, 마케팅 등 모든 분야에서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살린 시스템이었다.

대신증권의 온라인 전산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는 새로운 증권거래 문화를 꽃피게 했다. 1999년 10월 5일 하루 동안 대신증권의 사이버거래를 통한 주식거래소, 코스닥, 선물, 옵션 거래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부문별로는 거래소가 2,982억 원, 코스닥 382억 원, 선물 7,579억 원, 옵션 123억 원 등으로 하루 동안 사이버거래를 통해 매매된 금액이 1조 1,067억 원을 기록했다. '사이보스'를 바탕으로 대신증권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제39기1999년 4월 ~ 2000년 3월에 대신증권은 당기순이익 3,371억 원을 기록해 순이익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2000년 '사이보스 2002', 2001년 한국형 시스템 트레이딩서비스인 '사이보스 트레이더', 2002년 '사이보스 2004'를 오픈 했다. 또한 재해복구시스템DRS과 주전산기 다중화시스템Sysplex도 구축했다.

대신증권의 사이버영업소는 1999년 8월 강남역 사이버영업소를 1호점으로 시작하여 1년 만에 50호점을 돌파했으며, 사이보스 시스템과 함께 국내 온라인 증권거래의 선진화를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사이보스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99년 '한국전자상거래 대상' 등 정부 및 언론기관으로부터 각종 상을 받았다.

온라인 거래대금 1,000조 원 돌파

2001년 9·11 테러 이후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은 연중 최저인 장중 463.54포인트를 기록한 뒤 700포인트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반도체산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졌고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 상승의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는 2001년 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관심 증대와 유동성 확대로 인해 증권업계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신증권은 브로커리지부문 최고의 지위를 확고히 다졌다. 또한 업계 최초 선물·옵션 홈트레이딩시스템 도입으로 파생상품시장부문도 업계 1위를 기록했다.

1999. 09. 21
목동역 사이버영업소 개점

사이버 증권거래서비스는 단순 주문서비스에서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트레이딩에 이르기까지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했다. 대신증권을 비롯해 삼성, LG, 대우, 현대증권 등 5대 대형 증권사의 2001년 사이버 증권거래는 1,086조 8,858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사이버 증권거래가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였던 2000년 1,203조 원에 이어 2년 연속 사이버 증권거래가 1,000조 원을 돌파했다. 대신증권의 2001년 사이버 증권거래는 439조 7,023억 원을 기록해 5대 증권사 중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다. 5대 증권사의 사이버 주식비중은 2000년 7월 처음으로 70%를 넘어선 이래 줄곧 70% 이상을 유지했다. 2001년 10월에는 75.31%를 기록, 월간 기준 최고치를 보여주었다. 2001년 12월 5대사의 사이버 주식 비중은 70.45%를 기록했다. 2001년 증시침체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증권거래가 2000년 수준에 육박한 것은 대형사들의 사이버 서비스 및 프로모션이 강화되었고 투자자들이 거래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싼 사이버거래를 많이 이용했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의 온라인 거래는 전체 주식 거래대금의 80% 이상을 차지했고, 선물과 옵션거래에서는 전체 거래대금의 약 90%를 차지했다. 대신증권은 1997년 4월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이후 2001년 10월까지 누적 거래대금 1,000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

'사이보스'는 대외적으로도 큰 인정을 받았다. 사이보스는 2001년 2월 홍콩 IT관련 계간지인 〈FIA Financial Intelligence Agency〉가 주관하는 '아시아인터넷대상'에서 대신증권이 '베스트 온라인증권사'로 선정되었다. 미국의 ING베어링에서는 대신증권을 '한국의 선도적인 인터넷 기반의 증권사'로 선정했고, 야후코리아 실시간 조사에서 브랜드 파워 1위의 영예를 안았다.

3절 손익 중심의 투명경영 체제 정착

증권 중심으로의 선택과 집중

대신증권은 계열사 및 관계사 부실사태로 또 한 번의 역경과 마주서야 했다. 2000년 12월 22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대신증권이 부실계열사에 대해 2,545억 원의 부당자금을 지원하고, 99억 7,9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시 대신그룹 양재봉 회장과 대신증권 김대송 대표이사 사장은 업무집행정지와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다.

대신증권의 관계회사인 송촌건설에 대한 여신은 1996년 11월 지급보증을 통해 처음 이루어졌다. 이후 1998년 3월에는 1,383억 원의 여신이 제공되었다. IMF 외환위기 당시 건설업계는 극심한 불황을 겪었고, 송촌건설도 경영여건이 어려워졌다. 대신증권은 경영이 어려워진 송촌건설에 지급보증을 차환발행하고 회사채 및 기업어음을 인수해 경영을 정상화시킨 후 여신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대신증권은 이후 송촌건설 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상환을 받아 215억 원을 회수했으며, 2000년 12월 당시 1,168억 원으로 여신규모가 축소되었다.

대신생명보험에 대한 700억 원의 후순위 대여금은 1998년 대신생명보험의 '경영정상화 계획서' 상에 대신증권이 유상증자 등으로 1,430억 원을 지원한다는 협약서를 첨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었다. 대신증권의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후순위 대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보험회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공적자금 지원 등으로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경영정상화가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양재봉 회장은 개인 재산을 처분해 8회에 걸쳐 총 427억 8,000만 원의 증자에 참여하는 등 대신생명보험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2000년 9월 말 기준, 대신생명보험의 지급여력비율은 118%로 정상화가 진행되는 중이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결과에서는 이 과정에서 시행된 후순위 대여금 전부가 부당자금 지원으로 지적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와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로 대신증권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특히 대신증권의 창업자이자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온 당시 양재봉 회장과 김대송 대표이사 사장의 불명예 퇴진 결정에 대신증권 임직원은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김대송 대신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2001년 3월 23일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해임권고에서 업무

집행정지 3개월로 낮추어졌다. 대신팩토링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거래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약 900억 원의 부실 기업여신이 발생했고, 자금회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신팩토링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대신증권으로부터 회사채, 전환사채 발행 등 자금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대신팩토링은 많은 부실여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신생명보험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해 364억 원의 증자에 참여하고, 송촌건설에 110억 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2000년 12월 금융감독원의 대신증권 검사 결과 대신팩토링에 대한 여신 지원을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결론짓고 회수 명령을 내리면서 대신팩토링은 영업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여신회수 및 자산 처분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했다. 2002년 3월 13일자로 최종 부도처리된 대신팩토링은 2010년 12월 청산 종결되었다.

2000년 말 금융감독원은 계열사인 대신생명, 대신팩토링, 그리고 관계회사인 송촌건설에 대해 회사채 지급보증 등을 통해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대신그룹 양재봉 회장에게 해임권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양재봉 회장은 명예회장으로서 현업에서 물러나고, 2001년 4월 양회문 부회장이 2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대신증권은 내실을 다지기 위해 생명, 정보통신 등을 계열 분리하고 대신증권, 투자신탁운용, 경제연구소 중심으로 그룹을 정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 대신생명은 2001년 3월 말 기준 순자산 부족액이 2,411억 원에 달했다. 2001년 6월 13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증자 등을 통해 대신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대신증권은 2001년 6월 25일 제6차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날 대신증권 이사회는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대신생명의 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2001. 04. 09
양회문 회장 취임식

클린 컴퍼니 완성을 위한 노력

2000년 3월 말 기준 대신증권의 총자산은 4조 7,939억 원, 자본총계 1조 2,831억 원이었다. 39기1999년 4월 ~ 2000년 3월 세전순이익은 5,045억 원에 이르렀고, 법인세만 1,674억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금융산업의 특성상 자회사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으로 신규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 대신증권은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했다.

2001년 4월 2대 회장에 선임된 양회문 회장은 투명한 경영과 수익성 향상을 기반으로 고객과 주주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수익을 최우선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수익다각화를 추구하여 브로커리지 사업 이외에도 보다 효율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켓 리더로서 그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회문 회장은 특화된 금융서비스 회사가 되기 위해 금융 전문성의 다각화를 강조했다.

대신생명 등 계열사 여신의 클린화 작업에는 관련회사 직원들의 시위 등 많은 고충이 따랐다. 이 과정에서 양회문 회장은 계열사인 대신생명, 대신팩토링과 관계사인 송촌건설 여신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하고, 부실여신을 조기에 손실처리 하는 등 과감한 결단을 통해 대신의 생존기반을 확보했다.

대내외적으로 대신증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 대신증권은 2002년 5월 25일 이사회를 개최해,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이익 소각을 결의했다. 자사주 매입 소각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에 의해 시행하는 것으로, 이익의 일정부분을 자사주 매입을 통해 소각하게 되면 발행주식 수가 감소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주요 경영목표로 설정해 주주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였다. 대신증권은 2002년 8월 29일까지 장내에서 대신증권 보통주 20만 주를 매입해 2002년 9월 16일 자사주 보통주 20만 주 이익소각을 완료했다.

대신증권은 충당금 설정으로 부실요인을 없애고 계열사를 정리하는 등 클린 컴퍼니로 거듭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크게 늘어났다. 2000년 말에 10%대였던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1년 4개월만에 38%대까지 치솟았으며, 6,000원대였던 주가도 3만 원까지 뛰어 5배나 올랐다.

업계 최초 ESOP 실시

대신증권은 2002년 말부터 2003년 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자사주 200만 주를 취득했다. 증권사 중 최초로 신新우리사주조합제도ESOP :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였다.

양회문 회장은 직원들에게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애사심과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목표로 삼았다.

대신증권은 2003년 3월 21일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취득한 자사주 200만 주 가운데 123만 5,2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기로 결의했다. 86만 4,640주는 신우리사주조합제도에 따라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에 유상매각하고 37만 560주는 무상출연하기로 했다. 유상매각 기준가는 주당 1만 5,120원이었다. 당초 희망자를 대상으로 100만 주를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청약마감 결과 23만여 주가 초과돼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추가 배정했다. 배정방식은 70%는 직원이 납입하고 30%는 회사가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창립 40주년,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2002년 6월 20일 대신증권 창립 40주년을 맞은 기념식 자리에서 양회문 회장은 「행복을 창조하는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주요 전략으로는 자산 중심 운용, 통합적이고 전문화된 금융서비스, 선구적인 온라인 트레이딩시스템, 경쟁력과 기업 가치의 극대화, 고객만족을 위한 혁신적인 경영으로 정했다.

증권업계는 거래대금 감소와 경영난의 심화로 어려움을 겪었다.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21개 상장 증권사의 영업이익은 1,446억 원으로 2003년 같은 기간보다 59.6% 감소했다. 증권사들이 수익의 대부분을 주식 수수료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평균 주식거래대금증권거래소 기준이 4월 2조 8,959억 원에서 5월 2조 5,178억 원, 6월 2조 300억 원, 7월 1조 6,089억 원 등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이 수익성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증권업계의 영업실적 악화에 따라 대신증권도 2004년 5월부터 '2004 세이브SAVE운동'을 전개했다. 이 운동은 회식비나 비품비 등을 아끼는 운동이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회사 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에서 각종 비용 집행을 최대한 줄여 악화된 영업실적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고자 했다. 또한 시장점유율 하락을 극복하고, 자산증대를 위해 대신증권은 '서바이벌Survival 2005 예탁자산 증강운동'을 추진했다. '서바이벌 2005 예탁자산 증강운동'은 2005년 3월 11일까지 1조 5,000억 원의 자산증대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예수금과 유가증권, 랩어카운트 등 전 금융상품을 통해 자산증대를 꾀한다는 전략을 세웠고, 전 직원들에게 목표액을 부여하고 목표 달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독려했다.

2002. 06. 20
창립 40주년 기념 및 2002 최우수 상장기업 시상

2004. 04. 26
대만 폴라리스증권과 사이보스 2004 수출 계약 조인식

자산관리 사업부문의 성장을 위해 대신증권은 2004년 일임형 랩어카운트, OTC파생금융상품, 기업연금 등의 수탁형 운용상품에 대비한 투자운용시스템을 개발하고, 영업직원에 대한 고객 투자수익율 제고 및 일대일 밀착영업이 가능하도록 종합고객관리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였다.

대신증권은 2004년 4월 증권업계 최초로 온라인 거래시스템의 제반기술을 대만의 폴라리스증권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금호타이어의 서울·런던 동시상장과 국내 최초 '엔화 프라이머리 CBO' 발행 등 대신증권의 영업력을 높이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손익중심의 효율적인 운용과 리스크관리를 통한 이익극대화를 추진했다.

대신증권은 IB부문의 강화라는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 추세 변화에 대응하고자 2000년 8월 IB사업본부를 신설했다. 기업금융본부와 국제본부를 통합하여 기업금융의 전문성과 국제본부의 마케팅 능력의 상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설립된 IB사업본부는 조흥증권 M&A 매각·매수 자문, 190개 벤처기업 대상 Primary CBO 발행, 자산관리공사KAMCO의 부실채권 정리 등 업계 선도 증권사로서 회사 목표에 부응하는 업적을 시현했다. IB부문은 제44기 2004년 4월 ~ 2005년 3월에 회사채 발행부문에서 대표 주관사 및 공동간사로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제44기에 시장점유율 4.53%을 기록하며 업계 상위에 랭크되었다.

공기업 ABS 발행, 금융기관 NPLnon-performing loan 유동화, 중소기업을 위한 Primary

CBO 발행 등의 고유업무 이외에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화채권 발행, 자원개발펀드 등의 신규업무에도 적극 참여하여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아시아 최초로 국가 간 딜Deal인 중소기업전용 엔화 Primary CBO를 약 4,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전도시철도 운영자금조달을 위한 ABS를 업계 최초로 발행하는 등 시장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상품개발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

특히 기업공개IPO부문은 제44기 중 금호타이어의 서울·런던 동시 상장을 성공시키는 등 실적향상이 뚜렷했다. 금호타이어의 국내외 동시상장은 총 공모 규모가 3,734억 원이었다. 국내기업의 상장 규모로는 2005년 세 번째로 큰 규모로 국내 공모분만 약 1,000억 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IPO부문은 인터플렉스, 엘리코파워 및 디지털멀티텍 등의 코스닥 상장을 성공시켜 상장 성공률 100%를 기록했다.

코스닥위원회가 선정하는 '2004년도 IPO부문 우수표창' 수상에 이어, 금호타이어 국내외 동시상장이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으면서 증권선물거래소가 선정하는 '2005년도 IPO 우수 주간사' 및 금융감독원이 선정하는 '2005년도 IPO부문 우수표창'을 수상했다.

양회문 회장의 타계

양회문 회장은 강력한 리더십과 지도력을 바탕으로 투명경영과 손익경영을 정착시켰다. 대신증권의 내실을 탄탄히 다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재정립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다. 2003년부터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사와 서울상공회의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증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대신증권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금융전문그룹으로의 도약이 멀지 않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2004년 9월 17일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양회문 회장이 향년 53세를 일기로 타계한 것이다. 대신 임직원과 증권업계는 뛰어난 경영자이자 증권인이었던 양회문 회장의 별세를 애도했다.

2006. 09. 01
중소기업전용 엔화 Primary CBO 발행 설명회

STORY
1962

IMF 위기극복 홍보와 사이보스 빅브랜드 만들기[3]

사이보스 2000 홍보활동

[3] 대신증권에서 1989~2022년까지 재직했던 조경순 전무가 기고한 글을 정리했습니다. 1998년 당시 홍보실장 관점에서 본 'IMF위기 극복과 사이보스 빅브랜드 만들기'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한국 증권업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장은증권, 일은증권, 상업증권, 산업증권 등 부실화된 은행계열 증권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투자자들은 대그룹 계열 증권사로 몰렸다. 당시 대신증권은 선제적 위기관리로 재무구조가 좋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악화설, 계열사 부실화 등의 루머가 끊이지 않았다. 회사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1998년 4월 1일 홍보실장으로 임명된 조경순 전무는 신뢰 회복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대신멀티카드

1998. 07. 20
경제 장관 인터넷 대담
'한국경제 살리는 길' 후원

그는 가장 먼저 '대신증권은 부실회사가 아니라 재무구조가 우수한 회사'라는 점을 홍보했다. '무차입 경영을 하는 안정적인 증권회사 대신'을 반복적으로 홍보하고, 5대 대형사인 대우, 동서, LG, 쌍용증권의 재무제표를 심층 비교 분석해서 대신의 재무 안정성이 크게 돋보이게 했다. 보도된 좋은 기사는 예외 없이 모두 포스터로 만들어 본사 각 부서 및 영업점에 배포했다. 이는 직원들에게 '대신인'으로서의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였다.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대신증권에 대한 고객의 인식도 점차 개선되었다. 이러한 홍보는 1998년부터 1999년까지 1년여 간 이어졌다.

다음은 대신만의 전략적 차별성을 확보해 나갈 차례였다. 어느 부문에 집중해 회사의 신뢰 이미지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98년 5월에 실무팀장들과 미팅에서 당시 IT본부 팀장이었던 김지은 차장이후 IT본부장 역임이 적극적으로 피력한 '전산'에 무게를 싣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산부문에서는 일찌감치 업계를 선도해온 대신증권이었다. 1976년 전산 터미널을 이용한 기초 계산업무 전산처리를 개시한 바 있었고, 1977년에 양재봉 사장이 취임하면서 자체 컴퓨터의 도입도 이루어졌다. 이후 IT부문에 대한 회사 차원의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1996년 11월 23일 대신증권은 하나의 계좌로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 종합계좌시스템One Card System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선보이기에 이르렀다.

대신의 IT 강점을 활용해 회사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심 끝에 얻은 결론은 세계 최초의 인터넷 투자설명회 개최였다. 조선일보와 공동주최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조선일보 측에서는 인터넷 경제강연회로 역제안을 했다. 조선일보에서는 경제장관들을 섭외하여 경제대담을 하고, 대신증권에서는 투자전문가들이 설명회를 하는 형식이었다. 경제대담이 끝나면 당시 대신증권과 대신경제연구소 전문가들이 여의도 본사 대신경제연구소에서 인터넷으로 설명회를 하고, 그 내용을 속기사가 실시간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형식이었다. 인터넷 경제강연회에 투입된 비용은 연사에 대한 강사료와 속기사 비용이 전부인데 비해 효과는 놀라웠다. 매일 1면 박스기사로 대신증권 주최, 조선일보 후원 인터넷 강연회가 노출되면서 대신증권을 바라보는 외부의 눈빛이 달라졌다. 직원들의 반응도 좋았다. 조경순 전무는 인터넷 경제강연회 개최 공로로 최고경영자 표창장을 받는 기쁨을 누렸다.

IT 홍보는 초창기부터 사이보스에 집중했다. 매주 IT 관련 보도자료를 만들어 냈다. 아주 작은 개발이더라도 새로운 것이 있으면 IT본부에서는 홍보실로 보내주었고, 홍보실에서는 세간의 눈길을 끌 수 있게 보도자료를 꾸렸다.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된 것을, '이제는 미국에서도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라는 식이었다. 언론사에서 대신증권은 보도자료를 너무 자주 보낸다는 불만을 표현할 정도로 부지런히 만들어 배포했다.

출입기자들의 노트북에는 아예 사이보스를 깔아 주었다. 사이보스는 고객, 영업직원, 업무직원, 펀드매니저, 기자들의 10만여 건의 제안이 반영되어 갈수록 파워풀해졌다. 당시 IT본부 개발담당 직원들은 밤을 지새우며 시스템 개발에 열을 올렸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언론사 기자들의 증권시장 취재는 자연스럽게 사이보스를 통해 이루어졌다.

1998년이 10월이 되면서 3년 넘게 하락하던 주식시장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사이보스의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이보스만 설치하면 마치 투자자가 펀드매니저처

럼 시장을 한 눈에 보고 분석할 수도 있고, 손쉽게 주문을 낼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며, 사이보스는 주식투자자들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대신증권을 떠났던 고객들이 다시 돌아왔고, 신규고객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협업을 통한 시너지가 극대화되었다. 홍보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대신증권의 위상을 보다 빛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당시 대신증권 목포지점에 장기철 차장이라는 뛰어난 선물트레이더가 있었다. 장기철 차장은 혼자 시장점유율 10% 이상의 실적을 내며, 홍콩에서 발행되는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 신문 1면에 박스기사로 소개될 정도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주식거래 실적에 장기철 차장이 주도하는 선물거래 실적과 옵션거래 실적을 모두 합치면 대신증권이 사이버거래에서 압도적 1등이었습니다. 5대 증권사 온라인거래 실적을 집계하여 3년여 동안 집중적으로 배포했습니다."

—
조경순 증권 전무

홍보활동의 결과는 놀라웠다. 신규고객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회사는 이때 전국 영업점에 직접 PC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사이버영업소를 개설했다. 회사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되었다. 연간 1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TV광고도 가능해질 정도였다.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몇 개 되지 않던 당시, 지상파 TV 광고 효과는 파급력이 막강했다.

〈남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동안 우리는 자동차주식을 연구했습니다. 남들이 전자제품을 만드는 동안 우리는 전자주식을 분석했습니다. 투자의 바른 길을 열어주는 일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큰 大 믿을 信 대신증권〉

—
1999. 05 대신 Bull 테크넷펀드 광고 중

이 광고에는 50년 넘게 금융전문가로 활동한 양재봉 창업자, 선물거래전문가인 목

2000. 10 사이버금융의 리더

2001. 02 대신 CYBOS 2002

포지점 장기철 차장과, 대신투자신탁운용의 유승우 펀드매니저도 함께 모델로 나와 회사이미지 개선에 힘썼다. '새천년 국민펀드 대신 불bull 펀드', '사이버 금융의 리더 대신증권', '결과로 말한다 사이보스 2002'를 제작해 송출했다. 사이보스 TV광고가 주요 방송에 노출되면서 사이보스는 빅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사이버거래=대신 사이보스'로 이미지 강화에도 성공했다.

사이보스의 빅브랜드화 성과는 놀라웠다. 현재 크레온의 경우 홈트레이딩시스템 수수료는 제로수준에 가깝지만, 당시 사이보스의 수수료는 오프라인 수수료와 같은 50bp였다. 사이버거래가 늘어나면서, 대신증권 위탁수수료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위탁수수료 수입은 1996 회계연도의 903억 원에서 1999 회계연도 6,190억 원으로 7배 가까이 늘어났다. 신입사원이 인센티브를 수천만 원씩 받는 일도 생겼다. 1999년부터 10년간 벌어들인 위탁수수료 수입이 3조 3,000억 원이 넘을 정도였다. 덕분에 2002 회계연도에는 클린 컴퍼니를 선포할 수 있었고, 투자자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특히 온라인거래부문의 안정적인 수익모델에 주목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한때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42%가 넘는 기록도 세웠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개발한 사이보스시스템은 대신증권이 증권업계의 IT부문을 선도할 수 있게 만들었고, 위기 속에서도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회사의 수익이 높아진 점보다 더 큰 성과는 대신증권 임직원들이 함께 역량을 발휘하고,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사이보스의 성공에는 개발을 담당한 IT부문과 작은 성공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홍보에 앞장서고, 자신의 업무에 집중한 모든 대신증권 임직원들의 땀과 열정이 녹아 있다.

Daishin Financial Group
60년사

5장. 고객과 상생하는 신뢰의 대신

2005 — 2010

1절 소통과 상생의 경영

큰 믿음 경영과 고객서비스 헌장 선포

대신증권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4년 9월 24일 대신증권 3대 회장에 이어룡 회장이 취임했다. 새로 취임한 이어룡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양회문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대신증권의 전통과 명예를 지키고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005년 국내 증시는 1994년 11월에 기록했던 코스피 지수 1,138.75포인트를 10년 10개월 만에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다. 저금리 기조에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지속했으며 이 시기에 대신증권은 보다 강화된 고객만족 경영의 실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이어룡 회장은 2005년 4월 1일 '큰 믿음 경영'을 선포했다. 큰 믿음 경영은 주주·고객·사회·임직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최고의 행복과 만족을 안겨주는 회사로 거듭 태어나고자 하는 경영철학을 담은 것이었다.

'큰 믿음 경영' 선포에 이어, 대신증권은 2005년 6월부터 12월 말까지 7개월간 '부자만들기 펀드 증강운동'을 전개했으며, 그 결과로 목표인 1,500억 원을 초과 달성해 자산영업의 기반을 확보했다. 이로써 대신증권은 2005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제45기 손익목표를 조기에 달성

2004. 09. 24
이어룡 회장 취임식

했으며, 이는 지난 39기 이후 6년 만에 이루어 낸 값진 결실이었다. 대신증권 전 임직원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2006년 4월 3일 이어룡 회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성장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고객서비스 혁신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고객서비스 헌장을 선포했다. 고객서비스 헌장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고객 평가단 제도와 다양한 모니터링 제도 도입, 전사적 고객만족 친절교육 등 지속적인 친절운동을 펼쳐 나갔다. 지속적인 고객만족 경영의 실시 결과 대신증권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회 연속으로 글로벌경영위원회가 주최한 글로벌 고객만족도 증권부문 1위를 수상했다.

'큰 믿음 경영'과 '고객서비스 헌장' 선포는 대신의 정신적 뿌리인 '동업자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이어룡 회장의 경영철학과 확고한 의지가 담긴 것이며, '상생 경영'의 출발점이 되었다.

2006. 04. 03
고객서비스 헌장 선포

지속가능경영 체제의 구축

대신증권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대형 증권회사로서는 유일하게 5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또한 대신증권은 배당실적이 우수한 50개 기업을 선정하는 한국배당주가지수KODI : Korea Dividend Stock Price Index종목에도 선정되어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2004년에는 상장기업 중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을 산출하는 기업지배구조지수KOGI : Korea Corporate Governance Stock Price Index에 증권회사 가운데 대신증권만이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이처럼 지속가능경영의 체제를 구축한 대신증권은 보다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하여 인재 육성에 더욱 공을 들였다.

인적자산이 가장 중요한 기업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산업에서 인재양성은 경영전략의 최대 화두라 할 수 있다. 대신증권은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제공하여 임직원이 금융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대신 아카데미Daishin Academy'를 시행했다. '대신 아카데미'는 조직역량의 강화라는 대신의 당면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약 150여 개의 교육 과정을 제공했고, 직원의 적극적인 학습을 유도하고자 직급별 의무학점 부여와 학점 마일리지를 중심으로 하는 사내 학점이수제를 함께 실시했다.

전문 인재양성을 위하여 대신증권은 사내에서 각종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사내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전문분야 및 신규 사업분야의 교육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갔다. 또한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임직원의 지식정보를 확충하여 창조력을 높이고자 사내전자도서관을 운영했다. 임직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사내전자도서관

2008. 02. 20
일본 증시 전문가 초청강연회

SM(Service Manager) 양성교육

을 통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었다.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자격증의 취득을 지원했다. 온라인 교육과 연수원 집합교육 등의 교육을 통해 증권회사 직원에게 필요한 증권, 파생상품, 펀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외에도 CFA, CFP, FRM 등 금융전문자격증 취득도 적극 권장했다.

교육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을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대신증권은 2006년 4월 12일부터 6월 말까지 3차례에 걸쳐 임원 및 주요 부서장을 대상으로 닛코코디알증권, 신코증권, 오카상증권 등 일본 주요 증권사들을 방문, 연수하는 해외특별연수를 실시했다. 이 연수를 통해 금융빅뱅을 경험한 일본의 성공전략과 선진 금융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실패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글로벌 금융투자회사로의 전환을 준비했다. 2008년 7월부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시찰 연수도 이루어졌다.

대신투자은행 성장을 위한 비전 선포

대신증권은 2007년 6월 20일, 창립 45주년을 맞아 여의도 본사 대강당에서 양재봉 명예회장, 이어룡 회장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에 투자하는 Global Trust 투자은행」이라는 비전 선포와 함께, 대신투자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한 5개년 로드맵 발표행사를 가졌다. 이어룡 회장은 비전 선포식에서 "선도적 투자은행으로서의 미래상을 창조해 나가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하면서, 임직원 모두의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을 강조했다. 이

어 이어룡 회장은 "대신투자은행을 향한 5개년 로드맵을 통해, 단계별 추진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대신증권을 2011년까지는 자기자본 4조 원, 세전순이익 1조 원·ROE 25%, 예탁자산 100조 원 규모를 갖춘 명실상부한 대형 투자은행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행복에 투자하는 Global Trust 투자은행」이라는 비전 선포와 함께, 대신투자은행을 향한 5개년 로드맵인 'Hi Five Action Plan'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Hi Five Action Plan'의 명칭은 대신가족이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앞으로 5년 동안 힘차게 도전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정해진 것이며, 2007년 5월 경영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초안으로 하여 각 본부 및 부서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2007. 06. 20
'행복에 투자하는 Global Trust 투자은행' 비전 선포

2절 급변하는 환경과 대신의 혁신

최초 해외 IR 실시

대신증권은 2005년 9월 미국지역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해외 기업설명회Non-Deal Roadshow를 실시했다. 대신증권은 증권회사 가운데 외국인 지분율이 꽤 높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외 IRInvestor Relations 활동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가 상승률이 경쟁사에 비해 낮아 이를 해외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해외 IR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주가의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고 해외 투자자 및 주주 관리를 위해 대신증권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1주일간의 해외 기업설명회를 실시했다.

먼저 대신증권의 핵심전략과 장점들을 설명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준비에 1개월 가까이 소요되었다. 해외 기업설명회를 주관한 킴엥Kimeng증권의 애널리스트와 검토 및 수정 작업을 거쳐 본격적인 IR 활동에 나섰다.

뉴욕 월스트리트Wall Street에서 주식시장이 열리기도 전인 아침 8시부터 IR미팅이 시작되었다. 첫날 뉴욕에서 8개 기관과 미팅을 진행했고, 둘째 날 뉴욕에서 5개, 그리고 셋째 날 보스톤에서 5개, 넷째 날 덴버에서 2개, 샌디에고에서 1개, 다섯째 날 포틀랜드에서 1개, 샌프란시스코에서 2개 기관 등 총 24개 기관과 IR 미팅이 진행되었다. 미국에서 비행기만 5번을 갈아타면서 동부에서 서부까지 미대륙을 5일 만에 횡단한 기업설명회였다.

2007. 11. 02
런던증권거래소 GDS 2천만 주 상장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의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 명확하고, 담보대출 비즈니스의 경우 아주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 평가하면서 전반적으로 회사 내용이 훌륭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모 투자기관은 IR 미팅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매수 주문을 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대신증권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IR 미팅을 통해 좀 더 알기를 원하는 분위기였다.

첫 해외 IR은 기존 주주들에게는 다시 한 번 대신증권의 기업가치를 이해시켜 주었으며, 잠재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매수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해외 기관투자자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대신증권의 기업이미지를 홍보했다는 점도 큰 성과로 평가받았다.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IR 실시 이후 대신증권 주가는 1만 4,000원대에서 4개월 만에 2만 8,000원대로 2배 이상 상승했고, 외국인 지분율도 30%대에서 38%대까지 상승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대신증권의 해외 IR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외국계 투자자와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로 발전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

증권회사 최초 해외 GDS 발행

대신증권을 비롯한 국내 증권회사들은 본격적인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대형 금융투자회사로 성장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다수의 증권회사 신설허용과 수수료 인하 경쟁 등 시장 환경도 급변하고 있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경영환경에서 대신증권은 회사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새로운 금융환경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그 일환으로 2007년 11월 2일 대신증권은 국내 증권회사 중 처음으로 해외 GDSGlobal Depositary Shares 1억 2,900만 달러를 발행함으로써 자기자본을 확충했다. GDS는 GDRGlobal Depositary Receipts을 지분화한 것으로, 예탁증서 거래의 기초단위가 되는 증권을 의미한다.

대신증권은 10월 26일 제2종 우선주 1,000만 주를 원주로 한 2,000만 GDS를 발행, 11월 2일 런던증권거래소의 프로페셔널 시큐리티 마켓에 상장시켰다. 대신증권은 GDS 발행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가용투자자본을 확보하여 투자은행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략적 제휴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구축

2007 사업연도를 시작하며 이어룡 회장은 'BEST 투자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한 원년'으로 선포하고, 5개년 로드맵을 바탕으로, 회사의 모든 부문에 걸쳐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했다. 특히 대외적으로 각종 전략적 제휴와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을 대폭 확대해 나갔다. 중국의 자오상증권과 심천캐피탈을 비롯해 대만,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시아 지역의 성장성이 높은 국가들의 현지 금융기관들과 금융네트워크를 공고하게 구축했다. 대신증권의 해외 비즈니스의 추진방식 특성은 외형을 늘리기보다는 실질적인 영업기반을 구축하고 저변을 확대하는데 주력했다는 점이다.

대신증권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투자회사로의 발전을 위해 일본 최대의 독립계 자산운용사인 스팍스 에셋매니지먼트로부터 외자유치와 함께 전략적 제휴를 추진했다. 2005년 12월 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보통주 4.5%를 발행하여 일본 스팍스 에셋매니지먼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주식 수는 대신증권 보통주 218만 7,000주이고, 발행금액은 402억 원이었다.

2006년 8월 29일 일본 닛코코디알그룹과 전략적 자본제휴를 맺었다. 2007년 10월 15일에는 중국 심천캐피탈그룹과 중국기업의 한국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 업무제휴 등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어 11월 20일 중국 자오상증권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2008년 1월 17일 베트남의 호치민씨티증권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바탕으로 IB 사업 전반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으며, 같은 해 10월 14일에는 캄보디아 로얄그룹과 업무제휴를 통해 IB를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관련 업무를 영위해 나가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해외사무소를 통한 해외영업의 거점 확보에도 주력했다. 2008년 7월 9일 중국 상해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중국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08년 2월 16일 재설립

2006. 10. 16
일본 닛코코디알그룹과 자본제휴 조인식

2008. 07. 09
상해사무소 설립

2009. 02. 04
홍콩 현지법인 영업개시

2005.
부자만들기펀드 광고

된 홍콩현지법인Daishin Securities Asia Limited은 2009년 2월 4일부터 해외 IB 비즈니스 전진기지 역할 수행을 위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홍콩은 글로벌 금융기관에게는 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아시아에서는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IB 비즈니스 전진기지로 인식되었다. 홍콩법인은 동경, 상해사무소와 함께 대신증권이 아시아 대표 플레이어Asia Regional Player로 성장해 나가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자산관리 영업기반 확충

대신증권은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해 영업의 기초가 되는 예탁자산 증가 운동 등 자산증대 운동을 꾸준히 추진했다. 또한 간접투자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적립형펀드 및 랩Wrap 상품에 대한 신규 고객 확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위탁영업을 위한 고객기반을 확충하고자 노력했다. 2005년 4월 1일 자산영업의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팀과 고객자산팀을 합쳐 자산영업추진팀을 신설했다. 자산영업추진팀은 기존의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일임형 랩 및 방카슈랑스 업무뿐만 아니라, ELS 판매와 신규 상품개발 등 위탁업무를 제외한 모든 자산영업 지원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새로운 펀드 상품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 대신증권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루 갖추는 것이었다. 2005년 6월에 대신증권은 '부자만들기펀드'를 출시했다. 이 펀드는 주식시장의 상승을 겨냥해 내놓은 주식형 투자상품으로, 주가 상승기에는 업종대표 대형우량주, 가치주 및 고배당주에 집중 투자해 이익을 내며, 주가 하락기에는 주식편입비율을 낮추고 선물 매도 포지션을 늘려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2005년 7월에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채권혼합형 상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안정적 자금운용을 원하지만 은행금리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대안상품으로 호평을 받았다.

2007년 3월에 내놓은 '대신부자만들기 일본펀드'는 장기불황에서 벗어난 일본 경제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상품이었다. '대신부자만들기 일본펀드'는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세계적인 운용사의 일본 투자 주식형펀드 중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로, 원·엔 환율의 환 헤지로 환율 변동의 위험을 낮추었다.

'대신부자베스트 펀드랩'은 2008년 4월에 선보였다. 「자본시장법」으로 상품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수많은 펀드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대신증권은 고객들에게 유망 펀드를 추천해주는 펀드랩 상품을 구성한 것이었다. '대신부자베스트 펀드랩'은 6개월마다 편입하는 펀드

를 재조정해 시장 상황에 맞는 베스트 펀드만을 골라 투자할 수 있게 했다. 대신증권만의 첨단 금융공학으로 찾은 최고의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최고의 펀드를 유형별, 지역별로 나눠서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추도록 했다.

차세대 금융시스템 오픈

대신증권은 빠른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IT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차세대 금융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먼저 2006년 8월 온라인 거래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자 고객별 맞춤서비스를 강화한 ARS 시스템을 오픈했다. 이어 2007년 3월 15일 'U-사이보스 글로벌'을 출시했다. 이 시스템은 'U-사이보스'의 글로벌 증시 분석기능과 인공지능형 자동검색 기능을 대폭 강화한 시스템으로 주목을 받았다.

대신증권은 「자본시장법」 환경에 맞는 IT 인프라 구축을 위해 차세대 금융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2009년 5월 4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차세대시스템 'GIANT'는 대신증권 창사 이래 규모나 개발범위 면에서 최대 규모의 IT시스템 구축사업이었다.

대신증권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만 혁신할 수 있습니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2006년 3월부터 차세대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대신증권이 차세대시스템에 적용한 자바기술J2EE에 대해 업계 모두가 무모한 도전이라는 우려를 보였지만 대신증권은 자바기술의 성숙도와 발전 방향성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갖고, 혁신을 위한 뚜렷한 목표 의식으로 도전했다. 자바기술은 호환성이 뛰어난 기술로 모든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운영할 수 있고 다양한 인터페이스 통합이 가능

2007. 03. 15
'U-사이보스 글로벌' 출시

2006. 08. 21
차세대 ARS 시스템 오픈

해 비즈니스 환경에 유연한 대처가 용이해졌다.

ERP를 도입한 재무회계시스템도 국제기준에 맞춘 표준적인 회계처리와 다양한 정보를 생성하고 처리하게 됐다. 고객의 경우, 차세대시스템을 통해 주식·채권·ELW에서부터 수익증권·CD·CP·RP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한 종합투자상품이 제공됨으로써 고객이 하나의 상품 내에서 다양한 유가증권을 투자할 수 있게 하여 투자의 편리성이 향상되었다.

3절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극복한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2008년 9월 15일한국시간 9월 16일, 160년 된 미국의 대표 금융기업이자 세계 5위의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 Holdings, Inc.가 파산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소식에 세계증시는 폭락하고 무려 6,000억 달러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리먼브라더스, 베어스턴스 등 많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합병이나 파산으로 없어졌고, 그들과 거래하던 많은 금융기관들이 손실을 봤다. 하지만 대신증권은 2007년 7월 말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해 해외 IB의 부실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손익 및 투자전략 등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해 손실위험을 줄였다. 2007년 해외 DR 발행을 위해 뉴욕, 보스턴, 런던 등을 방문하면서 세계경제의 이상현상을 감지한 노정남 사장과 양홍석 전무 등 경영진은 철저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2007년 8월 3일 대신증권은 대규모 헤지펀드 손실 가능성이 예상되는 베어스턴스를 거래상대방에서 제외했다. 또한 2008년 3월 17일에는 파산위험이 유력한 IB로 거론된 리먼브라더스를 적격 거래상대에서 제외하고, 제한적 거래만 허용했다. 신규 ELW 발행에 일정 비율의 담보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해 대신증권은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인한 손실을 입지 않았으며, 오히려 무위험 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2007년 가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1년 동안 대신증권은 1,016

2008. 09.
파산한 리먼브라더스

억 원의 부동산을 매각했고, 해외 GDS 1억 2,900만 달러를 발행해 유동성을 늘렸다. 또한 경제 전체적으로 과도한 투자가 진행된 부동산부문의 부실을 우려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도 억제하고, 기존에 투자한 금액도 2008년 7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전액 회수했다. 고유자산운용부문에서 주식 등 위험도가 높은 상품의 운용규모를 대폭 줄였다. 보유 채권도 안전성과 환금성이 높은 국고채와 통안채 등 초우량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2008년 정부의 금리인하 정책으로 국고채와 통안채 등 초우량 채권 중심으로 금리가 인하되어 채권평가이익이 크게 늘어났다.

특별자산펀드 횡령 사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대신증권은 어려운 시장환경 속에서도 변화를 선도한다는 각오를 다지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다. 하지만 2009년 초, 대신증권 계열사인 대신투자신탁운용㈜, 대신자산운용에서 발생한 특별자산펀드 관련 횡령 사건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007년 7월 특별자산펀드 업무를 처음 시작한 대신투자신탁운용은 특별자산팀을 신설하고, 외부에서 특별자산펀드 업무 경험이 풍부한 권모 팀장 등 경력직원 2명을 채용했다. 대신투자신탁운용은 특별자산펀드 업무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외부채용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횡령 사건은 권 팀장이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저지른 것이었다. 횡령 행위는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이루어졌으며, 2009년 2월 1일 횡령 사실을 인지하여 사태수습에 착수했으며 2월 9일 금융감독원에 횡령 사건에 대해 보고했다.

2009년 2월 14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었고, 수사 결과 횡령금액은 무려 265억 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 팀장은 특별자산펀드 SPC 은행계좌에서 부당하게 자금을 인출하여, 이전 직장에서 운용했던 특별자산펀드를 상환하거나 본인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 권 팀장은 사업자와 부당하게 내통하여 펀드 자금을 불법적으로 임의 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범죄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권 팀장은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횡령 사건과 관련해 2009년 5월 15일부터 6월 1일까지 금융감독원 부문검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대신투자신탁운용은 ① 간접투자재산 횡령 ② 간접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③ 내부통제 불철저 등을 지적받았고, 특별자산펀드 신규 및 추가 설정 금지 등의 업무에 대한 6개월 정지 명령을 받았다. 사고 직원은 면직처리 되었고, 관련 임직원은 정직·감봉·견책·주의 조치되었다.

대신투자신탁운용은 빠른 사후조치를 실시했다. 우선 전격적인 인적 쇄신을 위해 대표이사 변경, 상근임원 보강, 준법감시인 교체, 경영지원본부 등 7본부 모든 본부장에 대한 순차적인 교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내부 규정을 새로 만들고, 직제 및 인력을 정비했다. 특히 특별자산펀드 투자절차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했다. 대신증권은 2009년 6월 1차 280억 원 증자, 2012년 6월 2차 260억 원 증자 등 대신투자신탁운용에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보강했다. 2010년 5월 27일에는 새로운 각오로 고객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사명을 '대신자산운용'으로 변경했다. 사명의 변경과 함께 '정직과 성과로 신뢰받는 알찬 운용회사'라는 비전을 수립한 대신자산운용은 시장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철저한 위기관리 강화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자본시장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금융시장은 큰 변화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대신증권은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의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대신증권은 2007년 가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1년 동안에 1,016억 원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유동성을 확보했다. 또한 시장 전반적으로 과도한 투자가 진행된 부동산의 부실을 우려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를 억제했고, 기존에 투자한 금액도 2008년 7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회수했다.

2009년 5월에는 신상품 리스크관리의 강화 및 감독기관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차세대 종합리스크관리시스템TRMS : Total Risk Management System을 새롭게 도입했다. 차세대 종합리스크관리시스템은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및 전사적인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각 상품별, 조직별 운용한도와 민감도 한도 등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 계획Contingency Plan 지표 보고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적시성 있는 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향후 파생상품 시장이 확대되고, 전문화된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파생상품 자체평가모델을 구축하여 독립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신용리스크는 BaselⅡ 표준방식을 준용하여 Credit VaR3를 산출할 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의 Total Exposure총위험 노출도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신용리스크관리가 가능해졌다.

차세대 리스크관리시스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운영리스크의 강화이다. 국내외 금융회사나 횡령, 내부사취 등의 금융사고 및 예기치 않은 시스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신증권은 Basel Ⅱ 표준방식의 운영리스크 측정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핵심 리스크지표KRI 관리 및 리스크 자가평가RCSA를 수행하여 전사적인 운영 리스크관리 문화를 구축해나갔다.

2010. 01. 28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 시상식

고유자산운용부문에서 주식 등 위험도가 높은 상품의 운용규모를 대폭 줄였고 보유채권도 안전성과 환금성이 높은 국고채와 통안채 등 초우량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2009년에는 리스크관리부 내 심사 기능을 분리하여 심사분석부를 신설하여 리스크와 심사 기능의 전문화를 꾀했다. 그 결과 2009년 국내신용평가사한국기업평가, 한신정평가로부터 우수한 자산건전성 및 유동성, 위탁매매의 양호한 시장지위와 수익창출력을 높이 평가받아 기존 A+에서 1등급 상향되어 AA-의 신용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대외적으로 대신증권의 재무적 안정성과 리스크관리 수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같은 해 10월 20일 대신증권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KOREA에 편입되었다. 이 평가에서 대신증권은 기업지배구조, 리스크관리, 환경 관련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한국거래소KRX로부터 2009년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사로 선정되었다.

STORY
1962

양회문 회장의 꿈과 소망

언론 인터뷰에서 대신증권의 장기적인 비전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면 양회문 회장은 늘 한결같은 대답을 내놓았다.

"대신을 금융전문그룹으로 키워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 꿈을 대신 직원들과 함께 이루겠습니다."

양회문 회장은 1951년 3월 4일 전라남도 나주시 송촌동에서 양재봉 창업자의 4남 4녀 가운데 차남으로 태어났다. 서울 덕수중학교, 양정고등학교,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75년 공채 1기로 대신증권에 입사했다. 평사원에서 출발한 그는 대리, 과장, 차장 때까지 동기들과 같은 진급심사를 통해 한 단계씩 진급하는 과정을 거치며 경영수업을 받았다. 1978년에 발생한 박황 사건으로 양재봉 창업자가 회사를 떠나 있는 동안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1997년 10월 양회문 회장은 대신그룹 부회장 겸 대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에 선임되었다. 취임과 거의 동시에 IMF 위기를 맞아 경영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평소 강조해온 손익경영, 투명경영, 인적자원 육성과 주인의식 고취를 강조하며 대신증권을 초우량 대형증권사로 일구기 위해 노력했다. 전천후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해 대신증권을 국내 증권사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제일 높은 증권사, 재무구조가 우수한 증권사로 육성했다. 그 결과 종금, 은행, 증권 등 많은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인수 합병되면서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는 적자생존의 시대에도 대신증권은 제39기1999년 4월 ~ 2000년 3월에 업계 최고 순이익을 기록했고 사이버영업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시켜 나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내실경영과 신뢰경영을 기반으로 한 체질 강화

양회문 회장은 2001년 4월 대신증권 2대 회장에 선임되었다. 대신증권 회장 취임 직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했던 문제는 재무구조 정비였다. 양회문 회장은 증권, 경제연구소, 투신운용 중심으로 그룹을 정리하여 내실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양회문 회장은 대신증권을 국제수준의 재무건전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한 신뢰받는 회사로 이끌고자 했다. 증권, 금융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창조적인 선도자로서 대한민국 대표 금융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사이버거래뿐만 아니라 금융 각 부문에서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양 회장이 생각한 최고의 회사는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자 최고의 수익성과 전문성, 경쟁력을 확보한 회사로 모두에게 최고의 만족과 행복을 안겨주는 회사를 의미했다.

2002년 6월 20일 대신증권 창립 40주년을 맞은 기념식 자리에서 양회문 회장은 「행복을 창조하는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양회문 회장은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와 수익구조 다변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통한 '손익중심의 투명경영'을 더욱 확고히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익을 거두는 시스템을 만들어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두었다.

소통과 융화로 진정한 '동업자 정신' 실천

대신증권과 임직원에 대한 양회문 회장의 사랑은 각별했다. 검소했던 그는 양복은 서너 벌이면 족하다고 여겼고 구두는 두 켤레를 갖고 번갈아 신었다. 스스로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고 근검절약했지만 직원과 대신의 미래를 위한 지원에 대해

서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아낌이 없었다. 소주 반 병, 맥주 한 병에 불과한 주량이었지만 영업실적이 뛰어난 점포가 있으면 언제라도 달려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어울렸다.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토론하기를 즐겨했으며, 때로는 리더십 강한 경영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속 깊은 선배로 직원들을 보듬었다.

양회문 회장은 부친 양재봉 창업자로부터 물려받은 '동업자 정신'의 경영철학을 한 단계 발전시킨 주인공이었다. 확고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치단결해 목표를 완수해 나가는 기업문화를 평소 강조했다. 함께 노력해서 얻은 성과를 공유하고자 했던 그는 주주, 임직원, 회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자 했다. 이러한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삼분법三分法'이었다. 삼분법은 회사의 경영성과를 주주, 임직원, 회사가 공유하도록 제도화해서 정착시킨 것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대신증권 임직원들은 2003년 증권업계 최초로 도입한 신우리사주조합제도[ESOP :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를 통해 자신들이 노력해 거둔 회사의 성과를 주식으로 받았다.

1993. 05. 07
'공사 분명한 실무베테랑 양회문 부회장' 언론 기사(매일경제)

1997. 10. 16
양회문 부회장 인터뷰 기사(한국경제)

대신증권의 ESOP제도는 주주·임직원·회사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상생경영'의 결실이었다. 임직원 모두가 회사의 주주이며, 회사의 성과가 곧 개인의 성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었다. 이로써 대신증권은 모든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업계 최고가 되고자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바람직한 기업상을 정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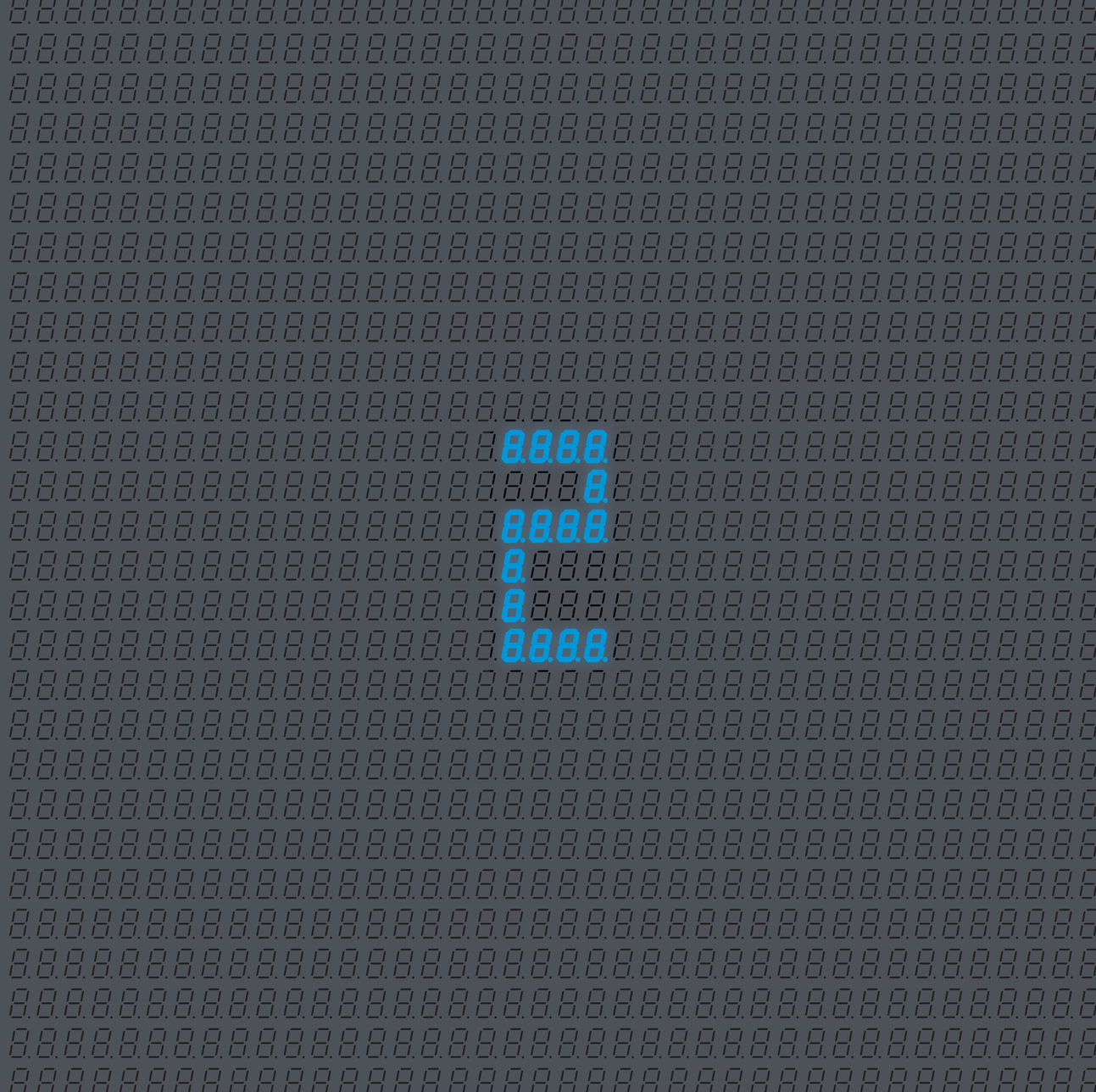
그러나 2004년 9월 17일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 전해졌다. 2002년 초 폐암진단을 받고, 2004년까지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초인적으로 회사를 이끌어왔던 양회문 회장이 향년 53세를 일기로 타계한 것이다. 그의 타계는 대신증권의 새로운 비상과 금융그룹으로의 도전을 함께 이루어가던 대신가족들에게는 큰 슬픔과 충격이었다. 증권업계도 훌륭한 증권인, 뛰어난 경영인을 잃었다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대신증권주식회사의 발행 주식은 제3자에게 매각 또는 처분하지 않도록 하라.」

양회문 회장의 유언장에 기록된 내용이다. 유언의 대부분은 대신증권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직원들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내용이었다. 그는 대신증권이 영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으며, 대신 임직원들이 진정한 대신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했다.

2부 2022

2010
2022



Daishin
Daishin
Finance Center
은행연합회
서울YWCA

Daishin
Finance Center

Daishin Financial Group
60년사

1장. 금융그룹으로의 첫 걸음

2010

2012

STORY
2022

새 길을 여는 첫 걸음

질문

"대신의 성장 전략은 무엇입니까?"

2007년 10월 대신증권이 증권업계 최초로 해외 GDS를 발행했을 당시 미팅에서 만난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이 미래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앞으로의 성장 전략을 궁금해 했다.

대신증권은 2007 사업연도를 시작하며 'Best 투자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한 원년'으로 선포하고, 5개년 로드맵을 세운 바 있었다. 투자자들에게 그 로드맵에 기초한 미래 전략을 설명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들었다.

과연 이것이 정확한 대신증권의 성장 전략일까?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

당시 투자은행으로의 도약, 외형적 성장 등의 비전은 정부의 증권회사 대형화 정책이 상당히 반영된 결정이었다. 증권업은 금융 정책에 따라서 둑이 쌓이기도 하고, 물꼬가 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법의 제정이나 정책을 상당 부분 고려해야 했다. 문제는 시장 상황이 시시때때로 변한다는 점이었다.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도 자주 바뀌었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자본시장법의 골자를 살펴보면 외형적 규모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장 변화에 끌려가는 것보다 주도적으로 한 발 앞서야 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 위한 대신만의 성장 전략이 필요했다.

“/ ‘우리의 성장 전략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GDS 발행에 성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대신의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숙제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진 가치를 외부에서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안타까웠고, 회사가 명확한 장기전략 없이 정체되어 있다는 위기의식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더욱 근본적인 고민은 대신증권이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리테일 분야에서조차 시장점유율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
양홍석 대신파이낸셜그룹 부회장

한 우물을 파야 하나, 다변화해야 하나. 우리가 가진 경쟁력은 무엇인가? 현재와 같은 구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 경쟁자를 따라 잡을 수 있을까? 고객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금융의 경쟁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대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일까?

질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에 대한 답은 대신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찾아야 했다. 실행에 옮길 주인공들이 직접 찾아낸 답만이 진정한 성장 전략이 될 수 있었다.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해답을 찾자. 그리고 차별화된 핵심 경쟁력을 갖추자. 이 두 가지 과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스스로를 제대로 살펴보는 일이었다.

자화상

“대신증권의 이미지와 비슷한 배우라면... 원로배우들이 떠올라요.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연기는 잘하지만 솔직히 매력은 별로인 분들.”

“늙은 수사자가 생각납니다. 예전에는 위풍당당했지만 이제는 싸움은커녕 사냥도 못하고 털도 갈기도 윤기 없고, 볼품없는 그런 사자.”

대신증권의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답이었다.

성장 전략을 세우고, 가야 할 길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사의 이미지 조사를 진행했다. 블라인드 토론에서 나온 솔직하고 신랄한 답변에 반박할 말이 없었다. 짐작은 했지만 그럼에도 막상 확인하고 나니 얼굴이 화끈거렸다.

1962년 설립된 대신증권은 한국 증권업 역사에서 주식 명가로 손꼽히는 회사였다. 업계 최초 시세전광판 개설, 자체개발한 홈트레이딩시스템인 사이보스 출시, 한국 주식거래의 역사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밖에서 바라보는 대신의 이미지는 부모님 세대가 이용하는 ‘나이 많은 전업 증권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조금씩 박제되어가는, 고착되는 이미지를 벗어야 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미래는 없다는 뼈아픈 각성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무엇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할까? 치열한 고민과 모색의 과정이 이어졌다.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 기업의 평균 수명은 30년이라는데 50년이나 된 회사가 새삼스럽게 성장 전략이라니. 그게 가능할까.

"시각을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수명을 가졌지만, 기업은 다르니까요. 고객과 함께 성장하면서 영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영속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절실했습니다. 어떻게 변할 것인가. 대신이 영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역사와 전통은 지키되 누구보다 날렵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부터 간추렸습니다."

—
송종원 증권 경영기획부문장

'대신의 강점인 인재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원칙을 가지고 전략의 구체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대신증권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했다. 대신증권 직원들의 투자 감각과 상담 능력은 자타가 공인하는 핵심 경쟁력이었다. 아울러 대신의 핵심 가치는 '신뢰와 상생'이고 이 핵심가치는 대신의 존재 이유 그 자체이기도 했다.

핵심가치를 지키기 위한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탄탄한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했다. 이론으로 만들어지는 전략이 아닌 현장의 상황이 녹아 있는 전략을 세우자. 수많은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작업이 반복되었다.

가치체계의 기초가 되는 정신은 대신의 역사와 전통을 통해 이어온 믿음과 동업자 정신이었다. 여기에 임직원과 회사만이 아닌 고객, 더 나아가 세상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신뢰와 상생Trust&Harmony' 철학이 더해졌다. '고객 자산관리 주치의로서의 금융전문 서비스 기업', 대신증권의 구성원 모두가 실천해야 할 업業의 개념이 완성되었다.

신호등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2011년 8월의 마지막 날, 새로 말끔하게 단장한 대신저축은행 원주지점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다. 도민저축은행에서 대신저축은행으로 새 출발을 위해 직원들이 주말도 없이 간판교체, 양식 변경, 전산 변경까지 꼼꼼하게 오픈을 준비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은 고객이 첫날부터 밀려들자 당황스러웠다.

"지점장님, 이상해요. 기존 고객님들이 예금을 더 넣으시겠대요. 해지 고객보다 신규 가입 고객이 더 많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오랜 영업정지 기간에 불안했던 고객들이 인출을 하러 와서 객장이 붐비는 것이라 여겼는데, 그와는 정반대였다. 고객들은 예금을 더 맡기기 위해 줄을 길게 섰다.

"대신증권에서 인수했다면서요? 당연히 금리도 더 좋고, 안전하겠지요. 이제 안심입니다."

창구를 담당하는 일손이 부족했다. 지규성 당시 원주지점 지점장은 직원들을 추가 투입해 창구를 더 열었다.

예금을 인출하러 온 손님도 없지 않았다. 할머니 한 분은 거래하던 은행 주인이 바뀌고, 장기간 영업정지를 했다가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하니, 불안한 마음에 부리나케 돈을 찾으러 왔다. 창구도 혼잡해서 연로한 할머니는 소파로 따로 모셨다. 지규성 지점장이 직접 설명을 하고, 인출을 도와드리는데 할머니는 계속 같은 질문을 했다. 도민은행은 망했다던데, 어떻게 문을 열었냐고 묻고 또 물었다.

"할머니, 이제 대신저축은행으로 바뀌었어요. 대,신,저,축,은,행"

"뭐? 대신 준다고? 돈을 대신 줘서 대신저축은행이야?"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여서 되묻는 바람에 은행 안의 모든 고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2011년에 인수한 저축은행은 그동안 쌓아온 '대신'의 신뢰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파란 신호등을 환하게 밝혔다.

업을 확장하고, 어떤 변화 속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천년 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았지만 혁신의 속도보다 위기가 한 발 빨랐다. 증시 침체로 거래량은 활황기 대비 반토막이 났고, 업계의 과당 경쟁으로 브로커리지주식·선물중개 수수료는 급감했다. 브로커리지 매출 비중이 60% 이상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었던 대신증권이 받은 타격은 컸다. 적자 영업점이 속출했다.

브로커리지에서 자산관리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중이었지만, 자산관리 영역에서는 아직 이익을 내는 단계가 아니었다. 경영 실적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예상을 한 위기였음에도 눈덩이처럼 커지는 적자 앞에서 신호등은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비상등을 켜야 했다. 그렇다고 혁신의 고삐를 늦출 수도 없었다. 빠르고 안전하게 위기를 돌파하자. 빨간불이 깜빡이는 2012년 말, 대신증권은 곧장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했다.

1절 변화를 위한 준비

자본시장법의 제정과 시행

우리나라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의 기본법인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커다란 변화의 흐름을 맞이한다. 2006년 재정경제부는 우리나라도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해 해외 투자은행들과 경쟁하자는 취지에서 「자본시장법」의 입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며, 종전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 법을 폐지·통합하여 법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한 법률이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높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자본시장법」은 2007년 8월 3일 공포되었다.

자본시장법의 목적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1)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

2) 기관별 규율체계에서 기능별 규율체계로 전환

3) 업무범위 확대

4) 투자자 보호 강화

위와 같은 목적에서 만들어진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기업의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법이 시행된 것은 2009년 2월 4일부터였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은 본격적인 변화를 맞이하면서 국내 증권업계의 경쟁도 한층 심화되기에 이른다.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시장의 업무영역 제한이 완화되었다.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영역제한이 없어져 일정 요건만 갖추면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금융투자상품에 포괄주의가 적용되었다. 이전에는 법에서 정해놓은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전환되면서 법에서 금지한 상품 외에는 자유롭게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상품의 내용과 위험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인식시키고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하도록 했다. 투자자가 요

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와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가 법률로 금지되었다.

넷째, 증권사에 소액결제 권한을 부여했다. 이용자가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급여를 자동이체하면서 필요할 때 증권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신용카드 결제나 각종 공과금 납부, 송금, 현금자동출납기를 통한 입출금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본시장법의 시행이 가져온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투자자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이전보다 사업기회가 많아져 다양한 수익구조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증권사·자산운용사·선물회사의 겸영 허용,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열거주의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전환되면서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증권사들은 상품선물이나 해외선물 시장에도 진출이 가능해졌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다.

고객 중심의 자본시장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내 증권업계의 경쟁은 한층 심화되었고, 변화된 경영환경 속에서 대신증권 또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특히 국내 증권사는 천수답天水畓식의 위탁매매 비중이 줄고 선진 IB와 자기매매 비중이 증가하면서 글로벌 기준에 가까워지는 전기를 맞았다.

대신증권은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단순한 외형성장에 치중하기 보다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질적 성장을 추구해 나갔다. 특히 최고의 금융전문 서비스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 강화에 주력했다.

가치체계의 재정립과 체질 개선

대신증권은 2007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시기부터 핵심가치와 이에 기초한 가치체계, 미션을 차근차근 준비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는 과정에 앞서 핵심 가치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업業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았다.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대신의 모든 구성원은 이 질문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을 찾았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성찰과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얻은 답이어야만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논의와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핵심 가치는 세 가지였다. 첫째 고객의 신뢰, 둘째 고객과의 상생, 셋째 고객을 위한 혁신이었다. 신뢰와 상생, 혁신의 중심은 모두 '고객'이어야 했다.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대신은 진실된 금융주치의로서 고객과 동행하여, 신뢰받는 아름다운 기업이 되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비전이 도출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완성된 미션은 「고객과 상생하는 세계 최고의 신뢰기업」이었다.

가치 목표는 '고객과 직원 그리고 회사의 Triple Win을 통한 행복 추구'로 정해졌고, 새로운 경영방침으로 '고객가치 중심, 기본과 원칙 중시, 금융주치의 지향, 손익과 성장의 균형'이 제시되었다. 가치체계를 정립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 가치체계의 기초가 되는 정신은 대신의 역사와 전통을 통해 이어온 믿음과 동업자 정신이었다. 여기에 임직원과 회사만이 아닌 고객, 더 나아가 세상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 '신뢰와 상생Trust&Harmony'의 철학이었다.

'고객 자산관리 주치의로서의 금융전문 서비스 기업'이 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까? 고심 끝에 찾은 서비스 체계는 '금융주치의서비스'였다.

'금융주치의서비스'는 특정 종목이나 상품을 제시하는 일회성 서비스가 아니라 시장 상황과 고객 니즈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리스크관리와 사후관리까지 고객의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이다. 즉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서비스보다 고객가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대신증권은 금융주치의서비스 시행을 위해 2009년부터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서비스 매뉴얼을 만들었다. 'Logic&Portfolio센터'를 신설해서 영업직원들에게 시장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와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고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영업직원들을 금융주치의로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실력을 쌓

2010. 01. 09
금융주치의 선포식

을 수 있게 했다.

2010년 1월 9일 '금융주치의 선포식'이 열렸다. 이날 이어룡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했다.

"우리는 금융주치의 선포식을 통해 고객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실된 관계를 추구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자 여기에 모였습니다. 금융주치의로서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서 대신증권이 고객과 상생하는 세계 최고의 신뢰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대신증권 영업점 전 직원들은 이 자리에서 금융주치의서비스의 핵심철학을 공유하고 선포식을 통해 금융주치의로서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고객의 투자건강과 리스크관리를 책임질 것을 다짐했다.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출시

빌리브서비스 금융주치의서비스의 출발과 함께 자산관리 영업활성화를 위해 선보인 '빌리브Believe서비스'는 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자산을 한곳으로 모아, 높은 CMA 금리 등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금융상품 통합관리서비스이다.

펀드 이동제에 대비하고, 금융주치의서비스를 강화, 지원하기 위해 고객가치 중심의 철학을 반영한 빌리브서비스는 2009년 10월 출시되었다. 빌리브서비스는 펀드에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은 물론, 타사로부터 펀드를 이동해 오는 고객을 대상으로 CMA 금리 최고 연 9%와 펀드담보대출 최저 연 1% 등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차별화했다. 이와 더불어 보유펀드에 대

2009. 11. 11
빌리브 가두 캠페인

한 진단에서부터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펀드투자건강서비스도 함께 제공했다. 단순히 고객에게 매매보고서를 발송하는 것을 넘어 보유한 투자상품에 대한 진단은 물론 추천에서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고객에 대한 진정성이 담긴 빌리브서비스를 통해 대신증권은 펀드판매사 이동제도 실시 후 펀드이동 유입액에서 2010년 3월 말 기준으로 1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여 업계 2위의 자리까지 오르는 등 시장에서 큰 인기를 모았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펀드시장의 대량 환매가 이어지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의 펀드 자산은 오히려 증가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온라인 금융주치의, 오아시스 대신증권은 금융주치의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때부터 리스크관리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집중했다. 리스크관리 서비스들이 대부분 금융주치의를 통해 전달되는 서비스였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여 투자하는 온라인 고객은 리스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신증권은 2010년 10월 금융투자업계 최초로 온라인 고객들의 리스크관리와 자산관리를 위한 온라인상의 금융주치의인 '오아시스Organized Attractive Simple Investment System'를 선보였다.

온라인 금융주치의, 오아시스OASIS의 가장 큰 특징은 '종목선정 → 보유 종목 모니터링 → 매매타이밍 선정 → 매매내역 진단'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고객이 직접 리스크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이다. 각 과정별 필요한 기능을 고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특히 주식매매의 사전단계에서 사후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사용하기 쉽게 구성했다.

오아시스는 종목선정이 리스크관리의 시작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금융공학 모형, 애널리스트 및 금융주치의 추천종목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엄선된 관심종목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조건에 맞춘 종목검색도 가능하게 했다. 기업실적, 외국인과 기관 매수상위, 차트패턴, 워렌버핏 같은 투자대가들의 종목 선정기준 등 다양한 검색을 통해 신속하게 종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최근 많이 매수하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업종수급 삼국지', 과거 3년간 수익률 데이터를 분석해 상위업종을 제공하는 업종달력 기능과 업종별 주도주와 관련 종목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픽 종목 기능을 통해 월별 관심업종과 종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매매내역 진단기능에서는 자신의 손익과 매매수익률뿐만 아니라 이익과 손실이 많았던 종목과 주로 매매했던 종목의 내역, 과거에 매매했던 종목의 매매성공률까지 제공한다. 당시의 시장 주도주와 주도업종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스스로 시장 흐름에 효과적

2010. 08.
'빌리브서비스' 광고

2011.
온라인 금융주치의 '오아시스' 광고

으로 대응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투자했던 종목의 매수·매도 시점과 뉴스·공시 및 다양한 기술적 지표들을 조합하여 차트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매매복기 차트'를 제공하여, 적합한 매매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이 밖에도 오아시스는 보유종목에 대한 펀더멘털, 수급 등 각종 투자정보를 제공하며, 보유종목이 목표가나 손절가에 도달하면 문자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했다.

맞춤형 상품 2011년에 들어서 글로벌 경제위기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객들은 고수익보다는 시장 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대를 타깃으로 '꼬박꼬박 월 적립형 서비스'를 출시했다. 세대별 맞춤형 금융상품인 '꼬박꼬박 월 적립형·지급형 서비스'는 2011년 8월 17일 출시되어 불과 1개월 만인 9월 21일 가입자 2만 376명, 계약금액 628억 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2년에는 채권과 ELS를 중심으로 고객자산을 증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이를 위해 Logic&Portfolio센터와 CM사업단과의 협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략 상품과 관련 콘텐츠 및 교육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갔다.

고객만족서비스 대신증권은 금융주치의 철학을 반영하고, 금융주치의서비스 핵심내용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고객만족 전략을 새롭게 정립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월 700여 명의 고객으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만족도 자료를 수집하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반기별로 영업점과 공유해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했다.

차별화된 고객만족서비스와 고객중심의 CSCustomer Satisfaction문화 전파를 위해 다양한 CS활동을 추진했다. 직원 화합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능동적인 활동부터 고객과 직원, 회사의 CS마인드 고취를 위한 활동까지 활발하게 전개해 나갔다. 뿐만 아니라, CS컨설턴트를 양성해 CS 교육체계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116개 전 영업점과 본사 부서에 고객의 소리VOC 담당자를 지정해 모든 VOC에 대해 접수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회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책임있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또한 홈페이지, 전화, 엽서, 이메일 등 고객참여 채널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고객의 소리를 통해 발굴된 고객 불편 관련 이슈들을 지체 없이 처리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대신증권은 일본능률협회JMA에서 주관한 글로벌 고객만족도GCSI 조사에서 증권부문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높은 고객만족도를 인정받았다.

새로운 CI 선포

2010년 유럽발 재정위기의 확산 우려 속에서 시작한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은 차별화된 전략과 우월한 역량 확보를 통하여 한 단계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장기적 발전전략 마련을 통해 대신의 미래상인 비전을 「대신은 진실된 금융주치의로서 고객과 동행하여, 신뢰받는 아름다운 기업이 되겠습니다」로 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무적 성장', '운영효율성의 제고', '관계관리 강화'의 3가지 전략주제 아래 세부 전략목표를 수립했다.

2011.
'꼬박꼬박 월 지급식 서비스' 광고

2012. 06. 28
일본능률협회 주관 글로벌 고객만족도(GCSI)
조사 6년 연속 증권사부문 1위

2010. 05. 28
대신 New CI 선포식

대신 New CI 및 컬러

새로운 금융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변화도 꾀했다. 신뢰와 상생의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환경과 도전 과제에 맞는 서비스혁신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의지를 담아 대대적인 CI 변경 작업에 착수했다.

CI 리뉴얼 프로젝트는 대신이 일관되게 지켜온 전통과 철학을 강화하고, 미래를 향한 도전과 진화를 담은 CI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었다. '대신 CI 리뉴얼 프로젝트'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9개월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2010년 5월 28일 대신금융그룹은 미래를 향한 도전과 가치를 담아 새로운 CI를 선포했다. 새롭게 선보인 CI는 대신증권의 경영철학인 '믿음경영'을 보다 발전시켜 '신뢰와 상생'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심볼마크는 회사가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고객과 회사 간의 진실한 신뢰 관계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겠다는 상생의 의미를 내포했다. 기존 심볼의 'ㄷ'과 'ㅅ'의 융합을 새롭게 디자인한 심볼마크는 금융그룹으로서의 전통과 신뢰감을 표현함과 동시에 대신증권의 변화와 젊음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추진력을 나타낸다. 두 개의 도형을 마주보게 함으로써 금융을 보는 균형적인 시각을 상징하려 했고, 조화와 균형을 통한 상생의 의지를 표현했다. 직사각형 모양에서 정사각형으로 변화를 주면서 정중앙에 공간을 배치해 간결하면서도 안정감을 높였다.

심볼에서 응용한 기업전용 서체도 함께 개발했다. 대신 전용서체는 직선과 절제된 사선을 조합해 기업의 안정감, 신뢰감과 함께 고객과 상생하는 대신증권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담아냈다. 사색社色은 그린Green에서 블루Blue까지 이어지는 5가지 색의 단계적 변화인 'Green to Blue'로 변경했다. 그린은 진심 어린 배려를 통해 고객과 진실된 관계를 추구하는 감성적 신뢰를 나타내고, 블루는 금융전문기업으로서 전문성과 수익률, 리스크관리를 추구하는 합리적 신뢰를 의미한다.

2절 증권에서 금융으로, 업의 확장과 의미

대신금융그룹의 신호탄, 저축은행 인수

대신증권은 금융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금융업에 대한 사업범위의 확대 방안 가운데 하나로 여수신이 가능한 저축은행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검토를 해왔는데, 이는 증권 고객에 대한 서비스 확대는 물론, 수익안정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2008년에는 S저축은행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는 등 몇 차례의 M&A 검토가 있었다. 그러나 단기간 실사만을 통해 저축은행 부실자산의 리스크를 모두 파악하는데 제약이 있었고, 부실의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는 우려로 인해 실제 인수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2010년 부동산 경기둔화로 인한 저축은행 PF대출 부실이 이슈화되었고, 결국 2011년 1~2월에는 금융위원회에 의해 삼화저축은행과 부산계열 5개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총 8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2011년 2월 우리금융지주의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시작으로, 저축은행 정상화가 본격화되었다.

대신증권의 저축은행 인수 준비는 삼화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저축은행의 정상화가 논의되던 2011년 5월부터 시작되었다. 대신증권은 P&A[1]방식이라면 이전의 M&A방식과 비교해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저축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P&A방식으로 저축은행 매각이 진행될 경우 입찰에 참여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그리고 P&A방식의 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준비작업을 추진했다.

2011년 5월 24일, 예금보험공사는 7개 저축은행을 도민-부산2-중앙부산Package1, 부산-전주Package2, 대전-보해Package3 등 3개 패키지로 묶어서 경쟁입찰을 통해 P&A방식으로 매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해 5월 26일, 예금보험공사는 투자설명회IR에서 공사의 사전 실사 등을 통해 불법 대출채권 등 부실 자산을 배제하고, 정상채권을 이전하게 할 것이며, 추후 입찰자의 예비실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의 정산 실사 등을 통해 다시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Package Deal 구조

7개 저축銀 3개 패키지로 묶어 판다

예보, 오늘 매각공고

2011. 05. 24
7개 저축은행 3개 패키지 매각 관련 기사(동아일보)

1 자산부채이전.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융기관에 인수시키는 것. 자산부채이전은 청산이나 인수합병(M&A) 등과 부실 기업을 정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처음에는 기업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쓰였지만 요즘은 오히려 금융기관의 정리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이 방식으로 정리하는 절차는 정리대상 은행이 예금과 부채를 우량 은행에 넘기고, 여기에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판다. 자산과 부채를 넘긴 부실 은행은 껍데기만 남아 예금보험공사나 정부 주도로 청산 절차를 밟는다.

중앙부산·부산2·도민저축은행 매각

대신증권 우선협상자 선정

2011. 06. 28
대신증권 우선협상자 선정 기사(매일경제)

대신증권은 도민-부산2-중앙부산Package1, 부산-전주Package2 에 대한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예비실사 진행을 위한 TFT를 구성하고,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관련 회계 자문도 받았다. 인수 타당성과 입찰 절차 등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졌다. 예비실사를 통한 인수 대상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평가 작업과 입찰 전략 수립은 예비실사 TFT를 구성해 진행했다.

저축은행 인수전에 참여한 기관은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금융지주 3곳과 대신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 2곳이었다. 규모 면에서 금융지주 3곳이 가장 부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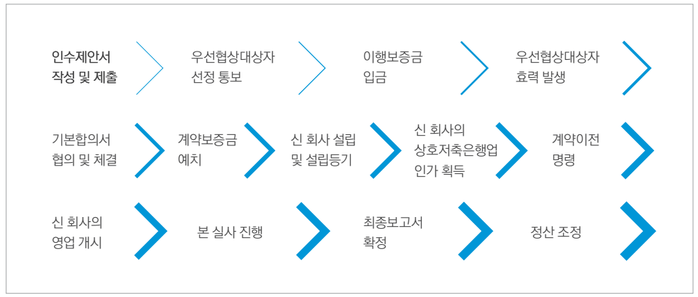
과연 대신증권이 대형 금융지주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대신증권의 저축은행 인수 참여를 놓고, 언론과 외부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저축은행 패키지 매물을 각각의 금융지주가 인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럴수록 대신인들은 특유의 근성을 발휘해 필승의 의지를 다졌다.

저축은행 예비실사 TFT는 인수의향서LOI 제출과 동시에 대림동 대신연수원 2층에 본부를 꾸렸다. 매각주관 측에서 제공한 대출관련 심사서류를 중심으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진행했다. 입찰에 얼마를 써 넣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었다.

예비실사 마무리 후, 결과를 보고 받은 경영진은 2011년 6월 24일 1,556억 원의 예금보험공사 지원2011년 8월 29일 최종 지원액은 1,629억 원으로 증가, 1,300억 원의 대신증권 자본 투자와 425억 원의 인수 프리미엄영업권을 골자로 하는 최종 인수제안서를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했다.

발표를 기다리는 사흘 동안 예비실사TFT를 비롯해 관계자들 모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마침내 2011년 6월 27일 발표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인공은 대신증권이었다. 3개 금융지주KB, 하나, 신한는 물론 키움증권과의 입찰 경쟁에서 거둔 승리였다.

저축은행 인수 주요 일정



대신증권이 중앙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패키지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증권업계를 비롯해 금융시장 전체가 놀라움을 나타냈다.

매각주관 측 실무자의 후일담에 의하면 입찰 2위인 키움증권과 대신증권의 입찰 제시 조건 차이는 10억여 원에 불과했다. 10억 원이라는 근소한 차이가 승패를 가른 명승부였다.

당시 저축은행 인수단장이었던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의 기쁨은 더욱 컸다.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저축은행을 인수해서 감개무량했습니다. 2001년 7월 대신생명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제3자에게 계약이전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입장에서 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되었지요.. 참여할 때부터 꼭 성공해야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대신생명보험의 매각 당시의 아픔이 저축은행 인수로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신저축은행 공식 출범과 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대신증권 예비실사 TFT는 '저축은행 인수위원회 및 저축은행 인수단'으로 격상되었다.

인수단의 역할과 임무는 막중했다. 무엇보다 3개의 저축은행을 동시에 인수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3개 저축은행의 급여 수준이 다르고, 무엇보다 사용하는 전산시스템도 제각각이었다. 게다가 금융위원회에서는 인가를 해주면서 저축은행 고객들 중 6개월 이상 돈이 묶여 있었던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꼭 8월 중에 오픈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수한 회사가 대신증권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정이었다. 인수 과정은 회사를 새로 만드는 과정이면서 기존 3개 저축은행의 통합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2개월2011년 6월 29일 ~ 8월 26일은 물리적으로 부족한 준비 기간이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의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과 인수단의 조직력으로 일사불란하게 역량을 발휘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2011년 8월 5일에 설립된 대신저축은행은 2011년 8월 25일에 예금보험공사와 ㈜중앙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 인수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다.

대신저축은행은 2011년 8월 26일 기본 합의서와 금융위의 저축은행업 인가 및 계약이전 명령에 따라 해당 자산·부채를 인수했다. 당시 대신저축은행의 규모는 11개 지점본점 영업부 포함, 직원 123명, 납입자본 356억 원자기자본 1,300억 원이었다. 같은 해 8월 29일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629억 원의 출연금을 수령했고, 정산 실사를 통해 12월 29일 542억 원을 추가로 수령했다.

2011. 08. 31
대신저축은행 출범

2011년 8월 31일, 대신저축은행 공식 출범식이 열렸다. 대신생명보험 매각 이후 다시 한 번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기 위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지난 50년 대신은 기본에 충실함과 동시에 혁신의 추구를 통해 더 높은 고객 가치의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금융서비스 기업은 고객의 자산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기반으로 조직원들이 업무 수행 전문성을 배양하고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이어룡 회장

"본업인 소비자 금융을 최우선하고 철저한 원칙 경영을 통해 무너진 저축은행의 신뢰를 회복해 우량저축은행으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김영진 초대 저축은행장

저축은행 인수 성공의 의의는 대신파이낸셜그룹 60년 역사상 최초의 인수를 통한 신규 사업 영역 확보라는 점이었다. 금융업에 대한 신규 인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을 넘어서는 확장은 인수·합병을 전제해야 하며, 대신증권의 발전과정에서 필요한 M&A에 대한 노하우 확보 차원에서도 의미가 컸다. 또한 증권 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성과였다. 전국 영업망을 갖춘 여수신 금융기관을 확보함에 따라 14만 명의 새로운 고객 확보와 1조 원 이상의 자산증대 효과를 가져왔다.

출범 당시 대신증권의 자본참여로 자기자본은 1,300억 원으로 늘어났고,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11.5%에 달했다. 영업망은 기존 3개 저축은행 영업점을 그대로 이어받아 서울 논현동 본점을 비롯하여 부산 덕천동·해운대·남포동·남천동 4개 지점, 강원도 춘천·원주·강릉·홍천·동해·태백 6개 지점 등 총 11개로 출발했다.

2011.
대신저축은행 논현동 본점

대신보다 더 대신답게, 대신저축은행의 기업문화 조성

대신저축은행은 '대한민국 대표 저축은행으로 도약'이라는 비전을 정하고, '여신 영업 역량 강화'와 '철저한 리스크관리', '안정적인 성장 추구',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2015년까지 저축은행 업계 선두그룹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대신저축은행은 그동안 저축은행 영업중단으로 불편함을 겪은 고객에게 최대한 안정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점에 주력했다.

대신저축은행의 출범 당시 저축은행 업계는 치열한 생존경쟁에 돌입해 있었다.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신저축은행 또한 경쟁력을 높여야 했다. 대신저축은행은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대출심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불법·변칙 대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자산운용을 통해 서민금융 중심의 우량 저축은행으로 성장 목표를 정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신저축은행 구성원들이 대신금융그룹의 일원이라는 하나의 마음으로 일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이 가장 시급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우선 내부적으로는 대신저축은행의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한마음 행사였다.

대신저축은행 한마음 행사는 2011년 11월에 처음 실시되었다.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 산행으로 시작된 이 행사는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3개 저축은행으로 구성되었던 임직원들이 '대신저축은행'이라는 하나된 조직의 일원으로 새롭게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

"출범 당시 대신저축은행은 3개의 저축은행이 합쳐진 것이다 보니 통일된 응대기준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대신저축은행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가장 열심히 한 일은 임직원들이 대신인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나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대신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대신보다 더 대신다운 대신저축은행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오익근 증권 대표이사

출범 초기 대신저축은행은 통일된 기준 없이 고객을 응대했다. 응대방법이 지점과 개인마다 상이했고, 회사 차원의 CSCustomer Satisfaction 관리 및 교육도 원활하지 않았다. 또한 본점과 지점 간의 소통채널 부재로 직원과 고객의 니즈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당시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지주사의 참여로 경쟁이 점점 심화되면서 고객의 거래기준은

2012. 06. 21
대신저축은행 논현동 본점 고객응대

금리가 큰 몫을 차지했다. 대신저축은행은 금리로 경쟁하기보다는 고객서비스를 통한 본질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 대한 고객 신뢰도가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대신저축은행은 차별화된 대신의 고객서비스로 업계 최고의 고객만족도를 달성하여 직원들은 통일된 기준에 따라 효과적인 고객서비스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신금융그룹의 이미지를 확립하여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이러한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일관된 고객응대 태도로 고객 신뢰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12년 2월 16일 대신저축은행은 CS문화를 확립하고, 수준 높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S목표 및 전략안을 세웠다. 업계 최고의 고객만족도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신저축은행은 '차별화된 대신의 고객서비스로 업계 최고의 고객만족도를 달성한다'라는 CS목표 및 방향을 정했다.

본격적인 CS실행을 위한 세부방안도 마련되어 2012년 일 년 동안 고객만족도 조사, 직원 CS역량 강화, 지점 CS활동 및 고객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갔다. CS 조직은 CS마스터본사, CS리더지점로 구성하고, 외부기관에 서비스 모니터링을 의뢰했다. 2012년 CS리더는 지점 당 각 1명씩 총 11명으로 영업부 강명희, 덕천동지점 백소라, 남천동지점 이연주, 해운대지점 안예진, 남포동지점 윤수진, 춘천지점 심해영, 홍천지점 원순희, 원주지점 강지영, 동해지점 최현정, 태백지점 장은정, 강릉지점 정혜영이 선정되었다.

2012년 2월 25일에는 제1회 CS교육이 1박 2일 합숙교육으로 실시되었다. 대상자는 총 25명으로 CS리더11명와 수신업무담당자14명였고, 장소는 대림동 대신연수원이었다.

이 교육은 실제 고객 응대시 지점별 고객응대 방법을 통일하고, 지점별 서비스용어를 통일하여 일관된 대신저축은행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CS리더들의 지점별 CS교육 능력향상을 위해서 CS마인드, 고객과의 대화 방법, 연령별 응대, 전화 예절, 전화 대화 시 유의사항 등의 CS교육이 7시간 동안 실시되었다. 당시 저축은행의 김명성 상무, 오익근 상무의 특강도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실제 업무 경험을 사례로 들어 직원들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교육에 대한 호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당시 교육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소감을 남겼다.

〈CS교육뿐 아니라 자기계발의 시간이 되었으며,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서 좋았다. 객장에서 혹은 전화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CS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원칙을 알았기에 고객 응대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전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들을 반영해 대신저축은행은 지속적인 CS교육을 추진해 나갔고, 그 결과 대신저축은행은 대신증권보다 더 대신다운 고객서비스 품질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조기 안정화를 위한 영업점의 신설과 재배치

대신저축은행은 고객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편의를 늘리기 위해 영업점의 신

2012. 05. 21
대신저축은행 대구지점 오픈

2012. 05. 29
대신저축은행 명동지점 오픈

대신저축은행 상품안내 리플렛

설과 재배치를 시행했다. 2012년 1월 12일 강원도 춘천시 조양동 21번지 신용보증기금빌딩 1층으로 춘천지점을 이전했다. 2012년 5월 21일에는 기존 태백지점을 대구지점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동 165-7 삼희빌딩 1층으로 이전했고, 5월 25일에는 홍천지점을, 6월 22일에는 동해지점을 폐쇄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지점의 신규 오픈이 이어졌다. 2012년 5월 29일 대신금융그룹 이어룡 회장, 대신저축은행 김영진 대표를 비롯한 대신저축은행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중구 충무로 2가 64-5 신일빌딩에 명동지점을 열었다. 2012년 6월 25일에는 강남구 역삼동 646-9 신중앙빌딩 3층에 역삼역지점을 열었다. 이 시기에 문을 연 명동지점, 역삼역지점 등의 점포들은 대규모 상권을 갖추고, 지하철 역세권 내 위치하여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특성이 있다. 기존 영업점과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점포로, 한 차원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대신저축은행은 각 지점의 이전과 오픈을 기념해 지점별로 연 3.5~4.5%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 1년 정기예금을 100~200억 원 한정 판매하고, 직접 방문한 고객에게 소정의 사은품도 증정했다.

2012년 7월부터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서민형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판매에 나섰다. 개인사업자에게 최저 6.9%의 금리로 감정가격의 최대 95%까지 대출하는 '대신 사업자주택담보대출'은 꾸준한 매출실적과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사업자금 용도로 제공되는 상품이다. '대신 사업자주택담보대출'은 연 소득 1,200만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다. 조건을 간소화하고 대출만기와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인 이 상품은 지역 개인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대신저축은행은 짧은 기간 안에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점포 개설과 상품 출시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출범 후 지점의 통합, 신설 등 영업점포를 최적화하는 한편 영업인력 확충을 통해 영업기반을 확대했으며, 여신관리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해 부실자산도 철저히 관리했다. M&A방식과는 달리 P&A방식으로 설립되어 대부분의 보유여신이 건실한 자산으로 구성된 대신저축은행은 여신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보였다. 출범 당시 손익분기점 달성에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보다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대신저축은행은 2012년 8월 한 달간 잠정 세전 순이익이 5억 700만 원 흑자를 기록하여 월간실적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출범 1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3절 창립 50주년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Financial Health Partner'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Financial Health Partner

대신금융그룹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는 2012년 6월 2일에서 3일까지 1박 2일간 용평리조트에서 치러졌다. 대신증권, 대신경제연구소, 대신자산운용, 대신저축은행 임직원 2,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년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비전 선포식, 자랑스러운 대신인 표창, 50년의 역사를 담아 편찬한 〈대신금융그룹 50년사〉 봉정식 등이 진행되었다.

이어룡 회장은 대신금융그룹의 미션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Financial Health Partner」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아울러 「리테일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모든 금융고객과 해외 브로커리지 고객이 가장 신뢰하고 서비스받고 싶은 금융주치의 그룹」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미래비전을 선포했다. 또한 대신금융그룹의 핵심가치를 담은 3대 행동 양식을 발표하고 '고객이 가장 신뢰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고객을 위해 혁신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대신금융그룹의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회사 경영의 최우선을 '고

2012. 06. 02
대신금융그룹 50주년 기념행사

2012. 06. 02
대신금융그룹 50주년_우리의 다짐

객'으로 삼았다.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어떠한 경제 위기에도 고객의 자산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금융그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밝혔다. 대신금융그룹의 미션과 비전을 공유한 전 임직원들은 하나된 목소리로 '우리의 다짐'을 힘차게 외쳤다. '우리의 다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고객을 위해 혁신하며,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대신인이 되기 위해 이와 같이 선서합니다."

-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차별화된 최고의 전문성을 배양한다.
- 우리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실된 정직을 추구한다.
- 우리는 먼저 다가가고 조금 더 살피는, 세심하고 인간적인 배려를 추구한다.
- 우리는 의사결정과 행동에 있어, 최적의 밸런스를 추구한다.
- 우리는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사명에 몰입하는 헌신의 자세를 추구한다.
- 우리는 목표 이상의 가치 창출을 위해 열정을 다한다.
- 우리는 새롭게 도전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의 자세를 추구한다.

한편, 이날 봉정된 대신금융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사사社史는 대신금융그룹의 반세기 역사를 정리한 것으로 역사편과 문화편으로 구성되었다. 역사편은 창업자, 선대 및 현 회장의 경영사와 각종 금융위기를 극복한 성장스토리 및 증권산업과 함께 발전한 대신의 모습을 담았다.

탁월한 경영능력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보여준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이 2012년 5월 퇴임했다. 노정남 사장은 "새로 시작되는 50년은 역량 있는 후배들이 대신증권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퇴임 소회를 밝혔다. 1977년 한일은행에 입행하고, 1987년 대신증권 국제부로 자리를 옮기면서 대신증권과 인연을 맺은 노정남 사장은 1999년 대신투신운용現 대신자산운용 대표이사를 거쳐 2006년부터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대신증권은 2012년 5월 25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제51기2011년 4월 ~ 2012년 3월 정기주주총회 후 이어진 이사회에서 나재철 부사장을 대신증권 대표이사에 선임했다.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대신증권은 한국 대형 증권회사 중 유일하게 14년 연속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가 되었다. 제52기에는 재무적 성장, 성과지향 조직 추구, 커뮤니케이션 강화라는 3대 전략 주제를 설정하고 고객과 상생하는 세계 최고의 신뢰기업이라는 미션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2012. 05. 25
제51기 정기주주총회(나재철 대표이사 선임)

고객맞춤형 상품과 서비스 출시

대신증권은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면서 어려운 시장 환경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갔다.

대신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 판매도 시작했다. 퇴직연금시장의 양적, 질적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은퇴자산 운용을 위한 연금에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 발맞추어 대신증권은 2012년 7월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상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대신증권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여의도 본사영업부에서 나재철 대표가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에 1호로 가입하는 행사를 가졌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기존 개인퇴직계좌IRA를 확대한 상품으로, 기존의 퇴직연금제도DB,DC형 가입자나 퇴직급여제도 일시금 수령자를 위한 상품이다.

2012년 10월 22일에는 여의도 대신증권 본사에서 이어룡 회장과 나재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신 이동점포Daishin moving branch' 가동 기념식을 갖고 본격 서비스에 나섰다. 대신증권 '이동점포'는 고객에게 직접 찾아가는 '아웃바운드' 세일즈를 위해 마련된 서비스다. 이동점포는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고객들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영업점과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동점포는 12m 길이의 45인승 대형버스를 개조해 만들었다. 버스 내부는 주식시세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버룸과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응접실과 상담실을 갖추고, 10여 명의 고객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준비했다. 계좌개설은 물론 종목 시세조회, 주식주문, 금융상품의 가입과 종합자산관리를 위한 상담까지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

2012년에는 강남시니어플라자와 공동으로 '파워 시니어Power Senior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2년 7월부터 연말까지 총 19회에 걸쳐 진행했고, 새로운 노년문화를 선도하고 안정적인 은퇴설계와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증권 강좌는 물론 은퇴 금융컨설팅, 건강과 문화 특강, 인문학 강좌까지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법인 고객을 위한 해외금융기관 IR 미팅

대신증권은 역량 있는 국내 기업들을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알리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법인 고객을 위한 해외 금융기관 IR 미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고, 2012년에도 다양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12년 7월 5일부터 6일까지 대만과 홍콩에서 국내 상장 우수 중소기업 6개 사 CEO와 CFO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대신 2012 K-Executives 컨퍼런스

2012. 07. 26
나재철 대표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 1호 가입

2012. 10. 22
대신 이동점포 가동

2012. 07. 05~06
대신 2012 K-Executives 컨퍼런스

Daishin 2012 K-Executives Conference'를 개최했다. 5일은 대만, 6일에는 홍콩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의 웅진에너지, 대덕GDS, 대한제강, 한국사이버결제, 씨티씨바이오, ㈜자원이 참여해 각 기업의 주요 경영현황 및 영업전략에 대한 IR 활동을 펼쳤다. 국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대만과 홍콩의 30여 개 해외 기관투자가가 참가했고, 총 80여 회의 IR 미팅이 진행되었다.

대신증권은 한국기업과 한국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2013년에도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 동안 글로벌 컨퍼런스를 추진했다.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10개 국내 대표기업들과 함께 해외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개최한 대신 인베스터스 컨퍼런스 Daishin Investors Conference는 19일과 20일은 싱가포르, 21일과 22일에는 홍콩에서 열렸다. 코웨이, 두산, 에스원,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글로벌, 삼성중공업, S-Oil, CJ대한통운, 플렉스컴, 루멘스 등 10개 기업이 참여했다. 참여 국내 기업들은 아시아 금융허브인 싱가포르와 홍콩의 해외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각 기업의 주요 경영현황과 영업전략에 대한 IR 활동을 펼쳤다.

대신증권은 삼성전자 IR 행사도 주관했다. 삼성전자 IR 행사는 한국의 글로벌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를 원하는 일본 투자자들의 요청에 의해 마련되었다. 삼성전자 IR 행사는 2012년 12월 5일 동경 오카상증권 본사 14층 대회의실에서 일본의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일본 투자가들에게 삼성전자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 등 다양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성전자 IR의 특징은 일본의 기관투자가와 고액 개인투자자를 직접 겨냥해 열렸다는 점이다. 그 동안 대부분의 국내 상장기업 IR이 전 세계 기관투자가들을 중심으로 열렸던 것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초 저금리 기조와 증시의 장기침체 상황에서 적절한 투자대상을 찾고 있던 일본의 투자자들의 니즈가 반영된 결과였다.

삼성전자 IR 행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함께 일본 투자자의 국내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를 공동으로 준비한 오카상증권은 해외 증권시장에 대한 주식 중개업무가 핵심사업의 하나인 일본의 중견증권사이다.

한편, 대신증권은 새로운 경기순환 흐름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투자 유망 종목과 업종을 제시하기 위한 포럼도 개최했다. 국내외 기업, 산업, 경제에 대한 애널리스트와 해외 유명 석학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돋보이는 '대신 인베스트먼트 포럼 2012'는 2012년 11월 21일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기업, 산업, 증시, 경제의 장단기 순환Cycles 진단'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기업과 기관투자가들을 초청해 기업의 비즈니스 구조에서부터 산업과 주식시장, 경제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순환 패턴을 분석해 향후 기업의 미래 모습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이클 분석을 통해 2013년 한국경제와 증시, 산업의 전망도 이루어졌다. 〈불황기 투자 대예측〉의 저자 해리 덴트Harry Dent 박사를 초청해 글로벌 경제흐름에 대한 강연 시간도 가졌다. 해리 덴트 박사는 포천지 선정 '100대 컨설턴트'로, 1980년대 말 절정에 달했던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을 예측했고, 금융위기 전 글로벌증시의 거품을 예견해 이목을 끈 경제학자다. 인구구조와 소비성향의 변화에 따른 경제전망과 투자전략의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해외 금융기관 애널리스트를 초청해 아시아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금융시장을 다각적으로 조명해 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일본의 오카상증권, 중국의 자오상증권, 인도네시아의 만디리증권, 말레이시아 OSK Investment Bank에서 각국의 경제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국내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해외시장 정보를 보다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최저 수수료 온라인 증권거래서비스, 크레온

온라인 증권거래서비스 '크레온CREON'은 2011년 2월 15일 출시되었다. 은행연계 온라인 증권거래서비스인 크레온은 최저가 수준인 0.011%의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를 적용해 투자자의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크레온은 대신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의 검증된 속도와 안정성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매매에 필요한 핵심기능의 경우 사용자 시선의 움직임을 고려해 쉽고 간결하게 화면을 구성했다. 고객의 시스템 관련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당일 검토하고 당일 피드백하는 '인타임 대응체제'도 구축했다. 크레온 출시를 기념해 2011년 한 해 동안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되었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저가 수수료 시장에서 젊은 신규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한 '핫 아이템 할인 이벤트', 신규 계좌가 늘어날수록 수수료 무료기간도 함께 늘어나는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이 전개되었다.

한편, 대신증권은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 '크레온 모바일'도 2012년 12월 3일부터 제공했다.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업계 처음으로 'ID등록서비스'를 추가했다. 추가된 'ID등록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하지 않고도 모바일에서 직접 ID를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체험하기 기능도 강화했다. '크레온 모바일'에서 '체험하기'를 접속하면, 1억 원의 사이버머니를 제공받아 계좌 없이도 가상으로 매매해 볼 수 있게 했다. 사용자의 문의와 요구사항에 적극 응대하기 위해 메신저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고객이 카카오톡에서 'Creon1'과 친구 맺기를 하면 주문, 이체 등 다양한 증권업무를 1:1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크레온은 2012년 12월 고객의 편의를 위해 기업체 등 각종 단체를 직접 찾아가 맞춤형 증권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계좌개설서비스'를 실시했다. 찾아가는 계좌개설서비스는 '아웃

2011. 02. 15
은행연계 온라인 증권거래서비스 크레온 출시

2012. 12. 03
크레온 모바일 오픈

2012. 09. 03
사이보스 터치 시즌3 오픈

바운드' 세일즈의 일환으로, 2012년 12월 17일 강남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처음으로 진행되었다.

트레이딩 시스템의 진화

대신증권은 2012년 9월 고객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모든 화면을 사용자 중심으로 강화한 모바일 증권거래 어플리케이션 '사이보스 터치 시즌3'을 오픈했다.

사이보스 터치 시즌3의 가장 큰 특징은 고객과 함께 만드는 앱을 구현한 것이다. 모든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자체 개발해온 대신증권은 2011년 이후 접수된 수백 건의 고객 아이디어를 시즌3에 직접 반영했다. 고객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앱 평가 화면'도 새롭게 제공했다. 고객이 앱 평가 화면을 통해 각 화면에 대한 사용법과 기본적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한 후 사용의견을 남길 수 있게 한 것이다.

어플리케이션의 안정성과 주문의 편의성도 대폭 강화했다. 접속 속도와 화면이동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차원이 다른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을 구현했다. 예약주문, 자동주문 등의 특화주문도 추가하여 주문에 대한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CME와 EUREX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거래기능도 추가했다. 24시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금융시장 환경과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높아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반영해 CME 연계 KOSPI200선물 및 EUREX 연계 KOSPI200옵션 매매 기능을 더했다. 국내증시와 해외증시의 상관관계가 높아진 만큼 야간에 해외시장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이슈나 이벤트에 고객의 즉각 대응이 가능해졌다.

2012년 11월 15일에는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 '사이보스 터치'의 업그레이드를 단행했다. 이 업그레이드의 가장 큰 특징은 클라우딩 기능을 장착했다는 점이다. 클라우딩 기능을 사용하면 홈트레이딩시스템의 여러 확장된 기능을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으로 불러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홈트레이딩시스템의 관심종목 등록기능, 차트기능 등을 사이보스 터치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용자 중심의 모바일 증권전용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체험하기 기능도 대폭 강화해 계좌가 없는 고객도 '체험하기'를 통해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모의투자 계좌로 조회부터 매매까지 모든 기능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주식 일괄주문, 선물옵션 번개주문 등의 화면을 추가해 주문의 편의성도 강화했다.

한편, 온라인 금융서비스 전문평가 기관인 블래스트씨앤알㈜ 스톡피아이 반기별로 실시하는 온라인 트레이딩서비스 평가에서 대신증권은 2012년 6월 상반기와 12월 하반기 평가 홈페이지 부문에서 종합평가 1위를 차지했다. 상반기에는 홈페이지부문에서 최고점인 86.10점을 얻어 최우수 증권사로 선정되었고, 하반기에는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과 홈페이지부문에서 모두 1위를 받아 종합 1위를 차지했다.

Daishin Financial Group
60년사

2장. 성장 동력의 발굴, 금융그룹의 체제 구축

2013

2014

STORY
2022

함께 뛰고
함께 이기는 경기[1]

W프로젝트

증시는 하락하고 투자심리도 위축된 2012년 하반기,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한 대신금융그룹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영업점을 줄이는 과정을 거쳐, 2014년에는 희망퇴직도 실시했다. 마른 수건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성장 동력을 찾아서 키워야 한다는 의지는 오히려 굳건해졌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실한 것은 하나였다. 앞으로의 환경은 점점 더 불확실해진다는 것. 흐릿한 시야는 스스로 밝혀야 했다.

2013년 5월, 대신금융그룹은 곧 시장에 나올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입찰 준비를 시작했다. 우선 직원 5명으로 미래전략 TFT를 꾸렸다. 인수대상인 우리금융의 이니셜을 따서 'W프로젝트'로 명명한 TFT의 룸은 여의도 본사와 가까운 빌딩에 별도로 마련했다. 매각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인수 전략을 짜기 위한 초기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우리금융지주의 여러 자회사 가운데 당시 대신금융그룹의 미래 전략에 마땅한 곳을 찾는 것이 우선 과제였습니다. 처음 타깃은 우리투자증권現 NH투자증권이었어요. 대형화 전략을 고려한 것이지요. 그러다가 사업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익모델의 다변화가 우리에게는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 김범철 증권 경영전략총괄 부사장

1 양승관 자산운용 경영지원본부장이 제공한 우리F&I 인수를 위한 TFT의 업무와 일정 등의 기록을 기초로 재구성한 글입니다.

그때부터 TFT는 우리F&I와 우리파이낸셜을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우리F&I는 부실채권 정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초 민간 배드뱅크였다. 낯선 부문이었지만, 업의 확장 개념에서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2013년 8월,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매각 공고가 떴다. 약 2개월 동안 검토한 뒤 10월 21일 우리F&I와 우리파이낸셜 예비입찰신청서를 제출했다.

본격적인 저울질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인가, 한 우물을 깊이 팔 것인가. 대신금융그룹의 미래 방향을 정하는 중대한 결정이었다. 2013년 10월말, 기존 미래전략 TFT에 예비실사 담당자들이 추가 투입된 예비실사 팀이 새로 구성되었다. 외부 자문사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인력까지 각각 10명씩 추가되면서 전체 40여 명 규모로 확장되었다.

대림동 대신연수원 2층에 캠프를 차렸다. 지금은 매각되었지만, 대림동 대신연수원은 대신금융그룹의 저축은행 인수, 우리F&I 인수, 이후 자산신탁 인가와 금융부동산 미래전략 방향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사적 순간마다 캠프가 된 공간이었다. 거의 매일 야근과 주말 근무가 이어졌다. 검토해야 할 수많은 서류와 데이터가 주는 물리적 부담과 회사의 미래를 위한 중차대한 프로젝트라는 심리적 부담이 어깨를 짓눌렀다.

핑퐁

"웬 탁구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다 보니 배가 나오고, 신경도 날카로워진 팀원들에게 대신연수원 2층 한쪽에 설치된 탁구대는 반가운 쉼터였다. 다만, 마음과 달리 실력은 따라주지 않았다. 핑..... 또록, 핑..... 떼구르. 아무리 공을 받기 편하게 상냥한 서브를 주어도 받아치지 못했다. 태어나서 처음 탁구 라켓을 쥔 초짜들의 게임은 맥이 풀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라켓을 고쳐 잡으며 배우려는 끈기다. 탁구 경험이 전혀 없던 양승관 자산운용 본부장도 이 시기에 직원들과 어울리면서 탁구 실력이 늘어 '양코치'란 별명을 얻었다. 제법 날카로운 스매싱으로 승부를 내는 짜릿함을 알게 되었다. 진 사람이 사는 꿀맛 같은 간식이 덤으로 따라왔다. 불과 한 달 뒤 핑퐁핑퐁, 공을 가볍게 받아치는 환상의 복식조 경기가 펼쳐졌다.

승리를 맛본 사람들은 안다. 이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짜릿한 기분.

반드시 인수에 성공해야 한다는, 본연의 책무에 대한 간절함과 더불어 자신감도 점점 커졌다. 2013년 10월 말부터 우리F&I와 우리파이낸셜에 대한 예비실사와 인수전략을 검토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12월 2일 최종입찰 제안을 내기까지 분석과 검토가 거듭되었다. 핑퐁, 상대가 잘 되받아쳐야 경기는 이어지는 법이다. 어느 한쪽도 물러섬 없이 치열한 전략과 분석이 이어졌다.

최종입찰을 앞둔 주말 오후, 대림동 연수원 2층에 당시 양홍석 부사장, 미래전략 TFT 15명, 관련 임원과 비상임자문위원들까지 참석했다. 참여인원 모두에게 두 회사 중 어느 회사를 인수해야 할지, 인수해야 하는 이유, 적정 인수가격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우리F&I와 우리파이낸셜. 두 회사 가운데 어느 회사를 얼마에 인수할 것인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보다 더 어려웠다. 그때는 인수할 대상은 정해져 있고 인수가격만 산정하면 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느 회사를 살 것인지도 고민해야 했다.

마침내 결정의 시간. 각자 인수할 회사와 금액을 적었다. 대신금융그룹의 미래가 걸렸기에 실무선에서는 확인을 거듭하며, 부비트랩을 제거하듯 주도면밀하게 살폈다. 경영진은 한 걸음 더 멀리 내다보고, 한 뼘 넓게 시야를 확장했다.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미래를 조망해서 얻은 답이 나오기 시작했다. 6개월 넘게 면밀히 분석하고, 고민을 거듭한 결과였다.

선택이 끝나고, 각자 왜 이 회사를 선택했는지, 금액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이 뒤따랐다. 장단점까지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고 토론이 이어졌다. 당시 우리파이낸셜 예비실사를 담당했던 몇 명을 제외한 전체 분위기는 우리F&I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졌다.

12월 2일 최종 입찰에 우리F&I는 다소 공격적인 가격으로, 우리파이낸셜은 보수적인 가격으로 입찰을 냈다. 그 결과, 12월 6일 대신증권은 우리F&I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다.

기쁨은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전열을 정비했다. 우리F&I 인수를 위한 확인실사와 가격협상이 남아 있었다. 당시 인수 담당 책임을 맡은 김범철 미래전략담당을 중심으로 팀이 재결성되었다. 기존 미래전략 TFT 7명에 예비실사 TFT 9명을 인수추진 TFT로 전환했다. 마지막 경기, 최종협상이 남아 있었다.

함께 뛰고 함께 이기는 경기

2013년 12월에 우리F&I에 대한 확인실사를 마치고, 2014년 1월 안에 SPA 주식매매계약를 체결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가격협상 조율이 쉽지 않은 탓에 겨울을 넘기고, 어느덧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이 피기 시작해서야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가격협상을 시작할 때, 양사의 차이는 상당했다. 협상은 진척을 보이지 않은 채 한동안 평행선을 달렸다. 길고 지루한 싸움이었다. 협상이 길어지면서 언론보도를 통한 장외 신경전도 무시할 수 없었다. 협상기간 동안 매각 주간사인 씨티은행 건물에서 우리금융지주측과 대신금융그룹의 팽팽한 신경전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신 직원들은 날카로운 논리로 무장해 스매싱을 날리기도 했지만, 협상은 양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했다.

마침내 2014년 4월 7일 대신증권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F&I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협상을 풀어낸 것은 기왕이면, '인수를 하는 입장에서도 인수되는 편에서도 좋은 계약을 하자.' 라는 의지였다. 그러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배당금을 인수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같은 금액이지만,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달랐다. 대신증권은 원래 지급을 할 계획이었던 배당금이었기에 비용을 늘리지 않아도 되었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추가로 받은 배당금액만큼 매각 금액이 높아진 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업계에서는 미처 생각도 못한 훌륭한 전략이었다며 감탄했다.

2014년 4월 대신금융그룹 직원들은 경영진의 메시지를 받았다. 우리F&I 인수계약이 진행되기까지의 경과보고와 앞으로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던 임직원들은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 이정표를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

> "대부분의 대형 증권사들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대신은 주인이 바뀌지 않고 오랜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 직원들은 '대신은 내 회사, 우리 회사'라는 생각으로 일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동료, 후배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경영진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대신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의 역량을 믿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
> 윤태림 증권 홍보실장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 증권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사업으로도 가지고 있던 역량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고무적인 일이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신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금융과 부동산 중심의 금융그룹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재구축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봄, 대신금융그룹은 새로운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대신에프앤아이가 출범하고, 명동에서는 대신파이낸스센터의 첫 삽을 떴다.

대신금융그룹은 증권, 자산운용, 저축은행과 경제연구소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였고, 대신에프앤아이와는 어떠한 형태로든 협력이 가능한 체제가 갖추어졌다.

"이제부터 함께 뛰고 함께 이기는 경기를 하자."

가본 적 없는 길을 향한 대신금융그룹의 새로운 여정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1절 비상경영 체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비상경영 체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금융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기조를 계속 이어갔다. 특히 유럽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선진국 경기회복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2010년 이후 일본의 엔저 정책에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악화되었고, 북한의 위협도 리스크로 부각되었다. 국내 증권시장은 브로커리지부문의 침체가 심각해지고, 저금리의 장기화로 경쟁도 한층 심화되었다.

2012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대신증권은 2000년 이후 최저 실적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전했던 2008 회계연도 대신증권의 월평균 세전 순이익은 104억 1,000만 원이었는데, 2012 회계연도 월평균 세전 순이익은 15억 6,000만 원에 불과했다. 2008 회계연도보다 무려 85.01퍼센트나 하락한 실적이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대신금융그룹은 그룹 전체의 손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비상경영은 2012년 12월 20일부터 2013년 12월 말까지 일 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 비상경영의 목표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 임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여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데 있었다. 세부 시행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2012. 11. 23
2012년도 하반기 대신금융그룹 경영전략회의

비상경영 세부 시행 사항

1. 예산 절감
   1) 예산 배정기준을 강화한다.
   2) IT 개발 시 사전 심의, 직접비 반영을 강화한다.
   3) 광고비는 50% 이상 절감한다.
   4) 업무추진비는 2013년 1월부터 1년간 하향 조정, 지급한다.
2. 성과부진 부문 통폐합/조직 슬림화
   1) 2013년 2월까지 실적 기준으로 본사 부서 또한 통폐합을 통해 조직 슬림화(대부제)와 인력 재배치를 단행한다.
3. 채용, 승진, 이동기준 변경
   1) 비상경영기간 중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인력채용을 최소화한다.
   2) 영업점 승진 평점 기준을 강화하고, 본사 승진에도 영업점 승진율과 동일한 승진율을 적용한다.
   3) 생산성 제고를 위해 인력을 재배치, 조정한다.
4. 위기 극복 근무체제 전환
   1) 조기 출근을 통한 철저한 업무, 영업 준비 등 근태준수를 강화한다. 특히 업무집중을 위해 스마트 타임을 철저히 준수한다.
   2) 추가 교통비, 휴일근무 수당은 지급 관리를 강화한다.
   3) 필수 불가결한 위탁연수를 제외하고, 해외/위탁연수를 자제한다.
   4) 인쇄용지의 사용량을 50% 축소하고, 비상경영체제 기간 중 사보 발간을 중단한다.
   5) 업무용 차량 최대한 축소, 임원차량을 업무용으로 전환해 적극 활용한다.
   6) 절전과 절약 등을 적극 실천한다.

위와 같은 세부 방안은 2012년 12월 20일자로 시행되었고, 기획본부에서 모든 계열사의 비상경영 체크리스트를 주, 월 단위로 점검했다.

한편, 대신금융그룹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실력을 모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익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다. 〈수익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은 기대 이상이었다. 2013년 1월 2일부터 1월 11일 불과 열흘의 공모 기간에 무려 630여 건의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평소 업무를 통해 염두에 두고 있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개발한 것이었다. 회사가 처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극복하겠다는 임직원들의 단단한 각오와 열정이 가져온 값진 결과였다.

제출된 630여 건의 제안은 취합과 분류 작업에만 일주일이 넘게 소요되었다. 평가부서에서는 실현가능성이 있는 제안들을 우선 선정했고, 평가 TFT를 조직하여 제안들의 최종 후보군

을 선정했다. 선정에 있어서 기준이 된 것은 수익성, 비용절감, 효용성이었다. 포상은 부·점과 개인으로 구분했으며, 각각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을 선정해 상품권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을 지급했다.

지점 축소와 희망퇴직

2013년 증권시장은 브로커리지부문은 침체되는 반면, 자산기반 영업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고객들은 안정지향적인 자산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대신증권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 공급을 확대해 나갔다. 리테일 부문에서는 고객들의 생애주기에 맞는 상품의 개발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금융주치의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고객들이 대신을 믿고 자산을 맡길 수 있게 했다. 자산기반영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은 금융주치의서비스에 있었다. 2010년부터 금융주치의를 양성해온 대신증권은 2013년에는 152명의 금융주치의를 선정해 서비스 시행에 박차를 가했다.

영업점 운영에서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 과거 브로커리지부문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였던 대신증권은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소규모 다점포 형태의 점포전략을 취해 왔다. 하지만 주식 시장의 불황과 브로커리지 영업 실적의 감소로 적자 영업점이 속출하면서, 영업점의 폐쇄와 통합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2012년 3월 기준 전국 115개의 영업점은 2014년 12월 기준 54개로 축소되었다. 2년 동안 절반이 넘는 61개의 영업점이 폐쇄와 통합, 이전 과정을 거쳤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브로커리지 영업에서 벗어나 자산관리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 효율화 작업이 진행되면서 지점의 대형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각 지역의 거점으로 영업점을 이전 배치하고 영업점 대형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금융주치의서비스 기반의 자산영업 강화와 아웃바운드 세일즈의 적극적인 시행을 추진했다. 이러한 조치는 고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계기를 마련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고객들에게 최상의 금융주치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대신금융그룹은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 과정에서 직원들은 희망퇴직제 실시를 요청했다. 대신증권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2014년 5월 26일자로 1차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은 2009년 6월 1일 이전 입사자 가운데 근속년수 5년 이상의 직원과 2006년 6월 24일 이전 입사자 가운데 근속년수 8년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퇴직위로금과 특별생활 안정자금학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차 희망퇴직자는 총 302명이었다.

2차 희망퇴직은 2년 뒤인 2016년 6월 14일자로 시행했다. 2차 희망퇴직은 1차 희망퇴직 이후 추가 기회를 달라는 직원들의 요청에 부응해 마련되었다. 2차 희망퇴직 대상자는 2011년 6월 24일 이전 입사자 가운데 근속년수 5년 이상, 2008년 6월 24일 이전 입사자 가운데 근속년수 8년 이상으로 한정했다. 2차 희망퇴직 대상자는 모두 98명이었다. 이들에게도 퇴직위로금과 특별생활 안정자금학자금을 지급했다.

1, 2차 모두 희망퇴직자 가운데 전직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희망자에 한해 퇴직 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는 투자권유대행인 계약을 맺었다. ESOP를 전액 지급했으며, 상조물품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IB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온 IB부문은 2012년에는 DCM부문에서 SK건설, SK케미칼, 대한항공, 하이트진로, 금호석유화학 등 국내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 대표주관회사로 참여했다. ECM부문에서도 현대상선, 나이스홀딩스, 오리엔탈정공 등의 대규모 유상증자 대표주관 업무를 수행하는 등 양호한 성과를 달성했다.

대신증권은 이러한 실적에 힘입어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수행할 금융부문의 핵심 사업으로 2013년 7월에 출범한 코넥스KONEX 시장의 지정자문인으로 선정되었다. 코넥스 시장은 기술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매끄럽게 하고 회수와 재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자본시장이다. 바로 상장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유망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것이다. 코넥

2013. 07. 01
코넥스 시장 개장식

스 시장이 활성화되면 침체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이에 대신증권은 코넥스 시장에서 대표 지정자문인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와 우수기업 발굴에 만전을 다했다. 코넥스 시장의 출범에 앞서 대신증권은 80여 기업에게서 코넥스 시장 상장의향서를 받아, 코넥스 시장 지정자문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대신증권은 기술경쟁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비나텍, 스탠다드펌, 테라텍 등 3개의 업체를 선별해 코넥스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시켰다. 전국 지점망을 통한 IB 연계영업과 벤처금융 네트워크로 이룬 성과물이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코넥스 컨퍼런스와 적극적인 마케팅은 대신증권이 코넥스 시장을 선도하는 증권사 이미지를 구축하며, 코넥스 시장에서의 대신증권의 위상을 높였다.

2012. 10. 17
밸런스클럽 발족식

이후 대신증권은 상장되었거나 상장예정인 기업을 중심으로 밸런스클럽을 운영해 우수 중소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갔다. 이러한 긴밀한 네트워크와 대신증권의 전통과 노하우가 더해져 2013년 9월 '엔지켐생명과학', 11월 '이푸른' 등 2013년 한 해에만 5개의 기업을 코넥스 시장에 상장시키면서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IB부문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통적인 IB 시장뿐 아니라, 고객에게 다양한 재무 솔루션 제공을 실행할 수 있게 조직의 기능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4년 IB부문은 IPO 실적 회복 및 구조화금융 등 신규 수익원 창출 노력에 힘입어 전년 대비 7억 원 증가한 106억 원의 순영업수익을 시현했다. 특히 ECM부문에서 BGF리테일, 디에이테크놀러지 등 총 6건 IPO 딜을 주관하여 총 주관금액 1,215억 원을 달성했다. 유상증자부문에서는 코스맥스비티아이 등 총 주관금액 3,120억 원을 기록했으며, DCM부문에서는 SK어드밴스드 2,333억 원 등 총 17건의 채권 및 ABS를 주선하여 1조 1,042억 원의 주관금액을 달성했다.

계열사의 성장 기반 굳히기

대신금융그룹의 여러 계열사들은 제몫을 해내며 탄탄하게 성장 기반을 다져나갔다. 증권을 중심으로 자산운용, 저축은행, 경제연구소가 시너지를 발휘하며 금융전문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제를 함께 만들어갔다.

대신자산운용은 2013년 3월 한국창의투자자문의 지분 100%를 인수하고, 조직 및 인력 안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성공적 인수를 통해 대신자산운용의 장기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우수한 리서치 역량과 뛰어난 운용역량이 결합되면서 인수합병 후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대신자산운용은 2013년 말 수탁고 3조 원을 돌파하고, 2014년 2월 4조 원을 돌파하는 등 2012년과 비교하여 200% 이상의 수탁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시기에 대신저축은행은 점포효율화 작업과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을 진행했으며, 대부분의 부실자산을 정리해 우량한 저축은행으로 거듭났다. 대신저축은행은 햇살론, 개인신용대출 등 다양한 여신상품과 강화된 금융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량여신에 집중하여, 고객의 신뢰를 받는 대한민국 대표 저축은행으로 성장을 이루어갔다. 2013년에는 업계 최초로 해외주식, 해외채권 및 외화표시채권 등 해외투자자산을 담보로 한 해외유가증권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증권업계 최초로 설립된 대신경제연구소도 2013년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고 제2의 도약을 준비했다. 금융공학, 자산배분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금융계열사 영업을 지원했다.

2012. 06.
대신자산운용

2절 소통 경영과 임직원의 전문성 심화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문화 확산

자본시장법의 시행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대신금융그룹은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나갔다. 2013년 비상경영 체제와 2014년 희망퇴직 실시를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그룹으로의 확장을 위한 계열사의 인수와 설립도 모색했다. 인적 자원과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도 요구되었다.

대신금융그룹은 2014년 4월 조직 구성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인식진단을 실시하고, 즉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내용들은 바로 실행될 수 있게 조치했다. 대표적인 시행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우수 영업직원 우대방안
   일정 기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우수 영업직원에게 영업이사 직위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했다.
2. 반차제도 도입
   1일 이상의 연차휴가 보유 직원을 대상으로 반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반차휴가는 연차 1일(8시간)을 오전 반차(4시간), 오후 반차(4시간)로 분할해 활용하는 것이다. 반차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휴가 사용이 더욱 자유로워지는

2013. 04. 26
우수직원 칭찬의 시간

효과를 거두었다.

3. 상조물품 지원대상 확대
   임직원에게 지원되는 상조물품 지원대상 범위에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상을 추가하여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4. 가정의 날(Family Day) 도입
   일과 가정의 균형 추구, 계획적인 자기계발 시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정의 날'을 도입했다. 2014년 5월 16일부터 매월 세 번째 금요일에 전 직원이 5시 30분에 퇴근하는 '가정의 날'을 시행했다.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건강한 균형을 위한 '가정의 날' 제도는 전 임직원 의견을 수렴한 제도이다. 부서장과 지점장들이 솔선수범해 '가정의 날'을 정식 제도로 정착할 수 있게 했다. 가정의 날 회식 금지와 야근자제, 사내식당 저녁식사 미제공, 체력단련실, 사내카페를 5시 30분까지만 운영하는 등 '가정의 날'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했다. 불가피한 야근의 경우에는 본부장 승인 후 진행했다.
5. 캐주얼 데이(Casual Day) 도입
   창의적 근무환경 조성과 활기차고 유연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주 금요일을 캐주얼 데이로 도입했다. 고객을 만나는 영업직원과 업무직원을 제외한 일반 직원들은 금요일에 캐주얼 차림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6. 기타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전담하는 문화커뮤니케이션팀을 새로 조직해 2014년 5월 8일에는 밸런스 톡(Balance Talk) 1호를 발간했다. 밸런스 톡은 사내외 소식을 전하는 주간지로, 다양한 소식과 코너를 통해 대신인의 소통을 돕는 역할을 담당했다. 사내 주요 소식과 제도, 정책 및 업계 소식과 트렌드, 대신 직원들에 대한 칭찬 등을 담았다.

한편, 휴가사용도 장려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했으며 본사 출·퇴근시간도 조정했다. 출근 시간은 오전 8시로 본부별 동시 적용하고, 퇴근 시간은 불필요한 야근을 하지 않게 근무시간 중 업무몰입도를 높이게 했다. 모니터링 강화 및 방송으로 퇴근을 유도했다.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크고 작은 이벤트도 이어졌다. '대신가족 인사문화 캠페인'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밝고 유쾌한 인사문화 정착과 직원 간 친밀함 강화를 위해 인사문화 관련 월별 주제를 정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행했다.

적극적인 인재육성, 주니어보드

대신증권은 전사적 관점의 다양한 역량강화 활동을 통한 미래 리더급 인재 육성과 전사 영역별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주니어보드Junior Board 제도를 시행했다. 우수한 역량과 자질을 갖춘 직원을 리더 그룹으로 육성하기 위해 주니어보드 1기를 선발했다. 선발과정은 3급 이상의 역량 및 자질이 뛰어난 직원을 사업단·본부별 추천하여 인사부 검증을 통해 영업점 3명, 본사 영업 2명, 본사 직할 2명으로 총 7명을 선발했다. 이때 선발된 직원은 다음과 같았다.

구분	성명	소속	직급/직위
영업점	강준규	강남지역본부 강남선릉센터	2급 부센터장
	송영민	강북지역본부 광명센터	2급 부센터장
	권현미	동부지역본부 동래지점	3급 부지점장
본사영업	조상규	Wholesale사업단 법인금융상품부	3급 팀장
	고재욱	IB사업단 IB2본부	3급 팀장
본사직할	최대경	리스크관리본부 리스크관리부	2급 팀장
	정평욱	기획본부 재무관리부	3급 팀장

주니어보드 1기는 2014년 10월 24일 위촉식을 갖고, 2015년 9월까지 1년간 운영되었다. 주니어보드 활동은 일과 후 또는 주말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업무에 영향을 최소화했다. 매주 금요일 저녁 개선과제활동, 임원 특강, 독서토론 등을 주제로 정기모임을 가졌고, 모임 후에는 교류의 시간을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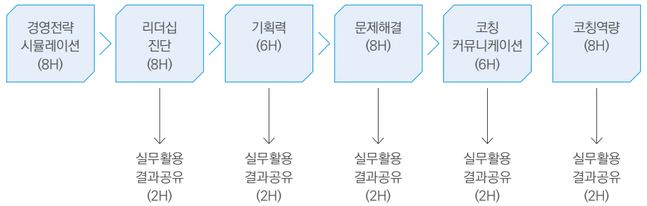
주니어보드 프로그램은 1년 동안 크게 다음의 4가지 주제로 운영되었다.

1. 전략방향 공유
   '대신의 역사와 경영철학', '그룹 비전하우스/가치체계', '그룹 조직구성 및 사업현황', '경영환경의 이해와 주요 트렌드', '전략방향성 및 전사목표, 주요제도', '리테일전략 방향성' 강의를 통해 전략방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본인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2. 코칭패널 멘토링
   - 경영진과 소통의 시간 : 경영진이 분기별로 주니어보드 멤버들과의 만남을 통해 미래 리더 그룹으로 성장하는데 응원과 격려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4. 10. 24
주니어보드 1기 위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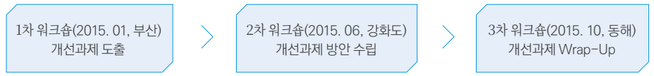
- 임원특강 : 증권 각 부문의 코칭패널 및 계열사 대표 특강을 통해 각 부문의 현황과 목표를 공유했다.

3. 리더 역량강화
   - 외부 전문교육 : 주니어보드 멤버들은 1년간 외부전문 교육기관(Paul&Mark)의 54시간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 독서토론 : 매월 1~2권씩 경영진과 임원들의 추천도서를 읽고, 정기모임 시 멤버 각자가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4. 개선과제 수행
   - 개선과제 워크숍 : 분기별로 3차례에 걸쳐 워크숍을 실시해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방안을 수립했으며, 멤버들의 팀웍을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



   - 개선과제 활동(계좌개설 간소화) : 정기모임과 워크숍을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실제 현업의 의견을 수렴해 가장 개선의견이 많이 나온 '계좌개설 간소화'를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계좌개설 간소화 개선 방향

서류작성 간소화	– 서명 횟수, 덧쓰기 및 자필기재 축소(서명 4회, 덧쓰기 10자 이내 등) – 작성서류 통합 및 간소화 (금융위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절차 등 간소화 방안' 연계 반영)
고객 편의 중심 직원 역할 조정	– 영업직원 : 상담 시, 서류 작성 병행 – 업무직원 : 상담 전·후 업무처리 – 동선 변경으로 고객 불편 최소화
스마트 오피스 기반 마련	– 상담, 서류 작성 시 태블릿 PC 활용 – 작성서류 및 교부자료의 종이 낭비 최소화 – 모바일 기술 기반 업무환경 조성

주니어보드 1기는 2015년 10월 1일 수료식을 끝으로 1년간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후 1기 수료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주니어보드 1기 활동

첫째, 주니어보드 활동 소개 및 2기의 활동에 대한 조언

둘째, 주관부서 계좌개설 간소화 진행 시 패널 등으로 참여해 현업의 의견 전달 및 현장에서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한 노력

셋째, 외부 전문교육의 중요 포인트 재교육을 통해 그 동안 쌓은 역량 재점검 및 현업 적용

주니어보드 1기 대표 최대경 증권 리스크관리부 팀장(現 증권 패시브운용본부장)의 소감은 다음과 같았다.

"주니어보드란 회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 리더급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주니어보드가 되면 경영진과 소통의 시간, 임원 특강, 외부전문 교육, 독서토론,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사의 미래 방향성을 이해하고,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열정적으로 일하는 선·후배 및 동료와의 만남, 1박 2일 워크숍, 해군 1함대 방문 등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맺는 일은 회사생활 속에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1기 이후 주니어보드 2기는 그룹내 2~3급 직원을 대상으로 추천과 자율공모를 병행하여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9명을 선발했다.

영업직원 세일즈 제안서 경진대회 개최

대신증권은 2014년 9월 18일 자산관리영업의 기본이 되는 제안서 작성 역량과 제안서 작성을 통한 논리 정립, 영업 강화를 위해 영업직원 세일즈Sales 제안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경진대회는 모든 영업직원이 1건씩 상품 추천 제안서를 제출해 후보작을 선정했으며 선정 직원들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대상 둔산지점 진은섭 대리, 최우수상 동래지점 박영빈 대리, 우수상 군산지점 고영이 차장, 동대구지점 정재현 대리, 분당지점 정준성 대리, 강남대로센터 현성훈 대리, 광명센터 강종혁 주임, 청담지점 유종환 주임, 부평지점 이은기 주임, 남인천지점 인종숙 주임 등 총 10명이 수상했다.

2014. 09. 18
대신증권 영업직원 세일즈 제안서 경진대회

노동조합의 설립과 단체협약 체결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산하단체로 대신증권지부가 2014년 1월 25일 설립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두 번째 노동조합으로 대신증권노조가 2014년 1월 29일에 설립되었다. 대신증권지부는 1대 이남현 지부장에 이어서 2대부터 오병화 지부장이 맡고 있으며, 대신증권노조는 1대 정경엽 위원장이 맡은 이후 2대부터 장강일 위원장이 조합 대표를 맡고 있다.

2014년 3월부터 양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해 오던 중 대신증권노조와 2014년 12월 17일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어려운 경영환경을 감안하여 회사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 노력과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 상생협력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어서 대신증권지부와도 2018년 9월 3일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양노조와 모두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노사 상생을 위한 협력적 노사관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2019년 8월에는 2018년 임금, 그리고 2021년 3월에 2019년 임금 및 2020년 임금을 양노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타결했다.

특히 2022년 3월에는 2021년 임금 및 2022년 임금과 단체협약을 양 노조와 동시에 타결했다. 2022년 임금 체결은 증권회사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는 회사 창립 60주년의 의미 있는 해를 맞이해 타사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임금 인상을 단행하고, 동시에 직원들의 건강관련 사항 등 여러 복리후생 항목의 개선으로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성과 향상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2014. 12. 17
대신증권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

2022. 03. 31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조인식

3절 그룹 체제로의 본격 행보

그룹의 신사업 발굴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

대신금융그룹은 2013년부터 회계연도 결산월을 3월에서 12월로 변경했다. 제53기2013년 4월 ~2013년 12월부터 적용하여, 제54기는 2014년 1월 ~ 2014년 12월로 조정되었다. 이전까지는 기업 결산기를 분산시킨다는 목적으로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에서 금융투자회사의 결산기일을 3월로 정한 바 있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의무화된 상황에서 지주회사와 결산월이 다른 금융투자사들이 연간 두 차례 외부감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금융위원회가 이원화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3월 말 결산법인인 금융투자회사들이 2013년부터 결산월을 대거 12월로 바꾸었다.

2014년 대신증권은 리테일과 IB부문이 부진한 상황으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은 2014년 전략목표를 혁신 조직 창출과 혁신을 통한 조직 시너지 창출로 정했다.

혁신을 실행하기 위해 2014년 1월 IB사업단 내 부동산금융본부를 신설했으며, IB솔루션본부 내의 SF부를 본부로 승격했다. 이러한 조직개편은 구조화금융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2014년 하반기에는 부동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다. 대신에프앤아이와 연계한 부동산 관련 딜Deal을 금융주선하거나 참여하는 방식, 그리고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업무제휴협약을 통한 신규 딜 발굴 및 참여 등을 검토하고 적극 실행으로 옮겨갔다. 그 결과 2012년 5건이었던 PF부문의 주관실적은 2015년 18건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주관금액도 2012년 3,295억 원에서 2015년 1조 1,810억 원으로 늘어났다.

PF부문 주관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주관금액(억 원)	3,295	10,210	7,020	11,810
건수	5	9	12	18

가시적인 성과들을 거두면서, 본격적인 그룹의 성장과 미래 전략을 담당할 조직이 새로 꾸려졌다. 2013년 9월 9일 당시 김범철 증권 미래전략담당을 팀장으로 '미래전략 TFT'가 신설되었는데, 이 TFT는 상근 7명, 비상근 5명을 포함해 총 13명이 업무를 수행했다. 주요 업무는 그룹의 신사업 발굴과 미래전략 수립이었으며, 우리F&I 인수를 비롯해 향후 그룹의 사업 확장과 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F&I 인수를 마무리한 미래전략 TFT는 2014년 5월 7일 해산되고, 이후 2016년에 미래전략실이 신설 조직화되었다.

대신에프앤아이 출범과 의미

2014년 글로벌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국내 경기도 뚜렷한 개선세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었다. 불안한 경기 상황으로 주식시장과 기업금융 분야가 모두 위축되었다. 수년간 이어지는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기조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며 자산관리부문의 성장을 이끌었다.

대신금융그룹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성장 전략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2011년 저축은행 인수 이후 다각적인 사업의 확장을 검토한 끝에 보다 다양한 금융 분야로 진출하기로 결정했다. 우수한 회사를 계열사로 확보하여 수익원을 다각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성장전략을 바탕으로 계열사로 편입될 회사의 인수와 설립 등을 검토하던 중 2013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분리매각이 추진되었고, 사업 다각화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대신증권은 우리파이낸셜 및 우리F&I 등 2개 자회사 매각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F&I는 2001년 11월 우리금융그룹 내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자산관리회사인 우리금융자산관리㈜로 최초 설립되어, 2002년 9월 사명을 우리F&I㈜로 변경했다. 또한 부실자산처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2002년 9월 자산관리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자회사로 우리씨에이자산관리현 대신에이엠씨를 설립한 바 있었다.

우리F&I는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 시장 2위권의 업체로 4년간 20~30%대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3년간 매년 400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안정적으로 시현했고,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도 16.4% 수준을 기록했다.

2013년 12월 6일, 대신증권은 우리F&I 보통주 1,400만 주 매각 거래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대신증권은 확인실사 과정을 거쳐 우리금융지주와 가격협상을 진행했다.

2014년 4월 7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우리F&I를 대신증권에 매각하는 안을, 대신증권 이사회는 우리F&I 인수안을 최종 승인했다. 우리F&I 지분 100%를 3,684억 8,000만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도 같은 날 체결되었다.

대신금융그룹은 우리F&I 인수를 통해 금융계열사 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증권의 IB부문과 연계를 통해 부실채권 관련 구조화채권을 발행해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등 다양한 투자상품 개발도 가능해졌다. 대신금융그룹은 우리F&I의 조직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룹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접목시켜 초우량 회사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4년 5월 8일, 대신증권 본사 11층 강당에서 이어룡 대신금융그룹 회장,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이사, 박성목 대신에프앤아이 대표이사 등 계열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신에프앤아이, 대신에이엠씨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어룡 회장은 다음과 같이 임직원을 격려했다.

"우리F&I 인수를 통해 대신금융그룹은 명실공히 금융전업그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계열사 임직원 모두가 다양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자 영역에서 최고가 되길 바랍니다."

2013. 06. 26
금융위원회,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 발표

2014. 05. 08
대신에프앤아이 대신에이엠씨 출범식

박성목 대신에프앤아이 대표이사는 새로운 출발에 임하는 각오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진심을 다하는 주체적인 마음가짐과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대신이라는 새로운 둥지가 최고의 금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 05. 08
대신에프앤아이 대신에이엠씨 현판식

출범식 행사 이후에는 당시 대신에프앤아이 본사가 위치한 영풍빌딩 9층으로 이동해 현판식을 갖고, 대신에프앤아이의 출범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대신에프앤아이의 계열사 편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저축은행, 자산운용 등의 기존 계열사와 다양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게 된 대신금융그룹은 계열사들의 협력을 통해 부실채권 관련 상품개발, 신규 영업망 확보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되었다.

대신금융그룹의 일원이 된 대신에프앤아이는 '종합투자회사로의 기반 구축'을 2015년의 경영목표로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경쟁력 강화, 자산관리 역량 강화, 성장 인프라 구축을 세부 목표로 삼았다.

대신저축은행의 전국 영업망 구축과 흑자전환

대신저축은행은 2012년 역삼역지점과 명동지점 개점을 시작으로 2013년 방배지점, 잠실지점, 압구정지점 개점, 2014년 본점과 영업부, 해운대센텀지점, 청담지점 이전을 통하여 서울지역 영업기반 강화와 더불어 강원도·경상도·대구·부산까지 전국 영업망을 구축했다.

2013년 2월 18일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205 대명빌딩 4층에 방배지점을 신설했다. 2013년 2월 25일에는 석촌동 286-3 문화빌딩 3층에 잠실지점을 오픈하고 송파구의 VIP고객 유치에 나섰다. 방배지점과 잠실지점은 개점을 기념해 1년 3.6%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 정기예금을 200억 원 한정 판매하고, 기업대출, 개인신용대출, 아파트신용대출 등 다양한 대출상품을 통해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했다. 같은 해 8월 19일에는 부산 부전동에 위치한 서면지점에서 대신저축은행 오익근 대표를 비롯한 대신저축은행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식을 가졌다. 서면지점은 부산지역 영업기반 강화를 위해 기존 덕천동지점을 부산진구 부전동 266-22 한누리빌딩 2층 서면지점으로 변경 이전했다.

2014년 10월 1일에는 대신저축은행 본사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으로 이전했다. 대신저축은행 본사 및 영업부는 역삼역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업무 밀집지역에 위치해 고객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 고객들에게 한 차원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로써 대신저축은행의 지점수는 총 11개로 서울지역은 영업부를 포함해 6개 점포이고, 그 외에도 강원지역 1개, 대구 1개, 부산지역에 3개 지점을 두었다.

대신저축은행은 서민들의 필요자금 대출과 부채관련 상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서민금융지원센터'를 2014년 2월 24일부터 새롭게 운영하기 시작했다. '서민금융지원센터'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채무 절감 방향을 제시하고, 대신저축은행의 다양한 대출상품을 소개하고 고객들의 채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센터에서 수집된 고객정보는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개인정보유출을 걱정하는 고객들의

2013. 02. 18
대신저축은행 방배지점 오픈

2013. 02. 25
대신저축은행 잠실지점 오픈

2013. 08. 19
대신저축은행 서면지점 이전식

대신저축은행 홈페이지

불안감을 해소했다.

2014년 8월 26일에는 영업점 방문이나 유선전화 이용 없이 인터넷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https://loan.daishinbank.com를 오픈했다. 대출전용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대출 시마다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 없이 온라인상에서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신저축은행의 온라인 대출 신청은 신속성과 편리성은 물론 대출 적합성을 높이는 바른 대출을 통하여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으며, 온라인상의 대출이지만 고객의 신용과 대출성향을 꼼꼼하게 분석해 고객의 상황에 맞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대신저축은행은 기업여신 전담부서인 기업금융부와 전략금융부의 활성화로 기업여신이 649억 원 증가하는 등 2014년 여신 잔액이 1,925억 원 증가하여 2014년 말 7,437억 원으로 성장했다. 철저한 신용리스크 관리를 통해 2013년 12월 30.4%였던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014년 12월 16.3%까지 개선되었으며, 건전한 여신 비즈니스 실행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다.

저축은행의 회계연도 마감일은 6월로, 대신저축은행은 201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3년 7월~2014년 6월 42억 원의 순익을 기록하면서 출범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통합' 대신자산운용 공식 출범

대신자산운용은 2013년 3월 22일, 이사회를 열어 한국창의투자자문 합병인가에 관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통합' 대신자산운용을 공식 출범했다. '통합' 대신자산운용의 대표이사에는 서재형 대표가 선임되었다. 한국창의투자자문 합병은 대신자산운용의 장기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대신자산운용은 한국창의투자자문의 우수한 투자자문 경험과 노하우를 흡수해 전문 종합자산운용회사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통합' 대신자산운용의 고객자산 규모는 한국창의투자자문이 보유한 일임·자문형 계약고를 포함해 총 1조 7,182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합병은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문 회사를 합병한 최초의 사례이며, 양사의 풍부한 운용 노하우와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대신자산운용은 2013년 3월 12일 이벤트드리븐 및 구조화헤지 전략을 활용하는 헤지펀드 상품 2종을 새롭게 출시하고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헤지펀드는 '대신 [Balance] 코퍼레이트 이벤트Corporate Event 전문사모투자신탁 제1호' 와 '대신 [Balance] 구조화헤지 전문사모투자신탁 제1호' 두 종류다. 기존의 주식롱숏전략 중심의 한국형 헤지펀드들과는 달리 차별화된 투자전략으로 위험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추구해 나아갔다.

대신자산운용은 글로벌 톱 운용사인 러셀인베스트먼트와 글로벌 투자상품 개발에도 나섰다. 2014년 4월 8일 여의도 본사에서 이어룡 대신금융그룹 회장, 서재형 대신자산운용 대표이사와 브루스 플라움Bruce Pflaum 러셀인베스트먼트Russell Investments 아시아총괄 CEO, 김유석 러셀인베스트먼트 한국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러셀인베스트먼트와 상품 공동개발 및 마케팅에 대한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었다.

이 전략적 제휴는 러셀인베스트먼트와 공동으로 글로벌 투자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제휴를 통해 양사는 실무진으로 구성된 상품개발협의체를 구성하고 글로벌 자산배분, 투자자산 분석 등의 실질적인 협업 프로세스를 거쳐 해외 투자에 대한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유행에 민감한 상품보다는 전세계의 투자처를 대상으로 리스크 관리와 안정적 성과를 지향하는 중위험·중수익 상품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대신자산운용은 2014년 6월 2일, 홍콩 UBP 아시아 사무소에서 서재형 대표와 Union Bancaire Priveé이하 'UBP'의 Lowrence Lo 아시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UBP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고 본격적인 글로벌 대안투자 솔루션 개발에 나섰다. 양사는 한국 내 대안투자 전반에 관한 비즈니스 협업 관계를 구축했다.

UBP는 1969년에 설립된 스위스의 프라이빗 뱅크Private Bank, PB다. 기본자본비율Tier 1 ratio이 29%, 자기자본이익율ROE이 8.5%로 스위스 은행 중 최고 수준이다. UBP는 개인 및 기관 고객의 자산관리에 특화되어 있으며, 특히 헤지펀드 및 대안투자에 강점이 있다. 이 제휴를 통해 대신자산운용이 해외에 있는 좋은 상품과 운용 노하우를 벤치마크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글로벌 투자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보다 창의적인 상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대신자산운용은 2014년 9월 18일, 가치투자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VIP투자자문과 함께 아시아 각국의 가치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인 '대신VIP 아시아그로스펀드'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의 개별 기업에 대해 심도 있는 리서치를 통해 가치주를 발굴해 투자하는 상품이다.

2014. 09. 18
대신자산운용 대신VIP 아시아그로스펀드 출시

PEF 운용, 대신프라이빗에쿼티 설립

대신프라이빗에쿼티는 대신증권의 100% 자회사로 2012년 9월 27일 자본금 100억 원으로 설립되었다. 사모 형태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출자받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를 운용하는 전문투자운용회사로서 PE사업부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014년에 대신증권에서 분사했다. 이후 2014년 8월 19일 박병건 대표이사의 선임을 마친 대신프라이빗에쿼티는 성장을 위한 신전략을 수립했다. 국내 유망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 금융

Growth Capital 위주로 투자를 진행하며, 세컨더리 PE투자와 구조조정·회생기업 투자전략을 실행하겠다는 목표로 대신프라이빗에쿼티는 2014년 10월부터 본격적인 투자활동에 나섰다. 기존 대신증권에서 운용하던 2,800억 원 규모의 자산에 대한 무한책임사원으로General Partner 운용에 참여하는 한편 추가 펀딩을 통해 운용규모를 확대했다.

대신프라이빗에쿼티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지향하며, 수평적인 기업문화를 기반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갔다. 특히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여 투자성과가 대상회사는 물론 사회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4절 자산관리 영업을 위한 기반 마련

자산관리 영업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단행

2013년과 2014년에는 불안한 경기상황이 지속되면서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기업의 자금 수요도 줄면서 기업금융 분야까지 위축되었다. 수년간 이어져온 저성장·저금리·고령화 기조로 금융시장의 트랜드가 자산관리부문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대신증권은 점점 확대되는 자산관리 시장에서 보다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기 위해 2013년 12월 리서치센터 내에 글로벌마켓전략실을 신설했다. 글로벌마켓전략실은 기존의 투자전략부를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분석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각국의 자금 흐름은 물론 매크로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신증권의 글로벌 뷰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글로벌마켓전략실에서 생산한 글로벌 Logic&View는 매달 1회 열리는 금융주치의 Logic&View 컨퍼런스를 통해 금융주치의에게 전파되었고, 금융주치의는 고객들에게 전달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대신증권의 고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대신증권의 글로벌 시장 전망을 공유받고, 글로벌투자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신증권은 2014년 1월 자산영업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이 조직개편은 자산기반 영업 강화를 위해 핵심역량을 집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다.

2013. 10. 26
금융주치의 Logic&View 컨퍼런스

먼저 고객상품본부를 고객자산본부로 개편했고, 상품개발 역량과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영업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 상품부서를 신설했다. 또한 리테일 상품 소싱, 신탁부문 등을 강화해 금융 트렌드에 맞는 상품 솔루션과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했다.

IB부문과 홀세일사업부문도 확대 개편했다. IB사업단 내 부동산금융본부를 확대 신설해 구조화금융 업무역량을 강화했고, 기업금융IB 부서를 본부로 승격시켰다. 홀세일사업단을 홀세일영업본부와 구조화상품본부로 재편하고, 파생영업부서와 채권영업부서를 구조화상품본부에 편입시켜 법인금융상품부문을 강화했다.

2014년 2월 19일에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경쟁사 리서치와의 차별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 조직개편은 변화된 주식시장 환경에 맞춰 리서치센터의 역할을 재조정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프리미엄 리서치를 제공해 장기, 가치투자를 원하는 고객들의 수요에 적극 부응하게 되었다. 조사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리서치센터 산하에 기존의 3개 소그룹을 기업분석부로 확대 재편하고, 알파리서치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 조직개편의 핵심은 알파리서치부 신설이다. 알파리서치부는 조사분석 역량을 대폭 강화해 장기, 가치투자 중심의 기획리서치 자료를 발간했다. 주요 업종 및 종목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리포트를 제공하는 한편, 핵심이슈에 대한 프리미엄 리서치 자료도 생산했다. 기존의 업종리포트 발간은 기업분석부가 맡았다.

금융복합점포 압구정지점

대신금융그룹, 첫 '멀티플렉스 금융점포' 오픈

대신금융그룹은 증권과 저축은행을 한 공간에 모은 '멀티플렉스 금융점포'를 새롭게 선보였다. 2013년 3월 5일 대신금융그룹 이어룡 회장, 대신증권 나재철 대표이사, 대신저축은행 김영진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신금융그룹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15-2 영신빌딩에 금융복합점포인 압구정지점 개점식을 가졌다.

압구정지점은 대신금융그룹이 선보이는 첫 금융복합점포로서 1층에는 대신저축은행, 2층에는 대신증권이 입점했다. 금융복합점포에서는 대신증권의 증권부문 노하우와 대신저축은행의 소매금융 경쟁력을 결합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한 공간에서 증권과 저축은행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 연계신용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원스톱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다시채권' 중개서비스

대신증권은 일본의 대표적인 고수익 채권상품인 '우리다시본드'를 개인이 직접 사고 팔 수 있게 도와주는 '이머징통화 해외채권 중개서비스'를 2013년 2월 21일부터 시작했다. 우리다시본드Uridashi Bond, 賣り出し—는 일본 개인투자자에게 소액으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통화의 해외채권을 말한다. 대신증권은 중개서비스를 통해 '한국판 우리다시본드'의 매매를 중개했다. 터키 리라, 러시아 루블, 멕시코 페소, 남아공 랜드 등 총 4개 통화로 발행되었으며, 개인투자자는 통화별로 투자대상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2013. 02. 21
이머징통화 해외채권 중개서비스 개시

대신증권은 2013년 4월 5일 '선진국 통화로 발행한 우리다시채권'을 새롭게 선보였다. 호주 달러로 발행해 통화 안정성을 누릴 수 있는 '우리다시채권'을 중개해 주는 서비스였다.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마땅한 투자대안이 부족한 국내 투자자의 니즈를 반영해 이머징통화에 이어 선진국 통화 기반의 우리다시채권을 도입한 것이었다. 우리다시채권의 누적판매량은 출시 석 달 만인 2013년 5월 20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우리다시채권은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입 소문을 타면서 5월 들어서만 100억 원이 팔리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 전체 거래의 대부분이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통화별 총 판매량은 멕시코>터키>러시아>호주>남아공 순이었다. 멕시코 페소는 미국 경기 회복 수혜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2013년 들어 통화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터키 역시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Ba1⇒Baa3, 무디스 기준되는 등 높은 재무안정성과 양호한 경제성장률이 부각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우리다시채권은 다섯 국가의 통화 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증권사의 해외채권과 차별화되었다.

대신증권은 2013년 5월 29일,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안정적인 물량을 제공하기 위해 터키, 멕시코 통화 발행 우리다시채권 매매방식을 개선했다. 새로운 판매방식으로 고객은 정확한 투자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판매방식에서 투자자는 예상가격, 예상환율로 계산한 투자금액과 증거금 5%를 포함한 금액을 송금해야 하는 데 비해 새로운 판매 방식에서는 증거금 없이 정확한 투자금액만 주문하면 되었다. 주문시간도 단축되었다. 대신증권에서 고시한 환율을 기준으로 별도의 환전절차 없이 원화로 해당 통화채권 매수가 가능해 환전 비용도 절감되었다. 토빈세 폐지에 맞춰 브라질 국채 단기물 라인업도 대폭 강화했다. 브라질 국채·물가채는 한국-브라질 조세협약에 따라 이자소득은 전액 비과세 처리되었다. 물가 상승률에 따른 원금상승, 헤알화 가치 상승에 따른 환차익도 모두 비과세됨에 따라 높은 절세 효과를 거두었다.

KT와 제휴 서비스 체결

대신증권은 2013년 4월 1일 통신회사와 제휴해 신개념의 '금융-통신 융복합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여의도 본사에서 대신증권 나재철 대표이사와 KT T&C부문 표현명 사장 등 양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레 신 제휴포인트 & 대신밸런스 CMA서비스' 출시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올레 신 제휴포인트 & 대신밸런스 CMA서비스'는 증권업계에서는 처음 선보인 신개념 '금융-통신 융복합' 서비스였다. 대신증권 CMA로 KT 통신비를 결제하면 다양한 통신혜택과 우대금리 혜택이 주어졌다.

2013. 04. 01
대신증권-KT 올레 제휴 기념행사

2013. 07. 03
대신자산운용, 대신 창조성장 중소형주 펀드 출시

KT LTE 가입자가 대신밸런스 CMA로 통신비를 결제할 경우, 가입축하금 5만 원을 받고, 올레 신 제휴포인트가 매월 5,000 포인트씩 적립되었다. 총 48개월간 최대 24만 포인트까지 적립되며, KT에서 기기변경을 할 경우 현금대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1포인트 당 1원으로 전환되고, 통신비 자동이체에 따른 1%의 CMA 우대금리 혜택도 추가로 지급되었다. KT와의 공동사업은 기존의 금융과 통신업종 제휴를 뛰어 넘는 사업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신자산운용,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펀드 출시

대신자산운용은 2013년 7월 3일 창조경제 정부정책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중소형주나 신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하여 시장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대신 창조성장 중소형주 펀드'를 출시했다. '대신 창조성장 중소형주 펀드'는 정부 주도 아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시장 트랜드를 이끌어갈 미래핵심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ICT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 과학 기술 등을 결합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창조경제를 구현할 12대 핵심산업에서 종목을 발굴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12대 핵심산업은 자동차, 에너지, 기계, 반도체, 유통, U-city, 로봇, 문화콘텐츠, 우주항공, 농업 및 해양, 헬스케어, 정보보호 등이다.

2013년 7월 30일 '대신 창조성장 중소형주 펀드'는 출시 한 달 만에 수탁고 100억 원을 돌파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수익률과 종목개발 능력을 인정받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펀드는 국내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아이디어가 글로벌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마련한 정부의 각별한 정책에 호응해 대신자산운용만의 운용 노하우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반영한 것으로, 고객들에게 좋은 투자기회를 제공했다.

대신자산운용은 헤지펀드의 안정된 운용과 장기적인 수익을 위해 국내 헤지펀드 시장 이해도가 높고, 운용 능력이 우수한 인력을 꾸준히 보강하여 투자역량을 강화해갔다. 2013년 10월 1일, 우수한 운용 인력 영입의 효과로 기관투자가의 관심을 받은 '대신 에버그린 롱숏 헤지펀드'의 최초 모집 수탁고는 1,000억 원을 돌파했는데 이는 업계 최초의 기록으로,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5절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노력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 CCO 신규 선임

대신증권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총괄책임자를 배치했다. 2013년 8월 2일, 금융소비자보호팀을 신설하고, 최정석 준법지원본부장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Chief Customer Officer로 선임했다. CCO 신규 선임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해 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준하여 이루어졌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임원급의 총괄책임자를 임명하고, 금융상품 기획부터 개발, 판매,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에 나섰다.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자 지정, 불완전판매 예방과 고객체감만족도 향상을 위한 평가방법 변경, 민원 점검의 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사후처리가 아닌 사전통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대신증권은 2014년 6월 25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대출빙자사기 등 금융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안내를 위한 이 캠페인은 대신증권 전 지점과 본사 직원이 참가했다. 지하철역 인근, 금융기관 밀집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금융사기 피해예방 전단지'를 전달하고 예방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고객 맞춤 서비스

대신증권은 시각, 지체, 청각장애인 등 정상적인 정보이용이 어려운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홈페이지 개선 작업을 완료하고, 2013년 7월 12일부터 본격서비스를 시작했다. 시각장애인들은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을 통해 홈페이지 정보를 음성으로 이용할 수 있고, 마우스 이용이 불편한 지체장애인들은 키보드만으로도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하게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개편작업은 약 5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이체, 주문, 잔고조회, 시세조회 등 대신증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웹 접근성 인증위원회KWAC에서 발급하는 웹 접근성 인증마크Web Accessibility

Certification Mark도 획득했다. 전문가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국IT서비스학회 소속 전문가 교수들의 검증을 통과했다. 1급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한 사용자 테스트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으며, 전문가 테스트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이 작업은 정보접근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대신증권의 지점별 특색 있는 고객 맞춤 서비스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하나인 야간 투자상담 코너는 직장인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홍제동지점은 가장 먼저 2013년 7월 9일부터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퇴근시간 이후 1:1로 자산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야간 투자상담 코너'를 운영했다. 사전에 예약하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야간 투자상담 코너에서는 개인고객의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상담은 물론 법인고객의 IB 관련 컨설팅까지 진행했다. 2013년 7월 16일은 종로지점, 같은 해 9월 3일에는 분당지점에서도 '야간 투자상담 서비스'를 선보였다. 야간 투자상담서비스에서는 국내외 경제 및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체크와 향후 경기전망, 개인고객의 주식, 채권, 금융상품, 해외직접투자 등 다양한 자산관리와 투자방법에 대한 상담서비스가 진행되었다.

대신증권은 세무법인 '대일'과 업무제휴를 통해 2013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를 실시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을 위한 세무서비스의 일환으로 고객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로 평가받았다.

모바일 주식 시장의 트렌드를 이끄는 크레온

고객과 소통하며 성장하는 크레온서비스 크레온은 2013년 1월 증권업계 최초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신용대출서비스를 선보였다. '크레온 원스탑 신용대출서비스'는 모바일 증권전용 앱인 '크레온 모바일'로 주식, 채권, ELS, 현금 등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신용대출서비스다. 홈트레이딩시스템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용 및 대출 신청해야 하는 불편과 공간의 제약을 개선해 고객이 보다 쉽게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신용대출서비스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3년 5월 24일에는 모바일 증권거래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개선한 크레온 모바일 자체 기술 특허 2건을 출원했다. 신규 특허 출원한 기술은 '멀티 히스토리 시스템'과 '주문가 트래킹 & 원스탑 정정시스템'이다. '멀티 히스토리 시스템'은 사용자가 선택했던 정보를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 특허 출원으로 크레온은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의 특화 이미지 선점과 함께 기능적 선점을 주도하며 온라인 부분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졌다.

크레온 홈트레이딩시스템은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불편한 점을 개선해왔다. 크레온 브랜드 3주년을 맞이해 2014년 2월 21일부터 고객 눈높이에 맞춘 화면 구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한층 더 강화한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제공했다.

크레온은 증권거래용 앱 개발업체인 두나무와 업무제휴를 맺고 2014년 5월 19일부터 카카오톡과 연동한 증권거래용 앱인 '카톡증권'에서 증권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톡증권서비스 오픈을 통해 3,300만 명 이상의 카카오톡 사용자에게 크레온의 우수한 서비스를 알리고, 투자자들은 손쉽게 투자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한편, 주식전문가와 투자상담 및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투자상담서비스'도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했다. 대신증권의 은행연계계좌인 크레온 고객 중 투자상담과 포트폴리오 관리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마련한 '프리미엄 투자상담서비스'는 크레온 파트너들이 온라인과 유선을 통해 1:1 맞춤 투자상담과 종목 추천 등을 진행하며, 주식 전문가로 구성된 20여 명의 대신증권 직원들이 크레온 파트너로 참여했다.

크레온 실전투자대회 크레온은 카톡증권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개최하는 'Creative Trader 2014, 10억 실전투자대회'를 개최했다. 2014년 6월 2일부터 시작하는 실전투자대회는 예선을 거쳐 각 리그 1위와 미션수행 선발자 등 총 10인에게 10억 원의 투자지원금을 제공해 그 운용수익을 상금으로 수여했다. 크레온의 '2014 10억 실전투자대회'의 본선 무대는 2014년 8월 4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진행되었다. 코스피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시작된 톱10 리그는 카카오톡 '증권Plus for KAKAO'에서 참가자들의 매매내역이 생중계되었다.

2014. 02. 21
크레온HTS 리뉴얼 오픈

2014. 10. 24
크레온 10억 실전투자대회 시상식

6월 2일부터 8주간 진행된 수익률리그와 미션리그에서 수익률리그 1위를 차지한 참가자의 수익률은 평균 162.66%최소 65.84%, 최대 312.13%다. 1위에게는 본인 수익금의 100%를 지급하는 등 모든 TOP10리그 참가자에게는 본인 수익금의 50%~100%를 상금으로 지급했다. 손실금액은 크레온에서 부담했으며, 자동탈락 기준은 -20%로 정했다.

크레온, '이루어Dream' 프로젝트 크레온은 2014년 9월 30일,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꿈과 희망에 대한 사연을 보내 선정된 투자자들에게 5,000만 원의 투자지원금을 제공하고, 수익금 전액을 상금으로 수여하는 '이루어Dream'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꿈에 대한 주제는 총 9가지로, 결혼, 육아, 연애, 취미, 학자금, 하우스푸어, 여가생활, 은퇴창업 등이었다. 총 1,200여 건의 사연이 접수되었는데 유학자금, 생활비, 혼수 마련 등 생활자금마련 사연과 카페 창업, 스타트업 기업 자금, 업무용 트럭 구매 등 창업자금 마련 사연 등이 많았다.

'이루어Dream' 프로젝트는 2014년 10월 30일, 홍보대사 김보성 씨와 사연을 보내 선정된 최종 9명의 선정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이후 11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주간 '이루어Dream'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도전했다.

'해피엔젤필명'이 43%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수익률 1등을 차지해, 2,100만 원 가량의 상금을 받았다. '해피엔젤'은 카페 창업이 꿈인 헬스트레이너로, "이루어Dream 프로젝트를 통해 멀게만 느껴졌던 꿈이 현실로 다가와 믿기지 않습니다. 아낌없는 투자조언으로 큰 도움을 준 크레온 파트너대림동지점 조원재 대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사용 중인 고물상 업무용 트럭 교체가 꿈인 '해리필명'는 7%의 수익률을, 몸이 불편한 자신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남편에게 환갑 선물로 차량을 구매해주고 싶었던 '하쿠나마타타필명'는 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2014. 10. 30
크레온 이루어Dream 발대식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 환경 개선

대신증권은 2013년 6월 17일 모바일앱 유저 인터페이스UI를 사용자 중심으로 강화한 모바일 증권거래 어플리케이션 '사이보스 터치'를 새롭게 개선했다. 개선된 사이보스 터치는 온라인사용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 환경을 최적화하고, 사용자가 검색했던 주요 정보를 메인화면에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히스토리, 가로보기, 터치영역 확대 기능이 있다. '히스토리 기능'은 사용자가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으로 선택했던 정보를 기억해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메인 메뉴에서 바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가로보기' 기능은 차트, 잔고 등 주요 화면에서 기존보다 많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터치영역 확대 기능은 주요 메뉴 및 기능 버튼의 터치영역 크기를 넓힌 것으로,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버튼을 잘못 눌러 일어날 수 있는 실행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기능이다. 모의투자 기능도 추가했다. 대신증권 계좌가 없어도 모의투자를 활용하여 주문, 관심종목, 현재가, 차트, 투자정보 등 사이보스 터치의 다양한 기능 경험이 가능해졌다.

2014년 12월 19일에는 크레온 모바일 사용을 안내해 주는 〈크레온 MTS가이드북〉이 발간되었다. 〈크레온 MTS가이드북〉은 스마트폰 형태의 작은 책자다. 책을 펼치면 왼쪽페이지의 투명한 창을 통해 실제 모바일트레이딩 시스템과 동일한 화면이 보이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해당 화면에 대한 쉽고 간결한 설명을 수록했다. 실제 상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태의 그림을 보며 각 메뉴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 포켓용으로 제작되어 휴대하기도 간편하다. 이 가이드북은 모든 모바일 기기의 사용성에 최적화된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독창성을 인정받아 '모바일 통신 기기용 콘텐츠 가이드 매뉴얼'에 대한 특허등록도 마쳤다.

2014. 12. 19
〈크레온 MTS가이드북〉

사용자 중심의 홈트레이딩시스템 '사이보스 5'

대신증권은 고객 눈높이에 맞춘 화면 구성 디자인과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한 홈트레이딩 서비스 '사이보스 5CYBOS 5'를 2013년 11월부터 제공했다. '사이보스 5'는 사용자들의 이용성향을 분석해 메인화면을 구성했다. 화면 가독성 향상을 위해 심플한 디자인 형태와 색체를 일관되게 유지했으며, 글자크기 자동변경 등 다양한 기능도 추가했다.

2014. 05. 23
CYBOS 5 업그레이드

2014년 5월 23일에는 '사이보스 5'의 상반기 개선 작업을 통해 업계 최초로 휴대용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선보였다. 개인 USB를 사용해 어느 PC에서나 사이보스 5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트레이딩서비스도 대폭 강화되었다. 주간 시장에만 제공하던 파생상품 스탑로스서비스를 야간시장까지 확대 제공해 24시간 사용이 가능해졌다.

한편, 대신증권은 2014년 10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이하 ISMS 인증을 증권업계 최초로 획득했다. ISMS 인증은 기업이나 단체가 정부의 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보안시스템을 관리해 나갈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정보보호 관리 절차, 운영 체계, 실제 이행 등 104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이 완료된다.

대신증권은 2014년 7월부터 2개월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았다. ISMS 인증을 통해 대신증권은 보유한 고객정보의 보호, 관리, 운영 안정성의 체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 온라인 트레이딩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더 안심하고 증권거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Daishin Financial Group
60년사

3장. 변화와 성장, 금융그룹의 체제 강화

2015

2016

STORY
2022

논리와 관점으로 차별화된 전략

논리와 관점

2015년 상반기 글로벌 증시 훈풍이 불면서 국내 증권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바로 이 시기에 대신증권은 '달러자산에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수많은 증권회사 중에서 오직 대신증권만의 차별화된 목소리였기에 더욱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왜 달러자산을 사라는 걸까?'

글로벌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부담도 따르는데... 의아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무턱대고 사라는 건 아닐 거야. 대신증권이 달러자산을 사라고 하는 근거를 자세히 들여다본 고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나온 전망이 아니었다. 지정학적 문제에서 글로벌 위기까지, 기축통화인 달러가 안전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초로 오랜 분석과 예측, 검증을 통해 시장을 전망했다.

"대신의 경영 기조는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달러자산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인 전망이 아니라, 고객 자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 최소 2~3년 뒤를 내다보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
나재철 증권 대표이사(現 한국금융투자협회장)

'달러자산에 투자하세요'라는 대신증권의 메시지에 대한 고객들의 화답은 숫자로 확인되었다. 2015년 초 2,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대신증권의 달러자산은 불과 6개월 만에 1억 달러를 돌파했다.

대신금융그룹의 차별화된 전략과 안전경영은 불안정한 시장 환경 속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호조를 이어가던 2015년 국내 상황은 중국증시의 급락과 메르스 여파가 겹치면서 소비가 침체되고, 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급변하는 국내외 자본시장의 환경 속에서 대신증권은 2016년에도 '달러자산, 그 가치는 커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신만의 논리와 관점으로 확신에 차 있었기에 반향은 더 컸다.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대신증권의 조언을 믿고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달러자산의 비중을 늘린 고객은 원화로 투자한 고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 보전 효과를 거두었다. 금세 투자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신뢰와 상생'에 뿌리를 둔 변화와 혁신의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대신증권의 금융주치의들은 역량과 전문성을 키워나갔다. 영업이익을 많이 올리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가치는 고객이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신뢰를 쌓는 일이라는 책임감이 커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사이, 대신증권은 차별성을 가진 회사가 되었다. 고객들에게 대신증권은 더 이상 상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었다. 시장에 대한 전망과 투자에 대한 논리와 관점을 파는 회사, 고객들에게 대신증권은 오래 함께 가야 할 자산관리 금융주치의로 인식되었다.

자산관리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하기 [1]

2007년 리테일사업부문의 조직개편은 본격적인 자산관리WM 비즈니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아직 직원들의 역량은 부족했다. 자산관리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였다. 2년여의 준비 끝에 2010년 일산 킨텍스에서 전 직원이 모여서 금융주치의 선포식을 가졌지만, 아직 모든 직원들이 기량을 갖추지는 못했다. 대신의 모든 직원들이 뛰어난 역량과 하나된 마음으로 자산관리 전문가가 되어야만 자산관리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경영진의 결단에 따라, 2015년 1월 17일에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임직원 모두가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경영진은 임직원들에게 회사의 핵심전략은 이제 '자산관리'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했다. 당시만 해도 브로커리지 영업에만 익숙해 있던 일부 직원들까지 자산관리 비즈니스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능동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금융주치의 MBA를 비롯해 강도 높은 전문 교육도 이어졌다. '이익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2011년 61.8%에 달했던 브로커리지 매출 비중은 2015년 36.9%까지 떨어졌다. 자산관리WM, 부실채권NPL관리, 저축은행 등 비非브로커리지부문 매출은 골고루 늘어났다. 자산관리 매출 비중은 2011년 3.1%에서 2015년 5.7%로 높아졌다. 영업직원에 대한 강도 높은 재교육을 통해 자산관리 영업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상품 판매 성과급을 늘린 효과였다.

자산관리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쌓여갈 즈음, 2016년 12월 고객자산본부장에 임명된 조경순 전무는 대체투자상품 5,000억 원 판매를 2017년 목표로 부여 받았다.

1 이 글은 대신증권 조경순 전무가 고객자산본부장으로 근무할 때의 관점에서 '대체투자상품 업계 1위 경쟁력 만들기와 WM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쓴 기고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글입니다.

"대체투자상품은 회사가 나아가야 할 전략 방향과 맞닿은 상품이었습니다. 저는 회사가 제시해준 목표의 속뜻을 5,000억 원을 지속적으로 팔 수 있는 경쟁력과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동안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직원들과 함께 어디로 향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부터 찾았습니다."

—
조경순 증권 전무

상품기획부, 신탁사업부, 랩사업부 직원들은 펀드, 신탁, 랩과 관련된 업의 본질을 다시 정립하고, 업에 대해 정의를 새롭게 했다. 고객자산본부 전체가 모여 '우리는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고객 자산이 지속적으로 불어나는데 독하게 헌신합니다'라는 미션을 정했다. 고객자산본부가 자체적으로 주도하는 교육도 이루어졌다. 본사 직원부터 부동산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고, 영업점 직원들에게 그 교육 내용을 전파했다. 부동산 펀드 교육은 각 지점별 그룹 과외로 이루어졌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전국의 모든 지점을 다니면서 교육을 진행했다. 이러한 열정과 노력을 통해 대신증권 영업직원들은 보다 전문적인 부동산 상품 교육을 받고, 판매경험도 쌓게 되었다. 부동산 대체투자 상품에 대한 임직원의 역량도 금융업계 통틀어 1위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2022년 3월 퇴임한 조경순 전무는 후배들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남겼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남을 위해서 일해 보세요. 눈앞의 목표에 연연하지 말고, 10년 뒤의 경쟁력을 생각하면서 일하세요.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남다른 안목, 빠른 실행력

2016년을 전후로 초대형 증권사가 등장하면서 증권사들의 몸집 키우기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다. 대신금융그룹은 수익모델 다변화를 미래 성장전략으로 정한 터였다. 경쟁사들이 몸집 키우기에 골몰하던 시기에 대신금융그룹은 금융과 부동산이 융합할 수 있는 사업의 현실화에 대해 고민했다. 그러던 중에 이목을 끄는 땅이 시장에 나왔다.

'남산과 한강이 조화를 이루는 명당'이라는 점에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는 한남동 외인주택부지였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물로 내놓은 이 땅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가 나뉘었다.

한 대형건설사 임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땅에 1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하는 것은 도박"이라고 단언했다. 위치는 뛰어나지만, 고도제한구역이기 때문에 7층을 넘지 못한다는 이유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근거였다. 말은 그랬지만,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금싸라기 땅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외인주택부지의 매각이 가까워질수록 내로라하는 건설사와 시행사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분주해졌다.

입찰은 참가 제한 없이, 최소 입찰금액을 넘겨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곳이 주인이 되는 방식이었다. 뚜껑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모두 어리둥절했다. 대신금융그룹의 단독 입찰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낙찰 금액이었다.

"솔직히 낙찰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업계에서 많게는 1조 원에서 적어도 7,000억 원은 써야 주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우리는 최소 입찰가에 겨우 111억 원을 더한 6,242억 원을 썼거든요. 굳이 비싼 금액을 쓰지 않고 성사시켜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주도면밀하게 시장을 조사하였습니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 성과를 거두고자 했던 전략이 다행히 잘 맞았습니다."

—
진승욱 에프앤아이 경영기획부본부장(現 자산운용 대표)

관심을 갖고 있던 기업은 많았지만, 대부분 망설였다. 일부 기업들은 유찰을 통해 입찰금액이 낮아지기를 기대해 첫 입찰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금융그룹은 이 땅의 가치, 장점을 더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첫 입찰에 바로 참여했다. 일을 되게 만들고자 하는 긍정적인 의욕이 다른 기업이 부각시켰던 단점과 문제들을 극복했다.

금융과 부동산의 융합을 실현하기 위한 첫 사업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구심점이 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신에프앤아이의 자회사로 디에스한남現 대신프라퍼티을 설립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유일무이한 의미를 가진 독자적인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소는 세계 어디에나 하나뿐이라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고유의 위치를 나타내는 주소를 우리만의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
김민중 프라퍼티메이커스 개발전략본부장

한남대로 91, '나인원한남' 브랜드는 고유의 유일무이한 주소에서 탄생했다.

낯설고 조심스런 초행길. 길은 허공으로 향한 벼랑 끝에서도, 천 길 물속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했다. 발을 디뎌야 할 곳, 손을 뻗어야 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서, 실수 없이 나아가야 했다. 대신금융그룹은 한 사람이 앞선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이 함께 걷는 한 걸음의 가치에 무게를 싣고 한 걸음씩 전진했다.

1절 자산관리 영업 강화를 위한 전사적 노력

달러자산에 투자하세요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를 핵심 사업 분야로 정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력을 쏟아온 대신증권은 2015년부터 '달러자산에 투자하라'는 하우스뷰House View를 제시했다. 남북 분단의 정치적 문제, 지정학적 위치, 글로벌 위기에서 자산을 지키려면 기축통화인 달러를 일정비율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후 대신증권은 달러주가연계증권ELS, 달러환매조건부채권RP, 환換노출 해외펀드 등 달러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확충하고 '달러자산 마케팅'에 집중했다. 달러RP, 달러ELS, 달러투자펀드 등 달러에 투자하는 다양한 투자상품을 선보였는데, 이중 달러ELS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달러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주목받았다. 개인투자자에게 연 2%의 금리를 제공하는 달러RP상품의 증가율이 가장 컸으며, 환노출형 상품인 달러투자펀드 자산도 꾸준히 증가했다.

대신증권은 신성장 산업의 발전도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고,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달러의 실질 자산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신증권의 전망대로 달러는 지속적인 강세를 보였고, 덕분에 많은 개인 고객이 금융상품 수익과 환차익을 함께 얻을 수 있었다. 달러 투자자산은 6개월 만에 1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통화 관점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러한 성공을 통해 대신증권은 수익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다. 바로 차별화된 논리와 관점에 대한 자신감이었다. 2016년에는 자산관리회사로서 대신증권이 지향하는 목표를 'Logic&View를 파는 회사'로 정했다. 일회성으로 금융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일관된 논리와 관점에 기초한 중장기 유망 재테크 전략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대신증권은 2016년 고객을 연령대 등으로 세분화해 재무목표에 따라 자산관리를 해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을 확대하고 연금상품 포트폴리오를 확충해 고객의 은퇴 설계를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

2015. 04. 30
달러로 투자하는 ELS 출시

House View 신문광고

2015. 05. 11
명동센터 이전 오픈

2015. 07. 27
나주지점 이전식

영업점의 대형화

대신증권은 2015년 2월 4일, 자산관리 영업 강화를 위해 기존 명동지점 등 각 지역 거점에 위치한 전국 6개 지점을 금융센터로 승격시켰다. 자산관리 영업 강화를 위해 영업점의 대형화가 추진된 것이었다.

영업점 대형화 과정을 통해 센터로 승격한 영업점은 명동센터명동지점, 분당센터분당지점, 오산센터오산지점, 대구센터대구서지점, 부산센터부전동지점, 광주센터무등지점 총 6곳이었다. 이로써 기존의 강남선릉, 강남대로, 광명 등 3개 센터를 포함해 지역 요충지에 총 9개의 금융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

대신증권의 고객은 전국의 금융센터 및 영업점에서 담당 금융주치의에게 시장 상황에 가장 알맞은 투자대안과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 등 투자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고객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금융센터는 IB업무를 같이 담당해 인근지역 법인고객에게도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법인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토탈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영업점의 센터 승격은 대신증권의 사업전략인 자산관리 사업 강화를 위해 진행되었다.

고객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지점 이전도 이루어졌다. 2015년 5월 11일 기존 명동센터를 이전했다. 새로 단장한 명동센터는 을지로입구역 5번 출구 앞에 위치하고, 주변에 금융기관, 상가 등 각종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다. 2015년 4월 6일에는 노원지점이 이전했다. 노원지점은 7호선 노원역 6번 출구 인근에 위치해 주변에 금융기관 및 아파트단지가 밀집해 있어 고객들의 편의를 한층 높였다.

2015년 7월 27일 새로 이전 오픈한 나주지점은 한국전력, 우정사업정보센터,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입주하고 있는 광주전남혁신도시 한 가운데 위치하게 되었다. 복합시설 및 주거지역, 금융기관 등이 입주함에 따라 고객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새롭게 성장하는 광주전남혁신도시의 주요 금융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금융주치의 MBA 과정

대신증권은 금융주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주치의 MBA과정을 마련했다. 금융주치의 MBA는 수준 높은 종합전문교육 과정으로, 금융주치의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일반 영업직원과는 차별화된 '논리와 관점'을 생산하는 대신증권 최고의 금융주치의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금융주치의 MBA는 총 4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과정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단계에 거쳐 이루어졌다.

2015.
금융주치의 MBA 과정

1단계 과정은 직무 전문성 강화 교육으로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다. 이 단계는 논리와 관점을 생산하는 전문 맞춤형 과정으로, 회사의 하우스 뷰 기반 논리와 고액자산가 고객 생애주기 재무설계 상담, 연금과 보험을 통한 자산배분전략, 거액자산가 유치와 관리 노하우 등에 대한 교육과 최종 테스트를 통해 수료를 인증했다.

2단계는 분야별 역량강화 교육으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졌다. 2단계에서는 각 분야의 세분화된 전문가로 성장을 이끌었다. 자산배분 및 포트폴리오 전문가, 생애주기 재무설계 전문가, 연금 및 보험 전문가, VIP 고객 영업전략 전문가, 고급세미나 마케팅 전문가 등의 과정을 통해 진정한 전문가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이었다.

3단계는 고급 교육과정으로 2016년 6월까지 진행되었다. 외부 전문교육과 각종 포럼, IR 담당자 초청 토론회, 초청 강의, 외부 세미나, 해외 연수 등을 통해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안전경영을 위한 ELS운용규모 축소

대신증권은 여러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타가 공인하는 부분은 '위기'에 강한 증권사라는 점이다. 부침浮沈이 심한 증권업계에서 독립계 증권사로 60년 역사를 이어온 대신증권만의 리스크관리 능력은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꼽을 수 있다. 대신증권이 수익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안전성이다. 호황 국면에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짜는 데 역점을 두어 안정성을 지켜

왔다. 위기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면,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고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줄이면서 손실의 변동성을 꾸준히 낮추어갔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가연계증권 ELS 비즈니스이다. 대신증권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ELS 운용을 통해 많은 수익을 냈다. ELS 자체헤지 리스크 한도가 3조 원에 이를 정도였다. ELS 자체헤지운용을 통한 판매수익은 주요 수익원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대신증권은 ELS의 변동성이 증대될 때는 손실이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주가변동성이 크지 않을 때는 상관없지만, 급락장이 되면 이야기는 정반대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회사만의 손실이 아니라, 고객도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컸다.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는 막대한 자체헤지 비용이 들고, 고스란히 손실로 돌아오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ELS는 기초지수가 상승하거나 일정 밴드 내에서 움직일 때는 고객과 운용사 모두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지만, 변동성이 커지면 고객은 낙인Knock-in의 위험이 높아지고, 운용회사는 자산과 부채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옵션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게다가 주가의 하락변동성이 커지면 글로벌 IB에 지불하게 되는 증거금이 급증하면서 많은 양의 유동성이 필요해진다.

대신증권은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안전성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고객의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ELS의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았고, 이는 대신증권이 추구해온 진정한 자산관리의 원칙과 신념에 따른 결정이었다. ELS 자체헤지를 축소하고 달러자산에 대한 투자는 지속했다. 이러한 안전경영은 아무리 고수익이 예상된다고 해도, 큰 손실이 예측된다면 이는 고객의 자산관리를 위해서 자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대신증권의 이러한 예측은 불과 몇 년 뒤에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 ELS 비즈니스를 축소하지 않았던 대형증권사들은 2020년 유로스톡스50지수 급락으로 인해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대신증권은 3조 원까지 가능했던 자체헤지 운용한도를 1/30 수준으로 줄여 실제 약 800억 원에 불과한 물량만 운용하고 있었기에 유동성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대신증권은 회사의 자산을 변동성이 작은 글로벌 우량자산으로 교체해 나갔다. 고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순익 규모도 줄어들었지만, 위기 국면에서는 오히려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전략이었다.

자산관리 비중 증대로 수익다각화 시현

2012년 대신증권은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증시 침체로 거래량은 활황기 대비 반토막이 났고, 수수료 이벤트 등 업계의 과당 경쟁으로 브로커리지주식·선물중개 수수료는 급감했다. 그러나 3년여가 흐른 2015년 말 대신증권은 대변신을 했다.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성공해 '브로커리지에 특화된 증권사'에서 '수익원을 다변화한 종합금융회사'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어갔다.

2015년 9월까지 대신증권은 연결기준으로 1,553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었다. 전년 동기356억 원 대비 336%나 급증한 규모다. 2015년 상반기 증권업황 회복 외에도 2012년부터 총력을 쏟아 온 사업모델 재편 작업이 결실을 거두기 시작했다.

대신증권은 자산관리 영업을 강화해 업황 영향을 많이 받는 브로커리지 사업 비중을 낮춘 덕분에 2015년 상반기 연결기준으로 영업이익 940억 원, 당기순이익 757억 원을 기록했다. 2009년 상반기 영업이익 1,227억 원, 당기순이익 645억 원을 기록한 이후 최대 실적이었다. 리테일, 자산관리WM, 투자은행IB, 홀세일, 고유자산운용 등 전 사업부문에서 흑자 경영을 이루었다.

특히 2011년 61.8%에 달했던 브로커리지 매출 비중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영업수익 기준은 2015년 36.9%까지 떨어졌다. 브로커리지가 줄어든 만큼 자산관리, 부실채권 관리, 저축은행 등 다른 부문의 매출은 골고루 늘어났다. 회사가 제시한 미래 전략 방향에 맞추어 모든 구성원이 함께 가고 있다는 방증이었다.

자산관리 매출 비중은 2011년 3.1%에서 2015년 5.7%로 높아졌다. 2011년 말 8조 970억 원에 머물렀던 금융상품 판매 잔액도 2015년 9월 말 16조 581억 원으로 두 배가량 급증했다.

IB부문의 강화와 IPO 실적 회복

IB부문은 IPO 실적 회복과 구조화금융 등 신규 수익원 창출에 힘입어 2015 회계연도에 전기 대비 103.4% 증가한 216억 원을 시현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IB부문은 2016년 사업목표를 전략적 진보를 통한 생존력 강화로 삼았다. 이에 따라 복합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니즈에 따라 융복합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투자대상, 상품 및 대상지역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Coverage를 강화하고, 자산유동화, M&A 자문 및 인수금융 주선, 지주사 전환 등 다양한 투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IB사업단의 조직을 IB1부문, IB2부문, Advisory본부와 인수채권부로 새롭게 재정비했다.

2016년에는 태영건설 공모사채 발행 대표주관, SK해운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 발행 주관 및 유동화증권 발행, 한화큐셀 김치본드 발행 주관 및 유동화증권 발행과 중국 CDS와 담보사채를 결합한 자산 유동화 주관 등을 통해 약 85억 원의 영업수익을 달성했다. 아울러 수익형

2015. 06. 17
(주)싸이맥스 상장식

부동산,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주택 개발 등의 PF관련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금융자문을 수행했다. 개발신탁 구조의 공사대금채권 ABL 금융자문, 유동화 SPC의 업무위탁 및 자산관리사업을 통하여 약 280억 원의 영업수익을 기록했다.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발행 업무에 있어서는 2016년 코아시아홀딩스, 명문제약, 뉴인텍, CMG제약, 아시아나항공, 코스맥스 등의 유상증자에 대표주관 및 인수업무로 총 1,447억 원의 영업수익을 올렸다. 주식연계채권도 총 815억 원 발행을 주관했다. 채권발행업무는 하이트진로홀딩스 대표주관 및 S-OIL 등의 인수단 참여를 통하여 약 72억 원의 영업수익을 달성했다.

우량 비상장기업을 발굴하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시켜온 IB부문은 2016년에는 한국자산신탁, 레이언스, 동양파일, 오션브릿지 등 총 4개 사의 IPO 대표주관 등 비상장 우량기업을 발굴하여 IPO를 통해 회사자금 조달 등 업무를 수행하며 약 90억 원의 영업수익을 달성했다.

Advisory본부는 2016년에 신설되었는데 기업들의 복합적이고 비전형적인 요구에 대한 맞춤형 자문서비스 제공, 인프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주선 업무와 해외 대체투자 관련 업무 주관, IB사업단 내의 신규 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 2016년에는 폐기물 소각장 인수자문, 해외 M&A 비즈니스 플랫폼 업무제휴, 인프라 관련 PF금융주선 등의 업무를 추진했다. 2016년 하반기에 IB사업단으로 편입된 인수채권부는 채권 신규 포지션 업무, 발행시장 인수, 유통시장 국채 거래 중개, 채권 트레이딩 및 차익거래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또한, 회사채 발행에 수반되는 신디케이션 기능 강화를 통해 채권발행시장에 있어서의 커버리지 확대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세일즈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인재확보와 선제적 조직개편

대신증권은 2015년 11월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재개하여, 본사와 지점 영업부문과 IT 전산부문 직원을 선발했다. 공개채용과 별도로 프라이빗뱅커PB를 비롯한 전문계약직 특별채용도 함께 진행했다. 실적 부진과 사업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2013년과 2014년에는 공개채용을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증권이 공채를 뽑지 않은 기간은 금융투자업계에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던 시기였다.

모든 사업부문에서 고른 성과를 바탕으로 대신증권은 신입사원을 선발해 성장성을 이어갔다. 서류심사를 통해 직무능력을 평가하고, 실무진과 경영진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했다.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별도로 전문계약직 특별채용도 함께 진행했다. 자산관리 영업을 담당할 자산관리 전문가와 미래 애널리스트로 성장할 리서치센터 RAResearch Assistant를 뽑았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재무분석사 등 전문직종 자격증 보유자 또는 경영·경제·금융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직종 자격증 보유자를 위한 채용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해 능력 있는 인재 채용에도 적극 나섰다.

2016. 01. 17
54기 공채 신입사원 합숙훈련

2016년에는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와 미국의 대선 이후 불확실성 확대 등 미래 경영환경의 변화에 앞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되었다. 이에 대신증권은 '바른 조직, 효율성 강화, 시너지 창출'을 통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선제적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대신증권은 2016년 11월 29일, 주요 사업부문 통합 등 조직개편을 단행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유연한 조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재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주요 사업부문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Solution&Product사업단 신설이었다. 기존의 홀세일사업단과 트레이딩센터를 통합해 상품중개와 운용, 세일즈까지 일원화한 것이다. FICC, Equity, AI, 대차거래 등 다양한 금융상품 솔루션을 제공해 사업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시장 변화 추세에 맞춰 패시브솔루션본부를 신설했다.

리테일부문도 시장 변화에 따라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자산관리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 소싱 및 세일즈 기능과 HNWHigh Net Worth, 고액자산가부문의 마케팅도 대폭 강화해 나갔다. 리서치부문의 역할도 재정립했다. 그 동안 중점을 두었던 기관투자자 중심의 홀세일 리서치에서 자산관리 중심의 리서치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고유자산의 중장기 투자부

2016. 03. 31
HNW 우수사례 발표

문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금융담당도 신설되었다.

"주식 중심의 리서치 자료에서 벗어나 금융상품까지 영역을 확대해 자산관리 고객에게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리서치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의견 제시방법을 변화시키는 등 리테일 투자자를 중심으로 하는 리서치로의 혁신을 시작했습니다." - 김범철 증권 경영전략총괄 부사장

2절 고객 중심 온라인서비스

온라인 자산관리 특화 서비스

대신증권은 온라인 자산관리 콘텐츠를 강화하고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에서 금융상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해 2015년 4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5년 경영전략인 '온라인 금융상품판매 강화'의 일환으로 진행한 홈페이지 개편은 고객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고객들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금융상품을 쉽게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자산관리 콘텐츠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고객들은 펀드, ELS, 채권, CMA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투자자의 투자 목적을 구분해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펀드 테마관'도 신설했다. 수익률, 규모, 유형 등으로 구분해 펀드 랭킹을 제공하고, 비슷한 유형의 상품비교, 예상 투자수익률 제공 등 고객의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상품을 검색할 때 효율적인 유저인터페이스UI를 적용해 고객이 쉽게 상품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상품의 핵심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고, 초보 투자자도 투자위험이나 투자포인트 등 상품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했다. 금융상품 매매 프로세스도 개선했다. 페이지 이동 없는 확장형 UI를 적용해 편리하게 매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매 프로세스 입력가이드를 제공해 어려운 매매 단계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고객이 상품투자의 흐름이나 단계를 이해할 수 있고, 추천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는 '투자시뮬레이션' 메뉴와 고객의 투자성향과 보유 자산을 비교해 포트폴리오와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My 자산' 메뉴도 선보였다.

한편, 대신증권은 홈페이지 개편을 기념해 바뀐 홈페이지를 체험하고 평가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신 노트북과 펀드교환권 등을 제공하는 '두드림Do! Dream'이벤트도 진행했다.

2015. 04. 01
홈페이지 개편

개인 맞춤형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 '대신 웰스어드바이저'

자산관리서비스를 확대해온 대신증권은 소액투자자도 온라인에서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2016년 3월 16일 온라인에서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따라 맞춤형 자산관리뿐 아니라 리스크 관리도 함께 해주는 '대신 웰스어드바이저' 서비스가 출시되었다.

'대신 웰스어드바이저'는 고객들이 온라인에서 쉽게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만든 서비스다. 대신증권의 모든 트레이딩시스템홈트레이딩, 모바일 앱,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따라 은퇴, 연금, 주택, 교육, 결혼, 목돈마련 설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적립식으로도 가입이 가능해 소액투자자도 부담 없이 온라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졌다.

실질적으로 고객의 성향, 투자금액, 투자기간을 반영한 440여 개의 고객별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게 했다. 예를 들어 글로벌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포트폴리오 구성 시 해외투자상품의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적립형을 선택한 투자자는 매달 소액으로 투자하는 만큼 상품 수를 줄여 제시한다.

웰스어드바이저는 일반적인 로보어드바이저와 달리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상품이 다양하다. 국내, 해외, 이머징마켓 등 7개 자산군의 펀드와 ELS로 구성되었고, 향후 채권과 RP 등도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었다.

이 서비스는 월간 스케줄 기능을 통해 상품 만기정보, 이자지급일 등 고객이 알아야 하는 필수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캘린더 형태의 금융정보 창을 통해 국내외 경제지표 등 꼭 챙겨야 하는 금융정보도 한 눈에 볼 수 있다. 투자자는 보유한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단계에 따라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리스크 단계는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유한 스마트폰의 푸시Push 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사이보스 터치'의 고객 중심 기능 강화

스마트폰 주식거래 어플리케이션인 '사이보스 터치'는 개선작업을 거쳐 2015년 11월 16일 새롭게 선보였다. 정보와 가독성 증대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을 적용하고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

2015. 11. 16
사이보스 터치 리뉴얼 오픈

의성을 높이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음성검색 기능을 통해 주식 종목명 또는 종목코드를 입력하지 않고 음성만으로도 검색이 가능해졌고 퀵메뉴 편집 기능도 강화했다.

대신증권은 이처럼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 작업을 통해 고객 중심의 온라인서비스를 실현했고, 주요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2015년 12월 21일 대신증권은 '제12회 웹어워드코리아'와 '스마트앱어워드 2015'에서 증권부문 대상과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웹어워드코리아'와 '스마트앱어워드'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시상식이다. 한 해 동안 새로 개발되거나 리뉴얼된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을 대상으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서비스를 선정해 시상한다.

대신증권 홈페이지는 금융부문 증권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15년 홈페이지 개편을 통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 온라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산관리 콘텐츠 강화가 주목받았다. 투자자의 투자 목적을 구분해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펀드 테마관'을 신설하는 등 자산관리서비스의 질을 높인 것이다. 또한 모바일앱인 사이보스 터치는 증권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서비스 개편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으로 뱅킹메뉴를 강화하고, 퀵메뉴 커스터마이징, 조회전용 로그인 등 사용성을 강화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5. 12. 09
스마트앱어워드 2015 시상식

업계 최초의 카톡 알림서비스

대신증권은 업계 최초로 2016년 6월 13일, 카카오톡의 '알림톡'을 이용한 고객 알림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톡 알림톡은 친구 추가 없이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정보성 알림메시지 서비스다. 대신증권은 알림톡을 통해 매매체결 내역과 이체거래 결과 등 업무관련 안내 메시지를 고객에게 발송하게 되었다. 대신증권에서 제공하는 알림톡은 카카오 인증 마크와 대신증권 로고 등이 표시되어 스미싱 메시지와 구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띄어쓰기를 포함해 최대 1,000자까지 전송할 수 있어 고객들에게 더욱 자세한 내용 전달이 가능해졌다.

대학생 실전투자대회 '청춘리그'

대신증권은 2016년 9월부터 한 달 동안 대학생 모의투자대회를 진행했다. 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40명은 대신증권에서 제공하는 투자지원금 500만 원을 가지고 같은 해 11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전투자대회인 '청춘리그'에 참여했다. 수익금 전액은 상금으로 지급되었다. 청춘리그에 참여한 40명의 평균 수익률은 12.3%를 기록했다. 다만 수익률이 -20%를 초과하거나 관리종목을 4회 이상 거래할 경우 대회에서 자동 탈락되었다.

3절 브랜드 전략과 디자인 경영으로 기업 이미지 향상

대신금융그룹의 기업철학을 디자인하다

대신금융그룹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2010년 CI(Corporate Identity)를 바꿔 '전통이 있지만 다소 올드하다'는 평을 받았던 이미지를 '밝고, 세련된' 이미지로 변신시켰다. 전용서체와 고유의 사색(社色)을 개발해 대신금융그룹만의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구축했다. 이처럼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신금융그룹의 '디자인 경영'은 업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대신금융그룹은 2010년 종합적인 브랜드전략을 세우고 디자인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브랜드전략실을 신설했다. 브랜드전략실을 새로 만든 것은 장기적인 회사의 미래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었다.

당시만 해도 금융투자업계에서 '디자인 경영'은 다소 생소한 개념이었다. 핸드폰, 자동차처

2016. 06. 13
카카오톡 알림톡서비스 오픈

2016. 11. 03
대학생 모의투자 시상식 & 청춘리그 출범식

대신 서체

럼 '눈에 보이는' 유형의 제품이 있는 제조업체와는 달리, 금융투자업계는 무형의 이미지와 복잡한 숫자가 전부이기 때문이었다. 디자인을 적용시킬 대상이 적은 만큼 상대적으로 디자인경영에 대한 필요성도 부족했다.

대신금융그룹이 브랜드전략실을 신설한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는 회사의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대신금융그룹은 2009년 회사의 비전과 미션을 수립하기 위한 이미지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100명 중에 95명 정도가 '대신증권'에 대해 이름은 알고 있는 수준의 증권회사라는 평가를 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이용을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대다수의 젊은 고객들은 대신증권이라는 회사를 알고는 있지만, 부모님 세대가 이용하는 증권사이고, 자신들은 다른 회사를 이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영속하는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회사의 이미지를 젊고, 유능한 금융전문기업, 시대를 앞서는 기업으로의 혁신이 필요했다. 내부의 역량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외부에 비치는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도 있었다. 그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브랜드전략실에서는 가장 먼저 금융회사, 특히 증권회사에서 브랜드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시작했다. 금융업, 특히 증권업은 고객과의 접점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홈트레이딩은 물론 모바일트레이딩까지 활성화된 상황에서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은 드물었다.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증권 거래에 대한 모든 것이 브랜드 전략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융상품과 주식거래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대신증권의 브랜드가 되는 것이었다.

특히 대신금융그룹의 사업 영역이 확장되면서, 브랜드 전략은 금융 전문성 이미지 강화에 힘썼다. 브로커리지 영업에서 자산관리 영역으로 사업의 무게 중심이 옮겨가면서 다수의 Mass 고객들과 HNW 고객, 또 모바일트레이딩이 익숙한 젊은 세대의 고객과 여전히 영업점을 방문하는 것이 더 편리한 노년층 고객까지 다양한 계층의 고객들에게 맞는 브랜드 전략을 짜야 했다. 대신금융그룹의 비전은 물론, 작은 상품과 시스템의 개선 작업 하나에 이르기까지 아이덴티티와 철학을 담아내면서 이미지를 강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Logic&View에 기반한 그룹 차원의 경영전략이 전개됨에 따라 브랜드 이미지 구축은 영업직원 중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소수정예로 선발된 금융주치의의 전문가 이미지 광고 및 HNW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관리 영업을 위한 영업점 공간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대신금융그룹은 디자인 경영을 통해 그룹의 경영철학을 담아낼 수 있는 차별화된 영역을 마련하고자 했다. 특히 디자인 경영을 전격 추진한 이어룡 회장은 다음 2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투명경영을 강화했다. 이어룡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전 지점의 지점장실과 본사 임원실을 투명유리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 '금융회사인 만큼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투명성을 강조해 고객과의 소통을 높여가자'는 의지가 담긴 것이었다.

둘째, 고객중심경영을 강조했다. 대신금융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고객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금융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잡한 영역이지만 이를 쉽게 바꿔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쪽으로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 2013년 레드닷어워드에서 대신금융그룹이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모바일 앱부문에서 수상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고객들의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의 사용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했는데 이것이 디자인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대신금융그룹의 디자인 경영은 여의도 시절의 본사부터 추진되었다. 사내 복합문화공간인 '트러스트 큐브'는 독특한 디자인 콘셉트로 주목을 받았다. 디자인 테마인 '자연'에 기초해 한쪽 벽면에 과감하게 녹색식물을 깔아서 '버티칼 가든수직정원'을 만들었다. 선큰Sunken을 통해 대나무 밭을 만드는 등 자연친화적인 독특한 디자인으로 여의도의 유명세를 탔다. 대신금융그룹은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면서 금융상품부문에도 디자인 개념을 적극 접목했다.

"모든 디자인이 그렇지만 금융에 있어서 디자인은 단순히 화려함과 세련됨이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좋은 디자인은 어려운 투자정보와 복잡한 금융지식을 금융소비자들이 알기 쉽고

트러스트 큐브

2013. 07. 18
대신증권, 2013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또한 금융회사가 표현하고 싶은 진정성을 담아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금융 속에서 디자인의 역할은 아직 일반인에게 생소하지만, 무형의 상품을 만드는 금융에서의 디자인 가치는 더욱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생각하며 화려함을 좇는 디자인이 아닌, 사용자를 위한 실용적인 가치를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 김봉찬 증권 브랜드전략실장

2014년 3월 27일 대신금융그룹의 새로운 본사를 명동에 신축하기로 결정하면서 명동 신사옥 공간에 대한 기획이 시작되었다. 대신금융그룹의 임직원들이 모두 모여서 일을 하는 공간, 외부에서 한눈에 보이는 건물의 외형적인 콘셉트부터 내부의 공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브랜드전략실은 회사의 철학과 비전을 새로운 사옥의 안팎에 담아내고, 모든 구성원들의 '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자인을 고민하면서 구현해 나갔다.

다양한 글로벌 어워드 수상

대신증권은 브랜드 전략의 일환으로 전개해온 디자인부문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국제적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연이은 수상을 했다.

2015년 8월 세계 최고 디자인 공모전 중 하나인 독일 「201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dot Design Award」에서 대신증권의 연차보고서인 〈2015 애뉴얼리포트〉가 커뮤니케이션부문에서 위너Winner를 수상했다. 레드닷 어워드는 iFInternational Forum,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인정받는 시상식이다. 이 수상은 2013년에 이어 두 번째이며, 2015년에는 전 세계 53개국에서 총 7,451개의 작품이 출품되어 경쟁했다.

위너를 수상한 〈2015 애뉴얼리포트〉는 대신증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전문가 이미지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표현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존 애뉴얼리포트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과감한 색채와 그래픽 자료를 사용해 투자자가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담아냈다. 또, 아시아 국가에서는 중요한 서적을 실로 엮어 보관한 점에 착안해 국문은 초록색실, 영문은 파란색실로 제본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대신증권의 〈2015 애뉴얼리포트〉는 2016년 2월 「iFInternational Forum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커뮤니케이션부문 연례보고서 분야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총 7개 분야에서 수상작을 결정하며, 전 세계에서 총 5,295개의 작품이 출품되어 경쟁했다.

본상을 수상한 대신증권의 〈2015 애뉴얼리포트〉는 메인 컬러인 Green to Blue컬러를 그래픽요소로 활용해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했다. 사업성과 및 전략 부분 등에 대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디자인으로 투자자가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담아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5 애뉴얼리포트〉

달라진 기업 이미지

2016년 3월 대신증권은 고객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대신증권 공식 블로그https://blog.daishin.com의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불과 1년 6개월이 지난, 2017년 10월 26일, 공식블로그인 '밸런스 뷰Balance View'의 9월 콘텐츠 조회수는 120만 건을 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2017년 기준 1년간 월평균 조회수가 100만 건을 돌파한 것이다. 한 달 평균 100만 명이 대신증권 공식블로그를 방문했으며, 이웃은 1만 6,000명을 돌파했다.

'밸런스 뷰'는 어려운 투자정보와 광고성 콘텐츠를 과감히 배제하고, 대중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재테크 콘텐츠를 다양한 각도로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대내외 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경제트렌드, 용어퀴즈, 금융상식 등 다양한 금융 콘텐츠도 큰 인기를 모았다. 특히 주식 종목 추천은 초보투자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카드뉴스 방식을 업계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툭하면 외식과 늦은 밤 야식 배달을 끊지 못하는 김씨 부부. 냉장고 안에는 언제 샀는지도 모를 음식과 재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습관처럼 들르는 대형마트는 생활비를 갉아 먹는 주범이 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맞벌이인 김씨 부부는 월소득이 600만 원에 달하지만 식비로만 80만 원을 지출할 만큼 재정 누수가 많은 상황인데요. 늘 다짐해도 지출 통제가 맘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은 '냉장고 파먹기', '올바른 장보기 요령', '외식 조절하는 법' 등 한달 식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노하우와 이를 실천한 김씨 부부의 식비 변화를 공개합니다.〉

'한달 식비 80만 원 → 40만 원! 생활비 다이어트 4계명'의 도입 부분이다. 이 콘텐츠는 2016년 9월 27일 올린 내용인데, 누적 조회수가 106만 177회에 달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이밖에도 '신혼부부 종잣돈 1억 원 만들기', '비혼족 싱글남 재테크', '희귀동전 찾기', '10만 원으로 시작하는 소액투자', '푼돈재테크 1,000원의 기적' 등의 콘텐츠는 평균 조회수가 20~30만에 달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실제 생활과 밀착된 경제와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내어 누구에게나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대신증권 공식 블로그

2016.
업계 최초 카드뉴스 방식 도입

2009. 11. 05~11. 07
대신증권 토마토투어 한국여자 마스터즈 골프대회

2015. 12. 16
대신증권-KT위즈 업무제휴 협약식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

대신의 스포츠 마케팅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대신증권은 2009년과 2010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대회인 대신증권 토마토투어 한국여자 마스터즈 골프대회와 대신증권 토마토 M 한·유럽 여자 마스터즈 대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했고, 2011년에는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대회인 대신증권 KPGA 챔피온십을 경기 용인의 아시아나CC에서 개최했다. 제주도에서 열린 KLPGA 프로암 대회에는 대신증권의 VIP 고객들을 초청해 프로들과 함께 라운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처럼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 활용해온 대신금융그룹은 2015년 12월 16일 프로야구 신생구단인 KT위즈와 업무제휴 협약식을 진행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파트너십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타자 헬멧과 수비수 모자, 수원 KT위즈파크에 외야 펜스, A보드에 대신 브랜드 광고 노출 등이었다.

통상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스포츠구단 스폰서십 계약과는 달리 대신증권은 신생 구단인 KT위즈의 장기 성장성을 보고 5년의 장기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코로나19가 한창인 2020년 말 계약을 5년 더 연장했다. 경기장 관람 제한 등에 마케팅 효과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스폰서십을 이어간 것은 일회성이 아닌 신뢰와 상생의 가치를 중시하며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가는 대신 특유의 경영철학과 기업문화를 반영한 결정이었다. 대신과 오랜 파트너십을 맺은 KT위즈는 2021년 프로야구 정규시리즈와 한국시리즈를 통합우승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KT위즈의 정규리그 우승은 창단 7년 만에 거둔 성과였다.

한편, 대신금융그룹은 KT위즈 후원을 영업활동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임직원 화합과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용도로도 활용하고 있다.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전 임원은 2016년부터 매년 KT위즈의 홈 개막경기 관람 행사를 진행해 화합과 KT위즈 격려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17년 6월 17일에는 대신금융그룹 패밀리데이를 KT위즈파크에서 진행했다. 임직원을 포함한 가족 1,850명이 참석해 KT위즈파크 응원석을 가득 메웠으며, 증권 대표이사의 시구와 직원 시타, 이닝 종료 시 각종 이벤트 및 경기 종료 후 키즈런 그라운드 투어를 진행했다.

또한 2015년 계약 직후부터 KT위즈파크에 스카이박스 1곳을 임대해 본사 및 영업점에서 고객 대상 마케팅을 진행했는데 임직원과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 2018년에 스카이박스를 추가 임대해 2022년 기준 총 2개의 스카이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2017. 06. 17
대신금융그룹 패밀리데이(증권 대표이사 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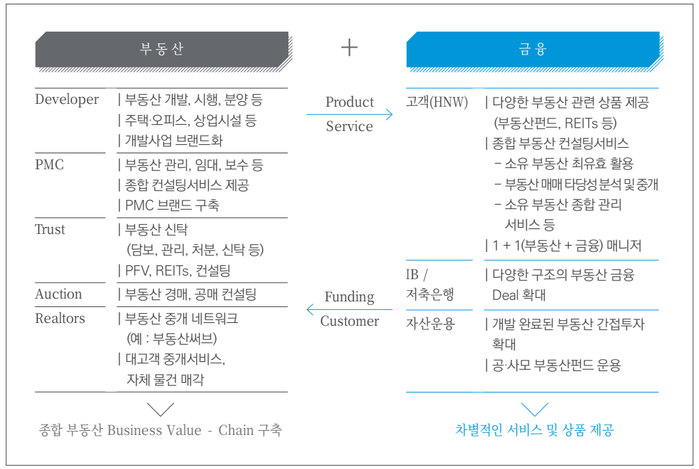
2017. 06. 17
대신금융그룹 패밀리데이

4절 계열사의 고른 성장과 역량 발휘

부동산 사업으로의 본격적인 영역 확장

대신금융그룹은 새로운 사업 영역의 한 축을 부동산으로 정하고, 그에 맞는 체질 개선을 이루어갔다. 대신금융그룹이 증권업의 외형적 확대가 아닌, 새로운 사업인 부동산부문으로 확장을 결정한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었다. 무엇보다 부동산은 고객의 관심이 가장 높은 사업 부문이었다. 게다가 국내시장 상황과도 잘 맞았다.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의 시대적 상황에서 부동산은 시장 상황과 정부정책까지 우호적인 산업이었다. 기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와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해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했다. 대신금융그룹에 있어서 부동산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가 아닌, 익숙하면서도 대신이 잘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사업성이 충분하고, 적절한 리스크 통제가 가능한 영역이기도 했다. 대신금융그룹은 부동산과 금융을 조화롭게 영위할 방안을 모색해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했는데 2016년 5월 발표한 그룹의 미래전략 방향의 큰 그림은 다음과 같았다.

대신금융그룹의 미래전략 방향



한남동 개발 프로젝트의 시작

대신금융그룹은 다른 증권사들이 앞다투어 외형 확장에 집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내실 경영을 고수하며 그룹의 체질 개선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계열사 간 사업 다각화에 성공하며 그룹 내 핵심 계열사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게 되었다. 대신증권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11년 0.2%에서 2015년 9.2%로 높아졌다.

2014년 5월 우리F&I 인수를 통해 탄생한 대신에프앤아이는 더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 출범 당시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직후 매년 그룹 내 핵심 수익원 역할을 해온 대신에프앤아이는 2016년 세전이익 기준 반기 실적은 634억 원으로 2015년 같은 기간보다 127%나 늘었다. 2016년 대신에프앤아이는 외국계 투자자들이 주를 이루던 부실채권 시장의 국내 1호 기업으로 그룹 내 최고 수익을 내는 알짜 자회사로 발돋움했다.

대신금융그룹은 대신에프앤아이의 부동산 경험과 대신증권의 금융노하우의 융합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했다. 그 과정에서 매물로 나온 한남동 외인주택 부지를 첫 사업으로 낙점했다. 주거지로서의 최상위 입지에 따른 향후 자산 가치 상승을 예상했던 것이다. 특히 그룹 차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는 대신금융그룹의 다양한 사업 경험이 자신감으로 작용했다.

대신증권은 다양한 부동산 PF 금융주관 경험을 보유했고, 대신에프앤아이는 다양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고, 가치를 창출해내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대신파이낸스센터를 자체 개발한 경험을 통해 증권의 시행능력은 이미 검증된 바 있었다. 자금여력에 있어서도 대신에프앤아이는 약 5,000억 원의 가용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매각 확정된 NPL을 통해 유동성 자금도 풍부한 편이었다. 여기에 대신증권의 PF 금융주관 경험을 토대로 한 자금 조달도 가능했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 끝에 대신에프앤아이는 기존 NPL 투자에 더해 부동산 관련 투자 등 신규 수익원 창출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했다.

용산구 한남대로 91 일원 6만 677㎡. 매각 대상은 대지, 전임야 30필지, 아파트 10개동, 부속동, 구축물, 수목 등이었다. 최초 매각 가격은 6,131억 원이었고 입찰신청에서 계약체결까지 포함한 일정은 2016년 5월 2일부터 10일까지였다.

"서울의 중심에 얼마 남지 않은 탁월한 입지였기에 많은 개발업자와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고도제한 등의 문제는 사업성에서 의문을 갖게 했지요. 아파트를 높이 지어

대단위 세대가 사는 단지로 짓기를 원하는 경우, 한남동 외인주택부지는 적합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이때까지 없던 최고급 주거단지로 만든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대신금융그룹은 차별화 전략을 선택했고, 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 김송규 프라퍼티 대표이사(現 자산신탁 대표이사)

대신금융그룹의 단독입찰로 대신에프앤아이가 2016년 5월 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개 매각한 한남동 외국인아파트 부지 6만 677㎡(약 1만 8,355평)을 6,242억 원에 낙찰 받았다.

대신에프앤아이가 한남동 외국인아파트 부지를 매입한 이유는 서울에서도 핵심 위치에 있는 이 부지를 명품주거단지로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대신에프앤아이와 대신증권은 국내 최고가 주거단지인 '한남더힐'의 금융자문과 투자경험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기에 금융과 부동산의 새로운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었다.

나인원한남 건설 과정

대신금융그룹은 한남동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대신에프앤아이 자회사로 2016년 7월 20일 디에스한남(現 대신프라퍼티)을 설립했다.

한편, 2016년 10월 6일 대신에프앤아이는 국내 최고 연구진과 파트너사인 HB Advisors와 함께 주주로 참여한 Joint Venture 형태의 탠덤을 설립하였다. 탠덤은 바이오와 헬스케어 관련 창업자, 벤처기업과 제반산업 투자, 관련 벤처기업 발굴과 지원, 신기술 개발, 기술용역업, 기술컨설팅업과 바이오 및 헬스케어 관련 연구소 설립 및 운영, 관련 기업에 대한 인수, 합병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탠덤은 설립 이후 새로운 사업 영역에 도전하며, 개척해왔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없는 특성이 있지만, 그룹의 지원과 협업을 기반으로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득원 탠덤 대표이사

대신저축은행의 지속적인 성장

대신저축은행은 2015년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부산지역에서 3일간 '랩핑버스 홍보 및 영업점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캠페인은 부산지역 연합 가두캠페인으로 주요 지역 순환 주행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60분 동안 해운대센텀역, 하단역, 서면역의 노선도를 따라서 버스 홍보가 이루어졌다. 이 캠페인에서는 대신신용대출, 햇살론, 모아론 등의 전 단지와 물티슈를 배포했다. 부산지역 3개 지점이 함께한 가두캠페인으로, 부산지역 단합을 느끼며 열정적으로 홍보를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랩핑버스에 이목이 집중되어 대신저축은행 인지도를 높이기에 충분했다.

가두캠페인 효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라 추후 좋은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 기대하면서 모든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부산지역의 다른 저축은행에서 문의 전화가 오기도 했고, 고객들의 반응도 좋았다. 이 캠페인은 고객들에게 대신저축은행을 알리는 효과는 물론, 내부 임직원들에게도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대신저축은행은 2015년 2월 13일 대신저축은행 춘천지점에서 강원상인연합회와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당시 오익근 저축은행 대표와 서상건 강원상인연합회장은 대신저축은행과 지역 상인들의 동반성장을 위한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과 강원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강원지역 상권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신저축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대출상품으로 '대신해드림론'과 '대신모아론'을 선보였다.

한편, 대신저축은행은 2015년 8월 최고의 IT기술력을 보유한 대신증권과 함께 공동개발, 여·수신 통합앱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저축은행 거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보안 기술 안정성에 집중, 고객흡인력과 차별화된 디자인 등에 있어 앱의 완성도를 높였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전화나 영업점 방문 없이 앱을 통해 대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대신증권 고객은 대신스탁론(주식매입자금대출)도 앱을 통해 가능해졌다.

당시 기존의 저축은행 앱은 대출만 제공하고, 예적금 메뉴는 없는 반쪽짜리 앱으로만 그쳤던 반면 대신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 견주어도 손색없을 만큼의 다양한 뱅킹서비스도 앱에서 제공했다. 대신저축은행 '스마트뱅크'는 편의성을 높이고 고객 맞춤형 대출상품을 추천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기본 기능에 충실하고 개인 자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조회 서비스, 계좌관리 기능 등을 제공한 점에서 주목받았다. 타 저축은행들은 자사만의 UI, UX를 지닌 앱을 보유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 데에 비해 대신저축은행 스마트뱅크는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나

2015. 01. 12~14
대신저축은행 랩핑버스 홍보 및 영업점 가두캠페인

2015. 02. 13
대신저축은행-강원상인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2015. 07. 31
대신저축은행 스탁론서비스

타낸 독자 앱을 제공하며,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과 메뉴구성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고객지원과 모바일 사용자 우대 혜택 등의 서비스를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등 SNS를 통한 홍보를 잘 활용하고 있는 점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신저축은행은 한경미디어그룹이 시행하고 전국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가 후원하는 '2015 제1회 대한민국 스마트뱅킹 어워드'에서 저축은행부문 2015년의 최고 금융앱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기념해 2015년 12월 14일부터 '모바일 Big Festival' 고객감사 이벤트를 진행했다. 대신저축은행 스마트뱅크 어플리케이션에서 신규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첫 달 무이자 혜택을 제공했다.

2015년 12월 29일에는 P2PPeer to Peer, 개인과 개인 대출 및 부동산담보대출 전문 스타트업인 투게더앱스www.together.co.kr와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에 대한 사업제휴를 체결했다. P2P대출은 투자자들을 모집해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대출할 수 있게 이어주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대신저축은행은 이 사업제휴를 통해 투게더앱스 투자자들의 투자금 관리계좌 수탁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부동산 리스크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다양한 제휴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핀테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도 마련한 것이다. 대신저축은행은 투자금 중도반환신청 등 차별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갔다.

출범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대신저축은행의 2016년 반기 실적세전이익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538%나 급증했다. 특히 여신액이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성장세를 지속했다.

2015. 12. 29
대신저축은행, HJ인베스트먼트, 투게더앱스와 전략적 사업제휴 체결

대신자산운용의 차별화된 경쟁력

대신자산운용은 2015년 주식운용본부 내에 있던 리서치팀을 리서치본부로 격상시켜 더욱 정확한 시장 분석을 통해 꾸준한 알파 수익을 창출해 나갔다. 또한 리서치본부 신설과 함께 전문가 영입으로 주식형펀드의 명가로 재도약하기 위해 2015년 전략 목표를 'BRAND POWER 개선'으로 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식운용의 질적 개선을 통한 수탁고 증대와 조직 및 글로벌부문 역량강화에 집중했다.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 개선은 수탁고 증대에 자연히 연동되었고, 컨슈머펀드, RQFII 등 관련 상품의 신규 출시로 대외 이미지 제고 및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대신자산운용은 가장 큰 경쟁력인 시장에 대한 명확한 분석능력을 갖춘 '인재' 중심의 경영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 2016년도에는 장기간 최상위 운용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인덱스형 상품으로 기관 투자자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져 1,125억 원의 추가 유치 성과를 이루었다. 저금리 시대에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공모주 투자 관련 펀드를 통하여 고객에게 안정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한 결과, 2015년 수탁고 1,200억 원에서 2016년은 1,700억 원으로 500억 원42% 증가했다.

의미 있는 평가와 수상

시장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구조 및 기초자산의 상품을 개발하는데 앞장서 온 대신증권은 2015년 3월 24일 KOSDA파생시장협의회가 주최하는 제10회 KOSDA 어워즈에서 '삼성 ELS 인덱스펀드' 설계 및 운용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 파생금융상품상Deal of the Year을 삼성자산운용, 한국자산평가와 공동수상 했다.

대신증권은 상품의 출시 이전부터 ELS 지수 및 장외시장구조 설계 참여, 유동성 공급자 섭외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펀드의 유동성공급자로 펀드에 참여해 인덱스를 구성하는 ELS에 호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체결의 주거래 상대방으로 상품에 참여했다.

'삼성 ELS 인덱스펀드'는 대신증권, 삼성자산운용, 한국자산평가의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 개별 ELS에 대해 대신증권이 복수의 증권사로부터 경쟁호가를 받아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투자하는 적립식상품으로 가격투명성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KOSDA 어워즈'는 매년 국내 파생상품시장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상품을 선정해 상을 수여한다. 국내 파생상품시장 관계자들의 설문을 통해 1차 후보군을 선정하고 금융전문가들의 심사로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이 수상은 ELS의 지수화 등 새로운 시도가 우수한 상품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2015. 03. 24
KOSDA 어워즈 최우수 파생금융상품상 수상

한 해를 정리하고 금융투자업계 선도자를 가리는 '제5회 올해의 마켓리더 대상'에서 대신증권은 2015년 영예의 마켓리더 대상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

대신증권은 2016년 2월 5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15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Primary Dealer 평가에서 종합 1위에 선정되었다. 우수 국고채전문딜러 평가는 지난 1999년 국채 발행시장에서 원활한 인수 및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6개월간 국고채 인수, 호가제출, 보유, 거래, 정책협조 등 의무이행실적을 반영한다.

우수 국고채전문딜러에 선정되면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국고채 인수 등에 관해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 받는다. 매월 경쟁입찰 인수금액의 20%를 비경쟁 인수권한으로 받을 수 있으며, 국고 여유자금을 저금리에 지원 받는 등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우수 국고채딜러 평가 1위를 통해 채권운용 업계에서 대신증권의 신인도가 올라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 1호' 주식 시세전광판 역사 속으로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홈트레이딩과 모바일트레이딩이 활성화되고, 주식투자에서 자산관리로 증권업계의 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영업점 내방고객들의 수는 대폭 감소했다.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대부분의 증권사는 시세전광판을 철수했다.

대신증권의 여의도 본사 영업부에 설치된 주식 시세전광판은 '국내 1호'라는 상징성, 고령투자자의 투자편의성, 언론취재용 공간으로서의 가치 때문에 명맥이 유지되었으나, 2016년 12월 명동으로 본사를 이전하게 되면서 고민 끝에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다.

2016년 12월 23일 오전 10시 상주고객들과 시세전광판의 마지막을 기념하는 사은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당시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가 영업부 내 상주고객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연말 강세장을 기원하면서 납회식 때 진행해 오던 주문표 세리머니를 가졌다.

대신증권 본사 영업부에 설치된 주식 시세전광판은 지난 1979년 업계 최초로 설치되고, 2016년 12월까지 가장 오래 운영된 시세전광판으로 기록되었다.

한편, 마지막까지 운영되었던 시세전광판은 그 부품들을 재활용해 대신증권의 창립년도를 의미하는 '1962'를 숫자로 표현한 예술품으로 새롭게 탄생해 현재 명동 Daishin343의 3층 벽 한 면을 장식하고 있다.

2016. 12. 23
시세전광판 운영 종료 세레머니

Daishin Financial Group
60년사

4장. 대신파이낸스센터, 명동시대의 개막

2017 —— —— 2018

STORY
2022

공간의 변화가 가져온 모두의 성장

성동극장에서 중앙극장까지

새로운 명동 시대를 연 'Daishin343[1]'은 대신 60년 역사에서 세 번째 사옥이지만, 온전히 대신이 소유한 건물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다. 1976년 마련한 첫 사옥 명동국립극장은 대한투자금융과 공동 출자해 함께 사용했고, 1985년에 준공한 여의도 사옥은 내부는 분리되었지만, 겉으로 보면 신영증권과 하나의 건물이었으니 말이다.

Daishin343에서 명동성당 저편의 풍경을 보고 있으면 어쩐지 과거와 현재, 미래가 겹겹이 포개져 보인다. Daishin343과 40년의 시간을 초월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첫 사옥 명동국립극장은 명동예술극장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파란만장한 우리 근현대사와 숱한 도시화 과정을 거친 서울 명동 한복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이로운 일이다. 여기에는 숨은 이야기가 있다.

1975년 대신증권의 첫 자가사옥인 명동국립극장이 공매에 나왔을 때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양재봉 창업자는 예상가보다 한참 높은 21억 1,100만 원을 써넣었다. 다른 경쟁자들은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높은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거비와 건축비를 고려해서 낮은 입찰가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양

1 2017년 명동사옥이 준공되면서 사옥 명칭이 '대신파이낸스센터'로 명명되었고, 2022년 6월 대신파이낸셜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Daishin343'으로 개명되었음.

재봉 창업자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국립극장 건물은 그대로 두고, 내부만 사무용으로 개조해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들과 원가 개념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명동국립극장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덕분에 현재 서울의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현재의 Daishin343이 지어진 자리는 원래 중앙극장이 있었다. 이 극장이 명동 중심 골목의 시작이었기에 '명동 중앙통'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명동국립극장에 이어 중앙극장까지 사옥의 터가 된 것을 보면 아무래도 대신파이낸셜그룹은 극장과 인연이 깊은 모양이다. 사실 극장과 얽힌 사연은 더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대신증권의 창업과도 닿아 있다.

"고향에서 양조사업의 실패로 주조장酒造場은 물론 집까지 팔아 빚을 갚을 정도로 큰 실패를 겪었던 내가 재기에 성공해 대신증권을 창업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게 해준 것은 바로 극장업이었다."

—
양재봉 창업자의 자서전 〈더불어 사는 인생〉 중에서

5·16쿠데타 직후 유일한 오락거리가 영화 구경이었던 당시 극장업은 상당한 호황을 누렸다. 양재봉 창업자는 서울로 올라와서 친구와 함께 극장업 허가를 얻은 뒤 신당동 중앙시장 내에 있는 창고를 개축해 성동극장이란 간판을 걸고 처음으로 극장업을 시작했다. 극장은 문을 열자 연일 몰려드는 관객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성동극장이 성공하자 마포 대흥동에 대흥극장, 상도동에 강남극장을 연달아 열었다.

극장업과 금융은 의미 있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바로 고객이다. 관람하는 사람이 없는 공연예술은 의미가 없다. 대신파이낸셜그룹의 최고 가치가 언제나 '고객'에게 있는 것처럼.

꿈의 도서관

"우와, 엄마 회사에는 우리 학교보다 책이 더 많아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호그와트 같아."

'더라이브러리the Library'를 방문한 아이들의 눈이 반짝거린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었을 공간. 햇빛이 잘 들어오는 커다란 통유리창. 높은 층고와 벽을 가득 채운 책들이 풍기는 것은 무한한 상상의 세계이다. 주말을 맞아 모처럼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회사 구경을 시켜주는 대신 임직원들의 얼굴이 환하다.

2009년 여의도 시절, 본사의 지하에 대신가족을 위해 처음 문을 열었던 도서관 '더라이브러리'는 명동 'Daishin343'에서 확장된 형태로 진화했다. 이제 독서 문화는 대신 고유의 기업문화이자, 무형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 인문학에서 고전에 이르기까지 2만여 권의 장서를 갖춘 도서관은 대신 임직원들이 누리는 최고의 복지이다.

명동으로 이사를 오고 난 뒤 대신 직원들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회사를 자랑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은 회사. 첨단의 기능은 물론, 대신의 일하는 문화에 딱 맞춰진 동선 설계와 인테리어까지 갖추어진 이 공간에 대한 임직원들의 애정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우리 회사 멋있지요? 출근길에 남산 터널을 나오자마자 바로 우리 회사가 보이는데, 매일 보아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김범철 증권 경영전략총괄 부사장의 휴대폰에는 직접 촬영한 'Daishin343'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런가 하면 새벽 첫차를 타고 출근하는 김성균 증권 비서실장의 휴대폰에는 회사 안에서 같은 시간에 찍은 바깥 풍경이 매일 저장된다. 눈이 오는 날, 하늘이 맑은 날, 흐린 날 명동 풍경이 기록되고 있다. 'Daishin343'은 이제 직원들의 휴대폰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저장되는 '작품'이다.

이런 동료들을 보면서 유독 뿌듯한 사람들이 있다. 건물의 콘셉트부터 직원들이 사용할 의자 하나까지 세심하게 준비한 사람들.

신사옥 건립이 결정되자마자, 신축 업무 관련부서들은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거쳤다. 과연 대신이 지향하는 미래전략에 맞는 사무 환경은 어떠해야 할까? 겉모습은 어떻게 형상화해야 대신의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브랜드전략실, 인프라서비스부, 인사부까지 전체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기획부터 완성단계까지 함께 조율하며 협업을 해나갔다.

당시 유혜령 증권 인프라서비스부 팀장과 홍승정 증권 브랜드전략실 대리는 2015년 12월 네덜란드로 출장을 떠났다. 암스테르담, 아르헴의 시립도서관, 스파이크니즈의 시립도서관, 마스트리흐트의 도미니카넨 성당의 서점까지 건축과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기로 유명한 도서관과 서점을 꼼꼼하게 둘러보았다.

"라운지의 코어계단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 벽체를 한바퀴 둘러 7.4m 전체 높이를 라이브러리로 구성했는데, 이는 오랜 시간 축적된 대신인의 지식, 전문성을 표현하는 로비층의 메인 디자인 콘셉트입니다. 2만여 권의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는 국내뿐 아니라, 네덜란드 현장 사례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가구디자인, 자재, 흡음시스템 등을 연구하고 디테일을 보완했습니다."

—
홍승정 프라퍼티 건축기술본부 수석

공간의 변화, 생각의 변화

설계 단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직원들을 중심에 두고 고민하고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공간의 변화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멋진 기적을 일으켰다.

2017년 대신의 모든 계열사는 흑자를 기록했다. 자산운용이 만든 하임펀드는 목표 금액을 초과 달성했고, 금융과 부동산을 접목한 나인원한남도 좋은 결실을 거두었다. 금융 IT부문에서도 그룹 역량은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대신증권과 대신경제연구소가 함께 참여하여 개발한 대신로보어드바이저는 2017년 5월 금융위-코스콤이 주관한 로보 테스트베드에 최종 통과했고, 이후 대신자산운용은 테스트베드 로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로보어드바이저펀드를 출시했다. 이처럼 사업의 전 부문에 걸쳐서 대신만의 수익모델을 찾아내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많은 대신인들은 공간의 힘이라고 말한다. 단독으로 땅을 구입해 대신의 철학을 담아 지어올린 'Daishin343'은 대신 임직원 모두의 역량이 합쳐져 탄생한 아름다운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 건물 안에서 대신파이낸셜그룹은 진정한 상생의 꽃을 피워내고 있는 것이다.

"Daishin343 공간을 디자인하는 작업은 기업문화를 디자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직원들의 책상을 배치하고, 칸막이를 없애는 등의 모든 과정이 대신의 일 문화를 디자인하고, 실행되게 하는 것이니까요. 건물 자체로 볼 때도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게 디자인하면서도 그룹의 정체성을 또렷하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직원들이 가족에게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자부심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을 했다는 점입니다."

—
김봉찬 증권 브랜드전략실장

Daishin343에는 그룹의 모든 계열사들이 모였다. 사무 공간은 다르지만 라운지와 카페, 도서관, 회의실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같은 꿈을 꾸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룹이 한 곳에 모이면서 얻은 결실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그룹의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성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함께 했을 때 시너지를 크게 창출할 수 있는 회사로 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은 매우 큰 성과이다.

두 번째 성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가장 큰 보람은 공간이 변한 만큼 직원들도 많이 변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목표를 향해 회사가 나아갈 때 그 일이 되지 않는 핑계를 찾는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일을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고심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간이 준 변화라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새롭고 높은 건물, 그 이상의 큰 꿈을 꾸는 사고의 변화, 협업을 통한 체질의 변화, 미래를 향한 비전을 추구하는 것이 여실하게 느껴집니다."

—
김수창 증권 경영지원부문장

1절 새로운 명동시대의 개막과 그 의미

대신파이낸스센터 신축

대신금융그룹의 여의도 본사 사옥의 매각은 2013년 12월 9일에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 1985년부터 대신가족의 터전이 되었던 여의도 본사 건물을 신영증권에 800억 원에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여의도 증권센터 건립계획의 백지화로 인해 자체적으로 사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간의 최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대신증권의 소유 대지 2,401㎡와 인접해 있던 신영증권 소유분인 1,200㎡를 합하여 내부 설계는 달리하되 외형상은 한 건물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 이렇게 32년 동안 한 지붕 두 살림을 해오다가 대신금융그룹이 고향과 같은 '명동'에 신사옥 건립을 결정함에 따라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게 된 것이었다.

여의도 사옥 매각과 관련한 양해각서는 2013년 10월 10일에 체결했으며, 이후 같은 해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실사 과정을 거쳐 12월 20일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로부터 석 달 뒤인 2014년 3월 27일에 열린 임시이사회에서는 대신금융그룹의 새로운 본사 사옥의 신축을 결정하고, 2014년 4월 21일 착공식을 가졌다. 대신파이낸스센터의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대신파이낸스센터(現 Daishin343) 전경

2017. 01. 02
대신파이낸스센터 준공식

2017. 03. 29
'대신증권 3.0 명동에서 시작합니다' 이벤트 시상식

큐브모양 사옥 외관

2015년 9월 14일에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본사 사옥 신축계획을 지상 25층에서 지상 26층으로 변경함에 따라 대신파이낸스센터는 지하 7층 ~ 지상 26층, 연면적 5만 3,328㎡로 건축되었다.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에 새롭게 지어진 대신파이낸스센터는 네모반듯하게 벽돌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건축되었다. 이러한 건물 외관은 대신금융그룹의 핵심가치인 '신뢰'를 고객에게 쌓아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2017년 1월 2일, 이어룡 대신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대표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신파이낸스센터 준공식이 열렸다. 32년간의 여의도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명동 시대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였다. 대신파이낸스센터는 대신증권의 첫 사옥이었던 명동예술극장과 지척에 건립되었다.

대신파이낸스센터의 3~6층은 증권과 저축은행의 영업부와 로비로 이용되었다. 특히 로비는 두 개 층에 걸쳐 2만여 권을 수용할 수 있는 도서관과 대강당, 카페테리아로 이용되었으며, 일반인들에게도 일부 개방했다. 지상 17층부터 26층까지 대신금융그룹이 사용하고, 7층부터 16층까지는 임대했다.

한편, 대신증권은 32년만의 명동 복귀를 기념해 총 1억 원 규모의 대고객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 이벤트에는 대신증권의 기존 고객은 물론, 입금, 주식매매, 펀드매수 등 대신증권을 통해 금융거래를 한 신규 고객도 참여했다.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준비한 이벤트는 총 1만 1,222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2017년 3월 30일,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이어룡 대신금융그룹 회장,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신증권 3.0 명동에서 시작합니다' 이벤트의 시상식을 개최했다. 1등은 BMW 320D 승용차를 경품으로 받았고, 2등에게는 10돈 상당의 순금 황소상을 경품으로 증정했다.

기업철학을 구현한 건물 디자인

사옥 파사드외관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도 개성이 있는 파사드 디자인을 위해, 단순한 로직으로 된 다양한 디자인을 연구했다. 역사가 있는 금융기업으로서 신뢰, 경험을 쌓아온 기업 이미지를 건축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구축방식인 '돌, 벽돌, 블록을 쌓는다'는 개념으로 큐브CUBE로 치환된 유닛UNIT을 쌓아 올린 모습을 형상화했다. 맞은편에 위치한 명동성당 등 지역의 역사성을 가진 건축물의 축조방식을 디자인 모티브로 삼았다. 명동성당의 외피재료인 벽돌의 현대적 해석으로 벽돌을 쌓아 올린 듯한 형상의 외관을 구현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된 저층부는 투명한 외피로 계획하여 물리적 시각적 개방감을 높였다. 상층부의 돌출된 정방형의 창은 남산과 명동성당의 풍경을 담을 수 있는 액자로서 역할을 하게 통창으로 두고, 환기를 위한 창호는 별도로 계획했다. 프랑스의 파사드 전문 디자인 회사의 디테일한 시공 컨설팅을 통해 한국에 없던 독특한 창호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했다.

LOVE 조형물 대신증권은 새 사옥을 건축하면서 명동이 지닌 역사적·사회적 배경과 의미, 인근 명동성당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로버트 인디애나의 '러브' 조형물을 구매해 건물 외부에 설치했다. 뉴욕 '러브'와 같은 빨강-파랑 조합 버전은 구매 가능한 에디션이 없어 그와 가장 유사한 파랑-빨강 조합을 선택했다. 최초 협의부터 계약, 제작, 운송과 설치까지 1년이 걸렸다. LOVE 에디션 중 가장 큰 크기인 366×366×183cm이다.

또한 '마망Maman'이라는 거대한 거미 조각 작품으로 유명한 루이즈 부르주아의 '아이벤치' Eye Bench, 1996~1997와 김병종 화백의 회화 작품 '카리브·어락Ⅱ'2008도 여의도 사옥에서 명동 본사로 옮겨왔다.

로비/강당1,5,6F 도시와 일체화되는 유기적 관계 설정을 위해 1층 로비를 공공에 개방하고 메인 로비를 5층에 만들었다. 리셉션, 카페, 라운지, 강당, 회의실, 더라이브러리, 갤러리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명동성당의 전경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5층 바닥 레벨을 명동성당 대성당의 레벨과 동일하게 했다. 7.4m의 2개 층 높이의 층고를 그대로 살리고 벽체를 최소화하여, 넓고 높은 공간감으로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강당은 전자동 가변형 벽체를 이용한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필요시에는 가벽을 설치하여 최대 220석의 세미나가 가능하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벽체를 숨겨서 계단식 좌석의 라운지로 활용된다. 극장식 좌석이 아닌 계단식 랜드스케이프 디자인을 위해, 가구회사와 함께 접이식 강당의자를 개발했고, 7번의 실제 목업을 통해 결정하여 적용하고 디자인 특허를 취득했다. 라운지 가구는 이동 가능한 가구로 구성하여, 다양한 목적에 변형 배치하여 활용될 수 있게 했다.

더라이브러리, 갤러리5,6F 더라이브러리는 엘리베이터 코어벽체를 한바퀴 둘러 2개 층 전체높이로 구성되어 있고 리셉션, 라운지, 회의실, 강당 등 모든 공간에 걸쳐있다. 오랜 시간 축적된 대신

명동성당 풍경을 담은 액자형 창호

LOVE 조형물

1층 로비 | 5층 강당

인의 지식, 전문성을 표현하는 로비층의 메인디자인 콘셉트이다. 2만여 권의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이 도서관은 다수의 국내 사례조사뿐 아니라, 네덜란드 현장 사례조사를 통해 배치, 가구 디자인, 흡음시스템 등을 연구하여 디테일을 보완 적용했다.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는 6층 홀은 소규모 갤러리로 구성해 책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했다.

또한 직원들의 복지 차원으로 도서관이 있는 5층 로비에서 'Cafe343'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 바리스타가 상주하며 품질이 좋은 커피를 비롯한 다양한 음료와 스낵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Cafe343은 환경을 위해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 오피스 구현

대신금융그룹은 스마트 오피스 구축을 위해 대신파이낸스센터 신축 전부터 세밀한 조사를 선행했다. 먼저 금융업이라는 업종과 구성원이 일하는 스타일, 그룹의 기업문화를 파악했다. 그리고 새로운 신축 공간의 효율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32년 동안 대신금융그룹의 터전이 되었던 여의도 사옥의 사무실 공간을 부서 특성과 면적, 기능별로 분석했다.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조직별, 직원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성격,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 상관관계, 문서와 물품의 양, 회의 빈도와 성격 등도 조사했다.

"공간과 업무 효율의 극대화, 소통을 통한 창의적인 일터문화 조성, 그리고 스마트한 오피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 대신금융그룹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 이홍훈 증권 인프라서비스부장(現 자산신탁 신탁사업1부문장)

회의실 예약시스템, 좌석제, 사물함, RFID 사원증, 시스템월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민과 연구 끝에 탄생한 사무 공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회의실3,5,6F 저층부에 공용회의실을 집약했다. 외부인의 사무실 출입을 금지해 업무층 보안을 강화하고, 각층 회의실의 숫자를 축소하여 업무공간을 확보했다. 공용회의실은 온·오프라인 예약시스템과 사원증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여 효율화를 꾀했다.

좌석제업무층 사무실의 자율 좌석제 관련하여 많은 토의와 고민 끝에, 금융사로서 보안시스템과 고정 좌석이 주는 직원 개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고려해 고정 좌석제로 결정했다.

좌석배치 및 가구 사옥 이전을 통해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수평적 조직문화를 목표로 삼았다. 임원실과 회의실을 모듈화해 사옥 동서측에 후면 배치해서 중앙부는 최대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했다. 사무가구책상의 가로세로 비율을 조정해 주문제작하여 직급의 차이가 주는 위계를 최소화하면서 가구배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파티션을 최소화하여 낮게 설치했다. 직원들이 업무시간 대부분을 보내는 의자는 여러 브랜드의 샘플링을 통해 가장 신중하게 선택했다. 평균 업무시간이 긴 IT기업들에서 선택한 의자 위주로 고민했다. 사계절 사용에 적합한 혁신적인 메쉬 소재로 통풍이 잘되고, 정교한 서스펜션 장치로 하중을 고루 분산시켜 편안함을 주는 인체공학적 설계의 허먼밀러사의 에어론 체어로 최종 결정했다.

사물함업무층 엘리베이터 홀 옆, 화장실 앞 복도에 사물함을 설치했다. 양치도구 등 위생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소형 사물함, 외근이 잦은 직원을 위해 노트북을 보관할 수 있는 대형사물함으로 구성했다. 상단부가 열린 사물함 도어 디자인으로 환기가 가능하게 하고, 사원증 인증방식으로 보안을 강화했다.

복합기업무층 업무층에는 100여 명이 넘는 직원과 다양한 조직이 섞여 근무하고 한정된 OA는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을 고려했다. 논의 끝에 사원증으로 실행되는 복합기 시스템을 구축했다.

RFID 사원증 게이트 출입, 회의실 예약, 복합기 실행, 라이브러리 도서 대출, 카페이용최근 변경됨 등 보안과 스마트한 근무환경을 위한 시스템이다. 대신금융그룹은 2018년 2월 9일, 카드형태로 제작된 일반적인 보안용도 사원증에 배지 등 실용적인 기능을 추가 개선한 사원증 기술의 특허를

공용 회의실

사무공간

엘리베이터 홀 옆에 설치된 사물함

RFID 사원증

1건 등록했다. 신규 특허 출원한 사원증 'ID:B'는 앞면은 기업 이미지를 대표하는 심볼마크를, 뒷면에는 임직원 사진을 배치했다. 양면 사용이 가능한 정사각형 집게형태로 제작된 사원증은 자켓, 지갑, 가방 등에 배지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무게는 10g 미만으로 가볍고 크기는 일반카드의 1/5 수준에 불과해 휴대가 용이하다. 또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제작되어 외부 충격에도 강하다. 목걸이 줄은 실리콘으로 제작되어 부드러우면서도 탄성이 뛰어나다. 사원증은 보안용도 이외에 카페 결제, 라이브러리 도서 대여, 비즈니스센터 예약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사원증은 단순한 출입증 개념이 아닌 대신금융그룹의 기업문화 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정체성의 하나라는 생각에서 실용성을 살리되 디자인의 본질을 지킴으로써 항상 착용하고 싶은 사원증을 만들었다.

시스템월업무층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조직구성으로 인한 공간 레이아웃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무실 전층에 시스템월을 적용했다. 해체 및 재설치를 통한 위치변경과 재활용이 용이한, 비용까지 고려한 설계를 진행했다.

바닥공조시스템전층 책상 이동 등 업무공간 변화에 수반하는 각종 라인전원, 네트워크, 전화 등의 케이블을 처리하기 위한 이중 바닥구조액세스 플로어의 필요 높이를 더 높여 급기 공간을 확보했다. 바닥공조시스템은 재실자와 가까운 바닥에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오염물질은 천장으로 이동해 환기효율을 높임으로써 천장공조보다 공기질을 좋게 하여 업무환경이 개선되었다.

금융과 문화의 복합공간

대신파이낸스센터는 금융과 문화가 조화를 이룬 복합문화공간을 표방한다. 대신금융그룹의 핵심 가치인 고객중심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전시와 포럼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2017년 3월에는 '시간을 담는 작가'로 유명한 독일의 사진작가 마이클 웨슬리의 작품을 대신파이낸스센터 6층에 위치한 갤러리343GALLERY343에 전시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나무', '사막' 시리즈로 잘 알려진 이명호 작가의 사진전을 열었다. '달항아리'로 잘 알려진 최영욱 작가의 회화전도 이어졌다.

2018년 3월 6일에는 4번째 전시회로 탈과 백자 등 전통문화를 소재로 동양적인 아름다움과 여백의 미를 현대화해 표현한 구본창 작가의 흑백 사진전을 전시했다. 같은 해 9월에는 한국 현대미술의 대표 작가 김종학 화백의 작품도 전시되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이 상설 전시되고 있다.

유명 셀럽들을 초대해 그들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인 '대신 크리에이티브 포럼'

2018. 03. 06
구본창 작가 흑백 사진전

2017. 02. 04
대신 크리에이티브 포럼

도 진행했다. 2017년 2월 4일 '대신 크리에이티브 포럼'DAISHIN Creative Forum: Brand X Design을 최초로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포럼에는 '우아한형제들'의 한명수 디렉터와 패션브랜드 '로우로우'의 이의현 대표, '플러스엑스'의 신명섭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했다.

좋은 디자인은 환경을 향한다, 에코백 프로젝트

2017년 9월부터 대신증권은 금융투자업계 최초로 영업점과 본사에서 사용하던 모든 쇼핑백을 에코백으로 바꾸는 에코백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는 회사의 브랜드전략과 '환경'이라는 가치를 함께 강조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일환이었다.

저렴한 완제품 에코백을 간편하게 선택하는 대신 재활용 소재를 직접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했다. 일반적인 에코백 소재인 광목원단 사용대신 폐기되는 자투리 원단에서 소재를 고르고 제품 봉제는 중소기업에 맡겨 '환경'과 '상생'이라는 개념을 회사의 친환경 활동에 녹여냈다. 그동안 유통, 제조업체 등에서 에코백을 보급한 사례는 있었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 회사 쇼핑백을 전면 교체한 것은 대신증권이 처음이다. 덕분에 쓰레기는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제작 공정이 늘어나면 자연히 증가하는 환경오염도 역시 줄어든 셈이다.

단순 기념의 의미가 아닌, 실제로 사용하고픈 에코백이 되기 위해서는 세련된 디자인이 필수였다. 대신증권의 로고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기업철학과 투자자 워렌버핏의 명언을 새겼다.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개념, 이용자와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에서 디자인을 활용했다.

자투리 원단을 이용해 만든 에코백

대신증권이 추구하는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 아래 실천하는 디자인과 차별화된 브랜드전략'으로 고객과의 접점을 만드는 것이 에코백 프로젝트에 함축적으로 드러나 있다. 굿즈를 통해서 일상에 금융이 가깝다는 것을 전달해낸 것이다. 어렵게 여겨질 수 있는 '투자'라는 개념, 증권사가 고객과 더욱 친근하게 접점을 늘릴 수 있는 수단으로써 굿즈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좋은 예이다.

2절 그룹 역량의 융합과 차별화된 경쟁력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2017년 1월, 이어룡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그룹 임직원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 고객가치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행동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대신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해주기를 강조했다. 셋째, 그룹 계열사 간의 융합을 통해,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을 당부했다.

새롭게 시작한 명동 시대, 흩어져 있던 계열사가 한 건물로 모인 만큼 한 몸처럼 시너지를

2017. 01. 02
시무식

내야 한다는 의미였다. 단순히 한 공간에서의 근무를 넘어 사업부문 간 융복합을 통해 미래 대신을 이끌어 갈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새롭게 다진 대신금융그룹은 하임펀드,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벤자민, 나인원한남 분양 등 금융과 부동산, IT부문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공간 내에서 다양한 성과를 꽃피워 나갔다.

2018년 대신금융그룹은 '차별성 확보Unique'와 '최적화 구현Fitness'이라는 전략 목표를 세웠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차별성 확보'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장을 거듭하기 위해 대신만의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투자, 상품화, 판매, 운용 등 각 분야에서 그룹 협업을 통해 대신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최적화 구현'은 경영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핵심과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각종 시스템과 제도 개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나갔다. 플랫폼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편의성을 도모하고, 리스크 관리는 수익성과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그룹의 부동산 역량을 바탕으로 탄생한 하임펀드

하임펀드는 대신금융그룹의 자산관리 철학이 반영된 자산관리 솔루션의 대표 상품이다. 대신의 자산관리 철학은 금융의 도덕적 선을 지키는 것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고객의 자산이 안정적으로 늘어나는데 헌신하고, 고객이 백세에도 재무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2017년 초 저금리,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사회 진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자산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이 되면서 자산관리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정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자산관리의 본질은 자산을 지키고, 불리고, 쓰고, 남기는 삶에 대한 재무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비즈니스로 정의하고, 그룹의 부동산 역량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모아 재무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표 상품으로 하임펀드가 탄생했다.

하임펀드의 하임은 'HEIM집'이라는 뜻의 독일어이다. 주택단지 선호 키워드를 조사한 결과와 발음할 때의 어감 등을 고려해서 선택한 이름이다.

하임브랜드의 핵심가치는 진정성, 전문성, 상품성이다. 진정성은 대신의 동순위 혹은 후순위 투자, 전문성은 그룹 부동산부문의 핵심역량의 집중, 상품성은 리스크 대비 리턴을 고려한 상품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하임펀드는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대체상품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주식, 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와는 달랐다. 2017년 처음으로 하임 상품이 출시되었는데, 대신

자산운용이 상품구조 및 리스크, 수익성 등을 검토하여 펀드 설정 및 운용을 담당했다. 대신증권의 상품기획부는 직원들의 펀드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판매역량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및 세미나, 카드뉴스 제작 등에 집중했다. 이처럼 그룹 역량이 각 역할에 맞게 움직였다.

2017년 한 해 동안 148회의 영업점 직원교육이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대신증권 영업직원의 부동산 상품 역량은 최고 수준이 되었다.

직원들의 향상된 역량에 힘입어 대신증권 하임펀드의 판매 실적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년간 2조 5,979억 원에 이르렀다. 2022년 3월 말까지 누적 판매금액 2조 6,759억 원 중 65.3%인 1조 7,479억 원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었다.

연간 하임 판매금액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3,784억 원	4,447억 원	6,382억 원	5,034억 원	6,532억 원	780억 원

대신 Singapore 하임전문사모1호
20 Cecil Street

글로벌 하임펀드는 뉴욕 맨해튼, 일본 도쿄, 싱가포르 등 글로벌 핵심지역의 부동산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총 5년간 7,386억 원의 글로벌 하임 상품을 판매했다.

현재는 부동산 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품 조달 범위를 확장하여, 하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용사로부터 제안 받은 부동산 상품을 검토 및 판매하고 있다. 주로 안정화된 이후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며, 단순 수익성만이 아니라 상환 안정성을 중심으로, 보다 강화된 자체 검토 기준을 가지고 선별적으로 판매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임을 포함한 총 부동산 대체상품 판매규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년간 4조 4,625억 원에 이르며, 2022년 3월 말까지 누적 판매금액 4조 8,240억 원 중 62.5%인 3조 182억 원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었다. 추후 금리인상 국면에서도 선별적으로 우량한 투자대상을 선별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체투자상품 판매금액(하임 포함)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월 현재
5,011억 원	10,016억 원	9,118억 원	9,281억 원	11,199억 원	3,615억 원

금융과 IT의 융합 , 로보어드바이저 상품 출시

그룹 차원의 협업은 금융 IT부문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대신증권과 대신경제연구소가 협업하여 개발한 대신로보어드바이저는 2017년 5월 금융위원회와 코스콤이 주관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최종 통과했다. 이 테스트베드는 2016년 9월부터 총 34개 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42개의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검증하기 위해 △합리성 △투자자 맞춤성 △법규 준수성 △시스템 보안성 및 안정성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가 이루어졌다.

제출된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알고리즘이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수익률 부문에서는 3개의 알고리즘 모두 증권업계 평균 수익률을 상회했다.

2017년 7월 17일, 그룹의 금융 IT역량을 집약시켜 자체 개발한 대신로보어드바이저서비스를 자문형, 펀드형, 일임형 랩 등 3가지 상품으로 출시했다.

대신로보어드바이저는 머신러닝 기법과 블랙-리터만 모형을 통해 미래수익률을 예측하고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엔진 개발은 명품 홈트레이딩시스템으로 평가받는 '사이보스'를 개발한 대신경제연구소의 금융공학파트가 맡았다.

이 상품은 인간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100%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투자한다. 개별종목에는 투자하지 않고 ETF에만 투자하며, 자산배분전략을 활용해 변동성을 낮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또한 이 상품은 별도의 운용보수 없이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의 10%를 성과보수로 받는다. 운용책임은 강화하고 고객의 부담은 낮춰 고객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데 회사의 역량을 쏟겠다는 대신금융그룹의 경영철학이 반영되었다. 판매수수료도 업계 최저 수준이다. 자문형은 무료로 서비스되며, 펀드형의 판매수수료는 0.05~0.1%로 타사에 비해 훨씬 저렴한 수준이다. 최소 가입금액은 펀드형은 제한이 없으며, 일임형 랩은 300만 원이다. 펀드 운용은 대신자산운용에서 담당하고 있다.

홈트레이딩시스템,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상품가입이 가능하며, 실시간 성과 확인, 일반펀드와의 수익률 실시간 비교 등 고객이 편리하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

2017. 07. 17
로보어드바이저서비스 출시

대신프라이빗에쿼티, 코인베스트먼트펀드 단독 운용

대신프라이빗에쿼티는 2017년 국민연금이 출시한 국내 최초의 코인베스트먼트펀드를 운용하여 7개의 GPGeneral Partner, SIStrategic Investor 총 9건 2,465억 원 투자소진율 99%를 완료했다. 대신프라이빗에쿼티는 '대신코인베스트먼트2017 PEF'를 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역량과 노

하우를 확보했다.

첫째, 국내 메이저 PEF 운용사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대신프라이빗에쿼티는 2017 국민연금 코인베펀드를 통한 투자 건뿐만 아니라 타 공동투자 건을 통해 국민연금 출자 펀드 운용사와 깊은 신뢰 및 우호적 협력 관계를 형성했으며, 이 중 우정사업본부 출자 운용사들이 다수 존재했다. 우정사업본부 메인 GP인 IMM인베스트먼트, IMM PE, JKL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와 다수의 공동투자를 추진하면서 긴밀한 협업 관계를 형성했으며, 향후 공동투자 기회가 가능해졌다. 대신프라이빗에쿼티는 MBK, 스틱인베스트먼트, IMM등 49개의 PEF 운용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PEF 협의회의 임원사 중 유일한 금융계 운용사로서, PEF 시장 내 주요 운용사들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큰 강점이다.

둘째,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Deal 구조화를 수행했다. 대신프라이빗에쿼티는 Downside Protection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투자 건에 대해서는 단순히 메인 GP가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별도 협의를 통한 Deal 구조화를 통해 하방 안정성을 최대한 향상시키고자 적극 노력했다.

셋째,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바탕으로 GP에 적극 협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총 9건의 공동투자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특히 풍부한 PEF 공동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딜 검토를 진행했으며 자료 수령 후 평균 1달 이내에 투자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풍부한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 기본적인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금융계 PEF와는 달리 CEO가 검토 초기 단계부터 투자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여 실무와 의사결정 간극이 없는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도 대신프라이빗에쿼티의 강점으로 꼽힙니다." - 배광록 프라이빗에쿼티 경영관리본부장

이뿐 아니라 대신프라이빗에쿼티는 산학 기술 자문단 및 대신금융그룹의 자원Analyst, IPO 본부 등을 이용한 전방위적 검토로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분석 역량을 발휘했다.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본 제안 펀드의 성공적 운용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신코인베스트먼트2017 PEF 개요]

펀드명	대신코인베스트먼트 2017		
설립일자	2017년 9월 1일	만기	2022년 9월 1일 (설립일로부터 5년)
펀드규모	2,500억 원	출자자	국민연금, 대신증권, 대신프라이빗에쿼티

HNW 고객 자산관리 컨설팅서비스

대신증권은 자산관리 특화 서비스의 일환으로 2018년 11월 15일부터 세무와 관련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HNW 고객 세무컨설팅'서비스를 시작했다. 고객의 세금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1:1 맞춤형 세무컨설팅서비스이다. HNW 고객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세무팀은 국세청, 대형 로펌, 회계, 세무법인 출신의 세무사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부터 대기업 세무자문, 개인 세무이슈 등 다양한 분야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다양한 세금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세무컨설팅은 기존 금융권에서 이루어지던 부동산, 금융상품 관련 절세상담을 넘어 금융투자업 특유의 세무이슈 해결이 강점이다. 절세세미나, 금융관련 세무신고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바뀌는 세법 개정사항과 절세전략 등 세금관련 내용을 카드뉴스, 책자 등 시각화된 콘텐츠로 제공해 고객과 소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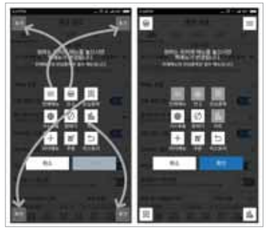
HNW 고객을 위한 세무컨설팅은 고객이 영업점 관리자를 통해 개별 요청하면, 전용 상담공간에서 1:1 맞춤형 심층상담으로 진행된다. 이후 필요에 따라 세금계산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와 절세계획이 포함된 보고서 등 원스톱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강화 및 가업승계전략 등 UHNWUltra High Net Worth, 초고액 자산가의 세금 문제에 대비한 매매전략 수립 및 자산 포트폴리오 전반의 절세 관련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부동산 관련 자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영역까지 확대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기획했다. 보유한 부동산 활용방안을 고민하는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HNW 고객 부동산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했다.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부동산 전문인력들이 직접 찾아가 1:1 상담을 통해 보유 부동산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대신증권의 부동산컨설팅은 개발, 운용, 관리 등 부동산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력 구성을 바탕으로 주거용과 함께 토지, 상가,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물건 전반에 대해 실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 기초적인 가치평가가 진행되고, 필요에 따라 고객과 동

절세 관련 카드뉴스



2017. 01. 17
퀵메뉴 커스터마이징 화면

2017. 06. 29
주문가트레킹시스템

행해 물건에 대한 자산실사를 진행한다. 물건의 수익성을 높이고 최대가치를 얻을 수 있는 활용 방안에 대한 자문과 자산 가치평가에 따른 적정 부동산 가치 등이 포함된 보고서 등을 제공한다. 또한, 부동산 주요 이슈 및 정부 대책, 투자와 관련된 부동산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통해 고객과 소통한다.

모바일 고객 맞춤형 전략 마련

대신증권은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 Mobile Trading System의 사용자들이 직접 원하는 메뉴만 골라 화면에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모바일 시대에는 기술 혁신을 넘어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직관적인 UI/UX 디자인이 중요하다. 2017년 1월 17일, 사용자들이 원하는 메뉴만 선택해 화면에 직접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퀵메뉴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개발해 특허등록을 마치고 본격 서비스에 나섰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이 고정된 메뉴로만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사용자 지향적인 인터페이스 구축을 통해 고객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되었다. '퀵메뉴 커스터마이징서비스' 디자인 특허 등록도 마쳤다.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에서 주식 주문 시 정정·취소 기능을 개선한 '주문가트레킹시스템'도 개발했다. 2017년 6월 29일 이 시스템에 대한 특허등록도 마쳤다. '주문가트레킹시스템'은 이용자가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의 현재가 창에서 자신이 주문한 호가를 바로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시세확인부터 주문-정정-체결에 이르기까지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한 주식거래 전 과정에 대해 사용자 관점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디자인 개선 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주문가트레킹시스템 특허등록을 통해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에서만 총 3건의 디자인 특허를 보유하게 되었다.

대신증권은 2017년 2월 20일 금융투자업계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에 기반한 '챗봇서비스'를 선보였다. 인공지능 금융전문로봇인 '벤자민서비스'는 채팅을 통해 고객의 문의사항을 실시간으로 접수해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서비스이다. 벤자민서비스는 금융계의 전설적 인물인 벤자민 그레이엄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대화형 채팅봇이다. 빠르게 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금융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시대에 요구되는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했다. 벤자민은 약 1년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대신증권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엔진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하는 머신러닝 방식을 도입했다. VOCVoice Of Consumer를 통해 고객들이 질문하고 건의했던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2,000여 개의 핵심 표준지식으로 분류한 뒤, 약 1만여 건에 달하는 질문과 답을 입력시켰다. 이에 기반해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답변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찾아내 제공하는 것이다.

벤자민서비스는 채팅을 통해 365일, 24시간 제공된다. 계좌관리, 공인인증서, 공모주 청약 등 업무대화에서부터, 간단한 일상대화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벤자민에 '공인인증서 발급'이라고 물어보면 벤자민이 공인인증서 발급방법에 대한 안내를 해준다. '시세조'와 같은 미완성된 질문들은 되묻기 기능을 이용해 '삼성전자 시세조회'와 같은 올바른 질문으로 유도한다. 1년 차 신입사원 수준의 업무처리 능력으로 출발한 '로봇 벤자민'은 6개월의 진화작업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업무처리 능력을 보유한 로봇으로 성장했다.

2018년 1월에는 음성인식이 가능한 챗봇서비스까지 선보였다. 음성인식 기술을 탑재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대화형 상담 챗봇 'AI비서 벤자민서비스'는 6개월도 채 안 되어 더욱 진화했다. 2018년 6월에는 업계 최초로 쌍방향 음성대화형 보이스봇Voicebot서비스를 선보인 것이다. 인공지능 금융전문로봇 'AI비서 벤자민'에 쌍방향 음성대화형 기술을 업그레이드한 서비스를 오픈했는데, 이 업그레이드의 가장 큰 특징은 고객과 음성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고객이 육성으로 질문하면 데이터 분석 과정을 거쳐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정보를 찾아 '벤자민'이 음성으로 답변한다.

한편 대신증권은 동영상 소비가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춰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고객문의사항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2018년 12월 27일, 증권업무 등 고객문의사항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작해 답변하는 '고객문의게시판 동영상 답변서비스'를 오픈했다. 이 서비스는 증권 관련 문의사항을 동영상이라는 시각적인 자료를 제공해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한 서비스다. 텍스트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화면, 사용법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인공지능 챗봇 벤자민서비스

3절 나인원한남, 명품 주거단지의 완성

부동산과 금융, 나인원한남

2016년 7월 20일 대신에프앤아이는 용산구 한남대로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자회사 디에스한남펓 대신프라퍼티을 설립했다. 용산구청은 대지면적 약 5만 9,182㎡에 달하는 용산구 한남대로 91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2017년 7월 20일 승인했다.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선 디에스한남은 프로젝트의 차별화를 위한 브랜드를 지었다. 주소는 세계 어디에나 하나뿐이라는 점에 착안해 한남대로 91이라는 유일무이한 의미를 지닌 '나인원한남NINEONE HANNAM'으로 이름을 정했다. 또한 이름처럼 나인원한남은 9개의 주거 동과 1개의 커뮤니티 시설을 가진 최고급 주거단지로 탄생했다.

도시계획과 공동주거에 특화된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와 글로벌 건축디자인회사인 SMDP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계를 맡았다. 세계적인 조경디자인 거장인 사사키 요우지Sasaki Yoji [1]가 조경설계에 참여했으며 국내 최고의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인 B&A Design Communication이 인테리어 디자인을 담당했다. 시공사는 롯데 시그니엘 레지던스를 분양하며 본격적으로 고급주택시장에 뛰어든 롯데건설로 선정되었다.

2017. 09. 27
나인원한남 신축공사 기공식

[1] 사사키 요우지 씨는 하버드대학 대학원(GSD) Landscape architecture학과 객원연구원 및 피터 워커·마사 슈와르츠사무소에 근무했으며, 현재 교토 조형예술대학 환경디자인학과 교수, 사사키디자인·아틀리에 대표 그리고 오오토리컨설턴트 환경디자인연구소 고문을 맡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사이타마 신도심 느티나무 광장', '록본기 힐즈' 등이 있으며, 일본조경학회상(설계 작품 부문), 일본조경학회 특별상, Good Design상, 도시경관대상, 중화인민공화국 주거환경대상, 미국 ASLA Merit of Award 등을 수상 한 바 있다.

'나인원한남'은 배산임수의 입지에다 거북이가 물을 마시는 형상으로 재물운과 후손운이 가득하다는 영구음수형 명당으로 잘 알려진 한남동에 자리하여 풍수지리학적으로도 이상적인 길지로 평가받는다. 개발되는 부지는 도로에서 바라봤을 때 움푹 패인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미군이 가족의 안전을 위해 5미터 가량 지형을 깎아냈기 때문이다. 디에스한남은 나인원한남을 시공하면서 원래의 지형대로 복원해 개발에 나섰다.

디에스한남은 2017년 12월 초 나인원한남의 3.3㎡당 평균 분양가를 6,360만 원 가량으로 책정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했다. 분양가는 인근 고급 아파트인 '한남더힐'의 평균 매매시세대형 평형 기준를 기준으로 정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승인 기준에 맞춘 것으로,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사업장의 경우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심사는 난항을 거듭했다. 역대 최고가인 분양가가 발목을 잡았다. 디에스한남이 책정한 나인원한남의 분양가3.3㎡당 6,360만 원는 국내 아파트 사상 최고가였다. 기존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성수동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3.3㎡당 4,750만 원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디에스한남은 분양가 책정 잣대가 된 비교 단지 선정 기준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디에스한남은 한남더힐 시세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한남더힐 외에 한남힐스테이트 아파트와 주상복합인 리첸시아, 한남동하이페리온1차, 용산한남아이파크 등의 평균 시세도 고려해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 5곳의 평균 매매시세는 3.3㎡당 4,0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되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분양가를 낮추면, 최고의 주거단지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 그 부분은 타협할 수 없는,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가치였다. 결국 디에스한남이 분양보증을 신청한지 두 달여 만인 2018년 1월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보증 불승인'을 통보했다.

분양보증 거절은 '나인원한남'의 분양사업이 만난 가장 큰 암초였다. 디에스한남은 분양보증을 재신청했지만, 애초에 분양가에 대한 서로 간의 인식차가 컸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존 최고 분양가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3.3㎡당 4,750만 원 수준을 넘기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나인원한남의 사업 분양가를 무턱대고 낮출 수는 없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를 이유로 나인원한남의 분양보증을 끝내 거절했다.

나인원한남 사업은 불가피하게 민간건설임대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 최고급 주거단지로서의 상품성과 품질을 지킨다는 목표를 유지하면서 재무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건설임대로 전환하되 분양에 버금가는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나인원한남 외인아파트 부지

2017. 10. 10
나인원한남 모델하우스

나인원한남 단지 내 휴식공간

"최고급 주거단지의 위상을 지켜서 고객만족을 완성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의 자금안정성도 보장되어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동산개발 문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회사가 마련한 대책은 부동산개발에 금융기법을 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마련한 대책이 임대 후 분양이었습니다. 임대로 우선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콜옵션 형태의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분양전환시기는 디에스한남이 정할 수 있게 하여 정부정책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 이득원 프라퍼티 대표이사

나인원한남, 명품 주거단지의 완성

2017년 11월 착공한 나인원한남은 모든 공사 과정에서 세계적 수준의 협력사들과 인력, 최고의 자재로 차별화된 단지를 만들어 나갔다.

디에스한남은 나인원한남과 관련해 공식적인 매스미디어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았다. 대신 현장이 한눈에 보이는 하얏트호텔 스위트룸을 대관해 2017년 8월 중순부터 사전예약제로만 운영하며 홍보를 진행했다. 이러한 방식의 홍보는 오히려 방문 고객들을 통해 입소문이 퍼지면서 나인원한남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나인원한남이 가지는 아이덴티티, 보안이 철저한 커뮤니티의 콘셉트를 바탕으로 최고의 아파트 단지가 지닌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나인원한남을 특별하게 완성시킨 가장 큰 힘은 디테일에 있었다. 자재 하나를 고르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했다. 수도꼭지 등의 샘플을 직접 보고 결정하기 위해 독일까지 여러 차례 출장을 다녔고, 전문가도 구별이 어려운 진품과 가품의 자재에 대해서 진품을 선별하고 고집하는 깐깐한 과정을 거쳤다. 비싼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나인원한남에 어울리는 품격을 지키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은 조경에서도 돋보였다. 조경석을 고르기 위해 직접 석산을 뒤지고, 비싼 나무가 아니라 어울리는 나무, 의미 있는 나무를 고르기 위해 여러 조경농장을 방문했다.

특히 기존 외인아파트 부지에 있었던 큰 아름드리 나무 120여 그루를 이식하여 2년 넘게 길러내고, 그 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약 40그루를 다시 나인원한남으로 이식해 심었다. 설계와 시공의 과정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1mm, 2mm의 작은 차이까지도 수많은 테스트와 검증 단계를 거치며 고민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짧은 공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3채의 목업 하우스를 건설하는 등 나인원한남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은 사업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이윤배 프라퍼티 Real Estate부문장

디에스한남은 약 30번의 월간 공정회의를 포함해 100회가 넘는 공정회의와 300회가 넘는 실무 현안회의를 주관하면서 최고의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를 완성할 수 있게 시공사, CM, 감리, 설계사와 함께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디에스한남은 특히 준공 후에도 하자관리, 시설 보완 및 업그레이드를 위해 1년 넘게 인근 사무실에서 상주하고, 준공 후 2년 동안 전담 관리부서를 신설해 단지 내에 상주하며, 계속해서 조경과 보안 등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나인원한남 개발사업이 가지는 의미는 통상적으로 금융의 영역에 한정되거나 시행과 공사의 영역에 한정되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모든 영역에 걸쳐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여 그룹의 역량과 위상을 한층 높였다는 점이다.

부지의 확보, 설계, 인허가, 분양승인, 분양, 시공, 준공, 입주까지의 개발사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면서 개발사업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사업성 분석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전문성까지 확보해 금융과 부동산의 융합 시너지를 창출해냈다.

땅의 구입에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의 직접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경험할 수 없었던 개발사업 전 과정을 겪으며 얻은 경험은 대신금융그룹이 얻은 가장 큰 성과였다.

나인원한남 조경

나인원한남 고메이 494

나인원한남 호텔식 서비스 공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대한민국 주거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최고급 주택단지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구성원이 노력한 결과 대외적으로도 인정받는 최고급 주거단지가 되었고, 부동산 시장에서 대신의 위상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김송규 디에스한남 대표이사(現 자산신탁 대표이사)

나인원한남은 2019년 11월 준공되었으며,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입주 후 나인원한남의 진가는 더욱 발휘되었다. 살면서 느끼는 입주민들의 만족감이 생생하게 전해지면서 고급 주거단지의 명성을 높였다. 나인원한남을 유명세 타게 만든 것은 아파트 상가에 고메이 494, 블루보틀 커피숍, 가나 아트 갤러리가 입점했다는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이 최초, 최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낸 결과물이었다.

"여러 번의 설계 변경을 통해 흔한 아파트 상가가 되지 않게 시작부터 애를 썼고, 국내 최고의 유통기업들과 협의한 끝에 국내 최초 명품 백화점 브랜드가 입점한 아파트 상가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유수의 디벨로퍼, 시공사, 유통업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나인원한남 입주민들입니다." - 송하영 프라퍼티 경영기획본부장

나인원한남은 지하 4층, 지상 5~9층, 9개동, 총 341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전용면적별로는 △206㎡ 174세대 △244㎡ 114세대 △273㎡복층형 43세대 △244㎡펜트하우스 10세대 등으로 조성되었다.

전세대 남향 판상형 배치의 대형평형으로만 구성된 고급주택인 나인원한남은 '정원 속의 중층 고급주택' 콘셉트로 조경 중심의 중앙공원과 1km의 단지외곽 산책로로 둘러싸여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은 선큰 정원을 통해 자연채광이 유입되는 수영장, 호텔급 라운지 및 헬스시설, 실내외 프라이빗 파티공간, 다목적체육관,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구성되어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주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대 광폭 확장형 주차공간2.7m x 5.5m을 적용하고 세대당 주차대수는 4.67대이다. 복층 및 펜트하우스에는 세대별 3~6대의 전용차고를 제공한다. 1라인 1엘리베이터 사용으로 세대별 프라이버시를 강화하였으며 높은 천정고약 2.6m~2.8m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또한 국내 원전 시설 수준의 내진설계 적용으로 안전에도 만전을 기했다. 또한 입주민에 대해서는 최상의 호텔식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인원한남 수영장

4절 사업다각화를 통한 변화와 성장

계열사의 고른 성장

대신금융그룹은 금융, 부동산 계열사를 통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WM을 비롯한 IB, 자기자본투자 등의 비중을 확대해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사업모델을 만들어왔다.

2018 사업연도 대신증권은 연결기준 세전이익 1,893억 원, 당기순이익 1,407억 원, 자기자본이익률ROE 7%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IB부문은 기업공개IPO 시장의 성과가 두드러지면서 순영업수익 기준 2017년 대비 140% 급등했다. 중견·중소기업에 특화된 틈새시장을 집중 공략한 IPO부문에서는 총 10개 기업, 3,992억 원의 주관 실적을 달성하며 2018년 IPO부문 주관 실적 2위를 달성했다. WM부문도 펀드, 신탁, 랩 중심의 자산관리수수료 증가에 힘입어 21% 증가했고, 브로커리지부문도 일평균 거래대금의 증가로 전년 대비 28% 오른 실적을 거두었다. 트

레이딩부문에서는 파생상품 평가익 증가, 수수료 수익 증가로 순영업수익이 2017년 대비 52.2% 증가했다.

대신에프앤아이는 세전이익 419억, 당기순이익 304억 원의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대신저축은행은 기업금융에서 성장세를 지속한 결과로 세전이익 338억 원을 달성했다. 대신자산운용은 국내외 하임펀드 등 부동산펀드 8,335억 원을 신규 설정했다. 패시브 운용부문은 2017년에 이어 상대수익률 최상위를 달성한 인덱스펀드를 포함하여 2017년 대비 수탁고가 총 1조 6,101억 원168.1%이 증가하는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해외부동산으로도 사업영역을 확대해 미국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일본 등의 핵심 도시지역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2018년 9월에는 뉴욕 맨해튼 지역에 해외부동산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다.

금융과 부동산의 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던 부동산 신탁사는 예비인가를 취득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금 1,000억 원 출자승인을 받았다. 부동산 신탁업은 부동산 개발부터 투자, 분양 등 부동산 개발사업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신금융그룹의 부동산 사업영역과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성과는 과거 회사 수익의 절대부분을 차지했던 위탁매매수익은 2018년 30% 수준까지 감소했다는 점이다. 예전처럼 위탁매매수익에 의존해서는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서 경쟁력 있는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대신금융그룹은 금융과 함께 부동산을 그룹의 중심축으로 키워 왔다. 그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역량을 지닌 계열사들을 통해 금융과 부동산의 융합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게 된 것도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태국 부알루앙증권과 전략적 제휴

대신증권은 태국에 홈트레이딩시스템과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의 노하우를 수출하는 양해각서를 2016년 11월 14일 체결했다. 대신증권과 태국 방콕은행의 100% 자회사인 부알루앙증권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IT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부알루앙증권은 태국 증권업계 최고의 수익성을 보유한 대형증권사다. 조인식은 양사 대표인 나재철 대표이사와 피쳇시티암누아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태국 부알루앙증권 본사에서 이루어졌다.

태국시장의 일간 주식거래 규모는 약 14억 달러로, 약 1조 5,000억 원에 이르는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이다. 지난 5년간 전체 증권계좌의 수가 60만 개에서 120만 개로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양사는 이 제휴의 첫 번째 사업으로 최고 수준의 온라인 거래시스템으로 평가받는 대신

2017. 07. 10
태국 부알루앙 증권사에 온라인 주식거래 플랫폼 수출 본계약 체결

증권의 사이보스시스템을 태국에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양사는 이 협의를 통해 1년 내에 홈트레이딩시스템과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고, IB, WM, 주식중개 등 다양한 사업부문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8개월만인 2017년 7월 10일에는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나재철 대표이사와 태국 부알루앙증권의 피쳇시티암누아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주식거래 플랫폼 수출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

대신증권은 온라인 주식거래시스템인 '사이보스'와 모바일용 시스템인 '사이보스 터치'를 태국에 구축해 주고,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까지 맡았다. 앞으로 시스템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수수료의 일정부분을 부알루앙증권과 공유하게 되었다.

이 계약은 1회성 단발 수출 계약이 아닌,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수수료를 공유하는 구조다. 협력기간은 10년으로, 장기적인 신뢰기반 구축을 통해 해외 파트너사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신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 수출은 역사가 깊다. 증권사로서는 유일하게 10년 넘게 꾸준히 동남아 시장을 개척해 온 대신증권은 지난 2004년 업계 최초로 대만 폴라리스증권에 온라인주식거래시스템을 수출했다. 이어, 2005년에는 한국의 증권전산 격인 태국 세트레이드사에 선물거래시스템을 구축해 준 바 있다. 지난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 만디리증권에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수출했다. 만디리증권과의 계약은 단순 일회성 계약이 아닌 장기 파트너십 계약으로 진행되었다. 증권거래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대신, 매출수수료의 일정 비율만

2011.
인도네시아 만디리증권에 홈트레이딩시스템 수출

큼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 일회성 거래가 아닌 장기적인 신뢰기반 구축을 통해 해외 파트너사와 지속적 업무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2015년에는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까지 구축함으로써 협력 파트너사와의 사업영역을 계속 확대해 왔다.

동남아시아의 자본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동남아 증권사들의 온라인 주식거래시스템 구축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 대신증권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해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사업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팀 신설

대신증권은 리서치센터 글로벌 부동산팀을 신설하고, 경쟁사 리서치와의 차별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2018년 3월 19일, 해외 조사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리서치센터 기업리서치부 산하 기존 기업분석1팀과 기업분석2팀에 글로벌 부동산팀을 신설하여 총 3개 팀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신설된 글로벌 부동산팀은 해외조사분석 역량을 대폭 강화해 글로벌 부동산 중심의 기획 리서치 자료 발간을 맡게 되었다. 미국과 호주 등 선진국 중심으로 깊이 있는 분석리포트를 제공하는 한편, 세금, 국가별 부동산 제도, 업계 트렌드 등 각종 이슈까지 포괄적으로 다뤘다.

이 조직개편은 변화된 글로벌 환경에 맞춰 리서치센터의 역할을 재조정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과거 글로벌전략팀과 자산배분전략팀을 통해 글로벌경제 분석과 해외 자산배분전략 기능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글로벌 부동산 프리미엄 리서치를 제공해 글로벌자산에 대한 대체투자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자 했다. 그리고 국내외 자산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글로벌리서치 수요를 반영하고, 양질의 리서치 자료 발간을 통해 차별화를 이루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 현지법인 설립

대신증권은 2017년 8월 29일 싱가포르 현지법인 'Daishin Investments Pte. Ltd.現 Daishin Singapore PTE. LTD.'을 설립했다. 싱가포르 진출의 외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남아 IT온라인 증권거래 수요 증가이다. 진출 당시 동남아 경제 성장에 따라 투자자본 유입이 증가했고, 동남아 증권시장 거래도 활발해졌다. 또한 경제 성장에 따른 동남아 가계소득 증가 및 IT금융 사업에 대한 개인 투자가 활성화되는 추세였다.

둘째, 싱가포르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글로벌 투자거점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환경이 우수했으며, 홍콩 대비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적다는 점도 장점이었다. 또한 동남아, 싱가포르 부동산 및 대체투자 등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상품 정보가 집결되는 곳이었다.

셋째, 제도적 안정성 및 외국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최소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부 차원의 제도 및 인프라 환경 정비로 금융환경이 우수했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진입이 용이하며, '동남아 시장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곳이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통해 대신의 IT 경쟁력을 사업화하여 IT 온라인 거래 플랫폼 판매 확대를 꾀하고자 했다. 또한 안정적인 현금흐름의 수입 채널을 추가함으로써 IT플랫폼 판매 수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신규 수익원으로 대체투자 대상 확대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었다.

저금리 기조 및 국내 경제 성장률 둔화와 국내 금융투자 업계 환경의 변화, 즉 대형 IB의 등장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수익원 발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었다. 국내 투자증권·상품의 수익률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실현이 가능한 해외 신규 대체상품 발굴 필요성에 따라 싱가포르 현지법인의 설립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은 2018년 6월 11일, 미국을 비롯한 선진 글로벌 시장에서 유망 대체투자 물건을 소싱하여 국내 자산가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자본금 473억 원 규모지분 100%의 '대신 아메리카 Daishin America LLC.' 법인을 미국 뉴욕에 설립했다.

대신증권은 2018년 9월 4일 이사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뉴욕 맨해튼 도심부에 있는 빌딩에 총 1,227억 원을 지분투자하기로 했다. 취득 목적은 리테일 고객에 대한 해외상품 공급 및 외화자산 확보를 통한 수익 창출이다. 대신증권이 지분을 매입한 빌딩은 두 곳이다. 맨해튼 378 West End Avenue이하 378WEA와 400 Madison Avenue이하 400MA에 위치하고 있다. 378WEA 빌딩에는 한화로 569억 원을, 400MA에는 658억 원을 투자했다.

미국 부동산시장은 2018년 글로벌경기 둔화조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호황을 보였다. 특히 뉴욕 맨해튼 지역은 전 세계 금융, 문화, 미디어, 상업의 중심지로 글로벌 투자자금이 집중되는 핵심지역이다.

대신증권이 뉴욕의 빌딩에 투자한 목적은 리테일 고객을 대상으로 우량 해외대체투자 상품을 공급하고, 달러자산 확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대신증권이 투자한 빌딩들은 센트럴파크, 고급주택, 대형금융기관과 인접해있고, 교통편이 우수해 실수요가 많은 곳이다.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함께 향후 매각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었다.

2020년 5월에는 동경사무소를 현지법인Daishin Tokyo Godo Kaisha으로 전환했다. 동경법인은 증권 및 국내외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한 그룹차원의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룹 내

378 West End Avenue 건물

400 Madison Avenue 건물

글로벌 전략 수립을 위한 현지법인의 미션을 실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그룹의 전략 수립을 위한 일본 현지 비즈니스 발굴이다.

대신금융그룹은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의 우량한 투자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외대체투자와 동시에 개인 및 기관투자자에게 양질의 상품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5절 소통과 공유에 기반한 인재육성

대신 인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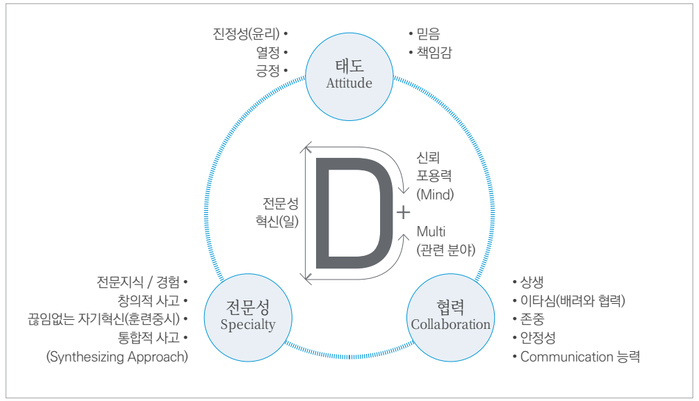
대신금융그룹은 그룹 내 계열사 간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계열사별로 각각의 강점을 종합하여 새로운 방식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신금융그룹 조직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판단의 가치를 조직의 관점에서 넓고 깊게 바라본다는 것이다. 특별한 개인이 부각되는 것보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개인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성과를 위해 기여한 개인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이 혼자 잘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큰 성과를 창출해 궁극적으로는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와 성과를 함께 이루어내는 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대신금융그룹이 지향하는 인재상은 전문성, 태도, 협력을 통한 신뢰와 포용력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 분야뿐 아니라 관련 분야에서도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이다.

대신의 인재상은 D자형으로 구체화되었다.

D자형 인재는 '마인드를 가장 중시하며, 한 가지 특기와 전문성을 가지고 연관 분야까지 통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방면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General Specialist를 지향한다. D자형 인재상의 큰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태도Attitude이다. 진정성윤리과 열정, 긍정과 믿음, 책임감을 갖춘 태도를 기본으로 삼는다. 둘째, 전문성Speciality이다. 전문지식과 경험, 창의적 사고, 끊임없는 자기혁신훈련중시, 통합적 사고Synthesizing Approach를 통해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한다. 셋째, 협력Collabolation이다. 대신인들은 상생과 이타심배려와 협력, 존중, 안정성,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



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소양을 바탕으로 일에 있어서 전문성을 혁신시켜 나가고, 여러 관련 부문에 대한 신뢰와 포용력을 갖추는 것이 대신금융그룹의 D 자형 인재상에 담긴 의미이다.

"메타버스처럼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공간이 펼쳐지듯이 대신금융그룹의 인재상에도 더해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 즉 시간의 흐름을 꿰뚫을 수 있는 사람, 현실과 가상의 공간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수창 증권 경영지원부문장

독서와 학습을 통한 공유 문화

독서 문화는 대신금융그룹의 기업문화를 가장 대표하는 중심축이다. 이어룡 회장은 여의도 시절, 본사 지하에 대신가족을 위한 도서관 '더라이브러리the Library'를 만들어 직원들이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했다. 2009년 3월 2일 여의도 사옥에 직원들의 휴식 공간을 위해 마련한 '대신 트러스트 큐브Daishin Trust Cube'의 공간 가운데 하나로 구성된 '더라이브러리'는 처음 개관 당시에는 5,000여 권의 도서를 구비했다. 본사는 물론 지점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도서 대출을 신청하고, 행낭을 통해 주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직원들이 독서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배려했다. 이렇게 시작한 독서 문화는 2017년 대신파이낸스센터의 '더라이브러리'에서 보다 확장되고, 심화된 형태의 기업 문화로 뿌리내리고 있다.

신입사원 연수

더라이브러리

임원진 추천도서

독서

대신금융그룹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독서를 통해 전사적인 독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온라인을 통해서 2017년 1월부터 시작한 독서목표 세우기, 경영진 추천 도서, 도서요약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다.

독서목표 세우기는 대신금융그룹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제도는 대신금융그룹 전 직원이 동일한 연간 독서목표최소 6권 이상를 설정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인·부서·본부별 독서진행 현황을 전사 공유한다. 6개월마다 독서진행률 상위 개인·부서·본부를 포상하고, 독서 완료 시에는 1권당 0.3학점을 제공한다.

경영진 추천도서는 대신금융그룹 경영진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책을 추천해주는 것이다. 경영진 인터뷰 후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밸런스톡, 사보, 사내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인터뷰 내용을 공유한다.

도서요약서비스는 바쁜 임직원들을 위해서 경영·경제 트렌드 요약 정보와 동영상을 제공하며 외부 전문업체와 연계하여 온라인서비스로 도입했다. 임직원에게 도움이 되는 책의 목록, 내용 요약본, 요약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공유

독서를 통해 얻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 채널을 모두 마련했다. 온라인 프로그램은 임직원 도서 추천 리뷰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 임직원이 책을 읽고 그에 대한 추천여부, 리뷰·후기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대신금융그룹 전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다.

전 임직원은 독서 후 해당 책에 대한 평점과 리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직원들이 올린 추천·리뷰글을 통해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도서 검색 및 대출 신청 시, 해당 책에 대해 직원들이 남긴 평점과 추천·리뷰 내용을 한 눈에 조회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 대해 6개월마다 추천·리뷰왕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베스트 추천과 리뷰 톱 10은 온라인 커뮤니티 메인화면에 게시된다.

'저자와의 만남'은 오프라인 프로그램이다. 분기별로 유명한 저자를 초청해 대신금융그룹 임직원들과 함께 책 내용에 대한 강연, 질의응답, 토론 등을 통해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는 만남의 자리이다.

다양한 의견 공유 및 소통을 위한 유명저자베스트셀러 작가 등 또는 저자 직강 및 토론을 위한 전문분야 저자대학교수 등 후보 2~3인을 선정하고 전 직원 대상 투표를 진행하여 저자를 선정하고

2017. 04. 13
저자와의 만남 정호승 시인편

있다. 행사 1~2개월 전 더라이브러리에 '저자와의 만남' 이벤트 존을 만들어 해당 책을 비치하고, 독서의 시간을 갖는다.

이 행사는 업무 시간 이후인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진행된다. 책 내용에 관한 저자 강연, 질의응답과 토론으로 이어진다. 이 행사 또한 강연영상, 질의응답자료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해 참석하지 못한 임직원들도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행사 후에는 저자 사인회, 기념촬영 등을 실시하고, 참석자에게는 학점을 부여한다. 직원들의 관심이 높은 저자의 경우, 지방 영업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방 권역별 '찾아가는 저자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신 독서 이벤트는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대신금융그룹의 독서 학습 공유 문화 형성에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라이브러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벤트이다.

대신을 바꾸는 시간

'대바시', 대신을 바꾸는 시간은 오프라인 공유 프로그램이다. 2017년 1월부터 시행한 이 프로그램은 독서, 학습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평소 본인이 습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임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유용한 지식이나 콘텐츠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대신인의 축제이다.

희망 신청한 직원들 중에서 최종 참가자를 선정했다. 대바시 행사 발표와 공유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여 내용을 전사에 공유했다.

2017. 02. 10
대신을 바꾸는 시간 첫 번째 이야기

2018. 06. 20
대신을 바꾸는 시간 두 번째 이야기
(응원하는 동료들)

대신을 성장시킬 힘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신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건강한 생각, 발전하는 자세라는 취지에서 마련한 '대신을 바꾸는 시간'은 2017년 2월 10일 처음 열렸다.

첫 번째 발표자 증권 여의도영업부 박윤경 업무사원의 메시지는 큰 목표를 이루는 것은 어렵지만 당장 5분, 10분의 작은 행동이 큰 실행력으로 이어진다며 미뤄둔 것을 당장 시작하자는 '하는 것이 힘이다!' 의견을 공유했다.

증권 법인영업본부 김민수 주임은 '좀비 바이러스'를 경계하자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업무 중에 받는 사소한 스트레스와 불편한 마음은 좀비 바이러스처럼 동료들에게 퍼지기 쉽다면서 그때마다 그는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처럼 why를 되새긴다고 털어놓았다.

증권 상무지점 고현진 업무선임사원은 '직장인의 사춘기'를 주제로 삼았다. 에이엠씨 자산관리2부 김상민 부부장은 "우리는 모두가 히어로다. 다만 자신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히어로일 뿐 그 능력은 각자 다르다. 모두가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로 강연을 이끌었다.

대신금융그룹 창립 56주년 기념식이 열린 6월 20일에 5층 강당에서 대바시 두 번째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2018년 3월부터 희망자를 모집했고, 서류 심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5명을 선정했다. '연습' 시간까지 더하면 총 60일에 걸쳐 완성된 프로젝트였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60일의 기록 영상을 상영했는데, 대신을 바꾸기 위해 '내가 바뀌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하나의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다. 실제 강연 후 인터뷰에서 거의 모든 참석자가 입을 모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본인에게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Daishin Financial Group
60년사

5장. 금융의 새 시대를 열다

2019
2022

STORY
2022

대항해의 시대

우연한 충돌, 싹이 움트다

세렌디피티Serendipity는 우연한 충돌, 우연히 만난 행운을 말한다. 미시간주립대학교 연구진이 과학자 172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연구실,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의 동선이 겹칠 때 공동 작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선이 3미터 겹칠 때마다 협업이 최대 20%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어떤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대신파이낸셜그룹은 갈수록 젊고 역동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첨단 IT와 금융의 융합을 선도하는 기업, 부동산과 금융의 융합으로 글로벌 리츠 시장까지 새로운 사업으로의 확장성이 빛난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대신파이낸셜그룹은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면서 내실과 성장을 모두 이루었다. 대신증권, 대신에프앤아이, 대신저축은행, 대신자산운용, 대신자산신탁, 대신프라퍼티, 대신프라이빗에쿼티, 대신경제연구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이 너나없이 서로에게 긍정의 힘을 주고 있다. 그리고 성공의 경험은 더 큰 도전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에너지가 된다.

'다음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해볼까? 같이 일할 사람들을 모아보자.'

인재육성에 가장 공을 들여온 대신의 역사에서 연수원은 늘 중요한 위치에 있다. 위례연수원은 더욱 특별한 곳이다.

"위례연수원은 인재들을 키워내는 모태母胎같은 공간이면서, 때로는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되기도 합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대림동 연수원을 매각하고, 위례에 새로 지은 연수원은 그 시설과 구조가 남다릅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프로젝트룸은 설계 단계부터 대신인들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서 준비했습니다. 1층 로비의 좁고 긴 창의 모티브는 대신의 첫 사옥이었던 명동국립극장에서 가져왔습니다. 꾸준하게 이어져온 대신만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헤리티지Heritage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지요."

—
김선민 증권 인사부장

풀이나 나무에서 새로 돋아 나오는 싹을 뜻하는 순 우리말 '움'을 전체 콘셉트로 잡고, 지하 1층의 홀은 '피움', 대신과 금융의 역사가 아름답게 함께 피어난다는 뜻을 담았다. 1층 휴게시설과 라운지는 스트레스를 버리고 재충전을 한다는 뜻에서 '비움'의 공간으로 마련되었다. 2층의 캠프CAMP는 나누고 도와가며 나아간다는 뜻의 '나움'으로 구성했고, 4층의 강의장은 '채움'의 공간이다. 어떤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든 팀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창의적인 사무 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이 프로젝트 TFT를 가동하거나 연수가 필요할 때는 위례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다. 함께 일하기 위해 언제든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공간, 함께 모여서 강의를 듣거나 잠시 혼자만의 시간도 가능한 곳. 생각지 않았던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의 협업이 탄생하기도 한다. 세렌디피티!

찬란한 전통

"2분기 실적 봤어요?"

2021년 대형증권사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자, 금융업계의 시선은 일제히 명동으로 쏠렸다. 언론에서 대서특필한 1위의 주인공은 바로 대신증권이었다.

〈2021년 2분기 대형 증권사 성적표에서 자기자본 10위의 대신증권이 내로라하는 증권사들을 모조리 제치고 2분기 실적 왕좌를 차지하다〉

대신증권의 2021년 2분기 연결 순익은 3,845억 원. 2020년 대신증권의 연결 당기순익은 1,470억 원. 불과 한 분기에 그 두 배 이상의 실적을 올린 것이다. 대신증권의 1위 탈환에 다들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정작 주인공은 담담했다. 어려울 때일수록 빛을 발휘하는 저력, 그것은 대신 고유의 특성이다.

대한민국 최대 국난이었던 IMF 외환위기, 대우그룹의 부도로 환매사태가 터졌던 당시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대신증권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대비했는지 알 수 있다. 대신증권은 2003년 카드 버블사태가 터진 제43기2003년 4월 ~ 2004년 3월 주식부문에서 334억 원의 운용평잔으로 239억 원의 손익을 달성해 71.5%의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다시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대신증권은 회사의 유동성을 늘리는 데 주력했다. 당시 대신증권은 2008년 12월 1일 기준 2조 4,233억 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했는데 보유채권의 80%가 통화안정증권, 국고채 등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채권들이었다. 안정적인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대신증권은 2008년 11월 채권으로만 135억 원 가량의 수익을 거두었다.

2021년 2분기 연결 순익은 3,845억 원. 이 숫자는 그룹 전 계열사의 성과가 더해진 것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힘을 보탠 것은 바로 나인원한남이었다. 수 년 동안 숱한 난관을 극복하면서 완성시킨 나인원한남의 알찬 수익이 반영된 것이다.

처음 외인아파트 부지가 시장에 나왔을 때 대부분의 개발회사들은 이 땅의 단점

을 들추어내면서 값을 깎아볼 요량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대신파이낸셜그룹은 달랐다. 선택까지는 오래 고민했지만, 일단 결정을 내린 뒤에는 빠르고 정확한 실행력으로 움직였다.

서울에 남아 있는 희소성 높은 최고의 주거지라는 확신으로 땅을 매입한 결단력이 시작이었다. 부동산 정책의 혼돈 속에서도 품질의 가치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열정으로, 처음 경험하는 일이지만 함께 지혜를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 실행력으로, 나뭇가지 하나의 방향까지 세심하게 정돈하는 전문가다운 디테일로, 무엇보다 대신의 이름을 걸고 만들어 가는 사업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과 자긍심까지. 이 모든 과정에 담긴 임직원의 땀과 열정, 협력과 융합이 만들어낸 숫자였다. 이제 나인원한남은 자타공인 우리나라 주거 문화를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 최고의 명품 아파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항해의 시대

뉴욕 소호의 작은 쇼핑몰과 동경 도심의 오래된 빌라단지... 어디가 좋을까?

투자를 위해서 굳이 뉴욕이나 동경을 방문할 필요는 없다. 투자가치에 대한 리포트를 보고 결정하면 된다.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부동산 리츠 투자로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시대가 올 줄이야. 대신파이낸셜그룹은 부모님 때부터 거래를 해온 증권사이다. 평생 부지런히 일하고 은퇴한 부모님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곳이니 더욱 믿음이 간다. 안정성만큼이나 마음에 드는 것은 역사와 전통만큼 깊이 있는 논리와 관점이다. 그러면서도 빠르게 시장을 읽고 흐름을 앞서나가는 실행력은 놀랍다.

대신파이낸셜그룹에는 인연이 오래된 고객들이 많다. 이어룡 회장에게는 가끔 고객들의 편지가 온다. 편지에는 자산관리 잘해준 덕분에 아이들 공부 잘 시켰고, 올해는 막내까지 결혼 시켰다, 이제까지처럼 우리 노후자금도 잘 운용해 줄 것을 믿는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窮卽變 變卽通 通卽久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_주역(周易)〉 / 〈不進卽退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_퇴계 이황〉

주역의 문장은 김호중 증권 고객자산부문장, 퇴계의 말씀은 강윤기 증권 전략지원부문장의 카톡에 걸린 글이다. 신문 사설에도 자주 인용되는 글인데, 두 사람의 프로필로 만나니 그 울림이 새삼 크다. 아마도 대신파이낸셜그룹이 걸어온 역사, 앞으로 가야 할 변화와 혁신의 길이 두 문장의 뜻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리라.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는 단단한 의지, 불확실의 시대에 앞으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용기, 책임져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들의 걸음에 담긴 가늠할 수 없는 무게... 매일 새롭게 벼리고, 가다듬는 마음가짐과 자세.

대신파이낸셜그룹은 2021년 영업이익 연결 기준 8,855억 원을 달성하면서 창립 이래 사상 최고의 성과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70% 증가한 수치다. 2021년 연간 당기순이익도 6,15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20% 가까이 증가했다. 놀라운 실적이지만, 이보다 값진 성과는 따로 있다. 지난 10년 동안 변화와 혁신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신의 구성원들이 얻은 다양한 경험과 성취, 이기는 방법을 터득한 집단지성과 조직문화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보다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무형의 자산이다.

금융과 부동산, 금융과 IT의 기술이 탄생시킨 넓은 바다 너머에는 새로운 가치들이 기다리고 있다.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해온 대신파이낸셜그룹이 대항해의 닻을 올렸다. 나침반은 변함없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 사업의 방향성을 잡을 때의 기준점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바로 ‘고객’입니다. 대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 변할 수 없는 기준은 지난 60년 동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고객’입니다.”
>
> —
>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대항해의 시대, 대신인들이 꿈꾸는 금융, 마침내 찾아낼 가치는 어떤 모습일까. 대신파이낸셜그룹이 고객과 함께 열어갈 새로운 금융의 시대를 기대한다.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들을 믿는다.

1절 증권에서 종합 부동산 금융서비스까지

리츠 시장의 성장

부동산 금융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사업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금융상품화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대표적인 부동산 금융상품으로는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펀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의 영문 약자를 딴 용어로,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모은 자금을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 운용해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다. 저성장·저금리 시대의 대체 투자처로 주목받은 리츠는 2022년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정책,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 등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리츠(REITs) 기본 구조

국내 리츠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국내에서 운용 중인 리츠는 2022년 상반기 326개로 10년 전인 2012년 71개에 비해 4배 이상 불어났다. 2018년 6개에 불과했던 상장리츠도 2022년에는 19개로 늘었다. 2021년 4분기 기준 리츠의 총자산 규모는 78조 2,355억 원에 달한다.

대신금융그룹은 지난 10년간 부동산 대체투자부문을 저성장·저금리 시대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왔다. 금융 투자업 외에도 부동산 신탁업에 진출하면서 금융과 부동산 전체를 아우르는 업의 확장과 시스템 구축에 힘써 왔다.

특히 2019년부터는 '본업 경쟁력 강화'와 '실행을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계열사들과의 협업을 통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와 함께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늘어나는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관리 비즈니스도 적극 강화해 나갔다. HNW와 MASS로 구분하여 각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나갔다. 아울러 리츠와 대체투자 부문을 통해서도 차별화된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리츠의 개념에서 투자전략까지, 리츠 가이드북 발간

대신증권은 지속적으로 고객 니즈를 반영하여 리츠와 관련 서비스를 추가하고 개선해 나갔다. 2020년 10월 7일에는 리츠의 기본 개념부터 투자대상, 방법, 세제혜택까지 정리한 'REITs ABC' 책자를 발간했다. 'REITs ABC'는 유통, 오피스 등 전통적인 부동산 자산 및 인프라, 데이터센터 등 신성장 리츠, 모기지 리츠까지 다양한 분야의 리츠를 소개하고 있다. 기초 자산 및 개별 리츠 평가 방법과 리츠 투자 방법 등도 병행해 설명했다. 특히 '리츠의 기본 개념', '주요국 리츠시장 현황', '기초자산별 투자기회', '리츠 투자 시 점검해야 할 것들', '리츠 투자 실전편', '글로벌 대표 리츠 종목과 리츠 ETF' 등 6파트로 나눠 구성하여 리츠를 처음 접하는 투자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2021년 4월 5일에는 미국 리츠의 역사적인 성과, 섹터별 현황, 투자 전략을 정리한 〈US REITs 2021 가이드북〉과 〈US REITs 2Q21 Return to Normal〉 책자도 발간했다.

대신증권은 차별화된 부동산 리서치를 통해 투자자들의 성공적인 리츠 투자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는데, 그 일환으로 일본상업용 부동산과 리츠 투자전략을 담은 책자도 발간했다. 2021년 4월 21일에 선보인 〈일본 부동산과 J-REITs의 모든 것〉은 일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소개하고 일본 리츠의 차별적 특징과 섹터별 전망을 정리했다. 같은 해 7월 15일에는 코로나19가 일본 리츠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를 제시하는 〈J-REITs 2021년 하반기 전망 : 프리미엄 자산에 주목〉을 발간했다.

2022년 1월 28일에는 최근 수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리츠과 주요 종목을 분석한 〈K-REITs Guide Book, 국내 리츠 대표 종목 10〉을 발간했다. 자료는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투자 대상으로 분류되는 리츠를 소개함으로써 국내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안을 제시했다.

리츠 전용 통합금융서비스 오픈

투자자들의 성공적인 리츠 투자를 위해 차별화된 부동산 리서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온 대신증권은 2020년 8월 26일 리츠 전용 통합금융서비스를 선보였다. '대신 리츠 전용 통합금융서비스'는 국내외 리츠의 소개부터 상품 라인업, 투자정보, 주문까지 리츠 관련 금융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 리츠는 정기적인 배당에 더해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어 이미 수십 년

2020. 10. 07
〈REITs ABC〉 발간

2021. 04. 05
〈US REITs Guide Book 2021〉 발간

2022. 01. 28
〈K-REITs Guide Book〉 발간

2020. 08. 26
대신 리츠 전용 통합금융서비스 오픈

간 선진국에서 장기 투자처로 각광받아 왔다.

리츠 투자를 처음 접하는 국내의 투자자들도 보다 쉽게 리츠를 이해하고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구성한 '대신 리츠 전용 통합금융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리츠의 개념과 특성 등 상품 소개는 물론 국내외 상장 리츠 라인업, 투자 정보를 확인하고 주문까지 가능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대신 리츠 인사이트'를 통해서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부동산 전문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 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 등 리츠 투자에 유용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대신 리츠 전용 통합금융서비스'는 대신증권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 홈트레이딩시스템, 그리고 대신증권 홈페이지www.daishin.com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고객이 쉽게 리츠를 접하고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게 마련된 시스템이다.

대신자산신탁 출범과 리츠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 취득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부터 부동산신탁의 신규 사업 인가를 추진했다. 부동산신탁 신규 사업 인가는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추진된 것으로, 총 12개의 신청사가 신규 인가를 신청했다. 최종 3개 회사가 예비인가를 받았는데, 그 중 한 곳이 대신금융그룹의 자회사인 대신자산신탁이었다. 대신자산신탁은 2019년 3월 부동산 신탁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얻고, 같은 해 7월 2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최종 본인가 승인을 받았다. 대신자산신탁은 대신증권이 지분 100%를 출자했으며, 자본금은 1,000억 원이었다. 대형 금융회사, 전문성을 갖춘 중소형 자산운용사, 개인주주 등 다수의 후보가 참여한 치열한 신탁업 예비인가 경쟁에서 대신자산신탁이 신규 부동산 신탁사로 선정된 것은 경쟁사 대비 2~5배의 자본금 규모와 자산 건전성이 평가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신자산신탁의 공식 출범식은 2019년 7월 29일 대신파이낸스센터 19층 대신자산신탁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어룡 회장, 양홍석 사장, 나재철 증권 대표이사, 김철종 자산신탁 대표이사 등 계열사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어룡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신자산신탁 출범으로 대신금융그룹은 금융과 부동산 부문에 경쟁력을 갖춘 금융부동산그룹의 면모를 갖추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계열사 임직원 모두가 다양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자 영역에서 최고가 되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김철종 자산신탁 대표이사는 "기존 부동산 신탁사와는 차별화된 금융과 부동산을 융합한 비즈니스로 부동산 신탁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며 출발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2019. 07. 29
대신자산신탁 출범식

대신자산신탁은 기존 신탁업에 공공성과 혁신성을 접목한 특화사업으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초기에는 안정적인 기반 확보를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과 담보부사채신탁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도심공원 조성사업, 창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 2월 18일 대신자산신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 리츠 AMCREITs Asset Management Company 본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취득했다. 본인가 취득은 2019년 9월 예비인가 신청 후 약 5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대신자산신탁은 리츠 AMC 본인가를 계기로 종합부동산 금융서비스 제공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공모 리츠를 통해 새로운 상품 출시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향후 민간임대주택, 재간접리츠, 도시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접목하여 시장을 선도하는 리츠의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다.

리츠 사업의 기반을 확보한 대신자산신탁은 2020년 9월 첫 공모 리츠를 출시했다. '대신케이리츠물류1호'는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 경쟁률 14.05 대 1을 보였으며 모두 1,221억 2,500만 원의 증거금을 끌어모았다. 같은 해 출시된 제이알글로벌리츠0.23 대 1, 이지스레지던스리츠2.6 대 1, 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1.4 대 1 등과 비교해 흥행에 성공했다.

"그룹 차원에서 해외 자산 투자를 검토하는 등 리츠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덕분에 대신자산신탁은 2019년 등장한 신규 부동산 신탁사 3곳 가운데 가장 빠르게 리츠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자산신탁은 출범 6개월만인 2020년 2월 AMC 인가를 받았고, 자본금 500

억 원을 증자해 2021년 6월 기준 자본총계가 1,500억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 오홍진 자산신탁 경영지원부문장

대신자산신탁은 2021년 '대신케이리츠물류1호' 1개를 리츠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 리츠는 경기 안성 '에쓰푸드SFOOD 물류가공센터'와 충북 청주 '한익스프레스센터' 등 물류센터 2개를 자산으로 담고 있다.

해외 물류센터 매입

2021년 10월 대신자산운용은 독일과의 국경지역에 있는 폴란드 스비보드진 물류센터에 대한 매입작업을 진행했다. 선매매 형태로 2021년 4월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2021년 11월 거래를 마무리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 유럽 현지 실사까지 마쳤다.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코로나19의 불확실성으로 의사결정을 망설이는 사이 대신금융그룹이 발빠르게 인수 제안을 하면서 자산 확보가 가능했다. 인수가는 2,300억 원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스비보드진 물류센터는 폴란드 최대 규모이자 가장 최첨단 시설을 갖춘 아마존 물류센터라는 점이 투자 포인트였다. 규모는 연면적 약 21만 200㎡약 6만 3585.5평, 총 4개 층이다. 물류 자동화 로봇인 '키바Kiva'를 활용해 물건 포장과 마무리, 배송출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이 무인으로 이루어진다. 아마존은 건축비를 제외하고도 자동화설비와 인테리어, 비품 등에 1,200억 원 정도를 추가 투자했다.

폴란드 스비보드진 물류센터

대신자산신탁은 해당 물류센터 등을 기초자산으로 담아 상장 추진을 검토중에 있다. 이는 대신금융그룹이 지난 5년간 유럽, 일본 도쿄, 미국 등에서 매입해 온 부동산 물건들로 모자母子 리츠 형태인 가칭 '대신글로벌코어리츠'를 상장 검토 중이다.

글로벌 리츠의 본격화

대신증권은 리츠 사업을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다. 먼저 2018년 리서치센터에 해외부동산팀을 신설했다. 2018년 9월에는 미국 맨해튼 빌딩에 투자하는 해외대체투자까지 사업 영역을 넓힌 바 있다.

또한 대신증권은 공모리츠 대표주관과 인수단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리츠 공모에 대한 트랙레코드를 쌓아갔다. 대신증권의 공모리츠 사업 성과를 살펴보면 2020년 제이알글로벌리츠, 코람코에너지플러스리츠의 인수단에 참여했다. 또 대신케이리츠는 총액인수 대표주관을 맡았다. 2020년 대신증권의 공모리츠 인수금액은 636억 9,000만 원을 달성했다. 이어 2021년에는 디앤디플랫폼리츠 총액인수 공동대표주관, NH올원리츠 인수단 참여 등을 통해 총 650억 원의 공모리츠 인수금액을 기록했다.

대신증권의 리츠 상품 라인업을 살펴 보면, 우선 2020년 6월 출시된 '대신글로벌리츠부동산펀드'가 있다. 이 펀드는 대신자산운용이 처음으로 출시한 글로벌 리츠 공모펀드다. 글로벌 주요국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가에 상장된 리츠에 투자해 안정적인 배당수익과 자본차익을 추구한다. 트레이딩 알고리즘과 다양한 해외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리츠를 발굴하고, 현지 시장분석 능력으로 장기 성장이 가능한 우량 종목을 선정하는 데 주력한다. 분산투자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선진국 부동산 관련 리츠 ETF상장지수펀드도 일부 편입해 운용한다.

글로벌 리츠 투자전문운용사인 '러셀 인베스트먼트Russell Investments'의 자문을 받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러셀 인베스트먼트의 글로벌 부동산 투자운용팀이 글로벌 리츠 시장 내 리츠 자산가격 괴리 현상을 추적해서 적절한 매수 적기를 포착한다. 3년 이상 장기투자를 하면 공모 리츠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으로 9.9% 저율과세를 적용받는 절세 혜택도 있다.

아울러 2020년 9월에는 배당성향이 높은 리츠와 부동산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대신글로벌리츠펀드랩'도 라인업에 추가되었다. 금리인상과 통화긴축 여파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리츠는 대체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리츠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대신증권 리츠 광고

금융과 부동산부문의 역량을 보유한 대신금융그룹은 그룹의 목표 지향점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소액으로 국내·외 우량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리츠 넘버원 하우스'로 정했다.

한편, 2022년 5월에는 대신증권의 공모형 리츠REITs 및 부동산 관련 공모펀드 총 판매 잔고가 2년 만에 1,000억 원을 돌파한 1,354억 원을 기록했다. 2020년 6월 리츠펀드를 본격 판매한 지 2년 만에 거둔 성과였다.

대신증권은 대신 글로벌 리츠 부동산펀드와 이지스 글로벌 고배당 리츠 부동산펀드, 미래밸런스 리츠 부동산펀드, 삼성J-REITs부동산펀드 등 총 13종의 리츠펀드를 판매했다.

"최근 배당수익을 꾸준하게 누릴 수 있는 리츠가 연금 등 장기자금 계획과 자산관리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자들이 리츠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동국 증권 상품솔루션부장

2절 계열사의 괄목할 만한 성과

종합투자회사로 발돋움하는 대신에프앤아이

대신에프앤아이는 2018년까지 NPL 투자 위주로 사업을 펼쳤으나, 이후 국내 투자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투자영역의 다변화를 모색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NPL 및 부동산 금융 분야에서 튼튼한 수익기반을 구축했으며,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신성장과 기타 투자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종합투자회사로서의 신성장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역량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불안정한 시장 환경을 대비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점검을 체계화하고, 조직 효율성 제고와 인적역량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대신에프앤아이의 영업수익을 살펴보면 2020년 759억 원에서 2021년 1,185억 원으로 56.12%나 증가했다. 또한 NPL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과 신성장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대신에프앤아이는 대신에이엠씨, 디에스엔피엘인베스트먼트대부, 대신프라퍼티, DHC개발, 탠덤, 리버빌에 이르기까지 6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대신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 노력

대신저축은행은 가계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리테일 금융 역량을 강화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했으며, 여신 건정성 확보 및 개인신용 불량률 축소에 힘썼다.

또한 리테일부문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신저축은행은 디지털 뱅킹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갔다. 다이렉트 채널의 여신 비중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플랫폼과의 연계도 확대했으며, 모바일 앱과 웹의 UI·UX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기업금융 유치 경쟁으로 인한 여신금리가 하락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본사에 기업금융 부서부동산금융부를 신설했다.

"대신저축은행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익성 면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2019년 132억 7,800만 원, 2020년에는 160억 8,400만 원, 2021년 248억 6,400만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 김봉식 저축은행 경영지원본부장

대신저축은행은 차별화된 금융상품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 2021년에는 '더드리고 정기예금' 상품을 새로 선보였다. 만65세 이상을 위한 전용 예금상품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파킹통장인 '더드리고 입출금통장'도 함께 출시했다. 대출상품으로는 우량직장인 대상의 신용대출인

2022. 05.
대신저축은행 압구정지점

대신저축은행 홈페이지

대신저축은행 스마트뱅크

'대신플러스'2020년와 고객의 증권계좌 내 예수금과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하는 온라인 대출상품 '대신스탁론'2021년을 선보였다.

대신자산운용의 약진

대신자산운용은 2019년 11월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로 선정되었다. 수탁고 규모와 인력 구조에 있어서 열세에 있음에도 대신자산운용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운용노하우와 기존 기관 펀드들의 우월한 운용성과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로 선정되었다.

국민연금 일임펀드는 최초 1,500억 원으로 시작하여, 2021년 12월 말 5,546억 원NAV 8,158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대신자산운용은 퀀트 기반의 인덱스펀드의 우수한 트랙레코드와 함께 불과 2년 만에 국민연금 일임펀드 수탁고를 3.7배 증가시킴으로써 업계 최고의 패시브운용 하우스임을 입증하였다.

2020년 3월 23일 글로벌 펀드평가기관인 모닝스타가 시상하는 2020 모닝스타 어워즈에서 대신자산운용은 '베스트 한국 대형주 펀드' 부문을 수상했다. 대신자산운용의 '대신KOSPI200인덱스펀드'가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유형 5개 부문과 운용사 3개 부문으로 구성된 모닝스타 어워즈에서 동종그룹 내 우수한 성과를 거둔 펀드로 인정받은 것이다.

모닝스타 어워즈의 유형부문의 경우, 최소 5년 이상 운용된 펀드를 대상으로 1년, 3년, 5년 성과와 리스크에 대해 비중을 주어 가장 점수가 높은 펀드를 선정했다. 정량평가와 더불어 현재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의 운용 기간이 4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모닝스타의 정성적인 평가 조건

2020. 03. 23
대신자산운용, 모닝스타 어워즈
베스트 한국 대형주 펀드부문 수상

은 같은 매니저가 장기적으로 운용한 결과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운용 성과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도 일관적인 운용 과정을 통해 나온 성과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만성 패시브운용그룹장은 10년 이상의 장기근속 펀드매니저로, 그 꾸준함이 결국 펀드의 안정성과 고객의 신뢰성 확보로 이어지며 우수한 성과의 바탕이 되었다.

2002년 1월에 설정된 대신 KOSPI200인덱스펀드는 2021년 12월 말 기준, KOSPI200지수 대비 5년 수익률 38.22%p, 3년 수익률 25.17%p, 1년 수익률 3.45%p를 상회하며, 타 인덱스펀드와 견주어도 최상위 성적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대신 KOSPI200인덱스펀드'는 이러한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KG제로인 주최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인덱스부문에서 2018~2019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대신자산운용의 2021년 당기순이익은 116억 3,805만 원으로 2020년 30억 3,768만 원 대비 283.1% 성장했다. 전체 운용자산 규모도 전년 대비 6.1% 증가한 6조 8,676억 원을 기록했다.

대신자산운용은 2016년 운용사 최초로 '로보어드바이저 그룹'을 신설한 바 있고, 2022년에는 '퀀트운용본부' 내 AI리서치팀을 두어 보다 고도화된 로보어드바이저 전략개발 및 운용에 힘쓰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Robot과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알고리즘을 활용해 투자자문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대신자산운용은 로보엔진을 자체 개발하기도 했다. 대신자산운용의 자체 로보엔진은 AI를 활용해 주요국의 주식, 채권, 원자재, 금리 등 일간 데이터를 학습한 뒤 자산 가격을 예측한다.

로보어드바이저 기반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키워온 대신자산운용은 2021년 11월에는 로보알고리즘을 접목한 '대신 해드림 로보 TDFTarget Date Fund'를 출시했다. 자체 개발한 로보엔진을 활용해 생애주기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조절해 운용해 주는 TDF다. 주요국의 주식, 채권, 리츠, 원자재, 통화, 금리 데이터를 학습해 예측한 자산 가격 결과를 토대로 시장 상황에 대처한다.

대신 로보어드바이저는 2021년 말 기준 총 4개의 테스트베드를 통과했고, 대신자산운용에서 2개의 로보어드바이저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4개의 운용 알고리즘은 자산배분 상품이고, 투자종목은 각 자산을 대표하는 패시브 유형의 ETF로 구성되어 있다.

로보3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산가격 예측을 활용한 로직이고, 이 예측 알고리즘에 최신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투자수익률이 높진 않지만, 매니저의 정성적 판단을 제외하고, 오로지 표준화된 방법론과 이를 구현한 프로그램만으로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1. 11. 08
대신자산운용, 대신 해드림 로보 TDF 출시

2021년 12월 대신자산운용은 기존 5그룹 9본부를 6그룹 10본부로 재편해 채권운용그룹과 대안투자2본부를 신설했다. 채권과 대체투자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직개편을 통해 단기금융, 멀티전략, 대안투자를 강화해 수탁고와 수익성을 모두 갖춘 운용사로 거듭난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신프라퍼티의 주요 성과

대신프라퍼티는 2021년 나인원한남의 일반 세대 분양 전환을 마무리했고, 펜트하우스 세대 분양전환도 진행했다. 춘천 온의지구 사업도 마무리하고, 403강남 오피스 개발 등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신프라퍼티는 2021년 나인원한남의 일반 세대 분양 전환을 마무리해 4,451억 원의 세전이익을 기록했다. 2022년은 펜트하우스 세대 분양 전환을 통해 940억 원, 한남동 유휴부지 매각으로 86억 원 등 총 1,026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 춘천 온의지구 사업으로 기록한 970억 원까지 합쳐, 대신프라퍼티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2건을 통해 약 6,447억 원의 세전이익을 거두었다.

한편, 2022년 6월 디에스한남은 사명을 대신프라퍼티Daishin Property로 변경했다. 대신프라퍼티는 나인원한남 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본과 경험, 가치, 전문성 등을 기반으로 사업 확대와 더불어 각 계열사가 부동산 관련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면에 나서 활동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대신프라퍼티는 국내외 부동산 소싱부터 개발, 투자, 운영, 관리, 매각까지 부동산 비즈니스의 전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춘천 온의지구

"대신프라퍼티는 NFT와 블록체인을 부동산과 접목시키는 등 기존 금융산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부동산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 신성장 동력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그룹 차원에서 부동산 비즈니스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시장 상황에 빠르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력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 이득원 프라퍼티 대표이사

순이익 대폭 증가, 대신프라이빗에쿼티

사모투자전문운용사인 대신프라이빗에쿼티는 지난 2014년 대신증권에서 분사해 대신증권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사모펀드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그로스캐피탈, 기업인수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 지분 매입, 경영권 참여 등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진행해 수익을 창출해왔다.

대신프라이빗에쿼티는 2021년 당기순이익 13억 8,000만 원을 시현했다. 2020년 당기순이익 6억 6,000만 원과 비교하면 209% 증가한 수준이다. 대신프라이빗에쿼티의 자산은 2020년 3월 말 132억 5,829만 원에서 2021년 3월 말 145억 2,565억 원으로 9% 증가했다.

대신프라이빗에쿼티는 업력 8년에 직원 수 10명 남짓한 규모지만 준수한 실적 흐름을 이어가고자 활발한 투자 활동에 나섰다. 2021년 초에는 2차전지용 양극재를 생산하는 엘앤에프가 발행한 1,000억 원 규모의 메자닌증권을 모두 인수했다. 배터리시장의 성장성을 눈여겨보고 할증을 붙이는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딜을 성사시켰던 것이다.

2021년 8월에는 중국 지리자동차의 전기자동차 브랜드 폴스타에 투자를 결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폴스타가 발행할 예정인 전환사채CB를 대신피에스모빌리티 PEF를 통해 투자했다.

바이오 비즈니스, 탠덤이 거둔 값진 첫 결실

탠덤은 2016년 설립되어 수년간 다양한 바이오 비즈니스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속적인 바이오 비즈니스 사업을 추진하며, 많은 연구자들과 신뢰를 쌓아온 탠덤은 2022년 5월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었다.

2022년 5월 27일 탠덤 내 파이프라인 가운데 하나인 항암제 개발회사 파로스젠이 경보제약과 서울 충정로 종근당빌딩에서 표적항암제 MPD-1의 공정개발과 위탁생산CDMO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파로스젠 이득원 대표와 MPD-1개발자인 김상윤 서울아산병원 박사, 변영로 서울대 약대 교수, 육순홍 고려대 약대 교수, 김태영 경보제약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계약으로 경보제약은 표적항암제 MPD-1의 임상을 위한 시료를 생산해 파로스젠에

2022. 05. 27
파로스젠-경보제약 표적항암제
MPD-1 CDMO 체결

공급하게 되었다. 파로스젠은 경보제약이 생산한 임상시료를 활용해 새로운 기전의 바이오마커 표적항암제 개발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MPD-1은 암세포가 사멸할 때 방출하는 효소를 이용해 주변 암세포까지 사멸시키는 증폭 특성을 갖고 있는 펩타이드 약물 복합체 PDC, Peptide Drug Conjugate로 반감기가 연장돼 약효가 오래 지속되고 독성을 낮추도록 설계된 약물이다.

MPD-1은 KRAS유전자 변이의 모든 유형과 PTEN 유전자 결손을 표적화한 세계 최초 항암제로 단독요법과 병용요법 시험에서 MPD-1 효능이 확인돼 약물 개발에 성공한다면 항암제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바이오 비즈니스는 장기간에 걸친 자금, 회계관리와 연구관리, 지속적인 리서치와 위험 예측, 사업을 추진하는 인내와 끈기가 요구됩니다. 더불어 연구자와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통해 신뢰관계의 구축에도 힘써야 합니다. 앞으로도 탠덤은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바이오 비즈니스의 성과를 꾸준히 이어갈 것입니다." - 한철희 탠덤 이사

대신금융그룹은 수익다각화 전략을 세우고 증권, 자산운용, 프라이빗에쿼티 등 금융부문과 에프앤아이, 자산신탁 등 부동산부문이 긴밀하게 협력해 다양한 시너지를 만들어 내고, 각 사업 분야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더욱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3절 금융사고의 영향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금융사고의 현황

2000년대 금융사고의 원인과 파장

구분	규제완화	부작용
신용카드 사태	소비 진작을 위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 1999. 05 : 현금서비스 이용한도(월 70만 원)폐지 ‣ 2001. 08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0→20% 공제제도 강화	과도한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양산, 카드채 사태 양산 ‣ 2002. 02 기재부 '신용불량자 양산에 따른 대책' 마련 ‣ 2003. 01 개인신용불량자 수 2002년 11월 기준 257만 명 집계 ‣ 2003. 03 신용불량자 개인파산, 신용카드사 자금조달 어려움 겹치며 시장불안 확산
저축은행 사태	저축은행의 서민, 지역금융기관 역할 수행 유도 ‣ 2006. 04 우량저축은행에 한해 개인여신한도 증액 및 법인 여신 한도 면제 ‣ 2007. 11 여신전문 출장소 개설 기준 완화 등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리먼사태 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저축은행 PF대출 연체액 증가 ‣ 2008~2009 부실 PF 대출 약 1조 7,000억 원 분리매각,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부동산 PF 부실 악화 ‣ 삼화저축은행,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등 총 8개 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영업정지 ‣ 2011~2013 29개 저축은행 구조조정
사모펀드 사태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 ‣ 2015. 10 환매대응목적 펀드 자전거래 기간 제한 요건 폐지, 사모펀드 설립절차 사후보고 및 보고내용 축소, 사모펀드 운용전문 인력 요건 완화 등 사모펀드 규제 완화	사모펀드 대규모 상환, 환매연기로 인한 펀드 가입자 금전 피해 ‣ 2019. 10 라임자산운용, 1조 6,700억 원 규모 펀드 상환, 환매연기 ‣ 2020. 06 옵티머스자산운용, 3,042억 원 규모 만기도래 펀드 상환연기

1990년대 이후 2010년대, 2020년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하고, 그때마다 통과의례처럼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금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사고건수는 2017년 166건, 2018년 146건, 2019년 141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사고금액은 2017년 1,331억 원, 2018년 1,296억 원, 2019년 3,108억 원으로 증가했다.

라임 사태

라임 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사인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4개, 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중단[2]을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대신증권은 2015년 12월 라임이 전문사모운용사로 등록한 이후부터 펀드거래를 시작했

[2] 환매중단은 투자자가 투자한 자산을 회수하려고 해도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다. 라임펀드 가운데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운용사로부터 제안을 받아 판매거래했고, 메자닌과 사모사채 등의 국내펀드는 영업점 판매요청으로 이루어졌다.

2019년 7월 23일 한국경제신문에 라임 수익률 돌려막기에 대한 내용이 최초로 보도되었다. 이 보도 직후 대신증권은 바로 투자자 안내 및 환매유도를 통해 2019년 8월 20일 약 152억 3,000만 원을 환매주문했다. 이어 추가 투자자 안내와 환매유도를 통해 2019년 9월 20일 약 42억 9,000만 원 환매주문했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중단을 선언하면서 같은 해 9월 30일 기관용펀드 사모사채, 메자닌펀드 환매연기 조치되었다. 이어 10월 10일 리테일펀드 사모사채, 메자닌펀드의 환매연기 조치와 10월 14일 무역금융펀드 환매연기 조치 등이 이루어졌다. 2019년 9월 30일 기준 환매중단 규모는 1조 7,223억 좌였다.

대신증권의 투자자 보호계획과 보상

금감원 조사결과 대신증권의 경우 회사의 방침과 다르게 장 모 전 반포WM센터장이 자체 작성한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불완전판매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증권은 2019년 10월 이후 펀드환매 연기가 장기화되면서 라임펀드 가입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 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2020년 6월 내놓았고, 2021년 8월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권고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도 전격 수용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최대 80% 수준의 배상비율은 기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손해배상비율로는 라임 무역펀드를 제외하고 최고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분조위는 2021년 7월 환매중단된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투자자 1명에게 손실액의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펀드에 투자한 나머지 고객에 대해서도 개인 40~80%, 법인 30~80% 비율로 자율 조정하여 배상할 것을 권고했으며, 투자자별로 가감하여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대신증권은 최대 80%까지 배상하라는 권고에 따라 2021년 8월 9일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높은 수준의 배상비율에도 불구하고, 대신증권은 빠른 신뢰회복과 고객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을 전격 결정했다.

1) 판매관련 조사 및 조치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됨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장 모 전 센터장은 검찰조사 및 재판 과정을 거쳐 2021년 5월 27일 징역 2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2021년 11월 1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1조 6,0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증권사 3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 일부 업무 중지와 영업점 폐쇄 결정을 내렸다. 대신증권은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반포WM센터'를 폐쇄하고 직원 면직 상당의 조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17일자로 반포WM센터는 압구정WM센터로 통·폐합되었다.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감독원 결과 및 재판결과에 따라 관련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로 했다.

2)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제 정비

대신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 및 상품관련 내부통제 강화 차원에서 CCO선임 및 상품내부통제부를 신설, 상품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상품판매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하고, 상품 출시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의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또한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통한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금융감독원 분조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투자자가 조정안을 수락했다. 대신증권과 신청인 양측의 조정안 수용으로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은 일단락되며 마무리 국면에 서 있다. 대신증권은 향후 금융상품 사고 재발을 막고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리테일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한 모든 금융상품을 점검하고 전반적인 영업문화를 개선하고 있다. 2020년 7월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총괄(CCO)을 선임하고, 금융소비자보호부에 추가로 상품내부통제부를 신설했다. 상품내부통제부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 소속부서로 금융상품의 도입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 과정에 대해 관리, 감독한다. 투자자보호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상품 도입단계에서 상품내부통제부가 판매를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했다. 안전한 상품 공급에 주력하기 위해 운용사 등급 기준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판매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슈가 발생하면 가입고객에게 해당 펀드에 발생한 이슈를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금융소비자인 고객과 함께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더 나은 금융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 10월 민원관리시스템을 개편해 '대신민원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VOC시스템과 민원관리시스템을 통합한 대신민원관리시스템은 민원처리와 구제절차,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방문, 전화, 서신, 팩스, 전자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접수채널로 제기된 민원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담당부서에 배정되어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해소하고, 처리결과와 진행상황을 금융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한다. 분석 결과는 상품기획과

2021. 12. 17
반포WM센터 폐점

2019. 11. 19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객간담회

개발, 업무 및 제도 개선, 고객서비스 등에 반영되도록 관련 부서들과 공유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서비스의 문제점을 바라보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2020년 4월 '2020 고객패널'을 모집하고, 이어 2021년 4월에도 '2021 고객패널'을 모집했다. 온라인 패널은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모든 고객이 지원할 수 있게 함에 따라 대상을 폭넓게 확대했고, 오프라인 패널은 정기모임 및 발표회 참석이 가능한 고객으로 하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거래를 하면서 느낀 불편사항과 금융제도 개선 등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을 모아 상품기획 및 개발 단계에서 상품판매, 사후관리, 제반 금융서비스까지 전 영역에 걸쳐 반영하고 있다.

한편, 대신증권은 2020년 11월 11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신뢰성과 보안시스템 안정성에 대해 금융보안원이 주관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받았다. 국가공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것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강도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 강화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였다.

금융보안원의 ISMS-P 인증을 받은 기업은 금융투자업계에서 대신증권이 최초였다. ISMS-P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은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 금융권 최고 수준의 인증제도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수립, 관리, 법규 및 지침 준수, 운영까지 일련의 활동이 국가공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선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운영16개,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22개 등 총 102개 인증 기준 아래 384개 세부 통제항목에 대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2014년 정보통신망서비스의 안정성을 인정받아 ISMS 인증을 획득한 바 있는 대신증권은 ISMS-P 인증으로 한층 강화된 보안 수준을 인정받게 되었다.

4절 차별성과 전문성으로 업계 선도

역대 최고의 실적 달성

대신금융그룹은 사업부문별 구조적인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에 따라 각 계열사별 본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전략 방향에 맞는 수익사업 발굴에 힘써 왔다.

대신금융그룹의 2020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3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0% 증가했다. 자기자본 상위 10개 증권사 중 2020년 가장 높은 영업이익 상승률을 기록했다.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와 함께 수익성을 강화한 전략이 가져온 성과였다. 당기순이익은 1,470억 원으로 56.4% 늘었다.

이러한 성장의 흐름은 계속 이어져 대신금융그룹은 2021년 역대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 2021년 영업수익은 3조 6,353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26.8% 성장한 수치이다. 영업이익은 8,8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0% 증가했고, 2021년 연간 당기순이익도 6,15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20%나 증가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의 가장 큰 요인은 계열사의 성장과 IB 실적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외부적으로는 주식시장의 호황이라는 시장 환경이 뒷받침이 되었고, 내부적으로는 대신금융그룹의 여러 계열사들이 융합하면서 함께 일구어낸 결과이다.

대신증권은 2019년 총 6개 사, 금액기준 2,696억 원의 기업공개IPO를 성공시켜 IPO부문 리그테이블 3위를 기록하면서 IPO부문 강자로 발돋움 했다. 2020년은 대형사들이 독식하는 시장 환경에서 IPO 주관순위 1,203억 원으로 12위, 규모가 큰 상장이 많이 이루어진 2021년에

2021.~2022.
IPO 관련 수상

는 7,569억 원으로 IPO 주관순위 9위를 기록했다. 특히 2021년 카카오페이 등 굵직한 기업공개 IPO 를 주관하며 전년 대비 80% 넘는 수익을 거둔 IB부문은 전 사업부문 실적 증가에 따라 4분기에만 전년 대비 85.2% 증가한 400억 원을 달성했다. 자산관리WM와 트레이딩부문도 각각 34.7%, 25.8% 성장하며, IB부문 수익성을 개선했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문은 세전이익 기준 2019년 340억 원, 2020년 223억 원, 2021년 492억 원을 달성했다. 이처럼 프로젝트 파이낸싱 실적까지 상승하며 2021년 기업금융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8.7% 늘어난 737억 원을 기록했다. IB부문은 2022년 5월 현재 1,457억 원으로 IPO 주관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대기업 계열사의 IPO에 주관사 참여를 통해 IPO부문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신에프앤아이는 자회사 디에스한남의 '나인원한남' 분양 사업을 통해 연결기준 6,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며 흑자전환했다. 대신에프앤아이의 2021년 4분기 말 누적 기준 영업수익은 9,619억 원으로 전년 동기3,218억 원 대비 198.9% 늘어났다. 나인원한남 사업 분양을 마치고, 수익이 반영된 결과다.

한편, 2019년 12월 대신증권 나재철 대표이사가 한국금융투자협회장에 선출됨에 따라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했다. 나재철 대표이사는 1985년 대신증권 공채 12기로 입사하고, 2012년 5월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여 2019년 12월까지 8년 넘게 재임하면서 대신파이낸셜그룹 60년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변화의 시기에 회사를 이끈 최장수 CEO로 기록된다.

대신증권은 그 후임으로 2019년 12월 27일 오익근 부사장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선

2019. 12. 30
나재철 대표이사 퇴임식

2020. 03. 20
제59기 정기주주총회

대신금융그룹 2019~2021 사업성과

IFRS 기준, 대신저축은행 K-GAAP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FY2019	FY2020	FY2021
대신증권	순영업수익	브로커리지	1,438	3,336	3,342
		국내주식	1,218	3,008	2,915
		해외주식	91	226	272
		이자수익	548	575	695
		자산관리	265	262	353
		펀드보수	181	144	170
		Warp, 신탁 등 보수	84	118	183
		Trading	831	592	744
		IB	746	709	1,288
		인수주선수수료	164	162	317
		금융자문수수료	164	133	451
		지급보증료	419	414	521
		기타	105	(32)	57
	영업외 이익	임대료 수익	214	218	198
대신증권	세전이익		1,179	2,360	2,458
대신에프앤아이			129	(116)	6,089
대신저축은행			237	237	339
대신자산운용			56	33	128
대신자산신탁			(23)	7	53
대신프라이빗에쿼티			8	8	18
대신경제연구소			(2)	(5)	(25)
기타 연결 조정			(294)	(331)	(387)
대신증권 연결 세전이익			1,291	2,194	8,673

임했다. 오익근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2020년 3월 20일 제5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에 선임되었으며, 이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오익근 대표는 1987년 대신증권에 공채로 입사했으며,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대신저축은행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업계 10위권의 우량 저축은행으로 성장시킨 재무·금융 전문가다.

대체투자 비즈니스의 역량 강화

대신금융그룹은 회사와 고객자산 포트폴리오에 변동성이 작고, 유동성이 높은 글로벌 우량자산의 비중을 높여 안정성을 제고해 나아갔다. 리테일 금융자산은 하임펀드 등 대체투자상품 판매와 리테일 채권판매 영업을 통해 2019년에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12조 원을 기록했다. 수익성과 만기 환급성이 높은 안정적인 국내 부동산PF 대출펀드나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선진국 오피스 중심의 글로벌 부동산 상품을 소싱하고, 공급함으로써 얻은 성과였다. 리테일 금융

대체투자 펀드 누적실적 (단위 : 개, 억 원)

2021년 12월 기준

구분	지역	펀드 수	설정금액
담보대출	국내	7	1,940
PF대출	국내	126	16,723
	국내	20	3,134
Equity	해외	48	8,418
	소계	68	11,553
계		201	30,215

일본 도쿄 시나가와구 오피스 빌딩

자산은 2020년 12조 2,000억 원, 2021년 14조 3,000억 원, 2022년 3월 말 기준 14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리츠 및 부동산 등 대체투자부문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차별화된 WM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사업분야의 경쟁력 향상에도 역량을 기울였다. 우선 고객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우수한 금융상품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그룹 차원의 상품 공급체계를 새롭게 혁신해 WM영업을 강화해 나아갔다. 또한 철저한 리스크 점검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상품을 중심으로 상품라인업을 구성하고 상품마케팅도 회사의 이익보다는 고객들의 이익을 우선시해 이루어지고 있다. 고객의 연령, 목적 등 세부사항과 자금의 성격에 따라 정기예금신탁, 머니마켓랩MMW과 같은 초저위험 상품부터 국내외 주식, 자문사 일임연계상품과 같은 초고위험 상품까지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꾸렸다.

이러한 노력은 계열사에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대신자산운용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에 대비해 리스크를 줄인 대체투자상품 공급을 확대했다. 현지에서 직접 우량한 해외투자자산을 발굴해 국내 투자자에게 공급하는 한편, 국내외 유망대체투자 상품을 소싱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2019년 5월에는 대신자산운용이 일본 도쿄 시나가와구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에 투자해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800억 원 규모의 해외부동산 공모형펀드를 완판시키기도 했다. 2020년 6월 글로벌 상장리츠에 주로 투자하는 첫 공모펀드로 '대신글로벌리츠재간접펀드'를 선보이기도 했다.

대체투자부문은 펀드 규모 대비 손익 기여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부동산 부문에 있어 소싱-운용-사후관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신자산운용만의 차별화된 역량을 기반으로, 리테일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에게도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대신금융그룹은 리츠와 대체투자부문에서 업계 정상을 향한 도약의 원년으로 정했다. 대체투자 비즈니스를 위해 그룹 차원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계열사의 부동산 역량을 활용한 금융-부동산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선보이며 '리츠 및 대체투자 넘버원 전문하우스'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

차원이 다른 자산관리서비스, '나인원 프라이빗 라운지'

나인원 프라이빗 라운지는 대신금융그룹만의 차별화된 자산관리서비스로 꼽힌다. 나인원 프라이빗 라운지부문은 UHNW의 자산관리와 마케팅 지원 등을 담당하기 위해 2019년 조직개편을 통해 탄생했다.

나인원 프라이빗 라운지의 핵심은 세무·부동산 등을 포함한 차별화된 자산관리서비스를 꼽을 수 있다.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2021년 6월부터 이루어졌다. 나인원한남 입주민을 1차 목표로 UHNW 대상 금융과 부동산의 융합서비스를 시작했다. UHNW를 대상으로 금융과 부동산 융합서비스, 법률과 세무 등을 고려한 1:1 종합자산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 WM센터와는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로 상속, 증여, 가업승계, 유언대용신탁 등 자산가들의 모든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나인원 프라이빗 라운지에서는 UHNW의 상황에 맞는 부동산컨설팅을 제공하는데 단순 자문이 아니라, 매입·매각·개발 등 고객의 모든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직접 실행까지 서비스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그룹 계열사 부동산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인 점이 타사와 차별화되는 경쟁력입니다." - 이순남 증권 프라이빗부문장

한편, 나인원 프라이빗 라운지 오픈을 위해 '워킹그룹'이라는 프로젝트가 먼저 시행되었다. 그룹 내 최고 전문가들을 선발하여 약 1년간 트레이닝을 하는 프로젝트였다. UHNW를 대상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코칭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보다 숙련된 금융, 부동산, 세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고객 응대를 하고 있다.

UHNW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및 부동산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점포인 나인원 프라이빗 라운지는 한남동 대표 고급 주거단지인 나인원한남의 근린생활시설로 입점해 있다. 지하층이기 때문에 채광이 없는 단점과 특화 프로그램에 비해 크지 않은 면적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히 인테리어에 공을 들였다.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고객을 고려해 100% 예약제로 운영되고, 일반 점포의 오픈된 업무창구를 없앴다. 또한 개별룸에서 상담과 금융업무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에 적합한 공간을 구성했다.

지하공간이라는 단점을 상쇄하기 위해 높은 층고를 이용한 계획을 하고, 비정형적이고 아트적인 요소를 적용하여 갤러리 콘셉트를 구현했다. 입구홀에서 상담실로 이어지는 복도공간은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곳곳에 설치미술품을 두어서 금융점포가 아닌 갤러리에 온 느낌을 받게 했다. 고가의 미술품이 아닌 돌, 조명, 빈티지 등과 같은 소품들이지만 인테리어공간과 잘 어울리는 구성으로 충분히 감성적인 울림을 줄 수 있게 내부를 단장했다.

특히 복도공간은 높이와 방향성과 소재가 다른 가벽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서로 마주칠 가능성을 낮추었다. 이러한 구조는 공간이 한 번에 파악되지 않아 궁금증을 유발하여 재방문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3개의 상담실은 동양, 서양으로 확실한 콘셉트와 분위기

나인원 프라이빗 라운지 현판

나인원 프라이빗 라운지 복도공간

나인원 프라이빗 라운지 상담공간

로 다양한 취향의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게 했으며, 실제로 고객마다 선호하는 룸으로 재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콘셉트에 맞추어 동서양의 유명한 디자이너가 제작한 오리지널 가구를 설치해 품격을 높였다.

고객공간과 직원공간을 포함한 전체 면적은 423㎡이며, 직원공간과 고객공간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 고객공간은 리셉션, 대기공간, 상담실 3개, 다목적 사용을 위한 20인실 멀티룸, 대여금고 등으로 구성되었다. 직원공간은 업무직원 공간, 영업직원 공간, 탕비실, 문서고, 기계실, 탈의실이 마련되어 있다.

대신금융그룹 위례 대신연수원

대신금융그룹은 2019년 8월 서울 송파구 위례 신도시에 새로 전산센터와 연수원 등을 준공, 이전했다. 위례신도시 교육연구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전산센터, 연수원, 그리고 교육 및 연구 서비스를 위한 학원동을 건축했다. 위례 교육연구시설 부지 내 대지면적 5,599.00㎡, 연면적 2만 68.32㎡ 규모로 지어진 대신 위례센터는 그룹 연수원과 증권 전산센터, 임대용 학원동 등 3개동지하 2층, 지상5층으로 지어졌다.

대신 위례센터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2019년 7월말 준공했다. 전산센터는 광명전산센터와 본사 IT인력 등이 8월 15일까지 이전을 완료해 16일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

한편, 1994년 양재봉 창업자가 전남대학교 교수였던 조각가 김행신에게 의뢰해 만든 여의도의 첫 황소상이라는 상징성으로 여의도 대표 명물로 꼽혀온 황소상, 황우는 위례연수원 앞에 설치되었다.

대신증권이 1990년부터 연수원으로 사용해온 서울 대림동에 위치한 대신연수원은 2020년 5월 500억 원에 매각했다. 대림동 대신연수원은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연수원 시설뿐만 아니라 1층에 대신증권 대림동지점도 입점해 있었으며, 대신금융그룹의 임직원들 연수와 수많은 TFT의 캠프로 활용되면서 대신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대신금융그룹의 위례연수원 시설은 2016년 12월부터 기본 설계를 시작해 2017년 착공 후 2019년 준공되었다. 위례연수원의 2층은 대신금융그룹의 본사인 명동의 대신파이낸스센터와 마찬가지로 그룹 임직원들의 일하는 방식과 업무 스타일은 물론 협업의 중요성을 반영해 설계되었다. 개인이 집중해야 할 때 찾는 몰입 공간과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 일하는 공간을 구분하여 직원들이 자신의 컨디션과 업무 상황에 맞는 사무공간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밝고 편안한 분위기의 디자인으로 공간을 채웠다. 적절한 색 배치를 통해 회의 집중도와 창의성은 물론, 회의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창의적 사고를 도와주는 노란색이나 논리

위례 대신연수원 앞에 이전 설치된 황소상

2022. 04.
대신 위례센터

력, 통찰력을 북돋아 주는 파란색을 배치했다. 또한 부드러운 소파, 이동성 높은 커뮤니케이션 가구를 배치하여 활기찬 분위기를 유도했다. 능률적 협업을 위한 도구도 마련했다. 여럿이 함께 하는 아이디어 발산, 교환, 의견 수렴에 사용될 전체 화이트보드 벽, 자유롭게 배치가 가능한 마름모꼴 모양의 책상, 보관과 이동이 쉬워 빠르게 레이아웃 가능한 유연성 높은 가구 등이 그 예이다.

위례 대신연수원
회의실 / TFT룸
1, 2층 직원 휴게공간

"중소규모의 회의실도 확충했습니다. 소수 실무 인력이 모여 진행할 수 있는 중소규모 공간을 늘린 것인데 회의 공간/OA실의 공용사용으로 TFT룸 사이즈는 줄이고 개수는 늘렸습니다." - 박종호 증권 역량개발팀장

집중력과 몰입도를 높이고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는 공용 회의실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어메니티형 회의공간, 다양한 사내구성원의 성향을 반영하여 구성한 캐주얼 회의공간 등으로 구분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과 휴식, 각각의 요소들의 융합도 시도했다.

한편, 2021년 12월 20일에는 위례WM센터를 개점했다. 위례신도시에 들어서는 첫 증권사 점포로,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로 증권사들의 지점 통·폐합이 빈번한 와중에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어룡 대신금융그룹 회장과 대신증권 임직원들이 위례WM센터 개점행사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했다. 대신증권 위례WM센터는 위례신도시에 입점하는 1호 증권사 지점이다. 위례신도시에는 현재 4만 이상의 가구,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위례WM센터는 위례지역에서 금융상품, 부동산, 세무, 연금 등 금융활동 전반에 걸친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2021. 12. 20
위례WM센터 개점

5절 전환의 시대, 특화된 고객 가치 경영

디지털 금융으로 미래 선점

디지털금융기술 대중화 시대에 금융회사들은 전사 차원의 디지털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디지털과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미래 주역인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포석이다. 대신증권도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차별적인 고객가치 제공'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으로 분류되는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나아가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고객에게 편리한 금융플랫폼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MZ세대를 타깃으로 대신증권은 '국내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오픈했다. 대신증권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과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휴대폰 번호와 이름만 입력하면 보유하고 있던 국내주식을 지인에게 선물할 수 있다.

대신증권은 디지털 금융과 패시브 시장의 성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ETF 인덱스펀드 같은 패시브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룹의 금융 IT역량을 집약시켜 자체 개발한 '대신 로보어드바이저' 상품은 국내외 ETF에 자산배분전략을 활용해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인간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100% 알고리즘을 활용해 금융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운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운용보수도 제로다.

온라인 고객을 위한 '프라임서비스'도 선보였다. 프라임서비스는 각종 투자정보를 동영상 등 각종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 제공하며, 프라임 어드바이저가 온라인과 유선을 통해 1:1 맞춤 투자상담과 추천 종목 및 금융상품 등을 제시해 주는 서비스다. 주식, 펀드, ELS, 채권, 금융상품 전문가들이 프라임 어드바이저로 활동한다.

한편, 대신증권의 AI 금융챗봇 '벤자민'이 받은 고객 질문이 2020년 2월 26일 100만 건을 돌파했다. 답변 영역을 세분화하고 고도화하여 답변 정확도와 고객 편의성을 높인 인공지능 금융전문 로봇 '벤자민'은 고객 질의 100만 건을 소화함에 따라 업무사원에서 대리로 승진했다.

"챗봇 벤자민 대리의 서비스는 주식 활황장과 코로나 속에 더욱 이용량이 급증했습니다. 벤자민이 2020년 한 해 동안 처리한 문의는 총 44만 건이 넘었습니다. 2020년 3월 이후로 펼쳐진 활황장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문의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 김상원 증권 디지털부문장

국내주식 선물하기 홍보 포스터

대신증권 AI 금융챗봇 '벤자민'

2021년 1월 한 달 동안 챗봇 벤자민 대리를 통한 문의가 5만 3,000건을 돌파하며 월간 역대 최대 문의 건수를 기록했다. 2021년 기준 2,000여 개 이상의 영역에 대해 답변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한 벤자민은 공모주 청약, 신용대출 등 업무부터 고객별 맞춤주식종목 및 투자상품 추천까지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다.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 기능 특허

기술 혁신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는 인터렉션을 위한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직관적인 유저 인터페이스이하, UI와 사용자 경험이하, UX 중심의 디자인을 위해 노력해온 대신증권은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의 터치 제스처 가로화면 전환 기능을 특허 출원했다. 대신증권은 2019년 3월 19일, 모바일 UX 터치 제스처 인터페이스를 통해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 화면을 자유롭게 가로 세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신규로 특허 등록했다. 이 특허 기술은 화면에서 손가락 터치를 통해 회전하는 동작을 취하면 스마트폰 화면의 방향이 변환되는 기술이다. 이 기능은 대신증권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인 '사이보스 터치'와 '크레온 모바일'에서 활용된다.

2020년 5월에는 사용자 친화적이고 직관적으로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 화면을 통합하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해 사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인 2020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 개선작업을 완료했다.

"고객 편의를 위해 복잡했던 프로세스를 줄이고 중복되는 화면과 기능을 통합해 간소화했습니다. 특히 계좌개설, 국내외 주식거래, 금융상품, 뱅킹 등 금융서비스 업무를 제공하는 화면을 직관적이고 간결하게 개선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체 메뉴의 배치입니다." - 채일식 증권 UX팀장

변경된 '세로' 배치는 하단메뉴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쉽게 구성했다. 자주 보는 화면에 대한 고객 접근성을 높인 '최근사용' 메뉴도 추가했다. 비대면 계좌개설, 상품계좌개설 등 고객 가입 절차도 줄였고, 신규 계좌개설 시 해외주식 추가약관 동의 화면을 기존 약관 화면과 통합했다. 해외주식 관련 '양도세 조회화면'과 '손익 조회화면'도

2019. 03. 19
대신증권, MTS 가로 세로 전환화면 특허 출원

추가했다.

대신증권 마이데이터서비스 준비

대신증권은 특화된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편의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마이데이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업권별 특성에 따라 자산의 상세한 내역을 제공하는 통합조회 열람서비스, 고객이 보유한 대출정보를 활용해 타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더 나은 조건의 대환대출 정보를 제공하는 신용대출 비교추천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보유 자산을 자산군별로 분석하고, 현재의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제시하여 기대수익률을 높이거나 위험을 줄이는 포트폴리오 제안까지 가능한 투자포트폴리오 어드바이징 서비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대신증권은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대신증권의 특화 분야인 부동산 금융에 증권형토큰을 접목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2] 시장의 현황과 전망 등을 폭넓게 살피며 토큰 거래 플랫폼과의 협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맵플러스 제공 양해각서 체결

대신증권은 2020년 4월 2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장준필 해외투자영업본부장과 두나무투자일임 김세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해외주식투자를 위한 제반 금융서비스를 '맵플러스MAPLUS'[3]에 제공하는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맵플러스를 운영하는 두나무투자일임은 해외투자상품 일임운용을 담당하고 대신증권은 계좌개설, 해외주식 주문체결 등 제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사업협력을 통해 양사는 해외주식투자 일임시장 전반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향후 디지털 자산관리 영역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020. 04. 27
두나무투자일임과 해외주식 투자서비스 MOU 체결

[2] STO는 부동산·주식·채권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암호화폐를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3] 맵플러스(MAPLUS)는 투자 전문가와 개인 투자자를 연결하는 투자일임서비스 플랫폼이다. 비대면으로 실시간 투자일임 계약할 수 있고, 유수 대형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의 투자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투자 가이드북 발간

2020년 이후 대신증권은 폭넓은 주제와 이슈에 대한 리서치 범위를 넓히고 회사 및 고객,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지침서를 발간해왔다.

미국 1등 기업을 분석한 투자지침서 〈나침반, 미국 1등 기업〉2020년 3월 9일 발간은 애플, 알파벳, JP모건 등 산업별로 변화를 주도한 14개 1등 기업을 제시한다. 특히 최근 5년 실적 개선 여부, 산업 내 높은 시장지배력, 차별화된 경쟁력과 미래 혁신성 등의 내용을 담아 투자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였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투자지침서도 선보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기 및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이해하고 향후 흐름까지 살펴볼 수 있는 〈Post 코로나19〉2020년 5월 25일 책자를 발간했다.

〈공모주 투자 101 : 저금리 시대의 중수익 아이템〉2021년 5월 12일은 공모주의 개념부터 투자 방법, 상장 예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코로나19 전후 자동화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유망 분야와 기업들을 소개한 〈After 코로나19, 자동화의 Rising Star를 찾아서〉2021년 6월 29일를 발간하고, 이어 국제조세 체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분석한 〈디지털 디카본 Tax Revolution〉2021년 7월 13일도 선보였다. 바이든 정부 이후 급진전된 글로벌 디지털세 논의와 유럽 그린딜에 따른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논의의 배경, 이슈, 전망, 시사점을 정리한 것이다.

〈미국 선밸트 마켓에 주목해야할 때〉2021년 8월 21일는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을 분석했다. 수소 경제 성장에 따라 수소 운송을 위한 원거리 수단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암모니아를 심층 분석한 〈암모니아, 다시 인류를 구할까?〉2021년 9월 15일도 선보였다. 〈금융안정과 주택시장〉2021년 10월 20일은 통화당국의 정책 기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다가올 10년에 구조적이고 도약적인 산업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Next, 메가트렌드〉2021년 11월 25일도 선보였다. 자료에서는 지능화, 무인화, 가상화가 4차 산업혁명의 완성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AI, 양자컴퓨팅, 모빌리티, 로봇산업, 메타버스 등을 유망 산업으로 분류했다.

2020. 05. 25
〈Post 코로나19〉 책자

2021.
다양한 투자가이드북 발간

메타버스가 새롭게 구축하는 경제 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NFT와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해 분석한 〈메타노믹스, 21세기 Ver.르네상스〉2021년 12월 3일 책자도 선보였다.

〈데이터센터 패러다임의 변화〉2021년 12월 16일는 4차산업 시대 도래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시장을 분석했다. 자료에서는 IOT와 신기술 보편화로 빠른 데이터 속도가 요구되고 있고 IT/클라우드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데이터센터의 주요 성장 요인을 점검하고 산업 내 경쟁력을 보유한 리츠를 제시했다.

탄소규제 메가트렌드 속에서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구조적 성장의 초입 국면에 있는 2차전지 산업을 심층 분석한 〈2차전지, 구조적 성장〉2022년 3월 29일을 발간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맞이한 일본이 본격적인 축소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분석한 〈일본으로 본 축소 사회의 도시 모습〉2022년 4월 20일은 국가차원에서는 국토를 압축적으로 재편하고 도시에 있어서는 도쿄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부동산 정책을 통한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도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책자이다.

투자전략 라이브 방송

대신증권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투자전략을 대신증권 유튜브 채널인 '대신 밸런스뷰 Balance View'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2020년 3월 20일 오후 4시부터 40분간 유튜브를 활용해 '신종 코로나, 미국 증시 어디로?'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실시했다.

같은 해 7월에도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투자전략을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7월 23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를 활용해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실시했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를 비롯해 주요국 증시 방향과 대응전략에 대한 고객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한 라이브 방송이었다.

2020. 07. 23
유튜브 생방송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화'

대신증권은 투자정보 동영상과 온라인 투자세미나 등 디지털 콘텐츠를 추가하고, 투자상담서비스를 강화한 '프라임서비스'를 개선하여 2020년 11월 13일부터 오픈했다. 이 서비스는 비대면 문화 확산과 비대면 증권투자 증가를 반영하여 온라인 고객을 위한 자산관리서비스 강화 차원으로 마련되었다. '프라임서비스'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기업분석과 주식전망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보이는 주식정보'와 '온라인 투자세미나'를 라이브로 진행하는 등 투자정보를 제공한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프라임 PB가 주식, 금융상품 등에 대해 고객별 맞춤 상담도 진행한다.

금융을 친근하고 재미있게, 대신TV

'왜 금융은 딱딱하고 재미없을까. 친근하게 전달할 수는 없을까' 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으로 대신증권은 2019년 유튜브 채널 '대신TV'를 개설했다.

대신TV의 특징이라면, 이해하기 쉬운 정보성 콘텐츠와 전달력이다. 어렵고 재미없는 경제, 주식 정보를 실생활과 접목시켜 알기쉬운 설명을 하는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초보자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증권지식 전달 토크 '주.유.소주식을 유튜브로 소개합니다'는 세 명의 패널이 주식의 기초부터 심화과정까지 하나하나 알려준다. 일반인들이 쉽게 해석하지 못하는 증권사 리포트를 애널리스트들이 출연해 직접 쉽게 설명해주는 '종목탐구생활', '투자탐구생활'은 증권사 리포트라는 전문적 영역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었다.

특이한 콘셉트와 함께 지식을 전달하는 콘텐츠도 있다. 최근 경제이슈 사항을 증권사 다니는 친구가 식사자리에서 알려준다는 콘셉트의 '증권사 댕기는 친구'. 인공지능 AI와 사투리를 이용해서 MTS시스템과 기능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MTS팔도매뉴얼'이 그 예이다.

초기의 대신TV가 전문적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정보전달성에 집중했다면, 2022년 이후에는 콘텐츠의 다양성을 통해 대신증권만의 색깔을 가지는 정보성 콘텐츠를 기획한다.

2022년 신규코너 '이게머니'는 미처 알지 못했거나, 숨겨진 경제 역사 이야기를 가져와서 설명하는 '경제 다큐멘터리' 코너이다. '수요시장'은 수요일마다 '시장', '산업군'에 관련된 현장 및 회사를 직접 찾아가서 생생하고 디테일하게 산업군의 모습을 소개한다. '어려운 금융정보를 알기 쉽게'라는 모토를 가지고 콘텐츠의 다양함을 가져온 대신TV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대신TV(2008년 수준의 금융위기가 온다고? 이게 뭔 소리야!)

대신TV 증맹친(잠이 보약인 건 알겠는데 무슨 침대가 6,000만 원이 넘어?)

대신증권 내부에서 자체적인 기획, 촬영, 연출, 출연까지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기업이 외주를 맡기지만, 대신증권은 내용과 구성의 주도성을 높이는 인하우스 파워를 보유하고 있다.

6절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

대신금융그룹은 고품질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속도를 올리며 금융투자업계 내 상위권 입지를 굳게 다져가고 있다.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기업윤리 및 환경정책, 주주환원 정책 등이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신은 한국ESG기준원으로부터 2021년 ESG 통합 A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2등급 상승한 것으로, 우수한 지속가능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다.

특히, 사회부문은 A+등급으로 매우 우수한 사회책임경영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직원은 기업의 성장 기반이 되는 핵심 요소이자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이다. 대신증권은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인재를 채용하고 최적의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 더불어 지속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또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해왔다.

대신증권은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신아카데미를 운영해 증권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자격과 부가적인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3종증권, 펀드, 파생상품과 전문 자격인 투자자산운용사와 AFPK 등 5가지 금융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13개 강좌에 233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와 같은 국내 자격증과 CFP, CFA, 국제FRM과 같은 해외 전문자격증 등의 이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21년 1인당 교육시간은 23.42시간, 1인당 교육비는 48만 원이었다.

대신아카데미는 일상 업무와의 균형 유지와 교육의 전문성을 위하여 삼성 멀티캠퍼스, 패스트캠퍼스 등 유수의 IT 교육업체와 연계하여 IT부문·디지털부문에서 자체적으로 부문 상황과 필요에 따라 교육 진행이 가능하도록 IT 위탁 연수를 신설했다.

대신아카데미 IT 교육

01. 모바일 아카데미	02. DS 아카데미	03. 보안 아카데미	04. 클라우드 아카데미	05. S/W 아카데미
기획/UX/UI	데이터 수집	정보보호 일반	글로벌社	모델링 &
안드로이드	머신러닝 / 딥러닝	응용프로그램	공연교육	문제해결
아이폰	파이썬 / R기반	시스템 네트워크	기획	소프트웨어
크로스 플랫폼	분석	모의해킹, 포렌식	분석/설계	아키텍처
	NLP / 영상 / 시각화	기획 / 컨설팅 /	구축	알고리즘
	데이터 경영전략	법 / 감사		올바른 Java
	자격	자격		코딩습관

또한 대신증권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위한 육아지원 및 가족 돌봄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등의 제도가 운영 중이다. 정신적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되는 고객응대 직원을 위해 보호 조치도 마련되어 있다.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있으며, 고충처리 실무를 담당하는 고객응대 고충처리 위원회를 두어 감정노동 직원 보호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대신증권은 2021년 지배구조부문은 A등급을 받았다.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하여 개선됨이 확인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주 권리 보호, 위험관리, 감사기구 및 내부통제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금융투자업계 평균을 웃돌았다. 2021년에는 사외이사를 4명에서 5명으로 늘려 이사회

2021. 11. 08
정기이사회

를 중심으로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배구조를 강화했다. 다만, 환경경영에 있어서는 B등급을 받아 사회, 지배구조부문에 비해 다소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객과 사회에 더 투명하고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친환경, 사회공헌, 투명한 지배구조를 그룹 정책에 반영해 ESG 경영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 이어룡 대신금융그룹 회장, 2021년 6월 창립 59주년 기념행사

이날 기념식에서 대신증권 전 임직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을 위해 ESG 중심의 경영활동과 역량 강화를 다짐했다.

2022년 3월 1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안건이 통과되면서 대신증권은 24년 연속 현금 배당을 통해 주주친화경영을 이어가게 되었다.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30~40% 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함으로써 업계 최고 수준의 배당정책을 지속하고 주주님들에게 회사의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경영 실천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겠습니다." - 오익근 증권 대표이사

대신증권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배당과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을 해왔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실시한 누적 현금배당금 규모가 1조 원이 넘는다. 배당성향 면에서도 다른 대형사를 압도한다. 대신증권의 2020년 회계연도 배당성향은 별도 실적 기준 47.2%다. 기존의 배당성향 가이드 라인인 30~40% 수준보다 다소 늘어났다. 2020년 2배 가까이 늘어난 당기순이익을 반영했다. 대신증권은 2021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데 힘입어 보통주 1주당 1,400원, 우선주 1주당 1,450원을 지급하는 등 총 944억 원을 현금 배당했다. 특히 라임자산운용 관련 충당금 이슈로 인해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충당금을 반영해 배당성향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배당성향은 52.8%별도 실적 기준까지 치솟았다. 아울러 대신증권은 2022년 4월 26일까지 보통주 150만 주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했다. 취득 금액은 270억 원에 이른다.

2022. 03. 18
제61기 정기주주총회

한편, 2003년 업계 최초로 신우리사주조합ESOP 제도를 도입한 대신증권은 이 제도를 적극 계승하고 있다. 신우리사주조합은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고 매입한 자사주를 회사손익 실적에 따른 성과배분차원으로 임직원에게 유무상으로 배분하는 제도이다. 직원들이 자기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경영성과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 2020년 대신증권은 임직원에게 자사주 유상청약을 진행했고, 자사주를 취득하는 직원에게 회사에서 1:1로 자사주를 무상출연 해 총 88만 7,416주를 임직원에게 지급했다. 이외에도 ESOP를 행사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직원들의 주식을 모아서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분해오고 있다.

2019~2021년 대신증권 배당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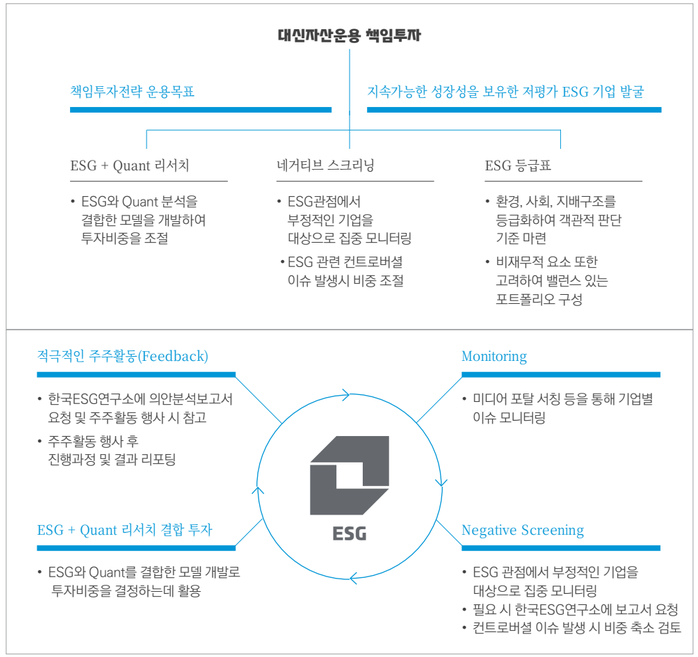
2019년	2020년	2021년
690억 원	804억 원	944억 원

대신자산운용의 ESG 책임투자

대신자산운용은 2021년 1분기부터 한국ESG연구소와 ESG 관련 자문계약을 통해 ESG 관련 리서치 및 평가에 대한 준비를 진행했고, 2021년 6월 본격적인 책임투자를 위해 ESG위원회를 설립했다. 2021년 11월에는 패시브운용그룹 내 ESG리서치팀을 신설하여 리서치 및 평가 모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① ESG 경영원칙과 투자원칙 수립 및 변경, ② ESG 투자 프로세스 수립 및 변경, ③ ESG를 반영한 투자 유니버스 지정 및 변경 등 회사 경영 및 상품 운용에 있어 전반적인 ESG 반영 요소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자산운용의 책임투자 기본운용에는 지속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되며, 지속가능 성장성은 ESG를 바탕으로 비재무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판단한다.

대신자산운용의 ESG 관련 이슈 모니터링은 총 26개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3년 내에 발생한 기업별 컨트로버셜 이슈를 시간 가중치를 달리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각 영역별 등급 충족 요건에 따른 통합 등급조정과 컨트로버셜 이슈 발생에 따른 수시 등급조정을 적용한다.

또한 대신자산운용은 2018년 3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여 적극적인 주주 의결권 행



사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하고, 선량한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대신자산운용은 스튜어드십 코드와 책임투자 원칙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매년 의결권 행사 내역에 대해서 공시하고 있다.

또한 대신자산운용은 책임투자에 대한 원칙 확립을 위해 2021년 12월 ESG위원회에서 '책임투자 원칙'을 신규로 제정하여 수탁자 책임투자를 더욱 공고히 했다.

대신자산운용의 '책임투자 원칙'은 6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다. 주요 내용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며,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ESG 요소를 고려하여 투자하고, 수시로 주주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검토하여 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시장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컨트로버셜 이슈 발생 시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의안분석보고서, 수익자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종목점검보고서 발송 등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대신프라이빗에쿼티의 ESG 책임투자

대신프라이빗에쿼티는 PEF 투자에 사회적 책임투자를 반영하기 위해 2018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 표준에 따라 대신경제연구소와 협업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 :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가입완료 등 제반 절차를 마련했다. 대신프라이빗에쿼티는 내부적으로 ESG 담당인력을 지정하고 투자프로세스 및 사후관리 상 ESG를 고려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투자의사를 결정할 때, 대신프라이빗에쿼티는 Negative Screening 방식으로 투자대상기업 관련 ESG 항목을 체크하고, ESG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ESG 수행 내역을 점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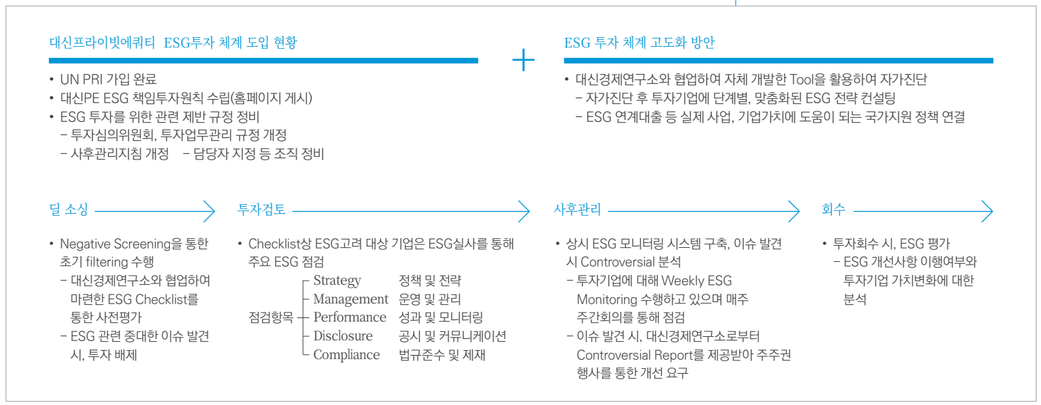
대신프라이빗에쿼티의 투자기업 ESG 고도화 방안은 자가진단을 통한 솔루션 제공이다. 투자기업의 규모에 따라 대신경제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ESG 자가진단 Tool을 활용하여 ESG 수준 진단 및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 별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솔루션은 기업별로 맞춤화되어 제공된다.

[미도입-초기 단계 기업]의 경우, 대신경제연구소가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기업문화, 정책에 즉시 적용 가능하고 달성이 용이한 ESG 개선과제 세트를 제공해 원활한 ESG 도입 지원과 향후 ESG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초기-중기 단계의 기업]에 대해서는 대신경제연구소와 협력하여 ESG 관련 국가 정책 지원 사업 연계 가능성 모색 지속가능성과 목표연계대출 컨설팅 등 개선과제 달성이 사업, 기업가치 증대에 반영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ESG 성숙단계로 진입

대신프라이빗에쿼티의 ESG Framework



하기 위한 로드맵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투자기업의 사업분야와 규모에 따라 대신경제연구소의 ESG 컨설팅 세트를 지원한다.

[중기-성숙 단계 기업]은 필요 시 정밀 실사를 통해 보완점과 개선점을 도출해낸다. 이 과정에서 대신경제연구소 자문이 진행되고, ESG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도 모색된다.

대신프라이빗에쿼티는 대신경제연구소 내 ESG 전문가를 ESG위원회의 내부 위원으로 위촉하고, 동시에 외부에서 저명한 ESG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한국ESG연구소 출범

ESG 경영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도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어려운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도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국내 기업들은 ESG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기업 비전과 목표 수립, ESG 위원회와 전담부서 설치, 평가시스템 정비 등 조직·운영기반 구축을 완료한 데 이어 본격적인 전략 이행에 나서기 시작했다.

대신금융그룹 산하 대신경제연구소는 2021년 8월 2일 물적분할을 통해 별도 독립법인 형태의 자회사 '한국ESG연구소'를 출범시켰다. 새로 출범한 한국ESG연구소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ESG 평가 및 리서치, ESG 관련 책임투자, 의결권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ESG연구소 대표이사는 대신경제연구소의 조윤남 대표이사가 겸임하고, 'ESG센터'와 '책임투자센터' 등 두 개의 상호보완적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2021. 11. 19
대신경제연구소 ESG 포럼

"1984년 '대신경제연구소'가 설립된 이후 구성원과 사업 영역의 변화에도 바뀌지 않았던 것은 '금융투자업자'라는 본질과 '리서치'였습니다. 다수의 ESG관련 연구기관과의 차별성은 금융투자업자의 관점에서 ESG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 조윤남 한국ESG연구소 대표이사

조윤남 대표이사는 향후 한국ESG연구소의 중요 과제로 'ESG 평가 모형의 비교 우위를 판단하는 방법론', '비재무적요소와 재무적요소의 결합 방법론', '디지털화 시대에 걸맞은 ESG 평가 모형 개발', '한국의 ESG Best Practice', '미디어의 영향을 최적화시키는 방법론', '인문학적 통찰이 가미된 주주총회 의결권 자문' 등을 꼽았다.

한국ESG연구소는 지배구조, 기업문화, 고용, 정보의 소통, 사회적 책임 등 ESG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세상을 향해 보다 깊이 있는 리서치를 제공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상생경영

대신금융그룹은 상생경영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이념 아래 매년 장학과 국민보건지원, 아동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재봉 창업자는 1990년 7월 사재 1억 원을 출연해 금융업계 처음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했다. 2022년 32년을 맞는 대신송촌문화재단은 기본 재산 규모가 417억 원에 이르는 대형 재단으로 성장했다. 설립 초창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선천적 장애아동의 의료비, 의료기관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지금까지 총 140억 원 이상의 성금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 각 계층에 지원했다.

양재봉 창업자와 이어룡 대신금융그룹 회장에 이어 대신송촌문화재단을 이끌고 있는 양홍석 대신금융그룹 부회장은 신뢰와 상생을 바탕으로 '나눔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구현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있다.

대신금융그룹은 코로나 시국에 맞게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상생과 배려'라는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에 이어 같은 해 10월과 12월에도 전남 나주의 사회복지시설에 비대면 화상연결 방식을 통해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사회복지시설과 직접 화상연결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성금과 함께 이어룡 대신금융그룹 회장의 지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옷과 신발도 함께 전달했다. '사랑의 성금' 전달식이 비대면으로 이뤄진 것은 2004년 나주지역 방문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매년 나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나주지역 일대의 금성원·계산원·수산

2021. 09. 03
대신송촌문화재단 의류 지원

2020. 12. 08
비대면 화상연결 사랑의 성금 전달식

원·성산원·이화영화원·백민원 등 사회 소외계층 시설에 성금을 전달해 왔다.

대신금융그룹은 괴산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희망 네트워크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희망 네트워크사업은 민간단체의 후원을 통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이다. 괴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베트남 69가족, 중국 59가족, 필리핀 48가족 등 총 221개의 다문화가족을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통합 및 다문화 이해교육, 취업연계 교육지원, 통·번역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 괴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다문화 가족에게 '사랑의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유도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역에 있는 청천재활원에도 2014년부터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해오고 있다. 2020년에는 청천재활원으로부터 감사의 손편지를 받았다. 다음은 편지의 일부 내용이다.

〈전례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주위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매우 어려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2020년에 사랑의 성금을 전해주신 대신금융그룹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사업과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국민보건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 중심에는 구순구개열 환아 수술비 지원사업이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구순구개열 환아를 위해 건국대, 부산대, 전남대 등 대학병원에 총 3억 8,000만 원 규모의 수술비 및 의료비를 기부, 대학병원 의료진과 함께 구순구개열 환아 의료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12월까지 총 425명의 환아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해 어린이의 밝은 미소와 마음을 찾아주고 있다. 기형 성형을 비롯해 함몰, 피부암, 화상 환아까지 가정형편 때문에 수술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폭넓은 후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1년 12월에는 서울아산병원 아동보건지원사업에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이른둥이 의료지원도 시작했다.

청천재활원에서 보내온 손편지

7절 Daishin Financial Group의 새로운 시작

창립 60주년, Daishin Financial Group

2022년은 시작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와 불확실의 상황 속에서도 대신금융그룹은 창립 60돌을 맞이하는 2022년의 그룹 전체 세전이익 6,000억 원 이상, 그룹 자기자본 3조 원이라는 명확한 전략목표를 수립했다.

2022년 사업연도 첫 날, 이어룡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 그룹 세전 이익 6,000억 원 이상, 그룹 자기자본 3조 원 목표를 반드시 달성합시다."

대신금융그룹은 그동안 효과적인 투자를 통해 성과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성공방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의 확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본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부문의 목표 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둘째, 2022년에는 리츠와 대체투자부문에서 업계 정상이 되는 성과를 만듭시다."

대신은 10년 전부터 금융투자업과 함께 부동산업을 그룹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선택했다. 따라서 60주년이 되는 2022년은 금융과 부동산이 함께 어우러져 더 큰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모든 사업부문이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소통하며 이타적으로 행동해야만 이룰 수 있으므로 그룹 전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셋째, 우리만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합시다."

금융산업은 이제 IT산업이 되었고, 디지털 금융플랫폼이 기업 성공의 핵심 키워드이다. 고객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손쉽게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 간 디지털서비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게다가 2022년 말에 금융세제까지 개편되면, 고객들은 구체적인 이익과 서비스를 따져 주거래 금융회사를 선택하게 된다. 디지털 혁신 경쟁에

2021. 11. 29
서울아산병원 아동보건지원사업 후원성금 전달

2022. 01. 02
시무식

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금융 플랫폼을 고객 중심으로 재편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미션 「try Agile ways, create The Value」 선포

대신파이낸셜그룹은 2022년 6월 20일 오전 8시 본사 'Daishin343'에서 이어룡 회장, 양홍석 부회장, 오익근 증권 대표이사 등 그룹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통과 역사를 디딤돌 삼아 새롭게 힘찬 전진을 하기 위해 그룹의 새로운 명칭과 새로운 미션이 선포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은 창립기념식에서 그룹의 명칭을 기존 대신금융그룹에서 「Daishin Financial Group」으로 변경한다고 대내외에 공식 선포했다. 그룹 명칭의 변경에는 글로벌 투자와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증권에서 금융, 금융에서 부동산으로 성장한 성공 DNA를 바탕으로 새로운 투자와 혁신을 통해 영속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유연하고 빠르게 시도하고 가치를 창출하자는 의미에서 이어룡 회장은 새 그룹 미션 「try Agile ways, create The Value」를 선포했다. 'Agile ways'는 기존 관습이나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유연하고 빠르게 도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자는 의미다. 'The Value'는 고객과 직원,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기업활동을 하고,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룹이 지향하는 성장을 만들어 영속적으로 신뢰받는 회사가 되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한편, 2017년에 신축한 대신파이낸스센터의 명칭도 'Daishin343'으로 변경했다. 이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는 의지가 담긴 'Daishin'이라는 브랜드와 세계 하나뿐인 고유한 주소 343을 더해 대신의 역사와 전통에 뿌리를 두고, 창의적인 금융의 미래를 펼쳐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22. 06. 20
창립 60주년 기념식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은 60주년 기념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

"대신은 창립 이래 고객가치 향상을 최우선 미션으로 삼아온 만큼 고객과 직원, 사회에 영속적으로 신뢰받는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60년 대신의 성공은 수많은 선후배 대신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성공을 기반으로 몇십 배 더 큰 성장을 이룩합시다."

또한 창립기념식에서는 대신파이낸셜그룹 60년의 발자취를 담은 그룹 히스토리 영상과 각 계열사별 비전이 담긴 영상, 그리고 퇴직한 선배 임원들의 축하 영상이 공개되었다.

나재철 한국금융투자협회장, 노정남 前 대신증권 사장, 김대송 前 대신증권 부회장, 김석술 대신동우회장은 영상을 통해 대신파이낸셜그룹의 60주년 축하 인사와 함께 전 임직원들이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100년을 이어가기를 기원한다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장기근속자와 자랑스러운 대신인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30년 장기근속자 24명 대표로 대신자산운용 경영지원그룹 이동수 상무, 25년 장기근속자 26명 대표로 대신증권 IT부문 홍종국 상무, 15년 장기근속자 30명 대표로 대신증권 Global영업본부 장준필 이사대우본부장, 10년 장기근속자 135명은 대신저축은행 리테일금융부 장경석 부장이 대표로 수상했다.

2022년 '자랑스러운 대신인'에는 임원, 부서장 부문에 대신자산신탁 김송규 대표이사 외 3명, 직원부문 조경희 팀장 외 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2. 06. 20
자랑스러운 대신인 시상

대신파이낸셜그룹의 미션 변천 과정

구분	~2009	2009~2012	2012~2021	2022~
미션	정답게, 참되게, 새롭게	고객과 상생하는 세계 최고의 신뢰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Financial Health Partner	try Agile ways, create The Value

모두가 함께 하는 축제의 장, '대신위크'

대신파이낸셜그룹은 전 직원이 함께 창립 6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할 수 있는 '대신위크' DAISHIN WEEK 축제를 마련했다. 대신위크는 2022년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많은 임직원들의 참여와 호응 속에서 진행되었다.

2022년 6월 20일 창립기념일에는 본사 5층에서 '명동콘서트 343'이 열렸다. 정태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이 된 이날 콘서트는 낮에는 가수 에일리 씨, 오후 4시 30분부터는 가수 바다 씨와 김태우 씨의 축하공연이 열려 많은 임직원들이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명동콘서트 343은 지방과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인터넷 유튜브 '대신TV'로도 생중계 되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부점별 한마음 행사를 통해 대신파이낸셜그룹 6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22. 06. 20
명동콘서트 343

2022. 06. 21 ~24
문화 343(사진전)

21일부터 24일까지는 대신의 60년 발자취를 담은 사진전이 5층 라운지에서 열렸다. 40여 점의 기록 사진을 선별한 사진전은 대신파이낸셜그룹의 첫 사옥인 명동예술극장舊 명동국립극장에서 여의도 사옥의 전경을 비롯해 다양한 대신인들의 모습이 담겼다.

21일부터 22일 이틀에 걸쳐서는 오익근 증권 대표이사와 함께하는 드립 커피 시간이 마련되었다. 사전에 신청자를 받아서 총 6회차로 마련된 이 행사에는 총 35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오익근 대표이사가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내린 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직원들은 신입사원에서 10여 년 전 함께 근무했던 직원까지 다양했다. 간부 워크숍에서 배운 드립 커피를 생활에서 즐기게 되었다는 오익근 대표이사의 커피 이야기부터 새로 선포한 대신파이낸셜그룹의 미션에 담긴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하는 시간이었다. 커피를 마신 잔에는 오익근 대표이사가 직원들 각자가 원하는 문구를 직접 사인해서 전달하여 더욱 기념이 되었다.

2022. 06. 21
오익근 증권 대표이사의 드립커피

2022. 06. 22
위례콘서트 343

2022. 06. 23
대신 Go "60"

2022. 06. 24
임직원 헌혈

2022. 07. 09
대신가족 야구장 나들이

3일차인 22일에는 위례콘서트 343이 진행되었다. 대신 위례센터에서 개최된 이 토크 콘서트의 강연자는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와 유튜버 슈카였다. 이날 토크 콘서트는 김상욱 교수의 '떨림과 울림 물리학의 눈으로 본 우주, 세상, 인간', 슈카의 '금융과 유튜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유튜브 대신TV로도 생중계 되어 상당수의 대신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4일차에는 '대신 Go 60' 행사가 열렸다. 전 직원 중 60명을 추첨해 본인이 원하는 선물을 선택할 수 있는 행사로 1~5등까지는 1인 200만 원 상당, 6~10등 100만 원 상당 11~60등은 30만 원에 상당하는 선물이 마련되었다.

5일차인 24일과 27일~28일에는 단체헌혈 행사가 희망자에 한해 본사 앞에 준비한 헌혈버스에서 이루어졌다. 이 행사에는 대신파이낸셜그룹 임직원 147명이 참여했고, 헌혈 후 받는 기념품 대신 그 금액만큼의 기부권과 대신송촌문화재단이 출연한 기부금 3,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또한 직원들의 헌혈증과 대신송촌문화재단의 추가 기부금 3,000만 원은 별도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 헌혈 행사를 끝으로 대신파이낸셜그룹의 60주년을 함께 축하하며, 기념하는 뜻 깊은 '대신위크'가 마무리되었다.

Daishin Financial Group
60년사

6장. Daishin Financial Group의 오늘

2022

INTERVIEW
343

이기는 습관을 갖자

오익근
대표이사

Q — 대신증권의 오늘이 있기까지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A — 대신의 가장 큰 힘은 '주인정신'입니다. 직원들이 주인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고비를 만날 때마다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대신증권의 우리사주조합은 어느 회사 못지않게 일찍 만들어졌습니다. 2003년 증권업계 최초로 도입한 신우리사주조합제도ESOP :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를 통해 직원들이 노력해 거둔 회사의 성과를 주식으로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정신을 이어서 ESOP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재봉 창업자님이 주창한 동업자 정신은 회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위기의 순간에 결집력을 발휘했습니다.
또 한 가지, 대신이 가진 경쟁력이라면 과감한 의사결정입니다. 이는 오너 경영체제이기에 가질 수 있는 장점입니다. 오래 고민하고, 숙고하더라도 일단 결론에 이르게 되면 과감하고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직원들이 지닌 동업자 정신, 오너의 책임감과 빠른 의사결정이 이루어낸 하모니는 대신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Q — 창립 60주년을 기념해서 직원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는?

A — '이기는 습관을 갖자'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게 본성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준비도 하지 않고, 능력도 없는데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우선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실력을 키우고, 싸움에서 이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기는 것을 습관처럼 만들었으면 합니다. Making winning a habit! 또 하나는 저의 숙제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자긍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대신가족 여러분 모두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INTERVIEW
343

사고의 전환, 가능성을 열다

김범철
경영전략쫑괄 부사장

Q — 최근 10년의 성과 가운데 방점을 찍을 부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A — 변화와 혁신을 거듭한 시간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우리F&I 인수를 결정할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에프앤아이라는 업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인수 검토 초기만 해도 파이낸셜을 비롯해서 금융 쪽을 인수하려고 했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한 우물만 파야 할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의 다각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비즈니스에 도전해보자'라는 의지로 에프앤아이 인수에 적극 나선 것은 대신파이낸셜그룹 6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사고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전환으로 금융과 부동산의 융합, 새로운 사업으로의 도전 가능성을 활짝 열었습니다.

Q — 명동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신의 역사에서 Daishin343의 건립은 어떠한 의미로 기록될까요?

A — 명동 Daishin343은 훗날 대신파이낸셜그룹의 역사에서 변화와 혁신의 상징으로 기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명동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대신의 체질을 개선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권만 하는 회사에서 증권도 하는 회사로의 전환을 이루어낸 것이지요. 대신파이낸셜그룹의 사업다각화를 이루고, 부동산과 금융이 융합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을 이루어냈습니다. 대신파이낸셜그룹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이익보다 부서 이익이 우선하고, 부서 이익보다 본부 이익이 우선하고, 본부 이익보다 회사 이익이 우선하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룹 전체를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면, 나의 사고가 성장하고 결국 나와 모두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후배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INTERVIEW
343

다시 명동에서, 변화와 혁신을 완성하다

송혁
리테일쫑괄 부사장

IB부문

대신증권 IB부문은 업계에서 가장 젊고, 특화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을 바탕으로 고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IB하우스임을 자부한다. 2018, 2019년에는 중견·중소기업에 특화된 IPO 틈새시장에 집중했고, 이를 기반으로 조 단위 IPO 딜Deal을 수행하는 IPO 하우스로 성장했다. 2016년 10월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후 2018년부터 신기술금융투자회사 라이센스를 활용한 상장기업 투자를 시작했다. Coverage→IPO→ECM→신기술투자조합, M&A로 이어지는 Value Chain을 통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22년 현재 IB부문은 1개 담당, 4개 본부, 2개 부로 구성되어 있다. IB부문 조직별 업무를 살펴보면 Coverage본부1팀/2팀는 대기업 Coverage, 회사채DCM 발행을 담당한다. ECM본부의 종합금융팀, 기업금융팀은 유상증자, 블록딜Block Deal, 리츠인수/IPO 등 업무를 맡고 있다. IPO1본부와 IPO2본부합 5개팀는 IPO, PI 투자, SPAC합병, 지배구조 개편 등을 담당한다. 신기술금융부는 메자닌, Pre-IPO 신기사투자조합 운용·관리를, Advisory부는 국내외 M&A 비즈니스 플랫폼 업무제휴를 담당한다.

IB부문의 핵심 경쟁력은 기존 딜을 기반으로 지속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딜 수행능력에 절대적 강점을 지닌 업계 상위 IB하우스라는 점이다. 특히 단일 투자에 제한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의 연계영업을 통하여 투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높은 IPO업무 만족도를 바탕으로 상장 후 추가 연계 IB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사와의 오랜 관계형성을 통한 로열티 있는 투자기업 발굴이 가능하다는 것도 강점이다. DCM, ECM, IPO, 지주회사 등을 경험했던 고객사들의 투자 니즈 발생 시 최적의 조건 제안을 통한 투자를 실행하고 있다. 은행, 증권, 캐피탈 등 투자사들의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투자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화된 전문성을 겸비한 회계, 법률, 기술, 분석,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IB부문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등 조단위 딜 상장 및 주관사 수임으로 IPO부문 대외 인지도를 제고했다. 한화시스템, 한화솔루션 등 대기업 계열사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수행하여 규모의 대형화와 질적 서비스 향상을 이루었다. 2021년 더벨 유상증자 대표주관 리그테이블 4위를 차지했다. 리츠시장을 개척하여 2020년 대신자산신탁 리츠 공모 총액인수, 2021년 SK디앤디플랫폼리츠 대표주관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21년 총 23개의 신기술투자조합을 운용 중이며, AUM은 5,420억 원이다. 신규 커버기업 발굴 및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주관 딜의 지속적인 수임으로 2021년 회사채 인수금액 1조원을 달성했다.

IB부문의 수상 실적은 2019년 제9회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 IB대상 베스트혁신상, 2019 Korea Capital Markets thebell League Awards: Best Innovative Equity House, Best IPO, 2019년 한국경제신문 마켓인사이트 제10회 한국 IB대상 이노베이션 하우스부문, 2020년 2020 Korea Capital Markets thebell League Awards: Innovative Equity House of The Year, 2020년 제17회 대한민국 IB대상 최우수 IPO주관사, 2021년 제18회 대한민국 IB대상 최우수 IPO주관사, 2021년 The 9th Capital Market Awards제9회 캐피탈 마켓 대상 베스트 IB종합, 2021년 2021 헤럴드 자본시장대상 투자은행IB 대상, 2022년 2022 Korea Capital Markets thebell League Awards: Innovative Equity House of The Year, 2022년 한국거래소 '2021 코스닥시장 우수 투자은행IB' 수상 등이 있다.

IB부문의 비전과 업무 중점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Coverage 확대를 통한 토탈 파이낸스 하우스Total Finance House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차별화된 업종 및 신규 업종 기업의 선제적 상장 추진 및 수익성 강화를 위해 IPO 기업을 대상으로 자기자본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셋째, 국내 에쿼티 Capital Market의 1위 수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리츠시장에서 메이저 위치를 확보하고,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리츠 에쿼티 인수 및 주관 규모를 대규모화하고자 한다. 합병, 분할, M&A 등 기업 경영환경의 활발한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다채로운 조달시장에 대한 복합 파이낸싱 컨설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IB부문의 핵심 경쟁력은 기존 딜을 기반으로 지속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딜 수행능력에 절대적 강점을 지닌 업계 상위 IB하우스라는 점이다.
특히 단일 투자에 제한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의 연계영업을 통하여
투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높은 IPO업무 만족도를 바탕으로 한
상장 후 추가 연계 IB서비스를 제공한다.

PF부문

대신증권 PF부문은 2007년 4월 IB영업본부 SF부 내 PF팀으로 신설되면서 시작되었다. 2007년 12월 부동산금융부 신설, 2014년 1월 IB사업단 신설 및 사업단 내 부동산금융본부 신설, 2018년 1월 IB사업단 내 PF부문 신설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 현재 IB사업단 PF부문 내에 PF3개 본부와 1개 부서 체제로 운영 중이다.

PF부문의 PF1~3본부는 국내외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금융자문 및 대출참여, 구조화 금융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대체투자부는 주식, 채권 등 전통 투자자산을 제외한 국내외 대체 투자자산에 대한 인수, 금융자문, 금융주선, 구조화 상품 발굴 등을 담당한다.

PF부문의 핵심 경쟁력은 첫째, 부동산 금융에 있어 대신파이낸셜그룹 내 시너지 창출의 중심 부서라는 점이다. 대신파이낸셜그룹은 대신증권, 대신자산신탁, 대신프라퍼티, 대신에프앤아이, 대신저축은행 및 대신자산운용 등의 계열사 간 시너지를 통해 시행부터 자금조달 및 자산관리까지 부동산 금융의 전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특히 대신증권 PF부문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최전선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에쿼티 투자 및 실물 자산 인수 등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그룹 내 부동산 관련 계열사들 사이에서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PF부문에서 참여한 프로젝트 중 우수한 사업성을 지닌 부동산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리스크 등 리스크 헤지 후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구조화하여 공급함으로써 대체투자를 원하는 리테일 고객들에게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대신파이낸셜그룹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PF부문은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동산 금융 조직이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시행사, 시공사 및 신탁사 등의 부동산 산업 전반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신증권 PF부문의 구성원들은 부동산 금융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다. 오랜 업력을 가진 전문가들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타사와 차별되는 우수한 사업성을 지닌 프로젝트의 소싱 능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조직으로 국내외 부동산 산업 내에서 높은 인지도와 신뢰를 보유하고 있다.

셋째, 자부심으로 하나 된 단단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 PF부문은 2007년 IB영업본부 내 1개 팀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3개의 PF본부와 1개의 부서로 구성된 PF부문으로 성장을 이루어 냈다. 업계 최고 수준의 부동산 PF 하우스가 되기까지 꾸준한 성장의 원동력은 PF부문 구성원들이 가진 자부심이다. 1개 팀에서 시작하여 하나의 부문으로 전무후무한 성장을 달성했다는 자부심은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단단한 조직문화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 한창이던 2021년에도 세전 손익기준 전년 대비 268% 성장하는 등 위기에도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조직문화는 앞으로 업계를 선도할 PF부문의 가장 큰 자산으로 빛을 발할 것이다.

PF부문의 주요 성과와 업무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3개 본부 및 1개 부서 체제로 확대 개편했다. 2021년 영업수익 1,000억 원 달성과 계열사에 리츠 물건 4,151억 원을 공급했다.

PF부문의 주요 투자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403강남 개발사업 프로젝트 투자, 나인원한남 금융주관, 프랑크푸르트 FBC Tower 투자, 폴란드 아마존 물류센터 투자 등이다.

PF부문의 목표는 업계 내 최고 수준의 PF 하우스 입지를 공고화하는 것이다. 그룹 차원의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통한 그룹 시너지 창출을 제고하고, 우수한 부동산 금융상품 공급을 통해 대신파이낸셜그룹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Wholesale 부문

홀세일부문은 1977년 법인영업부에서 출발하여 법인영업부와 법인자산영업부로 구성된 법인영업본부를 모태로 탄생했다. 2007년 홀세일기획부, 법인사업부 신설을 계기로 홀세일영업본부로 명칭을 개편하고, 부서 통폐합 과정을 거쳐 2020년 7월 홀세일부문으로 재편되었다. 현재 홀세일부문은 법인금융상품본부, 법인영업본부, 글로벌영업본부, 글로벌파생상품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홀세일부문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법인금융상품본부의 멀티솔루션1팀은 연기금, 공제회 대상 금융상품 세일즈를 담당한다. 멀티솔루션2팀은 금융회사, 일반법인 대상 금융상품 세일즈를 담당한다. 대체상품팀은 글로벌 대체상품 우수 자산운용사 발굴 및 상품 제공을 맡고 있다. 구조화파생팀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상품개발, 홀세일마케팅, 공시업무 수행을 담당한다. 구조화솔루션팀은 기관투자자 및 외국계 은행 대상 FICC 상품 솔루션 제공을 담당한다. 법인영업본부의 법인주식1팀은 연기금,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 주식 브로커리지를 담당한다. 법인주식2팀은 자산운용사, 공제회 등 기관투

자자 주식 브로커리지 세일즈를 맡고 있다. ETF/차익팀은 패시브 기관투자자 대상 인덱스 위탁매매 영업/ETF AP, LP업무를 담당한다. 대차팀은 기관투자자 대상 대차거래, 리테일 Pool 관리 및 대여거래 중개를 담당한다. 글로벌영업본부의 글로벌영업팀은 국내외 투자자 대상 국내외 상품국내외 주식, 해외채권, 해외ETF 등 브로커리지 영업을 담당한다. 세일 트레이딩팀은 기관투자자 대상 야간 운영과 리서치 자료 자체제작 및 제공을 담당한다. 글로벌플랫폼팀은 국내외 법인투자자 대상 트레이딩, 비대면 투자일임 및 현지증권사 관리를 담당한다. 글로벌Custody팀은 국내외 법인투자자 대상 트레이딩 및 오퍼레이션을 담당한다. 글로벌파생상품본부의 홀세일파생1팀은 국내정유, 석유화학 관련 법인 대상으로 해외 파생상품 세일즈를 맡고 있다. 홀세일파생2팀은 국내 기관 및 개인투자자 대상 해외파생상품 세일즈를 담당한다. 홀세일파생3팀은 국내 비철금속, 귀금속 관련 법인 대상으로 해외파생상품 세일즈를 담당한다.

홀세일부문의 핵심 경쟁력은 첫째, 상호 친화적인 조직문화와 본부 간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꼽을 수 있다. 홀세일부문은 경력이 많은 시니어급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주니어급 세일즈의 연령별 분포가 이상적인 조합으로 시니어의 오랜 경험과 영업 노하우를 신입 직원들에게 전수해주고, 조직원과의 융합을 중요시하는 대신증권 특유의 문화를 지켜가고 있다. 이를 통해 본부 간 자연스럽게 협업을 유도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신설과 영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둘째, 홀세일부문은 업계 최고 수준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국내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고객 각층의 다양한 니즈에 탄력있게 대응이 가능하다. 획일화된 서비스를 넘어선 고객별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홀세일부문의 주요 성과는 타증권사, 보험, 은행신탁 등 Custody 동반 서비스 및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해외주식 중개서비스를 꼽을 수 있다. 랩사업본부와 협업을 통한 성과보수형 채권형 랩을 출시하고, 판매했다판매금액: 9조 원, 판매수수료: 70억 원.

해외 Buy-out 및 Infra 펀드 자금 약 5,000억 원을 유치했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 WM 및 신탁상품 ELS를 발행연 6,000억 원했다. 국내 최초로 정유사 등 에너지 관련기업 대상 OTC Clearing 사업을 시작했으며, 증권사 최초 탄소배출권도 중개하기 시작했다.

홀세일부문의 목표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과 지속성장을 추구하여 업계 최고를 구현하는 것이다. 아울러 리서치센터, 경제연구소, 대신프라퍼티 등 타 부서 및 계열사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파트너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기관투자자에게도 최고의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입지를 구축하고, 영업능력 향상과 지속적인 상품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다.

홀세일부문의 핵심 경쟁력은 첫째, 상호 친화적인 조직문화와 본부 간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꼽을 수 있다. 홀세일부문은 경력이 많은 시니어급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주니어급 세일즈의 연령별 분포가 이상적인 조합으로 시니어의 오랜 경험과 영업 노하우를 신입 직원들에게 전수해주고, 조직원과의 융합을 중요시하는 대신증권 특유의 문화를 지켜가고 있다.

Trading 부문

Trading부문은 2021년 7월 자산운용본부가 채권운용본부와 멀티운용본부로 분리 개편되었고, 채권영업본부는 2019년 자산운용본부 내 채권 리테일팀과 홀세일팀이 업무 효율화를 위해 채권영업부로 통합 출범한 후 2020년 채권영업본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2022년 8월 채권운용본부와 멀티운용본부는 패시브운용본부와 액티브운용본부로 분리 개편되었다. 트레이딩부문은 현재 패시브운용본부와 액티브운용본부, 채권영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Trading부문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패시브운용본부의 패시브채권운용팀은 원화 RP·CMA, 외화 RP운용, ELS·DLS 및 퇴직연금 ELB 원금 운용, 채권담보 관리를 담당한다. MM운용팀은 ETN 발행, 유동성 공급 및 헤지 운용, 리츠 운용 및 탄소배출권 운용 등 신규 비즈니스, 원자재 선물 운용을 맡고 있다. 파생시장조성팀은 주식선물 및 옵션 등 거래소 파생상품 유동성공급, 이벤트 드리븐 전략 운용 등 PI투자를 맡고 있다.

액티브운용본부의 주식파생 운용팀은 ELS 자체발행 헤지 운용, 주가지수 PI 운용, 공모주 PI 운용

Daishin Financial Group 60년

을 담당한다. FICC운용팀은 FICC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운용,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ISDA 체결 및 담보 관리, FX Desk 운영 및 Cross Repo 거래, 장외파생상품의 평가 및 민감도 관리, 전략운용팀은 국고채 PD 업무 및 Prop Trading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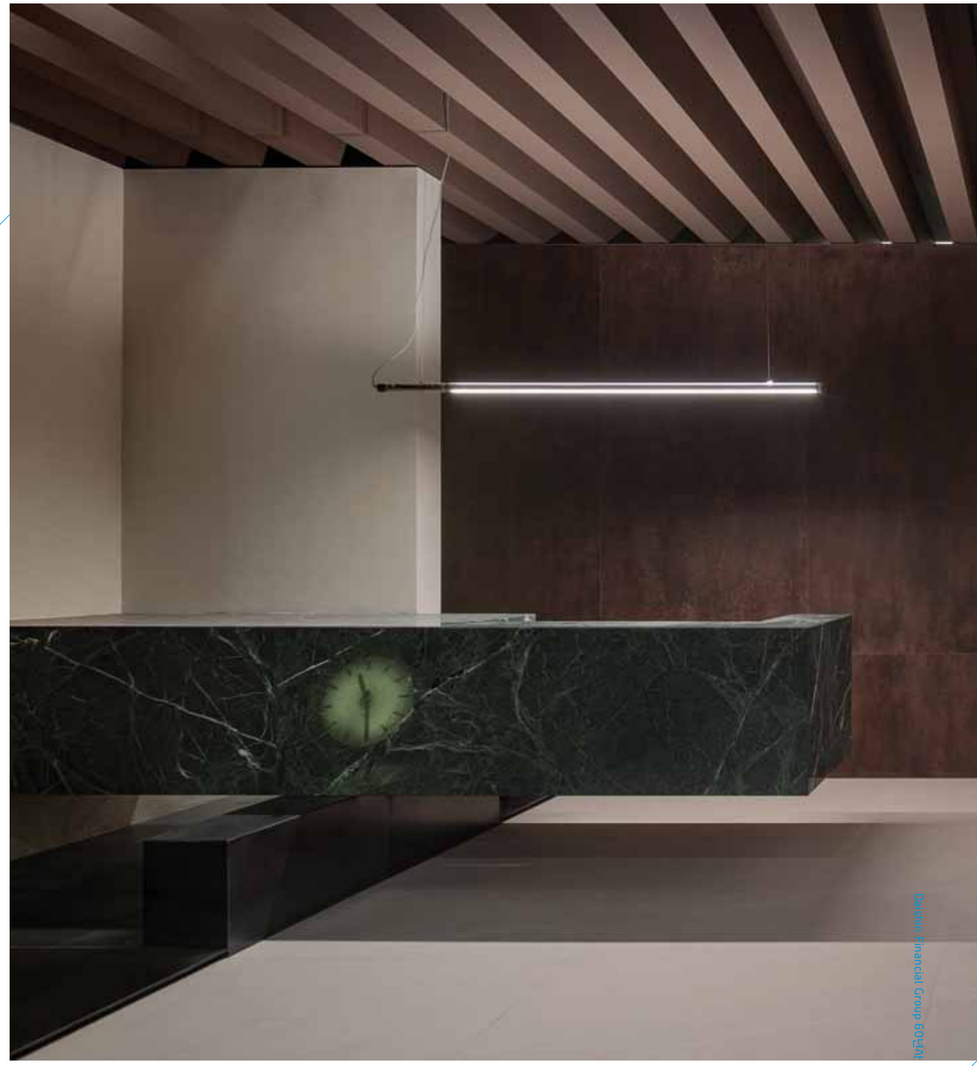
채권영업본부의 리테일팀은 지역본부 RM, 리테일 영업지원자료 작성·검토 및 배포, 영업점 섭외 지원 및 교육, 상품북 관리를 담당한다. 홀세일팀은 법인 대상 채권·전단채·CP 등 매출 중개 및 주선, 채권선물 중개매매, 당사 인수채권의 판매를 담당한다.

Trading부문 각 본부별 핵심 경쟁력은 다음과 같다. 패시브운용본부는 RP·CMA, ELS·DLS 원금 등의 금리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한다. 외화 RP 운영을 통해 외화자산 유치 및 대고객 서비스 기능을 수행한다. ETN을 통하여 직접투자가 어려운 원자재 투자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액티브운용본부는 본부 내 패시브운용본부, 채권영업본부 및 리서치센터와 시장흐름 및 경제전망에 대한 소통과 의견교환을 통한 운용 전략을 수립한다. FX Desk 운영을 통해 외화 자산 유치 및 대고객 서비스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FICC 상품의 개발 및 발행 업무를 통한 고객 니즈 충족 및 자금 조달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채권영업본부는 부서원 간 친화적인 조직문화와 친절한 고객 응대가 핵심 경쟁력이다. 동종 업무를 장기간 다루어온 시니어들과 비교적 업무기간이 짧은 주니어 간의 원만한 소통과 유대감 깊은 교류를 통해 조직원 간의 친화적인 부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고 이를 통해 부서 내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고객 응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채권 발행담당자와 인수담당자, 유통시장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초청 세미나를 진행하여 관계 교류를 유지 및 확대한다. ② 주기적인 기관 방문 및 접대, 맞춤형 영업을 통해 채권 거래 저변 확대를 이루고 있다.

Trading부문 각 본부별 업무실적은 다음과 같다. 패시브운용본부는 메자닌, 원자재 투자, 이벤트 드리븐, 롱숏 전략 운용 등 수익 다변화에 기여했다. 액티브운용본부는 2021년 국고채 전문딜러 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2016년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 표창기획재정부, 2017년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 표창기획재정부, 2017년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표창한국거래소을 수상했다. 채권영업본부는 2016년 상반기 하반기 우수채권 전문딜러, 2017년 하반기 우수채권 전문딜러, 2020년 상반기 우수채권 전문딜러에 선정되었으며 2020년 리테일 채권 판매 업계 3위를 차지했다.

Trading부문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패시브운용본부는 ETN 발행 및 헤지, 파생상품 시장조성을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바탕으로 메자닌, 원자재, 주가지수, 주식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한 투자기회를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RP·CMA, 파생·퇴직 원금 등의 금리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추구한다. 액티브운용본부는 FICC 상품 개발 및 영업 역량 강화를 통한 신규 상품의 발행 및 수익원 확보를 비전으로 정하고 있다. 채권영업본부는 리테일 판매 부문 업계 최고 수준 유지와 채권·선물 매매 및 중개 부문에서 확고한 입지 확립을 목표로 삼는다.

프라이빗 부문



프라이빗부문은 2020년 3월 조직을 설립하고, 점포를 오픈했다.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2021년 6월부터 시작했다. 나인원한남 입주민을 1차 목표로 UHNW 대상 금융과 부동산의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탄생했으며, 2022년 현재 나인원 프라이빗 라운지와 프라이빗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인원 프라이빗 라운지는 UHNW 고객에게 금융과 부동산의 융합서비스 제공, 법률·세무 등을 고려한 1:1 종합자산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프라이빗지원팀은 나인원 프라이빗 라운지의 원활한 정착과 번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 실행, 목표·평가체계 수립과 실행을 담당한다.

프라이빗부문의 핵심 경쟁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Core-Satellite Model에 기반한 1:1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Core'는 대신파이낸셜그룹의 엄격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검증된 안전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자기자본 동반 투자를 통해 운용의 신뢰도를 높인다. 'Satellite'에는 Core 대비 위험은 있으나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며, 리서치센터·PE 등 그룹 내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거액자산가 성향에 맞는 프라이빗한 투자 아이디어들을 선별하여 제공한다. 또한 일반 WM센터와는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속·증여·가업승계·유언대용신탁 등 자산가들의 모든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도 프라이빗부문의 경쟁력이다.

프라이빗부문의 두 번째 경쟁력은 UHNW의 상황에 맞는 부동산컨설팅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개인자산가를 대상으로 단순 자문이 아니라, 매입·매각·개발 등 고객의 모든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직접 실행까지 서비스한다.

세 번째 경쟁력은 전문가들의 고객 응대이다. 프라이빗부문은 라운지 오픈을 위해 '워킹그룹'이라는 그룹 내 최고 전문가들을 선발하여 약 1년간 트레이닝을 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UHNW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코칭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금융·부동산·세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고객 응대서비스를 제공한다.

프라이빗부문의 2021년 말 기준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금융부문은 총자산 3조 8,000억 원 순증 가운데 금융자산은 2,700억 원 순증했다. 이 중 계열사 상품은 700억 원을 판매했는데, 재팬하임 180억 원, SK-GEELY 93억 원, KT-앱실론 16억 원, 기타 신기술투자조합 410억 원 등이다. 일반 상품 1,660억 원을 판매했으며 랩 700억 원, 신탁 200억 원, 전단채·채권 480억 원, 퇴직연금 80억 원, 펀드·ELS 등 200억 원 등이다. 부동산 투자자문 성과는 자문계약 총 9건으로 주요 자문 현황은 세종시 부강면 공장 개발물류 및 산업단지 개발 검토, 고양시 화정동 오피스텔 신축개발신탁 관련 그룹사 협업 진행, 강남구 신사동 수익형 부동산 매입매매계약 체결 완료 등이다.

프라이빗부문의 목표는 기존에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실행을 통해 업계 최고의 리딩점포로 도약하는 것이다. 금융과 부동산 중심의 그룹 UHNW 전략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타사 및 대신증권의 기존 점포와 차별화된 특화 서비스와 신규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사업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프라이빗부문의 목표는 그룹에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실행으로 업계 최고의 리딩점포로 도약하는 것이다. 금융과 부동산 중심의 그룹 UHNW 전략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타사 및 대신증권의 기존 점포와 차별화된 특화 서비스와 신규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사업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WM추진부문

WM추진부문은 영업점 지원 조직으로 WM추진부 내 5개 팀과 연금솔루션부 내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WM부문은 43개의 영업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WM추진부는 영업점 목표·평가 및 인력·역량 관리, 점포정책 수립, 고객마케팅 운영, 신용·대출 운영, 세무·부동산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연금솔루션부는 퇴직연금 법인 및 가입자 관리, 연금저축 가입자 관리, 연금운용 솔루션 제공, 연금 입·출금 관리, 은퇴자산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다.

WM추진부문의 핵심전략은 첫째, 자산기반 영업활동을 바탕으로 HNW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다. 고객의 자산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과거의 브로커리지 중심의 수익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HNW 고객과 자산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고객들에게 손실 가능성이 낮은 투자상품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신파이낸셜그룹만의 부동산 상품인 '하임' 및 '리츠'를 중점적으로 공급/판매 하고 있으며, 평생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IRP개인형퇴직연금 같은 장기적인 투자자산을 유치하고 있다. 이는 회사의 이익과 고객 수익률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고객의 자산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과거의 브로커리지 중심의 수익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HNW 고객과 자산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 둘째, 고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대신증권 WM 추진부문이 되고자 한다. 비대면 온라인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고객이 대신증권의 영업점을 찾고 투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전문가인 '금융주치의'를 영업점에 배치하고 있다.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자 세무사, 부동산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WM컨설팅팀을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고객 세미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WM추진부문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최근 2년 연속 세전 순이익 1,000억 원을 달성했다. 자기자본 최대한도 신용·대출 운영을 통해 이자수익을 최대 실현했다. 대체투자상품하임은 매년 연평균 1조 원 판매되어 대신증권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IRP고객 3배 증가2,100명→6,700명, IRP자산 2배 증가1,100억 원→ 2,200억 원를 통해 장기투자자산 및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금융자산의 경우 연간 2.5조 원 순증시키며 14조 원을 달성했다. 또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전문가인 '금융주치의' 121명을 육성영업직원의 30%했다.

WM추진부문의 목표는 대체투자·리츠 판매 1위 증권사가 되는 것이다. 고객에게 안정적인 투자상품대체투자을 제공하여 금융자산 및 수익기반을 확보하고자 한다. 비대면, 온라인화에 대응하여 UHNW 고객 중심의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고객이 찾아오는 증권사를 구축하고자 한다. 유동적인 브로커리지 영업을 탈피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할 것이다. 퇴직연금, IRP, ISA와 같은 장기적인 투자자산을 유치하여 장기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국내 최초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구축해 개인의 온라인 주식거래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디지털부문은 대신증권 리테일의 온라인 트레이딩, 상품 투자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감동센터의 콜 응대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리테일 고객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Biz부에 4개 팀, 디지털마케팅부에 3개 팀과 고객감동센터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Biz부는 온라인 마케팅·고객관리, 디지털 매체 관리, 해외증권 거래시스템 구축·서비스 지원, 온라인 신용·대출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디지털 마케팅부는 Mass·프라임 투자상담 서비스 운영. 신규 서비스 개발, 고객활성화, 본지점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고객감동센터는 고객상담, 본지점 지원 업무, 크레온다이렉트 및 은행 연계 계좌에 대한 온라인 지점 업무, 비대면계좌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디지털부문의 핵심 전략은 첫째, 시장점유율 회복 및 신규고객 확대이다. 이를 위해 경쟁사와 차별화된 핵심서비스를 구축하고, 대신증권에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같이 거래할 수 있도록 주거래 고객화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전사적인 60주년 브랜드 마케팅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참신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스포츠, 유튜브 마케팅과 소수점매매, 비상장주식 등 혁신과제를 수행하여 대신증권이 보다 매력적인 투자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 경쟁력 강화이다.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는 온라인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소액 자산관리를 위한 로보 랩 서비스 강화, 마이데이터 연계 서비스 및 기존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투자상담 니즈가 있는 고객을 위해 디지털부문 내 비대면 전담PB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주식거래 인구 증가에 따라 콜 응대의 생산성 강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한 디지털 ARS 도입 및 고객상담프로그램CTI 고도화가 진행 중이다.

디지털부문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손익 면에서는 크레온 333억 원, Mass 564억 원2021년 기준의 성과를 거두었다. 점유율에 있어서는 리테일 온라인 전체 국내주식 2.92%, 해외주식 2.66%2021년 기준를 기록했다.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는 유튜브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세미나·바이럴·광고 콘텐츠 제작·운영, 프로모션·이벤트 실행47건/2021년 기준의 성과를 올렸다. 고객 케어In/Out에 있어서는 유선전체고객 61만 건/22만 건, 유선프라임고객 15만 건/5만 건, 무인응대 31만 건/26만 건2021년 기준을 달성했다. 특화 서비스에 있어서는 해외주식 스탁론 개발, 해외주식 야간 데스크 운영, 대신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인공지능 금융전문 로봇 벤자민 개발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2021년 아시아 스마트 금융대상 디자인 최우수상, 2020년 크레온 MTS 2020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2019년 제24회 매경 금융상품 최우수상, 2019년 캐피탈마켓대상 베스트 혁신부문, 2018년 제8회 아시아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 대상금융감독원장상, 2018년 아시아투데이 금융대상로보어드바이저부문 2년 연속 수상 외 약 30건 이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디지털부문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 마케팅·고객 관리 부문에서는 커뮤니케이션·프로모션·이벤트·마케팅·바이럴 기획, 서비스·제도 수립, 성과관리·ROI분석, 연계신용서비스 제휴를 이루고자 한다. 디지털 매체·채널 관리에 있어서는 디지털 매체 운영, 홈페이지·SNS 등 채널관리 고도화, 제휴 비즈니스를 지향한다. 해외증권 시스템 구축·관리와 관련해 현지협력 증권사·거래소 제반 업무, 라이선스·시장제도 반영·신규서비스 기획, 주야간 데스크 운영, 주문·환전 업무 응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Mass·프라임 투자상담서비스로는 운영·채널 관리, 신규 프라임서비스 개발, 투자정보 콘텐츠 제작, 타겟고객 아웃바운드, 활성화 마케팅, 본지점 업무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고객 케어는 대신증권 대표전화 고객상담, 온라인 매체 리뷰·이메일·게시판 관리, 무인응대 관리, 본지점 업무 지원, 크레온 온라인 지점 업무, 비대면계좌 업무·관리를 수행할 계획이다.

디지털부문

전략지원부문

전략지원부문은 2018년 8월 미래전략실 및 투자금융실 2개 부서 통합으로 전략지원실과 신사업추진단을 신설하여, 증권 및 국내외 계열사와의 협업을 지원하고 그룹차원의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부서로 발전했다. 원활한 글로벌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위해 해외법인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며, 현재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략지원실은 대신증권 및 계열사 신사업 등 전략 수립, 신규 딜 소싱 및 전략적 재무적 투자 집행을 담당한다.

전략지원부문의 핵심 경쟁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룹 전략 수립을 위한 비즈니스 발굴 및 그룹 내 시너지 극대화이다. 그룹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신규 비즈니스를 발굴, 기획한다. 또한 전략 실행을 위한 그룹 내 조직 간 역할을 조율하거나 실행 조직을 신규 설립하는 등 전략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 대신자산신탁 설립 추진, 프라이빗 라운지 설립 추진, 2018~2020년 해외법인 설립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간의 경험을 통해 국내외 비즈니스 환경 및 그룹 내 조직역량에 대한 이해를 넓혀왔다. 향후 중장기 그룹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해외 네트워크 보유이다. 전략지원부문은 2020년 7월부터 미국,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에 소재한 현지법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지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보유하는 한편, 현지법인 인력을 활용해 해외 투자에 필요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해외시장 동향, 기투자자산에 대한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으며 신규 투자기회 발굴 및 리스크 대응에 상당한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셋째,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 확보이다. 전략 방향에 따라 약 30여 건의 국내외 필요 자산을 확보했다. PEF LP 출자로 콘텐츠, e커머스, TMT, 모빌리티 등 성장 산업 및 기업의 지분인수를 진행했다. 유형자산의 경우 국내외 핵심지역강남, 도쿄, 뉴욕 등에 소재한 오피스, 주거, 리테일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유하고 있다. 지난 투자 집행 경험을 통해 시장에 대한 이해, 딜 소싱, 실사 및 집행 역량을 키울 수 있었으며 그룹 신규 비즈니스 활성화 니즈에 따른 자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한다.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2020~2021년 총 23건의 국내외 투자 집행, 대신자산신탁 설립 추진, 싱가포르, 미국 법인 설립 추진, 동경사무소 법인전환 등이다.

전략지원부문의 비전은 외부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신규 사업 및 투자 기회 발굴, 계열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증권연계 비즈니스 전략 수립,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외 유·무형자산 확보 기회 발굴, 기투자자산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이다.

신사업추진단은 2022년 5월 그룹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한 신사업 탐색 및 추진 부서로 신설되었다. 주요 업무는 기술과 사회 변화에 따라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신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전략지원부문의 비전은 외부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신규 사업 및 투자 기회 발굴, 계열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증권연계 비즈니스 전략 수립,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외 유·무형자산 확보 기회 발굴, 기투자자산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이다.

경영기획 부문

내부 활력 증진을 통한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공동체 의식 고취, 기업문화를 개선하고자 한다. 조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업무 역량 배양 지향, 구성원 역할, 자율권, 책임 확대를 통해 능동적, 적극적 조직문화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영기획부문은 1975년 기획조사부로 발족했다. 전사적인 전략을 총괄하는 부문으로서 전사 관점에서 대신의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 대신증권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경영기획실4팀, 재무자금부4팀, 브랜드전략실3팀, 플랫폼솔루션부3팀 4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다.

경영기획부문의 경영기획실은 조직 및 규정관리, 대외보고, 해외사업 업무 총괄, 목표 및 평가 총괄, 관리회계 총괄, 예산관리, ESG관리, 연간 정보화계획을 담당한다. 재무자금부는 회계업무 기획 및 결산, 세무업무, 내부회계 및 본·지점회계, 자금기획 및 조달운용, 대내외 기관국세청, 통계청, 금감원 등 자료 제출 등을 담당한다. 브랜드전략실은 그룹 브랜드 전략 수립 및 관리, 그룹 디자인 전략 수립 및 시행, 광고, 홍보, UX·UI 기획 및 디지털매체 디자인, 온라인 접점 채널 운영·관리, 그룹 내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한다. 플랫폼솔루션부는 플랫폼 서비스 개발,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데이터시스템 개발, 데이터 수집·분석, 데이터 품질 유지 등을 맡고 있다.

경영기획부문의 핵심 경쟁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룹에 명확한 장기 목표를 부여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사업부문별 경쟁력 확보, 방향성, 목표 설정 등 그룹 내 유기적 협력을 통한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 자기자본·세전순이익 목표 부여2026년 연결자기자본 5조 원, 10년 내2031년 연결자기자본 10조 원, 협업·써밋 목표 부여 및 관리를 통한 그룹차원 시너지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둘째, 경쟁력 있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상시 TF를 운영하고 있다. 리테일 서비스 정립을 통해 HNW 고객과 Mass고객을 아우르는 성과 창출 및 플랫폼을 통한 시장 선점에 힘쓰고 있다. 금융세제 개편과 마이데이터서비스 등을 우선과제로 선정하여 TF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IT 역량과 서비스 기획력의 시너지 창출이다. IT개발, 데이터, 기획부문의 전문인력 협업 조직을 운영하여 신규 리테일 서비스 발굴 및 개선업무에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금융서비스 트렌드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술기반 및 사용성 중심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넷째, 데이터에 기반한 초개인화 금융서비스로의 성장이다. 프로파일링 알고리즘 고도화에 집중하여 금융투자, 마이데이터, 절세 등 고객별 니즈에 적정한 맞춤형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품질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지주사 슈퍼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밀하고 차별화된 업무제휴도 추진 중이다.

다섯째, 인하우스 전문인력 보유이다. 그룹 내에 통일된 브랜딩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을 자체 보유하고 있으며, 계열사 및 영업점의 마케팅활동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요청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마케팅 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브랜딩도 가능하다. 자체 스튜디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영상콘텐츠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경영기획부문의 업무 실적은 다음과 같다.

2003년 ESOP제도 도입, 2007년 증권업계 최초 런던증권거래소 GDS상장 성공, 2010년 CI 리뉴얼 작업 추진, 2011년 크레온 론칭, 2012년 관리회계 시스템 도입, 2013년 MTS 리뉴얼 및 UX 개선 작업, 2015년 브랜드수수료율 도입, 2016년 공간 브랜딩명동 사옥, 2016년 MTS 리뉴얼 및 UX 개선 작업, 2017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020년 로보어드바이저·AI챗봇 상담서비스 도입, 2020년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 리뉴얼 및 UX 개선 작업, 2021년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 개선, 2021년 공간 브랜딩(위례 라운지) 등이다. 그밖에도 특허 등록과 유지관리기술특허 등록 8건, 디자인 특허 9건, 국내상표권 131건, 해외상표권 28건, 유튜브/SNS를 통한 기업 브랜딩 작업유튜브 구독자 6.5만/블로그 이웃 4.7만 명 확보, 대신 굿즈 기획/디자인대신스탠드컵/지갑/에코백, 연간 제작물 디자인 등이 있다.

경영기획부문의 수상 실적은 다음과 같다.

2013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위너MTS, 2015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위너애뉴얼리포트, 2016년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애뉴얼리포트, 2017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위너애뉴얼리포트, 2018년 IDEA 디자인 어워드 파이널리스트사원증, 2018년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애뉴얼리포트, 2018년 ASTRID 골드위너 수상애뉴얼리포트, 2019년 iF 디자인 어워드 위너애뉴얼리포트, 2019년 예금보험공사 표창차등보험료율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 2020년 금융투자협회장상, 2020년 한국은행총재 표창지급결제제도의 발전과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한 공로, 2020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MTS, 2021년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MTS 수상 등이다.

경영기획부문의 목표는 현명한 투자를 실행하는 종합투자그룹으로서 신 도약을 추구하고 매해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를 수립하는 것이다. 내부 활력 증진을 통한 임직원의 동기부여 및 공동체 의식 고취, 기업문화적극적, 능동적를 개선하고자 한다. 조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업무 역량 배양 지향, 구성원 역할, 자율권, 책임 확대를 통해 능동적, 적극적 조직문화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룹의 재무관리 콘트롤 타워로서 재무전략 수립과 회계 및 세무 업무 수행을 통해 신뢰성 있고 투명한 재무환경을 구축하여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회사 각 사업부문별 필요자금 조달 및 제공과 유동자금 운용을 통해 회사 수익 제고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장단기 유동성 관리를 통해 재무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그룹의 통일된 브랜딩을 위한 디자인 전략도 지속적으로 추구할 계획이다.

경영지원 부문

경영지원부문은 인사부, 인프라서비스부, 결제업무부, 신인사추진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지원부문은 1994년 이전까지 관리본부 내의 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2년부터 경영지원본부로 명칭 변경되었고, 2011년 4월 1일 인프라관리본부가 분할되면서 인사부는 인재역량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6년 7월 1일 경영지원본부가 신설되면서 인재역량센터, 인프라관리본부가 통합되었다. 2022년 1월 19일자로 경영지원부문으로 조직개편되었다.

경영지원부문은 인사부, 인프라서비스부, 결제업무부, 신인사추진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영지원부문은 1994년 이전까지 관리본부 내의 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2년부터 경영지원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1년 4월 1일 인프라관리본부가 분할되면서 인사부는 인재역량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6년 7월 1일 경영지원본부가 신설되면서 인재역량센터, 인프라관리본부가 통합되었다. 2022년 1월 19일자로 경영지원부문으로 조직개편되었다.

인사부의 주요 조직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 인재전략팀은 인사채용·발령, 인사고과, 포상 및 징계, 근태 등 인사제반관리를 담당한다. 복리후생팀은 급여, 성과급, 퇴직급여, 임금피크제, 신원보증보험, 의료비, 학자금 지원, 동호회 지원, 주택자금대출, 국내외 출장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노무팀은 임금협약, 단체협약, 안전보건계획 운영 등 노무관리를 담당한다. 역량개발팀은 직무·공통·리더십 역량 교육, 더라이브러리 및 연수원 관리, 자격증 등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수행한다.

인사부문의 핵심 경쟁력은 우수인재를 확보하여 각 부문별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생산성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회사의 경쟁력과 임직원의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다양한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성과에 기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통한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직군체계, 성과보상체계, 근무시간 관리체계 등의 인사제도 개편을 추진했고, 리더십, 직무, 공통역량 강화와 독서학습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인사부의 목표는 우수인재를 확보, 육성하여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고, 일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직원들이 스스로 동기부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제반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신인사추진팀은 2022년 7월 신설되었으며, 주요 업무는 인사전략 수립 및 제도기획, 성과보상제도 운영 등이다.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인사 전략을 수립하고, 임직원의 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인사·보상체계와 기업문화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프라서비스부는 구매, 주식 관리, 회사 자산관리 및 대내외 행사, 본지점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프라서비스부의 핵심 경쟁력은 전통적인 부서를 넘어, 회사의 디딤돌이 되는 부서라는 점이다. 그룹 자원의 구매, 관리, 조정을 총괄하여 관리효율성을 제고하고, 전사적인 업무 지원을 통해 그룹의 목표 달성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주총회 운영을 통해 그룹 의사결정에 기여하며, 전사 대내외 행사 및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그룹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

인프라서비스부의 업무 실적은 다음과 같다. 회사의 구매관련 업무 일원화를 통해 구매 효율화 및 비용 절감을 이루었다. 본지점 지원 업무를 통해 각 부서의 영업활동 및 업무진행을 지원하고, 최고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부동산 계약, 관리 및 아웃소싱 관리를 통해 전사 부동산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주주총회 및 대내외 행사를 담당하여 대내외 소통을 지원한다. 또한 본지점 인테리어 변경 및 신설을 통해, 지속적인 고객만족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속한 방역체계를 지원했으며, 사내카페 운영을 통한 임직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인프라서비스부의 목표는 전사의 일원화된 구매 창구가 되어, 최고의 효율을 내는 구매 프로세스 구축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협업 및 협상을 통해 비용절감을 넘어 이익을 창출하는 부서가 되는 것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지원을 통해, 대내외 고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부서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결제업무부는 1977년 1월 증권관리부로 신설되었으며, 2006년 4월 현재 부서 명칭인 결제업무부로 변경되었다. 결제업무부는 5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팀별 업무는 다음과 같다.

예탁결제팀은 국내주식 및 채권을 포함한 전 증권의 권리처리 및 증권관리를 담당한다. Global결제팀은 해외주식 및 채권의 권리 및 증권관리, 해외파생상품 결제 업무를 담당한다. 상품결제팀은 회사의 운용자산에 대한 결제, 결산 및 손익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장외파생상품결제팀은 파생결합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결제와 결산 및 손익 관리를 담당한다. 기관결제팀은 금융기관 고객의 거래 결제, 외국인 고객의 상임대리 업무 수행을 담당한다.

결제업무부의 핵심 경쟁력은 첫째, 증권거래 및 보관에 따른 정확한 유가증권 관리 및 권리처리이다. 과거 단순한 실물 유가증권의 입출고가 주업무였던 증권관리부에서 현재는 다양하고 복잡해진 형태의 유가증권 발행, 유통, 기업공개, 기업권리 등에 맞춰 정확하고 신속한 권리처리 및 증권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국내외 다양한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도록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일본주식 거래를 시작으로 현재는 미국, 일본, 홍콩, 중국의 실시간 해외주식 거래와 20여 개 국가의 주식 및 채권 결제와 배당지급, 옵션부권리 신청 등 권리처리를 수행했다. 1996년 주가지수선물 거래를 시작으로 장내파생상품 결제업무를 지원했고, 2011년에는 해외파생상품 거래서비스가 오픈됨에 따라 다양한 국가의 풍부한 종류의 장내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도록 결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09년 장외파생상품업 인가를 취득하여 ELS, DLS, ELW와 같은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담당하고 있고, 국내외 금융투자회사들과 직접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결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2년에 한국거래소 중앙청산소 회원에 가입하여 이자율스왑 청산결제를 개시했다.

셋째, 결제업무부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수반되는 부가 인프라 구축을 이루었다. 2010년에는 해외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외화 환전거래 시스템을 마련하여 고객이 직접 실시간으로 외화를 환전하고 입출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외국환결제업무를 수행함으로 외화로 거래되는 상품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결제업무부의 목표는 금융시장의 비약적 발전과 글로벌화에 따라 고객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회사의 자체 운용 등 영업활동에도 든든한 지원 부서가 되고자 한다.

고객자산 부문

고객자산부문은 2014년 고객상품본부를 모태로 현재 고객자산부문이 조직되었다. 일반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 신탁 분야의 종합 자산관리 상품 공급을 시작했으며, 현재 상품솔루션부舊.Family Office상품부+HNW상품지원부, 랩사업부舊.랩운용부, 신탁사업부舊.신탁부 로 편제되었다.

고객자산부문의 상품솔루션부는 상품개발 및 소싱, 상품 세일즈 지원, 펀드 관련 지원을 담당한다. 랩사업부는 랩어카운트 기획, 개발, 마케팅, 운용, 관리 및 자문형랩·일임계약 업무를 맡고 있다. 신탁사업부는 신탁상품 기획, 개발, 마케팅, 운용, 관리 등을 담당한다.

고객자산부문의 핵심경쟁력은 다음과 같다. 상품솔루션부의 핵심경쟁력은 부동산, 리츠, 증권형 등 우수 상품 공급 역량이다. 상품솔루션부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WM자산관리 트렌드에 부합하는 우수 상품의 공급에 높은 역량을 지닌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① 기초자산에 대한 이해와 교육 등 판매 지원, ② 안정성 높은 상품의 제공, ③ 자산운용사와의 파트너십과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신증권이 신뢰있는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제안하는 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는데 오랜 기간 기여해 왔다. 특히 부동산 등 대체투자 상품 분야에서는 자체 소싱뿐만 아니라,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 타사와 비교해 우위를 점하며, 금융그룹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상품 공급을 통한 외형 성장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자본시장 제도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완전판매와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의 수행에도 크게 협조하고 있다. 향후 상품솔루션부는 그 동안 강점을 지녀왔던 부동산 및 대체상품 외에도 리츠, 멀티에셋 등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니즈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고객의 재무적 행복을 충족할 수 있는, 대신증권의 핵심 부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신탁사업부의 핵심 경쟁력은 부서 내 각자 역할의 유기적 통합과 업무 고도화이다. 신탁이라는 특성상 상품기획에서부터 운용 그리고 회계와 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부서 내에서 완결되어야 하므로 자기 업무뿐 아니라 다른 부서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팀별 그리고 시니어와 주니어 직급 간 유기적 의사소통과 부서 수행능력 효율화와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항상 업계 흐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즉각적으로 비즈니스화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랩사업부의 핵심 경쟁력은 상호 친화적인 조직문화, 영업부서와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이다. 금융상품본부 및 영업점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법인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 채권형랩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랩어카운트 잔고 증대, 금융상품 수익 증대로 랩사업부와 영업부서와의 윈윈 전략을 달성했으며, 향후 랩어카운트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맞춤형 금융자산관리 강화, 시장 트렌드에 맞는 랩어카운트 상품 적시 제공, 영업부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상품설계 및 제공으로 영업부서와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전략을 추구한다. 또한 영업직원 랩어카운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경쟁력으로 꼽힌다. 랩어카운트 업무 전반의 업무매뉴얼 제정 및 교육, 신상품 출시 상품소개 및 세미나를 통해 고객에게 불완전 판매가 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고객 금융자산 상담시스템 제공 및 사후관리로 자산배분에 대한 영업직원의 역량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상품솔루션부의 주요 성과는 리테일 대체투자상품 누적판매금액 4조 4,626억 원2021년 기준, 리테일 공급 대체투자상품펀드 잔고 1조 4,822억 원 달성2021년 기준, 대체상품 포함 리테일 공급 금융투자상품펀드 잔고 3조 835억 원2021년 기준 등이다.

신탁사업부의 주요 성과는 61기 중 정기예금신탁 잔고 2조 원을 돌파하여 증권업계 1위 달성, 대체투자 신탁상품 공급 확대 : 부동산·REITs, 비상장·투자조합, PF 유동화 SPC 관리 업무 및 금전채권신탁 비즈니스 확대 등이다.

랩사업부의 주요 성과는 투자일임계약 건 수 3만 9,681건, 투자일임계약 잔고 8조 99억 원 달성2021년 기준, 투자일임수수료 107억 원, 업무위탁수수료 3.9억 원 달성, 일임형 ISA 누적수익률 41.08% 업계 2위 달성2021년 기준 등이다. 고객자산부문은 2016년 금융의 날 금융위원회 국민저축 증대 기여 표창, 2016년 금융투자협회 금융산업 발전 기여상 등을 수상했다.

고객자산부문의 목표는 대신증권이 리츠 업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다. 아울러 부동산 등 대체상품에 대한 업계 선도지위를 유지하고자 한다. 또한 안정성 있는 멀티자산을 활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트렌드를 주도할 계획이다. 계량모델을 이용한 고객자산관리 상담시스템 및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모델 개발 등도 목표로 삼고 있다.

고객자산부문의 목표는
대신증권이 리츠 업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다.
아울러 부동산 등 대체상품에
대한 업계 선도지위를 유지하고자
한다. 또한 안정성 있는 멀티자산을
활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트렌드를
주도할 계획이다.

IT부문

IT부문은 1978년 전산실 신설을 시작으로 1996년 전산본부로 개편되었다가 현재 IT운영부 5개 팀, IT개발부 5개 팀, 업무개발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0년 광명전산센터 개소, 이후 2019년 주 전산센터를 위례전산센터로 이전했다.

IT운영부는 IT 전반의 인프라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한다.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통신 및 데이터베이스 인프라를 운영 관리하며 업무 관제·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본·지점, 대고객 금융서비스의 운영업무를 담당한다. IT개발부는 대고객 금융서비스 및 본·지점 업무 서비스 개발을 맡고 있다. 전산개발 요청 관리를 통하여 업무시스템, 정보시스템, 매매시스템, 상품개발시스템, 온라인 채널 개발업무를 담당하며 주요 전략과제 및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주요 과제를 개발한다. 업무개발부는 신규 비즈니스에 대한 서비스 검토,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및 변경 업무를 담당한다. 계좌, 출납, 주문 등의 업무, 매매 제도 변경 지원을 담당한다.

IT부문의 핵심 경쟁력은 첫째, 업계를 선도하는 IT 기술의 우수성이다. 업계 최초 증권전산시스템 도입, 온라인 시세전광판 가동, 종합계좌시스템 구현, 인터넷 애뮬레이터 방식의 홈트레이딩시스템 가동 등 독자적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신증권의 온라인 서비스는 모두 증권업계 최초가 되었다.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채팅봇, 쌍방향 음성대화형 서비스 벤자민 오픈 등의 서비스도 IT 기술력을 자랑한다.

둘째, 안정적인 IT서비스 제공이다. 고객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체 개발 시스템을 구현인포웨이, 사이보스 빌더 등하여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다. 다양한 장애 시나리오에 대응한 백업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관제 시스템을 통하여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전략적 아웃소싱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셋째, IT 개발 인력의 전문성이다. 자체 기술보유 및 전문지식을 가진 역량 있는 내부 개발자 그룹을 확보하고 있다. IT 조직의 개발·운영 분리를 통한 IT서비스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IT부문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 홈트레이딩과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을 수출했으며, 2016년에는 태국 부알루앙 증권과 함께 온라인 주식거래 사업을 개시했다. 2017년에는 증권업계 최초로 사내 업무망 가상화 구축을 통해 클린 데스크를 구현했으며, 그룹웨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신파이낸셜그룹의 소통과 협업을 위한 통합 업무환경을 제공했다. 또한 신온라인 고객관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통하여 무인응대 시스템, 고객중심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고객분석시스템, 통합마케팅 포털을 구축했다. 2019년에는 대신 위례센터에 면진 설계를 반영한 종합상황실 및 신규 IT 인프라로 구축된 최신 전산센터로 이전했다. 2020년 이후에는 환경 변화에 맞추어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따른 재택근무 시행을 위해 전용 솔루션을 도입했으며, 공모주 청약 열기에 맞춰 대형 IPO를 위하여 대량 동시 접속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 용량 증설, 유량제어 솔루션 도입, 공모주 청약 관련 프로세스 개선을 통하여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등의 공모주 상장을 진행했다.

IT부문은 2020 아시아스마트 금융대상 MTS 부문 기술 최우수상아시아경제, 2018 매경 증권대상 금상 IT혁신, 2017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정보기술 IT부문 최우수상이데일리, 2016 대한민국 MTS 평가 대상 CYBOS Touch 대상, 2015 대한민국 앱 이노베이션 대상 등을 수상했다.

IT부문의 목표는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주도적, 능동적인 IT시스템 제공과 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IT서비스 지원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IT환경에 대응하고, 회사 전략 방향에 맞는 시스템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IT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한다.

Research Center

리서치센터는 1984년 대신경제연구소 설립을 모태로 탄생했다. 순수 민간 경제연구소로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거듭한 대신경제연구소를 토대로 2005년 4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현재 기업리서치부 4개 팀, FICC리서치부 3개 팀, 장기전략리서치부 4개 팀으로 총 3개 부서 11개 팀으로 구성되었다. 리서치센터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기업리서치부의 성장산업팀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전기전자·휴대폰, 통신·미디어, 인터넷·플랫폼, 게임·엔터테인먼트, 제약·바이오를 담당한다. 금융소비재팀은 유통·섬유, 음식료·생활소비재, 금융은행,증권,보험, 스몰캡중소형주을 담당한다. 소재산업재팀은 운송·복합산업지주, 조선·기계·유틸리티, 자동차 및 부품, 2차전지 및 소재, 정유·화학, 철강·건설을 담당한다. 리서치기획팀은 리서치센터의 기획, 편집디자인, 번역, 마케팅업무, 예산 등의 업무와 애널리스트와 영업부서 간의 지원업무를 총괄한다.

FICC부의 매크로팀은 국내외 경제, 채권·외환시장 전망을 맡았다. 투자전략팀은 국내 주식시장 전망, 퀀트를 맡고 있다. 글로벌전략팀은 글로벌 주식시장 전망, 원자재를 담당한다.

장기전략리서치부의 자산배분팀은 고객별 맞춤형 자산배분 전략제시, ETF와 펀드 등 금융상품 리서치를 담당한다. 해외주식팀은 글로벌 선도기업 심층분석, 차별적 경쟁력을 보유한 해외기업 발굴을 담당한다. 글로벌부동산팀은 주요국 상업용 부동산과 상장리츠 분석, 중장기 부동산 투자전략 제시를 담당한다. 미래산업팀은 메가 트렌드와 미래 유망 산업 리서치, 신성장 분야 비상장기업 분석을 맡고 있다.

리서치센터의 핵심 경쟁력은 첫째, 시니어·주니어 애널리스트 그리고 RA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다. 리서치센터는 기업리서치부, FICC리서치부, 장기전략리서치부 모두 산업 혹은 분석 대상 간에 상호 연관성이 높은 부분을 팀으로 편성하여 애널리스트 간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애널리스트 경력 10년 이상의 팀장이 주니어 애널리스트 및 RA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조직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리서치센터 조직 특성상 개인적인 업무활동이 많아 공동체 의식 및 조직에 대한 로열티가 낮은 경우가 많지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는 가족적인 조직 문화를 통해 서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며, 공통자료 및 컬래버레이션 자료 발간을 통한 리서치 자료의 퀄리티 향상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리서치센터장 및 부서장은 각각의 애널리스트에게 최대한의 자율적인 재량권을 부여하여 애널리스트 스스로 창의적인 사고와 분석능력, 그리고 독립적인 투자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사 리서치센터와 차별화된 시각으로 업종을 분석하고 투자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부터 리서치센터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국내 어떤 리서치센터보다도 젊고 역동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다. 30대 초중반의 젊은 애널리스트들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면서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리포트 발간을 통해 시장에 참신한 아이디어 및 의견을 제시하고, 40대 시니어 팀장들은 주니어 애널리스트 자료의 로직 및 밸류에이션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양질의 자료를 시장에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젊고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 육성을 위해 투 트랙으로 ① 2년 이상 경력의 RA의 주니어 승격 심사 6개월에 한번 개최, ② 타사 및 산업계 젊은 인재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리서치 백그라운드를 갖춘 젊고 유능한 인재에게 대신증권 내의 타 본부 및 부서에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 맞춤형 서비스 및 투자자와 소통 강화이다. 리테일, 기관투자자, 은퇴세대 등 고객별로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SNS, 동영상, 온라인·오프라인 세미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과 접점을 넓혀가고 있으며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과 그룹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셋째, 미래 성장 분야 리서치에 주력하고 있다. 기존 리서치 영역 외에도 중장기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제적으로 심도있게 리서치하여 고객들에게 인사이트와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리츠, 부동산, 신성장 산업에 특화된 팀을 조직하여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심화 리서치 자료를 발간함으로써 다양해지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리서치센터의 주요 성과는 리서치 자료 기반의 각종 세미나 및 투자설명회 월 200회 이상, 기업의 NDR, Corporate Day 행사 월 2회 이상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리츠 및 대체투자서비스 강화를 위해 관련 자료를 연 112건 발간하고, 리츠 및 대체투자 설명회 개최도 173건2021년 기준으로 업계 최다, 최고 수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 외 영업지원 마케팅세미나, 설명회, 포럼, 콜, 컨퍼런스콜, 소그룹 IR 미팅, 국내외 NDR 실시 등도 상시 실시하고 있다. 수상 실적은 2020년 뉴스핌 베스트리서치상, 2020년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애널리스트 대상, 2020년 아시아투데이 리서치 최우수상, 2021년 헤럴드경제 리서치센터 대상 등을 수상했다.

리서치센터의 비전은 업계 최고 리서치센터 구현, 조직문화, 실력 모든 면에서 함께 일해보고 싶은 리서치센터 구현, 그룹 내 협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 미래 블루오션 부문리츠, 패시브, 비상장 선제적 리서치, 글로벌 투자 확대 대응으로 해외주식, 글로벌 분야 리서치 브랜드 제고, 국내외에 확고한 브로커리지 입지를 위한 유기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명가의 위상 재현이다.

리서치센터의 비전은 업계 최고 리서치센터 구현, 조직문화, 실력 모든 면에서 함께 일해보고 싶은 리서치센터 구현, 그룹내 협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 미래 블루오션 부문 리츠, 패시브, 비상장 선제적 리서치, 글로벌 투자 확대 대응으로 해외주식, 글로벌 분야 리서치 브랜드 제고, 국내외적 확고한 브로커리지 입지를 위한 유기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명가의 위상 재현이다.

홍보부문

홍보부문은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 불특정 이해관계자, 투자자, 유관기관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회사 경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회사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언론홍보는 대언론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다.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대언론 활동을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 요소를 제거·수정하고 경영방향성과 전략, 사회적 활동 등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광고는 기업 이미지 제고와 회사 주요 상품 및 서비스의 대외 노출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다. 정기간행물과 방송매체, 스포츠마케팅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광고를 통해 회사 평판 및 상품서비스의 인지도 상승과 기업 이미지 제고 등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구축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IR은 투자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다. 주기적인 자료 제공과 대면 미팅, 컨퍼런스콜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전략방향과 성과, 주주환원 등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소개해 투자와 관련한 효율적인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관은 유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회 등 직접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규제와 정책 등 향후 회사 경영방향과 관련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홍보부문의 주요 성과는 회사의 주요 경영리스크와 관련한 위기관리 활동, 회사의 전략방향에 맞춘 기업 이미지 구축,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활동 및 관리 등이다.

홍보부문의 비전은 첫째, 브랜드 경쟁력의 확보이다. 창립 60주년과 관련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금융과 부동산 융합에 대한 전략적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룹 미래성장전략 홍보와 효과적인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 President Identity 관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 개발 및 리테일 마케팅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관계관리 강화를 통한 우호적 경영활동을 조성하고 있다. 주요 쟁점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와 이를 위한 우호적 언론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룹 미래전략, 주주환원정책, ESG 전략 등 이해관계자 대상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리스크관리 부문

리스크관리부문은 1997년 5월 기획팀 주관의 비상설위험관리조직이 최초로 운영됨에 따라 태동했다. 2002년 4월 독립된 부서로 조직되었고, 2016년 12월 리스크관리본부 내에 리스크관리부 1개 부서로 통합되었다가 2022년 1월 리스크관리부문 내에 리스크관리부와 심사부 2개 부서로 분리되었다. 리스크관리부문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리스크관리부의 리스크정책팀은 재무건전성 지표 관리, 한도 배분 및 모니터링 등을 담당한다. 리스크공학팀은 장외파생상품 리스크 분석, 시장 리스크 분석 등을 담당한다. 심사부의 심사1팀은 부동산 등 대체자산 투자 리스크 심사 등을 맡고 있다. 심사2팀은 회사채·IPO 인수 리스크 심사, 신용·대출 리스크 심사 등을 담당한다.

리스크관리부문의 핵심 경쟁력은 첫째, 회사 자산과 신용을 지키는 헤드쿼터로서의 사명감이다. 리스크관리부문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운용자산 포지션, 이벤트 사항, 손익 현황, 유동성 현황, 마켓 데이터 등 제반 리스크 상황을 감지, 보고 조치하는 통제실로서 회사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회사의 재무건전성 관리, 순자본비율, 유동성비율, 레버리지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표를 관리함으로써 회사가 미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안정적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신용등급 평정업무 전반을 담당함으로써 회사채 신용등급 AA-안정적, 기업어음 등급 A1을 획득하는 등 업계 수위 등급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대외신인도 제고에 힘쓰고 있다. 둘째, 상호 협력적인 조직문화이다. 리스크관리부에서 분석한 재무건전성 영향 등을 심사부에서 부동산, IB딜 심사, 검토에 활용하는 등 각 부서 및 팀별로 협력해 생산성 높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셋째, 신속 정확한 리스크관리를 위한 전문성 확보이다. 리스크관리부문 구성원의 업무경력 평균은 5년 이상, 3년 이상 직원 비율은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사 2인, 재무위험관리사 3인, 재무·금융 관련 전공 석사 5인 등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리스크관리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보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심사 및 리스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리스크관리부문의 주요 성과는 첫째, 투자한도 관리 체계 개선이다. Passive북 원금운용과 Active북 PI투자을 구분하여 운용성격에 맞는 투자와 실적 평가체계를 유도했다. 북의 성격에 따라 위험액 한도를 부여하여 운용상의 편리와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둘째, 경쟁력 있는 투자·상품 출시 지원이다. 리스크관리부문의 체계적 심사 및 신속한 의사결정에 따라 대형IPO 딜 성사, 경쟁력 있는 리테일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있다. 리스크관리부문은 2012년 the Bell Risk Manager Awards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리스크관리부문의 목표는 그룹 역량을 활용하는 전략적 리스크 관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자원 활용이다. 또한, 관성적 재무건전성 지표 관리보다 실질적 위험관리를 지향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제시를 통해 상품 심의 시 다각도의 실질적 심사를 유도하고자 한다. 부동산 경기, 금리, 코로나19 사태 등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나리오 분석 강화, 환경변화에 따라 비즈니스별 유연한 리스크 테이킹 유도, 지속적인 내외부 교육 참여 등을 통해 심사 역량 강화 및 시장 트렌드 파악을 위해서도 힘쓸 계획이다.

정보보호 부문

정보보호부문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에 따라 2015년에 정보보호 임원 지정 및 정보보호 조직으로 탄생했다. 2015년 8월 개인정보책임자CPO,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업무가 추가 확대 개편되고, 2018년 직할팀에서 부서로 승격 후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보호부는 정보보호 및 개인신용정보 보호 업무 총괄, 정보보호 및 개인신용정보 정책 수립 및 규정·지침 관리, 전자금융기반시설 보호 및 관리,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및 업무 위·수탁 실태점검, 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정보보호 시스템 및 전자금융사고방지 시스템 운영, 주요 시설 및 임직원 외부자 등 보안 실태 점검, 정보보호 및 개인신용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실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보보호부문의 핵심 경쟁력은 첫째, 고객 및 중요정보 보호의 첨병, 그룹 내 정보보호이다. 디지털 금융시대에 고객정보를 최우선으로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를 보호하며, 고도화되는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그룹 내 IT·정보보호 담당자에게 법규의 제·개정 및 정보보호 이슈사항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그룹 전체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효율적인 정보보호이다. 정보보호 정책의 강화로 발생하기 쉬운 업무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정보보호를 추구하고 있다. 셋째, 전문성 강화이다. 최신의 정보보호 동향을 분석하고, 타사의 정보보호 사건사고를 연구·공유함으로써 최신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내외부 교육을 통하여,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정보보호부문은 2014년 증권업계 최초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 2020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을 취득했다. 수상 실적으로는 2010년 5월 한국능률협회 주관 글로벌스탠다드 경영대상, 정보보안경영부문 대상 등이 있다.

정보보호부문의 목표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에 대한 철저한 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보호 체계 수립과 신규 보안 위협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 확보이다.

준법지원 부문

준법지원부문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내부통제제도 및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했다. 2001년 4월 9일 준법감시팀 신설준법감시인 선임, 2006년 4월 1일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부로 개편되었다가 2013년 컴플라이언스부, 법무지원실, 금융소비자보호팀으로 구성된 준법지원본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2015년 정보보호담당현 정보보호부문이 신설되면서 개인정보, 신용정보 관련 업무 이관,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총괄 신설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 이관, 2022년 현재 컴플라이언스부에 3개 팀과 부문 직할팀인 법무팀으로 구성되었다.

준법지원부문의 컴플라이언스부는 내부통제체제 및 법규 준수 프로그램의 구축·운영, 법규자문을 담당한다. 법무팀은 당사 관련 소송의 응소·제소 및 관련분쟁 대응을 맡고 있다.

준법지원부문의 핵심 경쟁력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법규준수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준법감시활동 수행이다. 준법지원부문은 상시적으로 회사의 법규준수를 통제·감독하는 활동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전산화된 모니터링 시스템과 활발한 감독기관·법규사항 모니터링으로 업무 역량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준법감시활동으로 임직원의 업무수행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법·부당 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단기적 비용 절감과 장기적 성장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자율적인 법규준수 문화 정착 유도이다. 임직원이 직무수행 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법규를 숙지하여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부서별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를 운영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담당 업무의 법규사항을 확인해보는 컴플라이언스 데이, 영업점의 법규사항을 영업점 스스로 점검하는 영업점장 자율점검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임직원이 스스로 법규준수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해나가고 있다.

셋째, 실질적인 점검과 합리적인 조치이다. 준법지원부문은 현업 부서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는 사항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율점검에 대한 검토, 현장점검 등의 활동으로 법규준수 실태에 대하여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반 정도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조치로써 임직원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법규준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넷째,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지원이다. 회사의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금융투자업 각 부문별 감독·규제 사항이 복잡·다양화해지는 추세에 발맞추어 새로운 제도 등이 시행되기 이전에 선제적인 교육 및 자문 업무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업 부서 임직원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법규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신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준법지원부문의 업무 실적은 2001년 윤리강령 제정, 2005년 주요법규 핸드북 발간·배포, 2005년 컴플라이언스 소식지 창간, 2009년 지킴이제도

개선 시행, 2010년 내부통제기준 해설서 발간·배포, 2014년 FATCA 정기금융보고 체계 수립 및 시행, 2017년 QI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시행, 2017년 위험평가기반 자금세탁방지제도RBA 구축, 2018년 컴플라이언스 데이 시행, 2019년 계열사 신용공여 방지 업무프로세스 전산화, 2019년 영업점 내부통제 평가제도 시행, 2021년 영업점장의 내부통제 점검 전산화준법감시보고서 포털 운영, 2021년 휴면계좌 점검 모니터링 시행 등이다.

준법지원부문은 2004년 한국거래소 우수컴플라이언스, 2007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윤리경영 Best Practice선정, 2009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기업 한국기업선정, 2009년 한국거래소 우수컴플라이언스, 2010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기업 한국기업선정, 2016년 금융위원회 자금세탁방지제도발전 감사상장, 2021년 금융위원회 자금세탁방지의날 금융위원장 표창 등을 수상했다.

준법지원부문의 목표는 첫째, 리스크 중심 법규준수 프로그램 운영이다.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감독기관의 제재·평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임직원 제재 또는 소송 등의 리스크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직원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조직 신설 및 신규 업무 진출 시 발생 가능한 법규리스크 점검 및 자문을 수행할 것이다. 둘째, 스스로 지키는 문화 정착이다. 내부통제의 주체는 임직원 각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스스로 지키는' 준법·윤리의식을 함양하고, 모든 영업활동에 대한 확인과 균형Check & Balance을 추구한다. 셋째, 대신증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신뢰의 수문장 역할을 하고자 한다. 법률 리스크소송, 분쟁 등 최소화를 통해 이익성장 기여, 법과 윤리에 어긋나지 않고 지속성장을 위한 법무지원 강화 등을 이루어갈 것이다.

준법지원부문의 목표는
첫째, 리스크 중심 법규준수 프로그램 운영
둘째, 스스로 지키는 문화 정착
셋째, 대신증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신뢰의 수문장 역할

금융소비자 보호부문

금융소비자보호부문은 2013년 8월 1일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조직으로 준법감시인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팀으로 신설되었다. 이후 2020년 7월 1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하여 직할본부인 금융소비자보호총괄을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부와 상품내부통제부신설를 편제했다. 2022년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부 2개 팀과 상품내부통제부 1개 팀으로 구성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부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제 구축 및 운영, 금융상품 완전판매프로세스 구축,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민원, VOC 대응 및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상품내부통제부는 신상품·마케팅 사전협의, 판매적정성 점검, 판매상품 사후관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제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한다.

금융소비자보호부문의 핵심 경쟁력은 첫째, 금융상품 완전판매 프로세스 구축 및 운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 제고다. 금융소비자 보호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금융환경에서 금융상품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금융소비자 및 임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고객 응대를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운영 중이다. 상품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 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상품 출시 단계에서 사전 심사활동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상품 출시, 과도한 마케팅의 예방 활동을 수행 중

이다. 상품담당부서의 조사활동 및 판매 직원에 대한 교육 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다. 각 상품담당부서를 통한 상품에 대한 조사와 판매직원에 대한 상품 숙지 교육을 실시하여 판매직원의 상품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 상담 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사항 등을 전산화하여 부당권유, 설명의무 위반 등의 불완전 판매 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고객 피해를 예방한다.

둘째, 금융상품 전 과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고객의 투자재산 보호 활동 강화이다. 상품개발 및 마케팅 정책수립 시 사전협의에서 상품판매 후 사후관리까지 금융상품 판매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불완전 판매 및 고객 보호 업무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위험 해소를 통해 고객의 재산 보호에 힘쓴다. 금융상품 판매 적정성 점검을 통해 상품판매 단계에서 발생한 불완전 판매 요인 조기 발견 및 위험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금융상품 상담시스템을 통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적합한 판매절차 이행, 일반투자자 대상 상담과정을 녹취 점검한다. 리테일상품 리스크검토위원회가 판매 승인한 상품의 판매 적정성을 전수 점검하며, 점검 결과 이상 발생 시 투자자에 대한 재설명 이행 등 투자자보호조치를 즉시 이행한다. 금융상품 판매 사후 점검 활동 및 대고객 안내를 통해 적극적인 고객의 투자재산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상품판매 이후 환매중단·상환지연 등 이벤트 발생을 점검하여 투자자에 통지하도록 사후관리 점검을 수행한다.

셋째, 민원 관리시스템의 전산화를 통해 대고객 분쟁처리서비스 강화이다. 2020년 10월 고객의 소리VOC와 민원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민원접수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대신민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민원접수 고객에게 진행사항을 안내하고, 관련부서 협조사항을 전산으로 관리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넷째, 금융상품 판매 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활동을 통한 대고객서비스 활동 강화이다. 대외기관 TFT 참여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자보호 제도를 구축·운영하며, 영업행위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을 발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부문의 주요 업무 실적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업무절차 및 표준판매 상담시스템 구축2021년 3월, 대신민원관리시스템 구축2020년 10월, 판매상품 사후관리 업무체계화 및 시행2020년 10월, 사모펀드 등 상품검토위원회 승인상품에 대한 판매적정성 전수 점검 업무 시행2021년 5월, 상품 기획단계, 판매단계, 사후관리까지 상품 전 과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2018년 1월 등이다.

금융소비자보호부문의 목표는 금융소비자보호 생활화를 통한 고객 신뢰확보 및 재산보호이다. 이를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 사전예방으로 건전한 영업문화를 조성하고, 내부통제부서 간 협업을 통한 가용자원 최대 활용, 불완전판매 점검 및 예방을 강화하고자 한다. 표준판매시스템 구축을 통한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해서 감독 방향, 제도 변화에 따른 업무 정형화 및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행하고자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부문의 목표는 금융소비자보호 생활화를 통한 고객 신뢰확보 및 재산보호이다. 이를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 사전예방으로 건전한 영업문화를 조성하고, 내부통제부서 간 협업을 통한 가용자원 최대 활용, 불완전판매 점검 및 예방을 강화하고자 한다.

감사부문

감사부문은 1975년 8월 25일 신설된 감사부를 모태로 탄생했다. 이후 여러 차례 조직의 구성과 명칭 변경 과정을 거쳐 2006년 4월 감사실로 명칭이 개정되었다. 2022년 2월 현재 감사기획팀, 자체감사1팀, 자체감사2팀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업무보조, 감독원 검사 및 외부 감사 수검 총괄, 자체감사 계획 수립 및 시행, 자회사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사부문의 핵심 경쟁력은 다음과 같다. 감사실은 감독기관의 정책방향과 회사 전략 목표 등을 고려하여 자체감사 운영방향 및 중요 점검 사항을 도출하고 금융사고 예방,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체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중점 점검사항 및 타사 검사결과 지적 사례 등을 통해서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감사업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신규 업무와 관련 규정 등 전문적인 지식습득을 위하여 감사실 직원들의 외부 연수, 자격증 취득 등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하고 있다.

협업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부서 내부적으로 자회사, 본사 각 부서 및 지점별 담당제를 통하여 상시적인 업무 지원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금융사고 예방 및 잠재 리스크 관리를 위해 국내외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와 감독기관의 고객보호정책 강화 방침에 따라 예상되는 잠재적인 위험금융사고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고객보호 및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리테일 영업부문에 있어서는 불건전 영업행위 및 부당한 업무처리를 조기 발견하고 근절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종합감사는 재무, 준법, 업무, 경영, IT 등 기능별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종합감사는 매년 본사 및 전체 영업점 50%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수시감사는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매매주문기록 유지, 시재감사 등 특정 부문, 테마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내부감사협의제도[1]에 따라 금융투자검사국 과제분기별 1회 + IT부문, 연 5회 실시하고 있다. 대신저축은행, 대신자산운용, 대신자산신탁, 대신에프앤아이 등 연 2~3개 사의 자회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부문은 금융발전 기여 직원 표창 수상2016, 2017, 2019년 금융감독원장 표창, 2017년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부문 검사 결과 내부통제 부문의 계량항목사고발생비율 평가에서 우수등급1등급을 수상했다.

감사부문의 목표는 금융사고 예방 및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잠재 리스크 관리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정착, 고위험 판매 규제 준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체투자 심사 및 사후 관리 실태 점검, IT안정성 확보 및 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대외 평판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금융·부동산 전문그룹으로서 대외 이미지 제고, 금융감독원 자체감사 요청 사항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다.

1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하여 내부통제 취약부분을 점검과제로 선정한 후,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그 이행결과를 금융감독원이 확인하는 제도

2절 대신에프앤아이

INTERVIEW
343

본질의 가치에 집중하라

주성균
대표이사

Q — 그룹 내에서 대신에프앤아이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 대신에프앤아이의 본질은 투자회사입니다. 과거에 금융회사들은 대부분 규제산업 안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룹이 사업을 다양하게 하면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없는 부문도 필요합니다. 대신에프앤아이가 바로 그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자산은 대부분 금융과 부동산인데, 부동산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부동산은 그 동안 사고팔고 정도의 수준으로 단순화되어 있었습니다. 대신에프앤아이가 그룹에 편입되면서부터 부동산을 금융화시키고, 투자의 영역을 매우 넓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확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Q — 투자와 관련하여 대표님이 지키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입니까?

A — 주어진 투자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본질의 가치에 집중해야만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치를 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직원들 모두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여지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서류에서 볼 수 있는 것 외에 현장을 나가야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Q — 대신에프앤아이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A — 우리의 비전은 〈담대한 도전과 혁신적인 변화로 가치창출을 주도하는 투자시장의 리더〉입니다.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한 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많은 가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영향에 매우 기민한 형태의 반응을 보입니다. 대신에프앤아이는 부동산이 갖고 있는 가치를 꿰뚫어보는 안목과 식견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혜안은 단기간에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NPL투자회사로 한 길을 걸어온 대신에프앤아이만의 업력, 그리고 반복된 성공과 실패에서 얻은 경험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프앤아이의 역할은 '세상의 모든 투자 대상에 대하여 가치 Value 와 가격 Price 의 본질을 파악하여, 그 내재된 차이를 현실의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입니다. 부동산의 현황, 부동산 이면의 가치를 찾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면의 가치를 알아야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회사 소개

대신에프앤아이는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 정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배드뱅크로서 2014년 5월 대신파이낸셜그룹의 새 가족이 되었다. 지속적 이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부실채권시장 선두기업이다.

2002년 리먼브라더스, 2006년 신세이은행 등 해외 유수 투자자와의 합작 등을 통해 부실채권에 대한 선진화된 투자기법과 자산관리 역량 확보를 통해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부실채권 투자회사로의 면모를 갖추어 왔다. 지난 20년 동안 축적된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투자 및 자산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투자회사로서의 수익극대화와 동시에 민간배드뱅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종합투자회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요 성과

부실채권 투자 부분에 있어서, 2021년 말까지 총 167개의 SPC 등을 통해 채권원금 기준 26조 원대신에프앤아이 투자금액 11조 9,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 투자를 단독 또는 합작투자자와 실행하는 등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통해 수익 창출을 이루고 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부실채권 시장에서 약 18%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등 해당 사업에서 지속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 개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2014년 5월 그룹의 일원이 된 이래로 2016년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남대로91 일원의 토지 및 건물 매입계약을 체결하여 2017년 8월 자회사 디에스한남주식회사를 통해 해당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취득 후 부동산 개발사업을 실시했다. 이후 개발과 금융의 조화를 통해 2021년 상반기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여 그룹의 성장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부동산금융 투자부분에 있어서는 2016년 이후 2021년 3분기 말까지 약 1조 8,700억 원의 투자가 진행되어 이를 기반으로 수수료 및 이자 수익을 창출 중이며, 관계사 간 그룹 내 협업을 통해서도 국내외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등 여러 분야에서 시장의 리더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비전

담대한 도전과 혁신적인 변화로 가치창출을 주도하는 투자시장의 리더

회사 현황

2021년 12월 기준

설립일	2001년 11월 6일	주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 18층(저동1가, Daishin343)
대표자	주성균	자본금	700억 원
매출액	별도기준 1,787억 원	직원 수	총 37명
주요사업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유동화전문회사가 불량자산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인수 및 처분 업무 • 불량자산관리 목적으로 설립된 또는 설립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자산관리회사의 지분 인수 및 처분 업무 • 불량자산의 인수 및 처분 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집합투자기구,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투자 및 기타 유가증권, 채권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업무 •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NPL 비즈니스 구조

NPL 공개매각 시장의 형태

2010년부터 시행된 IFRS의 영향으로 은행 자체 ABS 발행이 줄어들고 외부완전매각Outright sale 방식을 진행함에 따라 금융권의 부실채권은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매 되고 있으며, 대신에프앤아이는 단독 또는 합작투자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투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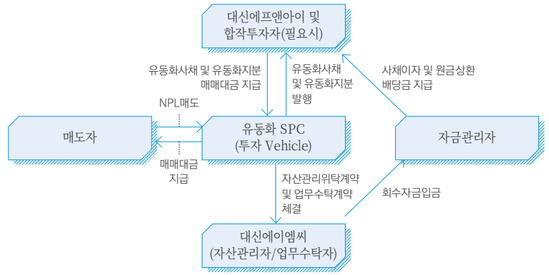
NPL 사업 구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SPC의 경우 기초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를 선임해야 하며법 제10조, 제23조, 자금의 관리를 위해 통상적으로 자금관리자를 선임한다. 자산관리자는 SPC의 기초자산을 처분하여 회수자금을 자금관리자가 관리하는 SPC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키고, 업무수탁자는 자산관리자 및 자금관리자의 업무를 확인하고 투자자에게 보고하여 사채상환, 배당 지급 등의 관련 사항을 투자자에게 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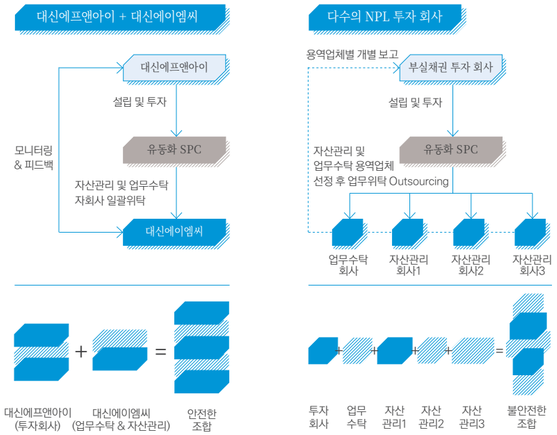
투자회사인 대신에프앤아이와 자산관리 전문회사 대신에이엠씨의 시너지 구조

다수의 NPL 투자회사들은 투자에만 주력하고 자산관리는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구조이다. 투자회사인 대신에프앤아이는 자산관리 및 업무수탁 기능을 수행하는 대신에이엠씨를 100%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의 자산관리, 업무수탁 업무를 외부 아웃소싱 개념이 아닌 투자자자회사 직접 관리로 수익성이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투자와 관리의 분리로 인한 모니터링, 신속한 피드백 등의 시너지 효과도 높다.

NPL 사업 구조



대신에프앤아이와 대신에이엠씨의 시너지 구조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와 재무적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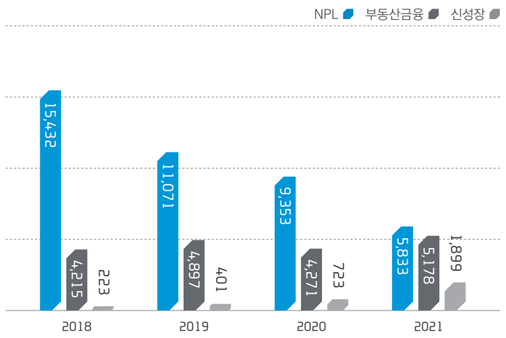
투자 포트폴리오 현황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투자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NPL 비중은 줄고, 부동산금융 및 신성장투자가 증가했다. 이는 투자대상의 다변화에 따라 2018년 NPL투자 위주에서 국내 투자시장 변화에 따라 NPL자산 축소, PF 투자 유지, 신성장투자해외 및 신규 영역의 증대로 인한 결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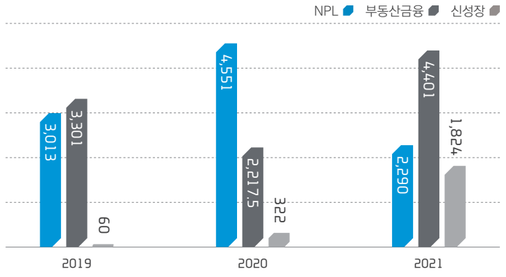
재무현황

대신에프앤아이는 2015년 연결총자산 2조 원을 돌파했으며, 2018년부터 나인원한남 임대 후 분양에 따라 자산부채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게 되었다. 2021년 나인원한남 분양전환에 따라 자산과 부채가 감소하고, 자기자본이 2배로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안정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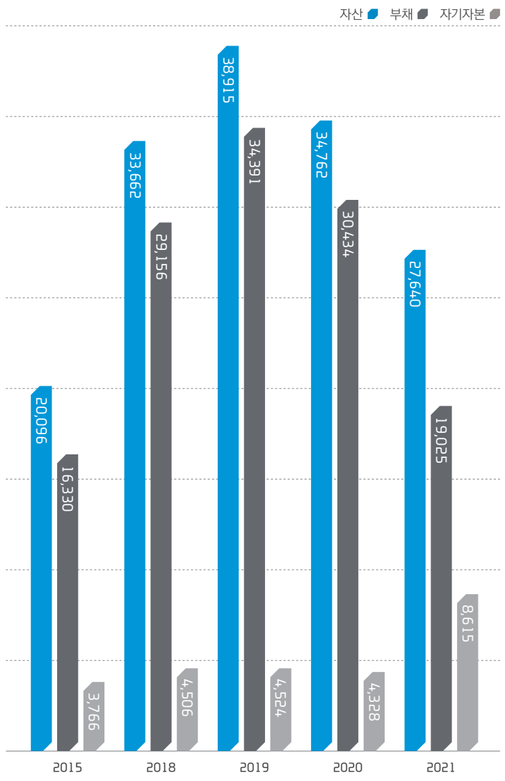
투자잔고 단위 : 억 원



연도별 순투자 규모 단위 : 억 원



연결재무제표 추이 단위 : 억 원



대신에이엠씨

회사 소개

대신에이엠씨는 국내 최초의 민간배드뱅크인 대신에프앤아이의 100% 자회사로서, 모회사인 대신에프앤아이와 함께 2014년 5월 대신파이낸셜그룹의 새 가족이 되었다. 대신에이엠씨는 자산유동화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며, 20여 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이용한 다양한 자산관리 기법은 대신에프앤아이가 부실채권 투자영역에서 최고 수준의 지위를 유지하는 원동력 중 하나이다.

대신에이엠씨는 대신에프앤아이 등 부실채권 투자회사가 은행 등으로부터 경쟁입찰을 통해 인수한 자산의 관리를 수탁 받아

① 부동산 담보의 경우, 경매 혹은 수의계약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시장가 수준에 매각하고

② 특별채권의 경우, 기업회생을 통해 채권가격 제고를 하는 등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대신에이엠씨의 주요 핵심경쟁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유치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불일치 등의 법률적인 분쟁이나 하자를 치유하고 관계인과 분쟁 등을 해결하여 자산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법률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부동산의 실수요자 발굴능력이 우수한 다수의 자산관리자Asset Manager를 보유하고 있다.

둘째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검토해온 풍부한 실무 사례 및 20년간의 축적된 방대한 부동산과 관련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대신에이엠씨는 2021년 말까지 총 167개 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위탁받은 OPBOutstanding Principal Balance, 미상환 대출원금 총 26조 원 규모의 자산을 관리한 경험이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실채권 회수금액이 2조

원이 넘을 정도로 국내 자산관리 업계에서 선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신에이엠씨는 관리자산 처분 방식의 다양화 및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산관리 활동 등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하여 시장에서 현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회사 현황

2021년 12월 기준

설립일	2002년 9월 16일	주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 18층(저동1가, Daishin343)
대표자	주성균	자본금	40억 원
매출액	146억 원	직원 수	총 43명
주요사업	• 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 업무 및 관련 서류의 보관, 관리 업무 •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과 관련한 조사, 감독, 지원 및 자문 업무		

디에스엔피엘인베스트먼트대부

회사 소개

디에스엔피엘인베스트먼트대부는 부실채권 투자 구조 다변화 및 대체투자 활성화를 위함과 동시에 그룹 내의 부실채권 매입을 통한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2015년 2월에 대신에프앤아이의 100% 자회사로 설립되었다.

디에스엔피엘인베스트먼트대부는 대신에이엠씨가 관리하고 있는 개별 부실채권의 담보 자산 및 회생기업이 보유하는 비업무용 부동산 중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리모델링, 개발 후 재매각을 통하여 추가적인 이익창출을 꾀하고 있다.

또한 대신에프앤아이가 투자한 기업 중 투자시점에는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나 향후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DIP 대출 등의 자금 지원을 통하여 투자 기업의 가치 향상을 꾀하는 등 대신에프앤아이의 투자 구조 다변화 및 수익률 향상을 위한 Vehicle로써 역할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디에스엔피엘인베스트먼트대부는 대신에프앤아이 및 대신에이엠씨에 국한되지 않고 대신증권, 대신저축은행 등 그룹 내 다양한 계열사에서 보유하는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집중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디에스엔피엘인베스트먼트대부에서 그룹 내 부실채권을 일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각 계열사는 외부 매각에 소요되는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추후 부실채권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수익을 그룹 내에서 향유함에 따라 그룹 시너지 창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회사 현황

2021년 12월 기준

설립일	2015년 2월 9일	주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 18층(저동1가, Daishin343)
대표자	이성근	자본금	10억 원
매출액	45억 원	직원 수	총 3명
주요사업	• 부실채권(대부채권)의 양수 및 양도 • 여유자금의 투자 • 자금의 차입 및 상환 • 기업 여신금융업 • 기업의 경영전략, 투자 등에 대한 진단 및 자문		• 기업 구조조정 • 부실채권(대부채권)의 추심 또는 추심 위탁 •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 소비자 여신금융업 • 기업의 인수 및 합병 • 주식, 채권, 외환 등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등

3절

대신저축은행

INTERVIEW
343

자율과 책임이 주는 자신감

박경제
대표이사

Q — 저축은행 직원들에게 평소에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 — 대표가 되면서 던진 화두는 '자율과 책임'이었습니다. 직원들 스스로 주어진 권능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일할 파트너로 사람을 봅을 때는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봅으면 안 됩니다. 신뢰가 가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일단 우리 직원이 되었다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제가 사람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믿음의 바탕 위에 자율과 책임의 기업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자율권을 부여할수록 직원들은 조직에 대한 로열티가 커집니다. 이러한 신뢰와 자율성을 기반으로 직원들이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자신감이 우리가 성과를 잘 내는 데 큰 밑거름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율과 책임을 통해 성장한 직원들의 자신감이 성과를 낼 수 있는 큰 자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 고객이 신뢰하는 대한민국 대표 저축은행,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A — 대표 저축은행이 되기 위해서는 재무적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무적 성과에서 1등을 한다고 대표 저축은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적 성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향후 3년 이내에 모든 재무적 성과에서 10위권 이내 진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대표적 저축은행이 되기 위한 재무적 기준은 통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고객과 주주, 직원 모두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쩌면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기업 문화적 측면이라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불어넣어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합리추구고 하나는 변화모색입니다. 합리추구는 이치에 맞도록 한다는 의미이며, 이치에 맞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보편적 가치기준에 합당하도록 의사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서로 공감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객, 주주, 임직원 모두가 공감분만 아니라 결국 살아남고 지속발전해야 되니까 변화하는 트렌드에 잘 적응하고 때로는 선도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변화모색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표 저축은행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고, 저부터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

대신저축은행은 대신증권이 100% 출자하여 중앙부산·부산2·도민저축은행의 우량 자산과 5,000만 원 이하 예금을 P&A자산부채인수 방식으로 계약이전 받아 새롭게 태어났다. 지역금융기관으로 본점 영업부, 서울지역 2개, 부산지역 2개, 대구지역 1개, 총 6개의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금융부문의 전문성 강화 및 그룹 내 시너지 창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계속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기반 구축과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여신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업금융 중심에서 벗어나 소비자금융부문 투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주요 성과 및 핵심 경쟁력

업계 최초 풀뱅킹서비스 모바일웹에서 뱅킹서비스와 대출실행 등 여수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풀뱅킹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용대출 한도조회부터 계약체결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홈화면에서 보고싶은 계좌만 노출하기, 계좌 잔액 숨기기 등의 기능도 추가되어 있다.

시장지위와 양호한 수익성 2021년 12월 말 기준 총 79개의 저축은행 중 예수금 점유율 12위, 대출금 점유율 15위의 상위권 저축은행이다. 대출채권 중 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 최종 손실위험이 일정 수준 통제되는 등 이익창출력의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29%로 업계 평균인 3.4%와 비교할 때 양호하다.

비전 창의적이고 민첩한 행동으로 더 높은 곳에 끊임없이 도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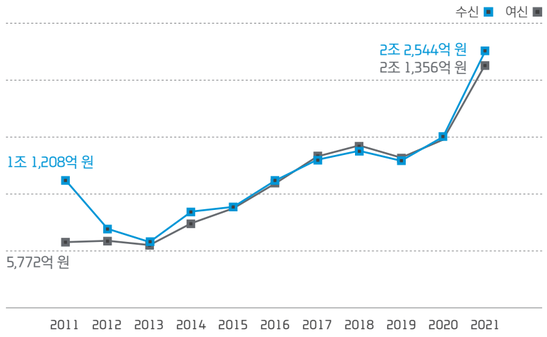
회사 현황

2021년 12월 기준

설립일	2011년 8월 5일	주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 17층(저동1가, Daishin343)
대표자	박경제	자본금	356억 원
매출액	1,439억 원	직원 수	215명
주요사업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 자금의 대출업 등		

대신저축은행은 2016년 여신 1조 원을 달성했고, 5년 만인 2021년 여신 규모 2조 원을 돌파했다.

저축은행 수신, 여신 변화 추이



주요 금융상품

예금상품

2011. 08. 31	기업자유예금, 보통예금, 자유적립예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정기예금, 정기적금
2016. 02. 18	스마트정기적금
2016. 03. 14	ISA정기예금
2016. 06. 27	스마트정기예금
2016. 11. 07	대신플러스정기예금 : 기간별 우대금리 적용이 달라지는 예금상품
2017. 01. 20	대신m플러스 정기예금 : 기간별 우대금리 적용이 달라지는 예금상품
2021. 07. 08	더드리고 정기예금 : 만 65세 이상만을 위한 전용 예금상품
2021. 08. 31	더드리고 입출금통장 : 입출금이 자유로운 파킹통장

기타

2015. 10. 19	골드바 : (주)한국금거래소쓰리엠을 대리하여 99.99% 골드바 판매대행

대출상품

2011. 08. 31	부동산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경락잔금대출
2012. 07. 02	사업자주택담보대출 : 주택을 담보로 한 개인사업자를 위한 실속형 대출
2013. 08. 05	해외주식담보대출 : 해외주식 보유고객을 위한 담보대출 상품
2013. 11. 08	대신Plus주식담보대출 : 국내주식 보유고객을 위한 담보대출 상품
2014. 08. 01	대신상가보증금대출 : 사업자를 위한 상가보증금대출
2014. 12. 10	대신솔라론 : 태양광 발전시설자금 또는 운용자금 대출
2015. 04. 01	대신신용대출 : 대신저축은행 대표 신용대출 상품
2015. 05. 04	대신홈론 :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2015. 05. 04	대신비즈론 : 본인 또는 제3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고자 하는 1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대출
2016. 12. 01	스텝론 : 신용카드 사용 이력이 있는 간편 소액대출
2018. 07. 23	하이코리아 상품 : 외국인 신용대출 상품
2020. 10. 29	대신플러스 : 우량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2021. 09. 01	대신스탁론 : 고객 증권계좌 내 예수금과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한 온라인 대출상품

4절 대신자산신탁

INTERVIEW
343

발빠른 시장 대응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업계 선도

김송규
대표이사

Q — 대표이사로 취임한 소감과 각오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2019년 치열한 경쟁을 뚫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부동산신탁업 인가를 받아 대신의 저력을 보여줬던 대신자산신탁은 임직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신탁업계에서 저변을 확대하며 대신의 위상을 점점 높여왔습니다. 저는 자산신탁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대신파이낸셜그룹 본사 명동사옥과 나인원한남, 춘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 등의 다양한 사업과 부동산 개발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무쌍한 부동산 경기와 경영환경에 맞서 우리 임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내어 자산신탁이 신탁업계를 선도하는 회사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모든 구성원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Q — 부동산신탁업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A — 부동산신탁업의 사전적인 정의는 부동산 소유자가 맡긴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수익을 만드는 사업을 말합니다. 부동산신탁업은 부동산 및 금융에 대한 이해와, 충분한 자금조달 능력, 차별적인 서비스 및 상품제공 능력이 요구됩니다. 대신자산신탁은 오랜 기간 축적된 부동산과 금융에 대한 노하우와 강점을 가진 대신파이낸셜그룹의 일원으로서, 자기자본 1,500억 원을 기반으로 한 충분한 자금조달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탁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이 상품제공 능력을 갖춘 종합부동산 금융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Q — 대신자산신탁의 전략방향과 미래상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대신자산신탁은 출범 4년차를 맞이하는 신설 신탁사로서, 기존 신탁업계와는 다른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탁업계의 주력 상품인 토지신탁사업의 확장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신탁업은 2014년 이후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수탁고를 늘리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2022년 들어 부동산 경기 상승이 정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오고 있고,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서울 및 조성된 지 30년이 경과된 1기 신도시들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들의 심각한 노후화는 재개발 및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신자산신탁의 전략방향 마련에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활황과 불황 모두에 대응 가능한 사업 전략을 유연하고 빠르게 수립하고 추진할 것이며, 대신자산신탁이 부동산신탁업을 선도하는 회사로 성장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회사 소개

대신자산신탁은 대신증권이 자본금 1,000억 원을 출자하여 2019년 5월 30일 설립되었고, 2019년 7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동산신탁업 인가를 취득했다. 2020년 2월 리츠 자산관리 업무를 시작했고, 2021년 6월 유상증자를 통해 1,500억 원 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 대신자산신탁은 금융투자업자로서 부동산 신탁업, 도시정비사업, 담보부사채신탁업 및 대리사무 컨설팅 등의 부수 업무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의 자산관리회사 업무AMC를 영위하며, '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신뢰의 종합부동산 금융회사'로서 대신파이낸셜그룹 내 신탁사로 성장하고 있다.

부동산 신탁업은 부동산 및 금융에 대한 이해, 충분한 자금조달 능력, 차별적인 서비스 및 상품제공 능력 등의 경쟁요소가 있으며, 부가적으로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능력, 다수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요구되고 있다. 대신자산신탁은 대신파이낸셜그룹의 우수한 리스크 관리 능력과 내부통제 역량을 바탕으로 다수의 부동산금융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크게 영향을 받는 부동산 신탁업의 특성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10년 만에 대신자산신탁을 비롯한 신규 신탁사의 시장 진입으로 업계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장기적 생존전략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신자산신탁은 차별화된 부동산금융상품의 제공과 부동산 비즈니스 역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주요 성과와 핵심 경쟁력

대신자산신탁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 출범 3사 중 가장 빠르게 정상적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제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로 신규 3사 중 가장 빠르게 신탁업 인가를 획득하여 영업을 개시할 수 있었으며, 리츠 AMC 인가도 경쟁사 대비 1년 이상 앞설 수 있었다.

둘째, 출범 1년만인 2020년 9월 리츠 1호 상품대신케이리츠물류1호을 출시한 점이다. 이는 우량자산을 취득하여 일반 공모한 상품으로 2020년 출시된 공모리츠 상품 중 최고의 경쟁률14.05:1을 기록했다.

셋째, 출범 2년차에 흑자를 시현했고, 3년차에는 전년대비 영업수익 700% 이상의 성장을 이어가 기존의 신탁사와도 경쟁할 수 있는 회사로 발전하고 있다.

대신자산신탁의 핵심 경쟁력은 다음과 같다.

① 금융과 부동산 영역의 역량 보유

대신파이낸셜그룹은 금융과 부동산의 영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우수한 리스크 관리 능력과 내부통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금융·부동산 종합그룹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대신자산신탁은 금융과 부동산이 연계된 신탁사로서, 차별화된 부동산금융상품의 제공 및 부동산 비즈니스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② 안정적 자본의 대신자산신탁

자기자본 1,500억 원 규모의 금융투자회사로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신파이낸셜그룹의 금융시장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에 대한 책임있는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비전과 경영철학

비전 : 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신뢰의 종합부동산 금융회사

경영철학

신뢰 : 조화와 전문성을 통해 직원과 회사, 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신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조화 : 기본과 원칙 중심의 활동을 통해 고객, 직원과 회사, 나아가서는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전문성 : 대신만의 Unique한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지향하고 전문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회사 현황

2021년 12월 기준

설립일	2019년 5월 30일	주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 16층(저동1가, Daishin343)
대표자	김송규 (2022년 9월 기준)	자본금	1,100억 원
매출액	209억 원	직원 수	100명
주요사업	부동산신탁업(토지신탁, 담보신탁, 처분신탁 등) 및 부수 업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리츠) 자산관리회사 업무		

부동산신탁 비즈니스 개요

① 위탁자부동산 소유자가 수탁자부동산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② 수탁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탁부동산을 개발·관리·처분

③ 신탁 종료 시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교부

주요 사업구조

대신자산신탁의 2021년 신탁종류별 수수료 현황을 보면 토지신탁이 약 80%, 담보신탁 10%, 대리사무 5%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신탁 중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기본구조는 관리형 토지신탁과 동일하나 시공사 부도·파산 등의 경우에 신탁사가 시공사를 대신하여 PF대주에게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상품이다.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

① 시공사의 신용도 부족 시 시공 리스크를 보완한다.

② 최근 부동산 개발사업에서는 전통적인 금융기법보다는 구조화 금융이 이용되며, 이 경우 PF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신탁회사의 책임준공확약을 통한 신용보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③ 정상적인 사업 진행 시는 관리형 토지신탁과 큰 차이가 없으나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PF대주에 대하여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한다.

④ 신탁보수 : 매출액의 2%수준에서 협의한다.

관리형 토지신탁

일반적인 관리형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사업의 시행자가 되어서 개발사업을 진행하지만 신탁회사는 형식적인 사업주체로서 수동적인 사업관리 업무만을 수행하고 자금조달과 실질적인 사업진행은 위탁자가 책임지는 신탁상품이다.

① 사업비 조달책임을 위탁자가 부담
통상적으로 시공사가 위탁자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위탁자의 신용을 보강

② 신탁회사가 사업주체이지만 수동적으로 사업을 관리
자금관리 외 공정관리 및 계약관리 등의 업무는 위탁자와 시공사가 상당부분 책임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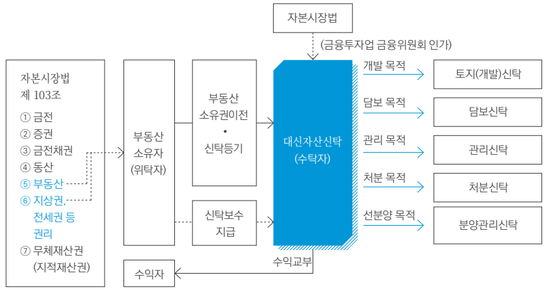
③ 신탁회사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음단, 시공사 부실화 시 증가함

④ 신탁보수 : 매출액의 1% 이하단, 신탁회사 역할 증가 시 보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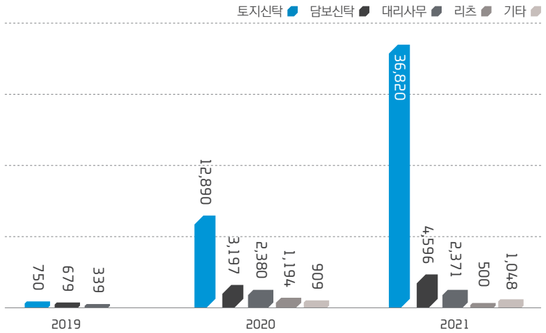
담보신탁

담보신탁은 부동산소유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신탁하고 채권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채권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탁회사는 우선수익자인 채권금융기관을 위하여 대출기간 중 신탁부동산을 관리한다. 이후 채무가 상환되면 신탁부동산을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반환한다. 채무가 불이행되는 경우 신탁부동산을 처분해 채권금융기관에게 교부·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신탁상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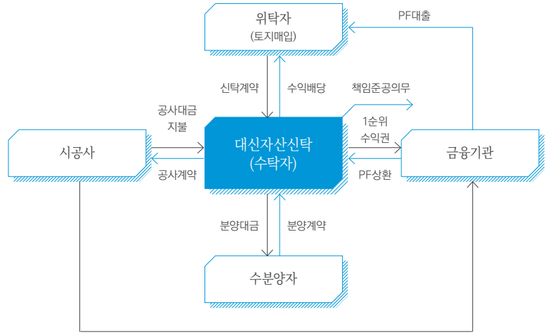
부동산 신탁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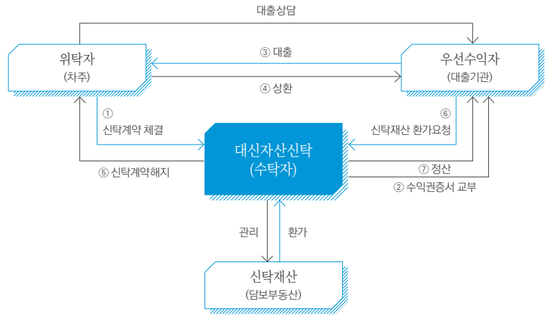
신탁종류별 수수료 현황 단위 : 백만 원



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_구조



담보신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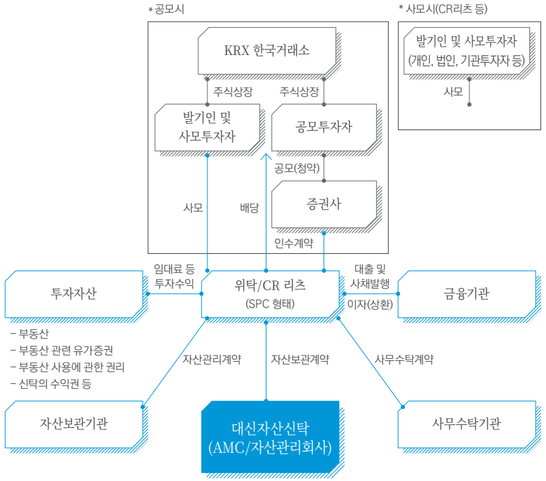
리츠

대신자산신탁은 2020년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츠 AMC 인가를 취득하였는데 신설 3개 사 중 최초로 인가받은 것이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로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리츠 상품종류

구분	투자형태	특징
리츠 (일반상품)	실물자산 매입 (오피스, 물류시설 등)	투자 및 임차에 따른 재무효과를 누리며, AMC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통하여 자산운용의 효율성 및 수익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상품
	개발 리츠	명목상의 시행사 및 차주로서 금융도관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행사 또는 시공사는 리츠의 선매입금액을 통한 사업비를 충당하여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상품
리츠 (특화상품)	재간접형 공모/ 상장 리츠	실물 부동산에 투자한 부동산펀드와 리츠의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 형태로 분산투자(투자지역, 투자자산, 투자상품) 등을 통한 안정적 상품
	대출형 리츠	리츠의 자산투자 운용방법으로 대출, 대출채권에 투자를 하며, 개발사업 등에서 리츠 수익성을 높이고 양질의 자산을 선점하는 상품
	임대주택 리츠 (개발형 리츠)	임대주택사업의 리츠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을 건설, 매입하여 임대 운영하는 상품

리츠 구조



5절

대신프라퍼티

INTERVIEW 343

그룹의 역량 집중을 통한 새로운 시장 발굴

이득원
대표이사

Q — 나인원한남 사업의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합니다.

A — 나인원한남 분양 승인 과정에서 정부의 고분양가 억제정책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여 모회사인 대신에프앤아이의 자금압박이 가중되고, 최종적으로 분양보증을 거절당해 불가피하게 민간건설임대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인허가 과정, 분양전환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그룹의 금융 및 부동산 역량의 집중을 통해 나인원한남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우리나라 주거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최고급 주택단지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구성원이 노력한 결과 대외적으로도 인정받는 주거단지가 되었고, 부동산 시장에서 위상을 높이며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 향후 부동산 금융산업의 비전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A — 현재에도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직접 부동산을 매입하는 투자방식에서 리츠 등을 통한 간접투자방식이 더욱 대중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은 돈으로는 실물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지만 리츠 등을 통한 간접투자상품을 활용하면 실물 부동산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핀테크, 프롭테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 프롭테크Proptech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데, 이처럼 관련 산업 간의 융복합이 시장의 화두인만큼 우리 대신파이낸셜그룹에서도 계열사 간의 융합은 물론, 시장의 여러 플레이어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 소개

2016년 7월 20일 주택건설 및 분양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디에스한남은 부동산 관련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2022년 6월 대신프라퍼티로 사명을 변경했다.

주요 사업성과

① 나인원한남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341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단지는 2017년 11월에 착공하여 2019년 11월 준공했으며, 근린생활 시설인 고메이494한남은 2020년 3월부터 운영 중이다.

② 춘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는 춘천시 온의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556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단지는 2018년 12월 착공하여 2021년 8월 준공했으며, 교육특화 서비스를 접목하여 분양했다.

③ 강남역 오피스 개발사업 및 신규 개발사업부지 물색 등 부동산 소싱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계열사 부동산 업무위탁 및 펀드 임대관리 등 그룹 부동산 통합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 사업방향

국내외 부동산 소싱부터 개발, 투자, 운영, 관리, 매각까지 부동산 비즈니스의 전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기존 금융산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부동산 비즈니스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비전

try Agile ways, create The Value of Property

회사 현황

2021년 12월 기준

설립일	2016년 7월 20일	주소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56(한남동)
대표자	이득원(2022년 6월 기준)	자기자본	3,097억 원
영업이익	4,553억 원	직원 수	22명(자회사 포함)
주요사업	주택건설 및 분양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자산관리 등		

INTERVIEW
343

믿을 수 있는 동반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노력

이득원
대표이사

Q — 탠덤의 사명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A — 탠덤은 바이오산업에서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나인원한남을 개발한 대신프라퍼티와 더불어 2016년에 설립된 회사로, 바이오산업에서 좋은 연구자와 연구기관을 찾아 창업부터 모든 사업화 과정을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바이오산업에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연구성과를 찾아내어 회사를 설립하고, 관련특허를 확보·관리하고, 전임상과정을 수행하며, 투자 유치와 Global Big Pharma License-out, IPO 등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핵심역량이 필요합니다. 탠덤은 이러한 과정을 연구자와 동반하고자 설립되었으며, 그래서 회사명도 연구자와 앞뒤로 동승하는 2인용 자전거를 의미하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항암제 개발이 성공리에 진행되면, 국내외 우수한 연구자나 연구기관의 좋은 연구물들을 신약이나 진단기기로 개발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춘 회사로 자리 잡아, Pipe-line 투자금을 IPO 등을 통해 회수하는 지속적인 비즈니스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 탠덤의 비전과 비전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A — 바이오 비즈니스는 창업단계부터 Cash-cow 단계까지 오랜 개발기간이 필요하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며, 현존하는 치료제와 개발되고 있는 신약과 효능을 경쟁해야 하는 Death Valley를 건너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Pipe-line을 통해 성공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좋은 연구물을 찾아 사업화를 하는 것이 탠덤의 비전입니다. 최우선적으로 파로스젠Pharosgen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 고려대, KIST, 아산병원 연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항암제 개발을 성공시키고, 성공 경험을 토대로 진행 중인 다른 파이프라인Pipe-line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연구물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사업화하고자 국내 최고 연구기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Q — 평소 탠덤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다면?

A — 바이오 비즈니스는 오랜 사업기간이 소요되고, 연구자와의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바이오 비즈니스의 성격상 장기간에 걸친 자금·회계관리와 연구관리, 지속적인 리서치와 위험예측, 사업을 추진하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연구자와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통해 신뢰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탠덤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입니다.

회사 소개

탠덤은 국내 최고 연구진과 파트너사, 대신에프앤아이와 함께 주주로 참여하여 Joint Venture의 형태로 2016년 10월 6일에 설립되었다. 탠덤은 바이오 및 헬스케어 관련 창업자, 벤처기업, 제반산업 투자, 관련 벤처기업 발굴 또는 지원, 신기술 개발, 기술용역업, 기술컨설팅업과 바이오 및 헬스케어 관련 연구소 설립 및 운영, 관련 기업에 대한 인수, 합병 등이 주요 사업 목적이다.

Pipeline 투자현황

탠덤은 지난 수년간의 축적된 기투자기업에 대한 다양한 바이오 및 헬스케어 관련 기술컨설팅 및 연구소 설립, 운영 등 투자 및 자산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과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투자된 파이프라인 회사들의 성장에 따른 수익극대화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의 전환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업 기회를 엿보고 있다.

회사명	설립년도	Sector	연구기술	연구기관	Stage
파로스젠(주)	2014	항암제 플랫폼	PDC(MPD-1)	아산병원 서울대 KIST	임상1상 진입준비
			ADC(Doppel Inhibitor)		리서치
(주)엑스와이지플랫폼	2017	진단기기	유전전기영동센서 RGO Biosensor (퇴행성뇌신경질환)	경희대병원	임상연구 진행중 (시제품 제작중)
-	2018	엑소좀	신규재조합 엑소좀 면역항암치료 엑소좀	KIST	리서치
녹스팜(주)	2018	항암제 플랫폼	표적항암 나노DDS	이화여대	전임상시험 진입준비
(주)엔엠디바이오	2020	진단기기	FET Biosensor (전립선암, 조류독감)	KIST	센서개선 중

파로스젠(주) : 2014년에 설립한 항암제 개발기업으로서 현재 첫 번째 파이프라인인 MPD-1이 전임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2023년 임상 1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

녹스팜(주) : 표적항암 나노DDS기술을 보유한 항암제 개발기업으로서 후보물질 및 전임상 시험에 대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에 전임상 시험 진입을 앞두고 있다.

(주)엑스와이지플랫폼 : 극소량의 혈액을 통해 유전전기영동 바이오센서를 활용한 퇴행성뇌신경질환 진단을 위한 진단기기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주)엔엠디바이오 : FET Biosensor를 활용하여 소변을 활용한 비침습적인 방법을 통해 전립선암 및 비뇨기암 진단과 조류독감 등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서, 현재 사업 초기 단계에서 활발할 연구가 진행 중이다.

회사 현황

2021년 12월 기준

설립일	2016년 10월 6일
주소	서울시 송파구 위례순환로 387, 2관 404호(장지동, 대신위례센터)
대표자	이득원
자본금	10억 원
직원 수	총 7명
주요사업	바이오 및 헬스케어 관련 제반사업 투자, 관련 벤처기업 발굴 또는 지원 바이오 및 헬스케어 관련 신기술 연구, 기술개발 및 기술용역업, 기술컨설팅업 바이오 및 헬스케어 관련 제조 및 동 판매업, 도소매업 바이오 및 헬스케어 관련 연구소 설립 및 운영 바이오 및 헬스케어 관련 기업에 대한 인수, 합병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금융자산 인수 및 투자 부동산 임대업

리버빌

회사소개

리버빌

리버빌은 2003년 10월 회사설립 후 2006년 4월 숙박시설 맑은물리조트토지 19,115㎡(5,782평), 건물 2,920㎡(883평)를 준공했다. 이후 대신에프앤아이에서 2018년 8월 31일 지분 100%를 인수했다.

맑은물리조트

맑은물리조트는 인제 내린천의 맑은 물줄기, 강원도의 맑은 공기, 높은 하늘과 푸른 산자락이 어우러져 청정 자연과 자연스레 동화될 수 있는 최적의 휴식공간. 자연과 조화된 현대적 건축물로 이루어져 주변을 산책하며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회사 현황

2021년 12월 기준

설립일	2003년 10월 16일
주소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785-2
대표자	이윤배
주주	대신에프앤아이(지분 100%)
직원 수	6명

S동
반려견 동반가능
22~25평

카라반
5.5평

바베큐장
수영장(성수기 개장)

건물현황

숙박동		호실수	면적(평)	비고
A,B,C동	1~3층	19개 호실	15	2019년 4월 객실 인테리어 공사
D동	1층	9개 호실	15~19	복층구조
S동	지하1~3층	7개 호실	25	애견 동반 가능
카라반	-	1개실	5.5	2019년 설치
합계		36개 호실		

부대시설		용도	면적(평)
본관동	1층	식당, 관리사무소, 노래방, 편의점	100
	2층	휴게실 및 탁구, 당구장	82
	3층	세미나실(약 60석 규모)	59
야외		수영장, 바베큐장, 애견 전용공간	

6절 대신자산운용

원칙을 지키는 것이 시스템이다

INTERVIEW
343

진승욱
대표이사

Q — 평소에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 도덕성과 전문성입니다. 대신파이낸셜그룹 전체가 그렇지만, 특히 대신자산운용은 수익률 1등, 수탁고 1등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신뢰받는 자산운용사'가 되고 싶습니다. 가장 신뢰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 회사는 약속을 하면 지킨다'라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덕성과 원칙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는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몰라서 실수하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아무리 착하고 정직해도, 몰라서 위법과 위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신뢰받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하고, 그 정직함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Q — 금융사고는 고객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줍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견해는?

A — 살다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재난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교통사고 등은 불가피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리스크는 100%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금융상품과 서비스는 위법소지나 다툴 여지가 있다면 안해야 됩니다. 금융사고는 운명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100%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리스크는 노력에 의해서 막을 수 있어요.

Q —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는 회사가 원칙을 정하는 것도 있지만, 구성원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스템 경영이라고 하면 뭔가 기술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시스템은 그 안에서 운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주는 것, 자체가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원칙을 지키게 하는 시스템 속에서 자산운용은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이룰 것입니다.

회사 소개

대신자산운용은 1988년 3월 대신투자자문으로 설립되어 대신투자신탁운용을 거쳐 2010년 현재의 대신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대신자산운용은 그룹 내에서 증권, 경제연구소 다음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설립 당시의 자본금 10억 원은 현재 290억 원으로 증가했고, 2021년 12월 말 기준 자기자본은 현재 511억 원, 운용규모는 6조 8,676억 원에 달하는 성장을 이루어냈다. 대신자산운용은 6개의 그룹과 7개의 운용본부를 포함한 10개의 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6월 취임한 진승욱 대표이사를 비롯한 약 60여 명의 임직원이 고객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자산운용사가 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다.

주요 성과 및 수상내역

① 대신KOSPI200인덱스펀드
- 2020, 2021년 '모닝스타 펀드 어워즈'에서 베스트 한국 대형주 펀드부문 2년 연속 수상모닝스타
- 2018, 2019년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 인덱스부문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KG제로인

② 대신하임펀드 최초 출시2017. 02
③ 일본하임펀드 총 6,263억 원 설정
④ 창사 이래, 2021년 최고 실적 시현
⑤ 2018년 수탁고 5조 원, 2020년 수탁고 7조 원 달성

비전과 운용철학

① 비전 : Growing the EPIC² way

– Edge, Pride, Insight, Challenge/Control

② 운용철학

– 리서치 & 밸류에이션에 기반한 투자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성과 추구

– 패시브 운용 기반 하에 알파수익 추구

회사 현황

2021년 12월 기준

설립일	1988년 3월 24일
주소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3, 19층 (저동1가, Daishin343)
대표자	진승욱 (2022년 6월 기준)
자본금	290억 원
매출액	277억 원
직원 수	61명
주요사업	자산운용업

핵심 경쟁력

대체투자 특화 하우스

① 국내 대출형개발형 부동산펀드 및 미국, 싱가포르, 일본, 유럽 선진국 중심의 대체투자펀드 운용

② 특히 일본펀드에 대한 국내 최강의 맨파워 조직과 운용경험 보유

업계 최고의 패시브 운용 하우스

① 수년간 패시브 운용부문에서 업계 최고의 성과 달성

②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주요 연기금 위탁운용 중

로보어드바이저 및 금융공학 전문 하우스

① 금융공학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펀드운용 및 자문서비스

② AI리서치 조직을 통한 자산배분전략

③ 최근 로보TDF펀드 출시를 통해 로보어드바이저 라인업 확대

대신자산운용은 최근 5년간 질적 양적 성장을 지속했다. 액티브펀드 및 MMF 등 단기자금 중심에서 패시브와 대체투자 위주로 포트폴리오 재편에 성공하였고, 수탁고는 2017년 말 대비 2021년 말 수탁고가 약 2배 증가하는 등 양적인 성장도 이루었다. 패시브 중심의 인덱스펀드는 우수한 성과를 기반으로 2017년 말 대비 3.4배의 성장을 이루었고, 대체투자부문 중 일본부동산펀드의 관리자산은 1조 6,400억 원으로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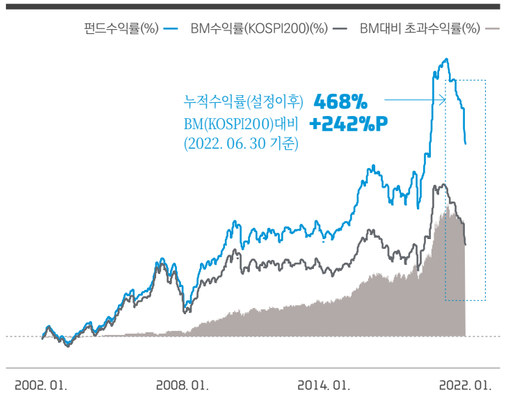
항목(억 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수탁고(원본기준)	32,610	50,610	56,120	56,284	60,717
인덱스펀드 운용규모(원본기준, 국내주식)	4,440	9,980	15,203	15,011	19,412
일본 부동산펀드 운용규모(누적 설정)	–	–	1,520	2,923	6,263
일본 부동산펀드 관리자산 규모(누적)	–	–	4,039	7,461	16,418

대표 공모펀드 소개

대신KOSPI200인덱스펀드

퀀트 기반의 패시브 알파전략을 추가하는 대신자산운용의 KOSPI200인덱스펀드는 국내 인덱스펀드 중 최근 5년 상위 1%, 3년 상위 3%라는 우수한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KOSPI200인덱스펀드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대신KOSPI200인덱스펀드



대신로보어드바이저펀드

자체 AI인공지능 엔진을 통한 효율적인 분산투자를 통해 꾸준한 성과를 추구하는 중위험, 중수익 펀드이다.

주요특징

로보엔진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자산가격의 등락 예측
- 딥러닝 모델을 통해 자산의 향후 가격을 예측하고 기대수익률을 산출
- 대신증권의 검증된 로보엔진을 통한 포트폴리오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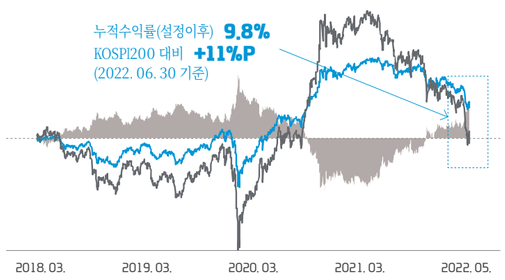
운용자의 정성적 판단 배제
- 운용자의 정성적, 임의적 판단 배제

리밸런싱의 자동화
- 자산전망에 따른 수시 리밸런싱

자산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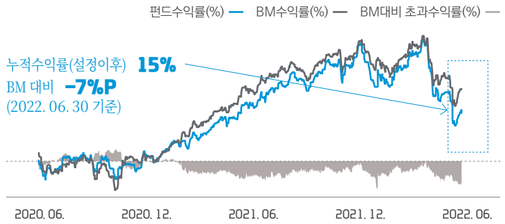
다양한 글로벌 자산에 투자
- 국내, 선진국, 이머징 주식, 채권, 금, 유가, 달러, 리츠 등의 다양한 자산에 투자
- 효율적인 자산 배분을 통해 투자 위험을 낮추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국내 상장 ETF 투자
- 각 투자자산을 대표하는 국내 상장 ETF에 투자
- 자동화된 알고리즘 및 온라인플랫폼 기반, 저 비용으로 효율적 자산관리



대신글로벌리츠재간접공모펀드

전 세계 부동산관련 집합투자증권인 리츠REITs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및 배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서 주요 투자 대상 국가로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홍콩, 한국 등 선진국이며, 섹터별로는 산업시설, 주거용, 오피스, 리테일, 호텔 및 데이터센터 리츠와 기타 리츠 등 GICS 분류 기준 상 리츠로 분류되는 모든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7절 대신프라이빗에쿼티

INTERVIEW
343

자율과 독립에 겸손함을 더하라

박병건
대표이사

Q — 대신프라이빗에쿼티만의 차별성은 무엇인가요?

A — 우리만의 논리와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그룹 내에서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경영진이 있다는 부분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투자자들을 비롯해 업계에서 대신프라이빗에쿼티는 논리와 관점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자체적인 해외 투자 역량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룹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국내외 유력기관과 협력하여 딜소싱deal sourcing하고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려 합니다. 여기에 더해 기업 친화적인 투자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력기업과 공동 투자하여 투자자와 기업이 상호 Win-win할 수 있는 친화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 강조하면서 진행해온 기술투자도 최근에 성과를 내면서, 대신프라이빗에쿼티의 주요 투자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Q — 평소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은?

A — 우리 직원은 열 명이 조금 넘습니다. 소수정예이고, 매우 날렵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별동부대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업 자체가 자유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욱 직원들에게 규율을 강조합니다.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역량을 펼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축구팀을 예로 들자면 자유자재의 개인기를 펼쳐야 하지만, 작전이 필요하고 규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투자처에 방문할 때는 더더욱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Q — 대신프라이빗에쿼티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A — 금융시장은 점점 더 투자 중심으로 흐를 것입니다. 투자 중에서도 수익과 성장을 모두 고려하는 PEF투자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봅니다. 금융업 전체에서 PEF투자 시장의 비중이 확대될 때, 대신프라이빗에쿼티는 그룹 내에서 투자 관련하여 첨병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양한 기회를 빠르게 잡고, 그 기회를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에게 전파하여 함께 협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향후 10년 이내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회사 소개

대신프라이빗에쿼티는 2014년 8월 신전략 수립 이후, 해마다 빠른 성장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투자영역을 기존의 Growth Capital, Mezzanine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Secondary, Co-investment, Buyout 등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시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운용자산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한국산업은행, 산재보험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총 9개의 PEF투자펀드를 운용 중에 있으며, 운용규모는 총 1.1조 원이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지향한다. 특히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여 투자성과가 대상회사는 물론 사회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보내주는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더 책임감 있고 경쟁력 있는 종합 PEF 전문운용사로 도약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특징

① 수평적인 기업문화로 신속한 의사결정
② Growth Capital, Secondary, Co-Investment, Special Situations, Buyout 등 다양한 투자경험
③ 다양한 배경의 운용인력 및 전문가 네트워크

비전과 경영방침

비전 : To deliver superior value to our investors and stakeholders
경영방침 : 금융그룹의 안정성을 토대로 대신증권, 대신저축은행, 대신에프앤아이, 대신자산운용, 대신경제연구소 등 관계사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너지 창출

회사 현황

2021년 12월 기준

설립일	2012년 9월 27일	주소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3, 17층 (저동1가, Daishin343)
대표자	박병건	자본금	150억 원
매출액	41억 원	직원수	11명
주요사업	기타 금융업		

중장기 전략

Tech투자 및 해외투자 역량 강화

Epsilon사영국를 KT와 공동 인수하였으며, Polestar사스웨덴의 Series B Lead와 같이 유망 해외기술기업 투자를 집중하고 펀딩에 있어서도 5년 이내에 의미 있는 해외 LP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코인베펀드와 플레그쉽 그로쓰펀드의 주기적 결성

대신코인베펀드를 국내 코인베 시장에서 최고로 만들고, 차별화된 투자 전략을 가진 그로쓰캡펀드의 경우 빠른 시간 안에 대형 그로쓰딜에 대해서 국내외 엘리트PE 하우스와 경쟁을 계획하고 있다.

상세 실행계획으로는

① 플래그쉽 그로쓰캡펀드를 2024년부터 매 3년마다 결성
기존 플래그쉽 그로쓰캡펀드를 투자총액 대비 2/3 투자 소진 되는 2년차 투자시기 이후에 1년간 추가 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이렇게 설립된 펀드를 국내 최고의 해외투자 및 기술투자 중심의 그로쓰캡펀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3,000억 원, 2027년에는 4,000억 원, 2030년에는 5,000억 원의 펀드 설립을 예상하고 있다.

② 코인베펀드는 2025년부터 매 3년마다 3,000억 원 규모로 설립할 계획이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코인베펀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코인베펀드 영역은 국내 PE 시장에서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대신프라이빗에쿼티는 국내 최고의 코인베펀드 운용사로서의 포지셔닝을 굳혀가기 위해 3년 주기로 3,000억 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설립할 예정이다.

③ IRR 15% 이상의 1조 원 블라인드펀드 유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2030년 이후 부터는 매 3년마다 그로쓰캡펀드와 코인베펀드를 1조 원 이상의 블라인드펀드로 조성하고 IRR 15%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운용하여 국민연금의 우수운용사 기준인 평균 IRR 12% 수익률 이상을 상회하는 국내 최상위 사모펀드 운용사로의 발돋움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④ 프로젝트펀드 운용잔고를 2030년까지 3,500억 원 수준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프로젝트펀드를 적극 조성하여, 프로젝트펀드의 운용잔고를 2022년 2,000억 원, 2026년 2,500억 원, 2028년 3,000억 원, 2030년 3,500억 원으로 증가시킬 예정이며, 이를 위한 블라인드펀드와 병행펀드 조성 및 독자 프로젝트펀드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SI와의 Early Stage Buyout 전략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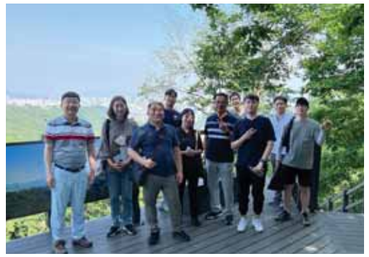
전략적투자자Strategic Investor; SI인 SK, KT, 한화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다수의 공동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 성장 직전 단계에 있는 업체를 공동 인수 추진할 계획이며, 대신프라이빗에쿼티는 2021년 말 KT와 함께 KT의 인프라 확장을 위해 영국 소재 데이터 기업인 Epsilon사를 인수하였고, 이외에도 타 그룹사들과 다수의 투자 건을 논의 중으로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업 친화적 그로쓰 PE투자로 차별화

SI들과 공동투자 시, 투자구조의 하방안정성 제고를 위해 Put Option, Q-IPO, Call·Drag 조건 등을 활용하여 Downside Protection을 확보하고 Upside는 공유함으로써 SI와 상생 가능한 안정적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ESG 모범 PE 하우스

대신프라이빗에쿼티는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UN으로부터 책임투자원칙인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ESG 인증을 받았으며, 투자 프로세스 및 사후관리 상 ESG를 반영하는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신경제연구소, 유엔 글로벌컴팩트, 율촌ESG연구소 소속의 내·외부 ESG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대신PE만의 ESG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투자 대상기업 관련 ESG 항목을 체크하고 ESG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 이후 투자기업의 ESG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노력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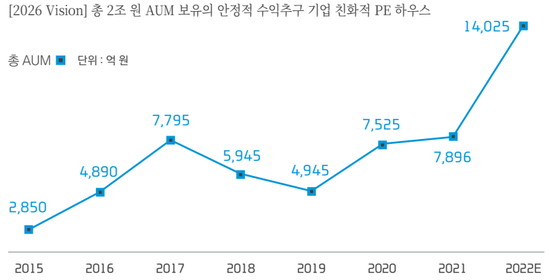


대신프라이빗에쿼티 한마음 행사

대신프라이빗에쿼티 AUM 추이(2015~2022년)

대신PE는 그로쓰캡펀드와 코인베펀드를 통한 블라인드펀드의 지속적 조성과 더불어 프로젝트펀드 투자를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그로쓰캡 하우스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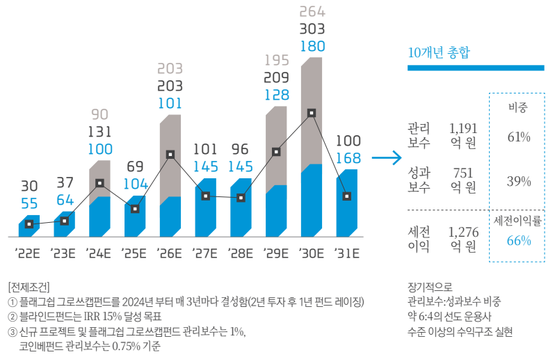
[2026 Vision] 총 2조 원 AUM 보유의 안정적 수익추구 기업 친화적 PE 하우스



장기 성장 로드맵

대신프라이빗에쿼티는 2031년까지 연평균 세전이익 130억 원, 순자산 1,200억 원, AUM 2조 8,000억 원 이상의 PEF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개년 수익구조 및 세전이익 목표(2022~2031년) 단위 : 억 원



[전제조건]
① 플래그쉽 그로쓰캡펀드를 2024년 부터 매 3년마다 결성함(2년 투자 후 1년 펀드 레이징)
② 블라인드펀드는 IRR 15% 달성 목표
③ 신규 프로젝트 및 플래그쉽 그로쓰캡펀드 관리보수는 1%,
코인베펀드 관리보수는 0.75% 기준

장기적으로
관리보수:성과보수 비중
약 6:4의 선도 운용사
수준 이상의 수익구조 실현

8절 대신경제연구소

INTERVIEW 343

우수한 구성원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다

조윤남
대표이사

Q — 대신경제연구소의 강점과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A — 대신경제연구소는 대신파이낸셜그룹의 싱크탱크로서 언제나 새로움과 혁신을 주도해 왔습니다. 1990년대 경제 연구의 중심, 국내 최초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시스템 개발, 2000년대 온라인 증권 거래의 상징인 사이보스 홈트레이딩시스템의 핵심 콘텐츠 개발, 최근에는 의안분석과 ESG 자문사로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시대적 요구에 한발 앞서 미래지향적인 변신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근저根底에 자리하고 있는 대신경제연구소의 핵심 경쟁력은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통찰력 있는 리더십과 유연한 조직구조, 우수한 구성원, 최고를 지향하는 조직문화입니다.

Q — 최근 10년의 의미 있는 성과와 그룹 내에서 연구소의 역할은?

A — 지난 10년 가운데 경제연구소 역사에 남을 의미 있는 성과로서 2020년에 지배구조연구소 신설 이후 역점을 두었던 숙원사업인 국민연금 의안분석 용역 자문사 선정과 ESG 평가 및 리서치, 수탁자 책임보고서 용역 등 국민연금 3대 주요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주한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대신경제연구소의 ESG 및 Proxy 자문사로서 위상이 대폭 강화되었고 자연스레 주요 운용사 등 기관투자자 컨설팅 수요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주요 기업까지 ESG 관련 컨설팅을 빠르게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그

동안 사이보스, 랩어카운트, 자산운용시스템,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등 증권의 각종 시스템 개발과 신상품개발 등에서 핵심 콘텐츠 및 로직 개발 등에 참여해 왔습니다.

Q — 대신경제연구소의 비전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연구소'입니다. 이 비전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A — 그 동안 기관투자자와 연기금 위주의 ESG 컨설팅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기업의 ESG 전략 수립과 체계 구축,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배구조연구 자문위원회, 정책 자문위원회, ESG BPiK 자문위원회, ESG 자문위원회, 사회책임 자문위원회, 환경 자문위원회, 이해상충방지 자문위원회, DF 자문위원회 등 8개에 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 자문위원들로부터 상시적으로 주요 의사결정과 사업 방향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대신경제연구포럼을 연 2회 걸쳐 공개 개최하여 ESG 관련 외부 전문가와 내부 연구원의 연구 발표와 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 기업, 정부 등이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야하는 당위성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인 대안과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

대신경제연구소는 1984년 설립되어 증권업계에서 유일하게 35년 이상 지속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 이해상충 방지와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ESG 평가와 의안분석 부서를 물적분할하여 자회사로 분리하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ESG 국내외 동향, 산업별 분석, 지표분석을 통해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ESG 전략을 제공하고 주주총회 및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성과

2014. 07. 주총의안분석 및 지배구조 연구 및 용역 업무 개시
2017. 10. ESG 평가서비스, 스튜어드십코드 용역 개시
2020. 01.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보고서 관련 연구용역 수주
2020. 03. 국민연금 ESG 평가 데이터 및 ESG이슈 리서치 제공기관 선정
2020. 10. 국민연금 ESG 평가체제 개선 및 국내 채권 ESG 평가체계 구축 용역 수주
2020. 12. 국민연금 2021년 의안분석 및 배당정책 평가 용역 수주
2021. 03. 미래에셋자산운용 ESG 철학 및 프로세스 구축 컨설팅
2021. 05. 국민연금 2021년 ESG 평가데이터 및 ESG 이슈 리서치 제공기관 선정
2021. 05. 김앤장법률사무소 업무협약 체결
2021. 05. 제1회 대신경제연구포럼 개최
2021. 07. KIS채권평가와 ESG 채권지수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1. 07.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체 ESG 모델 구축 컨설팅 용역
2021. 08. 회사분할 (주)한국ESG연구소 설립
2021. 11. 제2회 대신경제연구포럼 개최
2021. 12. 지배구조, ESG부문 총 50개 기관 계약 달성

핵심 경쟁력

① 다양한 전문인력 보유 :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기업 해당분야 실무자, 정책전문가, 컨설턴트, 학계 등 다양하고 풍부한 전문인력 보유,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 상시 운영

② 업계 시장 점유율 1위 : 50개 기관과 계약 중ESG 26개, 의안분석 39개, 2021년 말
최근 국민연금 의안분석, ESG평가, 수탁자책임보고서 등 3대 주요 용역 모두 수주

③ ESG, 지배구조 관련 업무를 위해 UNPRI유엔책임투자원칙와 ICGN국제지배구조네트워크 가입

비전

비전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연구소
핵심가치 : 신뢰, 열정, 도전정신
슬로건 : 지속가능경영 길잡이 대신경제연구소가 이루겠습니다.

회사 현황

2021년 12월 기준

설립일	1984년 9월 17일	주소	서울 중구 명동 11길 24(을지로2가, 중국건설은행타워 9층)
대표자	조윤남	자본금	100억 원
매출액	33억 4,000만 원	직원 수	12명
주요사업	ESG 기업 컨설팅(ESG 전략수립 및 평가대응 자문, 실사, 리포팅, 교육, 솔루션 및 DATA) 기업지배구조 자문(지배구조자문, 이해관계자 대응 자문, 공개보고서 자문)		

주요 활동

지속가능한 금융 및 지배구조와 금융공학 연구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금융과 기업을 위한 정보 제공에 힘써온 대신경제연구소는 ESG 외에도 건전한 금융 및 기업생태계를 위한 주제를 깊이 발굴하여 여러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

대신경제연구소는 2021년 5월 Daishin343 5층 대강당에서 '금융, 기업의 新생존 전략 ESG'라는 주제로 제1회 대신경제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강화와 이사회의 ESG관리', '중소기업 경영과 ESG' 및 'ESG와 M&A' 3건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고 ㈜대신경제연구소, 기관투자가, 법조계, 인증평가기관 및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여 주요 현안과 대안을 논의했다.

2021년 11월에도 Daishin343에서 'E.S.G의 전환기 과제'라는 주제로 제2회 대신경제연구포럼을 개최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와 함께 공동 주최한 이 포럼에서는 'ESG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투자 시장 변화와 기관투자자의 대응방안', 'ESG 경영 확대에 따른 회사법상의 쟁점과 과제' 및 'E.S.G의 미래 E에서 S로의 이동' 4건의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ESG 외에도 건전한 금융 및 기업생태계를 위한 주제를 깊이 발굴하여 여러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전문성

전문인력 보유

자본시장분석가, 기업 실무자, 전략전문가, 학자, 정책전문가, 컨설턴트 등 다양하고 풍부한 현장 경험 중심의 전문인재 보유

- 금융투자업계: 자본시장 및 산업분석에 특화된 애널리스트, 투자자문 및 운용전문가 출신
- 컨설팅: 기업 전략 분석 및 수립, 공시 등 기업자문에 특화된 컨설턴트
- 학계 및 법조계: 상법, 경제법 등 기업 관련 분야 박사 및 변호사
- 정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등 중앙부처 행정가 출신

+

외부 자문인력

다양한 경험 보유

국내 3대 ESG 평가기관 경험, 기관투자자 의결권 자문기관 경험, ESG 자문 및 컨설팅, 금융투자솔루션 개발보유

- ESG 평가: 국내 3대 ESG 평가기관으로서의 경험 보유
- ESG 컨설팅 및 자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연계한 ESG 관련 컨설팅 경험 보유
- 의결권 자문: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의결권 자문 경험 보유
- 금융투자솔루션: 증권시장 계량분석과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독자적인 알고리즘 개발

ESG컨설팅

ESG 경영

-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ESG 경영은 곧 지속가능경영입니다.
- ESG 경영은 미래세대를 위하고 지구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ESG 전략수립 컨설팅
- ESG 글로벌 및 국내 트렌드 분석
- 기업 진단 및 조사
- ESG 과제 도출 및 목표 설정

ESG 교육
- ESG 교육 기획 및 교육방법 자문
- 대상자 등을 고려한 ESG 교육자료 개발
- 강사 출강 등을 통한 교육 지원

ESG 진단 및 실사
- ESG 진단지표 개발(규모, 산업군 등 구분)
- 자가 진단 및 제3자 실사·평가 진행
- 개선 및 보완 과제 도출

ESG Reporting
- 공시 프레임워크 개발
- 공시 방법 개발 및 자문
- 보고서 목차 기획 및 공시 내용 자문

한국ESG연구소

INTERVIEW
343

명실상부한 ESG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자

조윤남
대표이사

Q — ESG 열풍으로 경쟁이 치열한데 한국ESG연구소의 강점과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A — ESG 및 지배구조 분야의 후발주자였지만 빠르게 경쟁자들을 추격할 수 있었던 배경은 자본시장에서 경험을 풍부하게 쌓은 리서치 출신 인력과 기업, 연구소, 학계 등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이 시너지를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국내 대표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ESG 평가 및 주총 의안 분석 용역을 수행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도 어엿한 국내 주요 ESG기관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Q — 2021년 분할신설한 회사로서 향후 성장전략은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A — 기존의 주요 사업에서 이제 경쟁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고 자평합니다. 주요 사업에서의 경쟁력은 유지하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취할 계획입니다.
ESG 평가에서는 더 깊이 있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주주권 행사 자문 분야에서는 의안분석, 스튜어드십 코드 자문에 더해 주주 관여 활동, 거버넌스 개선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이런 역량을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ESG 투자전략을 개발해 기관투자자들에게 컨설팅하는 쪽으로 사업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Q — 평소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경영철학이나 원칙은 무엇인가요?

A — 회사가 다양한 경력을 갖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태도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먼저, 변화에 대한 유연성입니다. ESG 자체가 변화하는 사회 경제환경에 기업과 투자자가 유연하게 대응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개념이듯이 우리 구성원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폭넓은 시야를 갖춰야 합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에 대한 폭넓은 시야가 필수적입니다. 끝으로는 타협하지 않는 전문성입니다. 본인이 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역량을 길러 주위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회사 소개

한국ESG연구소는 2021년 8월 2일 대신경제연구소의 기존 ESG 평가 및 리서치, 의안분석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되었다. 기관투자자의 지속가능투자 확대 및 주주권 행사 제고 등을 통한 지속가능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ESG 평가 및 리서치서비스, ESG 평가체계 및 의안분석, 주주활동 컨설팅, ESG 투자전략 컨설팅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7년 ESG 모델을 개발하며 후발주자로 시장에 진입했으나, 2020년 이후 3년 연속 국민연금의 ESG 평가 및 리서치 용역을 수행하고, 국민연금의 ESG 모델 개선, ESG 채권모델 구축, 중점관리 사안 구축 등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등 국내 책임투자 체계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국내 최대의 의결권 자문기관으로 건전한 시장 감시자로 객관성과 전문성에 기반해 건전한 자본시장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핵심 경쟁력

① 자체 개발 ESG 평가 모형 및 ESG와 의안 관련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보유
② 자본시장, 컨설팅,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인적 구성
③ 데이터베이스 기반 시스템 구축 능력
④ 도전 정신과 역동적인 조직문화

비전

비전 : 자본시장 변화를 통한 보다 나은 세상을 추구하는 지속가능금융의 파트너
핵심가치 : 변화에 대한 유연성, 폭넓은 시야, 타협하지 않는 전문성
경영방침 : 국내 최고의 기관대상 ESG 및 의결권 자문사로 정착

회사 현황

2021년 12월 기준

설립일	2021년 8월 2일
주소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3 15층(저동1가, Daishin343)
대표자	조윤남
자본금	5억 원
매출액	13억 원
직원 수	47명

주요 사업 소개

ESG 평가 및 리서치

① 자체 ESG 평가 모델을 토대로 기업의 ESG 평가 및 등급 산정, 산업별 기업별 분석 자료 제공
② 주요 ESG 컨트러버셜 이슈 모니터링
③ ESG 시장 동향, 법제도 심화 리서치 및 보고서 발간
④ ESG 철학 및 ESG 투자 프로세스 구축 컨설팅
⑤ ESG 평가 및 진단모델 개발 컨설팅

책임투자 자문

①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자문
②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수탁자책임활동보고서 작성 등 자문
③ 책임투자관련 Engagement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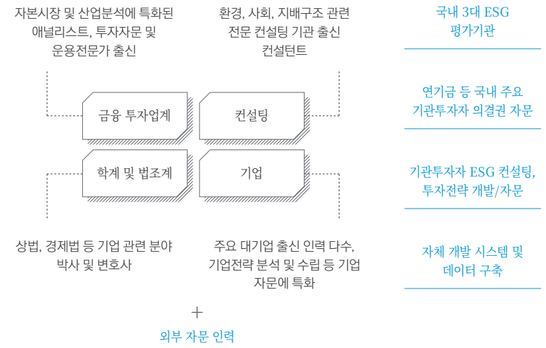
ESG 투자전략 컨설팅

① ESG 투자전략 및 금융상품 개발 자문
② ESG 주식채권 지수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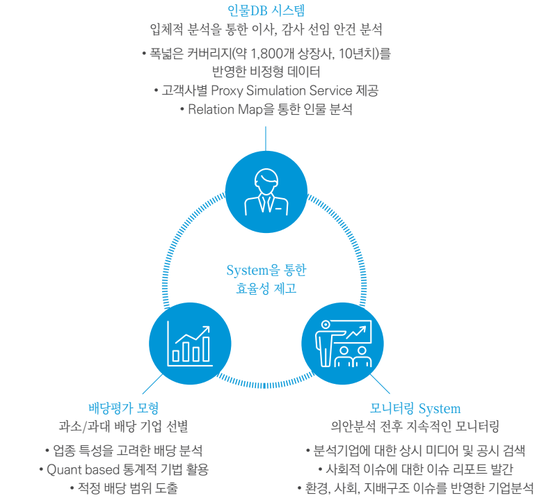
ESG, 책임투자 플랫폼 및 데이터

① ESG 및 Proxy 플랫폼 구축
② AI, NLP Media Search 등 IT를 활용한 평가모델 및 시스템 개선, 데이터 관리

한국ESG연구소의 전문성



차별적인 의안분석 시스템



9절 글로벌 현지법인

싱가포르
Daishin Singapore PTE. LTD.

법인 소개

Daishin Singapore PTE. LTD.(이하 싱가포르 법인)는 2017년 8월에 설립되었다. 2018년 4월 법인 자본금을 증자하고, 이후 해외 부동산 개발사 및 금융사와의 협업을 통해 그룹차원의 전략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법인으로 발전했다.

법인 현황

2021년 12월 기준

설립일	2017년 8월 29일
주소	8 Temasek Boulevard #42 Suntec Tower Three Singapore
법인장	성유열
자본금	설립자본금 120,000 SGD/ 약 98,400,000원 (1SGD: 820KRW)
직원 수	2명

핵심 경쟁력 및 주요 성과

핵심 경쟁력

싱가포르 현지법인의 경쟁력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해외 비즈니스 발굴 및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이다. 싱가포르 법인은 대신파이낸셜그룹 계열사의 해외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초기 단계의 추진력을 제공한다. 증권금융과 금융 IT,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투자 등 계열사에서 영위하는 모든 비즈니스의 해외사업이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작은 규모지만 강한 조직을 구축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역시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강점으로 작용하며, 향후 그룹의 중장기 미래전략을 실행하는데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해외 네트워크 보유이다. 싱가포르 법인은 2018년 4월부터 증자 및 인력을 투입하여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지 부동산 개발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보유하는 한편, 그룹차원에서 해외 투자에 필요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 시장 동향, 기투자자산에 대한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으며 신규 투자기회 발굴 및 리스크 대응에 상당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HTS·MTS 운영시스템 수출과 관련하여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신규 파트너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현지 증권사와 협업을 통해 누적된 노하우로 신규 파트너와의 협업에 상당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 신규 사업 추진이다. 싱가포르 최대 부동산 개발사 CapitaLand와 Joint Venture를 통해 핵심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그룹의 전략 방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자산을 검토한 바 있다. 지난 투자 및 검토 경험을 통해 싱가포르 시장에 대한 이해, 딜 소싱, 실사 및 집행 역량을 키워올 수 있었으며 그룹 신규 비즈니스 활성화 니즈에 따른 자산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성과

① 2018~2021년 싱가포르 최대 부동산 개발사 CapitaLand와 협업 및 JV 투자
② 인도네시아 최대 은행 Mandiri Bank의 계열사 Mandiri Sekuritas와 온라인 트레이딩 플랫폼 시스템 개발 및 운영계약 컨설팅
③ 태국 Bualuang Securities와 온라인 트레이딩 플랫폼 Trade Master 개발 및 운영 컨설팅

주요 업무 추진 방향

① 현지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신규 사업 및 투자 기회 발굴
② 현지법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증권 연계 비즈니스 전략 수립
③ 기투자자산에 대한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리스크 관리

미국
Daishin America LLC.

법인 소개

Daishin America LLC.이하, 뉴욕 현지법인는 2018년 6월 미국 내 투자 실행 및 관리를 위해 대신증권의 100% 현지 자회사로 설립되었다. 미국 내 PI 투자 집행 및 관리와 미국 내 투자와 관련한 증권 및 국내외 계열사와의 협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인장 포함 총 3인이 근무하고 있다.

법인 현황

2021년 12월 기준

설립일	2018년 6월 1일
주소	Unit 14B, 400 Madison Avenue, NewYork, USA
법인장	김명국
자본금	설립자본금 USD 43,000,000/ 약 473억 원 (KRW/USD=1,100)
직원 수	3명

핵심 경쟁력 및 주요 성과

핵심 경쟁력

① 현지화 전략

뉴욕 현지법인은 기존 한국 기관투자의 부동산 투자 관행을 탈피하고, 뉴욕 현지의 Local Management/Investor로서 투자자산의 직접 편입과 관리를 실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생하게 현지의 투자기회를 포착하고, 현지에서 디테일하게 기투자자산의 직접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② 해외 네트워크 보유

뉴욕 현지법인은 법인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현지 부동산 투자 및 부동산 금융 네트워크 구축 및 잠재 파트너를 탐색하여 왔으며 현재 소싱, 매입, 관리 등 전 분야에서 적절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현지법인 인력을 활용하여 해외 투자 및 관리 역량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③ 본사 및 관계사와의 협업

현지 시장변동에 대한 파악 및 의견 제시 등 현지법인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본사 및 관계사를 위한 투자기회 포착, 본사 리테일의 수요에 따른 상품 탐색 등 미국 투자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해내고자 한다.

주요 성과

Upper West Side Condo 개발, Times Square Retail 개발, Midtown Office 매입 등의 투자 프로젝트 집행 및 관리,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

주요 업무 추진 방향

① 현지에서 축적된 정보, 노하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지인 관점에서의 투자 기회 발굴 및 투자관리

② 현지 시장에 적합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기투자자산의 안정적인 관리 및 수익 극대화

③ 그룹 전략부문과의 교류와 현지 시장 분석을 통해 그룹 투자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일본
Daishin Tokyo Godo Kaisha

법인 소개

Daishin Tokyo Godo Kaisha대신동경 합동회사, 이하 동경 현지법인는 2020년 5월 동경사무소에서 현지 법인으로 전환되었다. 동경 현지법인은 증권 및 국내외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한 그룹차원의 전략적 요충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룹 내 글로벌 전략 수립을 위한 현지 법인의 미션을 실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그룹의 전략 수립을 위한 일본 현지 비즈니스 발굴이다.

법인 현황

2021년 12월 기준

설립일	2020년 5월 20일
주소	8F SVAX Bldg, 2-39-3, Nishishinbashi, Minato-ku, Tokyo, Japan
법인장	이현수
자본금	설립자본금 JPY 900,000,000 / 약 90억 원 (KRW/JPY=10.0)
법인성격	합동회사(Godo Kaisha)

핵심 경쟁력

동경 현지법인의 핵심 경쟁력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그룹 전략 수립을 위한, 일본 현지 비즈니스 발굴이다. 동경 현지법인은 그룹 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일본 현지 내 비즈니스의 발굴 및 기획, 실행을 하고 있다. 그룹의 전략을 용이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그룹 및 일본 내 현지 법인들과의 중요한 파이프라인 역할을 도맡아 오고 있다. 향후 이 역할은 파이프라인 역할뿐만이 아닌 신규 비즈니스 발굴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현지 네트워크의 활용이다. 2017년 본격적으로 일본 부동산 투자 시장에 뛰어들면서 다수의 현지 부동산 업체 및 현지 AM, PM업체와의 관계가 구축되어 있다. 현지법인 중 유일하게 시차가 없어 비즈니스를 수행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셋째, 신규 자산 확보에 일조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일본은 봉쇄 정책을 펼쳤고 이러한 환경에서 동경 현지법인은 신규 자산 확보를 위한 현지 부동산의 실사 및 주변 시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대신 수행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일본 현지 부동산 시장의 구분, 역할 등을 실제 니즈에 맞게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그룹 신규 자산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절 대신송촌문화재단

재단 소개

1990년 7월 20일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기업이념 아래 증권업계 최초의 순수 문화 재단으로 탄생했다. 재단의 설립에 앞서 대신증권에서는 1976년부터 '송촌장학회'를 운영하여 임직원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1987년 8월부터 임직원 자녀뿐 아니라 향학열에 불타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서 장학사업 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사회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화된 기구 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1990년 5월에 재단 설립작업에 착수하여 같은 해 7월 대신송촌문화재단을 탄생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대신파이낸셜그룹의 공익 문화사업 창구로서 기업에서 축적한 이윤을 보다 체계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설립 초기 양재봉 창업자의 사재로 설립된 재단은 대신증권을 비롯한 관계 회사들의 지속적인 이익금 출연으로 2021년 기준 기본재산의 규모가 417억 원에 이르는 대형 재단으로 성장했다.

재단 현황

2021년 12월 기준

설립일	1990년 7월 20일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송현길 41-7(송촌동)
이사장	양홍석
기본재산	417억 원
직원수	사무국장 1명

사회공헌활동

장학학술 지원사업

대신송촌문화재단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게 학업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의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선발하여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또한, 나주지역 중심대학인 동신대학교와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우수한 대학생들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한 해에만 20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별도 독후감 경진대회를 통해 20명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했다. 학술연구 지원을 위해서 국립현대미술관문화재단과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기관에 후원금을 지원했다.

의료부문 지원

설립 당시 장학사업과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사업에 국한하던 목적사업의 범위를 넘어 1996년부터는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제때에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순구개열 환자에 대한 수술비 지원사업을 목적사업 범위에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의료부문을 지원해 왔다. 건국대, 전남대, 부산대 등 대학병원을 통해 구순구개열 수술 지원사업을 지속해왔고, 2021년 12월까지 총 426명에게 수술비를 지원했다. 지속적으로 구순구개열, 안면기형 장애 환자, 이른둥이 가정에 의료 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봉사

나주시에 위치한 대신송촌문화재단은 지역 주민들과 지역 학생들에게 학습의 터전을 제공해 주고자 대신송촌도서관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농업에 관련된 다양한 전문서적을 비치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서적도 갖추고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인근 동신대학교와 연계하여 독서동아리들의 학습 및 토론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체육진흥 지원

지역의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취지에서 나주육상경기연맹과 전라남도싸이클연맹을 통해 훈련비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훈련여건을 개선해줌으로써,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우수한 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다.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소년·소녀가장, 무의탁 노인, 극빈자 등 사회적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도 꾸준히 전개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에는 전남 나주시와 충북 괴산군의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성금과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의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랑의 성금' 전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1년에 이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랑의 성금과 함께 옷 3,000여 벌도 함께 기부했다. 사랑의 성금은 나주 및 괴산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이화영아원, 어린엄마둥지 등 총 11곳에 전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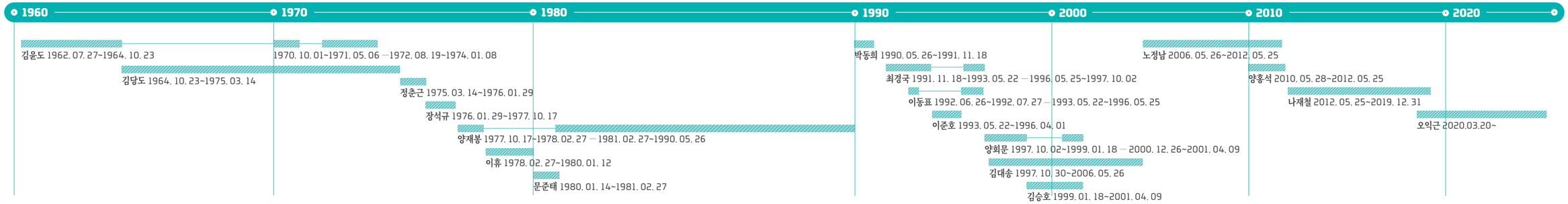
사회공헌활동 내용 단위 : 천 원 / 2022. 07. 13 기준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지급액 (1991 ~)
장학사업	306,243	283,448	325,863	276,490	151,612	**7,715,024**
학술연구 지원사업	44,000	92,000	122,000	190,000	63,000	**1,456,621**
교육기관 지원사업	555,000	500,000	850,000	1,150,000	-	**4,055,000**
국민보건 지원사업	2,943	8,000	-	203,000	3,000	**600,360**
저소득·소외계층 지원사업	337,000	244,000	129,000	160,000	-	**2,029,161**
기념관사업	-	23,356	-	38,307	-	**256,858**
합계	**1,245,186**	**1,150,804**	**1,426,863**	**2,017,797**	**217,612**	**16,113,024**

APPENDIX

역대 대표이사 재임기간표

대신증권



김윤도

1962. 07. 27~1964. 10. 23
1970. 10. 01~1971. 05. 06
1972. 08. 19~1974. 01. 08

김당도

1964. 10. 23~1975. 03. 14

정춘근

1975. 03. 14~1976. 01. 29

장석규

1976. 01. 29~1977. 10. 17

양재봉

1977. 10. 17~1978. 02. 27
1981. 02. 27~1990. 05. 26

이휴

1978. 02. 27~1980. 01. 12

문준태

1980. 01. 14~1981. 02. 27

박동희

1990. 05. 26~1991. 11. 18

최경국

1991. 11. 18~1993. 05. 22
1996. 05. 25~1997. 10. 02

이동표

1992. 06. 26~1992. 07. 27
1993. 05. 22~1996. 05. 25

이준호

1993. 05. 22~1996. 04. 01

양회문

1997. 10. 02~1999. 01. 18
2000. 12. 26~2001. 04. 09

김대송

1997. 10. 30~2006. 05. 26

김승호

1999. 01. 18~2001. 04. 09

노정남

2006. 05. 26~2012. 05. 25

양홍석

2010. 05. 28~2012. 05. 25

나재철

2012. 05. 25~2019. 12. 31

오익근

2020. 03. 20~현재

대신에프앤아이

성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박성목	2013. 08. 30	2014. 06. 10
진종은	2014. 06. 10	2019. 10. 31
주성균	2019. 10. 31	현재

대신저축은행

성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김영진	2011. 08. 05	2013. 08. 14
오익근	2013. 08. 14	2018. 12. 03
박경제	2018. 12. 03	현재

대신에이엠씨

성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박성목	2013. 08. 30	2014. 06. 10
진종은	2014. 06. 10	2019. 10. 31
주성균	2019. 10. 31	현재

대신자산신탁

성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김철종	2019. 05. 30	2022. 09. 23
김송규	2022. 06. 02	현재

디에스엔피엘인베스트먼트대부

성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안경환	2016. 12. 01	2019. 11. 25
이원성	2019. 11. 25	2020. 10. 15
이동석	2020. 10. 15	2021. 07. 26
이성근	2021. 07. 26	현재

대신프라퍼티

성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김송규	2018. 09. 03	2022. 06. 02
이득원	2022. 06. 02	현재

대신자산운용

성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정수영	1988. 03. 24	1988. 12. 31
박동희	1988. 12. 31	1990. 05. 28
이준호	1990. 05. 28	1993. 05. 18
김성진	1993. 05. 18	1995. 04. 11
지진림	1995. 04. 11	1995. 05. 31
최경국	1995. 05. 31	1996. 03. 30
이준호	1996. 03. 30	1999. 07. 09
박점상	1999. 05. 28	1999. 10. 18
노정남	1999. 10. 18	2005. 10. 04
최인선	2005. 10. 04	2005. 12. 01
이재창	2005. 12. 01	2006. 09. 28
문홍집	2006. 09. 28	2008. 03. 11
이형철	2008. 03. 11	2010. 01. 04
김범철	2009. 10. 06	2010. 01. 04
온기선	2010. 01. 04	2012. 09. 07
김범철	2012. 09. 07	2013. 03. 22
서재형	2013. 03. 22	2015. 12. 01
구희진	2015. 12. 01	2022. 06. 02
진승욱	2022. 06. 02	현재

대신프라이빗에쿼티

성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박병건	2014. 08. 18	현재

대신경제연구소

성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양재봉	1984. 09. 17	1986. 07. 21
박동희	1986. 07. 21	1988. 12. 31
정수영	1988. 12. 31	1989. 09. 30
양재봉	1989. 09. 30	1990. 06. 29
백제민	1990. 06. 29	1991. 06. 05
정해왕	1991. 06. 05	1993. 07. 10
최경국	1993. 07. 10	1995. 05. 29
나영호	1995. 05. 29	2005. 04. 01
문홍집	2005. 04. 01	2006. 09. 18
김영익	2006. 09. 18	2007. 01. 03
심충보	2007. 01. 03	2010. 03. 15
김윤기	2010. 03. 15	2013. 04. 01
문정업	2013. 04. 01	2019. 11. 25
조윤남	2019. 11. 25	현재

한국ESG연구소

성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조윤남	2021. 08. 02	현재

대신송촌문화재단

성명	취임일자	퇴임일자
양재봉	1990. 07 .20	2006. 01. 17
이어룡	2006. 01. 17	2007. 11. 29
양재봉	2007. 11. 29	2010. 12. 09
양홍석	2011. 01. 28	현재

임원 현황

대신파이낸셜그룹

이어룡
회장

양홍석
부회장

대신증권

오익근
대표이사

경영전략총괄
김범철
부사장

리테일총괄
송혁
부사장

임원 현황

대신증권

리스크관리부문
길기모 전무

서부WM부문
정연규 전무

IB부문
박성준 전무

고객자산부문 / 홍보부문
김호중 전무

동부WM부문
이정화 전무

Research Center
정연우 전무

PF부문
권택현 전무

Wholesale부문
이재우 전무

임원 현황

대신증권

프라이빗부문
이순남 상무

준법지원부문
최근영 상무

재경2WM부문
임민수 상무

경영지원부문
김수창 상무

디지털부문
김상원 상무

IPO담당
나유석 상무

IT부문
홍종국 상무

WM추진부문
신재범 상무

재경1WM부문
강준규 상무

전략지원부문
강윤기 상무

금융소비자보호부문
김성원 상무

Trading부문
박정환 상무

경영기획부문
송종원 상무

임원 현황

대신증권

Coverage본부
이정훈 상무보

영업부
김봉진 상무보

PF1본부
김상혁 상무보

정보보호부문
박현식 이사대우부문장

감사부문
이성영 이사대우부문장

대신에프앤아이

주성균 대표이사

투자본부
전동민 전무

경영기획본부
이성근 상무

대신에이엠씨

자산관리본부
노명문 전무

임원 현황

대신저축은행

박경제 대표이사

영업본부
장석철 상무

경영지원본부
김봉식 전무

디지털금융본부
현준호 상무보

기업금융본부
이영석 상무

상근감사위원
김봉규 감사위원

위험관리책임자
성경일 이사대우본부장

준법감시인
신제현 이사대우본부장

대신자산신탁

김송규 대표이사

신탁사업2부문
윤종열 상무

경영지원부문
오홍진 상무

준법지원부문
문호승 이사대우부문장

신탁사업1부문
이홍훈 상무

리스크관리부문
장중식 이사대우부문장

리츠투자부문
김재석 상무

임원 현황

대신프라퍼티/ 탠덤

이득원 대표이사

대신자산운용

진승욱 대표이사

채권운용그룹
문병식 전무

패시브운용그룹
정만성 전무

경영지원그룹
이동수 상무

대안투자그룹
김건홍 상무

마케팅그룹
조상규 상무

준법감시인
박준호 이사대우본부장

대신프라이빗에쿼티

박병건 대표이사

대신경제연구소/한국ESG연구소

조윤남 대표이사

한국ESG연구소

장지남 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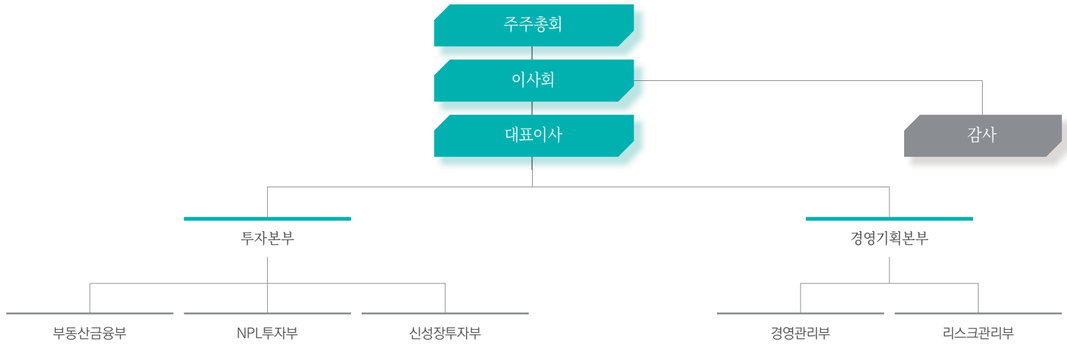
조직도

대신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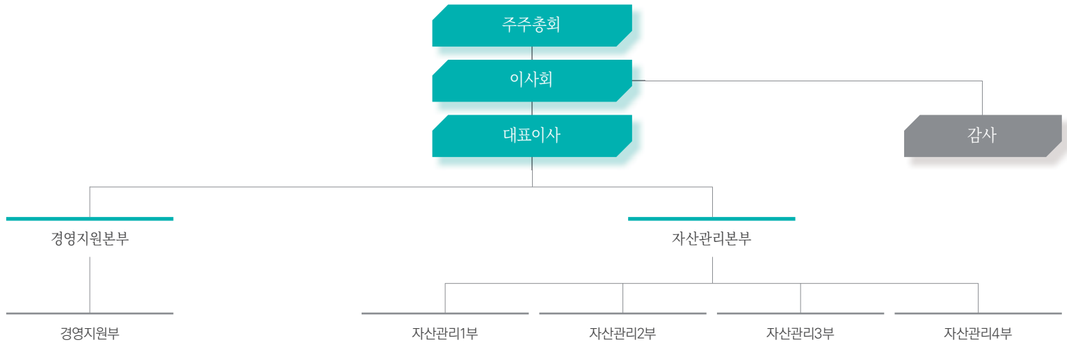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감사부문
감사실
비서실
금융소비자 보호부문
금융소비자 보호부
상품내부 통제부
준법지원 부문
Compliance부
법무팀
정보보호 부문
정보보호부
리스크관리 부문
리스크관리부
심사부
홍보부문
홍보실
Research center
장기전략 리서치부
기업리서치부
FICC리서치부
IT부문
IT개발부
IT운영부
업무개발부
고객자산 부문
상품솔루션부
랩사업부
신탁사업부
경영지원 부문
인사부
인프라 서비스부
결제업무부
신인사추진팀
경영전략총괄
경영기획 부문
경영기획실
재무자금부
브랜드 전략실
플랫폼 솔루션부
전략지원 부문
전략지원실
신사업추진단
리테일 총괄
디지털 부문
디지털Biz부
디지털 마케팅부
고객감동 센터
4WM 부문
43영업점
WM추진 부문
WM추진부
연금솔루션부
프라이빗 부문
나인원 프라이빗 라운지
프라이빗 지원팀
리테일기획부
영업부
Club1962
Sales&Trading 총괄
Trading 부문
패시브 운용본부
액티브 운용본부
채권영업본부
Wholesale 부문
법인영업본부
Global 영업본부
법인금융 상품본부
Global파생 상품본부
IB총괄
PF부문
PF1본부
PF2본부
PF3본부
대체투자부
IB부문
ECM본부
Coverage 본부
Advisory부
IPO담당
IPO1본부
IPO2본부

조직도

대신에프앤아이



대신에이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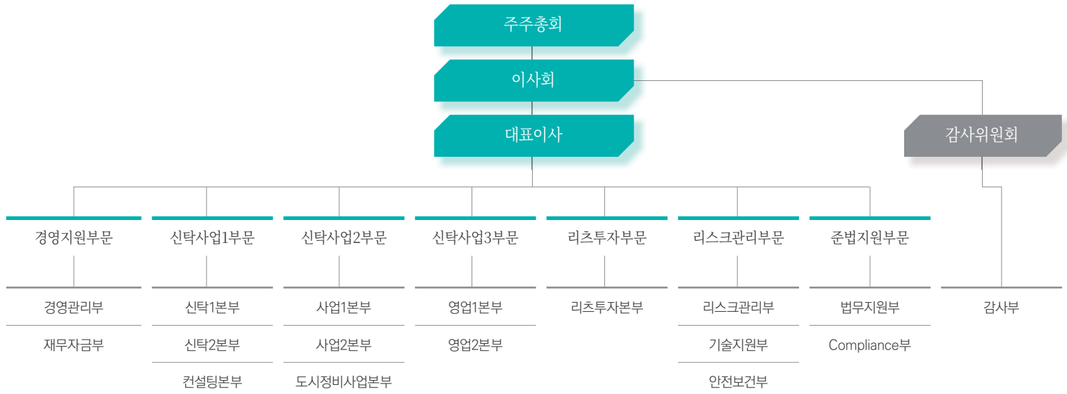


디에스엔피엘인베스트먼트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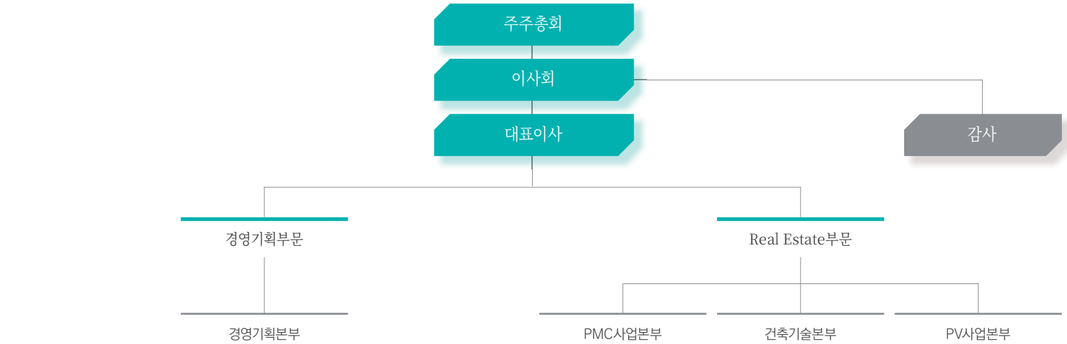
대신저축은행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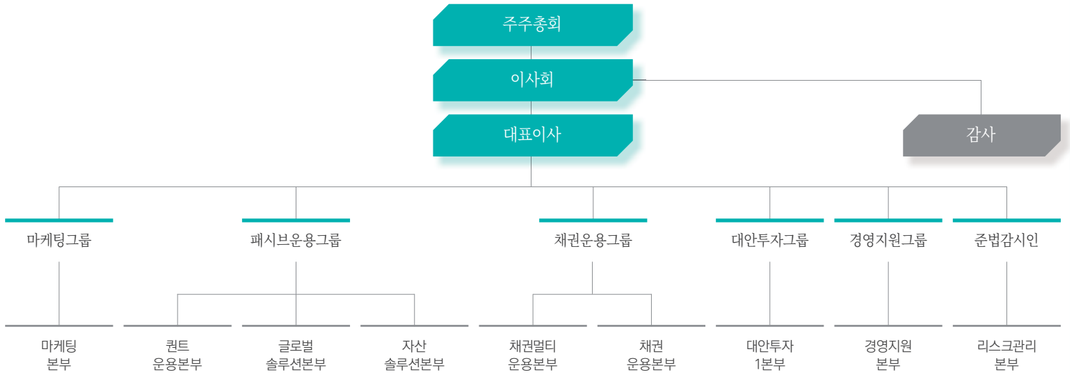
대신자산신탁



대신프라퍼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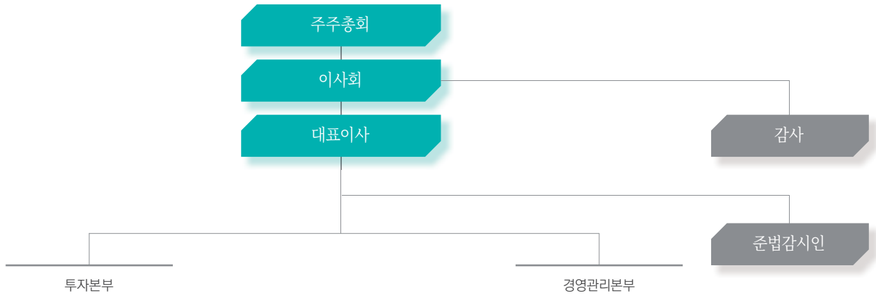


대신자산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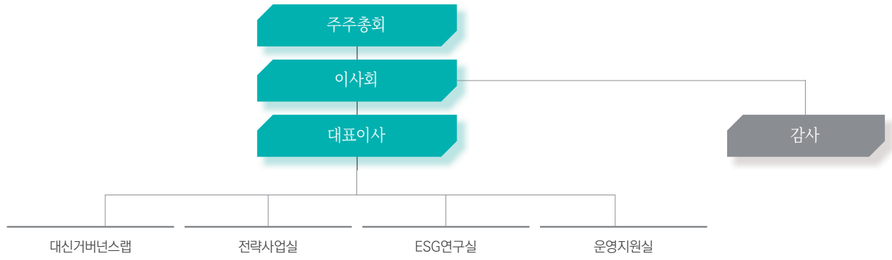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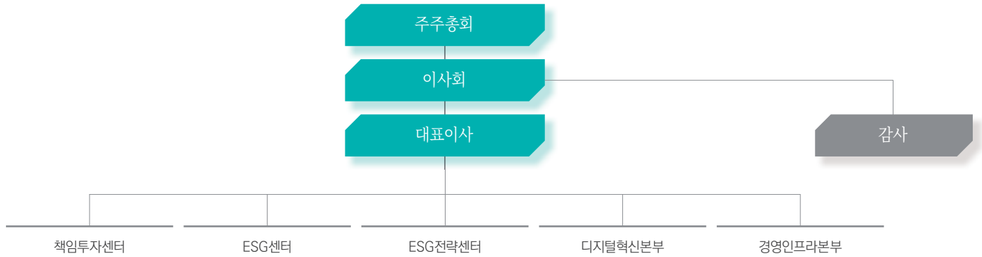
대신프라이빗에쿼티



대신경제연구소



한국ESG연구소



Mission

try Agile ways, create The Value

Trust

Growth

Harmony X Expe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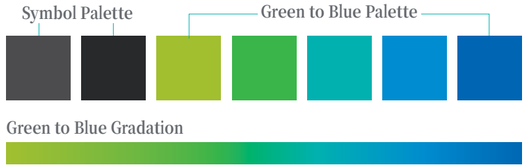
Harmony	기본과 원칙 중심, 고객, 직원, 사회가 함께 발전
Expert	전문성과 창의성으로 새로운 영역에 도전
Growth	Harmony와 Expert를 통해 그룹이 지향하는 성장 추구
Trust	영속적으로 신뢰받는 그룹이 된다

CI & BI

Symbol

대신 심볼은 금융그룹으로서의 전통과 권위를 표현하며, 고객과 회사 간의 진실한 '신뢰' 관계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겠다는 '상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Color



무채색의 Neutral Color는 고객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투명한 경영철학을 의미한다.
Green은 배려를 통해 고객과 진실된 관계를 추구하는 Emotional Trust를 나타내며,
Blue는 금융전문기업으로서 전문성을 추구하는 Rational Trust를 의미한다.
Green에서 Blue까지 이어지는 Green to Blue Gradation을 통해 변화를 선도하는 대신을 표현하고 있다.

Logotype

Daishin
Financial Group

BI

1. CREON

Symbol

Logotype

크레온
CREON

2. 벤자민

3. 프라이빗라운지

DAISHIN
NINE ONE
PRIVATE
lounge

임직원 변동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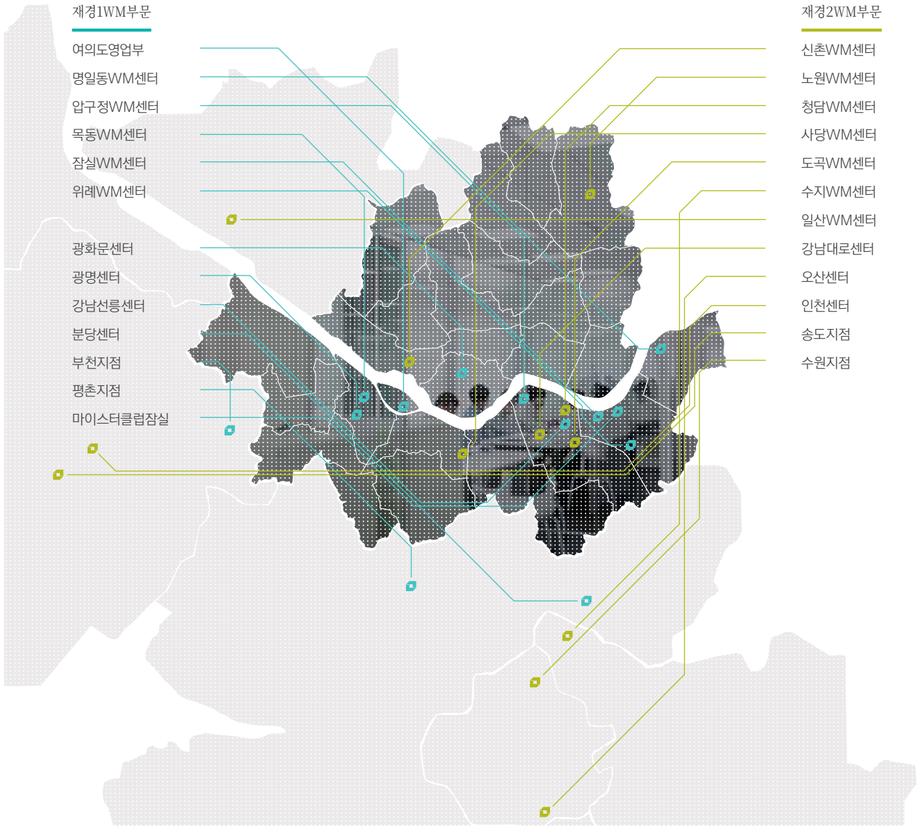
(매년 말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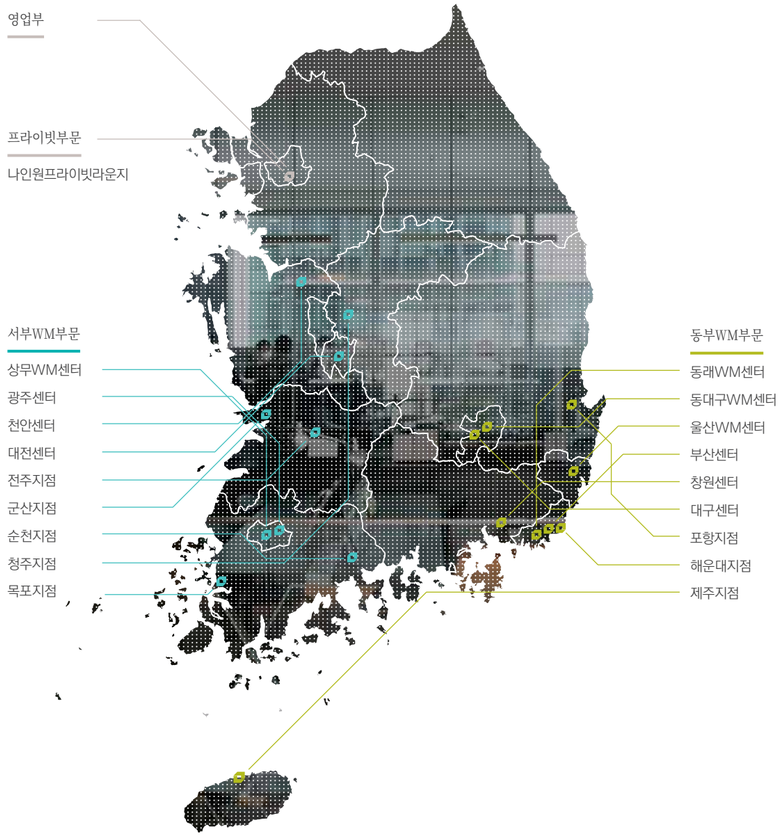
연도	증권	경제연구소	자산운용	현지법인	저축은행	프라이빗에쿼티	F&I	AMC	DSNPL	프라퍼티	자산신탁	ESG연구소	합계
1976	292												**292**
1977	401												**401**
1978	535												**535**
1979	497												**497**
1980	455												**455**
1981	464												**464**
1982	485												**485**
1983	496												**496**
1984	476	18											**494**
1985	557	33											**590**
1986	662	36											**698**
1987	948	52											**1,000**
1988	1,545	9	9										**1,563**
1989	2,153	10	31										**2,194**
1990	2,448	56	31										**2,535**
1991	2,070	64	27	9									**2,170**
1992	2,086	39	21	8									**2,154**
1993	2,051	48	54	8									**2,161**
1994	2,048	61	26	10									**2,145**
1995	2,036	71	33	12									**2,152**
1996	1,874	85	28	17									**2,004**
1997	1,677	74	28	12									**1,791**
1998	1,508	62	22	3									**1,595**
1999	2,186	67	30	3									**2,286**

연도	증권	경제연구소	자산운용	현지법인	저축은행	프라이빗에쿼티	F&I	AMC	DSNPL	프라퍼티	자산신탁	ESG연구소	합계
2000	2,174	67	42	4									**2,287**
2001	2,082	68	40	3									**2,193**
2002	2,106	65	42	3									**2,216**
2003	2,040	66	40	3									**2,149**
2004	1,901	64	39	3									**2,007**
2005	1,929	27	39										**1,995**
2006	1,996	24	37										**2,057**
2007	2,221	29	48										**2,298**
2008	2,191	27	48	4									**2,270**
2009	2,185	29	51	5									**2,270**
2010	2,242	27	46	6									**2,321**
2011	2,344	21	40	9	128								**2,542**
2012	2,359	23	39		161								**2,582**
2013	2,171	23	61		149								**2,404**
2014	1,705	28	57		164	4	28	73					**2,059**
2015	1,732	25	66		168	8	32	69					**2,100**
2016	1,662	26	56		173	9	36	70					**2,032**
2017	1,566	27	60		173	9	37	66					**1,938**
2018	1,531	29	56	5	182	9	42	61					**1,915**
2019	1,543	35	66	5	190	9	34	49	6	18	53		**2,008**
2020	1,487	43	60	8	198	10	31	47	4	24	69		**1,981**
2021	1,521	15	64	8	218	12	35	42	3	23	100	50	**2,091**
2022. 06. 30	1,540	24	64	7	237	12	40	38	2	23	116	44	**2,147**

영업점 현황

대신증권 영업망





영업점 현황

대신증권 영업망

부문	부서명		대표번호
	영업부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3 Daishin343 3F	02-757-8211
재경 1WM부문	여의도영업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ABL타워 2F	02-6951-0123
	영일동WM센터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96, 이노센스빌딩 2F	02-3426-3551
	압구정WM센터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218, 영신빌딩 2F	02-546-3901
	목동WM센터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 299, 이스턴에비뉴 2F	02-2653-7778
	잠실WM센터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61, 트리지움상가 3F	02-421-2332
	위례WM센터	서울시 송파구 위례순환로 387, 2관 1F	02-2138-0125
	광화문센터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30, 적선현대빌딩 1, 2F	02-735-7571
	광명센터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1, 광명빌딩 3F	02-2681-2311
	강남선릉센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웨스트빌딩 1, 2F	02-569-9233
	분당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00, 엠디엠타워 3F	031-702-5400
	부천지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91, 비잔티움 2F	032-667-1512
	평촌지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06, 인탑스빌딩 2F	031-388-2400
	마이스터 클럽잠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12, 장미아파트B상가 2F	02-3432-4950
재경 2WM부문	신촌WM센터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144, 동인빌딩 5F	02-719-3713
	노원WM센터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66, SK브로드밴드빌딩 1F	02-3391-4654
	청담WM센터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07, 금융주치의청담센터 1F	02-3443-0100
	사당WM센터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89, 골든시네마타워 3F	02-3474-0600
	도곡WM센터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3, 도곡웰스매니지먼트센터 2F	02-553-8400
	수지WM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52, 세호빌딩 3F	031-265-2733
	일산WM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19, 정도빌딩 2F	031-919-5033
	강남대로센터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92, 야드엘파이낸스빌딩 2F	02-3462-1630
	오산센터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29, 2F	031-375-8377
	인천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안하로489번길 4, 맨하탄빌딩 3F	032-435-8700
	송도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송도밀레니엄빌딩 2F	032-763-8108
	수원지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세영빌딩 4F	031-224-9900

부문	부서명		대표번호
동부 WM부문	동래WM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12, 2F	051-556-8200
	동대구WM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2, 호명빌딩 2F	053-751-6040
	울산WM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62, 한화손해보험빌딩 3F	052-265-2266
	부산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09, 금융프라자 3F	051-806-5561
	창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13, 수협빌딩 4F	055-281-6404
	대구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748, 벽산타워 3F	053-558-6300
	포항지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8, 경림빌딩 1F	054-273-4411
	해운대지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54, 마리나센터 3F	051-704-3800
	제주지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39, 세기스마트빌딩 3F	064-743-4131
서부 WM부문	상무WM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64, 골드메디타워 2F	062-371-0017
	광주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46, 남화토건빌딩 1, 2F	062-232-6601
	천안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2대로 92, 마블러스T타워 3F	041-578-0535
	대전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26, 명동프라자 2F	042-482-1221
	전주지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6, 계성빌딩 3F	063-275-4600
	군산지점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188, 청담빌딩 3F	063-442-3151
	순천지점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로 296, 청우이엔씨빌딩 1F	061-724-8440
	청주지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47, 흥복드림몰 3F	043-222-7290
	목포지점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로 95, 포르모빌딩 3F	061-284-4611
프라이빗 부문	나인원프라이빗 라운지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91, 고메이494한남 B2F	02-6954-0891
현지법인	뉴욕	Unit 14B, 400 Madison Avenue, NewYork, USA	1-646-791-0990
	동경	8F SVAX Bldg, 2-39-3 Nishishinbashi, Minato-ku, Tokyo, Japan	81-3-3551-8088
	싱가포르	Suite 2, Level 42, Suntec Tower 3, 8 Temasek Boulevard Singapore	65-6829-2305

대신저축은행 영업망

영업부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Daishin343 3층
–
02-519-5000

역삼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3 송촌빌딩 1F
–
02-519-8200

압구정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18 영신빌딩 1층
–
02-514-1811

대구여신전문출장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280, 아성N타워 2층
–
053-219-3180

해운대센텀지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 트럼프월드센텀 2층
–
051-742-1811

남포동지점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 90 남포메디컬센터 1층
–
051-246-1811

해외 비즈니스 네트워크

일본

현지법인

Daishin Tokyo Godo Kaisha

싱가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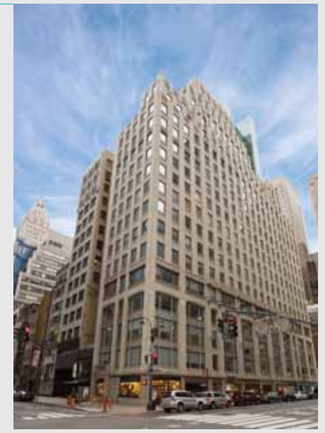
현지법인

Daishin Singapore PTE. Ltd.

한국

Daishin Financial Group Headquarters

Daishin343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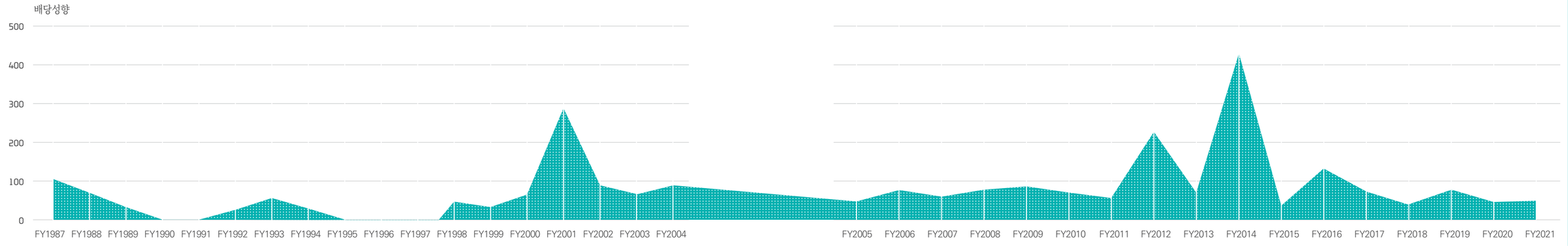
현지법인

Daishin America LLC.

연도별 배당금 추이

대신증권

	주당 배당금(단위 : 원)			배당수익률			배당금 총액	배당성향	기타
	보통주	우선주	2우B	보통주	우선주	2우B			
FY1987	750	-		3.6%	-		9,900,000,000	**104.9**%	현금배당
FY1988	900	-		1.6%	-		15,832,465,000	**67.3**%	주식배당(18%)
FY1989	500	-		2.1%	-		16,697,050,000	**36.0**%	동시배당(현금 250원, 주식 5%)
FY1990	-	-		-	-		-	-	-
FY1991	-	-		-	-		-	-	-
FY1992	200	250		1.2%	1.5%		12,109,682,000	-	현금배당
FY1993	350	400		1.8%	2.2%		20,216,943,500	**56.3**%	동시배당(현금 250원, 주식 2%)
FY1994	272	322		2.2%	3.8%		16,001,167,520	**28**%	동시배당(현금 150원, 주식 2.43%)
FY1995	-	-		-	-		-	-	-
FY1996	-	-		-	-		-	-	-
FY1997	-	-		-	-		-	-	-
FY1998	500	550		3.7%	5.9%		29,500,000,000	**46.4**%	현금배당
FY1999	1,500	1,550		8.8%	12.2%		113,478,048,700	**33.7**%	현금배당
FY2000	750	800		7.3%	13.4%		57,389,800,000	**65.7**%	현금배당
FY2001	500	550		1.9%	4.4%		38,693,115,650	**288.1**%	현금배당
FY2002	500	550		3.3%	7.4%		38,210,753,000	**90.9**%	현금배당
FY2003	650	700		3.8%	7.4%		49,127,147,350	**66.5**%	현금배당
FY2004	500	550		3.3%	5.1%		37,090,113,900	**90.0**%	현금배당
FY2005	1,000	1,050		4.9%	6.8%		74,958,693,700	**47.6**%	현금배당
FY2006	1,000	1,050		4.4%	7.2%		77,439,493,850	**77.5**%	현금배당
FY2007	1,250	1,300	1,250	5.2%	9.5%	10.3%	106,161,858,750	**59.7**%	현금배당
FY2008	1,000	1,050	1,000	5.4%	12.9%	13.6%	80,074,488,950	**77.6**%	현금배당
FY2009	1,000	1,050	1,000	5.9%	9.8%	10.6%	79,014,482,900	**86.5**%	현금배당
FY2010	750	800	750	4.8%	7.7%	8.1%	59,738,444,000	**70.0**%	현금배당
FY2011	650	700	650	5.3%	8.8%	8.6%	51,525,356,500	**56.8**%	현금배당
FY2012	500	550	500	5.1%	8.4%	8.2%	38,719,884,850	**226.3**%	현금배당
FY2013	200	250	200	2.6%	4.4%	3.9%	16,267,498,400	**68.2**%	현금배당
FY2014	250	300	250	2.5%	4.6%	4.1%	19,432,281,000	**431.1**%	현금배당
FY2015	500	550	500	4.0%	6.9%	6.8%	36,565,116,500	**38.0**%	현금배당
FY2016	550	600	550	5.0%	7.8%	7.6%	40,260,721,900	**131.7**%	현금배당
FY2017	610	660	610	4.1%	6.6%	6.6%	44,663,133,330	**72.8**%	현금배당
FY2018	620	670	620	5.1%	7.3%	7.2%	45,530,100,180	**39.6**%	현금배당
FY2019	1,000	1,050	1,000	8.1%	11.1%	11.4%	69,026,900,000	**78.5**%	현금배당
FY2020	1,200	1,250	1,200	8.6%	10.9%	10.9%	80,439,739,200	**47.2**%	현금배당
FY2021	1,400	1,450	1,400	6.7%	8.1%	8.1%	94,419,655,600	**52.8**%	현금배당



재무상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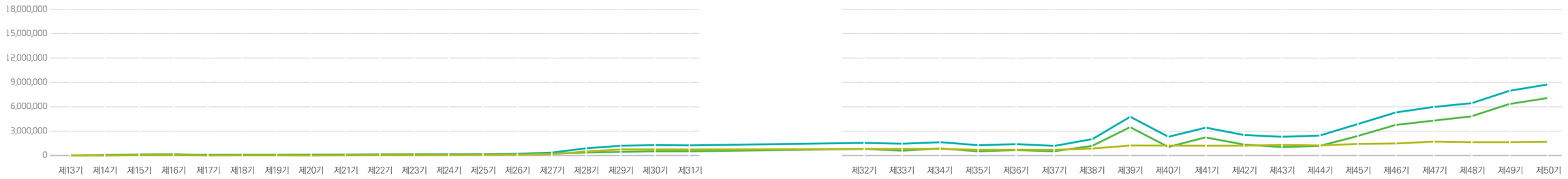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대신증권

※ 대신증권 전신기(삼락·중보증권 제1~12기)는 제외

과목	제13기	제14기	제15기	제16기	제17기	제18기	제19기	제20기	제21기	제22기	제23기	제24기	제25기	제26기	제27기	제28기	제29기	제30기	제31기
자산																			
현금 및 예치금	29	553	244	564	950	1,044	1,988	2,319	4,379	7,621	3,457	8,725	20,511	44,475	91,569	178,920	184,481	128,406	89,616
유가증권	169	1,934	3,724	8,861	4,823	5,472	10,517	13,436	10,948	17,414	18,889	20,832	37,156	83,634	198,041	475,846	550,355	782,519	775,230
파생상품	-	-	-	-	-	-	-	-	-	-	-	-	-	-	-	-	-	-	-
대출채권	381	632	1,886	2,503	3,016	3,237	1,896	2,959	4,145	3,932	8,222	9,498	26,194	3,084	8,259	146,434	225,999	119,995	133,976
유형자산	27	516	1,050	1,786	1,918	2,624	2,573	673	2,223	3,522	5,149	9,801	14,483	18,585	30,084	74,181	140,970	177,196	173,843
기타자산	107	2,188	1,521	2,154	3,663	5,034	5,392	7,638	8,458	7,708	10,825	17,608	25,566	38,998	73,048	85,383	152,695	130,203	116,841
자산총계	**713**	**5,823**	**8,425**	**15,868**	**14,370**	**17,411**	**22,366**	**27,025**	**30,153**	**40,197**	**46,542**	**66,464**	**123,910**	**188,776**	**401,001**	**960,764**	**1,254,500**	**1,338,319**	**1,289,506**
부채																			
예수부채	35	624	158	426	624	1,141	2,065	617	3,010	2,384	5,999	5,756	13,885	56,228	126,246	241,510	111,154	167,507	148,334
차입부채	308	899	4,469	7,308	7,470	9,164	13,103	17,723	14,317	20,664	13,357	32,699	72,194	53,572	106,610	73,493	302,212	340,319	326,000
파생상품부채	-	-	-	-	-	-	-	-	-	-	-	-	-	-	-	-	-	-	-
기타부채	70	2,158	1,174	2,959	2,415	3,045	3,027	1,182	3,126	4,003	2,987	2,369	7,931	16,909	29,554	80,471	46,704	46,008	45,020
부채총계	**413**	**3,681**	**5,801**	**10,693**	**10,509**	**13,350**	**18,195**	**19,522**	**20,453**	**27,051**	**22,343**	**40,824**	**94,010**	**126,709**	**262,410**	**395,474**	**460,070**	**553,834**	**519,354**
자본																			
자본금	300	2,000	2,5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8,000	20,000	20,000	22,000	44,000	66,000	165,000	260,000	270,242	270,242
자본잉여금	-	-	-	-	-	-	-	-	1,431	31	31	31	31	2,847	38,047	326,467	395,375	395,375	395,375
자본조정	-	-	-	-	-	-	-	-	-	-	-	-	-	-	-	-	-	-	-1,87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	-	-	-	-	-	-	-	-	-	-	-	-
이익잉여금	-	142	124	175	-1,139	-939	-829	2,503	3,269	5,115	4,168	5,609	7,869	15,219	34,544	73,823	139,055	118,868	106,406
자본총계	**300**	**2,142**	**2,624**	**5,175**	**3,861**	**4,061**	**4,171**	**7,503**	**9,700**	**13,146**	**24,199**	**25,640**	**29,900**	**62,066**	**138,591**	**565,290**	**794,430**	**784,485**	**770,152**

과목	제32기	제33기	제34기	제35기	제36기	제37기	제38기	제39기	제40기	제41기	제42기	제43기	제44기	제45기	제46기	제47기	제48기	제49기	제50기
자산																			
현금 및 예치금	230,750	63,156	85,619	43,568	94,242	32,015	168,255	2,636,787	654,711	1,746,074	977,711	720,808	838,682	1,004,765	800,646	1,010,071	1,381,131	1,579,367	1,771,565
유가증권	905,526	939,388	1,019,430	619,036	656,688	434,349	1,058,180	1,201,492	673,334	644,351	759,265	752,236	771,837	1,656,042	2,890,464	3,075,990	3,491,342	4,342,602	4,727,465
파생상품	-	-	-	-	-	-	-	-	-	-	-	-	-	-	-	491,493	366,332	443,970	515,922
대출채권	135,716	131,996	142,241	153,459	191,126	132,837	54,584	121,570	20,450	128,785	53,126	91,932	168,386	370,746	590,650	730,602	519,709	837,279	1,023,033
유형자산	163,319	161,586	176,735	192,756	206,887	240,568	384,938	458,808	625,220	649,401	635,876	598,320	570,266	585,565	586,667	538,850	547,306	521,748	479,203
기타자산	117,075	151,957	186,940	194,186	210,379	359,374	377,233	375,259	352,727	283,021	152,329	134,714	117,612	251,449	447,914	131,772	181,569	278,207	279,966
자산총계	**1,552,386**	**1,448,083**	**1,610,965**	**1,203,005**	**1,359,322**	**1,199,143**	**2,043,190**	**4,793,916**	**2,326,442**	**3,451,632**	**2,578,307**	**2,298,010**	**2,466,783**	**3,868,567**	**5,316,341**	**5,978,778**	**6,487,389**	**8,003,173**	**8,797,154**
부채																			
예수부채	240,489	286,538	205,219	170,283	244,730	174,498	459,829	2,107,242	744,515	1,320,219	916,002	740,160	825,697	1,045,915	899,292	811,393	1,134,343	1,092,888	1,399,599
차입부채	430,502	153,226	478,102	205,567	258,513	117,186	231,102	1,066,730	115,460	643,249	227,170	130,294	232,797	1,206,019	2,746,128	3,232,989	3,377,836	4,902,175	4,962,824
파생상품부채	-	-	-	-	-	-	-	-	-	-	-	-	-	-	-	2,637	160,311	45,813	364,644
기타부채	74,280	156,513	90,949	107,165	119,644	222,956	499,397	336,861	191,949	253,051	213,254	118,839	109,628	164,726	149,185	201,470	157,281	284,527	361,982
부채총계	**745,271**	**596,277**	**774,270**	**483,015**	**622,887**	**514,640**	**1,190,328**	**3,510,833**	**1,051,924**	**2,216,519**	**1,356,426**	**989,293**	**1,168,122**	**2,416,660**	**3,794,605**	**4,248,489**	**4,829,771**	**6,325,403**	**7,089,049**
자본																			
자본금	270,242	270,242	275,647	282,000	282,000	282,000	282,000	373,932	373,932	373,932	373,932	373,932	373,932	384,867	384,867	434,867	434,867	434,867	434,867
자본잉여금	395,375	395,374	395,375	395,375	395,375	395,375	486,372	610,364	610,364	610,364	610,364	610,652	610,652	644,539	655,920	717,846	715,771	713,146	710,721
자본조정	-819	-	-31,674	-31,674	-31,724	-28,530	730	8,444	-25,545	-31,070	-43,844	-31,123	-33,283	-45,148	-13,713	-78,045	-139,042	-141,203	-133,60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	-	-	-	-	-	-	-	-	62,539	61,081	74,738	94,503
이익잉여금	142,317	186,190	197,347	74,289	90,784	35,658	83,760	290,343	315,767	281,887	281,429	355,256	347,360	467,649	494,662	593,082	584,941	596,222	601,616
자본총계	**807,115**	**851,806**	**836,695**	**719,990**	**736,435**	**684,503**	**852,862**	**1,283,083**	**1,274,518**	**1,235,113**	**1,221,881**	**1,308,717**	**1,298,661**	**1,451,907**	**1,521,736**	**1,730,289**	**1,657,618**	**1,677,770**	**1,708,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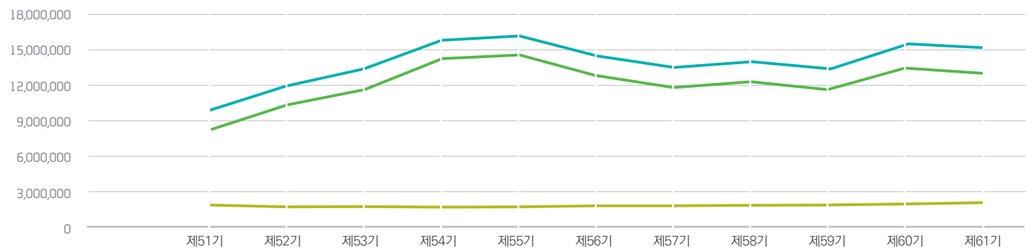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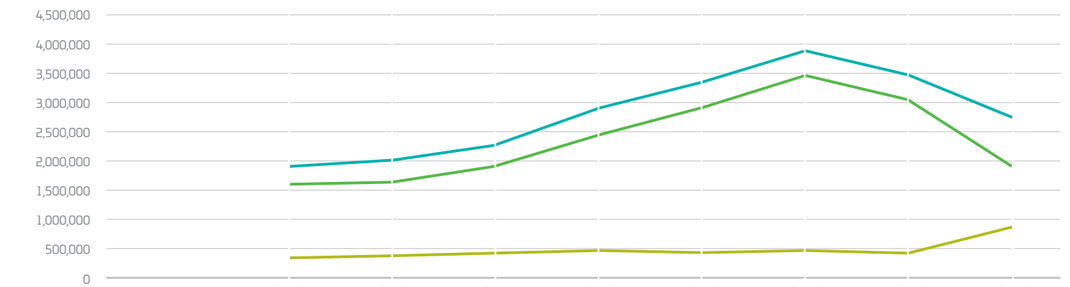
대신증권

과목	제51기	제52기	제53기	제54기	제55기	제56기	제57기	제58기	제59기	제60기	제61기
자산											
현금 및 예치금	1,240,938	1,639,515	1,830,110	2,592,059	2,265,031	1,715,433	1,771,026	1,696,158	1,579,212	3,521,092	3,342,846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6,021,096	7,691,126	9,004,209	10,099,979	10,402,898	9,229,758	7,618,502	8,367,663	8,091,932	7,170,830	6,830,37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68,811	159,016	147,781	146,027	149,060	156,959	162,976	166,865	183,381	238,379	254,416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177,777	269,928	261,396	589,747	688,517	717,651	763,437	844,993	980,868	1,071,055	1,207,401
대출채권	974,942	873,133	950,067	1,113,220	1,283,672	1,296,595	1,314,841	1,318,019	1,375,465	1,801,875	2,116,182
유형자산	275,543	387,133	352,276	338,807	367,255	257,247	301,269	281,779	307,350	267,092	263,287
투자부동산	164,451	186,258	150,329	216,762	158,288	318,573	313,634	305,343	335,380	313,841	312,679
기타자산	846,632	678,526	593,077	758,397	903,866	840,649	1,266,939	1,035,474	629,259	982,830	811,622
자산총계	**9,870,190**	**11,884,635**	**13,289,245**	**15,854,998**	**16,218,587**	**14,532,865**	**13,512,624**	**14,016,294**	**13,482,847**	**15,366,994**	**15,138,810**
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2,959,685	4,134,224	5,172,226	7,041,567	7,588,408	6,178,021	4,145,812	4,061,317	3,077,736	2,255,742	1,537,659
예수부채	1,003,537	907,601	905,408	917,050	1,351,183	1,464,531	1,772,500	1,573,689	1,546,716	3,158,052	3,096,527
차입부채	3,299,350	4,324,741	4,766,232	5,330,249	4,517,944	4,254,876	4,440,130	5,415,198	5,913,473	6,309,070	6,663,568
사채	119,556	219,370	259,414	259,626	249,606	249,790	279,543	379,550	578,836	693,764	843,723
기타부채	752,418	624,264	526,032	679,305	831,169	703,440	1,157,109	791,389	565,319	1,047,688	971,057
부채총계	**8,134,546**	**10,210,200**	**11,629,312**	**14,227,797**	**14,538,310**	**12,850,658**	**11,795,094**	**12,221,143**	**11,682,080**	**13,464,316**	**13,112,534**
자본											
자본금	434,867	434,867	434,867	434,867	434,867	434,867	434,867	434,867	434,867	434,867	434,867
자본잉여금	699,713	699,254	695,795	694,981	694,981	694,981	694,981	694,981	694,981	694,981	694,981
자본조정	-132,667	-152,272	-142,091	-160,287	-184,512	-181,734	-178,497	-174,595	-221,896	-247,586	-233,62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2,959	105,697	98,229	95,872	95,726	100,419	110,908	112,467	122,507	148,330	159,310
이익잉여금	620,772	586,889	573,133	561,768	639,215	633,674	655,271	727,431	770,308	872,086	970,745
자본총계	**1,735,644**	**1,674,435**	**1,659,933**	**1,627,201**	**1,680,277**	**1,682,207**	**1,717,530**	**1,795,151**	**1,800,767**	**1,902,678**	**2,026,276**



대신에프앤아이(연결)

과목	제14기	제15기	제16기	제17기	제18기	제19기	제20기	제21기
자산								
현금 및 예치금	156,613	120,244	320,109	128,044	215,541	517,655	236,427	184,62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970	1,691	2,047	9,538	13,572	121,735	95,461	524,10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	-	-	-	275,102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1,585,042	1,599,624	1,783,230	1,700,494	1,637,160	1,325,830	1,179,883	826,869
관계기업 투자자산	57,655	31,878	17,042	12,037	7,350	4,067	58	308
유형자산	1,852	1,717	2,281	2,179	8,256	49,261	47,431	43,802
투자부동산	-	-	-	-	907,283	1,402,522	1,433,867	596,738
재고자산	-	-	-	728,919	42,467	60,123	78,548	1,667
기타자산	116,424	254,495	186,253	317,011	534,558	410,282	404,536	310,804
자산총계	**1,918,556**	**2,009,649**	**2,310,962**	**2,898,222**	**3,366,187**	**3,891,475**	**3,476,211**	**2,764,012**
부채								
차입부채	981,177	889,906	1,278,213	2,065,000	2,010,600	1,556,000	1,010,000	1,124,945
발행사채	546,165	673,882	566,372	330,616	480,314	627,951	546,762	593,494
기타부채	49,425	69,205	57,635	63,293	424,727	1,255,126	1,486,662	184,043
부채총계	**1,576,767**	**1,632,993**	**1,902,220**	**2,458,909**	**2,915,641**	**3,439,077**	**3,043,424**	**1,902,482**
자본								
자본금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자본잉여금	3,197	3,197	3,197	3,197	3,197	3,197	3,197	2,711
자본조정	-1,723	-1,681	-1,400	-2,242	-1,943	-2,450	-2,103	-1,199
이익잉여금	270,315	305,140	336,945	368,358	379,292	381,651	361,693	790,018
자본총계	**341,789**	**376,656**	**408,742**	**439,313**	**450,546**	**452,398**	**432,787**	**861,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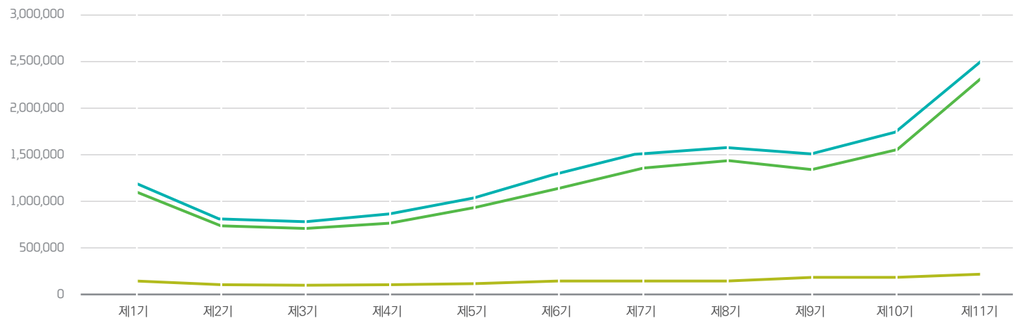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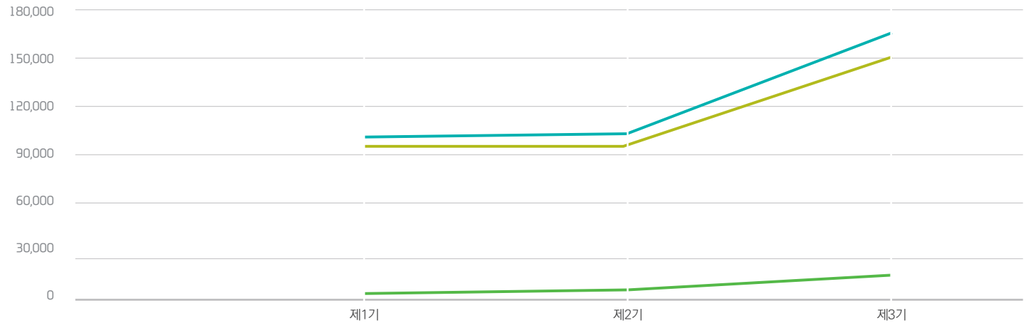
대신저축은행

과목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제6기	제7기	제8기	제9기	제10기	제11기
자산											
현금 및 예치금	613,642	348,847	88,277	68,916	138,571	168,794	75,563	174,491	187,915	223,029	312,821
유가증권	116,484	43,596	11,239	6,547	4,654	2,125	71,725	1,045	10,964	40,681	70,733
대출채권	398,151	352,980	630,567	725,508	827,975	1,050,929	1,286,843	1,378,292	1,274,966	1,434,381	2,081,378
유형자산	4,394	7,649	6,926	7,275	6,559	5,019	4,747	4,149	3,647	3,664	3,338
기타자산	62,269	64,019	41,004	36,490	34,368	40,087	36,429	27,033	24,178	19,287	32,194
자산총계	**1,194,940**	**817,091**	**778,013**	**844,736**	**1,012,127**	**1,266,954**	**1,475,307**	**1,585,010**	**1,501,670**	**1,721,042**	**2,500,464**
부채											
예수부채	1,036,364	693,239	657,888	723,421	887,039	1,119,915	1,302,071	1,380,710	1,292,971	1,503,612	2,254,427
기타부채	42,543	28,262	20,227	19,249	19,313	23,532	34,526	45,644	42,808	39,342	47,855
부채총계	**1,078,907**	**721,501**	**678,115**	**742,670**	**906,352**	**1,143,447**	**1,336,597**	**1,426,354**	**1,335,779**	**1,542,954**	**2,302,282**
자본											
자본금	35,600	35,600	35,600	35,600	35,600	35,600	35,600	35,600	35,600	35,600	35,600
자본잉여금	93,887	93,887	93,887	93,887	93,887	93,887	93,887	93,887	93,887	93,887	93,88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6	115	160	-	-	44	27	4	14	185	256
이익잉여금	-13,338	-34,012	-29,749	-27,421	-23,712	-6,024	9,196	29,165	36,390	48,416	68,439
자본총계	**116,033**	**95,590**	**99,898**	**102,066**	**105,775**	**123,507**	**138,710**	**158,656**	**165,891**	**178,088**	**198,182**



대신자산신탁

과목	제1기	제2기	제3기
자산			
현금 및 예치금	31,999	35,367	105,16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62,736	59,521	45,648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	5,188
관계기업 투자자산	-	2,000	2,300
유형자산	3,255	2,673	3,217
기타자산	2,346	3,289	3,889
자산총계	**100,336**	**102,850**	**165,403**
부채			
기타부채	3,591	5,698	14,614
부채총계	**3,591**	**5,698**	**14,614**
자본			
자본금	100,000	100,000	110,000
자본잉여금	-	-	38,416
자본조정	-1,440	-1,44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23	-377
이익잉여금	-1,815	-1,285	2,750
자본총계	**96,745**	**97,152**	**150,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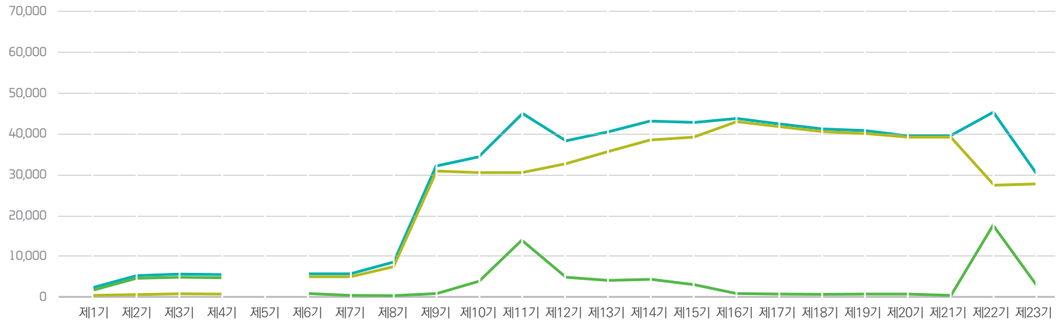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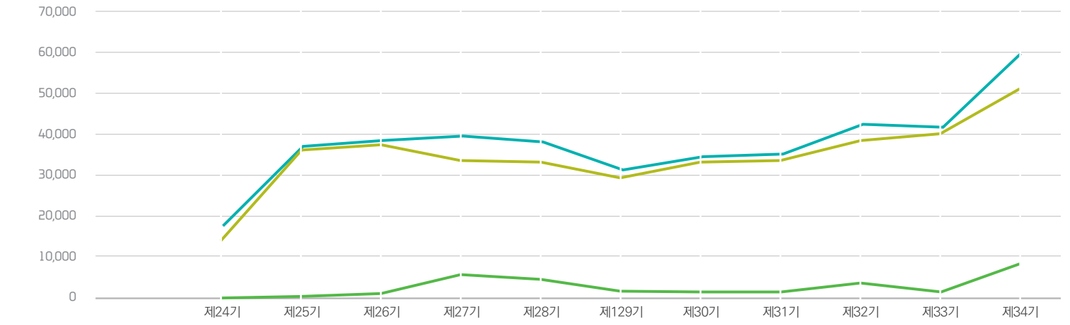
대신자산운용

과목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제6기	제7기	제8기	제9기	제10기	제11기	제12기	제13기	제14기	제15기	제16기	제17기	제18기	제19기	제20기	제21기	제22기	제23기
자산																							
현금 및 예치금	324	189	732	4,529		1,104	125	338	14,895	26,164	32,713	27,460	22,265	25,588	14,434	15,284	15,550	25,035	13,910	32,240	32,936	36,749	20,891
유가증권	1,482	4,352	3,877	5		2,889	4,100	6,293	5,081	–	–	–	12,171	12,334	23,305	13,282	21,709	10,630	18,861	113	–	–	–
대출채권	–	–	–	–		–	–	–	–	–	–	708	–	407	47	74	7	–	2,000	1,202	150	216	1,625
유형자산	69	337	336	322		281	305	198	485	335	547	818	471	306	130	119	181	184	209	174	122	144	105
기타자산	210	302	551	661		1,525	1,136	1,489	11,232	8,109	12,111	9,399	5,199	4,504	4,991	15,080	5,154	5,535	5,887	6,159	6,484	8,316	7,821
자산총계	**2,085**	**5,180**	**5,496**	**5,517**		**5,799**	**5,666**	**8,318**	**31,693**	**34,608**	**45,371**	**38,385**	**40,106**	**43,139**	**42,907**	**43,839**	**42,601**	**41,384**	**40,867**	**39,888**	**39,693**	**45,425**	**30,442**
부채																							
예수부채	19	13	10	8		25	11	15	62	53	26	754	63	60	71	121	9	63	94	73	48	–	–
차입부채	–	–	–	–		–	–	–	–	–	–	–	–	–	–	–	–	–	–	–	–	–	–
기타부채	343	342	519	488		690	428	483	671	3,527	14,468	4,572	4,384	4,730	3,128	875	481	362	413	357	189	17,828	2,739
부채총계	**362**	**355**	**529**	**496**		**715**	**439**	**498**	**733**	**3,580**	**14,494**	**5,326**	**4,447**	**4,790**	**3,199**	**996**	**490**	**425**	**507**	**430**	**237**	**17,828**	**2,739**
자본																							
자본금	2,000	5,000	5,000	5,000		5,000	5,000	7,5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6,000	16,000
자본잉여금	–	–	–	–		–	–	–	–	–	–	–	–	–	–	–	–	–	–	–	–	41,928	11,596
자본조정	–	–	–	–		–	–	–	–	–	–	70	1	–	–	–	–	–	–	–	–	–	–
이익잉여금	−277	−175	−32	21		83	227	319	960	1,029	877	2,989	5,658	8,349	9,708	12,843	12,111	10,959	10,360	9,458	9,457	−30,331	107
자본총계	**1,723**	**4,825**	**4,967**	**5,021**		**5,083**	**5,227**	**7,819**	**30,960**	**31,029**	**30,877**	**33,059**	**35,659**	**38,349**	**39,708**	**42,843**	**42,111**	**40,959**	**40,360**	**39,458**	**39,457**	**27,597**	**27,703**



대신자산운용

과목	제24기	제25기	제26기	제27기	제28기	제29기	제30기	제31기	제32기	제33기	제34기
자산											
현금 및 예치금	9,096	31,639	33,091	33,710	27,320	19,628	26,153	28,219	19,458	31,207	19,855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302	302	1,802	3,089	6,841	6,914	3,151	4,010	15,492	5,733	23,572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지분	–	–	–	250	655	655	655	655	3,000	1,736	6,909
대출채권	1,036	148	186	134	132	51	39	122	178	147	112
유형자산	57	268	363	336	251	372	249	193	1,863	521	4,288
기타자산	6,910	4,860	3,222	1,895	2,936	3,740	4,583	2,030	2,453	2,571	4,719
자산총계	**17,401**	**37,217**	**38,664**	**39,414**	**38,135**	**31,360**	**34,831**	**35,228**	**42,443**	**41,916**	**59,455**
부채											
예수부채	–	–	–	–	–	–	–	–	–	–	
차입부채	–	–	–	–	–	–	–	–	–	–	
기타부채	3,582	451	1,030	5,789	4,631	1,695	1,453	1,470	3,801	1,552	8,343
부채총계	**3,582**	**451**	**1,030**	**5,789**	**4,631**	**1,695**	**1,453**	**1,470**	**3,801**	**1,552**	**8,343**
자본											
자본금	16,000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29,000
자본잉여금	11,597	24,529	24,529	24,529	24,529	24,529	4,611	4,394	4,394	4,394	4,394
자본조정	–	–	–	–	–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2	−33	1,182	−115	−85	−16	39	−169	15	60
이익잉여금	−13,778	−16,701	−15,862	−21,086	−19,911	−23,778	−217	325	5,417	6,955	17,657
자본총계	**13,819**	**36,766**	**37,634**	**33,625**	**33,504**	**29,666**	**33,378**	**33,758**	**38,642**	**40,364**	**5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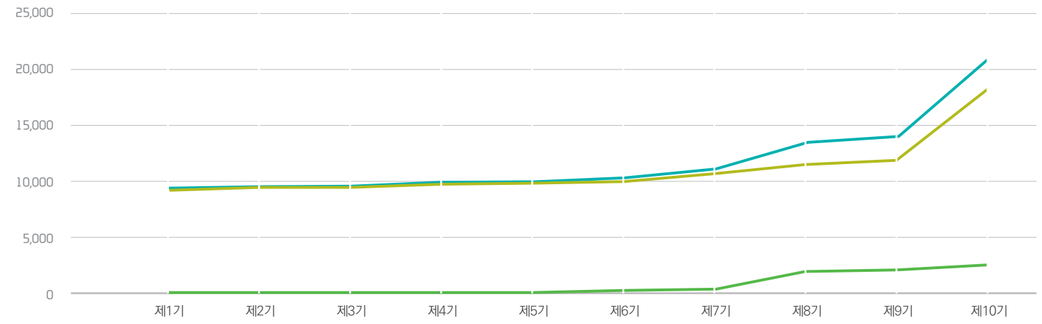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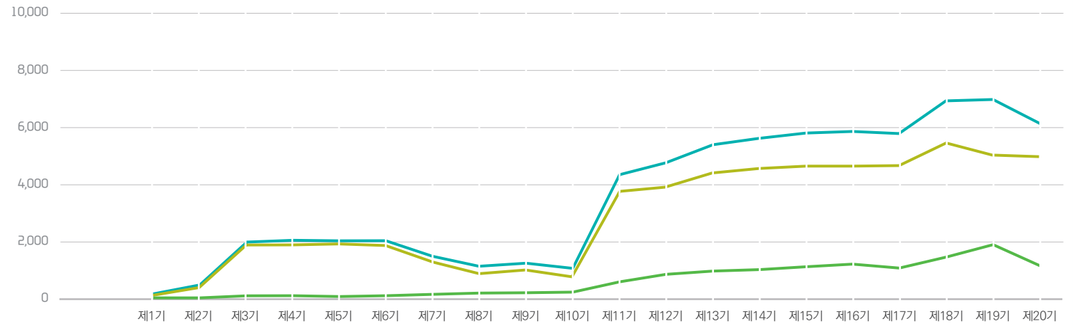
대신프라이빗에쿼티

과목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제6기	제7기	제8기	제9기	제10기
자산										
유동자산	9,429	9,470	7,814	8,569	8,637	7,221	6,238	8,124	4,790	3,455
비유동자산	–	–	1,819	1,313	1,333	3,045	4,773	5,227	9,203	17,368
자산총계	**9,429**	**9,470**	**9,633**	**9,882**	**9,970**	**10,266**	**11,011**	**13,351**	**13,993**	**20,823**
부채										
유동부채	2	12	38	54	80	232	301	424	592	916
비유동부채	–	8	17	–	–		–	1,436	1,428	1,589
부채총계	**2**	**20**	**55**	**54**	**80**	**232**	**301**	**1,860**	**2,020**	**2,505**
자본										
자본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5,000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7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423	-400	-272	-22	40	184	860	1,641	2,123	3,495
자본총계	**9,427**	**9,450**	**9,578**	**9,828**	**9,890**	**10,034**	**10,710**	**11,491**	**11,973**	**18,318**



대신경제연구소

과목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제6기	제7기	제8기	제9기	제10기	제11기	제12기	제13기	제14기	제15기	제16기	제17기	제18기	제19기	제20기
자산																				
유동자산	76	351	1,635	1,710	1,674	1,675	911	429	523	224	2,886	3,058	3,228	2,121	3,434	2,512	3,401	4,304	4,673	3,416
비유동자산	114	127	360	345	345	384	578	721	757	845	1,497	1,724	2,191	3,506	2,379	3,380	2,399	2,655	2,313	2,736
자산총계	**190**	**478**	**1,995**	**2,055**	**2,019**	**2,059**	**1,489**	**1,150**	**1,280**	**1,069**	**4,383**	**4,782**	**5,419**	**5,627**	**5,813**	**5,892**	**5,800**	**6,959**	**6,986**	**6,152**
부채																				
유동부채	9	10	62	60	17	69	17	19	34	36	166	130	90	87	60	170	279	279	327	435
비유동부채	12	11	50	67	87	80	164	209	200	218	419	703	879	937	1,082	1,048	840	1,186	1,602	706
부채총계	**21**	**21**	**112**	**127**	**104**	**149**	**181**	**228**	**234**	**254**	**585**	**833**	**969**	**1,024**	**1,142**	**1,218**	**1,119**	**1,465**	**1,929**	**1,141**
자본																				
자본금	200	5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자본잉여금	–	–	–	–	–	–	–	–	–	–	–	–	–	–	–	–	–	–	–	–
자본조정	–	–	–	–	–	–	–	–	–	–	–	–	–	–	–	–	–	693	225	148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	–	–	–	–	–	–	–	–	–	–	–	–	–	–	–	–	–	–
이익잉여금	-31	-43	-117	-72	-85	-90	-692	-1,078	-954	-1,185	-1,202	-1,051	-550	-397	-329	-326	-319	-199	-168	-137
자본총계	**169**	**457**	**1,883**	**1,928**	**1,915**	**1,910**	**1,308**	**922**	**1,046**	**815**	**3,798**	**3,949**	**4,450**	**4,603**	**4,671**	**4,674**	**4,681**	**5,494**	**5,057**	**5,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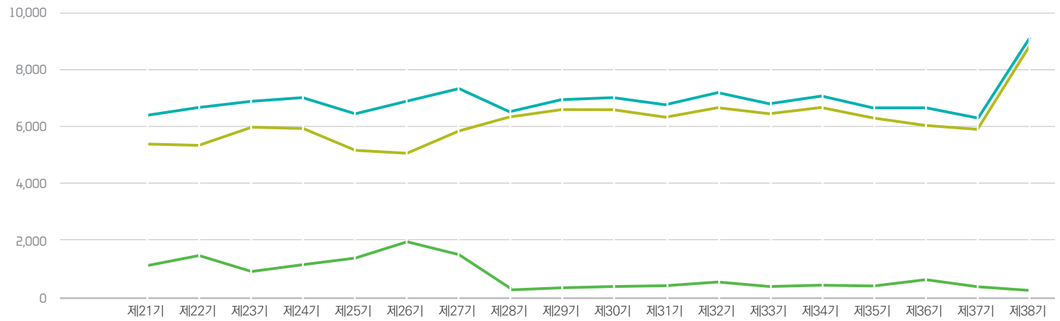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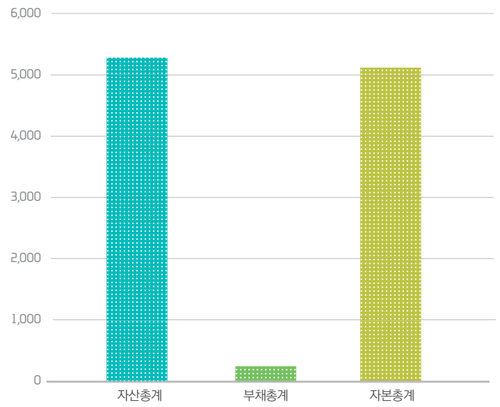
대신경제연구소

과목	제21기	제22기	제23기	제24기	제25기	제26기	제27기	제28기	제29기	제30기	제31기	제32기	제33기	제34기	제35기	제36기	제37기	제38기
자산																		
유동자산	3,616	4,269	4,243	3,048	3,702	4,320	4,897	4,208	4,396	5,150	5,000	5,039	4,787	4,684	4,461	5,002	3,252	1,740
비유동자산	2,699	2,318	2,532	3,880	2,651	2,528	2,340	2,356	2,516	1,809	1,754	2,148	2,006	2,382	2,197	1,619	2,993	7,398
자산총계	**6,315**	**6,587**	**6,775**	**6,928**	**6,353**	**6,848**	**7,237**	**6,564**	**6,912**	**6,959**	**6,754**	**7,187**	**6,793**	**7,066**	**6,658**	**6,621**	**6,245**	**9,138**
부채																		
유동부채	223	221	125	127	138	168	1,375	79	91	156	184	232	132	143	153	198	309	158
비유동부채	788	1,110	694	960	1,173	1,685	–	144	224	214	229	304	233	261	228	394	54	71
부채총계	**1,011**	**1,331**	**819**	**1,087**	**1,311**	**1,853**	**1,375**	**223**	**315**	**370**	**413**	**536**	**365**	**404**	**381**	**592**	**363**	**229**
자본																		
자본금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10,000
자본잉여금	–	–	–	–	–	–	–	–	–	–	–	–	–	–	–	–	–	–
자본조정	410	360	685	–	–	–	–	–	–	–	–	–	–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875	438	351	419	594	889	840	841	1,178	922	1,021	901	651	194	80
이익잉여금	-106	-104	271	-34	-396	-356	443	747	708	749	500	473	506	641	376	378	688	-1,171
자본총계	**5,304**	**5,256**	**5,956**	**5,841**	**5,042**	**4,995**	**5,862**	**6,341**	**6,597**	**6,589**	**6,341**	**6,651**	**6,428**	**6,662**	**6,277**	**6,029**	**5,882**	**8,909**



한국ESG연구소

과목	제1기
자산	
유동자산	4,735
비유동자산	584
자산총계	**5,319**
부채	
유동부채	179
비유동부채	–
부채총계	**179**
자본	
자본금	500
자본잉여금	5,096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456
자본총계	**5,140**



손익계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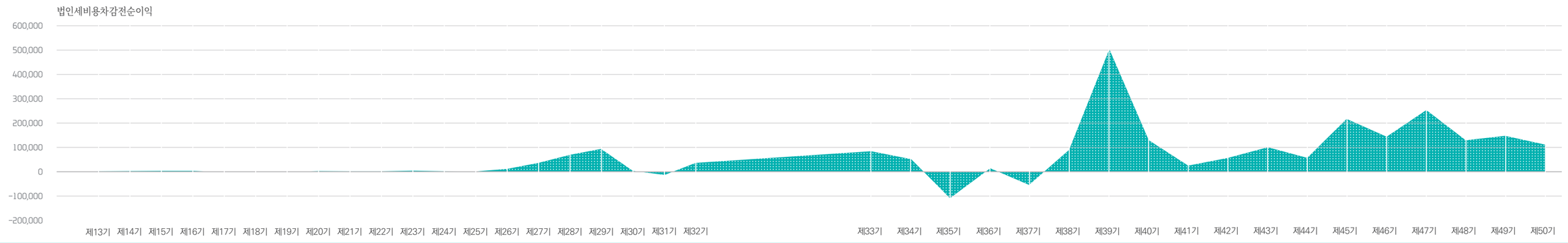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대신증권

※ 대신증권 전신기(삼락·중보증권 제1기~제12기)는 제외

과목	제13기	제14기	제15기	제16기	제17기	제18기	제19기	제20기	제21기	제22기	제23기	제24기	제25기	제26기	제27기	제28기	제29기	제30기	제31기	제32기
영업수익	**104**	**832**	**1,585**	**5,200**	**5,681**	**9,829**	**14,078**	**19,542**	**7,371**	**46,925**	**48,087**	**73,817**	**36,304**	**62,204**	**105,148**	**184,979**	**205,067**	**196,152**	**254,992**	**261,488**
수수료수익	56	478	1,032	3,440	3,215	3,191	3,785	4,915	1,427	6,544	4,993	9,857	12,324	21,600	46,373	73,394	83,643	104,388	152,506	120,307
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5	43	152	879	1,285	5,102	7,782	9,921	4,787	35,883	37,425	58,753	6,018	19,560	24,124	54,639	22,256	11,822	25,739	51,771
파생상품 관련 이익	–	–	–	–	–	–	–	–	–	–	–	–	–	–	–	–	–	–	–	–
이자수익	31	226	280	671	799	1,226	1,847	3,551	858	3,817	4,850	3,110	10,822	13,724	20,061	33,877	69,694	46,010	63,025	75,136
기타	12	85	121	210	382	310	664	1,155	299	681	819	2,097	7,140	7,320	14,590	23,069	29,474	33,932	13,722	14,274
영업비용	**89**	**549**	**1,501**	**4,041**	**5,144**	**9,077**	**11,933**	**18,532**	**5,441**	**41,815**	**47,419**	**69,187**	**28,570**	**39,586**	**62,800**	**91,636**	**137,242**	**176,411**	**249,047**	**194,692**
수수료비용	11	58	114	339	251	180	188	243	85	474	301	438	647	1,354	3,110	4,474	2,432	1,755	19,269	4,970
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3	3	123	430	1,791	5,159	6,371	12,407	3,839	34,567	39,487	59,385	5,691	9,305	20,971	29,062	51,769	59,187	130,812	87,001
파생상품 관련 손실	–	–	–	–	–	–	–	–	–	–	–	–	–	–	–	–	–	–	–	–
이자비용	15	54	92	236	192	573	520	1,629	341	989	1,135	1,229	1,907	2,297	3,238	2,721	5,918	10,524	9,962	8,208
판매비와 관리비	49	369	803	1,903	2,801	3,020	3,658	3,958	1,159	5,746	6,321	7,630	9,583	12,529	22,949	44,086	61,624	66,503	82,037	86,555
기타	11	65	369	1,133	109	145	1,196	295	17	39	175	505	10,742	14,101	12,532	11,293	15,499	38,442	6,967	7,958
영업이익	15	283	84	1,159	537	752	2,145	1,010	1,930	5,110	668	4,630	7,734	22,618	42,348	93,343	67,825	19,741	5,945	66,796
영업외수익	8	8	62	25	688	289	464	4,237	500	674	3,384	1,590	1,615	3,550	6,770	10,829	41,003	13,653	29,119	24,165
영업외비용	8	89	13	678	2,416	1,416	2,499	1,615	1,104	3,262	1,794	3,374	4,901	13,193	13,225	37,815	18,875	30,677	46,199	52,95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5**	**202**	**133**	**506**	**-1,191**	**-375**	**110**	**3,632**	**1,326**	**2,522**	**2,258**	**2,846**	**4,448**	**12,975**	**35,893**	**66,357**	**89,953**	**2,717**	**-11,135**	**38,008**
법인세비용	–	60	36	374	–	–	–	374	405	483	428	485	819	3,534	12,369	19,956	8,868	176	–	2,074
당기순이익	**15**	**142**	**97**	**132**	**-1,191**	**-375**	**110**	**3,258**	**921**	**2,039**	**1,830**	**2,361**	**3,629**	**9,441**	**23,524**	**46,401**	**81,085**	**2,541**	**-11,135**	**35,934**

과목	제33기	제34기	제35기	제36기	제37기	제38기	제39기	제40기	제41기	제42기	제43기	제44기	제45기	제46기	제47기	제48기	제49기	제50기
영업수익	**298,272**	**280,687**	**187,493**	**207,853**	**261,705**	**389,911**	**1,139,757**	**751,201**	**638,316**	**479,724**	**436,142**	**345,771**	**617,476**	**1,031,563**	**2,690,484**	**2,823,671**	**3,273,708**	**4,188,383**
수수료수익	158,664	152,519	98,798	130,751	165,039	290,389	852,250	484,224	409,692	316,911	282,713	215,289	370,224	298,346	431,215	293,115	361,644	311,804
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78,066	75,147	31,316	27,222	22,937	41,901	100,488	45,620	40,087	39,499	54,257	51,565	118,448	460,908	1,148,138	1,854,873	1,875,986	2,542,414
파생상품 관련 이익	–	–	–	–	8,717	5,222	7,658	2,607	5,155	3,994	2,420	1,582	16,202	122,593	898,777	410,670	763,148	939,526
이자수익	50,003	42,993	51,239	43,202	54,459	45,909	130,995	140,928	115,218	104,389	56,383	49,826	77,789	101,659	161,519	209,107	230,503	331,140
기타	11,539	10,028	6,140	6,678	10,553	6,490	48,366	77,822	68,164	14,931	40,369	27,509	34,813	48,057	50,835	55,906	42,427	63,499
영업비용	**197,127**	**219,299**	**265,728**	**191,287**	**267,762**	**308,209**	**641,898**	**617,281**	**648,099**	**409,705**	**324,877**	**282,993**	**400,225**	**910,581**	**2,466,844**	**2,723,541**	**3,100,880**	**4,106,195**
수수료비용	8,155	8,004	4,806	5,865	7,989	17,503	88,130	55,539	42,335	29,811	23,795	16,314	26,830	19,130	29,395	19,685	21,940	15,300
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77,038	96,808	118,813	52,113	93,133	90,588	161,058	138,847	86,192	46,459	20,311	27,511	69,093	317,584	1,146,716	575,868	979,335	1,031,752
파생상품 관련 손실	–	–	–	–	6,574	4,311	6,788	2,105	6,054	3,851	2,445	1,958	16,363	266,760	882,198	1,681,569	1,634,662	2,485,628
이자비용	3,444	282	653	3,634	7,020	5,872	67,974	47,336	39,048	36,831	21,093	17,220	25,608	45,251	91,001	130,728	110,235	203,758
판매비와 관리비	98,903	111,552	135,994	122,613	142,239	179,596	317,948	373,454	474,470	292,753	257,233	219,990	262,331	261,856	314,705	296,014	347,433	345,921
기타	9,587	2,653	5,462	7,062	10,807	10,339	–	–	–	–	–	–	–	–	2,829	19,677	7,275	23,836
영업이익	101,145	61,388	-78,235	16,566	-6,057	81,702	497,859	133,920	-9,783	70,019	111,265	62,778	217,251	120,982	223,640	100,130	172,828	82,188
영업외수익	25,405	42,112	43,797	43,786	53,355	114,209	51,872	23,690	71,695	30,031	25,411	21,779	37,374	26,657	41,840	27,062	20,057	33,912
영업외비용	42,879	53,754	75,407	43,857	102,424	103,929	45,241	37,850	37,213	44,455	33,358	25,816	39,536	8,089	9,280	2,278	43,845	5,63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3,671**	**49,746**	**-109,845**	**16,495**	**-55,126**	**91,982**	**504,490**	**119,760**	**24,699**	**55,595**	**103,318**	**58,741**	**215,089**	**139,550**	**256,200**	**124,914**	**149,040**	**110,461**
법인세비용	26,882	12,445	–	–	–	28,372	167,371	32,467	11,267	13,546	29,490	17,511	57,709	37,579	78,359	21,662	57,685	26,053
당기순이익	**56,789**	**37,301**	**-109,845**	**16,495**	**-55,126**	**63,610**	**337,119**	**87,293**	**13,432**	**42,049**	**73,828**	**41,230**	**157,380**	**101,971**	**177,841**	**103,252**	**91,355**	**84,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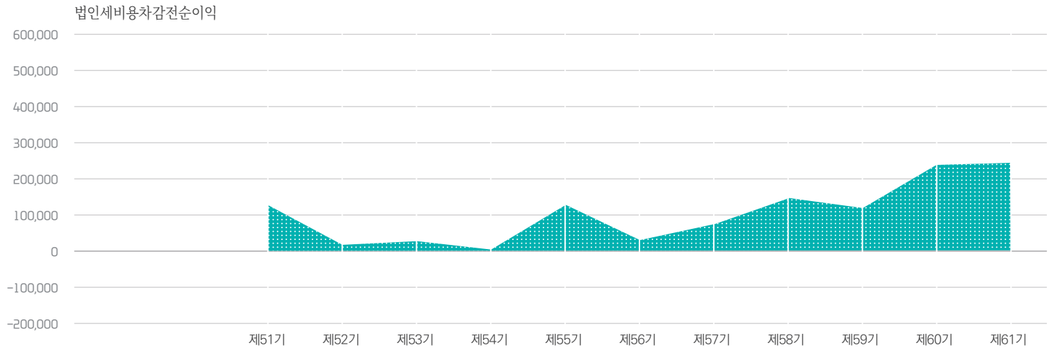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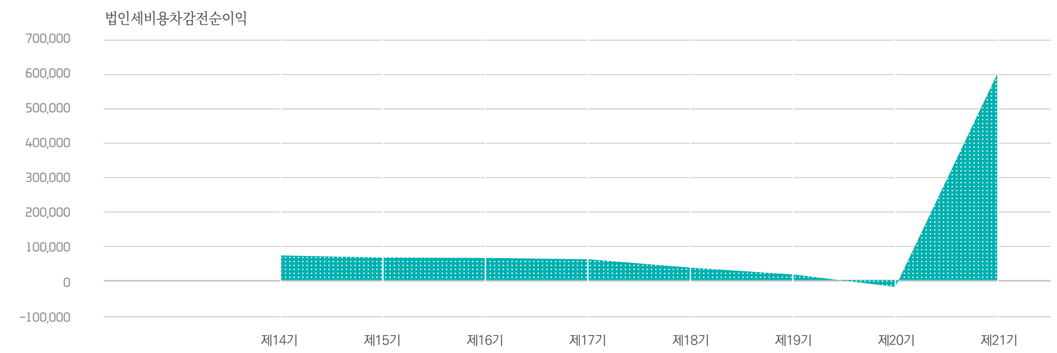
대신증권

과목	제 51기	제 52기	제 53기	제 54기	제 55기	제 56기	제 57기	제 58기	제 59기	제 60기	제 61기
영업수익	**4,297,958**	**2,602,213**	**1,437,313**	**2,049,133**	**3,220,420**	**3,866,725**	**3,270,066**	**2,236,455**	**2,288,306**	**2,289,577**	**2,432,184**
수수료수익	319,537	204,647	144,980	190,730	289,538	273,876	250,880	297,484	269,083	463,176	541,653
이자수익	179,567	94,502	73,085	104,837	121,264	96,877	84,361	96,244	88,026	81,595	99,16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이익	3,595,108	1,959,476	830,217	1,212,529	1,874,090	2,709,076	2,184,252	1,537,574	1,647,918	1,430,329	1,622,63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상품 관련 이익	168,740	307,060	348,086	462,787	837,099	571,813	562,549	177,344	177,346	160,772	70,381
기타	35,006	36,528	40,945	78,250	98,429	215,083	188,024	127,809	105,933	153,705	98,358
영업비용	**4,201,292**	**2,588,152**	**1,448,746**	**2,044,397**	**3,095,643**	**3,841,292**	**3,217,162**	**2,108,847**	**2,189,360**	**2,049,917**	**2,150,372**
수수료비용	14,329	14,255	10,294	15,376	26,216	39,051	30,505	23,246	17,501	22,931	29,694
이자비용	253,870	190,563	101,129	135,890	120,669	94,959	85,034	112,299	135,253	96,757	83,567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손실	3,430,944	1,669,941	714,095	1,047,277	1,968,551	2,493,737	1,686,683	1,307,719	1,107,432	1,327,583	1,421,585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상품 관련 손실	107,565	343,134	359,012	461,050	571,342	730,543	1,014,025	275,319	557,151	200,720	134,520
판매비와 관리비	359,092	334,767	234,757	320,191	306,452	310,735	283,868	286,346	294,317	304,509	366,100
기타	35,492	35,492	29,459	64,613	102,413	172,267	117,047	103,918	77,706	97,417	114,906
영업이익	**96,666**	**14,061**	**-11,433**	**4,736**	**124,777**	**25,433**	**52,904**	**127,608**	**98,946**	**239,660**	**281,812**
영업외수익	51,973	12,962	41,790	15,064	13,346	24,044	23,826	38,794	25,528	45,054	27,630
영업외비용	22,922	8,418	1,239	14,745	8,197	16,748	3,713	20,496	6,538	48,670	63,69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5,717**	**18,605**	**29,118**	**5,055**	**129,926**	**32,729**	**73,017**	**145,906**	**117,936**	**236,044**	**245,751**
법인세비용	34,868	1,541	5,215	505	33,505	2,151	11,605	31,097	30,007	65,680	67,094
당기순이익	**90,849**	**17,064**	**23,903**	**4,550**	**96,421**	**30,578**	**61,412**	**114,809**	**87,929**	**170,364**	**178,657**



대신에프앤아이(연결)

과목	제14기	제15기	제16기	제17기	제18기	제19기	제20기	제21기
영업수익	**171,821**	**170,351**	**189,767**	**189,786**	**198,566**	**287,298**	**397,985**	**961,890**
수수료수익	4,829	2,207	1,886	1,677	1,387	27,778	16,040	22,123
이자수익	74,393	88,519	88,704	105,494	86,466	90,164	81,180	79,045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수익	-	730	2	1,038	72	2	76	112
기타영업수익	92,599	78,895	99,175	81,577	110,641	169,354	300,689	860,610
영업비용	**99,470**	**102,711**	**118,010**	**119,323**	**156,717**	**272,342**	**398,555**	**357,059**
수수료비용	9,359	9,504	13,027	10,913	24,357	21,254	17,081	23,739
이자비용	36,889	42,400	41,649	46,056	52,508	70,825	44,286	37,946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비용	-	-	-	-	60	294	397	1,251
판매비와 관리비	17,812	18,391	19,893	21,782	31,037	28,684	69,624	37,712
기타영업비용	35,410	32,416	43,441	40,572	48,755	151,285	267,167	256,411
영업이익	**72,351**	**67,640**	**71,757**	**70,463**	**41,849**	**14,956**	**-570**	**604,831**
영업외수익	497	216	88	171	340	1,326	1,253	8,811
영업외비용	1,052	8	1,099	951	334	3,342	12,262	4,99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1,796**	**67,848**	**70,746**	**69,683**	**41,855**	**12,940**	**-11,579**	**608,645**
법인세비용	16,282	13,143	17,522	17,271	11,501	1,696	4,877	175,413
당기순이익	**55,514**	**54,705**	**53,224**	**52,412**	**30,354**	**11,244**	**-16,456**	**433,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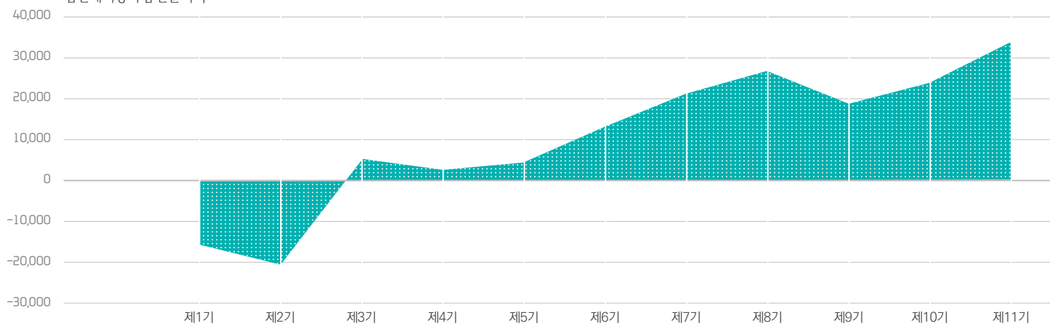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대신저축은행

과목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제6기	제7기	제8기	제9기	제10기	제11기
영업수익	**56,559**	**62,058**	**57,017**	**69,759**	**34,617**	**74,349**	**93,878**	**110,483**	**104,618**	**104,723**	**143,910**
이자수익	49,066	61,410	55,963	59,848	29,896	67,451	82,576	101,339	98,103	96,385	129,700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2,617	233	134	2,242	156	181	277	104	32	279	178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4,679	25	98	6,691	3,883	2,811	4,103	1,311	1,252	562	439
수수료수익	65	152	652	854	630	3,888	6,913	7,721	5,222	6,741	12,930
배당금수익	132	238	167	124	52	18	9	8	–	722	663
기타영업수익	–	–	3	–	–	–	–	–	9	34	–
영업비용	**72,780**	**73,849**	**52,554**	**67,781**	**30,414**	**63,484**	**72,861**	**83,744**	**85,616**	**81,135**	**110,125**
이자비용	46,489	34,221	19,979	20,256	9,536	21,463	24,273	32,323	31,919	28,602	36,721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4,692	795	486	52	927	764	1,215	20	21	87	2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	–	13,113	5,116	19,414	5,109	10,613	15,336	14,682	14,823	14,658	32,661
수수료비용	719	668	3,095	942	447	1,089	1,341	1,886	2,255	1,934	2,396
기타영업비용	4,295	4,193	3,137	3,231	1,810	4,433	5,439	6,291	5,834	5,534	6,107
판매비와 관리비	16,585	20,859	20,741	23,886	12,585	25,122	25,257	28,542	30,764	30,320	32,238
영업이익	**-16,221**	**-11,791**	**4,463**	**1,978**	**4,203**	**10,865**	**21,017**	**26,739**	**19,002**	**23,588**	**33,785**
영업외수익	1,133	403	1,127	853	111	2,753	280	199	115	276	269
영업외비용	887	9,029	166	459	14	704	224	227	117	142	16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5,975**	**-20,417**	**5,424**	**2,372**	**4,300**	**12,914**	**21,073**	**26,711**	**19,000**	**23,722**	**33,893**
법인세비용	-2,637	257	1,161	45	590	-4,773	5,852	6,743	5,722	7,638	9,029
당기순이익	**-13,338**	**-20,674**	**4,263**	**2,327**	**3,710**	**17,687**	**15,221**	**19,968**	**13,278**	**16,084**	**24,8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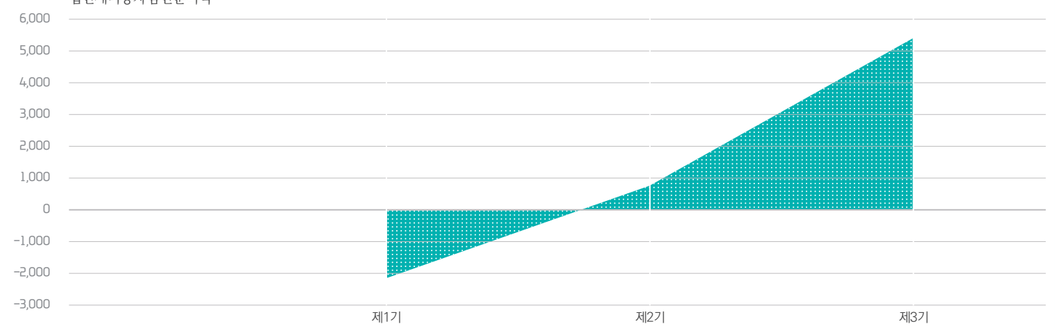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대신자산신탁

과목	제1기	제2기	제3기
영업수익	**2,007**	**10,074**	**20,853**
수수료수익	806	7,779	18,375
이자수익	1,156	1,527	2,156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수익	45	417	52
기타영업수익	–	351	270
영업비용	**4,294**	**9,374**	**15,473**
수수료비용	–	9	–
이자비용	37	59	11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비용	–	76	849
판매비와 관리비	4,257	9,230	14,514
영업이익	**-2,287**	**700**	**5,380**
영업외수익	7	22	1
영업외비용	–	7	2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280**	**715**	**5,354**
법인세비용	-465	185	1,319
당기순이익	**-1,815**	**530**	**4,03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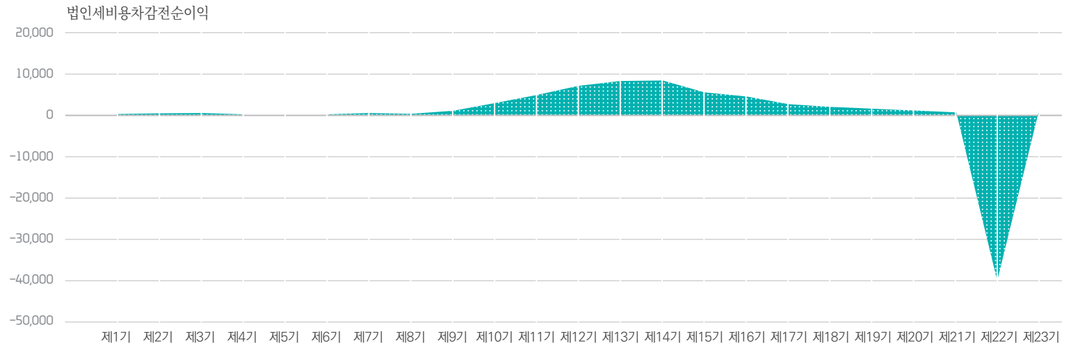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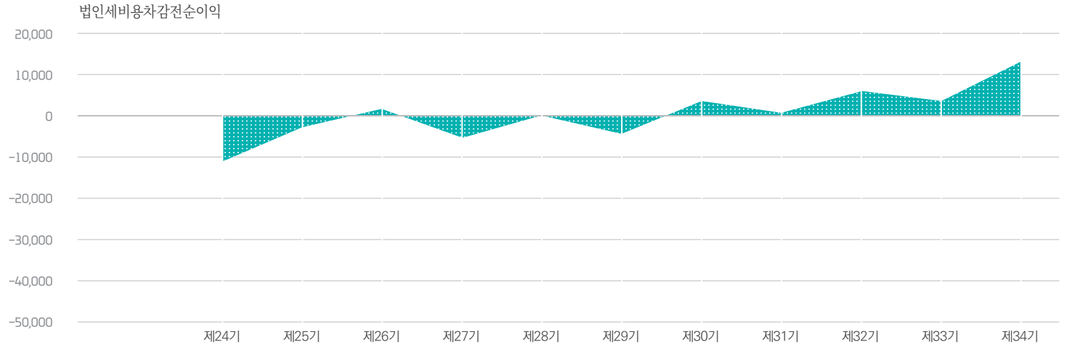
대신자산운용

과목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제6기	제7기	제8기	제9기	제10기	제11기	제12기	제13기	제14기	제15기	제16기	제17기	제18기	제19기	제20기	제21기	제22기	제23기
영업수익	**229**	**587**	**709**	**967**		**1,263**	**1,457**	**1,758**	**1,036**	**2,979**	**7,161**	**10,891**	**14,062**	**12,902**	**10,309**	**8,163**	**6,285**	**5,731**	**5,844**	**5,893**	**6,246**	**5,539**	**4,153**
수수료수익	229	587	709	946		1,238	1,433	1,740	1,036	2,979	2,421	8,431	10,160	10,177	7,876	6,258	4,378	4,277	4,023	4,134	4,379	4,015	3,088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	–	–	–		–	–	–	–	–	–	–	1,159	543	296	104	438	87	17	229	48	–	–
이자수익	–	–	–	–		–	–	–	–	–	4,740	2,460	2,743	2,182	2,137	1,801	1,469	1,367	1,804	1,526	1,819	1,524	1,065
기타영업수익	–	–	–	21		25	24	18	–	–	–	–	–	–	–	–	–	–	–	4	–	–	–
영업비용	**621**	**967**	**1,066**	**1,355**		**1,920**	**1,495**	**1,773**	**2,378**	**4,499**	**1,601**	**3,967**	**6,043**	**4,638**	**4,970**	**4,119**	**3,740**	**4,014**	**4,612**	**5,509**	**5,792**	**6,479**	**4,490**
수수료비용	–	–	–	–		–	–	–	–	–	–	102	55	22	–	2	–	118	91	74	130	110	147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	–	–	–		–	–	–	–	–	–	1,042	2,144	356	182	116	189	124	234	2	3	158	–
이자비용	–	–	–	–		–	–	–	–	–	–	3	20	–	–	–	–	–	–	–	2	–	–
판매비와 관리비	621	967	1,066	1,355		1,920	1,495	1,773	2,378	4,499	1,601	2,820	3,824	4,260	4,788	4,001	3,551	3,772	4,287	5,433	5,656	6,036	4,309
기타의 영업비용	–	–	–	–		–	–	–	–	–	–	–	–	–	–	–	–	–	–	–	1	175	34
영업이익	**-392**	**-380**	**-357**	**-388**		**-657**	**-38**	**-15**	**-1,342**	**-1,520**	**5,560**	**6,924**	**8,019**	**8,264**	**5,339**	**4,044**	**2,545**	**1,718**	**1,232**	**384**	**454**	**-940**	**-337**
영업외수익	129	520	630	702		980	455	253	3,068	4,334	–	9	155	4	–	408	5	4	–	452	1	441	445
영업외비용	14	38	130	262		246	211	146	887	202	413	419	–	53	11	10	1	8	–	–	–	41,724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77**	**102**	**143**	**52**		**77**	**206**	**92**	**839**	**2,612**	**5,147**	**6,514**	**8,174**	**8,215**	**5,328**	**4,442**	**2,549**	**1,714**	**1,232**	**836**	**455**	**-42,223**	**107**
법인세비용	–	–	–	–		40	63	–	198	744	1,698	2,003	2,505	2,524	1,569	1,307	732	466	331	237	157	-2,435	–
당기순이익	**-277**	**102**	**143**	**52**		**37**	**143**	**92**	**641**	**1,869**	**3,449**	**4,511**	**5,669**	**5,691**	**3,759**	**3,135**	**1,817**	**1,248**	**901**	**599**	**298**	**-39,788**	**107**



대신자산운용

과목	제24기	제25기	제26기	제27기	제28기	제29기	제30기	제31기	제32기	제33기	제34기
영업수익	**3,418**	**2,942**	**4,632**	**9,394**	**11,952**	**7,202**	**7,898**	**9,825**	**15,921**	**14,801**	**27,734**
수수료수익	2,635	2,036	3,873	8,252	8,163	6,356	6,571	8,880	13,878	12,524	24,732
금융상품평가 및 처분이익	–	–	–	277	3,212	341	699	5	669	211	1,918
이자수익	783	906	759	865	574	447	444	396	362	250	399
기타영업수익	–	–		–	2	58	184	544	1,012	1,817	685
영업비용	**5,284**	**5,213**	**6,099**	**10,281**	**10,005**	**10,475**	**9,150**	**9,617**	**10,782**	**11,399**	**14,401**
수수료비용	43	29	22	398	1,314	797	848	1,291	1,247	413	1,376
금융상품평가 및 처분손실	–	–	–	584	131	1,285	198	420	814	1,620	327
이자비용	–	–	–	–	–	–	1	1	29	129	248
판매비와 관리비	5,133	5,184	6,029	8,521	8,560	8,393	8,103	7,896	8,584	9,187	11,178
기타의 영업비용	108	–	48	778	–	–	–	10	108	50	1,272
영업이익	**-1,866**	**-2,271**	**-1,467**	**-887**	**1,946**	**-3,273**	**-1,253**	**207**	**5,138**	**3,402**	**13,333**
영업외수익		2,026	5,825	180	1,773	24	4,491	5	890	179	15
영업외비용	9,627	2,535	3,310	5,041	3,942	1,432	1	23	383	259	54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493**	**-2,780**	**1,048**	**-5,748**	**-223**	**-4,681**	**3,238**	**189**	**5,645**	**3,322**	**12,802**
법인세비용	2,437	45	210	-524	-400	-732	-405	-130	546	284	1,164
당기순이익	**-13,930**	**-2,825**	**838**	**-5,224**	**177**	**-3,949**	**3,643**	**319**	**5,100**	**3,038**	**11,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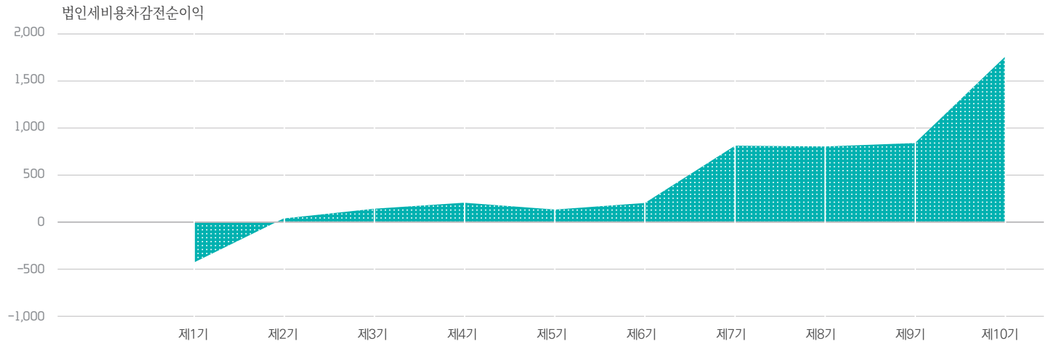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대신프라이빗에쿼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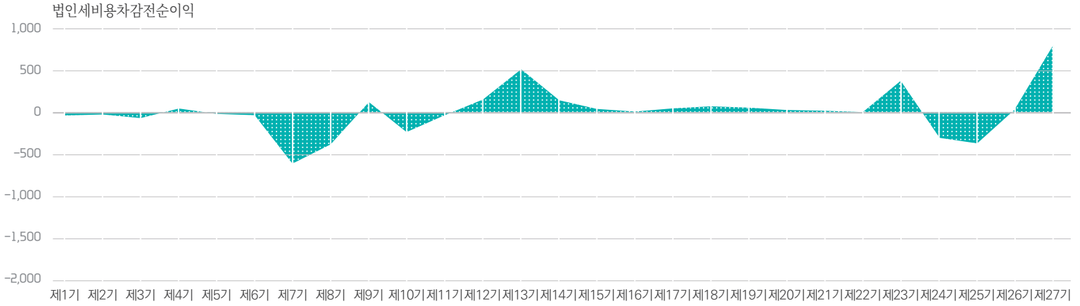
과목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제6기	제7기	제8기	제9기	제10기
영업수익	-	-	224	886	1,148	1,494	2,168	2,556	2,883	4,099
수수료수익	-	-	224	464	1,110	1,207	1,469	2,219	2,868	3,825
분배금수익	-	-	-	422	38	287	699	337	15	274
영업비용	**523**	**148**	**306**	**1,019**	**1,135**	**1,395**	**1,466**	**1,758**	**2,018**	**2,311**
판매비와관리비	523	148	306	1,019	1,135	1,395	1,466	1,758	2,018	2,311
영업이익	**-523**	**-148**	**-82**	**-133**	**13**	**99**	**702**	**798**	**865**	**1,788**
영업외수익	100	179	216	336	123	104	120	85	39	146
영업외비용	-	-	-	-	-	3	9	77	63	17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23**	**31**	**134**	**202**	**135**	**201**	**813**	**806**	**841**	**1,764**
법인세비용	-	8	5	-48	74	57	137	203	182	391
당기순이익	**-423**	**23**	**128**	**250**	**62**	**143**	**676**	**603**	**660**	**1,373**



대신경제연구소

과목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제6기	제7기	제8기	제9기	제10기	제11기	제12기	제13기	제14기
매출액	**77**	**224**	**387**	**408**	**374**	**474**	**619**	**1,125**	**1,615**	**1,524**	**2,422**	**3,198**	**3,514**	**3,999**
매출원가	-	-	-	-	-	-	-	-	-	-	-	-	-	-
매출총이익	77	224	387	408	374	474	619	1,125	1,615	1,524	2,422	3,198	3,514	3,999
판매비와관리비	110	236	509	708	550	695	1,347	1,715	1,523	1,790	2,675	3,321	3,799	3,616
영업이익	**-33**	**-12**	**-122**	**-300**	**-176**	**-221**	**-728**	**-590**	**92**	**-266**	**-253**	**-123**	**-285**	**383**
영업외수익	3	4	143	364	180	221	141	210	33	40	245	292	943	393
영업외비용	1	3	83	19	16	6	16	10	-	5	8	19	146	62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1**	**-11**	**-62**	**45**	**-12**	**-6**	**-603**	**-390**	**125**	**-231**	**-16**	**150**	**512**	**152**
법인세등	-	-	-	-	-	-	-	-	-	-	-	-	11	-
당기순이익	**-31**	**-11**	**-62**	**45**	**-12**	**-6**	**-603**	**-390**	**125**	**-231**	**-16**	**150**	**501**	**152**

과목	제15기	제16기	제17기	제18기	제19기	제20기	제21기	제22기	제23기	제24기	제25기	제26기	제27기
매출액	**2,828**	**4,329**	**6,642**	**6,312**	**6,516**	**6,147**	**5,895**	**3,777**	**2,843**	**1,999**	**2,604**	**3,092**	**3,342**
매출원가	-	-	-	-	-	-	-	-	-	-	-	-	-
매출총이익	2,828	4,329	6,642	6,312	6,516	6,147	5,895	3,777	2,843	1,999	2,604	3,092	3,342
판매비와관리비	3,443	4,669	6,502	6,547	6,688	6,419	5,925	4,280	2,722	3,079	3,222	3,688	2,758
영업이익	**-615**	**-340**	**140**	**-235**	**-172**	**-272**	**-30**	**-503**	**121**	**-1,080**	**-618**	**-596**	**584**
영업외수익	824	972	447	323	238	326	162	527	254	776	256	636	226
영업외비용	158	612	538	5	5	23	101	22	-	1	-	-	1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1**	**20**	**49**	**83**	**61**	**31**	**31**	**2**	**375**	**-305**	**-362**	**40**	**799**
법인세등	18	-	42	30	30	-	-	-	-	-	-	-	-
당기순이익	**33**	**20**	**7**	**53**	**31**	**31**	**31**	**2**	**375**	**-305**	**-362**	**40**	**7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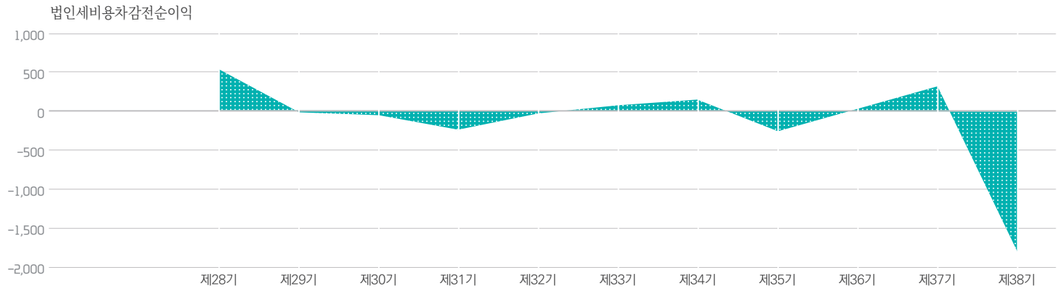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대신경제연구소

과목	제28기	제29기	제30기	제31기	제32기	제33기	제34기	제35기	제36기	제37기	제38기
매출액	**2,200**	**1,838**	**1,654**	**2,271**	**2,709**	**2,257**	**2,259**	**2,329**	**2,742**	**3,329**	**3,336**
매출원가	–	–	–	–	–	–	–	–	–	–	–
매출총이익	2,200	1,838	1,654	2,271	2,709	2,257	2,259	2,329	2,742	3,329	3,336
판매비와관리비	1,886	2,070	1,780	2,646	2,872	2,355	2,564	2,860	3,401	4,288	4,772
영업이익	**314**	**-232**	**-126**	**-375**	**-163**	**-98**	**-305**	**-531**	**-659**	**-959**	**-1,436**
영업외수익	201	203	93	178	138	166	440	265	689	1,289	479
영업외비용	–	–	32	47	19	27	–	–	1	20	87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15**	**-29**	**-65**	**-244**	**-44**	**41**	**135**	**-266**	**29**	**310**	**-1,830**
법인세등	211	-3	-20	5	-17	8	–	–	27	–	-14
당기순이익	**304**	**-26**	**-45**	**-249**	**-27**	**33**	**135**	**-266**	**2**	**310**	**-1,816**



한국ESG연구소

과목	제1기	과목	제1기
영업수익	**1,341**	영업외비용	2
영업비용	1,81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56**
영업손실	**-469**	법인세등	–
영업외수익	15	당기순이익	**-456**

수상 내역

일자		주최	상패명
1976	10. 25	재무부장관	최우수 저축기관상
1980	10. 25	재무부장관	우수 저축기관상
1983	10. 25	재무부장관	최우수 저축기관상
1991	09. 27	중앙경제신문	중앙경제신문 광고대상
1994	10. 11	아시아머니	〈아시아머니〉지 국제영업력 평가 종합 5위
1999	09. 08	한국경제신문	제2회 한경인터넷 대상 증권부문 우수업체
	10. 25	한국커머스넷	99 한국전자상거래 대상
	11. 05	건설교통부	1999 물류대상 정보화부문 대통령상(대신정보통신)
	11. 23	한국능률협회	1999 KMA인터넷대상 인터넷상거래분야 금융서비스부문
	12. 02	CCPA	99 글로벌 소비자선호 대상 증권부문 대상
2000	09. 27	한국능률협회	2000 KMA인터넷대상 인터넷상거래분야 금융서비스부문
	11. 08	정보통신부	2000 뉴미디어 대상 장관기
	12. 08	서울경제신문	2000 서경 마케팅대상 지식경영부문 최우수상
	12. 13	조선일보	제2회 조선일보 인터넷대상 전자상거래 / 기술부문 대상
2001	02. 22	한국일보	KOREA Web Surfer's Choice 인터넷증권부문
	03. 15	한국경제신문	제1회 한경 Web Awards 증권사부문 최우수상
	05. 15	중앙일보	2001 KOREA Digital Award 증권부문 최우수상
	08. 31	국민일보	2001 우수기업 TOP 브랜드
	09. 20	한국능률협회	2001 KMA인터넷대상 인터넷상거래분야 금융서비스부문
	10. 15	매일경제신문	KOREA EC AWARD
	10. 17	한국표준협회	한국서비스 품질지수 증권부문 1위
	12. 26	한국경제신문	2001 한경소비자대상 금융, 증권부문
2002	10. 16	한국능률협회	2002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1위
	10. 18	한국능률협회	2002 KMA인터넷대상 인터넷상거래분야 금융서비스부문 (4년 연속 1위 수상)
	11. 27	산업자원부	제6회 한국 e-비즈니스대상 우수상
2003	02. 27	한국일보	KOREA Web Awards 2002 전자상거래부문 우수상
	07. 30	한국경제신문	한경 e금융페스티발 대상(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상)

일자		주최	상패명
2003	09. 03	한국능률협회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증권부문 1위
	10. 16	이데일리	이데일리조사 HTS사용자 체감만족도, 고객만족도 1위
	11. 14	한국경제신문	한국소비자포럼 주최 2003 올해의 브랜드 대상 증권부문
2004	01. 16	매일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제6회 증권인상 대상
	03. 10	매일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제9회 금융상품대상 대상 (메리츠, 하나증권 공동 수상)
	03. 26	증권거래소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상
	06. 15	기업지배구조개선 지원센터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대신증권 기업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12. 23	헤럴드경제신문	마케팅대상 사이버마케팅부문
2005	01. 14	미국카네기멜론대학 소프트웨어 공학연구소(SEI)	CMMI(능력성숙도모델) 레벨3 획득
	03. 10	매일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제10회 금융상품대상 은상
	04. 04	머니투데이	제2회 대한민국 IB대상 최우수 구조화금융부문
	06. 30	서울경제신문	2005 상반기 대한민국 일류 브랜드
	07. 07	한국경제신문	2005 상반기 한경 소비자대상 브랜드
	10. 27	한국경제신문	한국소비자포럼 주최 2005 브랜드 대상 (3년 연속 수상)
	11. 09	서울경제신문	제2회 대한민국 증권대상 고객만족부문 최우수상 수상
2006	12. 28	한국경제신문	e 비즈니스대상 산업자원부장관상
2007	03. 06	매일경제신문	제12회 매경금융상품대상 은상
	05. 29	일본능률협회컨설팅	GCSI(Global Customer Satisfaction Competency Index) 글로벌 고객만족도 증권부문 1위
2008	05. 27	일본능률협회컨설팅	GCSI 글로벌 고객만족도 증권부문 1위
2009	01. 14	매일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증권인상 기업분석부문
	04. 01	헤럴드경제신문	헤럴드경제 자본시장대상 최우수 리서치상
	04. 17	일본능률협회컨설팅	GBCI(Global & Great Brand Competency Index) 웰빙 & 프리미엄 브랜드 증권사부문 1위
	05. 26	한국거래소	2009 아시아 자본투자대상 HTS부문 최우수상
	07. 17	일본능률협회컨설팅	GCSI 글로벌 고객만족도 증권부문 1위

수상 내역

일자		주최	상패명
2009	10. 20	다우존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Korea) 편입
	11. 24	매일경제신문	매일경제 광고대상 증권부문 우수상(빌리브서비스)
	11. 30	아주경제	아주경제 글로벌 증권대상 최우수 고객만족부문
	12. 23	한국경제신문	2009 한경 소비자대상 증권·금융부문(빌리스서비스)
2010	01. 06	매일경제신문	2009년 하반기 베스트 애널리스트 공로상
	01. 28	한국거래소	2009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상
	03. 18	아시아경제	제1회 아시아펀드대상 특별상 고객만족도부문 우수판매사
	04. 01	일본능률협회컨설팅	GBCI 웰빙 & 프리미엄 브랜드 증권사부문 1위
	04. 23	헤럴드경제신문	2010 헤럴드경제 자본시장대상 법인부문 리서치대상
	05. 01	이코노미플러스	조선일보 이코노미플러스 증권사 리서치센터 평가 종합 1위
	05. 26	한국능률협회	2010 글로벌 스탠다드 경영대상 – 정보보안경영부문 대상
	05. 27	일본능률협회컨설팅	GCSI 글로벌 고객만족도 증권부문 1위
	10. 26	아시아경제신문	2010 아시아 자본투자대상 리서치 최우수상
	11. 25	매일경제신문	매일경제 광고대상 우수상
	12. 16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Web Award Korea 2010 증권부문 대상
	12. 27	서울경제신문	2010 대한민국 마케팅대상 마케팅 혁신부문 대상
2011	01. 11	스톡피아	온라인 트레이딩서비스 스톡피아 종합평가 최우수 선정
	01. 18	매일경제신문	2010 매경 증권인상 대상
	03. 25	일본능률협회컨설팅	GBCI 웰빙 & 프리미엄 브랜드 증권사부문 1위 수상
	04. 02	한국거래소	2011 Bulls Race 제15회 금융투자인 마라톤대회 노사화합상
	04. 29	헤럴드경제신문	2011 헤럴드경제 자본시장대상 금융위원장상 대상
	05. 15	월스트리트저널(WSJ)	리서치평가 국내 1위, 아시아 2위
	05. 26	한국경제신문	2011 제11회 대한민국 e금융상 최우수상
	05. 30	머니투데이	제11회 Korea Web Awards 지식경제부장관상 정보서비스부문 대상
	06. 16	일본능률협회컨설팅	GCSI 글로벌 고객만족도 증권부문 1위
	11. 10	매일경제신문	2011 매일경제 광고대상 우수상
	12. 14	한국경제신문	2011 한경광고대상 증권부문 최우수상
2012	03. 14	더벨	더벨 리스크 매니저 어워드 우수상

일자		주최	상패명
2012	03. 22	일본능률협회컨설팅	GBCI 웰빙 & 프리미엄 브랜드 증권사부문 1위 (4년 연속 1위 수상)
	05. 04	이코노미스트	2012 고객사랑 브랜드대상
	05. 31	한국경제신문사	2012 대한민국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 대상
	06. 28	일본능률협회컨설팅	GCSI 글로벌 고객만족도 증권부문 1위 (6년 연속 1위 수상)
	11. 23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모바일 앱어워드 우수상
	11. 28	한국사보협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 사사부문
	12. 06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웹 어워드 코리아 – 증권분야 최우수상
	12. 13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스마트 앱 어워드 – 증권분야 대상
	12. 21	한국경제신문사	2012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평가대상–종합평가부문 대상
2013	03. 19	더벨	더벨 리스크 매니저 어워드 최우수상
	07. 18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3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크레온)
	11. 07	아시아경제	제 3회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대상 MTS 대상
	11. 20	머니투데이	Best MTS Award 대상 – 사이보스 터치
2014	02. 29	머니투데이	제11회 대한민국 IB 대상 – 최우수 IB딜
	03. 13	중앙일보	2014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대상
	04. 15	이데일리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 IT부문 최우수상
	09. 17	아시아경제	제4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대상 – 금융감독원장상
	10. 30	더벨	2014 더벨 리스크 매니저 어워드
	12. 02	이투데이	2014 마켓리더 대상 – 리서치부문
2015	01. 14	매일경제	제 17회 매경증권인상 – IT 혁신부문 금상
	03. 17	중앙일보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대상
	03. 24	파생시장협의회	2015 KOSDA AWARDS 최우수 파생금융상품상
	03. 26	조선경제	2015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대상
	08. 1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08. 27	기획재정부	2015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 표창장
	10. 28	더벨	2015 더벨 리스크 매니저 어워드(4년 연속 수상)
	11. 26	서울경제	2015 대한민국 증권 대상
	12. 10	동아일보	2016 Korea Bestselling Brand – 온라인 증권거래부문
2016	02. 01	iF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일자		주최	상패명
2016	02. 24	머니투데이	제13회 대한민국 IB대상 – IB혁신상
	02. 25	더벨	2016 Korea Wealth Management Awards – 올해의 하우스전략 / 올해의 히트 금융상품
	03. 23	기획재정부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 표창장
	05. 24	중앙일보	2016 고객사랑브랜드대상
	06. 14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연금대상
	06. 29	통계청	빅데이터 활용 – 서비스부문 통계청장상
	07. 21	머니투데이방송	2016 MTN 방송광고 페스티벌 최우수상 ('뷰가 다릅니다' 편)
	09. 08	기획재정부	2016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 표창장
	10. 12	기획재정부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 기념패
	12. 08	이투데이	올해의 마켓리더 대상 MTS부문 우수상
2017	03. 02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 시장조성자 표창
	03. 14	매일경제	제22회 매경금융상품대상 우수상 –밸런스 달러 RP
	03. 17	기획재정부	2016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 표창장
	05. 15	헤럴드경제	제10회 자본시장대상 리테일 대상
	09. 08	기획재정부	2017 상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 표창장
	11. 23	서울경제신문	2017 대한민국 증권대상 자산관리 최우수상
	12. 20	이투데이	올해의 마켓리더 대상 MTS부문 우수상
2018	01. 26	머니투데이	15회 대한민국 IB대상 IB혁신상
	02. 08	매일경제	2018 매경 증권대상 금상(IT혁신)
	04. 24	이데일리	2018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최우수상–로보어드바이저부문
	10. 02	IDEA	2018 IDEA 디자인 어워드 파이널리스트 수상
	11. 27	서울경제신문	2018 대한민국 증권대상 자산관리 최우수상
	12. 13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우수광고 PR부문 수상
2019	01. 24	연합인포맥스	제9회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 IB대상
		더벨	2019 Korea Capital Markets thebell League Awards Best IPO
	01. 24	더벨	2019 Korea Capital Markets thebell League Awards Best Innovative Equity House
	02. 19	머니투데이	제16회 대한민국 IB대상 최우수IPO 주관사

일자		주최	상패명
2019	03. 14	매일경제	제24회 매경금융상품대상 최우수상–로보어드바이저펀드
	10. 28	헤럴드경제	2019 헤럴드 투자대상 리서치 대상
	11. 26	서울경제신문	2019 대한민국 증권대상 소비자보호부문 최우수상
2020	01. 29	더벨	2020 Korea Capital Markets thebell League Awards Innovative Equity House of The Year
	02. 11	머니투데이	제17회 대한민국 IB대상 최우수 IPO주관사
	03. 23	모닝스타	대신자산운용, 모닝스타 어워즈 Korea Large Cap Equity
	04. 29	헤럴드	2020 헤럴드 자본시장 대상 IB대상
	06. 11	머니투데이	2020 대한민국 애널리스트 대상
	07. 24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0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12. 09	아시아경제	2020 아시아 자본투자대상 퇴직연금(DB)부문 최우수상
2021	01. 21	머니투데이	제18회 대한민국 IB대상 최우수 IPO주관사
	05. 10	헤럴드	헤럴드자본시장 대상 IB부문 대상
	03. 18	매일경제	제26회 매경금융상품대상 특별상(대신글로벌리츠부동산펀드)
	11. 04	헤럴드경제	제21회 2021 헤럴드 투자대상 리서치대상
	11. 29	머니투데이	제9회 Best MTS 어워드 금융상품부문 우수상
	12. 07	아시아경제	2021 아시아 자본투자대상 퇴직연금부문 최우수상
	12. 09	이투데이	제11회 올해의 마켓리더 대상 IPO부문 우수상
	12. 20	조선비즈	2021 The ESG 우수상
2022	01. 26	더벨	2022 Korea Capital Markets thebell Legue Awards Innovative Equity House of the year
	01. 27	머니투데이	제19회 대한민국 IB대상 최우수 IPO주관사
	03. 15	매일경제	2022 매경 증권대상 기업금융부문 금상

광고 변천 _ 지면 광고

중보증권

증권생활화시대

자본금 50억 원

주식은 느는 재미

국내 최초 외국증권사와 자본합작계약 체결

대신투자정보데스크(CAPM)

업계 최초 대신종합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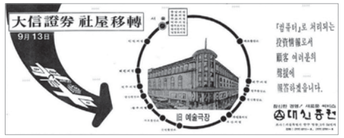
눈을 돌려 창밖을 보아 주십시오(이웃편)

그럼, 엄마는 널 믿어

1974 · 1975 · 1976 · 1977 · 1980 · 1983 · 1985 · 1986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투자의 광장

회사채 청약(대림산업, 금호실업)



사옥이전

지하철공사채 청약

해외광고

투자올림픽

업계 최초 집단전화시스템 개통

BMF 전국 온라인 개설

걱정마, 아빠가 있잖아

해외광고

광고 변천 _ 지면 광고

큰 믿음을 심어가겠습니다

대신팩토링

대신증권 멀티카드 탄생

꿈을 이어주는 큰믿음

고객의 수익을 생각하면 1등도 과정일 뿐입니다

세 가지를 갖추지 않고서는 고객 앞에 서지 않습니다

군계일학! 만장일치!

수익으로 정조준

대신 글로벌 SRI펀드

U – 사이보스 Global, 세계를 가다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앞서 갑니다! Global Trust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대신 HOT-LINE 확대 개통

M&A, 이제 대신증권 M&A팀과 만나십시오

왜? 대신증권과 대신생명을 찾는 분들이 늘어갈까요?

투자는 감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대신 부자만들기 일본펀드

대신 CMA 탄생

대신 부자만들기펀드

대신 지구온난화 투자펀드

금융 전문가, Global Trust

광고 변천 _ 지면 광고

WE WANT TO BELIEVE

팩트를 믿다. 빌리브 서비스

대신증권 A+CMA (RP형)

빌리브로 모으면 혜택이 쑥쑥 빌리브서비스

[Balance] 밸런스, 세상을 움직이다

[Balance] 금융, 밸런스로 답하다

크레온 투자

물가채 입찰 대행 서비스 대신증권이 1등입니다!

스케일이 다르다! 대신 [밸런스] CMA

대신증권 ETF 랩

크레온 광고(일본 샀다)

대신 해외주식 담보대출

대신 [Balance] Global ETF랩

2010 **2011** **2012** **2013**

[Balance] 금융주치의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량주 고르러 지금, OASIS로 갑니다

대신 꼬박꼬박 월 적립형서비스

대신 꼬박꼬박 월 지급식 서비스

나는 빌리브다 명품 AS

나는 빌리브다 CMA(RP형) 연 5.9%

미국주식 실시간 매매 서비스 오픈

크레온 광고 (광화문 샀다)

18년만의 부활! 대신 [Balance] 재형펀드

대신 브라질국채 중개서비스

대신 우리다시 채권

크레온 기능 강조편

광고 변천 _ 지면 광고

대신 [Balance] 월적립형 RP

대신 포르테 인덱스 알파 증권자 투자신탁

펀드이동제

대신 밸런스 CMA RP형

대신증권 MTS, 2013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세계 최초 수상

대신[Balance] 소득공제 장기펀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대신[Balance] 적립형 지수 ELS랩

펀드 이동제

House View
달러자산에 투자하라

대신 코리아우량 중기채 증권투자신탁 (채권)

대신[Balance] 마스터즈 랩

2013 · 2014 · 2015 · 2016

해외채권, 주식 담보대출

대신 [Balance] 리서치 셀렉션 랩

대신[Balance] 리서치 스몰캡 랩

대신 [Balance] 롱숏펀드 랩

대신[Balance] 연금저축계좌

대신[Balance] CMA

대신 밸류프리미엄 증권투자신탁 (주식-파생형)

대신증권 특판 RP

후강통 오픈

대신증권 달러 RP 특별판매

대신증권 연계 대신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 변천 _ 지면 광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House View 달러자산, 그 가치는 커진다
대신 [Balance] 마스터즈 고배당주 랩
대신 글로벌 고배당주 증권자 투자신탁(주식)
House View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대신[Balance] 마스터즈 펀드케어랩
안전자산으로 투자의 밸런스를 맞춰라
올해는 안전입니다
대신증권 IRP
주식을 선물해 보세요
"몇%입니까?"
House View 달러자산 그 가치는 커진다
리스크를 팝니다
대신 자문형랩
대신증권 5스타 펀드랩
투자를 대체하자!
Let's 리츠!
대신증권 특판RP 한정판매

광고 변천 _ 영상 광고

1980년대

1986. 03
세계로 뻗어가는
대신증권

1987. 10
근로자 증권저축 통장

1988. 02
대신 BMF
수익증권저축

1988. 05
국민주 전담창구 신설

1988. 08
증권투자 금메달

1988. 09
집단전화,
HOT-LINE 개통

1989. 01
대신 인덱스펀드

1989. 03
가까운 이웃편

1990년대

1990. 04
믿음편

1999. 05
대신 Bull 테크넷펀드

광고 변천 _ 영상 광고

1990년대 2000년대

1999. 09

새천년 국민펀드,
대신 Bull펀드

2000. 01

대신증권의 모기업은
대한민국입니다.

2000. 10

사이버금융의 리더

2001. 02

대신 CYBOS 2002

2002. 02

꿈을 이어주는
큰믿음

2004. 03

대신 CYBOS 2004

2005. 03

대신고객 부자만들기펀드
(내집마련)

2005. 03

대신고객 부자만들기펀드
(골프장)

2005. 10

대신의 믿음경영,
고객과 함께 합니다

2006. 11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앞서갑니다
(Global Trust)

광고 변천 _ 영상 광고

2000년대

2006. 11
금융전문가,
Global Trust

2007. 07
대신 부자만들기
일본펀드

2008. 12
부자베스트펀드랩

2009. 09
차세대 HTS
대신 CYB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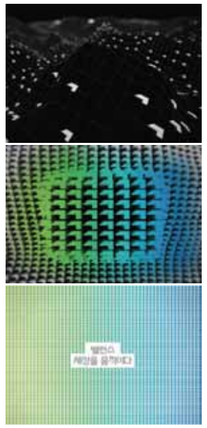
2009. 10
대신리더스랩
(적립형)

201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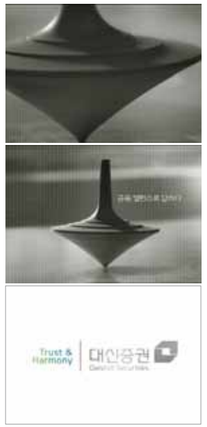
2009. 10
대신의 믿음경영

2009. 10
WE WANT TO BELIEVE

2010. 10
[Balance] 밸런스,
세상을 움직이다



2010. 11
[Balance] 금융,
밸런스로 답하다



2011. 01
[Balance]
금융주치의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광고 변천 _ 영상 광고

2010년대

2012

대신증권 창립 50주년
기념광고(전문가편)

2012

대신증권 창립 50주년 기념광고
(하이파이브편)

2013

크레온 MTS 1등 버렸다
(가로 버전편)

2013

크레온 MTS 1등 버렸다
(과학적버튼)

2013

크레온 MTS 1등 버렸다
(더쉽게편)

2014

스마트폰 주식거래 크레온
(스포츠뉴스편)

2014

스마트폰 주식거래 크레온
(경제뉴스편)

2015

대신증권 하우스뷰
'원한다 흔들린다'

광고 변천 _ 영상 광고

2010년대

2016

대신증권 하우스뷰
'뷰가 다릅니다'

2016

대신증권 크레온
(돼지편)

2016

대신증권 크레온
(사자편)

2016

대신증권 크레온
(판다편)

2017

대신증권 수수료
인생극장

연표

일자		내용
1962	07. 27	삼락증권 설립(대표이사 김윤도, 자본금 2,000만 원)
	08. 07	증권업 등록
	08. 13	거래원(거래소) 등록
	09. 05	본점 이전(중구 남대문로 2가 4-3)
1963	08. 06	新 「상법」 시행에 따른 정관 변경
1964	09. 29	청산거래매매건옥 해제확인, 청구소송 승소(2심)
	10. 23	대표이사 김당도 취임
1968	07. 08	중보증권으로 사명 변경
1969	06. 24	증권업허가 취소 사건 발생
	12. 10	자본금 1,200만 원 증자(3,200만 원)
1970	10. 01	공동 대표이사 김윤도 취임
	10. 05	김윤도 대표이사 제24대 증권업협회장에 당선
1971	11. 14	신용공여업무 개시
1972	03. 24	자본금 1,800만 원 증자(5,000만 원)
	03. 28	유가증권 인수주선업무 사업목적 추가
	07. 20	자본금 5,000만 원 증자(1억 원)
	08. 19	김윤도 대표이사 취임
1974	01. 08	여의도 사옥부지 매입계약 체결(서울시)
	04. 20	자본금 1억 원 증자(2억 원)
	05. 31	영업용순자본의 법정금액 미달로 매매거래정지(2일)
	06. 12	자본금 5,000만 원 증자(2억 5,000만 원)
	06. 24	자본금 5,000만 원 증자(3억 원)
	07. 18	적립식 증권저축업무 개시
	07. 23	본사 이전(중구 충무로 2가 삼윤빌딩 63-2)
	08. 29	할부식 증권저축업무 개시
1975	03. 14	대표이사 정춘근 취임
	04. 22	대신증권으로 사명 변경
	05. 12	최초 지점 중앙지점 신설
	05. 19	기획조사부 신설
	05. 26	총무부, 영업부 신설
	07. 04	업무부 신설
	07. 12	자본금 2억 원 증자(5억 원)
	08. 25	감사부 신설, 무교지점, 광주지점 신설

일자		내용
1975	08. 29	자본금 5억 원 증자(10억 원)
	09. 01	우리사주조합 결성
	09. 03	자본금 5억 원 증자(15억 원)
	09. 28	자본금 5억 원 증자(20억 원)
	09. 29	업계 최초 신입사원 공개채용 실시
	09. 30	기업공개확인 임시주주총회
	10. 01	한국증권거래소(現 한국거래소)에 주식상장
	11. 04	부산지점 신설
	11. 05	전주지점 신설
	11. 14	종로지점 신설
	11. 27	명동사옥 구매계약 체결
1976	01. 26	주보 〈증권투자〉 창간(1978. 05. 01 폐간)
	01. 29	대표이사 장석규 취임
	02. 04	인수부, 시장부 신설
	02. 18	대구지점 신설
	03. 22	영등포지점 신설
	03. 23	인천지점 신설
	04. 20	부전동지점 신설
	04. 21	울산출장소 신설
	04. 27	대전지점 신설
	04. 29	자본금 5억 원 증자(25억 원)
	04. 30	동대문지점, 덕수지점 신설
	05. 15	군산출장소, 속초출장소, 경주출장소 신설
	05. 20	업계 최초 업무 전산처리 개시(KIST 터미널 이용)
	05. 22	순천출장소 신설
	05. 25	기획실, 조사부 신설
	06. 15	목포출장소 신설
	08. 05	외국인 주식 또는 지분의 평가기관 지정
	09. 01	사훈(정답게, 참되게, 새롭게) 제정
	09. 13	본사 이전(중구 명동 1가 54 舊 국립극장) 계간 〈대신투자〉 창간(1978. 02. 25 발간 중지)
	09. 14	충무로지점 신설
	09. 25	울산출장소 지점 승격

연표

일자		내용
1976	10. 04	인사위원회 구성
	10. 25	1976년도 최우수 저축기관상 수상
1977	01. 22	증권관리부 신설
	01. 25	투자개발부 신설
	02. 15	신용협동조합 설립
	03. 28	적선동지점 신설
	05. 09	저동지점 신설
	05. 10	목포출장소 지점 승격
	05. 17	상징동물과 꽃(황소와 해바라기) 선정
	08. 12	영업총괄부 신설
	08. 23	여의도 사옥부지 매입완료
	10. 13	자본금 25억 원 증자(50억 원)
	10. 17	대표이사 양재봉 취임
	10. 22	법인부 신설
	11. 10	청계지점 신설
	11. 11	신설동지점 신설
	11. 14	낙원동지점 신설
	11. 15	세운지점 신설
	11. 17	잠실지점 신설
1978	01. 18	전산실 신설
	01. 21	박황 사건 발생
	01. 25	증권감독원, 특별검사 실시(~ 01. 30)
	02. 25	영업의 일부정지에 따른 대책 시달
	02. 27	양재봉 사장 퇴임, 대표이사 이휴 취임 일부업무 영업정지(~ 03. 26)
	03. 20	사가 및 응원가 탄생
	03. 28	전광 시황속보판(옥외용) 가동(1개월 만에 중지)
	06. 01	종합근무평정에 의한 인사고과 실시, 건의함 설치
	06. 15	남창동지점 신설
	06. 17	업계 최초 책임자 승격 자격고시 실시
	06. 26	군산출장소 지점 승격
	07. 03	대구서지점 신설
	07. 21	법무실 신설

일자		내용
1978	08. 23	창구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지침 시달
	09. 06	영동지점 신설
	10. 23	주보 〈대신투자〉 창간
	10. 30	순천출장소 지점 승격
	12. 11	업계 최초 자체컴퓨터 가동(HP-3000/Ⅱ) 제1회 대신증권 보증사채 발행 이사회 의결(20억 원)
	12. 28	자체 의료보험조합 설립
	12. 30	경주출장소 지점 승격
1979	01. 01	해바라기회(여직원 모임) 발족
	04. 01	4급 승진 자격고시 규정화
	05. 15	채권부 신설
	07. 04	직원들의 기강확립을 위한 세부행동 지침 시달
	09. 10	업계 최초 시세전광판(영업부 객장) 가동
	12. 31	사우회 설립
1980	01. 12	대표이사 이휴 사망
	01. 14	대표이사 문준태 취임, 근로자 증권저축업무 개시
	02. 11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업무 개시
	02. 29	지점관리부 신설
	07. 07	업계 최초 전국 지점 온라인 개시
	10. 25	1980년도 우수 저축기관상 수상
	12. 05	회사채 간사실적 1,000억 원 돌파
	12. 16	명동사옥 매각계약 체결
	12. 29	특수관리부 신설
1981	02. 27	대표이사 양재봉 재취임 100일 구두쇠 작전 시작(~ 06. 06)
	03. 09	사시 제정(인재제일주의, 준법합리주의, 이익극대화) 상품유가증권운영위원회 설치
	03. 23	법인영업부 재신설
	04. 25	대신구호 제정(우리는 대신, 대신은 우리, 자기매매 뿌리뽑아, 우리자신 지키자)
	05. 12	〈대신투자〉 창간(문화공보부 등록 후 정식 발간)
	05. 23	제1차 검사총괄 책임자회의 개최
	06. 12	서울 시내부서 차석자회의 신설

일자		내용
1981	07. 16	회사심볼 변경
	10. 01	개미 작전 시작(~ 1982. 03. 31)
	11. 22	사장배 쟁탈 테니스대회 개최
	12. 19	채권수익률계산 경연대회
1982	01. 04	출근부 폐지(근무상황주보로 대체)
	01. 15	3급 승진 자격고시 규정화
	02. 15	채권업무 활성화 계획 수립, 환매채증가 캠페인 시작(~ 03.15)
	03. 01	채권 약정증가운동 시작(~06. 30)
	04. 25	계간 〈대신증권〉 창간
	07. 27	여의도사옥 기공식, 국제부 신설
	08. 09	전 임직원 야간행군대회 실시(청우산)
	08. 27	자본금 14억 원 증자(무상, 64억 원)
	08. 31	자본금 16억 원 증자(유상, 80억 원)
	10. 15	부동산 임대업무 겸영인가(재무부)
	11. 26	여의도 본사사옥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대림산업)
	11. 27	여직원 합숙연수 첫 실시(~ 11. 29)
	12. 09	여의도 본사사옥 신축공사 감리 용역계약 체결(정일 엔지니어링)
1983	02. 01	증권 공동 온라인 가입(서울 시내지점)
	04. 02	〈대신 조명등〉 창간
	04. 23	제23기 경영활동 활성화 방안 수립 (정상대신, 인화대신, 복지대신)
	05. 02	증권 공동 온라인 가입(지방지점)
	05. 26	제4차 엔화표시 산업금융채권 인수단 참여 (최초 해외유가증권 인수)
	06. 10	전광 시황속보판(옥외용) 재가동
	09. 01	사내저축기금 설립
	09. 12	최초 해외증권 강연회 개최(주제 : 세계 주식시장의 전망)
	10. 25	1983년도 최우수 저축기관상 수상
	11. 28	자본금 14억 원 증자(94억 원)
	12. 16	여의도사옥 상량식
1984	01. 27	자본금 106억 원 증자(200억 원)
	02. 20	제1회 임직원 부인과의 대화 모임 개최
	02. 29	단자부 신설

일자		내용
1984	03. 05	다이아몬드 사식에 의한 12월 결산 상장법인 경영평가 실시
	03. 29	신종기업어음(CP)의 인수·매출 및 중개업무, 회사채원리금 지급보증업무 개시
	05. 31	업계 최초 해외사무소 설립인가(동경사무소)
	06. 05	양도성예금증서(CD)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업무 겸영인가
	06. 18	외국에서의 증권업 허가 획득(발행시장 부문)
	06. 20	대신경제연구소, 창립준비위원회 발족
	06. 22	개포동지점 신설
	06. 25	명일동지점 신설
	06. 29	신상품 개발위원회 구성
	06. 30	〈대신리뷰(Daishin Review)〉 창간
	07. 02	광명지점 신설
	08. 02	코리아펀드 공모주식 24만 달러 인수 결정
	08. 25	동경사무소 개설
	09. 17	대신경제연구소 설립(대표이사 양재봉, 자본금 2억 원)
	10. 04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겸영인가
	10. 18	뉴욕사무소 인가(재무부)
1985	01. 29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 세미나 개최
	02. 07	환매 1,000억 원 최초 돌파
	02. 18	압구정지점 신설
	03. 04	다이아몬드 사식 경영분석 평가 첫 시상(대신경제연구소, 대신증권 공동주최)
	03. 06	홍콩 W.I.C.O와 자본합작계약 체결
	03. 29	국민투신 설정 국제투자신탁(KGT), 45만 달러 인수
	04. 12	일본 야마이치증권과 자본합작계약 체결
	04. 19	한국투신 설정 국제투자신탁(SIT), 45만 달러 인수
	04. 30	대한투신 설정 국제투자신탁(ST), 70만 달러 인수
	05. 13	임원 영업점 분담제 실시, CD 및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사업목적 추가
	05. 20	황소 100일 작전 시작(~ 08. 27)
	05. 28	여의도사옥으로 본사 이전(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06. 03	뉴욕사무소 개설
	06. 10	대신경제연구소, 해외조사부 신설

연표

일자		내용
1985	06. 20	여의도사옥 준공 및 본사이전 기념식, 〈대신증권 23년사〉 발간
	07. 03	자본금 20억 원 증자(외국자본 유치, 220억 원)
	09. 19	대신경제연구소, 〈DERI 주간시사〉 창간
	09. 28	대신경제연구소, 유창순 회장 취임
	10. 05	대여금고 업무 개시
	10. 21	위탁자 수기원장 폐지
	12. 05	HP-3000/68 도입(4MB 용량)
1986	01. 24	대신경제연구소, 자본금 3억 원 증자(5억 원)
	02. 05	대신경제연구소, 부서조정(5개 부서 및 자료실)
	02. 19	AIBD(Association of International Bond Dealers) 회원 가입
	03. 31	대신경제연구소, 〈월간 본드리뷰〉, 〈대신 인베스트먼트〉 창간
	04. 02	영업추진부 신설, 국제부 확대개편
	04. 22	한국시장소개 투자설명회 개최(동경, 오사카, ~ 04. 24)
	04. 29	대주주 1인 변경 신고(양재봉 → 양회문)
	05. 01	DIAMOND 투자정보시스템 구축
	06. 20	런던사무소 개설, 장기근속자 첫 시상
	06. 20	대신증권 창립기념일 변경 대신경제연구소, 자본금 5억 원 증자(10억 원)
	06. 27	대신경제연구소, 투자고문부 신설
	07. 21	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 박동희 취임
	07. 25	AP-Telerate 서비스 제공 계약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제도 실시
	08. 09	HP-3000/70 시스템 가동(16MB 용량)
	09. 02	할부식 증권저축 및 기업공개업무 전산처리시스템 개발
	09. 29	압구정지점 시세전광판 설치
	10. 08	자본금 44억 원 증자(264억 원)
	11. 01	NEC N5200/05 단말기 40대 도입
	11. 09	제1회 사내골프대회 개최(제일 C.C)
	11. 10	대신경제연구소, SEC(미국증권관리위원회)에 투자고문업자 등록
	11. 27	대신종합개발금융 설립(대표이사 박동희, 자본금 20억 원)
	12. 01	전 영업점 투자정보데스크 운용
	12. 10	대신종합개발금융,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로 상공부 등록
	12. 31	국제부 → 국제기획부, 국제영업부로 분리

일자		내용
1987	01. 23	대신종합개발금융, 대신개발금융으로 사명 변경
	02. 02	매매운용실 신설(상품운용 전담)
	02. 03	1987년 신춘대강연회 개최(~ 02. 13, 참석인원 : 3,000여 명)
	02. 27	자본금 176억 원 증자(440억 원)
	03. 16	대전지점 사옥 매입(영업점 자가사옥 제1호, 중구 대흥동)
	02. 18	최초 직접금융세미나 개최(본사 강당, 19명)
	03. 25	전 지점 키폰설치 및 전화 증설
	04. 01	기업개발부 신설
	04. 14	업무개선위원회 및 인재개발위원회 구성
	06. 01	환매수기원장 폐지
	06. 05	증권저축부 신설
	06. 20	전 영업점 복사기 설치
	07. 19	대신증권 주식 액면병합(1,000원 → 5,000원)
	08. 01	ARS(대신 HOT-LINE)서비스 가동, 인사부 신설, 임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 신설
	08. 28	대신전산센터 설립(대표이사 양회천, 자본금 10억 원)
	09. 28	증권민원처리실 신설, 수익증권업무(BMF) 개시
	09. 30	사보 〈대신가족〉 창간
	10. 12	TV, 라디오 광고 개시(큰 大 믿을 信 홍보문구 등장)
	11. 06	제1회 추계 최고경영자 세미나 개최(~ 11. 08, 설악산, 32명)
	11. 14	대신경제연구소, 자료 및 도서출판업무 허가
	12. 23	대신전산센터, IBM 3090/120E 가동
1988	01. 19	기업금융부 신설
	02. 01	BMF 1,000억 원 증강운동 개시(~ 03. 31)
	02. 08	업계 최초 BMF 온라인 가동, 위임전결제도 실시
	02. 24	The Thai Fund Inc. 보통주 1만 주 12만 달러 인수 (대신증권 최초 해외투자)
	03. 24	대신투자자문 설립(대표이사 정수영, 자본금 10억 원) 자본금 220억 원 증자(660억 원)
	04. 11	〈상장회사 투자가이드〉 창간
	04. 13	대신전산센터, 기술용역업 등록
	05. 09	시세·시황정보 전용 9인치 단말기 320대 도입
	06. 10	대신경제연구소, Index Fund 개발

일자		내용
1988	06. 20	최우수 상장기업 시상 제도화
	06. 25	국민주 및 공모주 단주매입업무대행 계약 체결
	06. 27	대신투자자문, 자문계약 1,000억 원 증강운동(~ 10. 04)
	08. 04	자본금 330억 원 증자(990억 원)
	09. 01	국민주 업무 전산처리시스템 개발
	09. 09	대신투자자문, 대신 Index Fund 투자기법 세미나 개최
	10. 03	DIAMOND Ⅱ 투자정보시스템 개발
	10. 10	대신 HOT-LINE 재가동(769-3333)
	10. 27	대신투자자문, 미 SEC 투자자문업 인가
	11. 01	대신전산센터, 기업공개 주간사 업무개발
	11. 24	월간 주식약정 1조 원 돌파
	12. 12	신종환매조건부채권 매매업무 개시
	12. 16	대신투자자문, 자본금 10억 원 증자(20억 원)
	12. 27	국내 최초 M&A 주선(일본 다이헤이그룹과 국내 한중물산의 합작)
	12. 31	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 정수영 취임 대신투자자문, 대표이사 박동희 취임
1989	01. 31	대신경제연구소, 투자개발부 신설
	02. 01	증권저축 온라인시스템 가동
	02. 02	Olivetti 발행 호주달러채권 200만 달러 인수
	02. 20	대신전산센터, 고객관리 및 본지점관리시스템 개발
	03. 02	KanSai Paint BW 공동간사 참여
	03. 13	채권, 주식, 급여관리시스템 개발
	03. 30	자본금 330억 원 증자(1,320억 원)
	03. 31	자본금 330억 원 증자(무상, 1,650억 원)
	04. 06	대신전산센터, 정보통신 역무제공 승인
	04. 28	신축 자가사옥 제1호 울산사옥 준공
	05. 30	취리히사무소 설립 사업목적 추가(유가증권 매출업무, 외국인기업 평가업무, 기업매수 및 합병의 중개, 금융 선물 및 옵션의 매매업무) 자본금 158억 3,246만 5,000원 증자(주식배당, 1,808억 원)
	06. 20	대신생명보험 설립(대표이사 양재봉, 자본금 100억 원)
	07. 20	BMF 현금자동지급 온라인 개통 및 현금자동지급기 가동
	07. 29	대신투자자문, 자본금 30억 원 증자(50억 원)

일자		내용
1989	08. 01	대신그룹, 사가 가사 및 구호 공모(~ 09. 15)
	08. 26	채권부 신설
	08. 31	마산사옥 준공(신축사옥 2호)
	09. 05	업계 최초 비디오텍스 개통
	09. 17	대신그룹, 종합금융그룹 홍보(TV, Radio 등) 개시
	09. 18	유러머니 주최 '제1회 아시아 태평양지역 투자세미나' 한국측 단독 후원자로 참가
	09. 19	해외 CB전환 업무대행계약 체결(미 클레멘트캐피탈사, AIG 글로벌인베스트먼트사와 상임대리인 계약 체결)
	09. 30	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 양재봉 취임
	10. 01	TV 이용한 증권정보 조회시스템 개발
	10. 12	명일동사옥 준공
	10. 17	동래사옥, 개포사옥 준공
	12. 09	자본금 271억 2,486만 5,000원 증자(2,079억 원)
	12. 12	자본금 520억 4,267만 원 증자(무상, 2,600억 원)
	12. 22	업계 최초 회사채 인수주선 1조 원 돌파
	12. 30	양재봉 회장, '80년대를 움직인 10대 인물'에 선정
	12. 31	동해펄프 등 17건 기업공개로 연중 국내최다 기업공개 건 기록
1990	01. 03	대신그룹체제 선포
	01. 04	지역본부장제 실시(강북, 강남, 동부, 서부지역본부), 연수부, 관재부 신설
	01. 18	대신종합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발족
	01. 22	대신전산센터, 모니터링센터 운영
	02. 01	대신그룹 구호 사용 개시(우리는 대신 대신은 우리, 대신가족 굳게 뭉쳐 세계제일 이룩하자)
	04. 20	대신전산센터, DIAMOND-VAN 사업 개시
	04. 27	대신가족의 노래 제정(작사 : 양재봉, 작곡 : 성석태)
	05. 14	최초 그룹 경영전략회의 개최
	05. 18	대림동사옥 준공 대신투자자문, 출판업 겸영업무 인가
	05. 25	대신송촌문화재단 창립총회
	05. 26	회장제 시행(대신그룹 회장 양재봉, 대신증권 대표이사 박동희, 부사장 양회문)

연표

일자		내용
1990	05. 26	자본금 102억 4,200만 5,000원 증자(주식배당, 2,702억 원)
	05. 28	대신연수원 개원, 그룹회장 취임식 대신투자자문, 대표이사 이준호 취임
	06. 01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 업무 개시, DIAMOND-VAN 가동
	06. 29	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 백제민 취임
	07. 02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 1차 증가운동 시작(~ 08. 31, 목표 300억)
	07. 06	미원 해외 CB 발행 주선(3,000만 달러)
	07. 09	스크루지(SCRUJI)운동 시작(~ 10. 27)
	07. 16	新 시스템 1차 가동(일선완결식 창구제도)
	07. 20	대신송촌문화재단 설립(이사장 양재봉)
	08. 08	첨단 종합증권정보시스템 가동
	09. 01	환매업무 자체전산 이관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 2차 증강운동 시작(~ 12. 31, 순증 800억 목표) 대신투자자문, 자문계약 100억 원 증가운동 시작(~ 10. 31)
	09. 30	최초 그룹 Brochure 발간
	11. 01	트레이딩본부 설치, 기획관리부, 투자정보부, 조사분석부 신설
	11. 21	업계 최초 회사채 발행 및 CD 매매 각 1조 원 돌파
	11. 30	제1회 대신가족회 실시
	12. 05	광명사옥 준공
	12. 28	제1회 대리경영회의 개최
1991	01. 03	법인사업부 신설, Filing System 추진
	01. 07	대신전산센터, 광명사옥으로 이전
	01. 11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업무 개시 및 1,000억 원 달성 캠페인 시작 (~ 03. 31)
	03. 02	인사업무 전산화 시행
	03. 07	대신전산센터, 정보통신 역무제공업무 등록(DP, DB, 전자사서함)
	03. 08	런던 현지법인 내인가 획득(재무부)
	03. 16	기업문화 사내 추진팀 구성
	03. 21	서울방송에 시황방송 시작(라디오)
	04. 01	SUPER DIAMOND 본격 가동, 예산관리업무 전산화 시행
	04. 10	대신생명보험 주식 중 일부 매각(70만 주,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에 따른 상호출자 해소)
	05. 01	업계 최초 M&A 업무 인가

일자		내용
1991	05. 04	대신전산센터, HI - PEAS 1차 개발 완료
	05. 20	트레이딩본부 확장 이전
	05. 25	사업목적 추가(외국에서의 유가증권매매, 위탁매매,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업무) 대신전산센터, 대신정보통신연구소 설치
	06. 05	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 정해왕 취임
	06. 14	대신해바라기 종합채권투자시스템 개발
	07. 05	기업문화 정립 직원 의식조사 실시 대신경제연구소, AI 이용 전문가 시스템 개발
	07. 12	런던 현지법인 설립(대표이사 노승원, 자본금 7백만 파운드), 런던사무소 폐쇄
	08. 19	대신송촌문화재단, 최초 장학금 수여(10명, 546만 원)
	09. 01	급여업무 전산화 시행
	09. 03	국제업무부 신설
	09. 27	중앙경제신문 광고대상 수상
	10. 19	그룹임원대상 기업문화 워크숍 개최
	10. 31	동아제약 해외 CB 발행 주선
	11. 05	대신전산센터, 영국 DOWTY사와 정보통신업무 협정 체결
	11. 11	홍콩사무소 개설
	11. 18	대신증권, 부회장 박동희, 대표이사 최경국 취임
1992	02. 17	장외등록주식 전산매매 개시
	02. 19	포항제철 해외전환사채 발행 주선
	03. 04	수원사옥 준공
	03. 12	양재봉 회장, 대신송촌문화재단 1억 2,100만 원 추가 출연 (기본재산 2억 2,100만 원)
	03. 13	서산사옥 준공
	04. 15	'KBS 성공시대' 대신그룹편 방영
	05. 22	외국환업무 사업목적 추가
	06. 13	창립 30주년 기념 바둑·테니스 대회 개최
	06. 15	〈대신 30년사〉 발간
	06. 26	대표이사 이동표 취임
	07. 13	사무혁신운동(DASH 92) 추진
	08. 06	포항제철 양키본드 발행 공동주간(국내 증권사 최초)

일자		내용
1992	08. 26	투자개발실 신설
	09. 30	포항제철 유로본드 발행 공동주간
	10. 02	대신전산센터, 대신정보통신으로 사명 변경
	10. 06	텔레마케팅 영업 개시(총 6개 지점에 2명씩 텔레마케팅 요원 상주)
	10. 19	중국 심천에서의 증권업 면허 신청, 영업2부 신설
1993	01. 04	Refresh Full제도 도입
	01. 08	인수3부 신설
	01. 11	후선부서 평가제도 시행(14개 부서)
	04. 01	DASH TO C 캠페인 실시(~ 06. 30), 현장의 소리 전용전화 OK폰 개설
	04. 06	보험료 자동납부서비스 개시
	04. 14	법인3부 신설
	05. 18	대신투자자문, 김성진 대표이사 취임
	05. 22	공동 대표이사(이준호, 이동표) 선임 사업목적 추가(수익증권 저축업무,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증권투자업무, 어음관리계좌업무, 콜거래 중개업무, 팩토링업무)
	06. 11	제1회 교양강좌 개최(이어령 박사)
	06. 12	제2회 해바라기 제전 개최
	07. 10	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 최경국 선임
	08. 02	전산본부 신설(정보시스템부, 투자개발부)
	09. 08	회계부 신설(자금부 회계과에서 독립)
	09. 14	공모주청약예치금 예수 대리업무계약 체결(한국증권금융)
	09. 18	공모주 청약 예치금 업무개시
	10. 01	DESK TIME 제도 실시
	10. 05	KOREAN STOCK FUND 설립(투자자문사 : 대신투자자문)
	10. 15	서해 훼리호 유족 위로성금 기탁 대신정보통신, 일본 Fu Tec사와 ALM(자산부채관리시스템) 사용계약 체결
	11. 01	사내예식장 운영 개시, 그룹 CI 매뉴얼(기본편) 제작
	12. 01	문서전달시스템(OA SYS-2) 개발
1994	01. 10	KSF(Korean Stock Fund) 조인식(설립금액 1억 1,000만 달러로 국내 최대 금액)
	02. 25	대신투자자문, 다이와프랑스와 2,000만 달러 규모 역외펀드 설립계약 체결
	03. 02	대신 HOT-LINE 확대 개통

일자		내용
1994	03. 08	채권부 영업과(법인대상 채권매매) 신설
	03. 16	대신송촌문화재단, 장학금 전달(나주 효행 청소년, 1억 5,000만 원)
	03. 18	대신정보통신, 본사 이전(광주)
	03. 22	대표이사 이준호 선임
	03. 22	대신정보통신 15억 원 유상증자(자본금 105억 원)
	04. 08	주간정보 DIGEST 시스템 가동
	04. 15	CITC Seoul Excel Trust 조인식
	04. 19	대신경제연구소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취득(29억 7,000만 원)
	04. 20	대신 새바람 50일 운동 전개
	05. 02	조기 출퇴근제 실시(오전 8시 ~ 오후 5시)
	05. 05	모건스탠리와 공동으로 7,000만 달러 규모 기아자동차 DR 발행
	05. 28	자본금 54억 483만 원 증자(2,756억 원)
	06. 01	강서지역본부 신설(5개 지역본부 체제)
	06. 13	일반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 매매거래 위탁업무 취급 증권회사 지정
	06. 19	대신 해바라기 큰잔치 개최
	06. 20	양재봉 회장 자서전 〈큰 믿음으로 세계를 향하여〉 발간 대신역사관 개관, 황소상 제막 및 시세정보탑 점등
	08. 09	개인 해외투자 1호 탄생
	08. 16	15개 거점점포 선정, 지원 시작
	09. 23	대신 스마일 운동(~ 12. 31)
	10. 20	대구사옥 준공
	11. 01	3C(Change, Challenge, Creation) 경영이념 및 비전 선포 「21세기 신금융을 선도하는 종합금융그룹 창조」
	11. 07	제1기 21세기 경영위원회 해외연수 실시
	12. 01	본부제 및 팀제 도입
	12. 27	그룹 비전 확정(21세기 신금융을 선도하는 종합금융그룹 창조)
1995	01. 19	기아자동차 신주인수권부 변동금리사채 발행(선경증권과 공동주간, 발행규모 5,000만 달러)
	01. 28	부천사옥 준공
	02. 02	사시제정 및 선포(사시 : 고객우선, 인재제일, 준법합리)
	03. 02	근무시간 자유선택제도 시행
	03. 27	대신송촌문화재단, 창립 5주년 기념식
	04. 11	대신투자자문, 대표이사 지진림 취임

연표

일자		내용
1995	04. 21	대신정보통신, 서울 멀티미디어 쇼 참가
	05. 03	대신비전 열린마당 개최
	05. 25	야간 전화상담서비스 개시(8개 점포 시범운영)
	05. 27	자본금 63억 5,312만 원 증자(2,820억 원)
	05. 29	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 나영호 선임
	05. 31	대신투자자문, 대표이사 최경국 선임
	06. 20	대신팩토링 설립(자본금 100억 원, 대표이사 백종민)
	06. 29	해외현지법인(지점) 및 해외사무소 설립 내허가 신청(뉴욕, 동경, 홍콩)
	08. 01	런던 현지법인, 마켓 메이킹 업무 개시 예탁자산 증강운동 시작(~ 09. 30)
	08. 16	고객만족 실천전략 실시
	09. 01	SUPER DIAMOND 95 개발, CS정보지 〈큰믿음 고객만족〉 창간
	09. 29	대신정보통신, 장외시장 등록
	10. 06	청주사옥 준공
	10. 11	〈아시아머니〉지의 국제영업력 평가 종합 5위 차지
	10. 13	대신정보통신, 신용금고연합회와 ALM 공급협약 체결
	10. 27	포항제철 3억 달러 DR 발행(뉴욕과 런던 동시발행)
	11. 01	대신정보통신, 일본 다이와 종합연구소와 정보통신 관련 지원계약 체결
	11. 10	CS 향상 Role-Playing 경연대회 실시
	12. 06	사규집 전산관리 시행
1996	01. 04	본사 차원의 시황방송 실시
	01. 13	외국환업무 추가지정
	01. 17	대신투자자문, 자본금 25억 원 증자(75억 원)
	01. 22	대신정보통신, 서울증권에 Infoway시스템 공급계약 체결
	01. 27	'대신인 25시' 현장체험 활동 및 사회봉사 활동 실시
	02. 24	CS 시범요원 '대신 Sun Flower' 선발
	02. 27	대한투자신탁과 정보시스템 교환 제휴협약 체결
	03. 29	주가지수에 대한 증권업 허가 취득
	03. 30	대신투자자문, 대표이사 이준호 취임
	04. 01	뉴욕 현지법인 설립(자본금 500만 달러, 대표이사 안석구) 경영정책실 신설(그룹회장 직속), 여직원 팀장제 실시

일자		내용
1996	04. 18	3대 투신사와 투신상품 위탁판매 계약 동시 체결 (한국, 대한, 국민투자신탁)
	05. 25	대표이사 최경국 취임
	06. 11	대신투자자문 225억 원 증자(300억 원)
	06. 12	상해사무소 신설
	06. 25	수익증권 유치 100일 작전 시행(~ 10. 05)
	07. 12	대신투자자문, 대신투자신탁운용으로 사명 변경
	07. 15	투신영업부 신설, 경영계획 JUMP 7.29 실천전략 시행
	07. 19	대신송촌문화재단, 구순구개열환자 수술자금 5억 원 지원
	08. 01	신상품위원회 발족
	08. 09	대신정보통신, 신원그룹 그룹웨어 구축
	10. 01	전산본부 신설, 영업점에 투신영업담당제 도입
	10. 02	한국기술투자 업무제휴 협약 체결
	10. 08	동양투신 2,000만 달러 채권형 외수증권 발행 주간
	11. 23	국내 최초로 종합계좌시스템 가동(One Card System)
	12. 11	동경지점 개점(기존의 동경사무소를 지점으로 전환, 지점장 조용백)
	12. 20	한국기업평가와 업무협약서 체결
1997	01. 07	삼성역지점 신설
	01. 23	외국투자신탁증권 국내판매 대행업무 겸영인가 취득
	02. 13	대신정보통신, 대표이사 이재원 취임
	03. 03	新 문서 전달시스템 가동
	04. 01	TOP 97 실천운동 시행, 본사 및 영업점부문 성과급제도 도입 중부지역본부 신설(6개 지역본부 체제)
	04. 12	홈트레이딩시스템 오픈(CYBOS DOS 버전)
	04. 17	미국 아메리칸익스프레스은행과 해외투자신탁증권의 판매대행 조인식
	04. 22	밝은 직장분위기 만들기 운동 실시
	04. 23	대신투자신탁운용, 투자일임업 허가
	04. 28	프랑스 엥도수에즈투신과 해외투자신탁 증권 판매대행 조인식
	07. 01	대신투자신탁운용, 공사채형 투자신탁 업무개시
	07. 09	일본 와코증권과 업무제휴 체결
	07. 31	대신투자신탁운용, 투자신탁 설정고 1조 좌 달성
	08. 04	차등상여제도 실시
	08. 26	업계 최초 증권거래정보 PCS 전송서비스 제공

일자		내용
1997	09. 01	금융상품팀 신설
	10. 02	대표이사 양회문 부회장 취임
	10. 19	업계 최초 주가지수 선물·옵션 HTS 거래실시
	10. 30	대표이사 김대송 취임(공동대표이사), 심사운영위원회 신설
	11. 24	외화예금 가입 및 절약운동 전개
	12. 30	대전사옥 준공
1998	01. 01	홍콩 현지법인(대신인터내셔널 홍콩) 설립
	01. 19	금 모으기 운동 전개
	02. 02	수익증권 1조 원 증가운동(~ 03. 31)
	02. 18	대신정보통신 주식 23만 5,000주 장내 매각(지분율 28.2% → 16.5%)
	04. 27	해외현지법인 폐쇄(런던, 뉴욕) 및 해외사무소 전환(동경)
	04. 29	업계 최초 선물· 옵션 투자설명회 개최
	05. 22	이사회 의장 변경(양재봉 회장 → 양회문 부회장)
	06. 09	대형사 최초 인터넷 웹 트레이딩 개시
	06. 09	대신금융센터 1호점 개설(부산지점)
	07. 01	자산재평가(장부가액 : 토지 741억 원, 건물 1,130억 원) '한국경제 살리는 길' 인터넷 경제강연회(조선일보 공동기획)
	07. 21	목동사옥 준공
	09. 01	위험관리위원회 발족
	09. 24	KGI와 전략적 제휴 투자의향서 교환
	12. 23	대신투자신탁운용 국공채투자신탁 수탁고 1조 원 돌파
1999	01. 18	대표이사 김승호 선임(공동대표이사)
	01. 28	대신투자신탁운용, 자산운용회사 등록
	02. 13	원장이관시스템 가동
	02. 19	대신투자신탁운용, 자산운용회사 업무 겸영인가
	02. 27	대신정보통신, 사옥 이전
	03. 05	대신정보통신, 20% 유상증자 실시
	05. 24	동래사옥 준공
	05. 28	대신투자신탁운용, 박점상 대표이사 취임
	07. 21	대신정보통신, 경기주선협회 사이버물류정보서비스 조인식
	08. 11	대신콜센터 개설
	08. 13	강남역 사이버영업소 신설(1호점) 대신투자신탁운용, 대신불자산배분형 1호 설립, 발매

일자		내용
1999	08. 26	대신그룹, 일본 스미토모생명보험과 자본 및 업무제휴 대신투자신탁운용 주식일부 매각(일본 스미토모생명에 지분 20% 양도)
	08. 31	자본금 56억 4,000만 원 증자(유상, 제3자 배정, 자본금 2,876억 원)
	09. 21	목동역 사이버영업소 신설
	10. 01	대신투자신탁운용, Y2K 종합인증 획득
	10. 18	대신투자신탁운용, 노정남 대표이사 취임
	10. 25	1999년 한국 전자상거래 대상 수상
	11. 02	수지지점 신설
	11. 03	자본금 862억 9,200만 원 증자(주주배정 유상증자, 3,739억 원)
	11. 05	물류대상 정보화부문 대통령상 수상
	11. 23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인터넷 대상
2000	01. 04	삼진아웃제도 도입
	03. 08	제1회 사이보스 2002 고객교육 실시
	04. 24	영남 6개 대학에 장학금 6억 원 기탁
	07. 25	고객자녀 무료 PC교육 실시
	08. 09	하남 사이버영업소 신설(1년만에 50호 사이버영업소 돌파)
	08. 23	IB본부 신설(국제본부와 기업금융본부 통합)
	09. 01	사이버 투자상담 개시
	09. 18	준법감시인제도 도입 대신정보통신, 美 리니오사와 리눅스 합작법인 설립
	09. 20	안철수 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와 전략적 업무제휴
	10. 01	내부통제기준 제정
	10. 10	서동지점 신설
	10. 17	대신생명 그룹에서 분리 대신생명, 이재원 회장 취임
	10. 23	사이보스 2002 출시
	10. 25	오산사옥 준공
	11. 08	뉴미디어대상 장관기 수상
	12. 26	대표이사 부회장 양회문 재취임
2001	02. 03	투자자문업 등록
	02. 08	사이보스 메신저를 활용한 온라인 투자상담서비스 실시
	02. 22	KOREA Web Surfer's Choice 인터넷증권분야 선정
	03. 12	선물업 허가

연표

일자		내용
2001	03. 15	제1회 한경 Web Awards 증권사부문 최우수상
	04. 09	양재봉 창업자 명예회장 추대, 대신증권 양회문 회장 취임
	04. 18	사이보스 증권스쿨 개최
	05. 11	강북사옥 준공
	06. 22	사이보스 트레이더 출시
	06. 25	상무사옥 준공, 임시이사회에서 대신생명 출자안건 부결
	07. 25	업계 최초 외국인 전용 HTS 영문버전 출시(사이보스 2002)
	09. 26	원격지 실시간 재난복구시스템 구축(여의도 본사)
	10. 15	매일경제신문 KOREA EC AWARD 수상
	10. 17	한국표준협회 한국서비스 품질지수 증권부문 1위
	12. 03	홍콩 현지법인의 유로채권 100만 달러 해외투자
2002	02. 25	사이보스 2002 모의투자 대회 개최
	02. 28	무장애시스템 가동
	03. 11	대신투자신탁운용 주식 일부 매입
	03. 13	대신팩토링 최종 부도
	03. 18	여의도 본사 원격 재해복구센터 가동식
	06. 10	대신비전 변경(그룹비전 →기업비전) (행복을 창조하는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 사훈 → 대신정신, 사시 → 경영이념
	08. 01	대신경제연구소 〈주식투자 알고하자〉 개정증보 2판 출간
	09. 16	자사주 보통주 20만 주 이익소각
	10. 16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고객만족도 증권사부문 1위
	10. 18	한국능률협회 주관,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인터넷상거래부문 4년 연속 수상
	11. 07	전국 순회 투자설명회 개최(사이보스트레이더)(~ 11. 28)
	11. 27	한국 e-비즈니스 대상 2개 부문 수상
2003	02. 21	ESOP제도 시행(우리사주조합원에 자사주 출연)
	02. 24	북인천사옥 준공
	02. 27	한국일보 KOREA Web Awards 2002 전자상거래부문 우수상
	03. 19	북인천지점 신설
	05. 12	사업목적 추가(투자일임업, 보험상품판매의 대리 및 중개)
	05. 26	CS LADY 양성과정 실시(~ 06. 04)
	07. 21	한국배당주가지수(KODI) 구성종목에 선정

일자		내용
2003	07. 22	의정부지점 신설
	07. 30	한경 e금융 페스티벌 대상(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상) 수상
	09. 03	한국능률협회 고객만족도 증권부문 1위
	09. 04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록
	10. 16	이데일리조사 HTS사용자 체감만족도, 고객만족도 1위
	11. 14	한국경제신문 한국소비자포럼 주최 올해의 브랜드 대상 증권부문 수상
	12. 01	기업지배구조지수(KOGI) 구성종목에 선정
	12. 26	대신생명보험 파산선고에 따른 계열회사 제외
2004	01. 06	매일경제신문 제6회 증권인상 대상 수상
	03. 10	매일경제신문 제9회 금융상품대상 수상(메리츠, 하나증권 공동수상)
	03. 26	한국증권거래소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상 수상
	04. 26	대만 폴라리스증권에 '사이보스 2004' 수출 계약
	06. 15	기업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거래소)
	06. 23	투자일임업 등록
	06. 29	정자동지점 신설
	09. 17	양회문 회장 별세
	09. 24	이어룡 회장 취임
	10. 19	2004 한경 브랜드 대상 증권부문 수상
	11. 15	Survival 2005 예탁자산 증가운동 시작(~ 2005. 03. 11)
	12. 13	노무라증권과 중소기업전용 엔화 P-CBO 발행 조인식
	12. 21	홍콩 현지법인 폐쇄
	12. 27	新 사이버시스템 'U-사이보스' 출시
2005	01. 14	CMMI(능력성숙도 모델) 레벨3 획득
	02. 17	금호타이어 거래소 상장 주간
	02. 25	장외파생금융상품업 허가
	03. 10	제10회 매경 금융상품대상 은상 수상
	03. 30	주가지수연계증권(대신 ELS 1 ~ 4호) 발행
	04. 01	대신경제연구소 문홍집 대표이사 취임, 큰믿음 경영 선포식 리서치센터, 자산영업추진팀 신설
	04. 04	제2회 대한민국 IB대상 최우수 구조화 금융부문 수상
	04. 11	스톡피아, 대신증권 HTS 1위 평가
	04. 13	대신증권, 투신운용 - 대만 IBTS와 업무협약 체결
	06. 01	대신고객 부자만들기펀드 출시

일자		내용
2005	07. 01	대신아카데미 실시
	09. 26	기업설명회 개최(뉴욕 등 미국 주요도시)
	10. 04	대신증권, 대표이사 김대송 부회장 취임 대신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최인선 취임
	10. 27	한국소비자포럼주최 2005 브랜드 대상 수상(3년 연속 수상)
	11. 09	제2회 대한민국 증권대상 고객만족부문 최우수상 수상
	12. 01	대신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이재창 취임
	12. 06	일본 스팍스 에셋매니지먼트 자본유치
	12. 09	신탁업 인가,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12. 13	태국 셋트레이드사에 사이보스 선물거래시스템 수출
	12. 17	자본금 109억 3,500만 원 증자(제3자 배정 유상증자, 3,849억 원)
	12. 20	사랑의 산악행군 최초 실시(신입사원 연수)
2006	01. 02	대신투자신탁운용, 간접투자증권 직접 판매 금감원 보고
	02. 15	부산대와 산학협동 조인식
	03. 02	안중지점 신설
	04. 03	고객서비스 헌장 선포 '고객의 행복을 위한 친절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04. 12	임원 및 부서장 해외특별연수(일본 주요증권사, ~ 06. 30)
	04. 18	제3회 대한민국 IB대상 최우수 구조화 금융부문 수상
	05. 26	대표이사 노정남 취임
	06. 02	일본 스팍스 에셋매니지먼트와 MOU 체결
	06. 16	전남지역 경제인협회와 업무제휴 협약
	08. 07	대신 CMA 출시
	08. 21	차세대 ARS 시스템 오픈
	08. 29	일본 닛코코디알그룹과 전략적 제휴 및 자본제휴 체결
	09. 13	대신투자신탁운용 보통주 취득(대신증권 지분율 100%)
	09. 18	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 김영익 취임
	09. 28	대신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문홍집 취임 퇴직연금제도 도입
	10. 16	일본 닛코코디알그룹과 자본제휴
	10. 28	한국경제신문, e-비즈니스 대상 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
	12. 14	제1회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2007	01. 03	대신경제연구소, 심충보 대표이사 취임

일자		내용
2007	03. 06	펀드드림서비스 실시
	03. 19	차세대 HTS U-사이보스 글로벌 출시
	03. 29	대신송촌문화재단 양재봉 명예이사장 장학금 2억 1,000만 원 전달
	05. 29	글로벌 고객만족도(GCSI) 1위 수상
	06. 05	우수고객 초청 엘빈토플러 초청강연
	06. 20	뉴비전 선포 「행복에 투자하는 Global Trust 투자은행」, 대신 5개년 로드맵 발표행사
	07. 04	대신 지구온난화 펀드 출시
	07. 10	아시아 투자전략 세미나 개최(스팍스그룹 아베 슈헤이 사장 초청)
	08. 22	SK C&C와 차세대시스템 구축계약 조인식
	10. 09	자산관리 1호점(용산시티파크지점) 신설
	10. 13	중국 심천캐피탈과 MOU체결
	11. 02	런던증권거래소 GDS 2,000만 주 상장(자본금 4,349억 원)
	11. 19	대신 인베스트먼트 포럼 개최
	11. 20	중국 자오상증권과 전략적 업무제휴 체결
	12. 01	부동산금융부 신설
	12. 03	외환은행 IB 업무협약 체결
	12. 22	태안반도 기름제거 봉사활동
2008	01. 17	베트남 호치민씨티증권과 전략적 업무제휴 체결
	02. 16	홍콩 현지법인 재설립
	02. 21	해외 일본주식 직접투자서비스 개시
	02. 27	카자흐스탄사무소 설치
	03. 11	대신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이형철 취임
	04. 29	대신부자베스트펀드랩 출시
	05. 02	사내방송서비스 개편(8시 10분 리서치센터 모닝미팅, 11시 30분 시황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사내뉴스 방송)
	05. 14	대신 인베스트먼트 포럼 개최
	05. 31	창립 46주년 기념 '2008 대신 힘찬 도전, 뜨거운 열정 페스티벌' (1박 2일)
	06. 16	글로벌 고객만족도(GCSI) 증권부문 1위 수상
	06. 23	대신역사관 재개관
	07. 09	중국 상해사무소 설립
	08. 12	외환은행과 카드사업부문 업무제휴

연표

일자		내용
2008	08. 21	Hi Daishin 캠페인 실시
	08. 26	〈일본주식투자 가이드〉 발간
	10. 14	캄보디아 로얄그룹과 전략적 업무제휴
	10. 29	제1회 상품 이해도 경진대회
	11. 25	금융투자업 인가
	11. 28	제1회 프레젠테이션 대회 실시
	12. 05	대신투자신탁운용,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 등록
	12. 24	대신투자신탁운용, '대신 GIANT 현대차그룹 ETF' 상장기념식 개최
2009	02. 05	홍콩 현지법인 영업개시
	02. 09	신입사원 사랑의 행군 성금 1,100만 원 기부
	03. 02	Daishin Trust Cube 오픈
	03. 09	대신 국공채 CMA 판매
	03. 18	카자흐스탄 현지사무소 폐쇄
	04. 01	미션 제정 '고객과 상생하는 세계 최고의 신뢰기업' 리스크관리본부 확대개편(리스크관리부, 심사분석부)
	04. 17	2009 GBCI 웰빙 & 프리미엄 브랜드 증권사부문 1위 수상
	05. 04	차세대시스템 오픈
	05. 18	사이버 투자포럼 개최
	06. 29	대신투자신탁운용, 280억 원 유상증자
	07. 09	캄보디아 IPO 세미나 개최
	07. 17	글로벌 고객만족도(GCSI) 증권부문 1위 수상
	08. 03	대신투자신탁운용, 280억 원 무상감자
	08. 10	이어룡 회장 경인방송 'CEO와 책' 출연
	09. 08	동경 한국자본시장 세미나 참가 대신증권, 대신투자신탁운용 공동 주최 글로벌 녹색성장 세미나 개최(SAM 초청)
	10. 06	대신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김범철 취임
	10. 19	대신 Believe 서비스 출시
	10. 20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KOREA) 편입
	10. 23	소액지급결제서비스 실시
	11. 24	기업고객 초청 리서치 포럼 개최 매일경제 광고대상 증권부문 우수상 수상(Believe)

일자		내용
2009	12. 02	대신투자신탁운용, 금융자문서비스 제공
2010	01. 04	대신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온기선 취임
	01. 09	금융주치의 선포식
	01. 28	2009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상 수상
	02. 04	대신 인베스터스 컨퍼런스 개최(홍콩)
	02. 25	라오스 코라오그룹과 포괄적 업무제휴 체결
	02. 26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설립
	03. 11	대신 MBS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한국자산신탁 인수
	03. 18	제1회 아시아 펀드대상 특별상(고객만족도부문 우수판매사)수상
	03. 25	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직무대리 김윤기 취임
	04. 01	2010 GBCI 웰빙 & 프리미엄 브랜드 증권사부문 1위 수상
	05. 17	대신 사이버 투자포럼 개최
	05. 26	2010 글로벌 스탠다드 경영대상 – 정보보안 경영부문 대상
	05. 27	대신투자신탁운용, 대신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05. 28	대표이사 양홍석 취임, New CI 선포식
	06. 30	웅진에너지(주) 상장 주간
	08. 24	대신 그로쓰알파 SPAC 코스닥 상장
	09. 15	대신 A+ CMA 출시
	11. 02	'오아시스' 서비스 출시
	12. 09	창업자 양재봉 명예회장 별세
	12. 10	사이보스 터치 아이패드용 서비스 개시
	12. 16	대신증권 홈페이지 '웹어워드 코리아 2010' 증권부문 대상 수상
2011	02. 09	사이보스 터치 오픈(스마트폰 용)
	02. 21	크레온서비스 출시(국내 최저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
	03. 25	2011 GBCI 웰빙 & 프리미엄 브랜드 증권사부문 1위 수상
	04. 01	사업단 및 본부 책임경영제 시행
	04. 06	인도네시아 만디리증권과 업무협약 체결
	04. 19	FX마진, 해외선물거래서비스 오픈
	05. 01	Product of the year 프로모션 시행
	05. 15	월스트리트저널(WSJ) 선정 리서치평가 국내 1위, 아시아 2위
	06. 27	중앙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패키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07. 12	제54회 대신증권 KPGA챔피언십 조인식

일자		내용
2011	08. 05	대신저축은행 회사 설립등기, 설립자본금 납입
	08. 16	대신 꼬박꼬박 월 적립형 서비스 출시
	08. 26	금융위원회 대신저축은행 영업인가 금융감독원 10지점 인가
	08. 29	대신저축은행, 대표이사 김영진 취임
	08. 30	2011 아시아 자본투자대상 리서치부문 우수상 수상
	08. 31	대신저축은행 출범 및 영업개시
	10. 31	금융주치의 강남센터 오픈
	12. 29	대신 꼬박꼬박 정기지급형 상품 출시
2012	01. 11	대신경제연구소, 인포맥스 주최 제2회 금융대상 거시부문 대상 수상
	03. 13	이어룡 회장, 2012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대상 수상(투명경영부문)
	04. 09	대신 적립식 토닥토닥서비스 출시, 대신 ETF 랩 출시
	05. 25	이어룡 회장, 대신금융그룹 회장 취임, 대신증권 대표이사 나재철 취임
	05. 29	대신저축은행, 명동지점 신설
	06. 12	일본 오카상증권과 MOU 체결
	06. 25	대신저축은행, 역삼역지점 신설
	06. 27	대신자산운용, 자본금 260억 증자(자본금 355억 원)
	06. 28	글로벌 고객만족도(GCSI) 증권부문 1위(6년 연속 1위 수상)
	07. 05	대신저축은행, 연계신용서비스 대신스탁론 출시
	07. 11	대신저축은행, 사업자주택담보대출 출시
	07. 26	개인형 퇴직연금(IRP) 판매 시작
	09. 06	크레온 모바일서비스 오픈
	09. 25	부천역지점 신설
	09. 27	디에스에이치에프 주식회사(現 대신프라이빗에쿼티) 설립, 대표이사 신용재 취임
	10. 09	즉시연금보험 판매
	10. 22	이동점포서비스 오픈
	11. 14	브라질 물가채 중개매매서비스 개시
	11. 21	the Daishin Investmet Forum 2012 개최
	12. 04	밸런스 CMA 출시
	12. 20	비상경영체제 시행
2013	01. 24	자산영업 역량 향상을 위한 역량평가 실시
	02. 18	대신저축은행, 강릉지점 이전 및 명칭 변경(방배지점)

일자		내용
2013	02. 21	이머징 통화 해외채권 중개서비스 개시
	02. 25	대신저축은행, 원주지점 이전 및 명칭 변경(잠실지점)
	02. 27	디에스에이치에프, 대표이사 문호승 취임
	03. 04	대신저축은행, 남천동지점 이전 및 명칭 변경(압구정지점)
	03. 04	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 문정업 취임
	03. 05	대신금융그룹 첫 '멀티플렉스 금융점포' 오픈(압구정 지점)
	03. 22	대신자산운용, 한국창의투자자문㈜ 흡수 합병, 대표이사 서재형 취임
	05. 20	화정동지점 이전 및 명칭 변경(수원지점)
	06. 20	「2013 자랑스러운 대신인」 선정 통보
	07. 03	대신자산운용, 대신 창조성장 중소형주 펀드 출시
	07. 18	2013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07. 23	밸런스 글로벌 ETF랩 출시
	08. 02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 CCO 신규 선임
	08. 14	대신저축은행, 대표이사 오익근 취임
	08. 19	대신저축은행, 덕천동지점 이전 및 명칭 변경(서면지점)
	09. 16	대신자산운용, 대신 시니어론 특별자산펀드 출시
	10. 01	대신자산운용, 대신 에버그린 롱숏펀드(사모) 출시
	10. 14	'마이스터클럽잠실' 영업소 신설
	11. 04	'사이보스 5' 오픈
	11. 11	대신자산운용, 멀티롱숏펀드 출시
	12. 11	애뉴얼리포트 '2013 스포트라이트 어워즈' 금상 수상
2014	01. 03	사업연도 3월 말에서 12월 말로 변경
	02. 24	밸런스 롱숏펀드 랩 출시
	02. 25	대신저축은행, 서민금융지원센터 신설
	04. 08	MTS 해외선물거래서비스 오픈
	04. 14	대신자산운용, 하이일드 스위칭 재간접펀드 출시
	04. 17	디에스에이치에프, 대신프라이빗에쿼티로 상호 변경
	05. 08	대신에프앤아이, 대신에이엠씨 출범
	05. 20	대신 밸런스 스위칭ETF랩 출시
	06. 10	대신에프앤아이, 대표이사 진종은 취임
	07. 01	대신경제연구소, 주주총회 의안분석 및 지배구조관련 연구와 용역 업무 개시
	07. 28	밸런스 적립형 지수ELS랩 출시

연표

일자		내용
2014	08. 18	대신저축은행, 인터넷 신용대출 홈페이지 오픈
	08. 18	대신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 박병건 취임
	09. 22	대신저축은행, 해운대지점 이전 및 명칭 변경 (해운대센텀지점)
	09. 29	대신저축은행, 본사 및 영업부 이전(논현→역삼)
	10. 07	증권업 최초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10. 16	중국상해A주 시세조회서비스
	10. 17	대신에프앤아이, 회사의 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추가
	11. 10	미국국채 중개서비스 실시
	12. 03	대신프라이빗에쿼티, 사모투자전문운용회사 업무집행사원 등록
	12. 08	대신저축은행, 방배지점 이전 및 명칭 변경(청담지점)
	12. 18	노동조합과 첫 단체교섭 타결
	12. 22	청주지점 이전
2015	01. 17	2015 전략설명회 개최(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01. 19	대신[Balance] 자오상 후강통 랩 출시
	02. 02	대신자산운용, 글로벌 스트래티지 멀티에셋펀드 출시
	02. 04	WM영업 강화 위한 거점지역 영업점 금융센터 승격 (강남선릉센터 등 총 9개 금융센터 운영)
	03. 02	대신에프앤아이, 디에스엔피엘인베스트먼트대부주식회사 설립
	03. 09	대신경제연구소, 주주총회 의안분석서비스 개시
	03. 16	100조클럽 ELS 출시
	03. 25	KOSDA 어워즈 최우수 파생금융상품상 수상
	03. 30	2015 하우스 뷰 콘서트 개최
	04. 06	노원지점 이전(상계동지점 → 노원지점)
	04. 30	달러로 투자하는 첫 공모 ELS 출시
	05. 11	명동센터 이전
	06. 30	대신저축은행, 스마트뱅킹 오픈
	07. 07	상무지점 이전
	07. 25	대신저축은행, 모바일 스탁론시스템 오픈
	07. 27	나주지점 이전
	08. 03	대신자산운용, 대신 글로벌 고배당주 펀드 출시
	08. 27	대신저축은행, 업계 최초 여·수신 통합 모바일앱 스마트뱅크 출시

일자		내용
2015	09. 03	업계 최초 업다운 ELS 출시
	10. 12	업계 최초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
	10. 15	금융주치의 MBA 과정 실시
	10. 26	대신자산운용,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인가
	11. 17	KT Wiz 프로야구단과 스포츠 마케팅 업무제휴
	12. 01	대신자산운용, 대표이사 구희진 취임
	12. 07	밸런스 달러자산포커스랩 출시
	12. 15	대신저축은행, 2015 대한민국 스마트뱅킹 어워드 종합대상 수상
	12. 18	대신에프앤아이, 디에이치씨개발주식회사 설립
	12. 31	대신저축은행, 자산 1조 원 돌파
2016	02. 01	iF 디자인 어워드 2016 수상
	02. 05	우수 국고채전문딜러 평가 종합 1위
	02. 23	비대면 계좌개설서비스 개시
	02. 29	밸런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출시
	03. 1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03. 16	웰스 어드바이저서비스 출시
	03. 22	업계 최초 리서치센터 카드뉴스서비스 실시
	03. 28	일임형 ISA 판매
	04. 19	대신저축은행, 업계 최초 비대면 계좌개설서비스 시행
	05. 02	퇴직연금 전용 앱 출시
	05. 10	대신에프앤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남외인주택부지 매입계약 체결
	05. 23	인천센터 이전(남인천지점 → 인천센터)
	05. 26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시행
	05. 30	대전센터 이전(둔산지점 → 대전센터)
	06. 07	송도지점 이전(부평지점 → 송도지점)
	06. 13	업계 최초 카카오톡 알리미서비스 실시
	07. 14	대신저축은행, 여신 1조 원 돌파
	07. 20	대신에프앤아이, 디에스한남주식회사 설립
	07. 28	대신프라이빗에쿼티, 대신SKS세컨더리 사모투자합자회사(PEF) 설립
	10. 04	대신증권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11. 22	해외주식 투자정보서비스 실시
	12. 01	말레이시아 증권사 메이뱅크 킴엉과 주식매매중계 계약

일자		내용
2016	12. 09	대신저축은행, 명동지점 이전 및 명칭 변경(역삼지점)
	12. 23	국내 1호 주식시세 전광판 서비스 중단
	12. 26	여의도 영업부 신설
2017	01. 04	대신금융그룹 명동시대 개막
	02. 04	제1회 대신크리에이티브포럼 개최
	02. 16	대신자산운용, 대신하임전문사모펀드(국내 부동산) 출시
	02. 20	업계 최초 인공지능 챗봇서비스 실시
	04. 20	벤자민-카카오톡 연계서비스 실시
	04. 20	대신프라이빗에쿼티, 대신밸류업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PEF) 설립
	05. 31	대신자산운용, 해외전문사모부동산1호(미국 부동산) 출시
	06. 29	MTS 주문가 트레킹시스템 특허등록
	07. 10	태국 부알루앙증권과 HTS, MTS 수출 본계약 체결
	07. 17	자체개발 로보어드바이저 상품 출시
	08. 07	국내 최초 야연, 니켈 선물 ETN 출시
	08. 29	Daishin Investments Pte. Ltd.(싱가포르 현지법인) 설립
	09. 01	대신프라이빗에쿼티, 대신코인베스트먼트2017 사모투자합자회사(PEF) 설립
	09. 25	싱가포르 현지법인, 자본금 SGD 120,000 증자
	10. 23	대신경제연구소, ESG 평가 서비스 시작
	10. 23	대신경제연구소, 스튜어드십코드 용역 시작
	11. 01	디에스한남, 나인원한남 착공
	11. 02	대신밸런스 5스타 펀드랩 출시
2018	01. 02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소, 금융공학연구소로 산하 조직 확대 개편
	01. 15	음성인식 챗봇서비스 시행
	01. 16	대신자산운용, 대신KOSPI200인덱스펀드 '2018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 인덱스부문 최우수상' 수상
	01. 16	리서치센터 글로벌 부동산팀 신설
	01. 31	철광석 선물 ETN 2종 출시
	02. 09	사원증 관련 기술특허 등록
	02. 22	제1회 Dashin Business Class 개최
	03. 12	광명 사옥 매각
	04. 03	연금전용 로보어드바이저 출시

일자		내용
2018	04. 04	대신 사전증여신탁 출시
	06. 01	싱가포르 현지법인, 자본금 SGD 615,000 증자
	06. 11	Daishin America LLC.(미국 현지법인) 설립 (자본금 USD 43,000,000)
	07. 13	대신 이익증여신탁 출시
	07. 16	ETN 전용 홈페이지 오픈
	08. 31	대신에프앤아이, ㈜리버빌(맑은물리조트) 인수
	09. 04	뉴욕 맨해튼 빌딩에 투자
	11. 12	홍콩 현지법인 폐쇄 결정
	11. 13	디에스한남, 대표이사 김송규 취임
	11. 22	HNW 세무·부동산컨설팅서비스 실시
	11. 26	부동산 신탁회사 신규인가 신청
	12. 03	대신저축은행, 대표이사 박경제 취임
2019	01. 24	대신저축은행, 온라인햇살론 출시
	01. 28	대신자산운용, 대신 밸류 로보펀드 출시
	01. 28	대신자산운용, 대신Japan하임전문사모펀드 출시
	02. 12	대신자산운용, 대신KOSPI200인덱스펀드 '2019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 인덱스부문 최우수상' 수상
	03. 03	대신증권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취득
	05. 13	대신자산운용, 대신Japan하임공모펀드 출시
	05. 30	디에스에이티컴퍼니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계열회사 추가, 대표이사 김철종 취임
	06. 01	태국 온라인주식거래 사업 개시
	07. 13	UHNW 금융컨설팅 전문가 양성과정 실시
	07. 24	디에스에이티컴퍼니, 부동산신탁업 본인가 취득
	07. 25	디에스에이티컴퍼니 주식회사 →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상호 변경
	09. 27	대신자산운용, 대신Singapore하임전문사모펀드 출시
	10. 28	하반기 증시전망 유튜브 라이브 방송 실시
	10. 31	대신에프앤아이, 대표이사 주성균 선임
	11. 11	나인원 프라이빗 라운지 신설
	11. 19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고객 간담회
	11. 25	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 조윤남 취임
	12. 13	대신자산운용, 대신글로벌앱솔루트EMP펀드 출시

연표

일자		내용
2019	12. 27	금융투자협회장 선임으로 나재철 대표이사 사임
	12. 27	대신증권, 대표이사직무대리 오익근 선임
	12. 27	경영위원회 설치
2020	01. 31	대신프라이빗에쿼티, 대신SKS 이노베이션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PEF) 설립
	02. 10	뉴욕 현지법인 USD 13,000,000 증자
	02. 10	대림동 사옥 매각
	02. 11	대신프라이빗에쿼티, 대신캑터스바이아웃 사모투자합자회사(PEF) 설립
	02. 18	대신자산신탁,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본인가 취득
	03. 12	해외주식담보대출 서비스 실시
	03. 20	글로벌 투자전략 유튜브 라이브 방송
	03. 20	대신증권, 대표이사 오익근 취임
	03. 23	대신자산운용, 대신KOSPI200인덱스펀드, 2020 모닝스타펀드 어워즈 베스트 한국 대형주 펀드 수상
	05. 20	Daishin Tokyo Godo Kaisha(동경 현지법인) 설립 (자본금 JPY 900,000,000)
	06. 12	디에스한남, 유상증자 369억 원
	06. 17	대신자산운용, 대신글로벌리츠 공모펀드 출시
	06. 30	대신자산운용, 수탁고 7조 원 달성
	08. 26	리츠 전용 통합금융서비스 개시
	10. 08	대신경제연구소, 국민연금 국내주식 ESG 평가체계 개선 및 국내 채권 ESG 평가체계 구축
	10. 12	대신 밸런스 리츠펀드랩 출시
	10. 12	대신저축은행, 대구여신전문출장소 신설
	10. 14	대신민원관리시스템 구축
	10. 20	광주센터 이전 오픈
	11. 11	국가공인 개인정보보호 'ISMS-P' 획득
	12. 30	대신경제연구소, 국민연금 2021년 의안분석 및 배당정책평가 용역 수주
2021	01. 25	대신자산운용, 본점 소재지 이전(서울 중구 삼일대로 343 대신파이낸스센터)
	03. 18	대신자산신탁, 대표이사 김철종 취임
	04. 05	미국 리츠 투자 가이드북 발간

일자		내용
2021	04. 13	동경 현지법인 JPY 2,100,000,000 증자
	04. 21	〈일본 리츠 투자 가이드북〉 발간
	04. 29	대신저축은행, 오픈뱅킹서비스 오픈
	05. 12	대신경제연구소, 국민연금 2021년 ESG평가 데이터 및 ESG이슈 리서치 제공기관 선정
	05. 28	제1회 대신경제연구소포럼 개최
	06. 14	경영위원회, ESG경영위원회로 변경
	06. 17	대신자산신탁, 자본금 500억 원 증자(1,500억 원)
	07. 01	대신경제연구소, KIS채권평가와 ESG 채권지수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08. 02	대신경제연구소, 물적분할 ㈜한국ESG연구소 설립
	08. 05	〈2021 통합보고서〉 발간
	11. 08	대신자산운용, 대신해드림로보 TDF 2030/2050 펀드 출시
	12. 20	위례WM센터 신설
	12. 24	8개 지점 WM센터로 명칭 변경 (동대구, 울산, 수지, 사당, 일산, 신촌, 노원, 명일동)
	12. 27	한국ESG연구소, 국민연금 2022년 ESG평가 데이터 및 ESG이슈 리서치 제공기관 선정
2022	01. 28	〈K-REITs 가이드북〉 발간
	04. 06	이어룡 회장 EY 최우수기업가상 알럼나이 스페셜 어워드 수상
	05. 27	탠덤, 파로스젠-경보제약 표적항암제 MPD-1 CDMO 체결
	05. 27	공모형 리츠펀드 잔고 1,000억 원 돌파
	06. 02	대신자산신탁, 대표이사 김송규 취임 디에스한남, 대표이사 이득원 취임 대신자산운용, 대표이사 진승욱 취임
	06. 10	디에스한남, 대신프라퍼티로 사명 변경
	06. 20	대신 창립 60주년 기념식 - 그룹명 변경 : Daishin Financial Group - 그룹미션 변경 : try Agile ways, create The Value - 사옥 명칭 변경 : Daishin343
	06. 28	대신자산운용, 대신343 K200 ETF 상장

편찬조직

편찬위원회

위원장	오익근	증권 대표이사
부위원장	진승욱	자산운용 대표이사
위원	김호중	증권 고객자산부문장
	김수창	증권 경영지원부문장
	강윤기	증권 전략지원부문장
	송종원	증권 경영기획부문장
	김봉찬	증권 브랜드전략실장
	유혜령	증권 인프라서비스부장
	윤태림	증권 홍보실장
	김선민	증권 인사부장

편찬 실무팀

팀장	공용학	증권 인프라서비스부
	양승관	자산운용 경영지원본부
	박종호	증권 인사부
	김대규	증권 홍보실
	서규철	증권 경영기획실
	오인환	증권 브랜드전략실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기획제작 ㈜다니기획
서울 강남구 학동로26길 78(논현동 157-27)
www.dani.co.kr | T. 02-545-0623
총괄책임 추기숙
기획총괄 최 진
기획·집필 최운주
기획진행 정은경, 권태원
교정교열 이새별, 장하린
아트디렉터 이동훈
편집디자인 김봉재, 유지연
촬영 장윤경(스튜디오 제이)
제작 사재웅

1962

Daishin Financial Group 60년사
History Book

인쇄일 2022년 11월 11일
발행일 2022년 11월 30일
발행인 이 어 룡
발행처 대신파이낸셜그룹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Daishin343)
www.daishin.com | T. 1588-4488
ISBN 979-11-6212-129-0